

'23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집

2024년판

고 용 노 동 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발 간 사(2024년판)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기관으로서 재해 근로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재결사례집은 우리 위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재결한 주요 사건들을 업무상 재해, 장해, 기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재해부터 특이하거나 의미가 큰 사례들을 엄선하여 68건을 수록하였으며, 재결사례집을 찾아보는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재결 사례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의 개요, 재결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재결사례집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해 근로자들에게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며, 최근 재결사례집은 온라인누리집(www.iaciac.go.kr)에도 게시하고 있으니,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올바른 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적정한 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정한 재결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재결사례집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조홍남



전체 목차

□ 제1부 업무상 재해 1

□ 제2부 장해 681

□ 제3부 기타 879

세부 목차

제1부 | 업무상 재해

| | |
|---------------------------|-----|
| 제1장. 업무상 사고 | 3 |
| 제1절. 업무수행 중의 사고 | 5 |
| 제2절. 출퇴근 중의 사고 | 40 |
| 제3절. 행사 중의 사고 | 86 |
| 제2장. 업무상 질병 | 105 |
| 제1절. 뇌심혈관계 질병 | 107 |
| 제2절. 근골격계 질병 | 282 |
| 제3절. 눈 또는 귀의 질병 | 362 |
| 제4절. 신경·정신 질병 | 391 |
| 제5절. 림프조혈계 질병 | 460 |
| 제6절. 간 질병 | 476 |
| 제7절. 직업성 암 | 488 |
| 제8절. 피부 질병 | 513 |
| 제9절. 진폐 | 532 |
| 제10절. 호흡기계 질병 | 542 |
| 제11절.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556 |
| 제12절. 기타 질병 | 570 |
| 제3장. 기타요양 | 619 |
| 제1절. 재요양 | 621 |
| 제2절. 진료비·요양비 | 634 |
| 제3절. 진료계획 | 663 |

세부 목차

제2부 | 장애

| | |
|------------------------|-----|
| 제1장. 눈의 장애 | 683 |
| 제2장. 귀의 장애 | 692 |
| 제3장. 코의 장애 | 711 |
| 제4장. 입의 장애 | 724 |
| 제5장. 두부 장애 | 735 |
| 제6장. 신경계통의 장애 | 751 |
| 제1절. 신경장애 | 751 |
| 제2절. 정신장애 | 766 |
| 제7장. 흉복부 장애 | 777 |
| 제8장. 체간의 장애 | 787 |
| 제9장. 팔·손가락의 장애 | 815 |
| 제10장. 다리·발가락의 장애 | 824 |
| 제11장. 복합 장애 | 845 |
| 제12장. 흉터의 장애 | 865 |

제3부 | 기타

| | |
|---------------------------|------|
| 제1장. 근로자성 | 881 |
| 제2장. 휴업급여 | 893 |
| 제3장. 해외출장자 | 905 |
| 제4장. 자해 | 930 |
| 제5장. 소멸시효 | 967 |
| 제6장. 수급권자 | 985 |
| 제7장. 청구인적격 | 997 |
|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 1005 |

제1부 업무상 재해

제1장 업무상 사고

제1절. 업무수행 중의 사고

1. [2023-2190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5
 - 시험 응시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023-2365 일부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8
 - 용접업무 중 불뚝이 튀는 사고로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의증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제2절. 출퇴근 중의 사고

1. [2023-310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40
 -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우회전하다가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사인미상)한 것을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2023-1070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61
 - 퇴근길에 가족의 사업장에 들러 일을 돕고 돌아오던 중에 난 사고로 요추 제2-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이 발병한 것을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퇴근 경로 이탈 및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2023-2865 취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73
 - 출근 지시가 없었음에도 본인 소유가 아닌 이륜차를 이용하여 휴일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절. 행사 중의 사고

1. [2022-2107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86
 - 회식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집 근처 길에 누워있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로 녹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이 발병한 것을 행사 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장 업무상 질병

제1절. 뇌심혈관계 질병

1. [2022-3281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107
 -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만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나 과로 등이 있었는지 여부
2. [2022-3947 기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122
 - 한파 작업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및 업무량 증가와 과로로 인해 배대동맥파리의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3. [2022-4216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141
 - 소음 등 유해한 작업 환경과 과로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
4. [2022-4547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159
 - 폭염의 환경에서 건설 현장 관리와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5. [2023-674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175
 -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6. [2023-1006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193
 -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원인을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30%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시간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2023-3245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12
 -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중량물의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때문인지 여부
8. [2023-3449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226
 - 아파트 설비 관련 유지 업무를 수행했던 고령의 재해근로자가 평소 잦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로로 사인미상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9. [2023-3523 취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242
 - 한랭한 옥외 환경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강도 높은 육체 업무로 인하여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0. [2023-370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58
 - 급성 I 형 대동맥박리 등의 상병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

제2절. 근골격계 질병

1. [2023-1223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82
 - 장기간 반복된 밸브 조립업무 수행으로 방아쇠수지증후군(우측 4수지)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2. [2023-1705 취소]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94
 - 냉각기 설치 관련 업무로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3. [2023-178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309
 - 장기간 쫓고려 앉는 자세로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이 청구인에게 발가락 굴곡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 | |
|---|-----|
| 4. [2023-2263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321 |
| - 실업팀 유도선수로 5년 이상 훈련하는 과정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병할 정도로 목 부위 신체 부담 누적이 있었는지 여부 | |
| 5. [2023-317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334 |
| - 약 11개월 동안 수행한 배관공 업무로 인하여 우측 극상근증후군 등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
| 6. [2023-3870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346 |
| - 형틀 목공 업무 수행으로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부분 파열 등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3절. 눈 또는 귀의 질병

| | |
|--|-----|
| 1. [2022-3486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362 |
| -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
| 2. [2023-1224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374 |
| - 저주파 의료기기 납땜 작업등의 업무를 실내에서 수행한 것이 광시증, 색소망막염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제4절. 신경·정신 질병

» 제1항. 신경 질병

| | |
|---|-----|
| 1. [2023-185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391 |
| - 반도체 포토 공정 중 유해물질(감광액, 현상액, 유기용제 및 기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파킨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
| 2. [2023-1876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405 |
| -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측 벨마비가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

» 제2항. 정신 질병

1. [2023-2123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419
- 적응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상사와의 불화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2023-2638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439
- 적응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절. 림프조혈계 질병

1. [2023-125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460
- 업무수행 중 유해 물질인 흉과 벤젠에 노출된 사실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이 발병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6절. 간 질병

1. [2022-4369 기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476
- 업무수행 중 유해 물질인 시클로헥사논에 노출된 사실이 간장질환으로 인한 급속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7절. 직업성 암

1. [2022-3414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488
- 다양한 소재의 보온재를 취급하며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실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발병 할 수 있는지 여부
2. [2023-3673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500
-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어 소세포폐암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절. 피부 질병

1. [2023-219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513
-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으로 다발 부위의 백반증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제9절. 진폐

1. [2023-912 기각]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532
 - 분진작업 이력으로 진단받은 진폐증이 진폐 보험급여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0절. 호흡기계 질병

1. [2023-2206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542
 - 분진 노출 시기와 진단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1절.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 [2023-3697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556
 - 폐건전지 등 납 폐기물의 운반 업무가 납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2절. 기타 질병

1. [2022-2552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570
 - 항공사 승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2. [2023-1681 일부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591
 - 약 36년간 기관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목소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성대용종(결절)과 목소리 장애가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3. [2023-2880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604
 - 취부와 용접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며 전리방사선과 용접 흠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이하선(침샘) 악성종양 및 경부림프절 전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3장 기타요양

제1절. 재요양

1. [2022-2688 취소]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621
- 치료 종결 후 족관절 탈구 등 관련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더욱 상태가 악화하여
족관절 유합술이 필요한지 여부

제2절. 진료비·요양비

1. [2023-1932 취소]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634
- 수술 후 응급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한 수술료(N1614020)와 마취료(L121102B)가 응급가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2. [2023-3479 취소]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643
- 말초신경 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에 시행되는 전기자극치료(마비근)를 화상 상병에 시행한 경우
에도 그 진료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2022-4433 기각] 요양비(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652
- 수술 후 골유합 진행 중인 상태가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절. 진료계획

1. [2022-3440 기각]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663
- 사고로 인한 척골 골절 등으로 요양 후 증상이 고정되어 진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2022-3816 취소]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 671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입원 요양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

제2부 장애

제1장 눈의 장애

1. [2022-4563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683
 - 우안 수정체 탈구 등의 신청 상병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 이후에 우안의 시야 장애를 추가로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장 귀의 장애

1. [2023-3019 취소]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692
 - 시멘트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1년 8개월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장 코의 장애

1. [2023-2664 취소]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711
 - 두부 손상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지연성 무후각증의 후각 장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입의 장애

1. [2022-3854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724
 - 사고로 인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으로 안면부 통증 및 저작장애가 있는 경우, 교합 상태와 치아 배열상태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5장 두부 장애

1. [2022-3044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735
 - 외상성 뇌출혈로 사지부전마비와 고도의 인지 저하, 인격변화가 확인된 경우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6장 신경계통의 장애

제1절. 신경장애

1. [2023-2720 취소]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751
 - 좌측 편마비 상태인 경우 근경직도평가 등을 통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절. 정신장애

1. [2023-1124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766
 - 불안, 불면, 우울, 무감감 등의 증상을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7장 흉복부 장애

1. [2022-3669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777
 - 간질성 폐질환으로 수술 후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8장 체간의 장애

1. [2022-2523 기각] 장애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787
 - 척주 기능장애와 척추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애를 서로 다른 부위 장애로 보아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2. [2023-3209 기각]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801 |
| - 도수 근력검사 결과에 따라 요추 신경근장해의 장해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9장 팔 · 손가락의 장해

| | |
|--|-----|
| 1. [2023-2599 기각]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815 |
| -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상 골절이 있는 경우, 팔 관절 운동가능영역 각도에 따라 장해 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10장 다리 · 발가락의 장해

| | |
|---|-----|
| 1. [2023-3487 기각]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824 |
| - 사고로 인한 발목 및 발가락 골절의 기능 장애와 동통 장애가 있는 경우, 능동적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11장 복합 장해

| | |
|---|-----|
| 1. [2022-4419 기각]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845 |
| - 사고로 우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복합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제12장 흉터의 장해

| | |
|--|-----|
| 1. [2023-2394 기각]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865 |
| - 사고로 코뼈 골절 등의 안면부 흉터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총 11cm 반흔이 확인 되어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로 결정된 경우, 신경 손상 및 변형장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3부 기타

제1장 근로자성

1. [2022-3273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881
 - 낙상사고를 당한 화물트럭 운전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장 휴업급여

1. [2022-4326 기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893
 - 수술 이후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장 해외출장자

1. [2023-1346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905
 - 해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출장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자해

1. [2022-4219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930
 -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하였는지 여부
2. [2023-2776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951
 - 경영악화 등 업무 관련 문제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투신 자살하였는지 여부

제5장 소멸시효

1. [2023-167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967
 -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후 행사한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제6장 수급권자

1. [2023-2082 기각]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985
 -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장 청구인적격

1. [2022-2940 기각] 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 997
 - 근로자가 아닌 법인에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1. [2023-1815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1005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가족 경영 사업장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제1부. 업무상 재해

제1장 업무상 사고

제2장 업무상 질병

제3장 기타요양



업무상 사고

제1절. 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절. 출퇴근 중의 사고

제3절. 행사 중의 사고

제1절 업무수행 중의 사고

1. [2023-2190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17.)

사건의 쟁점

시험 응시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진단받았으므로 출장 중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시험 응시는 복지 차원의 지원으로서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고 당일 근태 처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교육의 이수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청구인의 일련의 활동은 보험가입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포괄적인 지시 내지는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직무교육의 일환이므로, 시험 응시 후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19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11.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1.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한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8. 26. 사고로 진단받은 ‘상완골의 관절염기 골절(좌측),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RT,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골 머리의 골절, 천골의 골절, 치골의 골절, 양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외측 복사의 골절, 좌측 복사의 골절, 우측 복사의 골절, 늑골의 다발성 골절(Lt), 외상성 혈흉, 중족골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7. 원처분 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1. 22.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6. 5.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해당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응시료 외에 출장비나 교통비, 식대 등의 지급됨이 없었으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해당 시험을 응시하였다면 당일 근태 처리되어 별도의 대체 근무가 지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로 보이므로, 사업주 지시로 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고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청구인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에게 직무교육비를 지원하였으나 복지 차원의 지원으로 판단되고, 재해 당일 시험 응시에 대하여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과 당일 근태 처리내용 등을 고려하면 2022. 8. 26. 재해 당일 시험 응시 과정을 출장 중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2. 5.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입사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 해 6월 15일경 “2022년 4차수 치매 전문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24일에서 27일 사이에 이 사건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납부하였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같은 해 8. 26. ○○도 ○○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나.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최초로 취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극히 적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는 소속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관리할 수 있는 치매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익 증대로 이어지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육의 이수·시험 응시를 제안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자의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교육을 신청·이수·시험 응시하였다는 보험가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남아 있는 ‘치매 전문교육 신청 전산 매뉴얼’에 따르면 애초에 이 사건 교육 신청의 주체는 개별근로자가 아닌 ‘장기 요양 기관’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신청 주체인 장기 요양 기관은 전산 신청 과정에서 교육비 납부 일정, 금액, 교육 기간 및 시험 응시 일정·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치매 전문교육 스마트 e러닝 온라인 수납 안내”에 따르면 교육비 납부는 개별근로자가 로그인한 후 자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비 부담 주체는 개별근로자이나,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전산에 접속하여 교육비를 납부한 후, 보험가입자로부터 교육비 결제 금액을 받았는바, 입사한 지 1개월이 지난 신입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였다는 주장보다는 치매 수급자 관리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교육 세부 사항 안내에 따르면 시험 응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2022. 3. 29.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2-1호) 제12조 제1항 제3호가목 13)에서 ‘기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 요양 직무 관련 교육’을 근로시간 중에 참여하였으면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산정 및 지급기준 매뉴얼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 바로 알기」는 이 사건 교육이 공단에서 주관하는 장기 요양 직무 관련 교육에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육과 시험 응시는 청구인이 임의로 행한 것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가입자의 주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주장이다.

바. 직무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장 중의 재해로 인정한 동종의 결정례를 참고하여 이 사건도 ‘출장 중 재해’의 법리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고, 출장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 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는 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한의원 부설 재가복지장기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에서 보고 A고속도로로 귀원하다 부주의로 차 사고가 나서 치료 중”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연번 | 사업장명 | 취득 및 상실 일자 | 근무 기간 |
|----|----------|-----------------------------|-------------|
| 1 | (주)○○○지사 | 1995. 7. 25. ~ 1995. 8. 23. | 약 1개월 |
| 2 | ○○군청 | 2020. 1. 1. ~ 2021. 11. 1. | 1년 10개월 |
| 3 | ○○○○보호센터 | 2021. 11. 1. ~ 2022. 5. 4. | 약 6개월 |
| 4 | ○○한의원 | 2022. 5. 23. ~ | 재해일까지 약 3개월 |

3) 청구인이 재해 당일 응시한 시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 4차수 치매 전문교육”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과정”에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4차수 치매 전문교육 신청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6. 2.)

일부 발췌

- 교육 방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으로 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 운영: (6월) 신청, 교육비 납부 → (7월) 온라인 교육 → (8월) 시험실시
- 신청 방법: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온라인 교육(이론+실습): 7. 1.(금) 0시 ~ 7. 31.(일) 24시
- 시험실시: 8. 4.(목) ~ 8. 31.(수) 기간 중 1일 (시험시간 1시간 소요)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 전문교육장에서 시험실시...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온라인 100% 이수 (이론·실습 동시 진행, 설문 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 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 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 교육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1600-5661

〈 2022년 4차수 치매 전문교육 세부 사항 안내 〉

일부 발췌

1) 교육 신청 세부 사항

○ 교육과정 및 과목

| 해당 기관 | 구분 | 온라인 교육 | | 집합교육 |
|----------|----------------|--------------------|--------------------|------|
| | | 이론 | 실습 | 시험 |
| 프로그램 관리자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5차시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3차시 | 1시간 |

※ 온라인 교육 소요 시간: 프로그램관리자과정 (이론 19h, 실습 0.5h)

2) 교육비 납부 세부 사항

○ 교육비 및 환급금액

| 교육유형 | | 납부 금액 | 환급금액 |
|-------------------|---------------------|---------|---------|
| 방문 요양 과정, 시설과정 | 기본과목 포함 | 40,000원 | 진도율에 따라 |
| | 기본과목 제외(26,000원 제외) | 14,000원 | 상이 |
|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 | 9,000원 | 아래 참조 |

4) 시험안내

○ 근무시간 인정 여부

- 시험(집합) 응시와 관련하여 소요된 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온라인 교육은 불인정

* 월 기준 근무시간에 적용받지 않는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불인정

〈 2022년 4차수 치매 전문교육 세부 일정 〉

일부 발췌

| | |
|------------|--------------------------------|
| 연번 | 17 |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 교육 일정 및 번호 | 22-1-01-○○○ |
| 지역 | ○○도 |
| 주소 | ○○도 ○○시 ○○○로 ○○-○ ○○문화원 3층 ○○방 |
| 교육유형 | 프로그램 관리자(온라인) |
| 교육정원 | 30 |

| | |
|-------------|---|
| 교육 일자 | 2022. 8. 26. |
| 시험 시작/시험 종료 | 14:30 / 15:30 |
| 비고 | 평가시간(14:30~15:30) 대관 장소 위치안내 클릭-> https://blog.naver.com/○○(○○문화원 3층 ○○방, 치매 교육장) |

4)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하여, 2023. 8. 26. 자 ○○소방서 △△119지역대의 구급활동일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일시: 2022. 8. 26. 16:21
- 현장 도착: 2022. 8. 26. 16:38
- 환자 발생유형: 교통사고
- 구급대원 평가소견
 - 고속도로 교통사고 출동. 차량 우측으로 전복된 상태. 현장 도착한바 운전석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며 의식 있음. 양쪽 발목 통증 호소 중. 양쪽 발목 골절 의심되며, 오른쪽 발목 5cm 열상으로 출혈(+), 롱보드 사용하여 구조 후 이송함. 이송 중에 허리통증 호소. 사고 당시 기억 소실 있으며, 안전띠(+), 에어백(+), 부상 내용 양쪽 발목 골절 의심, 오른쪽 발목 5cm 열상, 왼팔 골절 의심, 허리 가슴 통증. 왼손 가운데손가락 통증 및 청색증 발견, 환자 차량이 다른 차 후미를 충돌

5) 청구인의 사고 차량 보험사인 ○○○○보험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에 기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 사항
 - 사고 차량: ○○○○조○○○○
 - 사고 형태: 차대차
 - 사고일시: 2022. 8. 26. 17:20
 - 경찰서 명: 미신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없음)
 - 사고내용: 후미 추돌(청구인이 상대방 차량의 후미를 충돌)

- 사고장소: ○○도 ○○군 ○○면 A고속도로 서울 방향(상) ○○휴게소 입구
- 피해 내용
 - 피해자: ○○○○
 - 피해자 구분: 자차 운전자
 - 진단내용:

불안정성 골반 골절(수술 시행),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 좌측 견갑골 골절(수술 시행)

6) 이 사건 재해 관련하여, 청구인과 보험가입자가 원처분기관에 각각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 경위 등 본인 확인서, 청구인 〉

- 청구인의 직종 및 담당업무는?
 - 사회복지사로 근무. 수급자 방문
- 2022. 8. 26.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응시하게 된 경위는?
 - 사회복지사 근무를 하려면, 치매 환자 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
- 2022. 8. 26. 응시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은 소속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거 응시하거나 수료하는 것이었는지?
 - 요양센터장 (한의원장) 님의 지시
- 2022. 8. 26. 응시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 당일 근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 당일 연차. 평일 시험을 응시하고 토요일에 근무 처리해 주겠다고 함
- 청구인이 2022. 8. 26. 응시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의 응시료가 있는지
 - 응시료 있음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인터넷 교육은 센터에서 응시료를 지출하였고, 시험을 보았음
- 청구인이 응시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강릉에서 치르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이었는지, 사업장에서 제공하거나 본인 차량 이용 후 출장비나 교통비 보조 등이 추후 이루어지는 대상이었는지, 근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알려주세요

- 자가용 이용. 연차 사용은 토요일에 대체 근무해 주겠다고 함
- 청구인은 2022. 8. 26.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 시험 후 소속 회사에 귀원 예정이었는지
-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귀가 예정

[이하 확인서 하단 청구인 자필 기재 내용]

- ※ 센터장이 지시 내린 것이 아니라고 대표자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강료 지출은 직무 차원이 아니고 복지 차원이라 하며, 퇴사(사표) 처리하겠다고 하여 보류 중입니다.

〈 업무관련성 확인서, 보험가입자 〉

- 청구인의 직종 및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요양센터 수급자 상담 및 관리
- 청구인은 “2022. 8. 26.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에서 보고 A고속도로로 귀원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남”이라는 재해 경위로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 교통사고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사고 당일은 휴가를 신청한 날이며, 귀원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
- 청구인이 응시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은 무엇인지
 - 사회복지사 업무 중 5등급(치매) 수급자 관리하기 위한 자격시험임
- 청구인이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응시하게 된 경위는
 -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이 취업에 감점 요인은 아니지만, 취업 후 센터의 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임. 일반적으로 취업 후에라도 (치매)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 교육 및 시험을 치름
- 청구인이 2022. 8. 26. 응시(참석)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은 청구인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 현재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5명 중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에 통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2명임. 위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만 5등급(치매)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음. 5등급을 제외한 1~4등급 수급자에게 필요한 자격은 아님

- 청구인이 2022. 8. 26. 응시(참석)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의 응시료가 있는지, 있다면 응시료의 지원이 사측에서 제공되었는지?
 - 2022. 6. 27. 교육비 49,000원이 지급되었음. 본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 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의 비용도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드림
- 위 문항과 관련하여 2022. 8. 26.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은 귀사의 업무지시에 의거 응시하거나 수료하는 것이었는지요? 귀사의 업무지시에 의거 응시하거나 수료하는 것이었다면 근거자료를 회신해 주세요.
 -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제가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음
- 위 문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2. 8. 26.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에서 보고 A고속도로로 귀원 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남”이라고 함. 2022. 8. 26. 청구인의 근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출장이나 교육으로 되어 있는지? 재해 당일의 근태 처리와 관련하여 2022. 8. 25.부터 26일까지 근무일지 등 내용이 있다면 같이 회신해 주세요.
 - 2022. 8. 25.(목) 18시경 휴가 사용 신청을 하였으며, 토요일 대체 근무를 지시 하였음. 실제로 8. 27.(토) 근무 일정이 잡혀 있었음. 2022. 8. 26은 근무일지에는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출근부에 기록되지 않았음. 8월 연차는 8. 10. 여름휴가로 사용되었음. 사회복지사 출근부를 함께 제출함
- 위 문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2. 8. 26.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 후 귀사에 귀원 예정이었나?
 - 아님. 구두로 휴가 신청하였으나, 출근하지 않는 날임. 따라서 귀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
- 청구인이 응시(참가)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에서 치르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이었나? 사업장에서 제공하거나, 본인 차량 이용 후 출장비나 교통비 보조 등이 추후 이루어지는 대상이었는지? 근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알려주세요.
 -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 교육비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급되지만, 이외의 차량 및 출장비, 교통비, 식대 등은 지급되지 않음

○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 2022. 9. 5. 오전에 보호자가 내원하여, 치료비(간병비 포함) 때문에 자동차보험(자손 5,000만원 가입됨을 말하였음) 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신청할 테니, 협조를 구한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산재 신청 시, 사실만 그대로 알리겠으며, 없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

7) 2022. 11. 22.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에 적시된 요양 불승인 결정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22. 5. 23. ○○도 ○○군 소재 ○○한의원 부설 재가 복지 장기 요양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소속 회사에 휴가를 내고 2022. 8. 26.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을 ○○에서 보고 A고속도로로 귀원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남”이라는 재해 경위로 이 건 산재 요양신청서(출장 중 재해)를 제출하였음
- 동 재해에 대하여 제출된 요양신청서와 병원 진료기록,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소속 사업장 조사자료와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응시한 동 시험은 치매 환자의 6개 등급(인지 지원등급, 5~1등급) 중 5등급의 치매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는 5명의 사회복지사 중 2인이 당해 시험에 통과하여 근무하고 있고, 5등급을 제외한 그 외 등급의 수급자 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은 아니라고 함
- 소속 사업장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거 해당 시험에 응시토록 한 바는 없었다는 소속 사업장의 답변임
- 청구인은 8월 연차를 2022. 8. 10. 사용한 사유로, 2022. 8. 26. 휴가를 올리면서 2022. 8. 27. 토요일에 대체 근무를 지시받았고,
- 2022. 8. 26. 시험 응시 일이자, 이 건 사고발생일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시험 장소가 소재한 ○○도 ○○시에 다녀왔고,

- 당해 일에 근태 처리가 출장으로 처리되거나, 출장비나 교통비, 식대 등이 소속 회사로부터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2)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사업장 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거 해당 시험을 응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동 지시한 바가 없다는 진술이고,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응시료 외에 출장비나 교통비, 식대 등의 지급됨이 없었던 점,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거 해당 시험을 응시하였다면 당일 근태 처리되어 별도의 대체 근무가 지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교통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고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위 주장 외에 달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함

8) 청구인은 심사청구 후, 청구인이 재해일에 응시한 시험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근거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과 배포자료를 심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한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개정 2022. 3. 29. 공고 요양기준실-제2022-1호)

- 일부 발췌

제12조(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1) ~ 12) 생략

13) 기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 요양 직무 관련 교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바로 알기 〉

(2021년 12월 기준)

- 일부 발췌

Ⅲ.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1-4. 근무 인원수 세부 산정 방법

○ 근거 「근로기준법」, 「세부 사항」 제12조(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 등

○ 교육 시간

· 공단 및 지자체 교육은 모두 인정(치매 전문교육 시간 포함)

나. 우리 위원회의 추가조사 협조 요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2023. 10. 25. 자회신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23. 10. 24.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교육 이외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교육비 지출내용과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시험)”의 소속 근로자 이수 현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2) 이 사건 사업장의 장기요양기관 명칭은 ‘○○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센터’이고, 제공서비스(급여 종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록 및 방문 요양’이며, 2020년 정기 평가 결과 평가등급은 ‘A(최우수) 등급’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 11. 17.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신청소견서, ○○기독병원, 2022. 9. 18. 》

- 재해 일자: 2022. 8. 26.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 경위
 - SUV 운전자로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60km 속도로 충돌했다고 함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좌측 팔꿈치가 아파요. 좌측 골반이 아파요. 양측 발목이 아파요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골절 소견 관찰됨
- 수술: 있음
수술명: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일: 2022. 9. 13. 본원

나. 2023. 6. 5.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재해 당일 시험 응시 과정을 업무상 출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 심사결정 제○○○호 심사결정서 》

- 청구인의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결과는,
 - 「청구인은 2022. 8. 26. 휴가를 사용하여 ○○에서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시험(교육)에 응시 후, A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진단된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험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순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출장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직무교육비를 지원하였으나 복지 차원의 지원으로 판단되며, 재해 당일 시험 응시에 대하여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없었고 당일 근태 처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 8. 26. 재해 당일 시험 응시 과정을 출장 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2022. 8. 26.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음.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관련 법령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 요양 직무 관련 교육은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장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 바로 알기」에서 자격취득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도 “치매 전문교육 시간”은 장기 요양 직무 관련 교육 시간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육은 개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직무교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교육은 5등급 치매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보험가입자도 센터 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급여 인상 등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자마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개인적인 유인 요소는 적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사회복지사 8명 중 7명이 이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제반 사정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의 재해 당일 근태 처리 내용은 근로자의 노무에 대해 지배·결정권을 보유하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2023. 8. 26.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적 소견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교육의 이수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은 보험가입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포괄적인 지시 내지는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직무교육의 일환이므로, 청구인이 2022. 8. 26. 시험을 응시하고 귀가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인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적용기준, 교육 대상, 절차·방법 등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 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을 따른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 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근무 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제51조(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 ①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 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 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 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 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 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는 절사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국민건강 보험공단 요양기준실-제2022-1호)】

제4조(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①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무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 보호사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이 있다. 다만, 직무교육 실시 전에 해당 요양보호사가 퇴직하는 경우 직무교육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2. 직무교육 신청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직무교육 신청을 하거나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직무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 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13) 기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 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삭 제

마. 고시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주·야간 보호 또는 단기보호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인정한다.

바. 다목의 교육 시간에는 자격취득 또는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22조의2(치매전문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 및 교육 대상별 이수 과정) ① 고시 제77조에 따라 치매전문교육과정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문요양 과정 : 기본과목, 방문요양과목

2. 시설과정 : 기본과목, 시설 과목

3.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기본과목,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 과목, 프로그램 관리자과목

4.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 과목별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과목 : 40시간
2.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 과목 : 20시간
3.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13시간

③ 제1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과목별 이론 교육 차시 및 집합교육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목별 교육 방법 및 시간(차시)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과목 : 이론 23차시, 실습 3시간
2.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 과목 :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3.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이론 5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④ 종사자별 이수해야 하는 제1항의 치매전문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장 및 프로그램관리자 : 제1항제3호
2. 요양보호사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

⑤ 고시 제17조제5항의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및 같은 조제6항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는 제1항제1호의 과정을, 고시 제30조제7항 및 제72조제1항의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종사자가 시설과정 또는 방문요양 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라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2023-2365 일부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9. 7.)

사건의 쟁점

용접업무 중 불뚱이 튀는 사고로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의증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용접 중 불뚱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로 우안 시신경 장애 등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재해 경위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작아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사고 후 우안시력이 사고 전 실시한 건강검진 시력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은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방사선망막증의 합병증으로 판단 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에 한하여 원처분을 일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36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0. 6. 사고로 진단받은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의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1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3. 2. 20.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6.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 경위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작아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 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2022. 10. 6. 14:00경 트레스 제작을 위해 용접을 하던 중 불뚝이 튀어 오른쪽 눈에 들어갔고, 깜짝 놀라 손으로 누르며 제거하려고 비볐으나 눈은 계속 아팠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 하청 대표인 김○○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현장에 일이 많다. 알아서 해줄 테니 일하자.”라고 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근무하였고, 며칠 뒤 함께 ○○에 소재한 안과를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으며, 이후 “내가 알아서 산재든 공상이든 받게 해줄 테니 기다려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 만약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눈을 다쳤다면 김○○ 대표가 계속 일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병원에도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와 같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년에 각막의 이물로 2차례 치료한 이력이 전부이고,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도 좌우 시력이 0.8, 0.9로 정상이었으며, 주치의 또한 사고에 의한 상병임을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 10. 6. 14:00경 트레스 제작을 위해 용접을 하던 중 불뚝이 오른쪽 안구에 튀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경위에 대한 증거로 동료 조○○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서 주요 내용

- 2022. 10. 6. ○○ ○○동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용접 불뚝이 튀어 청구인이 김○○ 사장에게 아프다고 산재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여 동료로서 안타까움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다. 청구인은 신청 상병으로 2023. 2. 9. 우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안레이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안과의원〉

○ 2020. 2. 14.

- C.C.: 이물감, 어제
- Diagnosis: Corneal FB

○ 2022. 10. 7.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 2022. 10. 17.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대학교 ○○병원〉

○ 2022. 10. 19.

- C.C.: 우안 용접하다가 다친 이후 잘 안 보여요. 2주 전
- O: 2주 전
- Refer: 시신경 장애, 녹내장 의심

초진시력

| | 시력 | Sph. | Cyl. | Axis | 시력 |
|---|-------|------|------|------|----|
| R | 0.04 | | | | |
| L | 0.8-1 | | | | |

초진교정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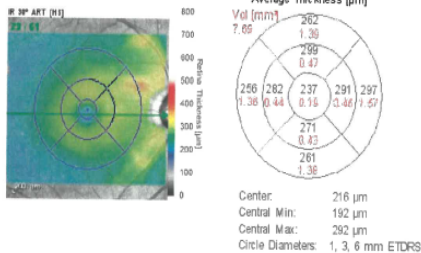
| 날 짜 | | Sph. | Cyl. | Axis |
|------------|---|-------|-------|------|
| 2022-10-19 | R | +0.00 | -1.00 | 80 |
| | L | +0.50 | -1.00 | 100 |

시력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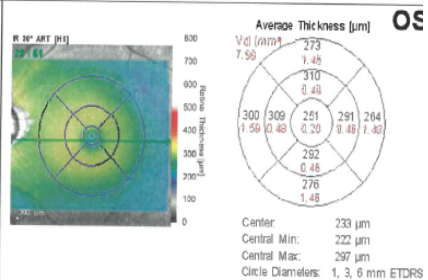
Auto Refractometer

| | | | | | | | |
|----------|----------|-------|-----|------|-------|-------|-----|
| Date : | 20221019 | | | PD = | 63.5 | | |
| <D> | S | C | A | <L> | S | C | A |
| | +0.00 | -1.00 | 80 | | +0.50 | -1.00 | 100 |
| | +0.00 | -1.00 | 80 | | +0.50 | -1.00 | 100 |
| | +0.00 | -1.00 | 80 | | +0.50 | -1.00 | 100 |
| * | +0.00 | -1.00 | 80 | * | +0.50 | -1.00 | 100 |
| | S.E. | -0.50 | | | S.E. | +0.00 | |
| KRT.DATA | | | | | | | |
| <D> | D | MM | A | <L> | D | MM | A |
| H | 43.75 | 7.69 | 90 | H | 44.00 | 7.68 | 90 |
| V | 45.00 | 7.51 | 180 | V | 45.25 | 7.48 | 180 |
| AVE | 44.50 | 7.60 | | AVE | 44.75 | 7.58 | |
| | CYL | -1.25 | 90 | | CYL | -1.25 |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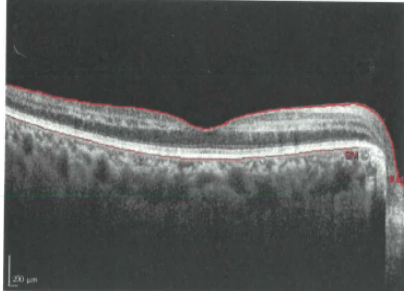
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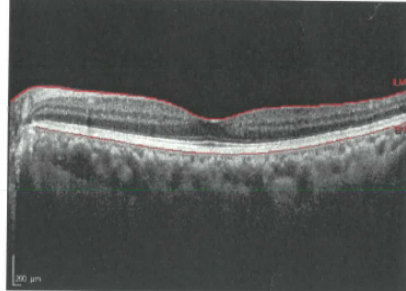
OS



OCT 3P (3.0 mm) ART (1) Q: 38 ESI (H)



OCT 3P (3.0 mm) ART (1) Q: 38 ESI (H)



○ 2023. 2. 20.

| 시력(R) | 시력(L) | 안압(R) | 안압(L) |
|-------|-------|-------|-------|
| 0.04 | 1.0 | 18 | 19 |

Auto Refractometer

| Date : 20230220 | | | | PD = 61.5 | | | |
|-----------------|-------|-------|-----|-----------|-------|-------|-----|
| <D> | S | C | A | <L> | S | C | A |
| | +0.00 | -2.00 | 85 | | +0.75 | -1.00 | 90 |
| | +0.00 | -2.00 | 85 | | +0.75 | -1.00 | 90 |
| | +0.00 | -2.00 | 85 | | +0.75 | -1.00 | 90 |
| * | +0.00 | -2.00 | 85 | * | +0.75 | -1.00 | 90 |
| | S.E. | -1.00 | | | S.E. | +0.25 | |
| KRT.DATA | | | | | | | |
| <D> | D | MM | A | <L> | D | MM | A |
| H | 43.75 | 7.70 | 85 | H | 44.00 | 7.68 | 90 |
| V | 45.00 | 7.51 | 175 | V | 45.00 | 7.48 | 180 |
| AVE | 44.50 | 7.61 | | AVE | 44.50 | 7.58 | |
| | CYL | -1.25 | 85 | | CYL | -1.00 | 90 |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지 상 2020년에는 좌안 1.2, 우안 1.0, 2022년에는 좌안 0.8, 우안 0.9로 각각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최근 10년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병 | 내원일 | 의료기관 | 횟수 | 진료내용 |
|----|----------------------|----------|----|--------------------|
| 전 | 2020. 2. 14.~17. | ○○안과의원 | 2 | 각막의 이물 |
| 후 | 2022. 10. 7. | ○○안과의원 | 1 | 결막낭의 이물 |
| | 2022. 10. 17.~19. | ○○안과의원 | 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의 장애 |
| | 2022. 10. 28. | ○○안과의원 | 1 | 상세 불명의 망막 장애 |
| | 2022. 11. 23.~12. 7. | ○○대 ○○병원 | 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의 장애 |
| | 2022. 12. 5. | ○○안과병원 | 1 | 망막 부종 |

사. 보험가입자는 사고 후 3개월이 지나 하청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사고 사실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2022. 11. 30. ○○대학교 ○○병원) 〉

- 병명: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의심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2. 10. 19. ○○안과
- 본원 최초 도착일: 2022. 10. 19.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용접하다 우안 다친 이후 잘 안 보인다고 함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우안 시력 저하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안 시력 저하
- 소견: 2022. 11. 23. 마지막 진료 시 우안 나안시력 0.06이고, 안저검사상 우안 유리체 출혈, 시신경유두 출혈 관찰되어 빛간섭단층촬영혈관조영술상 미세혈관 탈락 소견 보임
- 진료 예상 기간
 - 통원 2022. 10. 19.~2023. 1. 18.(13주 / 우안 시력, 안압 및 유리체 출혈 여부 경과 관찰)

〈 진단서(2023. 2. 10. ○○대학교 ○○병원) 〉

- 병명: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녹내장, 우안 백내장
- 소견: 2023. 2. 9. 우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시행함

〈 진단서(2023. 3. 20. ○○대학교 ○○병원) 〉

- 병명: 우안 방사선 망막병증,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우안 백내장
- 소견
 - 2022. 10. 19. 초진 시 2주 전 용접불꽃에 의해 우안을 다쳤다고 진술함
 - 검사 결과 형광안저촬영 소견에서 심한 radiation retinopathy(빛에 의한 망막 손상)가 확인됨
 - 예후는 불량하며 5개월 이상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는 회복가능성이 희박함

〈 진단서(2023. 3. 30. ○○안과의원) 〉

- 병명: 결막낭의 이물, 상세 불명의 망막장애
- 진단 연월일: 2022. 10. 7.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환자는 2일 전 용접 이후 우안의 이물감을 주소로 내원하시어 우측 상안검 내측의 이물을 제거하시고 이후 시력 저하가 발생하여 실시한 검사상 우안 시력 저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검사 위해 상위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 1(안과)
 - 진료기록지상 재해 경위를 고려한 결과 신청 상병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안과)
 - 우안 시신경 장애, 유리체 출혈,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의증은 확인되나 재해 경위와 무관할 것으로 보임

다. 우리 위원회에 자문의는 신청 상병 중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안과)
 - 청구인은 2022. 10. 6. 용접작업 중 우안에 불뚝이 튼 사고 후 2022. 10. 7. ○○안과에서 우안 결막 이물 제거 받았고, 2022. 10. 17. ‘2022. 10. 10.경 발생한 우안의 시력 저하’로 우안 시신경병증 의증, 양안 녹내장 의증 진단되어 ○○대○○병원 의뢰됨, 2022. 10. 19. ○○대○○병원 초진 시 우안 유리체 출혈 진단받았고 경과 관찰 중 우안 유리체혼탁 증가하여 동병원에서 2023. 2. 9. 우안 유리체출혈, 백내장으로 우안 유리체절제술 및 수정체초음파유화술, 인공 수정체삽입술 등을 시행받았음 확인됨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해 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 상병 중 우안 시신경장애 및 유리체출혈은 방사선망막증의 합병증으로 재해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녹내장의증은 양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 2022. 10. 19. 초진 시 안저사진에서 우안의 면화반 및 유리체출혈, 시신경출혈 등의 소견과 함께 이후 OCT 및 형광안저촬영에서 관찰된 망막손상의 소견 등은 우안의 방사선망막증에 부합하며 용접작업과 우안의 방사선망막증이 인과관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신경장애(시신경출혈),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 단, 방사선 노출 후 방사선망막증의 발생 시점은 다양하므로 2022. 10. 6.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용접을 시행함이 확인되므로 2022. 10. 6. 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우안 시신경장애 및 유리체출혈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원처분기관은 요양기관의 주치의가 진단한 상병 명과 재해 경위, 상해 부위, 시간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에 대하여 요양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청구인은 2022. 10. 6. 용접 중 불뚱이 우안에 들어가는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과 의무기록에서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 인지되고, 사고 후 이물 제거 후에도 계속하여 시력 저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고 전 실시한 2022년 5월 건강검진에서 우안 시력이 0.9였다가 사고 후 0.06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22. 10. 19. 자 안저사진에서 우안의 면화반 및 유리체 출혈, 시신경 출혈 소견 확인되고, 이후 OCT 및 형광안저촬영에서 관찰된 망막 손상의 소견 등은 우안의 방사선망막증에 부합 하며, 용접 작업과 우안의 방사선망막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의 경우 방사선망막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그러나 ‘녹내장 의증’은 발병 특성상 재해 경위와 무관하고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우안 시신경 장애, 우안 유리체 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2절 출퇴근 중의 사고

1. [2023-310 기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17.)

사건의 쟁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우회전하다가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사인미상)한 것을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인이 사인미상 점, 재동 페달이 작동되지 않았고 핸들이 우 조향 상태였던 점 등에 근거하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려우며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는 경우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경찰서 조사 결과 및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 전에 이미 개인적인 요인으로 심장질환 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는 경우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10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5.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1. 9. 11.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 ○○시 ○○동 소재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이후 2021. 9. 13.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2. 4. 11.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5. 26.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과 2022. 12. 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 1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1) 전 구간에서 제동 페달이 작동되지 않았고 핸들 우 조향 상태였다는 경찰서 EDR 분석내용이 확인된다.

2)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사인 미상’으로 판단된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이 있고, 청구인의 당뇨, 고지혈증 이력이 확인되며, 부검 소견상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 관찰되었고 골절 등 손상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뇨·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부검감정서상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심장에 심근섬유화 의심 소견이 확인된다.

2) 또한, 폐·간·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고, 신체에 외상에 의한 골절 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사고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DR 분석서상 “전 구간에서 제동 페달이 작동되지 않았으며, 전 구간에서 핸들 우 조향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는 결론 외에 안전운전 의무위반의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다.

3) 아울러,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재해근로자에게 당뇨 기왕력이 있었다는 판단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2) 사고 동영상 및 EDR 분석내용의 경우,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까지는 정상 주행이었던 점에 비추어 우회전 이후 1·2초 사이에 재해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고(경찰, 검찰의 판단), 차량의 기계적 결함의 가능성도 있기에 사고원인을 심장질환 발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안전운전 의무위반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의 경우, 사고원인은 별점이 부과되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므로 심장질환이 아닌 재해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부검감정서 등에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가능성(익사)도 존재하고, 사망사고 3개월 전 병원 검사 결과 혈압, 당뇨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단정하기 어렵다.

5) 사고사 여부에 대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누락되었고, 심사기관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데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6) 재해근로자의 사고원인으로 추정한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은 경찰, 검찰의

공적 판단과도 배치되고, 사망 원인으로 추정한 급성심장사의 경우 국과수뿐만 아니라 심사기관의 2차 사인 미상 상병 확인 자문 결과에서도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가능성(익사)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 보험회사들도 공적 판단 및 병원 소견 등에 근거해서 예외 없이 질병 사망이 아닌 재해 사망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과 기각 결정은 부당한 처분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2021. 9. 11. 17:06경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소방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측 경계석을 타고 넘어 ○○천 아래(6m)로 추락하여 차량이 하천에 전복되었고, 이후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고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 적시된 근로 내용 및 이전 직력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 내용 및 직력 등
 - 채용 일자: 2019. 7. 1.
 - 수행 업무: 배관공사
 - 통상 근무 형태: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 근로 형태: 고정주간 근무
- 이전 직력
 - 2015. 6. ~2019. 6. / ○○종합건설 등 / 배관공사 / 고용보험
 - 2003. 5. 16. ~2003. 6. 29. / ○○플랜트 / 배관공사 / 고용보험
 - 2002. 5. 9. ~2003. 3. 31. / (주)○○기공 / 배관공사 / 고용보험
 - 2000. 4. 2. ~2000. 6. 1. / (주)○○공영 / 배관공사 / 고용보험

다.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 적시된 업무 내용 및 발병 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 내용

(1) 근무일: 주 5일제 근무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주말 및 연장근무가 전날 팀장 회의에서 결정됨

(2) 근무시간: 08:00~18:00

※ 17:00~18:00 1시간은 1일 연장근무 시간으로, 당 회사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퇴근하므로 연장근무 1시간을 별도 근로자에게 부여함

(3) 담당업무: 소방설비에 관여되는 배관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4)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 오전 10:00~10:30, 점심 12:00~13:00, 오후 15:00~15:30

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1) 사고 당일은 ○○ 현장의 주말 근무가 있었던 날로, 16:30분 경에 작업 현장에서 철수하여 사무실로 복귀, 17시경 차량을 타고 퇴근하던 중 ○○천 아래(6m)로 추락하여 하천에 차량이 전복된 사고임

(2) ○○경찰서 사고 담당자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 수 없고 EDR 분석서상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음을 확인(블랙박스 복구 불가)

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1) 발병 전 7일 중 6일 동안 50시간 근무(야간근무 0시간), 일상 업무보다 30% 미증가

(2) 발병 전 1주일 근무 내역

- 2021. 9. 10.: 9시간 30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 2021. 9. 9.: 9시간 30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 2021. 9. 8.: 9시간 30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 2021. 9. 7.: 9시간 30분 근무(야간근무 0시간)
- 2021. 9. 6.: 8시간 근무(야간근무 0시간)
- 2021. 9. 5.: 휴무
- 2021. 9. 4.: 4시간 근무(야간근무 0시간)

라. 발병 전 4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1) 28일 중 24일 동안 194시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48시간 30분 근무 (주당 야간 근무 0시간)

(2) 발병 전 4주간 근무 내역

- 2021. 9. 4.~2021. 9. 10.: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50시간(야간근무 0시간)
- 2021. 8. 28.~2021. 9. 3.: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48시간 30분(야간근무 0시간)
- 2021. 8. 21.~2021. 8. 27.: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49시간 30분(야간근무 0시간)
- 2021. 8. 14.~2021. 8. 20.: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46시간(야간근무 0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마.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1) 84일 중 76일 동안 주당 평균 50시간 45분 근무(주당 야간근무 0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

(2)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확인 내용

- 재해근로자의 휴대폰 사용 내역이 없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재해 근로자는 평상시 가정적인 사람으로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퇴근 후 귀가한다는 보험가입자, 동료 근로자, 가족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사적인 약속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이 2021. 11. 8.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시 제출한 보험가입자 확인서에 따르면 사고 전날(2021. 9. 10.) 14:00에 백신접종(2차)을 하였다고 함

라.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용과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진료 내용(재해 발생 이전 과거 10년간)
 - 2021년: 2형 당뇨병(1회), 고지질혈증(2회)
 - 2020년: 신경부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20회)
 - 2018년: 화농성 중이염(12회), 고막의 외상성 파열(2회)
- 일반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2017. 5. 2. 검진: 중성지방 278/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지금까지 평생 중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음. 지금은 끊었음. 총 20년 하루 20개비/술을 마시지 않는다.
 - 2019. 2. 23. 검진: 총콜레스테롤 250/LDL 168/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지금까지 평생 중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없음/술을 마시지 않는다.
 - 2021. 4. 20. 검진: 공복혈당 128/정상B(비만 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담배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총 25년 하루평균 20개비, 끊은지 13년/술을 마시지 않는다.

마. 심사기관에서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와 관련한 동료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10. 13. 소속 사업장 직원 “신○○에게” 유선 확인한바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에 신체의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으며 평소에도 신체의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다고 함

바. 재해근로자의 교통사고 관련 경찰서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제2021-○○○○호)

- 사고 차량: 승용차(소유자: ○○○)
- 발생일시: 2021. 9. 11. 17:06
- 발생 장소: ○○남도 ○○시 ○○길 18 ○○천 내

- 사고유형: 차량단독
- 사고원인: 안전운전 의무위반
- 사고내용: ○○○ 승용 차량이 ○○소방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타고 넘어 화단을 가로질러 ○○천 아래로 추락한 후 하천 안쪽에 전복되었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사망한 사고임

나. ○○경찰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2)_내용 일부 발췌

- 발생개요: 피혐의자는 2021. 9. 22. 17:06경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소방 방면에서 같은 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측 경계석을 타고 넘어 화단을 가로질러 ○○천 아래(6m)로 추락하여 하천에 전복되었고 이후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고임

다. ○○경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_내용 일부 발췌

- 사고유형: 차량단독
- 현장 상황
 - 기상상태: 맑음
 - 노면상태: 건조
 - 도로형태: 교차로부근
 - 도로선형: 직선 평지
 - 제한속도: 50km 이하
 - 사고 직전 속도: A 21km~30km
 - 교통장애: 불명
 - 음주운전: 정상운전
- 사고 유발 원인
 - 인적 유발요인(운전자): 불명
 - 기타 차량적 요인: 없음
 - 도로 환경적 유발요인: 없음

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 및 메모리 카드 감정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메모리카드들을 분석한 결과, 메모리카드에서는 의뢰기관에서 지목한 시간대(2021. 9. 11. 17:06[시:분])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메모리카드들에 기록된 마지막 시간대 영상 정보는 2021년 2월 27일자 영상이나, 메모리카드에 기록된 시간정보와 실제 시간은 상이한 것으로 추정됨

마. 사고차량의 교통수사 EDR 분석서_내용 일부 발췌

- 분석 차량: ○○○○호 ○○○(2012년식)
- 분석 결과
 - 분석 차량은 -5.0초부터 -1.0초까지 15km/h~37km/h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1/0초에 엔진스트로벨브 열림량이 90%로 급격하게 증가된 후 -0.5초에 차량의 속도가 72km/h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분석 차량은 전 구간에서 제동페달 및 ABS는 작동되지 않았으며, 전 구간에서 핸들 우 조향 상태였다.
 - 분석 차량의 충격 당시 속도는 86km/h였다.

사. 재해자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불송치한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부검 감정서 등으로 피의자 ○○○의 차량이 단독으로 추락한 교통사고임이 확인되었고, ○○병원 의사 ○○○ 발급 시체검안서 및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부검감정서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다.
- 유족은 피의자 ○○○이 차량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에 대해 다른 이의가 없고, 본 건으로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따라서, 본 건은 본인 단독 사망사고가 명백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아.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출퇴근 중의 사고)에 의한 재해임을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관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의 출퇴근 경로에 관한 관계인 진술

- 보험가입자 진술: 재해근로자는 평상시 자가용으로 출근하였으며, 사고 당일 평소 처럼 8:00 출근하여 17:03경 퇴근함
- 청구인(재해근로자의 배우자)의 진술: 재해근로자의 자택은 ○○동 ○○아파트 ○○동 ○○호이며 평소 주 5일 근무지만 주말 근무도 종종 있는데 주간 근무이며 출근은 ○○아파트에서 6시쯤 출근해서 17:30 정도 퇴근함. 혼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음. 사고로 발견된 지점이 평소와 다른 출퇴근 길에 위치하고 있음

(나) 위 관계인 진술과 회사 및 자택(주거지) 주소 참고 시 재해근로자는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으며, 재해근로자가 퇴근 시 통상의 경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출발장소: 회사(○○도 ○○시 ○○3로 ○○ (합)○○소방)
- 도착장소: 자택(○○도 ○○시 ○○3길 ○○, ○○아파트 ○○동-○○호)
- 소요 시간 및 거리(약 16분 8.9km)
- 카카오맵을 통한 경로 확인(회사 → 자택)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다) 2021. 9. 11. 재해 당일 재해근로자가 운전한 차량의 이동경로

- 출발장소: 회사(○○도 ○○시 ○○3로 ○○ (합)○○소방에서 17:03경 출발)
- 사고장소: ○○도 ○○시 ○○길 18 ○○천 내(17:06 경 사고 발생)
(출발장소인 회사로부터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임)
- 카카오맵을 통한 경로 확인(회사 → 사고장소)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라) 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재해 당시 재해근로자의 퇴근 방법 및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으로 확인됨(경로의 일탈이나 중단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자. 청구인과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재해근로자의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체검안서 등 기초 확인 사항

1) 시체검안서((의)○○재단 ○○병원)

가) 사망일시: 2021. 9. 13. 12:44 이전추정

나) 사망 장소: 기타(하천)

다) 직접사인: 미상

라) 그 밖의 신체 상황: 손과 발의 표모피와 전신 시반 및 사후강직 소견 보임. 코와 입에서 포말괴는 관찰되지 않음

2) 구급활동일지

가) 신고일시: 2021. 9. 13. 12:42

나) 현장 도착: 2021. 9. 13. 12:57

다) 구급대원 평가소견: 하천에 차가 빠졌다는 신고로 현장 도착한바 선착한 화학 구조대에 의해 요구조자 구조된 상태. 환자 팔 사후강직 및 부패 진행된 모습 보임. aed 미부착함. 의료지도 후 cpr 유보함. 현장 경찰인계 후 귀소

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용 발췌

1) 주요 부검소견

- 전신의 외표는 부패되어 있었으며, 촉진상, 뚜렷한 골절은 촉진되지 않음
- 흉복강 내부는 부패되어 있으며, 뚜렷한 손상의 소견은 보지 못함
- 심장의 무게는 328g, 우폐의 무게는 474g, 좌폐의 무게는 530g으로 측정됨, 심장 내부에서 혈액을 보지 못하고, 좌관상동맥 전하행지 단면의 60~70%가 동맥경화에 의해 막혀 있는 소견을 봄

- 두개골 골절의 소견은 보지 못함. 두개골 기저부 나비뼈 겹골(접형동)에서 1cc의 액체가 흡인됨

2) 검사소견

- 폐, 간,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음
- 조직검사 상, 심장에서 국소적인 심근 섬유화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나, 부패로 인해 관찰이 제한적임

3) 설명

- 부패로 인해 관찰이 제한적이거나,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를 보는 점,
- 본시의 조직에서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 ○○경찰서 사건 개요에 의하면 "2021. 9. 11. 17:06경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우측 경계석을 타고 넘어 화단을 가로질러 ○○천 아래(6m)로 추락하여 하천에 전복되었고,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고임"이라는 기록을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부패로 인해 관찰이 제한된 본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이며, 사건 개요 상 제시된 익사의 가능성 및/또는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단정지어 논단하기는 어려움

4) 사인

- 불명임

나. 재해근로자의 사인 미상 상병 확인에 대한 1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영상 및 경찰 조사 내용, 부검감정서상 익사와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모두 고려 가능하다는 소견 및 과거 당뇨, 고지혈증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심장 질병에 의한 운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에 의해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심장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

다. 재해근로자의 사인 미상 상병 확인에 대한 2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영상 및 경찰 조사 내용, 추가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과거 당뇨, 고지혈증 이력이 확인되는 점, 부검 소견상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 관찰되었다는 점, 골절 등 손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다만, 부검감정서에서 사건 상황상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나 부패로 인해 뚜렷한 익사 소견 유무에 대한 관찰이 어렵다는 소견을 고려할 때 익사의 가능성(일시적 의식 소실이나 운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사고 발생 후 익사하였거나 운전자의 다른 행위로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한 후 익사하였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심장 질병에 의한 사망과 익사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어 상병 추정 불가하다는 의견 있음)

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는 배관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9. 11.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 ○○시 ○○동 소재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자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을 익사의 가능성 및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공단본부 자문 결과 심장 질병에 의한 운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에 의해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심의 의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승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바,
- 재해근로자는 소방설비에 관여되는 배관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고 당일 평상시와 크게 다르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또한 특별한 업무가중 요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재해근로자의 재해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

- 상기 1900년생의 남성 재해근로자는 건강검진 문진상 확인되는 과거 흡연력, 고지혈증(2019년 건강검진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168 mg/dl), 당대사이상(2021년 건강검진상 BST=128 mg/dl)이 있는 사람으로 2021년 9월 11일 퇴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실종된 후 2021년 9월 13일 보행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사망이 확인되었는바, 부검 소견상 좌전하행지에 중등도 이상의 죽상경화 병변이 관상동맥에서 발견되었고, 부검감정서 및 의학자문상 필요에 의해 추가로 획득된 부검 사진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심각한 타 장기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울러 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부검사항이 언급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때에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일차적으로 추정됨
- 재해근로자의 업무내역 및 작업환경 조사상 과로 및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급격한 작업환경 변동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문의 2

- 재해근로자(1900년생 남자)는 소방설비 관련 배관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21. 9. 11. 17:06 퇴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 차량이 전복되어 2021. 9. 13.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48시간 30분, 50시간 45분으로 단기 및 장기 과로 기준에 미달함

-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이 사망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바.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근로자는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질병이 아닌 사고로 사망하였고 명백히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재해근로자의 사인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교통사고 발생 이전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교통사고로 인한 익사 사고인지 여부 및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심의를 의뢰하였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뇨,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었던 점, 부검감정서상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심장에 심근섬유화 의심 소견이 확인되는 반면, 폐, 간,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고 신체에 외상에 의한 골절 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DR 분석서상 분석 결과가 “분석 차량은 전 구간에서 제동페달이 작동되지 않았으며, 전 구간에서 핸들 우 조향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는 결론 외에 안전운전 의무위반의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는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개인적인 요인으로 심장질환 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에게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이다.»라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고원인으로 추정된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은 경찰, 검찰의 공적 판단과도 배치되고, 심사기관의 2차 사인 미상 상병 확인 자문 결과에서도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가능성(익사)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 보험회사들도 공적 판단 및 병원 소견 등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질병이 아닌 재해 사망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근로자는 당뇨,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부검감정서상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 이상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심장에 심근 섬유화 의심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있다.

또한, 신체에 외상으로 의한 골절 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폐, 간,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EDR 분석서상 “전 구간에서 제동 페달이 작동되지 않았으며, 전 구간에서 핸들 우 조향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 교통 사고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는 결론 외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개인적인 요인으로 심장질환 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에게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3-1070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6. 29.)

사건의 쟁점

퇴근길에 가족의 사업장에 들러 일을 돕고 돌아오던 중에 난 사고로 요추 제2~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이 발병한 것을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퇴근 경로로 이동 도중 아버지 가게에 들러 30분가량 일을 도와 드린 후 곧바로 거주지 이동 경로로 복귀하였고 이는 30분 내외의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로의 일탈·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서 일을 돕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역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퇴근 경로상 일탈 및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07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6. 5.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5. 3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9. 22.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12.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1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조사 결과, 실제 재해 발생 시각은 17:00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해 당일 12:30에 퇴근한 뒤 17:00에 재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퇴근 후 바로 주거지로 이동하지 않고 목적지의 변동이 있었기에 퇴근 경로가 통상적이라고 인정 되기에 무리가 있으며, 해당 경로를 이용할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장소에서 재해 장소까지 소요되는 2시간 20분가량을 제외하고도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해가 발생하였기에,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는 주말 퇴근길에 아버지 가게로 이동 후 다시 주거지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의 퇴근 시각은 심사기관의 재확인 결과 14:00경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6:00경 아버지 일을 잠깐 도와 드리기 위해 가게에 방문하였다고 하나, 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고이며, 법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말 근무는 24시간 당직근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이탈하더라도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 유관부서에 공유하므로 사실상 근무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재해일 퇴근 시각이 14:00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A역까지는 차로 10분 이상의 거리로 14:20에야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며, 재해 시각 역시 원처분기관은 17:00경이라 추정하였으나, 실제 재해 시각은 16:30경으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의 큰 통증으로 인해 직접 역무실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었던 것이며, 이후 17:33경 구급차를 타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이 판단한 2시간 이상의 장소 이탈을 한 사실은 없다.

다. 퇴근 경로로 이동 도중 16:00경 ‘H역’ 부근의 아버지 가게에 들러 30분가량 일을 도와 드린 후 곧바로 주거지 이동 경로로 복귀하였고, 이는 30분 내외의 사회 통념상 인정될만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로의 일탈·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지난 몇 년간 휴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퇴근 경로에서 아버지 가게가 있는 ‘H역’을 거쳐 주거지로 복귀하였으며, 주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경로’에 대한 해석을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

마.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아버지는 2017년에 뇌졸중 4개 골절과 뇌출혈의 사유로 중환자실 입원 이력이 있고, 이후 무거운 짐을 드는 등의 근로는 불가하여 재해일에 아버지 가게에서 업무를 30분가량 도운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와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재해자는 ○○시 ○○구 ○○동 소재 자택에서 △△시 ○○면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임

- 2021. 6. 5. 퇴근 후 A역에서 경의중앙선 지하철 탑승 후 B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여 C역까지 이동 후 다시 6호선으로 환승하여 D역까지 이동하였음
- 6호선 D역에서 종착지인 E역으로 가기 위하여 3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하여 환승구간 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요추부 손상함
- 통증을 견디고 환승하여 E역으로 향하던 중 증상 악화로 F역 하차 후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119구급차량 이용하여 응급실 내원함
- * 원처분기관은 조사를 통하여 사고 시각을 17시로 확인하였으며, ○○동 소재 부모의 거주지로 갈 목적으로 G역을 향해 가던 중, 목적지를 자택으로 변경하여 다시 E역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청구인에게 확인함
- *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은 2021. 6. 5. 업무를 마친 후 아버지 일을 도와 드리기 위해 4호선 H역 부근에 들렀다가 귀가하다가 D역 환승구간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일부 재해 경위를 수정함

나. 청구인의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상적인 퇴근 경로 여부 〉

- 출발장소: 사업장(경기 △△시 ○○면 ○○○)
- 사고장소: D역(서울 ○○구 ○○로 지하 ○○○)
- 도착(예정) 장소: 주거지(경기 ○○시 ○○구 ○○로 ○○○)
- 일탈 중단: 있음(불인정 사유: 불상의 일탈 중단 시각 2시간 초과)
- 청구인의 재해일 퇴근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경로는 【A역(경의중앙선) 승차 - B역(2호선) 환승 - C역(6호선) 환승 - D역(3호선) 환승】 D역사에서 환승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 발생하였음
- 상기 경로는 취업 장소와 주거지의 통상적인 경로(최단거리, 최단시간 소요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만한 경로)로 보기 어려워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퇴근 후 자택을 경유하지 않고 ○○동 소재한 부모의 거주지로 갈 목적으로 G역을 향해 가던 중, 목적지를 자택으로 변경하여 다시 E역으로 향하였음”이라고 진술

- ○○동 소재 부모의 거주지는 연고지·비연고지·일시적 주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은 업무를 마친 후 아버지 일을 도와 드리기 위해 H역 부근 (○○프라자)에 들렀다가 귀가하다가 D역 환승구간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일부 경로를 수정함

〈 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여부 〉

- 청구인의 취업 장소에서 A역(경의중앙선)까지는 1시간, 재해일 퇴근 경로로 이동할 경우, 지하철 탑승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퇴근 후 사고장소까지는 2시간 2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확인함
- 재해 경위에 따르면 수상 이후에도 이동을 지속하다가 F역(3호선)에 하차하여 구급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취업 장소에서 F역까지는 2시간 30분가량 소요됨
- 청구인의 퇴근 시각은 12:30, 구급 신고한 시각은 17:36, ○○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 시각은 18:09로 확인되며, 내원 당시 진술 내용에서 17:00경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졌음이 확인됨
- 이후 청구인 제출자료로 심사기관에서 재확인한 퇴근 시각은 14시로 확인
- 청구인에 대중교통 이용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상당 기간 경과하여 교통 카드 이용내역 제출 및 지하철 탑승 시각 증빙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 이후 심사청구 시 교통카드 내역 제출함

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2021년 1년간의 교통카드 이용내용과 재해일 13:48에 발송한 업무용 메일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재해일 교통카드 이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라. 심사기관에서 퇴근 경로와 사고 시간을 재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4:00 사업장 퇴근 → 14:17 A역(탑승) → 15:49 H역(환승) → 16:00 ○○108동 앞 도착 → 16:00~16:37 아버지 일 돕는 시간으로 추정 → 16:37 ○○프라자 앞(환승) → 16:43 H역 → D역 사고(네이버 길찾기 조회 시 H에서 D역까지는 보통 30~40분 소요 : 사고 시간은 17:15~17:25 정도로 추정됨) → 17:33 F역(사고 신고한 위치)

마. 재해일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급활동일지, 2021. 6. 5. 〉

- 신고일시: 2021. 6. 5. 17:36
- 현장 도착: 2021. 6. 5. 17:44
- 병원 도착: 2021. 6. 5. 17:53
- 신고 방법: 일반전화 02-6110-3***

〈 ○○대학교 ○○병원, 2021. 6. 5. 〉

- 환자 내원 시간: 2021. 6. 5. 18:09
- 주 호소: Back pain 2021. 6. 5. 17:00
- 현 병력:
 - 의도성: 비의도적 사고
 - 손상기전: 추락
 - PI: 특이 기저질환 없는 43세 남자 환자로, 금일 17:00쯤 지하철역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 발생한 lower back pain 및 left elbow pain으로 내원함

6. 의학적 소견

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활의학과의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1) (병명) 요추 제2,3번 좌측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 2)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1. 6. 5. 13:00, ○○대학교 ○○병원
- 3)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1. 6. 12.

- 4)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 경위) 퇴근 후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계단으로 이동 중 계단서 넘어짐
- 5) (요양 신청기간) 2021. 6. 5.~2021. 7. 24.
- 6) (종합소견) 내원 시 보조기 착용 및 심각한 통증으로 거동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준 외상 상태였으며, 절대 안정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음. 24시간 간병인 보호 및 화장실 이동 불가능 상태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영상 검사상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확인되며 의무기록 상 기타 신청 상병 승인 및 기간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2022. 12. 13.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퇴근 시각이 14시이며, 퇴근 이후 아버지 일을 도와 드린 후 곧바로 거주지 이동 경로로 복귀하였기에 경로의 일탈·중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말 근무 시 당직근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근무상태가 계속된다는 주장임.
 - 청구인의 퇴근 시각은 대중교통 자료상 약 14:00경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시 ○○구 ○○로 2길(구 ○○동) 소재이나, 대중교통 이동 경로상 14:17 A역 탑승하여 15:49 H역에서 환승하였으며, 16:00 ○○108동 앞에 도착하고, 16:37 ○○프라자 앞에서 다시 탑승한 것으로 청구인은 16:00경 아버지 일을 잠깐 도와 드리기 위해 가게에 방문하였다고 하나,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때 ‘통상적인 경로’라 함은 자택 등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이동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 청구인의 경우 퇴근길에 아버지 가게로 이동 후 주거지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일탈 및 중단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고이며, 이는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이후 이동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 또한, 주말 근무로 근무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퇴근 중 경로의 일탈·중단 후 귀가 중으로 업무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단서로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제3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청구인은 수년 동안 퇴근 후 아버지 사업장에 들러 아버지 일을 도와 드리고 퇴근하였으므로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 대해 유연하게 해석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의 취업 장소는 경기 △△시 ○○면 소재이고, 주거지는 경기 ○○시 ○○구 ○○로 2길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업 장소에서 퇴근한 시각은 14:00로 확인되고, 16:00경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 108동 앞’ 정류소에 내린 후, 16:37경 버스를 타고 16:43경 H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주말 퇴근 시 H역 부근의 아버지 가게에 들렀다가 주거지인 E역으로 복귀하는 경로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이라 함은 취업 장소와 주거지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이동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퇴근 중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돕는 행위는 퇴근 경로상 일탈 및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일탈 및 중단이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말 근무의 특성상 물리적 퇴근 후에도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고 당시 퇴근 중 경로의 일탈·중단 후 주거지로 복귀하던 중으로, 업무 수행 중인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증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2023-2865 취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9.)

사건의 쟁점

출근 지시가 없었음에도 본인 소유가 아닌 이륜차를 이용하여 휴일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휴일에 이륜차를 이용하여 회사로 이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휴일인 일요일에 타인 소유의 이륜차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보험가입자에게 사고 당일의 근로를 언급한 적이 없어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을 하였다는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도로가 주거지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인 점, 사고 이틀 전에 재고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 소지품 중 업무용 노트북이 있었던 점 그리고 배우자인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벽에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865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12.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2.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2. 4. 24. 04:45경 이륜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2. 8. 26.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2. 26.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과 2023. 6. 2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8. 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근로자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1) 재해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하여, 재해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의 등기 임원이나, 현행 판례·행정해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가입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탄력근무제로 자차 이용 외에는 달리 이용할 교통수단이 없어 이륜차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사고발생일이 휴무일인 일요일이고, 재해근로자는 타인 소유 이륜차를 이용하였으며, 출·퇴근 기록이 없고, 보험가입자 확인서상 재해근로자는 사고 당일 출근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며, 평소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머무르고, 월요일 출근 시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일요일 오후 늦게 자택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륜차를 타고 ○○도에 종종 바람을 쐬러 다닌다는 등의 진술로 보아, 재해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사무실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사고 직후 경찰조사 자료와 재고관리 문제 조치를 위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면 출근중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A 프로그램 서버 기록상 고인의 최종 작업기록은 2022. 4. 22.(금) 15:22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상 2022. 4. 23.(토) 오전 12:04 재고 생성 확인되었다는 대화 후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2022. 4. 24.(일) 일찍 출근하라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및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평소 이와 유사하게 일찍 출근해야 했던 상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이 업무를 위하여 출근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 근거 1) 사고발생 일시가 일요일 04:45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고인은 프로그램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휴일 근무 여부는 재량사항이며, 사고 당일에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이전인 2022. 4. 22.(금) 밤에도 보험가입자와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며, 사업주가 A 불량문제로 당분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2022. 4. 23.(토) 낮에도 ○○구 자택에서 작업하였다.

나. (처분 근거 2) 사고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이 타인 소유 차량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상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소유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인이 평소에도 출퇴근용으로 이륜차를 가끔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 (처분 근거 3) 보험가입자는 고인이 ○○도에 종종 바람 쐬러 다녔다면

사고 당일 목적지가 ○○사무실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과 2020. 12. 31. 결혼하였지만, 함께 ○○도에 가본 적이 없었고 고인이 ○○도를 목적지로 했다면 일출 전인 04:30에 ○○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으며, 사고지점은 출퇴근 경로로 ○○사무실을 지나친 것도 아니다.

라. 또한, 보험가입자는 고인이 평일에는 자택으로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인은 퇴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업무특성 상 밤샘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퇴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원처분기관에 추가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1) ○○사무실이 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하여, ○○사무실은 법인설립 당시인 2020. 8. 7.부터 임차한 것이며, 이후 마포구 △△동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였으나 보험가입자와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동 사무실은 개발자가 새로 입사하면 자리가 팍 차기 때문에 고인과 보험가입자는 다른 공간을 얻든지 ○○사무실에서만 일하든 하자고 언급한 것을 보면 보험가입자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 사고 당일 출근에 대하여 사전에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 점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고인에게 주말 출근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고인이 주말에 자주 출근하기는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2. 4. 20. 출시한 A 쇼핑몰 프로그램이 2022. 4. 22. (금) 재고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인이 퇴근하지 못하고 밤샘 근무를 하였고, 2022. 4. 22. (금) 21:00경 보험가입자가 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맥주와 간식거리를 사 오기도 했으며, 2022. 4. 23. (토) 새벽까지 보험가입자도 비상 근무 상태였고, 고인이 2022. 4. 23. (토) 아침에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2022. 4. 24. (일) 새벽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 사고 당일 고인의 목적지가 ○○사무실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한 점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당일 고인이 사무실에 도착하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기로 하였으나, 06:00경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고인에게 전화하였고, ○○대병원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경찰서 유족 진술조서(2022. 4. 24.)에서도 확인되며, 동료

근로자인 고○○의 문답서(2022. 11. 12.)에도 고인이 사고 당일 새벽 ○○사무실 방향으로 이동 중 사고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은 고인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보험가입자는 급여 징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오해로 인해 A 사태를 숨기고 고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의 유족급여 청구서상 사고 경위는 “2022. 4. 24. 04:45경 이륜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 서울 ○○구 ○○순환로 ○○○ 앞 도로에서 우로 굽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다가 중앙 연석을 충격하여 넘어진 후 중앙에 설치된 화단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함”이다.

나.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제2022-○○호)에서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생일시: 2022. 4. 24. 04:45

나) 발생 장소: 서울 ○○구 ○○순환로 ○○○앞 도로

다) 사고유형(사고원인): 차량단독(안전운전의무위반)

라) 사고내용: 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우로 굽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중앙 연석을 충격하여 넘어지고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미끄러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

다. 보험가입자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의견서 및 확인서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인이 이용한 이륜차의 소유자는 고인의 전 여자친구이며, 보험가입자는 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으며, 고인의 근무 형태는 탄력근무제이나, 사고 당시 고인의 주말 출근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고, 사고 당시 이륜차 진행 방향이 ○○ 쪽은 맞지만, 평소 이륜차를 타고 ○○도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목적이 ○○사무실이었는지는 추측할 수 없다.
- 나) 고인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자택(서울 ○○구)에서 ○○사무실(○○시 ○○로)까지 차량을 이용하면 30분 이내 소요되며, 고인의 출퇴근 기록은 없다.
- 다) 사업장에서 근무 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은 ○○사무실과 △△사무실(서울 마포구) 2곳으로 장소별 근무 인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고인은 평균적으로 주 3~4일은 ○○사무실, 주 1일은 자택 근무, 2주 1~2회 정도는 △△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외근하였고, ○○사무실은 ○○ 거주자인 보험가입자, 직원 고○○와 고인이 필요시 근무하던 장소이다.
- 또한 ○○사무실은 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기 이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거주를 요청하여 허락해준 곳으로, 평일 대부분은 고인이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였다.
- 라) 고인은 개발이사(등기임원)로 실제 개발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직급상 업무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고, 외부기업들의 쇼핑몰(이커머스)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웹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경영 관련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의견서 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인의 근무형태는 탄력근무제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이나 업무특성상 고객의 요청이나 프로그램 하자 등 실시간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므로 주말이나 야간에도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일을 하였다.
- 나) 고인은 2022. 4. 23.(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귀가했다가 몇 시간 잠을 잔 후 다시 출근해야 한다며 2022. 4. 24.(일) 04:30경 집을 나가, 04:45경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택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 거리는 약 22~24km로 ○○순환로가 가장 이상적인 경로이며, 사고 발생지점도 ○○순환로 ○○○앞 도로로 동일 경로상에 위치하고, 고인은 업무용 노트북을 백팩에 넣고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노트북은 회사에서 회수 하였다.

마. 심사기관에서 보험가입자 의견(2023. 5. 16.), 청구인 답변(2023. 5. 24.)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인의 출퇴근 최적 이동 경로*는 ○○순환로-○○동로-○○대로를 경유하는 노선이며, 사고 발생 지점(서울 ○○구 ○○순환로 ○○○)은 고인의 자택과 ○○사무실 간 이동 경로 상 위치하고, 이후 ○○지하차도에서 강○, 김○, 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확인된다.

* 네이버지도 기준, 고인의 자택(○○구 ○○동 ○○길 ○○)에서 ○○사무실(○○시 ○○로 ○○○)까지 17km, 34분~48분 소요되며, 주요 경로는 ○○순환로 6.4km → ○○동로 1.9km → ○○대로 7.3km로 확인됨

나) 고인은 이륜자동차보험(B손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 번호는 서울성북하◇◇◇◇이며, 보험기간은 2021. 5. 16.~2022. 5. 16.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2022. 9. 5. 발급)상 주소지는 서울 ○○구 ○○로 13길 ○○로 확인되고, 세대원은 배우자인 청구인, 자녀 박○○, 배우자의 동생 김○○으로 확인되며, 고인은 동일 주소지에 2020. 11. 30. 전입신고 되었다가 2022. 5. 19. 말소신고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는 고인이 사고 당시 A 쇼핑물 개발·유지보수(80%), C 쇼핑물 유지보수(20%)를 담당하고 있었고, 소속 근로자 윤○○, 이○○이 A 프로그램 개발과 그 외 거래처 유지보수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보험가입자는 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이용기록은 포맷된 상태로 다른 직원이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제출된 A 프로그램 로그기록 상 고인의 최종 기록은 2022. 4. 22.(금) 15:22으로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 제출 A 프로그램 로그기록 〉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바) 청구인은 고인이 주 2~3일 자택으로 퇴근하였고, 그 외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고인 소유 차량은 없고, 시간이 맞을 때는 청구인이 출퇴근을 시켰고, 여의치 않은 경우 고인이 이륜차를 이용하였으며, 평소 출퇴근 경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치 기록은 확인 불가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2022. 4. 22.(금) 오후 08:14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에게 '당분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야할 듯 합니다.'라는 업무지시가 있었고, 2022. 4. 23.(토) 오전 12:04 A 신○○차장이 '4월 23일 자 재고 생성 확인했습니다.'라는 대화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 A 프로그램 관련 업무 진행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측 대리인은 심사기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아래 요지로 진술하였다.

○ 사고 직후 경찰조사 자료를 고려해야 함. 사업주는 다른 의도로 산재가 안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A 프로그램 문제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음. 고인은 2022. 4. 22.(금) 오후부터 긴급하게 업무를 계속 해야하는 이유가 있었고, 2022. 4. 23.(토) 오전 12:04 A 재고 생성된 이후에도 사업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시가 있었고, A 프로그램 문제의 종료선언은 없었음.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하는 긴급한 일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음. 평소 출퇴근 관리에 대한 기록은 없음. ○○사무실은 정식 숙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책상이나 소파에서 잔 것으로 생각됨

사. 청구인은 2023. 11. 9.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2. 4. 24. 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시체검안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시: 2022. 4. 24. 05:09
 ○ 사망 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 도로(발견 장소)
 ○ 사망의 종류: 외인사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교통사고 추정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2022. 4. 28.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 상에 재해근로자의 '직접사인: 교통사고 추정, 간접사인: 없음'으로 확인된다.

다.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사고 직후 경찰조사 자료와 재고관리 문제 조치를 위한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출근중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 ○○○○ 프로그램 서버 기록상 고인의 최종 작업기록은 2022. 4. 22.(금) 15:22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상 2022. 4. 23.(토) 오전 12:04 재고 생성 확인되었다는 대화 후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22. 4. 24.(일) 일찍 출근하라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및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평소 이와 유사하게 일찍 출근해야 했던 상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이 업무를 위하여 출근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사고 직후 경찰조사 자료와 재고관리 문제 조치를 위한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출근중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해근로자는 2022. 4. 24. 5시 9분경 서울특별시 ○○구 ○○동 ○○○도로에서 ‘직접사인 : 교통사고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재해근로자가 교통사고 추정으로 사망한 도로는 재해근로자의 주거지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여지고, 2022. 4. 20. 출시한 A 쇼핑몰 프로그램이 2022. 4. 22. 재고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분간 꼼꼼한 모니터링을 해야할듯 합니다.’라는 카톡을 주고받는 등 새롭게 출시한 쇼핑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개발업무를 총괄하던 재해근로자가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가방에는 업무용 노트북이 있었고, 재해근로자 사망 당일 오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참고할 때, 비록, 출근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고 출근한 시간이 새벽이지만, 그렇다고 재해근로자의 출근을 부인하기에는 정황상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개발업무를 총괄하던 재해근로자는 신규 출시한 쇼핑몰 프로그램의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새벽에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는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절 행사 중의 사고

1. [2022-2107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3.)

사건의 쟁점

회식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집 근처 길에 누워있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로 녹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이 발병한 것을 행사 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전에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팀장에 의하여 추진된 회식에 사원으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팀장이 개인적으로 회식비를 결제하였으나 이는 직책비로 지급된 수당이므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본 회식은 노무 관리상의 필요성과 이점은 일부 인정되나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고 회식비용을 팀장 개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 없이 사적 행위 이후 이동 중의 사고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팀원에게 직책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무관리를 위한 통상적·관례적 회식으로 인정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210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1. 8.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7. 5. 사고로 진단받은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우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양측),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우측 2,3,4,5,6, 좌측 1,2),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상완골 머리의 골절(폐쇄성, 좌측), 외상성 피하기종,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절구의 골절(폐쇄성, 양측), 장골의 골절(개방성, 우측), 외상성 쇼크, 경추의 상세 불명의 골절(폐쇄성 NOS, C7), 흉골의 골절(폐쇄성), 흉추의 골절(폐쇄성, NOS, T11),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천골의 골절(폐쇄성),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치골의 폐골절(폐쇄성), 혈복강'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0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8. 24.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2. 9.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행사 중의 사고나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1) 회식의 개최를 사업주의 승인 없이 팀장이 임의로 진행하였고, 회식 행사 참여에 대한 팀원들의 업무상의 의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 비용 또한 팀장이 개인적으로 결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회식 행사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장 운영상 필요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2)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택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도로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차가 밟고 가는 사고를 당한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나 그 이후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2021. 7. 5. 상사를 포함한 직장 동료 회식 자리에 참석한 후,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으로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 집을 찾아 해마다가 정신을 잃어 근처 길가에 누운 가운데,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로 승인 상병을 진단 받았다.

2) 당일 식사 및 술자리는 팀장이 해외 출장 복귀 직원 격려 및 직원들 사기 진작 목적 등으로 팀원들과 식사하자고 제안을 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회사가 얻게 되는 노무 관리상의 필요성과 이점이 일부 있으나, 참석 가능한 직원만 참석하여 청구인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의 별도 승인 없이 팀장이 주관하여 회식이 진행되었으며, 회식비용을 팀장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로 사업주가 주관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4) 아울러 사고 당시 비공식적인 술자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음주 상태였음은 추정할 수 있는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 행위 이후 이동 중의 사고로서, 청구인의 재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신차종 부품개발과 개발된 금형 및 부품을 양산 검증하는 업무로 인해 출장 외근이 많은 곳으로, 예고된 회식은 아니지만, 출장 결과 보고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 모처럼 많은 사원이 참석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나. 팀장이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회식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원의 복귀와 모처럼 국내 출장을 다녀온 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팀 카톡방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이 가능한 사원만 참석하도록 배려한 것이었고, 청구인과 같은 하급 사원은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팀장에게는 직책비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직책비는 회식 또는 직원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팀장 수당은 사업주를 대신해 직원들의 사기 증진, 친목 도모 등 팀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팀장이 개인적으로 회식 경비를 결제했다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사고발생지가 자택에서 2km 떨어진 장소가 된 것은 청구인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 청구인의 휴대 전화 앱에 저장된 이전 주소지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기 때문이므로,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의로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것은 아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1. 7. 5. 회사 업무를 마치고 상사포함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함. 21:30경 집으로 귀가 완료 전 대리기사는 곧장 가고 본인은 정신을 잃은 가운데 차량에 깔리는 사고 발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계약 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연구소
- 소재지: ○○도 ○○시 ○○면 ○○로 ○○

- 사업 종류: 연구 및 개발사업
- 청구인 근무내용
 - 채용 일자: 2017. 9. 11.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신차 개발업무
 - 근무시간: 08:00~17:00

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사고 경위와 퇴근 경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근 이동 경로
 - 재해자의 자택 주소는 ○○도 ○○시 ○○읍 ○○로 ○○번 ○○빌라 ○○○호
 - 재해자는 통상 자차로 출퇴근(자택-)사업장 차량 20분 소요)
 - 재해 당일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자차로 ○○도 ○○시 ○○읍 ○○로 ○○번길 ○○-○○ (일○○○ ○○점)/ 대리기사 도착지/ ○○리 ○○○○-○번지)로 이동함
- 2021. 8. 11. 청구인 부친 작성 사고경위서
 - 대리기사의 도착지와 관련하여 재해자(부친) 주장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를 재해자가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가 약 10여 분간 차를 찾은 카카오 앱에 입력된 장소(옛날 집: ○○도 ○○시 ○○읍 ○○로 ○○번길 ○○-○○ ○○빌 ○○○호(○○리 ○○○○-○)로 재해자를 데려간 것이라고 함
- 원처분기관 담당자 확인 내용
 - 재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가고 난 다음 하차 지점 도로에 누워있었으며 그 위를 차량이 지나가는 사고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119구급활동일지 환자 발생 위치는 ○○도 ○○시 ○○읍 ○○로 ○○번지(○○리 ○○○○-○) 확인됨 (현 자택 주소지와 도보 약 2km 거리)
 - ○○소방서 환자 발생 위치 관련 유선 확인(최○○ 소방사): 119 신고자는 환자 발생 위치 소재의 가게 운영 주인이며, 재신고 사실이 없고 이송한 구급대원에게 장소를 확인하였으므로 환자 발생 위치는 구급 활동 일지상의 장소가 맞다고 함

4) 2021. 7. 5. 재해와 관련한 구급 활동 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구급 활동 일지, ○○소방서 〉

- 신고일시: 2021. 7. 5. 22:37
- 신고 방법: 휴대 전화
- 환자 발생 위치: ○○도 ○○시 ○○읍 ○○리 ○○○-○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신고자는 근처 가게 직원으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었는데 차가 밟고 지나갔다'라는 신고건. 현장 도착한바, 환자 도로 위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육안상 좌측 허벅지에 변형이 관찰되고, 우측 복부쪽 염상이 관찰됨. 현장에서 외상 평가한바, 우측 갈비뼈쪽을 눌렀을 때 소리를 치고 우측 골반에 변형이 관찰되며, 좌측 장골에 변형이 관찰됨. 양측 상지, 양측 하지에 찰과상 관찰됨. 현장에서 상처 세척 및 드레싱, 골반 고정, 장골 부목 고정, 긴척추고정판으로 척추 고정 및 경추 보호대로 경추 고정 실시함
 - 환자 주들 것을 이용해 구급차로 이동함. 환자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며 아프다, 살려달라라고만 소리치는 상태
 - 이송 중 ○○대학교병원 외상센터에 사전 연락하여 의료 지도받아 정맥로 확보 및 수액(N/S) 800cc 정 주입함. 환자 활력징후 측정하려 했으나 처음 측정 때 요골 동맥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초기 혈압 측정할 수 없었음
 - 환자 인적 사항 파악 불가능하여 경찰을 통해 파악된 인적 사항을 적은 바 있음. 코로나19 관련 사항 및 역학관계 확인해본바, 관련 사항 알 수 없는 상태로 ○○대학교 외상센터로 이송함

5)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 7. 30.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여부: 의견 없음
 - 청구인 담당업무: ○○팀 소속으로 헤드라잉 신차개발업무

- 사고 경위: 19:00경 팀 회식 참석 → 21:30경 대리운전을 불러 자택으로 귀가 → 대리운전 도착지점은 현 거주지가 아닌 이전 거주지에 도착 → 대리운전기사는 도착 후 곧장 간 상황으로 청구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현 거주지로 가지 못하고 하차 지점 도로에 청구인도 모르게 누움 → 지나가는 차량에 사고를 당함

○ ○○1팀 회식 관련 조사내용

- 회식 주체자: 팀장
- 업무 관련성 여부: 업무 관련성은 없으며, 팀장이 팀 카톡방에 참석 여부 확인 후 시간 가능한 인원만 모여서 회식함
- 회식비용 부담: 팀장이 개인카드로 납부
- 사업주 참여 여부: 없음
- 참석인원: 1차 9명, 2차 7명
- 통상적·관례적 행사였는지 여부: 팀장이 해외 출장자 복귀 등 사유로 해당일 회식 자리를 주도하였음. 팀장 주관 회식 자리는 팀장 판단하에 진행되며 팀마다 상이함
- 해당 회식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지 여부: 팀장이 팀원들 사기 증진, 친목 도모 등의 사유로 필요
- 회식 진행 장소: 1차는 19:00경 ○○ ○○2지구 소재 A, 2차는 인근 소재 B
- 회식 장소에서 직원들이 마신 술의 양: 술의 양을 확인하기 어려움
- 청구인 평소 주량 및 사고 당일 회식 장소 음주량: 소주 1병 정도
- 청구인이 평소보다 과음을 하였는지 여부: 주량만큼 마신 것 같고, 대리운전 전화도 직접 함
- 회식 당시에 음주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강제로 술을 권하고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건배도 잘 안 하고 각자 주량대로 마시는 분위기였으며, 억지로 마시라고 강요는 없었음
- 회식 종료 후 청구인의 신체 상태: 대리운전을 직접 불러 전화를 받고 나가서 집으로 갔기 때문에 만취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됨. 걷기는 했었고 취기가 있어 비틀거린 상태였음

○ 조사자 의견

- 관련 법령, 사실관계 확인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 사고일에 개최된 회식이 팀장의 주도하에 일부 팀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점, 회식 비용을 개인적으로 팀장이 결제한 점, 사업주가 공지한 정식 회식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모임)로 보기 어렵고,
- 사고장소 또한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해당되지 않아 퇴근의 취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부득이 불승인 처분함이 타당함

6) 심사기관에서 청구인의 회식과 사고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팀장 유선 확인, 2021. 12. 29. 14:40~15:00 〉

○ 회식 관련

- ○○팀 전체인원: 20명(책임 매니저는 팀장 포함 6명, 그 외 매니저 14명 / 사무직 19명, 현장직 1명)
- 회식 당일 출근 인원(출근하는 직원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기억 불가) 중 참석인원: 9명
- 회식 당일 출근 인원 중 불참 인원: 4~5명
- 회식 당일 해외 출장 복귀자가 있었는지 여부: 1명(2021. 5. 16.부터 2021. 6. 19. 까지 ◇◇ 이○○)
- 국내 지방 출장 관련: 청구인 근무지는 ○○ 소재로, 공장이 경주, 광주, 울산에 소재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차를 개발하는 차종이 있는 경우 지방 출장이 계속 발생함
- 회식 목적 및 참석의 강제성 여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었으며, 참석에 강요는 없었음
- 회식 사전 계획 여부: 사고 당일 직원들이 모여 있을 때 구두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팀 카톡방에도 올린 것으로 기억함. 사전 전날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함
- 이 사건 이외 이전 회식 관련: 2021년의 경우 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1회 정도 팀원들과 삼삼오오 시간이 되는 사람에 한해 회식을 진행함. 회식을 진행할 경우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함

○ 팀장 수당 관련

- 매월 직책비로 17만원이 지급되며, 사용 내역은 회식 또는 직원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

○ 회식 이후 청구인의 신체 상태

- 주량은 1병 정도로 알고 있고, 팀장인 본인도 약간 취기가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갈 때 인사하고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함

○ 대리기사 호출 관련

- 청구인의 이전 집 주소를 아는 직원은 없었고, 청구인이 앱(카카오T)에 저장해놔서 버튼만 누른 것 같다고 함

〈 대리기사 유선 확인, 2021. 12. 29. 15:08~15:20 〉

○ 소속: 없음

- 호출 관련: 앱(카카오T)을 통해 호출되었고, 통상 직접 입력하고 클릭하면 출·도착 경로가 떠서 별도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음. 누가 주소지를 입력했는지는 알 수 없음. 하지만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동료 직원이 '여기에요, 여기 제가 불렀어요'라고 함. 청구인 차량 위치를 몰라서 뛰어다니면서 본인이 차량을 찾음

- 청구인 신체 상태: 인사불성 상태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동료 직원이 부축해서 차에 태웠음. 이후 차 안에서 주무시고, 도착 2분 전에 차량에 구토를 함

- 차량 인계: 앱상 주소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지갑과 키를 주머니에 넣어주고 '집에 도착했는데 잘 들어가실 수 있죠?'라고 물어봤고, 취한 상태에서 '네네'라고 대답함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우리 위원회에 △△팀 매니저 작성 사업주 의견서 1부와 사고 발생경위서 1부, 동료 진술서 1부, 추가 의견서 1부를 추가 제출하였다.

〈 의견서, 작성자 △△팀 김○○매니저, 사업주 직인 〉

○ 의견 내용

- 당사 소속 근로자인 ○○○의 매니저의 경우 2021. 7. 5. 근무 종료 후 팀장 주도 하에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당일 회식의 경우 사업주 주관하에 이루어진 회식은 아니지만, 당 회사의 취지상 팀장에게 팀장 수당을 주고 있으며, 팀장 수당은 사업주를 대신해 직원들의 사기 증진, 친목 도모 등을 팀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해당 팀의 경우 팀 업무 특성상 국내외 잦은 출장이 있으며, 팀원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아 오랜만에 팀 인원이 내근 업무를 하여 상기 이유로 인해 팀장이 회식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팀장이 팀원들의 회식을 주도한 것은 회사 차원의 팀 결속을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토대로 재해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재심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 사고경위서, 이 사건 사업장 작성 〉

○ 사고 개요

- 2021. 7. 5. 19시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자 복귀로 시간되는 개발 인원들 간 모여 A식당에서 1차 식사 및 술을 마셨고, 주변에 있는 B에서 2차 술을 먹음
- 당일 21:30경 사고자 본인이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고, 이후 대리기사가 와서 차를 타고 집에 감
- 사고자가 도착한 곳은 과거 이사한 집이었고, 그 주택가 앞길에 취해 본인도 모르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승용차에 사고를 당함(차에 깔림 추정)

○ 조치 내용

- 2021. 7. 5. 23:00~24:00경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가해자(K7 차량, 여성)가 119에 신고하여 ○○소재 ○○대병원으로 이송됨
- ○○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장파열 수술치료 받아 위급상황을 면함
- 7. 6. 사고자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계속 안되어 ○○팀 비상 연락망에 적힌 부모님께 전화하여 교통사고 소식을 접수함
- 교통사고 소식을 받고 ○○팀 내부 및 △△팀, □□팀에 내용 전파함
- 7. 7. 부모님과 만나서 사고 경위에 대해 상기 상세 내용을 들음
- 장 파열, 골반 및 무릎 골절 수술은 잘 완료되었으며 현재 일반 병실로 이동하여 치료 중임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면회는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 검사증 보유자만 가능(부모님 의견)

○ 향후 대책: 건강한 음주 문화 교육실시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참석한 회식을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추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가조사 요청에 대한 의견서 〉

○ 팀장 수당 관련 확인

- 팀장 수당(17만 원)의 명목, 급여 중 비중
: 급여 중 3.04% 비중
: 명목은 급여 보장(동일 직급 非 팀장 인원 대비) 및 팀원 관리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
- 다른 팀의 경우 팀장 주관 회식이 자주 있는지
: 직원들이 회비를 마련하여 자체 회식 및 경우에 따라 팀장 주관 회식 실시함
(팀장 주관 회식의 경우 팀장 성향 등 부서마다 상이함)
- 팀장이 팀 회식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업장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 개인카드 사용으로 사업장 청구한 경우는 없음

○ 회식 관련 확인

- 2021. 7. 5. 회식 관련 팀 카톡방 카톡 내용(단톡방/○○팀 신차개발파트)
- 최○○ 팀장: 우리 오랜만에 사무실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참에 술한잔 합니다.
(오후4:41) 안되는 인원 거수(오후4:42) 근○, 경○는 안되겠고(오후4:43)
- 손○○ 매니저: 저는 오늘 CV업무 때문에 회식 참석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오후4:54)
- 최○○ 팀장- 여기 인원 중 근○, 경○, 락○ 3명 빼고 모두 되는건가?(오후4:55)
- 이○○ 책임: ○○형...
- 최○○ 팀장: 향후 자체기술사양통보서 작성 시 담당과 팀장 사이에 검토자 넣어서

결제 올리세요. 전산에 얘기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됨. BOM검토자는 우선 손○○ 책임으로 하고 향후는 황○○ 책임도 BOM검토할 수 있게 되면 황책임과 손책임으로 이원화 결재요(오후5:16)

- 최○○ 팀장: ○○ 2지구 A로 갑시다.(오후5:24)
- 안○○매니저- 저는 회식 참석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오후5:27)

- 1차, 2차 카드 사용명세(결제 금액, 주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 팀장 회식 결제 자료 미제출

○ 기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의 승인 없이 팀장 임의적으로 진행하고, 회식 행사 참여에 대한 팀원들의 업무상 의무 내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 비용을 팀장이 개인적으로 결제한 점으로 볼 때 회식 행사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적용 여부 : 비해당

6. 의학적 소견

가. 2021. 7. 19. 자 요양급여 신청소견서상 ○○대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 일자: 2021. 7. 5.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1. 7. 5.(본원)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교통사고 이후 의식 소실 및 복부 통증으로 내원
- 현재 환자 호소 증상: 배와 골반이 아파요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우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양측),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2,3,4,5,6, 좌측 1,2),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

- 수술: 2021. 7. 6. 진단 전 개복술
- 요양 기간
 - 입원 2021. 7. 5.~2021. 12. 19. 24주
 - 통원 2021. 12. 19.~2021. 6. 4. 24주

나. 2021. 8. 17. 원처분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상병 타당, 입원 12주 이후 재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사기관은 2021. 7. 5.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1. 7. 5. 직장 동료들(상사포함)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한 후,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으로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 집을 찾아 해매다가 정신을 잃어 근처 길가에 누운 가운데,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 당일 식사 및 술자리는 팀장이 해외 출장 복귀 직원 격려 및 직원들 사기진작 목적 등으로 팀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회사가 얻게 되는 노무 관리상의 필요성 및 이점이 일부 있으나, 참석 가능한 직원들에 한하여 참석하여 청구인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업주의 별도 승인 없이 팀장이 주관하여 회식이 진행된 점, 회식비용을 팀장 개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사고 당시 비공식적인 술자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음주 상태였음은 충분히 추정 가능한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 행위 이후 이동 중의 사고로서, 청구인의 재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명시하고, 제3호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단서로 그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7. 5. 직장 상사가 주관한 행사인 회식에 참여하고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1. 7. 5. 회식이 사업주가 직접 주관한 회식은 아니지만, 팀 단위 회식 여부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전원 참석이 어려워 가능한 많은 수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팀장에게 직책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무관리를

위해 회식 운영을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해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팀장 주관 팀별 회식은 팀원들의 사기 진작·격려 등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팀별 회식 시행 여부는 팀장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 팀장이 임의로 회식을 주관하였으며, 회식 소요 비용 역시 팀장이 개인적으로 결제하였고, 회식 참석에 업무상 의무나 필요성·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 행위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증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2장

업무상 질병

- 제1절. 뇌심혈관계 질병
- 제2절. 근골격계 질병
- 제3절. 눈 또는 귀의 질병
- 제4절. 신경·정신 질병
- 제5절. 림프조혈계 질병
- 제6절. 간 질병
- 제7절. 직업성 암
- 제8절. 피부 질병
- 제9절. 진폐
- 제10절. 호흡기계 질병
- 제11절.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제12절. 기타 질병

제1절 뇌심혈관계 질병

1. [2022-3281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2. 28.)

사건의 쟁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만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나 과로 등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해양 기계 정비 관련자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며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된 채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신적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발병 전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업무 가중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음주나 흡연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였고, 재해 발생 전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은 확인되나,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단기 및 만성 과로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신청 상병은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한 것으로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2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0. 30. 재해로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죽상경화성 심장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8. 25. 원처분 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2. 1. 3.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6. 3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8. 2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업무 내용상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업무부담은 있었으나, 신청 상병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볼 때 단기 및 만성 과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과는 관련이 낮은 개인적인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교대제 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을 수행하여 일부 업무부담이 있었고, 2020년 9월 초 발생한 태풍 피해로 인한 보수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2) 신청 상병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을 볼 때 단기 및 만성 과로에 미달하며, 음주력 및 과거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 신체 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추락·협착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네 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나. 비록,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하계휴가 전후·태풍 전후·추석 휴가 전후 등으로 재구성하면 하계휴가 후 태풍 전 14일은 평균 56시간 12분을 근무하였고, 태풍 후 추석 휴가 전 29일은 평균 55시간 19분, 추석 휴가 후 18일은 평균 52시간 20분을 근무하였으며, 근무 기간 중 항상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다. 특히, 2020년 9월 초 태풍 마이삭·하이선이 근무지인 ○○ ○○중공업을 강타하면서 공작기계 침수 및 선박 엔진 생산 차질 등의 문제로 복구 기간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업무적으로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고, 상병 발병 전 4일간 야간근무를 지속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청구인은 ○○중공업 자회사 ○○○○ 주식회사 보전부 엔진정비과 엔진기계정비부에 소속되어 선박 엔진 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는 근로자로 야간근무 후 2020. 10. 30. 오전 6시경 회사 정문 근처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질병 판정서상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근무경력

- 청구인은 재해일(2020. 10. 30.) 기준 62세(신장 163cm/체중 73kg) 남성으로, 한국○○○○(주)에 1984. 3. 15. 입사하여 공무부, 회전기생산부 및 보전부에서 기계 정비 업무에 종사 중 2016. 8. 1. 사업장 분사로 ○○중공업○○로 소속이 변경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12월 정년퇴직 후 2020. 12. 31. 까지 연장계약(2년 차) 하여 재해일까지 동일한 업무(보전 기계 정비)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등

- 근무형태: 상용직, 주/야간 교대제(3주간 주간근무 후 1주간 야간근무 수행)
-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 (야간) 20:00~익일 05:00
- 연장근무시간: 주간(17:00~18:00) 연 3회 정도 수행
- 휴게시간 : 점심(야식)시간 1시간 및 주간/야간 휴게 2회(1회 10분)
- ※ 세부 업무시간 산정은 ‘출퇴근기록부’ 참조

다.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발병 전 업무상 부담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 2020. 10. 29. 20:00경 출근하여 2020. 10. 30. 05:00까지 근무하고 샤워 및 환복 후 퇴근 중 06:00경 사업장 정문 근처에서 가슴 통증 등 이상 증상 발현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하였으며 1주간 근무시간은 45시간 08분(휴일 2일)으로 일상 업무량 및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으며 그 외 업무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은 없었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업무시간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45시간 08분
 -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간 제외) 업무시간: 34시간 30분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8시간 37분(휴일 15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5시간 23분(월평균 휴일 11.6일)이며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28시간 37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35시간 23분
- 기타사항: 2020. 8. 1.~2020. 8. 17. 하계휴가, 연차휴가 등으로 휴무하였고, 2020. 9. 30.~2020. 10. 11. 연차휴가, 유급휴일, 주휴 등으로 휴무하였음

라. 청구인은 소정근로시간에 환복, 샤워 등 업무 준비시간을 포함해야 하고, 여러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

- 출퇴근시간표상 소정근로시간: 08:00~17:00(주간), 20:00~05:00(야간)
- 출근 전 10분(환복 소요시간), 퇴근 후 40분(샤워 30분, 환복 10분) 포함 주장
→ 반영 후 근무시간: 07:50~17:40(주간), 19:50~05:40(야간)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0시간 06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업무시간: 33시간 39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 39시간 41분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3시간 5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0분보다 29.7% 증가하여 이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0% 증가 기준을 충족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

- ① 교대제 업무: 주간 3주, 야간 1주 주기로 교대근무를 수행함
- ②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태풍 마이삭으로 공작기계 침수 및 선박 엔진 생산 차질 문제로 신청 상병 발병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1/100mm 단위로 미세한 정비가 요구되어 고도의 집중력과 작업 중 추락이나 협착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으로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 암벽 가까이 있는 크랭크 2공장은 완전히 침수되고 지하에 있는 각종 모터, 구동장치, 유압 유닛, 유압탱크 등이 1m 이상 바닷물에 침수되어 공작기계 작동이 불가능해졌고, 바닷물은 염분이 높아 공작기계의 부식을 촉진하기에 빠른 속도로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하에는 수백 리터의 오일탱크가 있어 바닷물 위로 많은 양의 기름이 떠 있었기에 복구 작업에 무척이나 애를 먹었으며, 크랭크 2공장이 완전히 침수되었기에 복구해야 할 공작 기계가 수십 대에서 작은 기계까지 포함하면 수백 대에 이르렀기에 외부 업체까지 불러 같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복구 동안 추가적으로 소요된 인건비만 50~60억이었고 선박 엔진 생산 차질로 선박 납기일이 늦어지면 하루에 수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하기에 본부장에서 부서장을 거쳐 청구인에게까지 복구 시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내려왔으며, 공작기계 수리는 발병일 까지도 계속되어 청구인은 두 달 이상 복구 작업과 함께 본 업무인 공작기계 정비작업을 병행해야 했고 바닷물에 침수된 공작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기에 복구 동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다고 주장함
- ③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업무: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과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음
- ④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공작기계의 각종 부품은 2~4T로 무게가 상당하고 정비 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자세로 볼팅, 햄마질, 대형 부품을 당기는 작업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마. 재해일 직후 진료받은 의료기관인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응급실 초진기록지(내원일시 2020. 10. 30. 06:16)
 - 발병일자: 2020. 10. 30. 05:16
 - 주증상: Epigastric pain / Epigastric soreness
 - 현병력: 밤에 야간 근무하고 퇴근하려는데 1시간 전부터 상복부 쓰림과 답답함이 호전없이 지속되어 내원함. 양측 다리에 힘이 없고 약간 어지러움
- 주요 검사 결과
 - 2020. 10. 30. 에코 카디오그래피(Ischemic insult of LCX territory with normal LV systolic function / LV diastolic dysfunction(Grade 1) with normal mean LA pressure

바.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에서 청구인이 신청 상병 또는 기초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재해일 이전 3년간 청구인의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검진일 | 판정 | 혈압 | 공복혈당 | 기타 |
|---------------|-----|------------|----------|--|
| 2020. 5. 28. | 정상B | 126/76mmHg | 98mg/dl | 흡연(비흡연) 음주(연 3회, 회당 막걸리 2잔, 소주 1병) |
| 2019. 10. 11. | 정상B | 128/85mmHg | 88mg/dl | 흡연(비흡연) 음주(월 1회, 회당 막걸리 3잔) |
| 2018. 4. 19. | 정상B | 136/80mmHg | 140mg/dl | 흡연(비흡연) 음주(1년간 금주) 당뇨병 질환의심 |

아. 청구인에 대한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 일자: 1996. 11. 21.(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3-4, 4-5요추간), 급성요추염좌
- 요양 기간: 1996. 11. 22.~1998. 3. 4.
- 장애등급: 준용 제10급

자. 원처분기관의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요인
 - 흡연력: 총 30년간 1일 1갑, 2011년 이후 금연 중
 - 음주력: 년 3회, 회당 소주 기준 1~2잔
 - 직장 내 대인관계 / 취미 및 여가활동: 특이사항 없음

6. 의학적 소견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 일자: 2020. 10. 30.
- 입원일자: 2020. 10. 30. / 퇴원일자: 2020. 11. 2.
- 상병 명: 신청 상병
- 종합소견
 - 2020년 10월 30일 새벽 흉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신 분으로 내원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2차례의 심실빈맥이 발생하여 전기충격으로 제세동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응급으로 PCI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신 분으로 향후 3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환자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심전도 소견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을 보인 점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 진단 확인됨”이라는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일부 업무 부담 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볼 때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의 업무 내용상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부담은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볼 때 단기 및 만성 과로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과는 관련이 낮은 개인적인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 2명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1(심장내과)

청구인은 2020. 10. 30. 근무 이후 퇴근길에 흉통이 발생하여 진료 기관으로 이송된 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중재 시술을 통해 재관류 이후 회복된 환자로 동반 신청한 질병 중 심실세동은 심근경색증에 합병되어 발생한 부정맥이어서 동반 심사 대상으로 별도의 의미가 임상적으로는 크지 않으며 죽상종은 질병 발생의 병인론으로 20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다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직업병으로 판단하지 않음. 곧 급성 심근경색증만이 심사 대상 질환이 됨. 청구인의 경우 전통적인 위험인자들이 부재하며 2020. 10. 30. 발병 당일에 시행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좌회선 원위부에 혈전이 동반된 100% 완전 폐쇄의 단일 병변이 관찰되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환자들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비록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 사항은 부재하여도 추가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안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람

○ 자문의2(직업환경의학과)

청구인은 조선소 보전부에 근무하다 정년 퇴사 후 자회사에 재입사하여 기계 정비 등의 업무(퇴사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10. 30. 오전 퇴근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산재 요양 신청함.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을 보면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45시간 08분으로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37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5분으로 단기·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함. 한편 2020. 9월 초 태풍으로 선박 내 침수 등이 발생하여 기계 수리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정황상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에 따른 책임의 범위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교대제 근무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음주력, 과거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 반면 업무상 요인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마. 심사기관은 교대제 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을 수행하여 일부 업무부담이 있으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을

볼 때 단기 및 만성 과로에 미달하는 반면 음주력 및 과거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평소 교대제 근무 등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태풍으로 인한 복구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급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교대제 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을 수행하여 일부 업무부담이 있고, 2020년 9월 초 발생한 태풍 피해로 인한 보수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 상병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을 볼 때 단기 및 만성 과로에 미달하는 한편 음주력 및 과거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 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청구인은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에는 미달하나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교대제 근무와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노출 등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부담 가장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시간은 45시간 08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37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5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월 초 태풍으로 선박 내 침수 등이 발생하여 기계 수리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부 업무부담은 인정되나,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과거 30년간의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바, 신청 상병은 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2-3947 기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5.)

사건의 쟁점

한파 작업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및 업무량 증가와 과로로 인해 배대동맥파리의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배대동맥파리의 파열’로 사망하자, 재해일 3~4일 전에 있었던 돌발적인 폭설 때문에 야간 제설작업이 급격히 증가하였었고 맞고대로 인한 만성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므로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일부 위원의 경우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과 야간 제설작업 시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청구인의 경우 관련 법령상 급성 및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을 미달하며 제설작업이 신청 상병의 발생을 악화시켰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격일제 교대제 근무와 한파에서의 제설작업을 업무부담으로 보아 단기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서 청구인의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상 급성 및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을 미달하고 있으며 24시간 격일제 교대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94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9. 1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1. 1. 10.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16.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22. 9. 1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출된 경찰서의 조사자료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에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배대동맥파리의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무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 업무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일 며칠 전에 야간 제설작업을 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되었으며, 평소 약으로 건강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라.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은 만성 및 단기 과로에 미달하여 상병에 자연 경과 이상의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제설작업이 질병 발생을 악화시켰을 정도의 급격한 환경변화라고는 보기 어렵고, 재해근로자는 고령이며 고혈압 등 기저에 가지고 있었던 재해근로자의 위험인자가 질병 발생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가. 재해근로자의 근무지·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 빌딩 관리로서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했고, 재해근로자는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했으며, 지하 1층에는 숙직실·화장실 등이 있다.

나. 업무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의 발병일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8시간 23분으로 △△社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우, 야간 보안 관련 이슈 발생하는 경우, 재해 3~4일 전 야간 제설작업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하여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되었다.

다. 업무량의 증가와 관련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근로자의 재해 발생 3일 전 2021. 1. 6.에는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18:30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재해근로자의 근무지인 ○○구에는 최대 13.7cm의 폭설이 내렸고, ○○구의 명확한 강설 종료시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시 보도자료·기상현상증명서 등을 종합해보면 서울 ○○구에는 7일 새벽까지 강설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2022. 1. 6.에는 폭설과 함께 최저 -12도, 최고 -1.9도의 강추위가 있었으며 2018. 1. 23. 이후 서울시는 3년 만에 한파경보를 발령하였다.

3) 2021. 1. 6. 폭설로 인한 재해근로자의 야간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비협조로 CCTV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재해근로자의 동생 최○○의 사실확인서, 딸 최◇◇의 사실확인서, 부검감정서, 폭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근로자는 약 4시간 15분 이상 제설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능히 추정할 수 있다.

4) 재해근로자의 발병 3일~4일 전 야간 제설작업량을 계량화한다면 작업 면적, 적설량, 눈의 평균 단위 중량을 고려하였을 때, 발병일 전 2주~12주간 1주 평균에 비해 발병일 전 1주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다.

라. 급성 과로 여부와 관련하여, 재해근로자는 발병 만 3일 전 2021. 1. 6. 서울 ○○구에 내린 최대 13.7cm 폭설로 최고 -1.9도, 최저 -12도의 강추위 속에서 약

4시간 15분 이상의 ‘야간 제설작업’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발병 3일 전 제설 작업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서 만24시간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재해 근로자의 발병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근로자는 약 12년 10개월간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여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다.

2) 재해근로자의 직종은 경비원이지만 재해 3일 전 2021. 1. 6.~2021. 1. 7. 폭설로 인하여 단기간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제설작업을 수행했는데, 해당 기간 만큼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직업군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고, 재해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직종의 제설작업은 단기 혹은 급성 과로라 할 수 있다.

3) 재해근로자는 2021. 1. 7. 최저기온 -16.5도 속에서 제설작업을 하였고, 강추위 속에서 “제설작업 → 난방이 되는 숙직실 → 다시 강추위 속 제설작업 → 숙직실의 수차례 이동”은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재해근로자의 발병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바. 진술한 바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의 발병일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49시간 35분에 달하고, 장기간의 교대제 업무·발병 만 3일~4일 전 혹한 및 폭설 속에서 야간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업무상 과로에 노출 되었으며, 이러한 업무부담 요인들을 바탕으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재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1. 1. 10.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1. 6. 7.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2022. 4. 14. 1차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지급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를 보완하여 2022. 7. 18. 2차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이 중복하여 심의 의뢰된 경우’로 판단하여 회송한바, 원처분기관이 이를 근거로 2022. 9. 14. 2차 부지급 처분을 하자 2022. 10. 17. 재심사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건의 진행 경과

- 2021. 6.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1차 청구
- 2022. 4. 14. 1차 부지급 결정
- 2022. 7.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2차 청구
- 2022. 9. 14. 2차 부지급 결정
- 2022. 10. 20. 재심사 청구

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는 2021. 1. 10. 19:07경 서울 ○○구 ○○빌딩 지하 1층 화장실 용변 칸에서 변기를 안은 자세로 사망해 있는 것을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9:30경 사망했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배대동맥파리의 파열’로 확인된다.

3)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 질병판정서 등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 등

- 가) 소정근로시간: 격일 24시간(07:00~익일 07:00)
- 나) 휴식 시간: 점심 식사 1시간, 저녁 식사 1시간, 그 외 20분, 수면시간: 8시간

다) 근로 형태: 계약직, 격일제

라) 근무지 및 구조: 재해근로자의 근무지는 ○○빌딩으로 당해 건물은 △△社の 사옥으로 고인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했으며, 지하 1층에는 심야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숙직실, 화장실 등이 있다고 함. 숙직실은 CCTV 모니터가 있고, 24시간 켜져 있다고 함

마) 업무 내용: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빌딩 관리로써, 07:00까지 출근하여 기존 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유니폼으로 환복한 후, 1층 안내데스크에서 △△社の 직원들이 출근하면 인사를 하고 외부손님이 오면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함. 재해근로자가 출근하면 교대자로부터 인계인수를 받고, 1층 안내데스크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주변 청소를 한다고 함

바) 출퇴근 수단: 평소 지하철 이용 출퇴근, 다만, 2021. 1. 9. 아침(재해 하루 전) 퇴근길에는 2021. 1. 6. 밤새 폭설이 와서 눈을 치우느라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기 힘들어 택시를 타고 퇴근했다고 함

사) 점심 식사 및 저녁 식사

○ 점심 식사 시간은 보통 11:30~12:30 구내식당에서 한다고 함

○ 저녁 식사는 재해근로자의 경우 반찬을 싸서 다니면서 식당에서 밥만 받아두었다가 먹었다고 함

아) 아침 기상 시간 및 퇴근: 재해근로자는 보통 숙직실에서 05:00경 일어나서 간단한 세면 후, 05:20경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건물 문들을 열고 내외부를 한 바퀴 순찰한 다음, 교대 근무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했다고 함

자) 저녁 식사 후의 업무: 재해근로자는 지하에서 저녁 식사 후 올라와서 건물 각 층별로 순찰을 돌고, 만약 직원들이 남아 있으면 다 퇴근할 때까지 1층에 있고, 다 퇴근하면 문을 잠그고 지하로 내려가서 쉬었다고 함. 보통 건물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는데, 12월 말~1월 초경 23:00까지 일을 하고 퇴근해서 재해근로자도 23:00 넘어서야 쉬러 내려간 적이 있다고 함

차) 실질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매 시간마다 근무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 담당자와 △△社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함

- 재해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2020년 월 기본급은 1,235,240원임. 이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 최저 기본급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40분 근무/20분 휴게) 역시 이러한 급여 지급을 고려하여 규정해 놓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카) 재해근로자의 하루 일과

- 06:20경 출근 및 인수인계 받음
- 11:30~12:30 점심 식사
- 18:00~19:00 저녁 식사
- 19:00~ 건물 내 총별 순찰
- 21:00~ 취침 추정(△△社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경우)
- 익일 05:00 기상 및 세면
- 익일 05:20경 건물 문 개방 및 내외부 순찰(05:20경 청소 아주머니 출근)
- 익일 06:20경 퇴근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재해 발생 3일 전(2021. 1. 6.~2021. 1. 7.) 혹한 속 야간 제설작업 시 서울 기상 현황
 - 재해근로자의 근무일인 2021. 1. 6.(수)에는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면서 ○○구는 13.7cm의 적설량이 확인되며, 최저 -12도 ~ 최고 -1.9도의 강추위도 확인됨
 - 고인이 제설작업 후 퇴근한 날인 2021. 1. 7. 최저 -16.5도 ~ 최고 -8.4도의 강추위가 확인됨
- (※ 판정위 자료보완) 기상청 날씨누리의 지역별 상세 관측자료 확인 결과 ○○지역에는 2021. 1. 6. 19:17~2021. 1. 6. 22:53 동안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되며 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각인 19:17과 눈이 그친 시각인 22:53 경의 온도는 -6.2도로 확인되었음
- 평소에는 지하철을 이용 출퇴근하였는데, 2021. 1. 9. 06:40경 퇴근 시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 택시를 타고 퇴근함

3) 근무이력

- 고용보험 등 객관적 직력
 - 1998. 1. 1.~2000. 3. 31. ○○○○(주) / 플라스틱 사출

- 2002. 8. 2.~2003. 10. 30. ○○○○공업사 / 플라스틱 사출
- 2003. 11. 3.~2004. 5. 31. ○○○(주) / 플라스틱 사출
- 2009. 6. 3.~2018. 12. 31. (주)○○○ / 주차관리
- 2019. 8. 19.~2021. 1. 10. (주)○○○○ / 경비

4) 원처분기관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재해근로자의 업무부담 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일상 업무수행
- ☐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 과로 및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업무시간 증가 여부: 2021. 1. 6. 18:30경부터 쏟아진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업무시간 증가 여부: 해당 없음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41시간 46분
 -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간 제외) 업무시간: 49시간 01분
-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2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25분
-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격일제 근무(24시간 맞교대)
 -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발병 3일 전(2021. 1. 6.~2021. 1. 7.)에는 13.7cm의 폭설과 함께 기록적인 혹한으로 한파경보도 발령되었으며, 재해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어, 발병일 전 1주일 및 3개월 동안 급격한 온도변화라고 주장함
- ☐ 원처분기관의 업무시간 산정기준
 - 출근 및 퇴근 시간: 교통카드 사용 내역(사업장이 ○○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로 ○○역 하차 및 승차 시간에서 10분 전후로 차감)

5) 재해근로자의 사망일 이전 과거 10년간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 9. 15. 외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 ○○내과의원
- 2011. 9. 27. 외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 ○○내과의원
- 2011. 10. 25. 외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내과의원
- 2014. 3. 13. 외 결장의 기타 폴립 / ○○내과의원
- 2014. 6. 23. 외 혼합성 고지질혈증 / ○○내과의원
- 2015. 12. 21.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 ○○내과의원
- 2016. 1. 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십이지장궤양 / ○○내과의원
- 2018. 8. 31. 외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내과의원
- 2020. 2. 12.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6) 청구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실시한 건강검진 내용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 9. 15.
 - 혈압: 152/96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식이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다음 검진시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자)
 - 가족력: 있음
 - 흡연: 40년(하루 20개비)
- 2014. 3. 13.
 - 혈압: 123/86mmHg

- 소견 및 조치사항: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 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과거력: 고혈압(약물치료 중)
- 가족력: 있음
- 흡연: 금연 중(과거 40년, 하루 20개비)

○ 2015. 12. 21.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 담당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 혈압: 155/99mmHg
- 생활 습관: 체중 개선 필요
- 과거력: 고혈압(약물치료 중)
- 가족력: 있음
- 흡연: 금연 중(과거 40년, 하루 20개비)

○ 2016. 10. 12.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담당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 혈압: 149/102mmHg
- 생활 습관: 운동 관리
- 과거력: 고혈압(약물치료 중)
- 가족력: 있음
- 흡연: 금연 중(과거 40년, 하루 10개비)

○ 2017. 11. 2.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
- 담당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 운동과 식이조절 하시고, 다음 검진 시 중성지방 수치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혈압: 111/72mmHg
- 생활 습관: 운동 관리

- 과거력: 고혈압(약물치료 중), 이상지질혈증(약물치료 중)
- 가족력: 있음
- 흡연: 금연 중(과거 40년, 하루 20개비)

○ 2019. 7. 29.

- 종합소견: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의심 질환: 간질환,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 관리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주기적인 검사 요함
- 유질환: 고혈압,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및 주기적 혈압측정 요함.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및 주기적 측정 요함
- 생활 습관 관리: 신체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운동을 수행하십시오.
- 혈압: 121/85mmHg
- 과거력: 고혈압(약물치료 중), 이상지질혈증(약물치료 중)
- 가족력: 없음
- 흡연: 금연 중(과거 40년, 하루 20개비)

나. 청구인의 자녀와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 4. 5.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1. 2. 25.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설명: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1. 배대동맥에 15x12cm 크기의 파리가 형성된 소견을 보고, 병변의 파열로 인한 후복막강의 출혈을 보는 점
2. 전신의 외피와 골격 및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흉골과 갈비뼈의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소견으로 생각되는 점

3. 기타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약독물검사에서 치료농도 범위의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록사존, 졸피뎀, 쿠테티아핀, 발사르탄 및 아토르바스타틴 외에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5.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건물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배대동맥파리의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나. 2021. 3. 24. 자 재해근로자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소견서, ○○내과, 2021. 3. 24. 〉

- 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 내원일: 2010. 3. 2.
- 진단일: 2011. 9. 27.
- 향후 치료소견: 2011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본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물 치료한 환자로 치료 경과 중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 안정적이었으며 치료에 대한 협조 좋았고 복약 시에 문제없었음

다. 2022. 3. 2. 자 원처분기관 내과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 급사한 정황 및 부검소견을 바탕으로 대동맥류(배대동맥 파리) 파열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 발병 원인: 대동맥류(배대동맥 파리)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노화, 유전적 원인, 감염 및 외상에 의한 혈관 변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음

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된 경찰서의 조사자료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에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배대동맥파리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재해근로자는 (주)○○○○ 소속으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 업무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망일 며칠 전에 야간 제설작업을 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평소 약으로 건강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은 만성 및 단기 과로에 미달하여 상병에 자연 경과 이상의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제설작업이 질병 발생을 악화시켰을 정도의 급격한 환경변화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재해자는 고령이고 고혈압 등 기저에 가지고 있었던 재해자의 위험인자가 질병 발생에 더 영향을 준걸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 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는 24시간 맞교대 근로자로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고, 사망일 며칠 전인 2021. 1. 6. 폭설이 내려 흑한에서 제설작업을 한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자녀와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근로자가 10년 이상 격일제 교대근무에 종사하였고, 사망 원인인 ‘배대동맥 파리의 파열’은 뇌심혈관계 부담작업과 관련이 있으며, 배대동맥 파열 시 한파에서의 제설작업이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2021. 1. 10. 사망에 이른 기간을 볼 때 의학적 경과와 2021. 1. 7.의 과로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추정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의 폭설·한파를 근무 중 업무부담으로 보아 단기 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서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그 양이나 시간이 현격히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의 발병 전 4주와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과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근로자가 24시간 격일제 교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인정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 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2022-4216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19.)

사건의 쟁점

소음 등 유해한 작업 환경과 과로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채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를 수행한 점, 설 연휴 기간과 백신접종으로 인한 반차 사용 일수가 업무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업무시간이 적게 산정된 점,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을 업무 부담 가중요인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급성 및 단기,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달하고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업무시간 산정에 나흘간의 설 연휴와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반차 휴가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주간 업무시간이 과소 계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음과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함께 고려하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21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8.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8.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4. 14. 진단받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3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 8. 1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6일 9~10시간씩 업무수행으로 과로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작업 환경의 소음이 심하여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노동강도가 높은 육체노동임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 있었다.

다. 그러나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는 없었고, 유해한 작업 환경(소음)·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취부) 수행으로 업무 가중요인은 확인되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청구인의 혈압·음주 등 여러 내재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악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의 업무시간 산정기준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나, 청구인의 업무시간 산정 기간인 재해일 전 12주는 2022. 1. 30부터 같은 해 2. 2.까지의 설 연휴 기간과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반차 사용 일수가 포함되면서 업무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연휴와 백신접종 등을 특이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통상 주당 근무시간은

55시간에서 56시간에 이르는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업무시간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당뇨 등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시간은 비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취부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적시하고 있는 유해한 작업 환경인 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이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정되는바, 주당 50시간이 넘는 업무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2가지 이상 해당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강하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2. 4. 14.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은행 업무를 마치고 회사 복귀하여 회사 내 탈의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이용하여 ○○대병원 이송되었으며 거미막하출혈 진단되어 수술 후 치료 중입니다.”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47세, 키 174cm, 몸무게 69kg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6개월간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직력,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무 관계

- 근무 형태: 고정주간 근무
- 근무일: 주 6일 근무(월~토)

- 근무시간: 08:00~17:00(18~00) ※07:40분부터 조회 및 체조 시작
-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근무이력

- 1992. 9. 2.~1992. 12. 31. (약 4개월) ○○기계 / 생산 보조
- 1993. 1. 28.~1993. 3. 31. (총 2개월) (주)○○○○ / 부품가공
- 1993. 12. 1.~1994. 11. 5. (약 11개월) 주식회사○○○○ / CNC 선반
- 1995. 2. 13.~1998. 6. 30. (약 3년 4개월) (주)○○○ / CNC 선반(산업복무 요원)
- 1999. 6. 11.~1999. 7. 17. (약 1개월) (주)○○○○ / 가죽염색 보조
- 1999. 9. 1.~1999. 11. 15. (약 2.5개월) ○○산업사 / CNC 선반
- 2000. 2. 26.~2000. 4. 16. (약 1.5개월) (주)○○기계 / CNC 선반
- 2004. 4. 12.~2006. 7. 7. (약 2년 3개월) ○○기업 / 취부
- 2006. 10. 1.~2007. 6. 1. (약 8개월) ○○산업 / 취부
- 2007. 6. 1.~2009. 5. 31. (약 2년) (주)○○ / 크레인 신호수
- 2009. 10. 1.~2010. 2. 13. (약 4.5개월) ○○기업 / 크레인 신호수
- 2010. 2. 22.~2012. 1. 20. (약 1년 11개월) ○○○ / 크레인 신호수
- 2014. 10. 1.~2015. 10. 1. (약 1년) 주식회사○○ / 크레인 신호수
- 2015. 10. 1.~재해일. (약 6년 6개월) (주)○○○○ / 취부

3) 사업내용 및 근무내용

- 사업내용: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선박 축·타게 등 생산)
- 근무내용: 생산팀 소속으로 부재 분류·취부·이동·곡직 등의 업무수행

다. 원처분기관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재해근로자의 업무부담 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출퇴근 카드
- 청구인의 출퇴근 카드 기록상 07:00경 출근 이력이 확인되나,
07:40경 체조 및 조회 이전까지는 탈의실에서 환의 후 휴식을 취함

- 근로계약서상 업무 시작 소요 시간인 08:00에서 체조 및 조회 시간(약 20분), 환의 등 작업 준비시간(10분)을 포함하여 07:30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일괄 산정하고, 퇴근 시간은 출퇴근 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발병 전일 업무(2022. 4. 13.):
07:00경 출근하여 18:12경 퇴근하였으며,
3303호선 보강철거·바닥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발병 당일 업무(2022. 4. 14.):
07:03경 출근하여 8103호선 곡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였고,
13:05경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넘어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 과로 및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56시간 2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 제외): 49시간 42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13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미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미 초과

5) 업무부담 기중요인

| 구분 | | 해당 여부 |
|----|------------------|-------|
| 1 |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X |
| 2 | 교대제 업무 | X |
| 3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X |

| | | |
|---|-----------------|---|
| 4 | 유해한 작업 환경 노출 업무 | ○ - 소음: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80dB 이상 소음노출 확인됨 |
| 5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 -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높은 업무: 취부 업무 - 취급 물품 무게 25kg, 빈도 1일 10회 |
| 6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X |
| 7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X |

※ 이 사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 2015년도 상반기: 소음 87.3dB(A), 하반기: 소음 91.5dB(A)
- 2016년도 상반기: 소음 98.5dB(A), 하반기: 소음 91.1dB(A)
- 2017년도 상반기: 소음 90.1dB(A), 하반기: 소음 97.2dB(A)
- 2018년도 상반기: 소음 92.5dB(A), 하반기: 소음 97.6dB(A)
- 2019년도 상반기: 소음 96.6dB(A), 하반기: 소음 93.6dB(A)
- 2020년도 상반기: 소음 96.6dB(A), 하반기: 소음 91.9dB(A)
- 2021년도 상반기: 소음 94.1dB(A), 하반기: 소음 99.7dB(A)

〈 업무시간 조사표: 2022. 1. 20.~4. 13. 〉

| 발병 전 | 근무일 | 휴무일 | 근무시간 | | |
|----------|-----|-----|------------|--------|-------|
| | | | 전체 A=(B+C) | 주간 (B) | 야간(C) |
| 1주 | 6 | 1 | 56:02 | 56:02 | - |
| 2주 | 6 | 1 | 56:07 | 56:07 | - |
| 3주 | 6 | 1 | 56:02 | 56:02 | - |
| 4주 | 6 | 1 | 56:04 | 56:04 | - |
| 4주 평균 | 6 | 1 | 56:03 | | - |
| 5주 | 6 | 1 | 50:58 | 50:58 | - |
| 6주 | 5 | 2 | 46:30 | 46:30 | - |
| 7주 | 5 | 2 | 46:21 | 46:21 | - |
| 8주 | 6 | 1 | 56:05 | 56:05 | - |
| 9주 | 6 | 1 | 51:04 | 51:04 | - |
| 10주 | 6 | 1 | 55:05 | 55:05 | - |
| 11주 | 3 | 4 | 25:47 | 25:47 | - |
| 12주 | 5 | 2 | 46:39 | 46:39 | - |
| 12주 평균 | 5.5 | 1.5 | 50:13 | | - |
| 2~12주 평균 | 5.5 | 1.5 | 49:42 | | - |

라.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재해 사실을 불인정한다며, 원처분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보험가입자 의견서, 2022. 6. 14. 〉

○ 재해 사실 또는 발병 사실에 대한 의견

- 소속 근로자 ○○○의 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경위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에 의한 사유로 불인정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서 中 일부, 2022. 6. 14. 〉

16. 기타 재해자의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 2022. 4. 14.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이 요양급여 신청한 것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당사는 다음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① 2022. 4. 14. 근로자는 본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휴게시간 중 개인 업무를 보고 휴게시간이 지나 회사 정문 안으로 들어왔고, 회사 내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외부 충격이나 여타 시설물의 충돌 없이 정신을 잃고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②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기에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시 이용한 자전거가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닌 본인 소유 자전거였으며, 회사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 밖에서 개인 업무를 보고 휴게시간이 초과하여 회사 정문으로 들어왔으며, 또한 근로 제공을 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임과 더불어 휴여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본다고 하여도 해당 사고에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③ 끝으로 상기 작성한 3번에서 10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근무 일정 예측의 어려운 점은 없으며, 근로시간은 주중(화~금) 1시간과 토요일 5시까지 연장근로는 하였습니다. 휴게시간(하루 80분 휴게시간)과 휴일(2월에는 설 연휴, 3월에는 3.1절과 선거일)이 부족한 근로자로는 보이지 않으며, 사고 발생 전 평소와 다른 업무를 수행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요양급여 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마. 청구인의 신청 상병 관련 ○○대병원의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기록, 2020. 4. 14. 〉

- 주 증상: mental change

발생일시 2022. 4. 14. 13시 05분

- 현 병력

〈 P. I 〉

13시 05분〉 자전거 타는 중에 쓰러짐

- 회사 앞

- 회사 휴식 시간에 은행 갔다가 복귀하는 길이었다고 함

- CCTV로 확인한 결과, 조작 미숙이 아니라 mental change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됨

- 팔로 집거나 하는 모습 없이 바로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

- 넘어지면서 Rt. temporal area 부딪힘

13시 07분〉 119 신고 접수

- 목격자(회사 동료 직원)에 따르면, 119 도착 전까지 코를 고는 모습 보였다고 함

13시 15분〉 119현장 도착

- mental: deep drowsy~ stupor

- 119가 seizure로 추정되는 증상 목격함

: 입에 거품(+)

온몸이 뻣뻣하고 주먹을 꼭 쥔 상태

특별한 자세 없이 흐트러진 모습

미세하게 온몸을 떨고 있었다고 함

13시 22분〉 mental alert / confused state

- 05분~22분까지 총 17분간 LOC(+)

- 자전거 탔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함

- 사고 경위를 반복해서 물어보는 모습

13시 52분〉 본원 ER 도착

- mental alert

- 마지막 기억은 모르겠다고 함

- 지남력: 사람/장소/시간(+/?)

: 현재 몇 월인지는 대답하나, 아침인지 밤인지는 모르겠다고 함

- 두통(+): 양쪽 관자놀이 쪽 두통 호소
- 어지럼(+)
- Rt. temporal area laceration(+)
- motor/sensory intact

바. 청구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기록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실시한 건강검진 내용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2021. 5. 3.)

- 계측검사: 신장 174.5cm, 체중 69kg, 혈압 136/88mmHg(고혈압 전 단계)
- 혈액검사: 공복혈당 107(공복혈당장애 의심), 총콜레스테롤 검사 비해당
- 종합판정: 정상 B
- 문진 내용: 과거 흡연 1년(5개비, 끊는지 25년), 음주 주 1회(소주 2병, 맥주 1병)

2)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2020. 8. 17.)

- 계측검사: 신장 174.5cm, 체중 67kg, 혈압 136/78mmHg(고혈압 전 단계)
- 혈액검사: 공복혈당 103(공복혈당장애 의심), 총콜레스테롤 검사 비해당
- 종합판정: 정상 B
- 문진 내용: 과거 흡연 1년(5개비, 끊는지 20년), 음주 주 1회(소주 2병, 맥주 2병)

3) 2019년도 일반건강검진(2019. 4. 29.)

- 계측검사: 신장 174cm, 체중 64kg, 혈압 130/85mmHg(고혈압 전 단계)
- 혈액검사: 공복혈당 103(공복혈당장애 의심), 총콜레스테롤 검사 비해당
- 종합판정: 정상 B

4)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2018. 5. 3.)

- 계측검사: 신장 174cm, 체중 64kg, 혈압 130/80mmHg(고혈압 전 단계)
- 혈액검사: 공복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64mg/dL, HDL 49mg/dL, LDL 102mg/dL,

중성지방 92mg/dL

- 종합판정: 정상 B

5) 2017년도 일반건강검진(2017. 4. 21.)

- 계측검사: 신장 175cm, 체중 66kg, 혈압 115/76mmHg

- 혈액검사: 공복혈당 102, 총콜레스테롤 212mg/dL, HDL 53mg/dL, LDL 155mg/dL, 중성지방 62mg/dL

- 종합판정: 정상 B(고콜레스테롤혈증 주의, 경미한 혈당 상승)

아. 원처분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흡연력: 과거 약 4년간 하루 10개비 흡연(약 20년 전 금연)

(2016년도 건강검진 문진 내용)

○ 음주력: 주 1회, 약 소주 2병·맥주 1병 (건강검진 문진 내용)

○ 취미활동 및 사고 이력: 특이사항 없음

6. 의학적 소견

가.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상, 2022. 5. 1. 자 ○○대병원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 일자: 2022. 4. 14.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4. 14. 오후 1시경 자전거를 타다 의식 저하로 넘어지며 우측 측두부 수상 당해 119 통해 응급실 내원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내원 당시에는 두통 외에 호소하는 증상 없음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확인

○ 입원

예상 기간: 2022. 4. 14.~5. 14. (5주)

사유: 수술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수술 시행 및 이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경과 관찰을 위해 최소 4주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 수술 여부: 있음

수술명: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

수술일: 2022. 4. 15. 본원

나. 2022. 8.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주)○○○○에서 취부 업무 수행하였고, 주 6일 9~10시간씩 업무수행으로 과로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작업환경의 소음이 심하여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노동강도가 높은 육체노동임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소속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으며,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취부) 수행으로 업무가중요인은 확인되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청구인의 여러 내재적인 요인(혈압, 음주 등)들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였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업무시간 산정 기간에 포함된 설 연휴 기간과 백신접종 등을 고려하면 통상 주당 근무시간은 5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2가지 이상 해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바,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6시간 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각 56시간 3분과 50시간 13분으로 단기·만성적인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업무시간 산정 기간에 2022. 1. 30.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와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반차 휴가가 포함되면서 해당 주 업무시간이 25시간 47분으로 계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해 발생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13분으로 과소 계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판단인바, 연휴·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12주 평균을 업무시간을 산정하여보면 충분히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행한 취부 업무는 직업군 분류에 따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전 7년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평균 소음이 94.1dB로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2가지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통상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상태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신청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발병·악화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임상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 7. 1.][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2022. 4. 28., 일부개정.]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② 교대제 업무
 -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2022-4547 1단]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5. 4.)

사건의 쟁점

폭염의 환경에서 건설 현장 관리와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과로 누적과 폭염 및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에게 일부 중량물 취급 사실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으로 볼 수 없어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상 급성 및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 기준을 미달하는 점, 발병 당일 오전에 큰 폭의 기온 상승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과 그 외 인정할 수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547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아버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서, 재해근로자가 2022.

6. 18.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7. 1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22. 9. 19.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발병 당시 돌발상황이나 특이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당 업무시간도 1주 43시간, 4주 평균 51시간 15분, 12주 평균 52시간 29분으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며, 일부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지게차 등 도구를 이용함에 따라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가 창고 관리 및 현장 자재 운반업무 수행 중 과도한 업무시간 및 폭염의 날씨, 과로 누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원처분기관이 산정한 업무시간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출근 전후 및 휴일의 업무 관련 통화 시간과 준비시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있는 업무이고, 모두 야외 작업이므로 날씨와 기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작업 환경으로서 재해 당일에도 기온 상승이 있었으며, 주 6일 근무 후 휴일인 일요일에도 업무 관련 통화가 이어져

온전히 주말을 쉬지 못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보아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판단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 발생 경위는 “2022. 6. 3. 10:30경 ○○시 ○○동 철거 작업 장소인 현장에서 업무 보는 도중 갑자기 땀을 흘려 동료 2인이 더위로 인한 원인인 줄 알았으나 갑자기 머리 통증을 호소해 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재해근로자의 119구급활동일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9구급활동일지 〉

- 현장도착: 2022. 6. 3. 11:00
- 환자증상: 질병(두통, 호흡곤란, 식은땀)
- 환자이송
 - 병원도착시간: 2022. 6. 3. 11:37
 - 이송의료기관: ○○병원

3)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병원 〉

- 응급실 경과기록
 - 진료일자: 2022. 6. 3.
 - C/C mental change

두통, 어지럼증으로 신고

119 이송도중 seizure like movement, mental change 로 내원

119 도착 시 SBP 200 이상 확인됨

- 진단: 1. Mental change

○ 입·퇴원 요약기록

- 진단명: 주진단 SAH 진단코드(가코딩) I609.003[Y], J9609.000[N]

- 주호소: 1. comatose mentality

- 현병력

M/32

no underlying dz

10:30AM 직장에서 앉아있다가 두통, 어지러움 호소하며 식은땀 흘리는 모습 관찰되었고

10:57AM 119 도착 당시 mental alert 했다고 함

11:30AM 환자 이송 중 가슴 답답함, 두통 호소하고, 토할 것 같다고 한 뒤 seizure 발생하였음

- 과거력

DM/HTN/TB/Hepatitis(-/-/-/-) Dyslipidemia(-) thyroid disease(-) Medication history(-) OP Hx(+) F Hx(-)

Social Hx : Smoking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 pack-year Alcohol +

- 치료과정: adm. period : 2022 06 03 - 06 18

- 추후계획: expired

4) 재해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 2022. 6. 18. ○○병원 〉

○ 사망일시: 2022. 6. 18. 04:19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나) (가)의 원인: 중증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라) (다)의 원인: -

5)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근로관계와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
 - 주업태(주종목): 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부업태(부종목): 건설업(건설기계대여, 토공사, 지반조성건설업)
- 근무기간: 2021. 4. 21.~2022. 6. 3.
- 담당업무: 공사부 소속 창고 관리 및 현장 자재운반 등
- 근무형태: 주 6일(월~토) 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08:00~17:00
 - 실제근무시간: 07:00~17:00 (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60분(점심시간 12:00~13:00)

○ 근무이력

- 2021. 4. 21.~2022. 6. 3. 주식회사○○○○ / 창고 관리 및 현장 자재운반 [1년 1개월]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근무장소: ○○시 ○○○-○번지 창고
- 담당업무: 현장별 필요한 자재, 공구 등 지원, 창고 내 자재, 공구 등 관리업무
 - 재해근로자는 ○○동 창고로 출·퇴근,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창고로 복귀 후 퇴근
 - 재해근로자의 주 업무는 현장에 필요한 공구, 자재 등 지원 및 창고 관리 업무이며, 간혹 필요시 현장에 신속수 업무를 지원
 - 현장 지원 시 1톤 화물차 이용

- 현장은 인천, 부천, 서울 근교 등으로 확인
- 1일 현장 이동은 많으면 4~5곳, 적으면 1~2곳이며, 현장이 없는 경우는 창고 내에서 자재 등 정리(또는 간혹 현장 필요시 신호수 업무 지원)
- 출·퇴근 교통수단: 대중교통 또는 1톤 화물차량(회사 소유 차량)
- 2021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사업개시현황(2022.7월 현재) 등 확인 결과, 소속 사업장 건설실적(시공건수)은 아래와 같음

[2021년도_건설공사실적신고서 참고]

- 공사건수: 지반조성포장공사 18건, 구조물해체비계공사건수 43건
- 공사지역: 서울, 경기

[2022.7월 현재_사업개시현황 참고]

- 공사건수: 15건
- 공사지역: 경기 부천, 인천부평, 서울(용산구 원효로, 구로구 궁동)

6) 원처분기관에서 재해근로자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은 없었고,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평균 43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2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다) 발병 전 4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51시간 15분, 52시간 29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처분기관의 업무시간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근무시간 산정 근거

- 근무일 및 휴무: 사업주 제출 근무내역 조사표에 의해 산정
- 출퇴근 시간: 출퇴근기록 관련 출·퇴근카드 등 객관적 자료 없어 청구인 제출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사업주 제출 근무내역 조사표, 사실관계확인서, 대표 유선 확인 내용으로 산정
- (청구인 주장)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00~17:00이나, 오전 6시 자택 출발, 06:40분 정도 전화와 단독으로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 시작, 저녁 7시 자택 도착 퇴근하였다며, 업무개시시간 06시 35분, 업무종료시간 17시라는 주장
- (사업장 주장)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00~17:00이나, 사업장 근무내역조사표, 사실관계확인서 및 대표 유선 확인 시 통상 07시부터 17:00경으로 확인됨
- *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확인되는 일자)에서도 고인의 근무장소(○○동 창고) 인근 정류장(○○동 종점)을 기점으로 승차(-3분),하차(+3분) 시간이 07시경, 17시경으로 확인
- * ○○동 종점 정류장 기점으로 ○○동 창고까지 도보 약3분 소요(네이버 지도 검색 참고)확인 (업무시작: 하차시간+3분, 업무종료: 승차시간-3분)
- (조사자 의견) 당일 오전6시~6시반 경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지시와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날짜는 동 자료를 근거로 업무시작 또는 업무종료시간을 산정하고, 그 외 확인 불가한 날짜는 통상 근무시간 07:00~17:00로 산정(휴게시간 60분 공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라)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유해한 작업 환경 | |
|-------------|--|
| 청구인 주장 | 6월 초 폭염으로 밖에서 뜨거운 날씨에 피로감 등이 증가 |
| 사업장 의견 | 청구인 주장(폭염 노출)에 동의: 외부 작업 특성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
| 원처분기관 조사 | 발병시간이 오전 10시반 경인 점을 볼 때 폭염에 지속적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6월 초 기온 확인결과, 발병 전일(2022.6.2.) 대비 발병일(2022.6.3.) 기온 상승 확인되어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 |

| | |
|--|---|
| | <p>* 2022년 6월 날씨 기상청 정보</p> <p>[인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1.(수요일) 평균기온 20.4℃, 최고기온 25.4℃, 최저기온 16.5℃ . 6. 2.(목요일) 평균기온 19.5℃, 최고기온 23.5℃, 최저기온 16.6℃ . 6. 3.(금요일_발병일) 평균기온 21.3℃, 최고기온 26.0℃, 최저기온 18.4℃ <p>[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1.(수요일) 평균기온 22.1℃, 최고기온 28.6℃, 최저기온 16.2℃ - 6. 2.(목요일) 평균기온 21.5℃, 최고기온 26.95℃, 최저기온 17.1℃ - 6. 3.(금요일_발병일) 평균기온 24.5℃, 최고기온 32.6℃, 최저기온 16.7℃ |
|--|---|

②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 |
|--------|--|
| 청구인 주장 | 철거현장에 필요한 공구를 혼자 정리 및 이동, 30~40kg 중량물 수시 취급 |
| 사업장 의견 | 철거 공구는 중량물이 많지 않고, 현장에서 쓰는 강관비계파이프(길이 6m, 무게 16kg)를 운반 정리하였다는 의견 |

| | |
|----------|--|
| 원처분기관 조사 | <p>1일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지 객관적 확인은 불가하나, 철거 현장에 공구, 자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창고 내 자재 등 정리업무를 수행 하면서 화물차량 상차 또는 정리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판단 되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중량물 취급)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있음 으로 판단</p> <p>* 사업장 대표 유선 확인 시, 고인은 중량물을 취급하진 하였으나 1일 누적 중량물은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취급한 공구, 자재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구: 파트너(절단용), 클립 등 - 자재: 강관비계파이프(아시바파이프), H-빔 등 - 중량: 파트너-약 20kg, 클립-날개를 포대에 모아 1포대당 약 30kg 정도, 강관비계파이프-개당 16kg, H-빔-인력 취급하지 않고 지게차 등 도구 이용 - 현장마다 평균 200개 정도 필요하나 현장별 추가 필요한 경우 발생 시 고인이 현장에 소량으로 지원 |
|----------|--|

③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 |
|--------|--|
| 청구인 주장 | 상사와의 트러블: 철거 현장 상황에 따라 상사와 소통 불일치(나이, 직급으로 인한)가 있음 |
|--------|--|

| | |
|-------------|--|
| 사업장 의견 | 청구인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
| 원처분기관 조사 | 상사와의 트러블 발생에 대한 상황,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동 가중요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7) 원처분기관에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개인적 요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재해일 기준 32세, 키 178cm, 몸무게 94kg 남성으로, 평소 주당 1회씩 소주 1.5병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1일 0.5갑씩 총 6년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재해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진료내용 〉

- 2020.11.10.(1회) ○○병원
 - 주상병: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1.11.29.(1회) ○○재단 ○○병원
 - 주상병: 상세 불명의 흉통, 부상병: 명치 통증

다) 재해근로자의 과거 일반 건강검진 결과 및 산재 요양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2022. 7. 1. ○○시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유족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재해자, 부모), 사실확인서 등 확인 결과,
 -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까지 혼인 사실이 없고 자녀도 없으며,
 -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함께 동거한 부 '박○○은 60세 이상이기는 하나 재해자 소득(결혼준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 부(박○○)와 모(김○○)가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 재해근로자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내용을 볼 때 동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재해근로자 부(박○○), 모(김○○)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동 순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 성명: 박○○, 김○○
 - 관계: 사망근로자의 부모
- 장례실행 및 비용부담자
 - 성명: 박○○
 - 관계: 사망근로자의 부

9)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재해근로자는 2021. 4. 21.부터 주식회사○○○○에서 창고 관리 및 현장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발병 전 업무시간은 1주 43시간, 4주간 1주 평균 51시간 15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29분으로 조사되었다.
 - 그 외 건강보험 수진이력상(최근 10년 이내) 2020년에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 내역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영상자료 등 의학 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연수마비, 중증뇌부종, 지주막하출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주식회사○○○○에서 창고 관리 및 현장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소수 심의위원은 12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의 근무시간과 발병일 당시의 기온 상승 및 중량물 취급내용 등의 가장 요인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나,

- 반면 다수 심의위원의 의견은, 발병 당시 돌발상황이나 특이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당 업무시간도 1주 43시간, 4주 평균 51시간 15분, 12주 평균 52시간 29분으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일부 중량물 취급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지게차 등 도구를 이용함에 따라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연수마비, 중증뇌부종,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 5. 4.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출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있는 업무이고, 날씨와 기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야외 작업 환경으로 재해 당일에도 기온 상승이 있었으며, 주 6일 근무 후 휴일인 일요일에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등의 가중요인이 과도한 업무시간에 더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목록으로는 구체적 통화 목적 및 업무 관련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이를 업무시간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평균 43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21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15분과 52시간 29분으로 업무상 만성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폭염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업무라고 주장하나 발병 당일 오전 시간에는 전일 대비 큰 폭의 기온 상승이 없었고, 발병 시각인 10:30경의 최고기온은 22.6℃ 정도로, 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며, 일부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서 재해근로자가 취급한 1일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지 객관적 확인은 불가능하고, 지게차 등을 사용하므로 연속적인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또한, 휴일이 부족한 업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중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월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여야 하는바, 평균 주 6일 근무한 사실과 휴일 통화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가중요인으로 볼 만한 요인은 없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2023-674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6. 16.)

사건의 쟁점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던 재해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무거운 도배 용품을 배달하는 업무가 심장에 직접적인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심장박동기 착용, 난치성 뇌전증, 고지혈증 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배송 업무(혼자서 30kg 상당의 도배 용품을 배달)를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급성 및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674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외 1명 (재해근로자의 자녀)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5. 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재해근로자의

자녀로서, 재해근로자가 2021. 9. 28.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1. 12. 30.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각각 2022. 5. 3.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과 2022. 12. 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2. 1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하더라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00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00분’으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 인정 기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재해근로자의 사인으로서는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 또는 원인불명의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약 '32시간 00분'으로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약 '41시간 00분', '45시간 00분'으로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3) 재해근로자는 심장박동기 착용, 난치성 뇌전증, 고지혈증 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나, 퇴근 시간 이후 도배 용품 부자재 등의 주문이 들어오면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사망 당일에도 퇴근 시간인 18:00 이후 주문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

나. 기존 질환으로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재해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혼자서 30kg 상당의 도배 용품을 배달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장에 직접적인 무리가 갔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21. 9. 28. 18:45경 ○○시 ○○구 ○○○아파트에 도배 부자재를 배송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 후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의증)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인 청구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재해근로자는 2020. 7. 1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배 부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직업력 및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 2020. 7. 16.
- 직종: 도배부자재 납품(배달)
- 근무형태: 상용직, 고정주간, 주 5.5일
- 근무시간: 08:00~18:00(토요일 08:00~15:00, 주중 1회 15:00 조기퇴근)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불규칙

나. 이전 근무 및 사업자등록이력

- 4대보험 및 관련 자료(5년 이내)
 - 2016. 1. 4.~2016. 11. 1. ○○자원
- 사업자등록이력
 - 2016. 11. 1.~2020. 10. 31. ○○로지스
 - 2012. 4. 19.~2015. 12. 31. ○○프라

다. 발병 이전 업무 현황

- 사업장 확인 및 조사사항
 - 재해근로자와 사업주는 알고 있던 사이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일을 시작하였고, 사업 초기에 거래처 등이 없고 처음이라 거의 일이 없이 둘이 사무실에 있었고, 21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함
 - 이 사건 사업장 입사하기 전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 개인 사업자를 갖고 배송(자영업) 일을 하였고,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미리 주문 온 곳에 배달하면 되는 업무라 쉴 틈 없이 배송해야 하는 택배 배송보다는 쉬운 일이라는 사업주 주장. 다만 가끔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있다고 진술

- 1일 배달업무 약 25건 정도로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나누어서 수행. 1인당 12~13건 정도 오전, 오후 배달을 수행
- 배달 지역도 천안과 아산으로 배송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것도 없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중 하루 정도 예산에 배달을 수행
- 일반적으로 배달업무는 미리 연락이 와서 스케줄에 맞추어 배달하고 있고, 급하게 당일 배달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해 당시도 다음날 작업을 위해 미리 주문한 것을 퇴근길에 배송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배달 물량이 많은 것은 대부분 대표자가 배달업무를 함
-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하루 조기퇴근(15:00경 퇴근)을 하고 토요일 08:00~15:00 근무, 일요일은 휴무
-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점심은 사무실에서 사업주와 같이 먹음), 점심시간 외 별도 정해진 휴식 시간은 없고 배달이 없는 시간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있는 등 본인이 스스로 휴식

○ 일일 업무내용

- 08:00~08:30: 회사 / 거래명세서 작성 및 물품 준비
- 08:30~12:00: 배송 / 납품 배송
- 12:00~13:00: 회사 / 점심 식사
- 13:00~13:30 회사 / 거래명세서 작성 및 물품 준비
- 13:30~17:00 배송 / 납품 배송
- 17:00~18:00 회사 / 거래명세서 정리 및 물품 정리

다.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 발병 전 업무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시간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

-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 확인되지 않음
- 단기 과로 30% 이상 업무시간 증가 없음
 -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32시간 00분
 - 발병 전 2주~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0분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12주) 〉

- 만성적 과로 해당 없음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00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
 -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높은 업무: 배송 업무
 - 취급물품: 도배 부자재, 무게: 14kg, 빈도: 1일 70회

라. 재해근로자의 사망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저질환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 6. 22.~2021. 8. 10. (24회) 상세불명의뇌의악성신생물 / ○○대병원
- 2012. 11. 8.~2021. 6. 3. (15회) 심장전자장치의존재 / ○○대병원
- * 2004. 12. 8.부터 심장박동기(Pace Maker) 착용
- 2012. 11. 8.~2019. 6. 10. 동기능부전증후군 / ○○대병원
- 2014. 2. 4.~2021. 8. 10. (11회) 기립성저혈압 / ○○대병원
- 2017. 12. 19.~2019. 12. 13. (29회)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내과의원
- 2017. 12. 20.~2019. 11. 1. (15회) 혼합성고지질혈증 / ○○내과의원
- 2019. 8. 22.~2020. 6. 30. (11회)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의원

- 2019. 8. 22.~2020. 4. 25. (9회)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의원
- 2020. 5. 11. 상세불명의심방세동및심방조동 / ○○대병원
- 2020. 7. 28.~2021. 9. 14. (13회) 혼합성고지질혈증,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의원
- 2021. 6. 3. 상세불명의심방세동 / ○○대병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div>심초음파 결과보고서</div> <div>2017. 3. 16.</div> <div>○○대병원 순환기내과</div> | <div>○ BP: 147 / 74</div> <div>○ HR: 60</div> <div>○ Final Impression</div> <div>1. Dilated LV cavity size and systolic function; Calculated EF: 59%</div> <div>2. Dysynchronous LV contraction</div> <div>3. LV hypertrophy based on LV mass index</div> <div>4. Billowing of bileaflet of MV with mild MR, Mild TR</div> <div>5. Minimal amount of pericardial effusion</div> <div>6. Dilated LA cavity</div> <div>7. Decreased global LV longitudinal strain</div> |
| <div>입원초진기록</div> <div>2017. 3. 24.</div> <div>○○대병원 순환기내과</div> | <div>○ Present Illness</div> <div>#1. know SSS on PM(VVIR) ('04.12.8.)</div> <div>#2. h/o PM malfunction ('05.1.)</div> <div>#3. h/o PM lead change ('07.11.)</div> <div>#3. h/o Brain tumor('05.3.)</div> <div>s/p craniotomy and tdumor resection (2005. 5. 27.)</div> <div>환자 어릴 적 심장에 이상 있다고 들었으나 치료받지 않다가 '04년 11월 몸이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어 Holter monitoring 시행했으며 AF</div> |

| 구분 | 내용 |
|----------------------------------|---|
| | with tachybrady syndrome 진단 하에 '04.12.8. PM insertion 받은 분 이후 별 증상 없다가 '05년 1월 직장에 일하던 중 눈앞이 하얘지다가 syncope 발생. cardiac massage 시행됐고, 이후 의식 돌아와 R/O malfunction으로 입원함. '07년 6월 말에는 어지러움으로 외래 때 PM capture failure 발견되어 lead 교체함 이번 십 년 만에 PM revision 위해 입원함 |
| Brain CT 2021. 8. 3. ○○대병원 | ○ Conclusion - s/p Surgical resection of oligodendroglioma in the right temporal lobe. - Focal post-op. tissue loss and cerebromalacia in the right temporal lobe. - No definite newly appeared enhancing lesion. ○ Clinical Information - right T oligodendroglioma |

바. 재해일인 2021. 9. 28. 자 ○○병원 의무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 된다.

| 구분 | 내용 |
|---------------|---|
| 응급실 의사 기록지 | ○ CC: cardiac arrest ○ onset: 2021. 9. 28. 18:54 ○ PI: pacemaker 삽입한 분으로 주민분이 1층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신고, arrest 상태로 내원. V.fib 확인되어 3회 defib 시행, 내원 시 asystole. ○ P/E - NRS: - - Mentality: U - PI(-) / PTH(-/-) |

| 구분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 w/o rale - RHB w/o murmur - Abd: Td/RTd/Mg (-/-/-) - CVA Td (-/-) - Bowel sound - WNL - NEx - unremarkable <p>○ IMP : cardiac arrest</p> <p>○ Plan : ACLS, 30분가량 지속에도 asystole 지속되어 expire 선언함</p> |

사. 신체조건 등 원처분기관의 기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조건
 - 사망일인 2021. 9. 28. 기준 신장 174cm, 체중 75kg
- 음주 및 흡연력
 - (청구인 주장) 간헐적 음주, 2000년 이후 금연
- 특이사항: 심장박동기(Pace Maker) 착용

아. 청구인은 2023. 6. 16.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1. 9. 28. 자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발병일시: 2021. 9. 28. 18:56 추정
- 사망일시: 2021. 9. 28. 19:53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의증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나. 원처분기관에서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장사 의증’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는 2022. 3. 21.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사망진단서 상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2004. 12. 8.부터 심장박동기(Pace Maker)를 착용 상태로 진료기록 상 나타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바,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 (급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단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3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만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하더라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00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00분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 “급성심장사(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2인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 (심장내과)

- 상기 1900년생의 남성 재해근로자는 2004. 12. 8. Sick sinus syndrome에 의해 인공심박동기를 삽입 받았으며 2007년 lead fracture에 의한 capture failure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소생되어 인공심박동기의 유도선을 재삽입하여(lead revision)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후 심장 문제에 관해서는 별문제 없이 지내다가 2017. 3. 14. 최종적으로 generator를 교체하였으며 당시 심초음파상 좌심실의 확장은 있었으나 심장 수축기능은 유지되고 있었던 환자로 2005년 측두엽상의 뇌종양에 대해 제거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난치성 뇌전증이 존재했던 사람임
- 2021. 9. 28. 업무 중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돌연사 환자로 가) 심장 돌연사에 의한 사망 가능성 및 나) 뇌전증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34배 높은 발생율을 갖는 원인불명의 돌연사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공히 존재함
- 재해근로자의 업무내역 및 작업 환경 조사상 과로 및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은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부재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자문의 2 (직업환경의학과)

- 재해근로자는 도배 부자재 납품(배달)직으로 2021. 9. 28. 18:45경 도배 부자재를 배송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함.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임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 과로를 판단할 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1시간 00분, 45시간 00분으로 업무상의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는 바 없음

- 2004년 심장박동기 착용, 난치성 뇌전증, 고지혈증 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사망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마.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재해근로자의 사인으로는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 또는 원인불명의 돌연사 가능성이 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약 32시간 00분으로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약 41시간 00분, 45시간 00분으로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으며, 고인은 심장박동기 착용, 난치성 뇌전증, 고지혈증 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 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 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청구인은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나, 퇴근 시간 이후 도배 용품 부자재 등의 주문이 들어오면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망 당일에도 퇴근 시간인 18:00 이후 주문이 들어온 사실이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재해근로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혼자서 30kg 상량의 도배 용품을 배달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장에 직접적인 무리가 갔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근로자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0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0분으로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배송 업무’로 인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1시간 00분 및 45시간 00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인 심장박동기 착용, 난치성 뇌전증, 고지혈증 등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단되는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2023-1006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9. 15.)

사건의 쟁점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원인을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30%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 시간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특히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 퇴근 시간을 확인할 때 구글 타임라인과 차량용 블랙박스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재해일 이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2분으로 그 이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보다 약 33%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상 급성 및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 기준에 미달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여 검토한 결과, 발병 전의 11주, 12주 기간 중 총 10일간 연속적으로 휴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 업무부담 또한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006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사망진단서상 ‘뇌경색’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2022. 4. 19.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3. 1. 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23. 2. 20.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1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발병 당시 특이사항이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량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며,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타임라인의 객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장에서 체류한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4. 12. ~4. 16.의 사업장에 체류 중인 타임라인 상 실제 퇴근 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예 증거자료로서 전체를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의 재해발생일 1주일간의 근무시간 조사에서 실제 퇴근 시간이

잘못 계산되었다.

1)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태 리드기에는 출근 시간만 분 단위로 하여 정확히 찍혀있고, 퇴근 시간은 4. 11. (월)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서 소정근로시간인 17시로 임의로 퇴근 시간을 간주하였다.

2) 재해근로자가 실제 몇 시에 퇴근하였는지는 “사업장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구글 타임라인”과 보조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근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근태 리드기상 4. 12. ~4. 16.까지의 퇴근 시간이 찍혀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7시로 일괄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구글 타임라인으로 사업장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실제 퇴근 시간을 퇴근 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4) 구글 타임라인을 근로시간을 인정할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의 근로 시간의 증가율은 그 이전 11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보다 33%보다 증가하였으며, 그 비교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 | | | | | |
|----------------------------|----|----|-------|----|------|-------|-------|------|-----------|----------------|
| 구글 타임라인상 사업장 체류시간 | 월 | 일 | 요일 |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총시간 | 휴게 | 실근로 | 1주간 실근로시간 |
| | 4월 | 11 | 월 | 1주 | 6:47 | 20:36 | 13:49 | 1:00 | 12:49 | 60시간 02분 |
| | | 12 | 화 | | 7:16 | 18:03 | 10:47 | 1:00 | 9:47 | |
| | | 13 | 수 | | 7:15 | 18:31 | 11:16 | 1:00 | 10:16 | |
| | | 14 | 목 | | 6:47 | 18:32 | 11:45 | 1:00 | 10:45 | |
| | | 15 | 금 | | 7:10 | 17:45 | 10:35 | 1:00 | 9:35 | |
| | | 16 | 토 | | 7:28 | 15:18 | 7:50 | 1:00 | 6:50 | |
| | | 17 | 일 | | 휴무 | | | | | |
| | 18 | 월 | 재해발생일 | | | | | | | |
|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근로시간 | 월 | 일 | 요일 |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총시간 | 휴게 | 실근로 시간 | 실근로기준 1주 합계 |
| | 4월 | 11 | 월 | 1주 | 6:43 | 20:36 | 13:53 | 1:00 | 12:53 | 57시간57 분 |
| | | 12 | 화 | | 6:49 | 17:00 | 10:11 | 1:00 | 9:11 | |
| | | 13 | 수 | | 6:53 | 17:00 | 10:07 | 1:00 | 9:07 | |
| | | 14 | 목 | | 6:35 | 17:00 | 10:25 | 1:00 | 9:25 | |
| | | 15 | 금 | | 7:11 | 17:00 | 9:49 | 1:00 | 8:49 | |
| | | 16 | 토 | | 7:28 | 17:00 | 9:32 | 1:00 | 8:32 | |
| | | 17 | 일 | | 휴무 | | | | | |
| | 18 | 월 | 재해발생일 | | | | | | | |

| 구분 | 재해발생일 이전 11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근로시간 증가율 |
|-----------------|--------------------------------|--------------------------------|------------------------------|
| 원처분기관 조사내용 | 45시간 15분 | 57시간 57분 | 약 28% 증가 |
| 구글 타임라인 적용 시 | | 60시간 2분 | 약 33% 증가 |

다. 재해근로자는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을 앓고 있었는데, 단기 과로로 인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가중되어 자연 경과를 뛰어넘어 상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서서에 기록된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재해근로자는 2022. 4. 18. (월) 07:53경 ○○도 ○○시 ○○구 ○○읍 ○○리 산 ○○-○ 소재 도로상에서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119 ○○안전센터에 신고되어 출동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 4. 19. (화) 06:45경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 상 사망 원인은 ‘뇌경색’으로 사망하여 이에 유족이 유족 급여 등을 청구함”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62세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근로관계 내용과 근무경력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08. 12. 1.
- 담당업무: 품질관련 업무 (품질보증팀 부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2:00~13:00

2) 근무이력

- 2008. 12. 1.~2022. 4. 18. / ○○○○(주) / 품질관리

3) 업무내용

- 재해근로자는 ○○도 ○○시 ○○면 ○○길 ○○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 2008. 12. 1. 채용되어 사망 시까지 품질보증팀 부장으로 ○○팀에서 각종 검사(수입검사, 치수 검사, 도장검사, 완제품검사, 포장검사) 수행 및 성적서 발행, 부적합사항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 금속제품제조업(강구조물공사업)으로 ○○○(주)에서 발주하는 ○○신축공사 현장(원도급인: ○○엔지니어링)에 하도급 계약(2022. 3. 25.~2023. 2. 28. [PH3]철골공사)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근로자의 출퇴근은 주민등록상 주소인 기숙사(○○도 ○○시 ○○면 ○○길 ○○-○ ○○○호)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 발생 전 주말 ○○시에 있는 사실혼 처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2022. 4. 18.(월) 출근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고속 도로상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신고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 4. 19.(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다. 청구인의 신청 상병 발병 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 부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① 발병 전일: 휴무일(일요일),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시에서 주말을 보내던 중 전조 증상인 두통 호소

- ② 발병 당일: ○○시에서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중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됨
- ③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1주 동안 재해근로자의 총 업무시간은 평균 57시간 57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3분으로, 일상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단기 과로 30% 이상 업무시간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 57시간 57분
 - 발병 전 12주 기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주당 평균 근무 기간: 45시간 13분
-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기존업무와 동일 업무를 수행함

3) 만성적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5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7분으로 확인된다.

- 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4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 17분
- ② 업무부담 가중요인
- 객관적인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 측은 단기 과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업무시간 조사표 〉

| 발병 전 | | 근무일 | 휴무일 | 총 근무시간 (원처분기관) | 총 근무시간 (청구인 주장) |
|------|--------------------|-----|-----|-------------------|--------------------|
| 1주 | 4. 11.(월)~4.17.(일) | 6 | 1 | 57:57 | 60:02 |
| 2주 | | 5 | 2 | 50:03 | - |
| 3주 | | 6 | 1 | 52:24 | - |

| 발병 전 | | 근무일 | 휴무일 | 총 근무시간 (원처분기관) | 총 근무시간 (청구인 주장) |
|----------|--|------|------|-------------------|--------------------|
| 4주 | | 6 | 1 | 58:39 | - |
| 4주 평균 | | 5.75 | 1.25 | 54:45 | - |
| 5주 | | 6 | 1 | 53:45 | - |
| 6주 | | 7 | 0 | 51:55 | - |
| 7주 | | 6 | 1 | 53:59 | - |
| 8주 | | 4 | 3 | 37:03 | - |
| 9주 | | 6 | 1 | 54:15 | - |
| 10주 | | 5 | 2 | 47:49 | - |
| 11주 | | 0 | 7 | 0:00 | ※ 설 명절 연휴 |
| 12주 | | 4 | 3 | 37:37 | |
| 12주 평균 | | 5 | 2 | 46:17 | - |
| 2~12주 평균 | | 5.45 | 2.18 | 45:13 | - |

- ※ 원처분기관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사업장에서 제출한 전자기록장치에 의한 출퇴근기록으로 산정하였으나, 출퇴근 시간 확인 안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간 적용하여 산정(사무동 근태리더기, 근로계약서 참조)
 - 휴계시간은 점심시간과 기타 휴계시간으로 1시간 20분으로 산정했으나, 기타 휴계시간은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고 점심시간 1시간으로 산정함
 - 유족 측에서 제출한 근무시간은 재해근로자의 휴대폰 기록 등(구글 방문기록 내역 상 재해 근로자의 동선, 이동시간, 거주한 시간 등, 차량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근무시간을 산정했다고 하나 회사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고, 그 외 주로 운전, 식당, 숙소, 병원, 관공서, 배우자의 집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장 외 파악된 동선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하여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라. 청구인은 재해발생일 이전 1주 업무시간은 2~12주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이 증가하여 단기 과로 요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 내용 및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는 2018.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재해발생일 이전 까지 ○○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영업 및 접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직원관리, 생산관리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근로자는 2022년도 ○○반도체 건설현장의 발주로 인하여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휴일 없이 근무하던 중 2022. 4. 16.(토)에 ○○시를 방문하였고 평소 같으면 다음날인 일요일에 다시 기숙사로 갔으나, 극심한 두통으로 2022. 4. 18.(월) 07:00경 ○○시에서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이동 중 고속도로 갓길 도로교통공단의 신고로 119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에 이송되어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2022. 4. 19. (화)에 사망함
- 사업장에서 근태를 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와 같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휴대폰 기록(구글 방문기록 내역상 재해근로자의 동선, 이동시간, 거주한 시간 등 확인, 차량블랙박스 기록 참고)을 통해 근무시간 분석 결과 재해발생일 이전 1주 업무시간은 2~12주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이 증가하여 단기 과로 요인에 해당함
- 재해근로자는 업무시간 외에 잦은 접대와 영업을 수행(원청 관리자가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 뒤 저녁 식사를 통해 접대)하여 구글 방문기록상 근무시간에 산입(약정된 근로계약과 별개로 수행, 평소 술을 하지 않는 재해근로자의 심적 부담과 과로 유발요인이 됨)
- 재해근로자는 10년간 수진기록 상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였음
- ○○반도체 작업 발주로 2022년 2월경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제대로 된 휴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2022. 3. 7.~2022. 3. 19. 기간 동안 13일간 연속근무로 업무 수행함
- 2017년도부터 축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여 기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영업 및 접대업무, 인사관리(직원 채용 등) 업무도 추가 수행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됨

마. 보험가입자는 재해근로자의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원처분기관에서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진료내용 등 개인적인 요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생일 이전 최근 10년)

- 2013. 5. 2.~2016. 11. 21.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 2형당뇨병
- 2017. 12. 11.~2022. 4. 1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9. 12. 16.~2019. 12. 16. / 상세불명의 간질환

○ 건강검진 결과

- 2022. 1. 29. 검진 결과
: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간질환 의심, 키 176.7cm, 몸무게 81kg, 혈압 120/80

mmHg, 공복혈당 145mg/dl

- 2020. 5. 2. 검진 결과

: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의심, 키 177.3cm, 몸무게 82kg,
혈압 120/80 mmHg, 공복혈당 87mg/dl, 중성지방 220mg/dl

- 2019. 11. 4. 검진 결과

: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간질환 의심, 키 178cm, 몸무게 84kg,
혈압 118/86 mmHg, 공복혈당 135mg/dl

○ 생활 습관

- 음주력: 없음(평소 술을 하지 않지만, 접대시 소주 1~2잔)
- 흡연력: 없음
- 취미 및 운동: 특이사항 없음
- 식습관: 고혈압으로 고기류보다 야채 위주의 식단

사. 재해발생일의 119구급활동일지 및 ○○병원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급일지(○○소방서 ○○안전센터)

- 신고접수 일시: 2022. 4. 18.(월) 07:53경
- 사고발생장소: ○○도 ○○시 ○○구 ○○읍 ○○리 산 ○○○-○ 부근 고속도로상
- 사고 및 질환: 질병(두통, 어지러움)
- 이송의료기관: ○○병원
- 병원도착시간: 2022. 4. 18.(월) 08:22경
- 구급대원 평소 소견: 환자 몸을 못 가누고 정신이 혼미하다고 신고자가 신고함. 현착하여 환자 확인한바, 차에서 나와 갓길에 주저앉아 어지러움 호소하고 있었음. 전일부터 어지러움증 있었으나, 금일 아침 출근 도중 어지러움 심해졌다고 함. 초기 혈압 180/80 측정되나 환자 의사소통 가능하고 의식명료한 상태, 어지러움 심하여 거동은 불가한 상태임. ○○병원 사전 연락 후 이송함. 이송 중 환자 의식상태 변화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이송함.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완료(11월 말/화이자)

○ 응급실 기록(○○병원)

- 진료기간: 2022. 4. 18.~2022. 4. 19.
- 응급기록: 상환 상기 과거력 있는 분으로 토요일부터 계속 drowsy한 상태 보였고, 금일 06:00경 출근하려 나간다고 차를 몰고 나갔고 이후 휴게소에서 차 서있는 것 목격되었다고 함. 응급실 내원 전까지 계속 어지럼증과 두통 호소하였다고 함
- 비고: 소뇌 양쪽의 급성뇌경색으로 인한 brain edema 및 stem compression 으로 인한 심정지 등의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antiplatelet을 사용하며 환자 호전 여부를 관찰하였으나 급격하게 뇌경색이 진행된 점을 설명함

아. 2022. 9. 19. 자 ○○가정법원 판결(2022○○ ○○○○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확인된다.

자. 우리 위원회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심리를 보류하였으며, 이후 원처분 기관이 확인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 재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시간 재산정, 근로복지공단 ○○지사, 2023. 8. 1. 》

1) 업무시간 재산정 현황

-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58시간 36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43분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평균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 해당 (31.07% 증가)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59분으로 기준시간 (64시간) 미초과함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2분으로 기준시간(60시간) 미초과함
- ※ 특이사항: 재해 이전 11주, 12주 기간 중 2022. 1. 28.~2022. 2. 6.(총 10일) 연속 휴무

| 발병 전 | 주간 업무시간 (추가조사 결과) |
|-------|-------------------|
| 1주 | 58시간 36분 |
| 2주 | 50시간 05분 |
| 3주 | 52시간 34분 |
| 4주 | 58시간 41분 |
| 4주 평균 | 54시간 59분 |

| | |
|-----------------|-----------------|
| 5주 | 50시간 39분 |
| 6주 | 50시간 32분 |
| 7주 | 47시간 06분 |
| 8주 | 47시간 46분 |
| 9주 | 48시간 03분 |
| 10주 | 48시간 03분 |
| 11주 | 0 |
| 12주 | 38시간 20분 |
| 12주 평균 | 45시간 52분 |
| 2~12주 평균 | 44시간 43분 |

2) 업무시간 재산정 근거

○ 청구인 제출 타임라인 정확도 확인 결과

- 인터넷 길 찾기 경로상 재해자 거주지 ○○면 ○○리 ○○○-○○○에서 사업장 까지 자동차로 약 3.3km 5분 정도 소요(청구인 타임라인 상 거리 1.9km)되나, 청구인 제출 타임라인 도착시간보다 사무동 근태리더기 출근 시간이 빠른 경우 타임라인 소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잡힌 것이 확인됨(약 1.9km 내외 거리에서 운전 소요 시간은 6분~1시간 25분까지 차이가 남)

| 날짜 | 출발시간 | 타임라인 소요시간 | 타임라인 도착시간 | 출발시간+ 10분 | 사무동 근태리더기 출근 |
|--------|-------|--------------|-----------|-----------|-----------------|
| 125. | 06:43 | 0:36 | 07:19 | 06:53 | 06:57 |
| 126. | 06:19 | 1:17 | 07:36 | 06:29 | 07:02 |
| 127. | 05:44 | 1:18 | 7:02 | 05:54 | 06:43 |
| 2.8 | 07:48 | 0:06 | 07:54 | 07:58 | 06:42 |
| 210. | 05:46 | 1:17 | 07:03 | 07:13 | 06:55 |
| 211. | 06:29 | 1:25 | 07:53 | 06:39 | 07:37 |
| 이하 미검토 | | | | | |

- 청구인 제출 타임라인 거주지 출발시간에서 사업장까지 소요 시간을 약 10분으로 계산하면 도착시간은 거의 대부분 사무동 근태리더기 시간보다 이전으로 확인됨. 따라서 사무동 근태리더기 출근 시간이 오류라고 보기 어려움
- 이상 자료로 볼 때 청구인 제출 타임라인 상 사업장 도착시간은 업무시작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사무동 근태리더기 기록 시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사업장 제출 사무동 근태리더기 기록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 제출자료 타임라인 시간을 근거로 산정함
 - 사무동 근태리더기 자료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퇴근 시간이며, 조사기관에서는 17시 이후 업무를 더하다가 퇴근한다는 사업장 관련자 통화내용, 근태리더기 퇴근기록 있는 경우 퇴근기록 시간과 청구인 제출 타임라인 시간 퇴근기록이 거의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제출 타임라인 퇴근 시간을 업무종료시간으로 산정함
-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 시간 1시간 산정. 그 외 식수 대장 식사 시간 확인 결과, 구내 식당에서 출근 이후 아침 식사, 퇴근 전 저녁 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일은 각 30분씩 휴게시간으로 추가 산정(구내식당 식사 시간 30분 정도로 판단)
- 그 외 휴게시간은 사업장 제출 업무시간 산정표 상 주간 휴게시간 20분을 공제 하였으나 사업장 관련자 진술로 보아 온전히 휴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휴게 시간으로 공제하지 않음

6. 의학적 소견

가. 2022. 4. 19. 자 ○○병원에서 발행한 재해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시: 2022. 4. 19. 06:45
- 사망원인: (가) 직접 사인 : 뇌경색
 - (나) (가)의원인 : -
 - (다) (나)의원인 : -
 - (라) (다)의원인 : -
- 사망의 종류: 병사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경색” 소견이며, 뇌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판정위로 상정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의 발병 경위, 작업 환경, 근무시간, 업무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심의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 및 유족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팀 부장으로 근무 중 2022. 4. 18. (월) 07:53경 ○○도 ○○시 ○○구 ○○읍 ○○리 산 ○○○-○○소재 도로상에서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119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 4. 19.(화) 06:45경 ‘뇌경색’을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잦은 접대와 영업을 수행하였고, 2022년 2월경부터 업무량이 증가하여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재해근로자는 재해사업장에서 2008년 12월 입사 이후 사망 시까지 각종 검사 수행 및 성적서 발행, 부적합사항 정리, 영업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3개월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글 타임라인,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을 기준으로 재해발생일 이전 1주 업무시간은 2~12주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이 증가하여 단기 과로 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관에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전자기록 장치(사무동 근태리드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7시간 57분, 54시간 45분, 46시간 17분으로 조사되었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3년 5월부터 당뇨병, 2017년 12월부터 고혈압, 2019년 12월부터 상세 불명의 간질환 관련 기저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재해근로자의 의학영상,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사인)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재해근로자는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발병 당시 특이사항이나 돌발상황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며, 조사기관에서 산출된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재해근로자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여 검토한 결과 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58시간 36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43분으로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평균 업무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지 유의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재해근로자의 경우 재해 이전 11주, 12주 기간 중 총 10일간 연속적으로 휴무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4시간 59분과 45시간 52분으로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2023-3245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8.)

사건의 쟁점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중량물의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때문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업무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므로 청구인의 작업준비 시간 및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기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고도의 긴장감을 동반하는 업무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 발병일 이전 업무 내용이 평상시와 크게 다른없는 통상적 업무였던 점, 업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혼자서 중량물에 해당하는 건축 자재를 배달하는 등 강도가 높은 육체적 업무를 수행한 점, 통상적인 작업준비나 마무리 정리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인정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24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3.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0. 5. 진단받은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4. 1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6. 30.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전자재관리 및 사무관리 총괄 업무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채납된 거래처 수금업무 시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직위에 수반되는 사회 통념상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고도의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일 이전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증상 발생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업무시간을 일괄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 질병 업무상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업무시간'은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작업준비 시간 및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과로 기준을 충족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시멘트류, 목재, 합판, 파이프, 이동식 화장실, 정화조 건축용 자재, 철물류 등 건축자재 및 철물 등을 건설 현장에 다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다수로 중량물을 취급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여성으로 유일한 근로자인 청구인이 중량물 판매 및 상하차 배달업무를 비롯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수작업으로 하차작업 등을 하며, 하루 약 10t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이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최소 60시간으로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상기 환자는 2021. 10. 4. 견재 배달 중 몸에 이상을 느꼈으나 업무를 지속하였고, 퇴근 전 사업주에게 몸의 이상이 생겼음을 보고 후 병원 방문을 하려고 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49세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 ☐ 입사일자: 2013. 7. 3.(발병 전까지 약 8년 4개월 근무)
- ☐ 수행업무: 건자재관리 등

- 통상근무시간: 07:20~17:50(근로계약서상), 매주 6일 근무
 - 1일 근무: 9시간 30분
- 근무형식: 고정 주간근무(비 교대근무)
- 담당업무: 전자재관리 및 배달 그리고 수금업무
- 업무 내용
- 직위: 대리
- 일반적인 시간대별 업무 내용(청구인 진술)
 - 07:00~08:00: 사업장 청소 및 자재 정리
 - 08:00~12:00: 업무일지 등 사무관리, 자재배달, 판매
 - 12:00~12:30: 점심 식사
 - 12:30~17:30: 자재배달, 판매, 사무관리
 - 17:30~18:30: 재고 파악, 청소
- 배달 지역
 - 고○, 정○, 부○, ○○도 일부 등이며 고○지역 배달 시에는 하루평균 1회~3회 배달을 가며, 그 외 지역 출장 시 하루 평균 1회 배달
- 사업주 확인 사항
 - 18시 이전 퇴근한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 없음

3) 청구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요인 등은 다음과 같다.

-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사업장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이 다르고, 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을 늦게 한다고는 하나 객관적인 시간을 확인할 자료 등이 없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함

※ 청구인 주장

- 실질적으로는 07:00~18: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음

○ 발병 전 근로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해당 없음
- 급격한 업무 환경변화: 해당 없음
- 06:20경 출근 준비를 하려고 출근 차량에 탑승한 후 몸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간)

- 단기간에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는지: 해당 없음
-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 2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12주 동안)

-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64시간 기준): 57시간
-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52시간, 60시간 기준): 57시간(52시간 초과 60시간 미초과)

4) 업무부담 가중요인: 특이사항 없음

《 원처분기관·청구인 주장 비교 》

○ 1주 평균 업무시간

| 구분 | 원처분기관 조사 | 청구인 주장 |
|-------------------------|----------|----------|
| 발병 전 1주일 | 57시간 00분 | 60시간 00분 |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 57시간 00분 | 60시간 00분 |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 57시간 00분 | 60시간 00분 |

○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청구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이 했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어 생긴 과로 - 청구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인 2013년부터 근무하였고, 2020년 3~4월경에 퇴사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재해자가 같이 근무한 근로자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사업장이 영세하여 |

| 청구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
| <p>다른 근로자는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4대 보험 가입 의사를 사업장에 이야기하지 않아 아마 기록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를 같이 하였고, 그 근로자 퇴사 후 혼자 근무하게 되어 과로 발생</p> <p>※ 사업장 고용정보 검색한 결과 청구인의 근무기간동안 다른 근로자는 없었음</p> <p>- 외상·수금업무로 인하여 고객과의 잦은 말다툼 및 욕설 등 스트레스</p> <p>※ 2013년 입사할 당시에는 사업장관리 및 배달업무만 수행하였으나 2019년 정도부터 청구인이 배달업무 후 돌아오는 길에 2~3개월 체납된 거래처를 방문에 수금 업무를 해오면서 고객에게 욕설 등을 듣는 경우와 말다툼이 빈번하여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진술함</p> | <p>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자료가 없어 다른 근로자의 입사·퇴사 여부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음</p> <p>- 실질적으로 수금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며, 말다툼 및 욕설 등을 듣게 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p> |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구분 | 원처분기관 | 청구인 |
|---------------------------------|-------|----------|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 | × |
| 교대제 업무 | × | × |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 | × |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 | × |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 | 중량물 취급 |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 | × |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 | 고객과의 트러블 |

4)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한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병원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2021. 10.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 전일 저녁부터 우측 손에 힘이 빠짐 다리도 힘 빠짐 ○ P/Ex: Alert M/S 2/2, Motor Rt Gr 4+ 이상, Facial palsy ○ Br MRi MRA, Lt PVWM infarction ○ 전에 검진에서 HTN DM 설명 들은 분으로 약 안드셨다고 하심 |
| ○○○병원 초진기록지 (2021. 10.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ef complain: Right hemiplegia ○ onset: 2021. 10. 5. ○ vector: Spontaneously ○ Present illness: 상기 환자는 2021년 10월 5일 ○○병원에서 Lt PVWM infarction 진단받고 재활치료 위해 본원으로 전원됨 ○ Past Hx), HTN(-), DM(-), Pul TBc(-), Hepatitis B(-), 술(+), 담배(-), 건강검진상 당뇨 의심되었으나 관리(x) |

5) 청구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검진 결과 내용 |
|---------------------------------|---|
| 건강검진 종합소견 (2012. 7.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B, ○ 고혈압의심- 2차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내과상담 요함. 간기능관리-금주, 충분한 휴식 필요 ○ 위암 검진-위염(위전정보소만) |
| 건강검진 종합소견 (2014. 11.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B ○ 당뇨질환의심-금식후 2차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의심-내과 상담 요함. 비만관리-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 체중감량 권유 ○ 2차검진 결과- 공복혈당장애(운동과 식이 조절하며 2-3개월 후 재검) |
| 건강검진 종합소견 (2016. 12.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B, 의심 질환: 당뇨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

| | |
|--------------------------------|---|
| 건강검진 종합소견 (2018. 12.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B, 의심 질환: 고혈압, 당뇨병 ○ 위암검진-위염(위체부위전정부소만대만) |
| 건강검진 종합소견 (2020. 12.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질환의심, 의심 질환: 고혈압, 당뇨병(확진검사 대상),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위암검진-위염(위체부위전정부소만대만), 위용종(위저부위체부위전정부소만대만) ○ 위내시경검사-위용종, 위염, 식도염 소견(조직검사 시행), 위용종 조직검사 결과 과형성용종 확진-헬리코박터균 양성 판정 |

6)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조건: 174cm, 73kg
- 흡연 및 음주: 술(+, 1주 1회 미만, 1회 1병 미만), 담배(-)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 가정 또는 경제 문제: 없음
- 식습관: 김치찌개, 비빔밥, 돼지고기
- 가족력: 없음
- 신청 상병 관련하여, 고혈압(혈압약 미복용),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확인됨
- 재해발생일 이후 근무이력: 무
- 다른배상 및 보상 유/무: 무

나. 청구인은 2023. 11. 8.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술 진술 내용 요약서 1부를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병원, 2023. 4. 18. 》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1. 10. 13. 10:00 본원
- 상병 명: 뇌경색증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 ○○병원 내원(2021. 10. 5.) 전일 저녁에 우측 근력저하 발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없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오른쪽 다리 및 하지의 편마비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질병판정서 》

-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전자재관리 및 사무관리 총괄 업무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된 거래처 수금업무 시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직위에 수반되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고도의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일 이전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 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 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자재 관리, 배달 및 수금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육체적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멘트류, 목재, 파이프 등 건축자재 판매·정리와 필요시 그 해당 자재를 건설 현장 등에 배달하고 이에 수반되는 상·하차 작업을 혼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취급하는 건축자재 품목 또한 시멘트(20~40kg), 레미탈(40kg), 목재, 방부목, 파이프 등 중량물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로 07:20부터 17:50까지 1일 9시간 30분, 1주 57시간으로 상시 연장근무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비록 근로계약서 외에는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작업준비나 마무리 정리 작업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은 이보다는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청구인이 만성적인 과로의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가중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2023-3449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17.)

사건의 쟁점

아파트 설비 관련 유지 업무를 수행했던 고령의 재해근로자가 평소 잦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로로 사인미상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약 38년 2개월 동안 경비 및 기전 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대근무로 인한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압 등의 개인적 요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재해근로자의 12주 평균 주당 업무시간이 56시간 30분이고 교대제 근무 형태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만성 과로에 따른 업무부담이 기존 질병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심장혈관 질환에 관련한 여러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결과를 검토하고 수행한 업무의 강도를 두루 고려하였을 때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미흡함을 근거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449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3. 2. 3. 시체감정서상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4. 2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23. 7. 14.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단본부 사인 미상 상병 확인 자문 회신서에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기전직으로 설비 관련 유지관리업무 등을 수행 사람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특이사항이나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조사되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평균 51시간 49분에 비추어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30분으로 만성 과로 인정요건에 미달하므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업무 내용과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로 시공사 A/S가 상주하는 점, 비대성 심근병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다수의 진료 이력과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심비대 소견이 확인되는 점, 과거 비후성심근병증 진료 이력이 있으며, 2010년 기록에서 좌심실 벽 비후가 상당히 심한(29mm)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 발생에 있어 업무적인 부담 요인보다는 재해근로자의 질환과 진료 이력, 연령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 1985년부터 2021년까지 약 38년 2개월 동안 경비 및 기전 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아파트에서 근무할 시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직력상 10년 이상 지속한 것이고, 직업성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아 개인의 유전적 소인 등에 따라 특정 장기가 표적이 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가 채용되기 2달 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각종 민원이 잦았는데 많은 날은 하루 10건 이상이었기에 재해근로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비록 방재실 경보가 울린 횟수가 월평균 2회라 하더라도 언제 경보가 울릴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기에 깊은 숙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고, 재해근로자는 1993년 심장세동 및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진행 중이었는바 2010. 3. 25. 심천부 비후성 심근병증 및 심장세동으로 2016. 12. 27.까지 치료 후 2017년 4월부터 2022. 10. 27.까지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였다.

다. 판례도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와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를 포함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고,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같은 취지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재해일도 영하 4.7도의 한파 영향으로 관리사무소 안은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였으며 재해근로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령은 70세 전후이므로 고령을 이유로 불승인함은 부당하므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만성적 과로 및 교대제 근무로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기록된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2023. 2. 3. 06:40경 함께 교대 조를 이루어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에게 관리사무실 안 간이 침대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119에 의해 병원 이송되었으나 사망함”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사망 시 69세 남성으로 근로관계와 이력 등에 대하여 조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등 〉

○ 사업장 개요

- 소속 사업장 및 근무지 : ○○○○(주)(○○시 ○구 ○로 ○)
- 사업 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관계

- 입사 일자 : 2022.05.31
- 담당업무 : 기전직(시설관리)/기전 기사 업무
- 근무형태 : 24시간 맞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8:00~다음날 0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저녁 시간 60분(18:00~19:00), 야간 휴게시간 (23:00~다음날 06:00)

〈 근무이력 〉

○ 현직력: 이 사건 사업장 2022.05.31.~2023.02.03.

○ 과거직력(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력)

- 2020. 12. 26.~2021. 1. 10. ○○개발, 전기 전자 설비조작원
- 2018. 8. 1.~2020. 11. 12. ○○관리소, 검침 주차관리 및 기타
- 2016. 2. 21.~2018. 2. 2. ○○○관리소, 환경 청소 및 경비
- 2015. 4. 16.~2016. 2. 11. ○○어울림, 전기 전자 설치 등

〈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출장 조사 결과 〉

○ 산재 업무담당자, 후임 기전 담당 면담

- 근무시간: 08:00~다음날 08:00,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 시간 18:00~19:00
- 입사 이후 기전직으로 설비 관련 유지관리업무 수행함
- 기전직은 총 4명이며,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업무수행
-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로 시공사에서 단지 내 상주하면서 시공 관련 민원을 AS 해줌
- 08:00 출근하여 점심시간까지 기계실, 관제실, 방재실 등 육안 확인 점검 후 점심 식사, 저녁 식사 18:00~19:00 이후 23:00까지 근무 후 관리사무소 내 별도의 방에서 취침함
- 동료 직원(후임, 입사 1개월 차)에게 야간 방재실에서 경보가 울린 횟수에 대하여 문의한바, 한 달에 2회 정도 울렸다고 함
- 하루 민원은 평균적으로 10회 정도 발생함
- 사고 당일의 난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신축아파트라 난방 설비가 고장 날 리 없고 당일 날씨가 추운 날씨로 난방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함

다.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발병 전 업무시간 등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관련성 주장 내용 비교 〉

| 청구인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
| <p>○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0~40년 전 심근병증 및 고혈압을 진단. 2013~2022년까지 기저질환 관리하여 기타 질병 및 특이사항은 없음 <p>○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및 기계실 검침 업무와 735세대 기전 민원 및 공공시설물 수리 및 정비 업무를 2조 1교대로 전담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08:00~다음날 08:00, 24시간 맞교대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저녁 시간 60분(18:00~19:00)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 보장(7시간) 별도 공간, 수면시간의 자율 조정 가능 - 담당업무: 기전직(시설관리) |

| 청구인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30~12:00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전기/방제실 이동, 각종 기계 점검 후 복귀하여 점심 전까지 기전 민원 처리 - 13:00~18:00: 각 1회 기계/전기/방제실 각종 기계 점검, 직접 또는 수리 요청. 업무일지, 수/배전일지, 기계실 일지, 소방 설비 일일점검일지, 전기설비 일일점검 일지 작성 - 19:00~다음날 08:00: 저녁 후 23:00 까지 책상에 앉아 민원 대기. 이후 간이 침대에서 취침하면서 민원 시 즉각 처리. 07:30 인수인계 후 퇴근 - 출퇴근 약 1시간 소요. 07:30 교대하고 08:00까지 30분 대기시간. 주간 16시간, 야간 8시간, 일 근로시간 24시간임 - 각종 민원이 하루 10건 이상 들어오는 날이 있을 정도로 많은 편이었고, 재해 근로자가 130kg 냉장고를 직접 옮기는 등 중량물을 다루기도 하였음 - 재해발생일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이며, 근로계약서 따라 하루 18.5시간으로 보아도 1주 평균 64.75 시간임 - 기전 외 일반업무도 하였고, 별도 휴게 공간이 있으나 재해근로자는 불이 항상 켜있는 상태로 경보 시 언제든지 출동할 상황에서 숙면이 어려웠을 것인바 실제 수면은 연속 5시간 미만으로 보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경위: 취침 중 사망함 - 정신적 긴장: 약함 - 업무강도: 약함 - 업무환경: 좋음 - 책임: 약함 - 동일 직무 수행직원: 4명 - 재해 내용에 대한 의견: 재해 사실인정, 유족급여 신청에 대하여 동의함 |

〈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발생 및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여부

- ① 발병 전일: 특이사항 없음
 - ② 발병 당일: 재해 발생
 - ③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2)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 과로 및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① 단기 과로 30% 이상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6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 기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49분
 -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 24시간 교대근무
 - 2023.02.02.(목) : 정상 근무(07:30~다음날 06:30 사망)
 - 2023.02.01.(수) : 휴무
 - 2023.01.31.(화) : 07:30~다음날 07:30
 - 2023.01.30.(월) : 휴무
 - 2023.01.29.(일) : 정상 근무(07:30~다음날 07:30)
 - 2023.01.28.(토) : 휴무
 - 2023.01.27.(금) : 정상 근무(07:30~다음날 07:30)
-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
- 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평균 5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0분
 - ② 업무부담 가중요인: 교대제 업무 해당(24시간 교대근무)
- 업무시간 조사 기간: 2022. 11. 11.~2023. 2. 2.

※ 원처분기관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사업주 의견, 교통카드 이용내용, 청구인 진술 등 종합하여 재해근로자의 출근 시간 07:30분, 퇴근 시간 07:30분으로 인정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 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함(재해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별도의 독립된 방에서 취침하고 야간에는 민원, 경보음 건수 등이

거의 없어 23:00~다음날 06:00까지를 야간 휴게시간으로 인정)

〈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진료내용 등 〉

1) 건강검진 결과서(2020.10.29.)

- 신장 168.8cm, 체중 67.3kg
- 혈압 113/55, 공복혈당 86, AST 21, ALT 18, 감마 지피티 18
- 판정: 유질환자
- 의심 질환: 해당 사항 없음
- 유질환: 고혈압,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흉부 X-ray 촬영상 심비대 소견입니다. 심장내과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 생활 습관: 신체활동 부족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2. 23. / 2.25. / 6.8~2022. 10. 27. 등 다수: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병원
- 2018. 3. 9. / 3. 16.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병원

3) 흡연 및 음주 여부(진술조서)

- 흡연: 무 / 음주: 무

〈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 2011. 3. 17. 재해

○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제7~10번), 좌측 외상성 혈흉

○ 요양 기간 2011. 3. 17.~2011. 6. 9.(입원 28일, 통원 71일 총 79일)

○ 재해 경위

- 아파트 지하층에서 16:40경 방송용 스피커 시험 후 작업하기 위해 바닥에 의자를 놓고 스피커 선로를 연결하여 드라이버로 BOX에 피스를 박아 고정작업을 할 때 의자가 약간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발이 닿기 전 좌측 갈비 쪽이 먼저 의자에 닿아 재해를 당하게 되었음

라.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개요: 2023. 2. 3. 06:30경 ○○시 ○구 ○○동 APT 관리사무실 내에서 야간 근무 중 기상 시간이 되어 잠을 자고 있던 변사자를 직장 동료가 깨웠으나 이미 사망한 것임
- 현장 상황: 함께 근무하는 직원과 같이 전일 취침 후 깨워도 일어나지 않음
 - 변사자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관련 약물을 복용함
- 의견
 - 변사자 최초 발견 이후 눕힌 상태로 자세가 변경되어 신체 후면부에 시체얼룩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 변사자 손, 발 부위에서 억압흔, 방어흔 등의 특이소견 보지 못함
 - 변사자 전신에서 사망에 이룩만한 외상 보지 못하며, 입과 코 주변 부위, 목 부위 눌린 흔적 등의 특이소견 보지 못하는 점, 양쪽 눈꺼풀결막 부위에 점 출혈이 관찰되는 점,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인은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내부 장기소견 등의 자세한 검사는 법의학적 감정을 통하여 가능함

마. 청구인은 2023. 2. 16. 자 ○○시 ○○구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2023. 11. 17.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3. 2. 3. 자 ○○의원 시체검안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시: 2023. 2. 3. 06:40 발견 이전
- 사망 장소: ○○시 ○구(이하 생략), 관리사무실
- 사망 원인
 - 직접사인: 미상(이하 미기재)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나. 원처분기관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사인 미상 상병 확인에 관하여 자문 한 결과는 “고혈압 및 비후성심근병증(2010년 기록에서 좌심실 벽 비후가 상당히 심함, 29mm) 진료 이력 확인되는 점, 가족력(모친 40대 후반 사망) 등을 종합할 때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의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 공단본부 사인 미상 상병 확인 자문 회신서에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12주 평균 1주 업무시간이 52시간 30분으로 조사된 점,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 고려하면 만성 과로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수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다.
- 그러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특이사항이나 돌발상황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된 업무 시간이 1주 60시간, 4주와 12주 각각 평균 52시간 30분이며, 업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 확인되나, 기전실의 업무내용,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로 시공사 A/S 상주 하고 있는 점, 재해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성 과로를 인정 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개인적인 소인으로 비대성 심근병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다수의 진료 이력 확인 되고,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심비대 소견이 확인되며 과거 비후성심근병증 진료 이력이 있고 2010년 기록에서 좌심실 벽 비후가 상당히 심한(29mm) 것으로 확인된다.
-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상병 발생에 있어 업무적인 부담 요인보다는 재해근로자의 개인 질환, 진료 이력, 연령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의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 동안의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의 12주간에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하고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만성적 과로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시체검안서 상 ‘미상’이나 원처분기관의 상병

확인 자문 결과 ‘고혈압 및 비후성 심근병증 진료 이력 확인 및 가족력 등을 종합할 때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심장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에서 살펴본바,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0시간으로 조사되어 발병 전 2주부터 발병 전 12주까지의 일상 업무시간 51시간 49분에 비추어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와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30분으로 64시간과 60시간의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한편, 재해근로자의 12주 평균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 30분이고, 교대제 근무형태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한다면, 만성 과로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어 기존 질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과거 비후성심근병증 진료 이력과 2010년 기록에서도 좌심실 벽 비후가 상당히 심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심장혈관 질환에 관련한 여러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심비대 소견이 확인되는 점, 수행한 업무의 강도를 두루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비롯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2023-3523 취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23.)

사건의 쟁점

한랭한 옥외 환경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강도 높은 육체 업무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므로 재해근로자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평균 영하 5.1℃의 한랭한 기온에 노출된 채 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kg 이상을 들거나 운반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조사에 따르면 교대제, 한랭,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는 확인되나 재해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상 급성 및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개인의 기존 질환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또는 발병되었다고 보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이 비록 관련 법령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 하지만 야간에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교대제로 1일 평균 150회 정도 무게 5kg의 생활 쓰레기를 상차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한랭한 환경의 옥외에서 작업하였으므로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523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3. 9.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9.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3. 1. 1.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2.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9. 1.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가.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에서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쓰레기 운반 차량의 수거원으로 약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한랭·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확인되나, 단기간 및 만성적 업무시간이 미달하고, 재해일 이전 12월 24일과 25일이 휴무였으며, 재해 당일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보험 진료 이력과 건강검진 결과에서 지속해서 일반 지질혈증 및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기존 질환 또는 여러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또는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고, 겨울철 0℃에서 5℃의 추위에서 용접작업 중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있다.

나. 재해근로자의 경우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인 2022. 12. 23. 새벽 01:22경 출근하여 오전 10:29까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한 9시간 동안 평균 영하 5.1℃의 한랭한 기온에 노출되었고,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 전체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가 약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업무의 강도는 더 높았을 것이다.

다. 재해근로자는 무게 5kg의 생활 쓰레기 포대를 1일 150회(누적 중량 750kg)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kg 이상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라. 재해근로자는 2022. 12. 23. 한겨울 새벽의 한랭한 기온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두통·감기 증상 등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으나, 평상시처럼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과 25일 휴일에 집에서 지내다가, 전조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같은 달 26일 영하 2℃의 추위에 노출되면서 15분 거리의 차고지에 출근 후 곧바로 지주막하 뇌출혈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마. 재해근로자의 경우 사망일 이전까지 뇌동맥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당뇨·협심증 등의 기존 질환도 없었던바, 겨울철 한랭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장시간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생활 쓰레기 운반 차량의 상차원으로 근무 중 2022. 12. 26. 02:00경 사업장 차고지에 출근하여 재활용품수집일지를 작성 중 02:05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23. 1. 1. 00:28경 사망(사망 원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하였으며, 이에 유족은 고인이 업무수행 중 업무 과중,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주장하면서 민원 서류(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제출함.”이다.

나. 업무상 질병 판정서상 근로관계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 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입사 일자: 2007. 10. 1.
- 담당업무: 생활 쓰레기 운반 차량의 상차원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03:00~11:00 (유동적), 주 5일 근무
- 식사·휴게시간: 업무 중 1시간 (06:00~07:00, 유동적)
- 업무 내용: ○○○ 관내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선별·상차하는 작업

다.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발병 전 근무상황과 업무상 부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청구인은 특이 사항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3시간 37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4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19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3분으로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당일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2022. 12. 24.~12. 25. 휴무)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37분으로 확인됨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고인의 사망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9분(휴일 8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및 52시간을 미 초과하는 43시간 43분(휴일 8일)으로 확인됨

4) 원처분기관은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하여 교대제 업무·유해한 작업환경·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부담 가중요인

- ① 교대제 업무: 야간쓰레기 수거 작업 (근무시간 02:00~11:00)
- ②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동절기 옥외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 ③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높은 업무 : 야간에 옥외에서 쓰레기 수거
 - 취급 물품: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유리병, 고철 등)
 - 무게: 5kg, 빈도: 1일 150회

라. 이 사건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과 동료 근로자의 유선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근로자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 발병 전 재해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 관내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 선별, 상차하는 작업을 하며, 평소 일과는 자택에서 걸어서 01:30 전후에 ○○동 차고지에 출근하여 1시간 정도 당일 작업준비를 하고 대기하다가 ○○동에서 출발(02:19~02:25 전후)한 청소 차량(89우○○○○)이 차고지에 도착(02:42~02:28 전후)하면 차량에 승차하여 ○○○구 ○동(1, 4동), ○○동(1, 2동)에 소재한 아파트(12곳)를 순회하면서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주로 하며(운전자 1명, 상하 차원 2명이 1조)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이유는 ○○○구청의 조례상 쓰레기 배출은 저녁 21:00부터 배출할 수 있는데, ○○으로 가는데 교통체증이 심해 근무시간을 03:00~11:00까지로 조정하였으며,
- 발병 전날, 발병 당일은 별다른 특이점 없었으며, 발병일 전 1주간 업무수행 시 날씨가 종일 영하의 날씨였으며, 발병일 전 4주간, 12주간 업무수행 시 업무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추운 날씨 속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동료 근로자(김○○) 진술서 및 유선 확인 결과

- 동료 근로자(김○○)는 재해근로자는 주 5일 근무제로, 오전 03:00~11:00까지 근무하고, 보통 02:00 전후 출근하여 쓰레기 차량(89우○○○○)의 청소 등 1시간 정도 작업준비를 하였고, 근무 중 ○○동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동(1, 4동), ○○동(1, 2동)에 소재한 아파트(12곳)를 순회하면서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플라스틱, 유리병, 고철 등, 무게는 보통 2킬로~25킬로) 등을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한다고 진술서상 주장하여,
- 관내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운전자 1명, 상하차원 2명이 1조가 되어 상하차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3:00~11:00까지로, 보통 반송 차고지에서 02:40~50경에 출발하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지문관리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며, 근무 시 아침 식사는 재해근로자와 같이 06:00~07:00까지 하며, 일하는 날은 모두 식사하고 있으며, 근무 시 애로사항은 쓰레기통의 운반은 기계로 처리하나 냄새가 많이 나며, 재해근로자 사고 당시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고 유선 확인하고,

-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차량 운행일지는 운전자(김△△)가 작성하며,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은 관내 아파트 12곳을 방문하며, 종량제 봉투 수거 작업은 거의 매일 12곳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기계로 수거 작업을 시행하며, 그 후 조식 식사를 마치고 약 5~6개소 아파트를 방문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며, 약 150~200개 정도의 재활용 그물망을 수작업으로 수거하며, 그물망의 무게는 5킬로 미만이라고 유선 확인을 함

마. 재해일 이전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하여 재해근로자가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2. 11. 30. ○○내과의원: 상세 불명의 간질환

바. 과거 10년간 재해근로자의 건강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검진일자 | 검진결과 | 내용 |
|--------------|-------------------------------------|---|
| 2020. 5. 29. | 일반질환의심 (간질환) | 혈압 116/74, 혈색소 15.4, 공복혈당 93, 혈청크레아티닌 0.8, 신사구체여과율 60, AST 38, ALT 29, 감마지티피 90 / 문진상: 흡연 - 아니오, 음주 - 주 1회, 소주 2잔 |
| 2021. 6. 11. | 일반질환의심 (간질환) | 혈압 122/78, 혈색소 13.3, 공복혈당 89, 혈청크레아티닌 0.8, 신사구체여과율 105, AST 91, ALT 68, 감마지티피 360 / 문진상: 흡연 - 아니오, 음주 - 주 1회, 소주 2잔 |
| 2022. 6. 17.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혈압 124/78, 혈색소 15.1, 공복혈당 85, 총콜레스테롤 134, 고밀도 콜레스테롤 37, 중성지방 253, 저밀도 콜레스테롤 46, 혈청크레아티닌 1, 신사구체여과율 81, AST 99, ALT 57, 감마지티피 898 / 문진상: 흡연 - 현재 금연, 총 10년, 일 1개비, 금연한 지 10년, 음주 - 주 1회, 소주 1잔 |

사. 재해근로자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응급 초진 기록지(○○의료재단 ○○병원, 2022. 12. 26.)

- 알레르기 유무 : 무

Chief complaint : 의식소실(C0041657) 2022. 12. 26. 02:47

Vital sign

Height(cm) 165 / Weight(kg) 60 / BMI 22.04 / SBP(mmHg) 170

DBP(mmHg) 100 / BT(℃) 35.8 / RR(/min) 18 / HR(/min) 188

Present illness

내원 전, 새벽에 출근 직후 갑자기 의식소실로 119로 음.

아. 원처분기관의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조건: 재해일(2022. 12. 26.) 기준 60세, 신장 163cm, 체중 60kg, 남성
- 산재 승인 이력
 - 2007. 8. 1. / 우측 수부 제3수지 심부 열상 및 심수지 굴건 부분 파열 / 2007. 8. 1.~2007. 10. 2.
 - 2014. 8. 18. / 우측 손가락 열상,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귀, 손, 무릎, 어깨, 팔꿈치, 얼굴), 입술 열상, 골반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아의 완전 탈구 / 2014. 8. 18.~2014. 11. 4.
- 개인 요인: 특이사항 없음

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23. 11. 23.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의료재단 ○○병원의 2023. 1. 1. 자 사망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시: 2023. 1. 1. 00:28
- 사망 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
- 사망의 종류: 병사

나. 2023. 1. 26. 자 ○○시 ○○소방서의 구급 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접수일시: 2022. 12. 26. 02:08
- 사고 발생 장소: ○○시 ○○○구 ○○동 ○○○-○
- 사고 및 질환: 질병(의식장애)
- 이송의료기관: ○○병원
- 병원 도착시간: 2022. 12. 26. 02:38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재해근로자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수거원으로 약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한랭·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확인되나, 단기간 및 만성적 업무시간이 미달하는 점, 재해일 이전 12월 24일, 25일 휴무인 점, 재해 당일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건강 보험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에서 지속해서 일반지질혈증, 간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기존 질환 또는 여러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또는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교대제·한랭·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나, 발병 전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에서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활 쓰레기 상차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수행한 평균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9분 및 43시간 43분으로 단기 및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살펴볼 때, 재해근로자는 02:00부터 11:00까지 야간에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교대제 형태로 1일 평균 150회 정도 무게 5kg의 생활 쓰레기를 차에 싣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겨울철 영하 5℃ 내외의 한랭한 기온에서 옥외작업으로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이와 같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의 복합적인 노출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재해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2021. 1. 1. 시행)-발췌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2)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② 교대제 업무
 -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2023-370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2. 1.)

사건의 쟁점

급성 I 형 대동맥박리 등의 상병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는 미달하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용접업무의 수행 그리고 중대 재해 목격에 따른 정신적 트라우마 등이 복합적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일부 위원의 경우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나 작업 중지 이후 업무량이 30% 가까이 증가하였고 사망재해를 목격한 점 그리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대한 사고 경험은 상병 발병과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낮고 청구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신적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상병과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70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근로자로서, 2022. 5. 30. 진단받은 ‘급성 I형 대동맥박리, 대동맥박리로 인해 2차로 생긴 급성신장 손상’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1.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6. 30.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9. 2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신청 상병 ‘급성 I형 대동맥박리, 대동맥 박리로 인해 2차로 생긴 급성신장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1주 평균 52시간에는 미달하나 작업 중지 이후 업무량 30% 가까이 증가, 사망재해 목격,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의한 복합적 노출로 인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참석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다. 그러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소음작업환경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 당일 및 전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단기간 및 만성적 업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또한, 중대한 사고 경험으로 인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나 신청 상병 발병과는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여러 내재적인 요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12주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7.3% 증가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병 조사와 판정지침’

에서 발병 전 2주~12주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증가가 22.5%가 되었지만, 발병 전 1주일간 1주당 업무시간이 크게 늘었고 3일간 연장근무와 토요일 휴일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연장근무가 늘었다.

나. 청구인 발병 전 물량 증가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근무 동의를 받아 연장근무가 증가하고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결원이 계속 생겼지만 인원 총원 없이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해야 해서 실제로 노동강도가 더욱 심해져,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하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 코로나는 국가가 역학조사를 포기함으로써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주말을 제외하고 회사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다양한 동료들과 일하게 되어 업무과정에서 확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업무 과정에 육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소음 노출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인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지침을 무시하였다.

마. 또한, 중대 재해 수습과정 목격과 충격, 트라우마에 대해 시간적·의학적 관련성이 낮다며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개인의 감수성 등은 무시하였고, 위험작업인 용접업무의 특성과 용접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이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지만 중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 중지 이후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청구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도 증가하였고, 소음·용접 흠·근골격계 부담작업·중대 재해 목격·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을 인정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9. 3. 1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실조립 및 소중조용접업무 등을 수행하다 2022. 5. 30. 업무 중 급격한 가슴 통증을 느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그간의 근무이력과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하였다 생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함

2) 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49세, 신장 175cm, 체중 78kg의 남성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 등을 다음과 같다.

○ 근무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강선건조및수리업
- 입사일자 : 2009. 3. 10.
- 담당업무 : 생산기술직(소중조용접)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저녁) 60분, 휴식 일 2회 회당 10분
- 연장근무 : 주 4회(17:00~18:00)
- 특근(토)근무 : 월 4회(08:00~18:00)

○ 근무경력

- ○○○○(주) 1996. 5. 30.~1997. 1. 30.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이력]

- ○○○○검도 2005. 7. 1.~2006. 8. 31.

3) 원처분기관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청구인의 업무 부담 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및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발병 전날 2022. 5. 29.(일) 휴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 과로 및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총 49시간 00분을 근무하여 업무시간의 30% 미증가
- 업무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은 없었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49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35시간 40분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평균 42시간 12분 / 휴일 6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및 52시간: 미초과(평균 36시간 47분 / 월평균 휴일 9일)
-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시간에 변화는 없으며 발병 4주간 휴일 6일, 발병 12주간 평균 휴일 9일 등으로 확인됨
- 청구인 주장사항 : 초과근무 동의서 징구(현장에서 동의한 분위기여서 본인도 동의 하였음)하였으며 과거 경쟁적인 사내 분위기와 수직적인 업무압박을 받은 이력이 있음(금번 심혈관계질환 발병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진술함)

① 유해한 작업 환경

- 소음: 과거 소음 90.5에 노출된 내용 확인(*작업 측정 결과 참조)

②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 일정 예측 가능함
- 청구인 주장사항 :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었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심해져 진료를 받는 와중에 밀려있는 물량 소화를 위하여 무리함

③ 위험업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2021년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확인할 때 용접흙, 산화철 등 유해 인자(소음포함)가 확인되며 근골격계 부담업무(용접)에 종사하며 비정형적 자세로 오랜 시간 근골격계 부담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공정간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바쁘게 근무함

④ 업무상 중대한 사고 경험

- 2022. 1. 24. 가공소조립공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심폐소생술 장면 목격하는 등 충격을 받았음

□ 원처분기관의 업무시간 산정기준

- 출퇴근 카드, 컴퓨터 로그기록
- 발병일 9~10주 전 코로나19 병력으로 근무하지 않음이 확인됨
- 초과근무 동의서 징구(현장에서 동의한 분위기여서 청구인 본인도 동의하였다고 진술함)

4)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소중조 용접작업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하는 것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은 없으나 고혈압이나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 실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단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5)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선천적 요인 관련

- 평소 음주 및 흡연, 가족력은 물론 심혈관 계통 치료를 하고 있지 않으며 선천적인 요인은 없다고 주장

○ 작업시간 관련

- 보험가입자 의견 중 작업준비 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으며, ○○○○ 내업(가공소 조립부) 특성상 체조(07:50) 및 조회시간(07:55) 후 바로 작업에 투입이 되며 시업 시간 (08:00)과 동시에 작업이 시작됨. 작업준비 시간이 30분이라는 것은 과도한 시간 측정임
- 청소 및 마무리 시간은 표준작업지도서에 관한 사항만 옮겨 기재했을 뿐 현장에선 따로 청소 마무리를 하지 않음
- 용접기와 케이블을 제자리 가져다 놓는 시간은 필요. 소요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 그래서 퇴근 시간 5분 전에 작업이 마무리됨

○ 직무 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시간을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며, 내업 작업 특성상 작업은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함. 본인은 재해 당일의 기억이 전혀 없으나 내업 작업시간은 매우 타이트해 정리하고 돌려볼 시간이 따로 없음

○ 초과 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 본부서는 초과 연장근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재해 발생 1주일 전 대비 2~12주간 평균 시간의 비율이 30%는 안되지만 28% 증가한 사실이 있음

○ 중대사고 목격

- 재해발생일 20주 전 중대 재해, 고 오○○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가슴이 떨리고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으며,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큰 사고였으며, 작업 중지 해제 이후 도저히 사고장소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담당 팀장의 심폐 소생술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청구인 진술 그대로 작성)

○ 작업의 위험성

- 작업장 특성상 컨베이어롤러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부재가 이동이 되지만 뒤에 오는 블록이 공정이 바빠서 먼저 출고된다면 부재를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머리 위로 이동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그래서 용접 중 피해야 하며,

- 작업에 몰두하다 갑자기 머리 위로 권상된 부재가 지나갈 때 놀라서 아찔했으며, 항상 가슴 졸이며 일해 왔음
- 컨베이어롤러가 오작동 되는 경우가 많아 다리가 부재와 정반 사이에 끼일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 늘 가슴 졸이고 늘 긴장이 되었고, 사고의 위험이 많은 현장임
- 청구인이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 페이지 11쪽에 있는 사진 중 컨베이어 콘트롤 박스가 있으며 그 사진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는 최근에 만들어진 안전조치이며 그 덮개가 없었을 때는 아무나 버튼을 눌러 컨베이어 작동을 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많음(*작업 중 위험 관련 작업 영상 추가제출)

○ 휴게실 유해환경 등

- 현장 탈의실이 휴게실로 사용됨
- 탈의실에 출입문은 작업장과 연결되어 통행이 이루어지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접흠과 가스가 탈의실로 유입이 되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에 취약하며 탈의실에서 휴식 시간을 가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유해가스와 용접 흠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음
- 탈의실은 2층에 위치되어 있으며, 협소한 통로를 통해 오르락내리락하기에 너무나 협소하여 2명 이동 시에 교차하여 통행이 불가능. 그래서 휴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 올라가기도 힘들며, 경사도 가팔라서 통행에 불편

○ 출퇴근 시간 등

- 본인의 출근 시간은 6시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7시쯤 회사 바깥에 주차장에 도착하게 됨
- 주차장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6시에 출발을 해야만 주차가 가능.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야 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음
- 주차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그 외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시간과 버스에서 시달려야 하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
-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근버스를 운용하고 있지 않아 차량으로 출근
- 그 후 자전거를 이용해 회사로 출입

○ 청구인 부탁 말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업무처리규정이 있다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 할 가능성을 참작해주시고, 하루아침에 삶과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 되어 치료 회복하여 용접기능장인 저의 기술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료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지만 업무환경 상 스트레스 요인 및 긴장 요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내용에서 신청 상병 또는 기초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 12. 18.~2015. 8. 14. (3회) ○○병원 / 간기능검사의이상결과(R945)
- 2017. 6. 2.~2018. 10. 2. (입원 13일, 통원 10회) ○○병원 / 횡행결장의악성 신생물(C184)
- 2018. 8. 28.~2018. 9. 8. (2회) ○○병원 / 기타및상세불명역혈뇨(R318)
- 2018. 12. 29.~2019. 1. 2. (2회) ○○재단 ○○○병원 / 경련및연축(R252)
- 2021. 1. 5.~2021. 1. 11. (3회) ○○병원 / 현미경적혈노(R311)
- 2021. 6. 18.~2021. 6. 21. (3회) ○○병원 / 신장의결석(N200), 요관의결석(N201)
- 2021. 6. 19. 의료법인내경의료재단 ○○○○병원 / 옆구리통증(R1044)

8) 재해일인 2022. 5. 30. ○○대학교병원의 구급 출동 및 처치기록에서 확인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6. 2. Admission Note, △△대학교 □□병원

- C.C: T-colon mass
- P.I: Known previous Illness 없는 non-smoker, social-alcoholics인 자로, 2017. 5. 30. 건강검진 상 colonoscopy상 AV 70cm, 5cm sized mass Bx: serrated adenoma 있어 본원 CR 외래 내원하였고, 2017. 6. 2. T-colon mass로 LA RHC 위해 입원함

- 2017. 6. 5. Operation Report, △△대학교 □□병원

- Pre-operative Diagnosis: K63.58 Other polyp of colon
- Post-operative Diagnosis: C18.4 MALIGNANT NEOPLASM OF TRANSVERSE COLON
- Name of operation: 54.21 Laparoscopy, 45.73 Right hemicolectomy

9)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2. 5. 30. CT Aortic dissection/aneurysm, ○○대병원

Type A aortic dissection

extent: ascending thoracic aorta to both common iliac arteries.

flap extension into right branchiocephalic, both common carotid, left subclavian arteries.

flap extension into left renal artery.; renal ischemia of upper and mid pole of left kidney.

compressed true lumen.

fusiform aneurysmal dilatation of ascending thoracic aorta.; max, transverse diameter - 4.5cm.

A few small cysts in right kidney.

Others, unremarkable.

○ 2022. 6. 8. MRI Brain Routine+DWI & MRA(with Enhancement), ○○대병원

[Clinical history] 수술 전 검사

[Finding]

DWI/ADC map에서 left hippocampal tail과 right basal ganglia에 subtle diffusion restriction과 enhancement 보이는 lesion들이 있음

Subacute infarction 가능성이 있음

Left frontal periventricular white matter에도 hemorrhage와 edema를 동반한 focal lesion이 있는데, hemorrhagic transformation 동반한 subacute infarction 가능성 있음

양측 cerebral white matter에 mild small vessel ischemic change로 생각되는 nodular T2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들이 관찰됨

Brain stem과 posterior fossa에 뚜렷한 이상 없음

Pituitary gland와 cavernous area에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Ventricle의 크기와 모양은 정상임

CSF space에 abnormal fluid collection 없음

MR angiography에서 major intracranial arteries와 neck에 significant steno-occlusive lesion이나 aneurysm 없음

[판독 결론]

1. Subtle diffusion restriction with enhancement in left hippocampus and right basal ganglia. --> R/O subacute infarction.
2. Focal hemorrhage with edema in left frontal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 R/O subacute infarction with hemorrhagic transformation, --> R/O small ICH.
3. No significant abnormal finding on MR angiography.

○ 2022. 6. 13. CT Aortic dissection/aneurysm, ○○대병원

S/P Ascending aorta & total arch replacement.; patent graft without contrast leakage.

moderate amount of pericardial effusion.

small amount of perigraft fluid collection.

residual dissection, descending thoracic aorta to both common iliac arteries.

no interval change of flap extension into right brachiocephalic, both common carotid, left subclavian arteries.

no interval change of flap extension into left renal artery.; interval improvement of renal ischemia of upper and mid pole of left kidney.

interval improvement of true lumen compression.

No interval change of a few small cysts in right kidney.

Moderate amount of both pleural effusion with passive atelectasis.

Small amount of pelvic ascites.

○ 2022. 6. 17. Echocardiography, ○○대병원

1. Normal size of LV and LA with thickened LV wall
2. Normal global LV systolic function without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3. Normal valvular shape and motion without significant stenosis/sufficiency
4. No evidence of intracardiac mass
5. No evidence of resting pulmonary hypertension
6. No evidence of intracardiac shunt on TTE
7. Small pericardial effusion (≒6mm)
8. S/P asc aorta & total arch replacement: well maintainig, Lt. subclavian artery 이후로 elephant trunk 연결되어 있음

9. Enlarged sinus of valsalva(≒41mm)

[Conclusion]: S/P asc aorta & total arch replacement (intergard 26mm, 2022. 5. 30.)

1. Well maintaining
2. Concentric remodeling
3. Small pericardial effusion(≒6mm)
4. Enlarged sinus of valsalva(≒41mm)

○ 2022. 6. 27. US Lower Both extremity Doppler(동, 정맥)양측 비교시, ○○대병원

[Clinical infromation] r/o DVT

[Findings]

Right lower leg의 anterior portion, muscle layer가 약 5.4*11.3cm extent에 걸쳐 increased echogenicity를 보임.

Right lower leg의 posteromedial aspect에서 several intramuscular venous braches내에 thrombosis 소견 있음

Left lower extremity에 deep vein thrombosis 소견 없음

[판독 결론]

1. INcreased echogenicity in anterior muscle group of lower leg. right -> Rhabdomyolysis, more likely
R/O Severe inflammatory change
2. Deep vein thrombus involving several intramuscular branches of lower leg, right.
3. No evidence of deep vein thrombosis in left lower extremity.

○ 2022. 6. 29. CT Femoral, 3D CT Angio(Dynamic-Enhancement), ○○병원

No evidence of significant stenosis at both superficial femoral, popliteal, and distal run-off arteries.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of extent of dissection.

No interval change of a few small cysts in right kidney.

Decreased amount of both pleural effusion with passive atelectasis.

Decreased amount of pericardial effusion.

○ 2022. 7. 18. 경과기록, ○○병원

- S: weakness on both lower limbs: 5/30 op
tingling sensation on both lower limbs, esp, night.
swelling on Rt lower. atrophy on LT lower limb
- O: 대장암 수술, 하루에 2~3번 정도 변을 봤었다.
통풍: 거의 좋아져서 약 안먹고 있다.
- A: paraplegia
- P: 간병 문제로 입원 곤란한 상황. 개인 간병 또는 가족 간병을 하셔야 되며 간호 간병
안됨을 설명드리고, 통합간병 대기에 올림
- #1. paraplegia
- #2. DCP: 현재 다리가 많이 따갑고 저린다, 통증에 대하여 설명드릴. 필요시 약제 복용
가능함
- #3. swelling on Rt limb: 혈전 용해제 먹고 있다.
- #4. dec. appetite
- #5. NB & bowel, evaluation
- #6. old s/p op for colon ca.
- I7103 흉부대동맥박리, 상행부위
- M4984 다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흉추부
- G822B 하반신마비(다리) NOS

○ 2022. 7. 19. 초음파-Vascular sono(하지심부정맥)편측, ○○병원

No evidence of deep vein thrombosis or varicosities in right lower extremity.

○ 2022. 7. 20. 경과기록, ○○병원

#흉통

: 흉부 통증으로 눕기 일어나기 힘들다. 전동 침대가 있으면 통증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31병동 전실함시다.

트라마돌(?) 어제 안먹었다가 다시 먹었는데 통증에 효과가 있었다. 다리 저림도 조금 호전
보이고. 리리카 드시고 있는 중

트라마돌 먹으나 안먹으나 속 안좋은 것은 비슷하다.

통증 있으면 드시도록

Rt foot drop: NVC check 해보고 보조기 여부 결정

○ 2022. 8. 23. Kidne, Adrenal Gland, Bladder sono(신장, 부신, 방광), ○○병원

1. Kidney: parenchymal echogenecity; normal limited ranges.
mass / cysts; small hyperechoic nodule, about 6.4mm in size,
in left kidney; suggestive AML or lipoma. two
small systs in both kidney.
stone / hydronephrosis; none.
2. Adrenal gland; not clearly delineated due to overlapped bowel shadowing.
3. Urinary bladder; incomplete filling state.
wall thickening; none
mass; none
urolithiasis; none
4. Small left pleural effusion.

○ 2022. 8. 23. upper abdomen sono(일반-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병원

1. Liver
 - 1) parenchymal echogenecity: normal range
 - 2) mass: none
 - 3) others: none
2. Gall bladder: stone or sludge ball
3. Bile ducts / CBD: not dilated
4. Pancreas: limited due to overlying bowel gas — unremarkable
5. Spleen: unremarkables

○ 2022. 9. 20. Lower Extremity CT Angiography, ○○병원

Aortic dissection along the abdominal aorta; extension to both common iliac artery; reentry at iliac bifurcation level.
SMA and IMA from true lumen, both renal artery from both true and false lumen.
양측 extremity의 external iliac artery에서 foot artery까지 의미있는 stenosis 혹은 occlusion 소견 없음
Right popliteal fossa level의 intermuscular plane에 small fluid collection이 관찰됨

10) 청구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5. 12.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흉부방사선(비결핵성질환)
- 혈압(60/120mmHg), 이상지질혈증

○ 2018. 6. 5.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B
- 혈압(78/134mmHg, 고혈압전단계)

○ 2019. 6. 21.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B
- 혈압(86/133mmHg, 고혈압전단계)

○ 2020. 5. 26.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B
- 혈압(78/126mmHg, 고혈압전단계)

○ 2021. 4. 15.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B
- 혈압(84/138mmHg, 고혈압전단계)

○ 2022. 4. 5.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B
- 혈압(88/138mmHg, 고혈압전단계)

○ 2022. 5. 3. 특수건강검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평가

- 비만의심, 고혈압전단계, 혈당관리,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 위험도 2.9 (중등도위험군)

11) 청구인의 가족력 등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재 (불)승인 이력: 없음
- 교통사고 등 기타 사고 사실
 - 청구인 주장: 과거 빈번한 사고 경험이 있으나 구체적 증빙자료는 없음
- 개인적 요인에 관한 사항
 - 청구인은 가정환경 및 개인 중대사 등 개인적 요인은 없었으며, 식습관 등 건강한 편이라 진술함
- 취미 또는 여가활동: 없음
- 가족관계 및 가족력
 - 청구인 없다고 진술
 - 2017년~2022년 일반건강검진상 부모 형제자매 중 가족력의 건강검진 문답상 '기타'에 선택
- 음주 및 흡연력: 없음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진료확인서 1부, 통원확인서 1부를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6. 의학적 소견'에 후술한다.

다.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추가 의견서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공소 조립2팀 반 월별 근무실적 현황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추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3. 청구인 주장'에 기술한다.

라. 청구인은 2023. 12. 1.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 신청서상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2. 10. 26.〉

- 상병 명: 급성 I형 대동맥박리, 대동맥 박리로 인해 2차로 생긴 급성신장손상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 도중 갑자기 심장이 크게 뛰는 느낌이 들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2. 5. 30. 11:50 최초발생, 의식소실 無, 흉통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심장이 크게 뛰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 앞쪽으로 흉통, 좌측 다리가 저림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CT에서 급성 I형 대동맥 박리 관찰됨
- 수술: 2022. 5. 30.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치환술

〈 진단서, ○○대학교병원, 2022. 8. 22. 〉

- 병명(최종 진단): 흉부대동맥 박리, 상행부위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환 2022. 5. 30. 근무 도중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 상병 진단받은 후 개심술하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 전체의 인조혈관을 이용한 치환술 응급 수술받았으며, 경과 호전되어 7월 18일 퇴원함. 2022. 8. 22. 현재 시점에서 6개월간의 안정 가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향후 정기적인 검사를 위해 추적관찰을 요함
- 입원일 2022. 5. 30., 퇴원일 2022. 7. 18.

〈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2. 9. 26. 〉

- 병명: 흉부대동맥 박리, 상행부위
- 소견: 상환 49세 남성으로 2022. 5. 30. 근무 도중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상병 진단받은 후 개심술하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 전체의 인조혈관을 이용한 응급 치환 수술 받았으며, 이후 경과 호전되어 2022. 7. 18. 퇴원하였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입니다. 상기 병명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 인자로 생각됩니다.

〈 진료확인서, ○○병원, 2022. 10. 12. 〉

- 병명: 어깨의 충돌증후군, 특발성 통풍, 여러 부위,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기타 부분, 근육돌레피증후군
- 치료받은 날짜: 2022/ 4/ 20, 21, 27, 28, 29, 2022/ 5/ 2, 3, 4, 6, 12, 10일간 통원하였음

〈 재심사 청구 이후 제출, 진료확인서, ○○○○(주) 부속의원, 2022. 10. 13. 〉

- 진단명: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 진료내역: 2022. 5. 2.부터 2022. 5. 30.까지 상기 진단명으로 물리치료 19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재심사 청구 이후 제출, 통원확인서, ○○한의원, 2022. 10. 13. 〉

- 병명: 아래허리긴장, 요천부
- 통원: 2022. 4. 6.부터 2022. 4. 8.까지 총 3일간 통원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 환경,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급성 1형 대동맥박리, 대동맥 박리로 인해 2차로 생긴 급성신장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1주 평균 52시간에는 미달하나 작업 중지 이후 업무량 30% 가까이 증가, 사망재해 목격,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의 복합적 노출로 인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참석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 가중요인으로 소음작업환경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 당일 및 전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단기간 및 만성적 업무부담이 없는 점, 중대한 사고 경험으로 인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나 신청 상병 발병과는 시간적, 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여러 내재적인 요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 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청구인은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는 미달하나 작업 중지 명령 이후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용접업무의 수행, 중대 재해 목격에 따른 정신적 충격 및 트라우마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한 복합적 노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9시간 0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0분’으로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7분’으로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 재해 목격에 따른 정신적 충격 및 트라우마 등을 주장하나 신청 상병 발병과의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근골격계 질병

1. [2023-1223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7. 11.)

사건의 쟁점

장기간 반복된 밸브 조립업무 수행으로 방아쇠수지증후군(우측 4수지)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장기간 밸브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사용하였고 특히 4번째 손가락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밸브 조립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하는 동안 쥐거나 잡는 동작과 힘의 작용 등 수지의 부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업무 종사 기간이 길지 않고 발병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만,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종사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22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3.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5. 27. 진단받은 ‘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 6. 원처분기관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23. 3. 24.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1)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청구인은 벨브조립 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하면서 쥐거나 잡는 동작과 힘의 작용 등 수지의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제4 수지의 경우는 비교적 부담이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발병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벨브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사용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에 기록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2. 5. 27.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다 보니,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차도 없이 4번째 손가락이 로봇 손가락처럼 더욱 심하여 산재 처리를 하오니 선처 바람”이다.

나. 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64세, 키 170cm, 몸무게 72kg, 양손잡이인 남성으로 근로관계 등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 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 업무: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밸브조립 업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 형태: 정규직
- 근무 기간
 - 2021. 11. 16.~2022. 5. 27. 밸브조립 / 4대 보험
- 근무시간: 08:30~17:3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로 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은 1일 10분 2회 휴식
- 직무 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과거 근무이력 〉

- 2020. 2. 1.~2020. 3. 1. [1개월] ○○○○(주)/A마트 청소
 - 2017. 12. 1~2019. 10. 2 [약 1년 10개월] ○○기업사/수도꼭지 가공(엄지, 검지만 사용)
 - 2015. 11. 9~2017. 9. 14 [약 1년 10개월] (주)○○○/수도꼭지 가공(엄지, 검지만 사용)
 - 2015. 6. 26~2015. 10. 27 [약 4개월] ○○푸드/지게차 운전
 - 2015. 4. 1~2015. 6. 22 [약 3개월] ○○금속/수도꼭지 가공(엄지, 검지만 사용)
- ※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0개 이상의 다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다.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업무 및 신체 부담은 다음과 같다.

〈 업무 개요 〉

○ 작업공정

- 자재 입고 → 가조립 → 본 조립 → 검사 → 포장 → 출고
- 청구인은 전체공정 중 “본 조립”만을 담당하고, 다른 공정에서는 일하지 않음

〈 밸브 조립업무 〉

○ 작업내용 및 방법: 밸브 보드를 고정대에 바이스에 고정하고, 임팩트로 4면에 볼트로 고정 후 명판을 고정 후 망치로 한번 펜치로 쳐서 고정해주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업무)수행 비율: 100% (08:30~17:30, 1일 8시간)

○ 어떠한 자세로 작업수행 : 선 자세

○ 설비, 도구, 장비: 바이스, 임팩트, 망치(400g)

○ 최종생산품: 조립된 밸브

○ 무게: 약 0.5kg ~ 1.5kg

○ 총 수량 : 평균 150개 조립(최대 220개 조립)

※ 청구인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주 작업: 바이스 조이고, 푸는 과정에서 바이스에 4수지 손바닥 부분에 무리

라. 청구인의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래진료기록부, ○○신경외과의원, 2022. 5. 27. 〉

4th A1 부위

작업을 많이 하심

3주 되었다.

triggering

시리고 그렇다

〈 외래 초기 평가, ○○병원, 2022. 12. 2. - 재해일 이후 기록 〉

C.C. - 주 호소 증상 발생 시기: 2022-11-05

좌측 2, 3수지 통증

우측 4수지 통증 걸림

P.I.

2022-11-05 기계에 구멍을 뚫다가 기계가 돌아가며 좌측 2, 3수지 다침

2022-05-27 우측 4수지 과사용(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다) 주사 두 번 맞았다
타 병원 cd 및 의뢰서 가지고 내원, 산재 신청하러 내원.

〈수술확인서, ○○병원, 2023. 1. 11.〉

수술일: 2023-01-03

수술명: 용수지 수술(A1 활차 절개 유리술)

마. 청구인의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 10. 31. S611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 2017. 10. 13. B351 손발톱백선
- 2017. 10. 18. B351 손발톱백선
- 2018. 5. 14. S6369 손가락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611 손톱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바.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재해 경위에 대하여 인정합니다.”라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신경외과의원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6. 의학적 소견’에 후술한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병원, 2022. 12. 6. 〉

- 재해 일자 및 최초 진료 개시: 2022. 5. 27. 타 의료기관
- 본원 최초 도착일시: 2022. 12. 2. 13:38
- 진술한 재해 경위: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4번째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손가락이 로봇처럼 움직임
- 호소하는 증상: 우측 4번째 손가락 통증
- 종합소견: 우측 4수지 방아쇠증

〈 소견서, ○○신경외과의원, 2023. 3. 30. 〉-재심사 청구시 제출

-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 불명의 관절염/손, 힘줄염 M1394
- 향후 치료 의견: 2022. 5. 27. 우측 4번째 손가락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X-ray 및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보존적 치료 하였으며 관절염과 힘줄염은 과사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사 1(직업환경의학과) 〉

- 직업력 검토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청구인은 밸브조립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임팩트나 망치 등의 공구를 손으로 파지하여 제품을 고정하고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쥐기 및 잡기 동작과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우측 손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7개월), 상병의 상태(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자문의사 2(정형외과) 〉

- 자료기록 확인함. 업무상 질병 판정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밸브조립 업무를 약 6개월 정도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쥐기 및 잡기 동작과 힘의 작용 등 수지의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제4 수지의 경우 비교적 부담이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발병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라고 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종사한 기간, 작업 자세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부담이 발병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마.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3-1705 취소]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11.)

사건의 쟁점

냉각기 설치 관련 업무로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MRI,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 검사 결과를 반영한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이는 작업을 하여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진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불승인 상병이 영상의학 및 근전도 검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 특성상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주치의로부터 불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전사각근 절제술 및 상완 신경총 유리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원처분기관은 영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근전도 검사 등에서도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논쟁성 신경성 혈관 출구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경우, 상병 명의 확인 및 인정 여부는 주치의 소견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서 불승인 상병은 인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작업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작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불승인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705호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2. 20.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1. 16. 진단받은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 우측 드퀘르벵씨 병, 우측 손목 결절종’(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8. 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2. 20.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5. 9.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불승인 상병은 영상의학적 및 근전도 검사에서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 특성상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흉곽출구증후군의 진단은 MRI,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에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으면서 어깨, 경부, 상지의 넓은 부위에 통증과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신체검사에서 쇄골상부의 압통과 이때 증상의 발현, 신체 검사(Roos 검사, 상지신경긴장검사 등)에서 양성이 확인될 때 disputed type의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되므로, MRI와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에서 음성이라는 것은 disputed type 흉곽출구증후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치의가 소견을 제시 하였다.

나. 흉곽출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외상에 의한 경우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재해조사서에도 나와 있듯이,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이는 작업을 하여 어깨에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진 것이 상병의 발병 원인일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재해조사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기록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회사 생산실에서 생산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하며 제품을 조립하다가 손목에 강한 통증을 느낌”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3. 12. 18. 입사하여 7년 11개월간 냉각기 설치, AS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1)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 근무 형태: 고정주간 근무
- 근로기간: 2013. 12. 18.~2021. 11. 16.(진단일) / 7년 11개월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08:30~17:30
- 식사 시간: 점심시간: 60분, 12:30~13:3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5분
- 담당 업무: 냉각기 설치, AS 및 생산(조립)
- 업무 내용
 - 주 작업은 발전소 내 현장에 투입하여, 냉각기 설치/AS 작업을 수행함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냉각기 설치 및 AS
 - 2019년부터 2021. 11. 16. 재해발생일까지 사업장 내에서 생산(조립) 업무 전담

2) 근무이력

| 근로기간 | 사업장명 | 담당업무 | 근거자료 |
|-----------------------------------|-------|--------------------|-------|
| 2013. 6. 3.~2013. 7. 1. (1개월) | ○○(주) | 지게차 운전 (식자재 배달) | 4대 보험 |
| 2012. 4. 2.~2012. 12. 1. (8개월) | ○○몰 | 음향 인터넷 판매 | 고용보험 |

| 근로기간 | 사업장명 | 담당업무 | 근거자료 |
|---------------------------------------|--------|-------------------------|------------|
| 2010. 4. 1.~2011. 5. 1. (1년 1개월) | (주)○○○ | ○○통신관리 (전화, 인터넷 연결) | 근로소득 이력 |
| 2008. 11. 24.~2010. 4. 1. (1년 4개월) | (주)○○ | ○○외주업체아웃소싱 (음향 엔지니어) | 고용보험 |

다.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작업공정

○ 냉각기 설치 및 A/S 업무

- 운반 작업 → 단열 작업 → 천공 작업 → 설치 작업, 냉각기 생산(조립) 업무

2) 작업내용

○ 운반 작업 (1시간/일)

- 냉각기(45kg/대, 4대/일, 2인 1조 작업량 기준)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상차 하고 적재함에서 하차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냉각기 설치 장소는 대체로 이동 대차를 이용하기 어려워 어깨에 올려 약 100~200m 도보로 이동함

○ 단열 작업 (4시간/일)

- 냉각기 전면에 스티커 부착이 가능한 단열재를 한 면 단위로 규격에 맞춰 칼과 자로 재단한 후 인력으로 부착하는 형태의 단열 작업을 수행함

○ 천공 작업 (2시간/일)

- 전기선 연결 및 차단기 등의 볼트 체결 등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전 전기선이 관통 할 수 있도록 냉각기 판넬에 7개소/냉각기 1대 기준으로 전동압착기(유압 천공기, 3.1kg)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채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 작업 (1시간/일)

- 양측 손으로 냉각기 내 전기선(1.2m/대, 냉각기에 내재)을 천공 부위에 각각 연결 하는 전기 결선 작업을 선행한 후 차단기 고정을 위한 볼트 체결 작업으로 수공구 (드라이버류)를 우측 손으로 사용하여, 조이는 형태로 체결하는 설치 작업을 수행함

○ 냉각기 생산(조립) 업무 (8시간/일)

- 주로 드라이버(토크 드라이버, 수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형태로 냉각기를 조립한 뒤, 냉각기에 냉각수(2L)를 채우고 흔들어 누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온도를 체크 하는 등의 검사 작업을 수행함

3) 청구인 주장

○ 작업내용 관련

- 현재 당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냉각기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내에서 생산(조립) 업무를 전담하였음
- 냉각기 설치 작업 및 AS 작업은 발전소 내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기에 목과 손목 부담이 자세 면에서 더욱 가중됨
- 설치 업무는 주로 어깨에 냉각기를 메서 1인 작업으로 평균 하루 2대를 1대씩 설치 장소로 운반한 후 냉각기 전면을 단열재를 재단하여,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1대 기준으로 판넬 한 면에 7개의 천공을 선행한 후 전기선을 연결하며, 차단기에 볼트를 체결하는 형태로 설치 작업을 마무리함
- 이후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장의 배려로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동 토크 드라이버와 일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냉각기 1대 기준으로 1.5일을 소요하여, 볼트 체결하는 형태로 조립 작업을 수행한 후 0.5일 동안 시운전 작업을 수행함
- 냉각기 1대 기준으로 냉각수(2L)를 채우고, 2시간 동안 30분 단위로 상하좌우로 흔들어 새는 곳이 없는 제 등의 불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장 내 챔버에 60도로 온도를 올린 상태로 판넬 내부 온도를 체크하는 작업을 2시간 동안 기계를 통해 확인하였음

○ 추가 부담작업 관련

- AS 건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냉각기를 탈거한 후 수리하여 장착하는 형태도 있으나, 주로 대부분 새것으로 교체하는 형태로 작업하였음
- 발전소 내부 냉각기 설치 작업은 공간이 협소하여, 목과 손목의 꺾임 자세 등을 유지하며, 고정 자세로 작업하기에 부담이 가중되었음

라.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Clinical Chart | ○ □□가정의학과의원, 2020. 3. 14 - c.c.: RE pain. Rt wrist pain. duration; chronic. 무거운 것을 많이 듦 |
| 외래 진료 기록부 | ○ □□정형외과의원, 2021. 2. 15. - Rt. hand tingling sensation - trauma hx(-). tinnel sign(+). phalen sign(+). - US guided median N. block 시행 - medication |
| 외래 초진 기록 | ○ □□병원, 2021. 10. 12. - both wrist pain(R>L). for 3 years - trauma(-) - 무거운 물건 들거나 드릴 돌리면서 손목이 돌아간 적은 있다. 최근 덜 쓰면서 통증 다소 호전 - r/o TFCC tear, wrist, both. |
| 외래 재진 기록 | ○ □□병원, 2021. 11. 16. - MRI: Ganglion in dorsal intercarpal ligaments around lunate bone. Degeneration in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ex(TFCC). r/o lipoma - 최근 들어 손을 많이 사용하고 증상이 심해짐 |
| 다학제 진찰 | ○ 근로복지공단 □□병원 - 2021. 10. 12. 타 병원 진료기록부상 'both wrist pain(Rt.>Lt.) for 3years' 주호소로 진료 시행한 기록이 확인됨 - 2021. 11. 16. 타 병원 우측 손목관절 MRI 판독지 상 ganglion, TFCC degeneration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 11. 23. 타 병원 외래기록지 상 Finkelstein test(+), Anterior scalene compression test(+), Roo's test(+), Adson test(+) 소견이 있어 Thoracic outlet syndrome, Rt. De Quervain disease, Rt. |

| 구분 | 내용 |
|--------------------|--|
| | <p>진단하에 injection 치료를 계획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2. 1. block 치료받음 - 2021. 12. 23. 타 병원 외래기록지 상 ‘anterior scalene block 후 일시적 호전 있었다, 손목 통증 주사 맞고 호전’ 기록이 확인되어 Thoracic outlet syndrome, Rt. Ganglion, dorsal wrist, Rt. De Quervain disease 확진함 - 2022. 4. 5. 타 병원 C-spine MRI 판독지 상 R/O C5-6 foraminal stenosis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2. 5. 9. 타 병원 근전도 검사 결과지 상 정상 소견임이 기록되어 있음 - 2022. 10. 6. 상완신경총 MRI 판독지 상 특이소견 없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2. 10. 7. Anterior scalenectomy / Rt. Neurolysis of brachial plexus on trunk level, right(inferior trunk) 시행 받음 - 2022. 11. 7. 본원 우측 손목관절 MRI 상, 타 병원 MRI에서 확인되던 ganglion이 많이 소실되고 흔적만 남은 상태로 확인됨 |
| Right Wrist MRI 판독 | <p>○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1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FC;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negative. Lunotriquetral ligament; W.N.L. 2.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3. Flexor muscles and tendons; W.N.L. 4. Extensor muscles and tendons; W.N.L. 5. Carpal tunnel; W.N.L. 6.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p>R; W.N.L. Rec; Clinical correlation.</p> |

마. 재해발생일 이전 최근 10년의 건강보험 진료명세서상 청구인은 2017년, 2018년, 2021년에 여러 차례 손목 부위에 진료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바. 보험가입자는 2022. 9. 2.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진단 시 38세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과거 산재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병원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6. 의학적 소견’에서 후술한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소견서, ○○병원, 2022. 8. 9. 》

- 재해 일자: 2020. 3. 19.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0. 3. 19. 타 의료기관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1. 10. 12.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양측 손목 통증
- 종합 소견
 - 상기 환자 전방 사각근 압통 및 족지 시 저린 증상 있어 우측 흉곽출구증후군 소견 보이며 MRI 상 우측 손목의 결절종 및 드퀘르뱅씨 병 소견 보임
- 입원 예상 기간
 - 2022. 10. 6.~2022. 10. 8. (1주) / 사유: 수술
- 통원 예상 기간:
 - 2021. 10. 12.~2022. 10. 5. (52주) / 사유: 관리 및 재활치료
 - 2022. 10. 9.~2022. 12. 30. (12주) / 사유: 수술적 치료 이후 창상 관리 및 재활치료
- 수술: 2022. 10. 7. 전방 사각근 절제술

《 추가제출 소견서, ○○병원, 2023. 4. 11. 》

○ 병명: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

○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흉곽출구증후군 진단하에 2022. 10. 7. 전사각근절제술과 상완 신경총유리술을 받은 자임
- 흉곽출구증후군의 진단은 MRI,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에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으면서 어깨, 경부, 상지의 넓은 부위에 통증과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신체검사상에서 쇄골상부의 압통과 이때 증상의 발현, 신체검사(Roos 검사, 상지신경긴장검사 등)에서 양성인 경우 confirmed type의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됨
- 따라서 MRI와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상에서 음성이라는 것은 disputed type 흉곽출구증후군에서는 당연한 결과임
- 내용 확인하여 재심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람

나. 2022. 12. 6.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 관련성 평가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관련성 평가(특진 결과) 》

- 주로 전동 공구와 수동 공구를 이용하여 냉각기를 설치하고 정비하거나(2013~2018년) 냉각기를 조립하여 생산하는(2019~재해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목 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 ‘우측 드퀘르뱅씨 병’과 ‘우측 손목 결절종’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냉각기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업무(2013~2018년)를 수행하면서 냉각기(약 45kg)를 어깨 위에 올려 좁은 통로를 도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의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목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고, 2018년부터 다수의 병·의원에서 다수의 진단명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점, 의무기록 상으로 비업무적인 내원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 판정 제○○○호 업무상 질병 판정서 》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학 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드퀘르뱅씨 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확인되고,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은 영상 및 근전도검사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7년 11개월간 냉각기 설치/AS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과거 직력으로는 1개월간의 지게차 운전, 8개월간의 음향기기 판매원, 1년 1개월간의 전화/인터넷 통신 관리원, 1년 4개월간의 음향 엔지니어 근무 이력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 중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등 손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손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드퀘르뱅씨 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신청 상병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의 경우, 영상의학적 및 근전도검사상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상기 의학적 소견과 상병 특성상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청구인의 신청 상병 “우측 드퀘르뱅씨 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장기간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불승인 상병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2022. 10. 7. 주치의의 “우측 흉곽 출구 증후군”의 진단하에 2022. 10. 7. 수술(전사각근 절제술 및 상완 신경총 유리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의 원인이 MRI나 CT 검사 등에서 1 늑골의 변형, 경추부 늑골, 섬유성 밴드의 존재 등이 보이면 그것은 환자 본인의 문제로 인한 것임에 요양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청구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영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근전도 검사 등에서도 증거가 없는 경우는 “논쟁성 신경성 혈관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병 명의 확인 및 인정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바, 불승인 상병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아울러, 청구인의 작업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작업내용을 살펴볼 때, 불승인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 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 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나.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라. 신체 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마.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 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2023-178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17.)

사건의 쟁점

장기간 쪼그려 앉는 자세로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이 청구인에게 발가락 골극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약 19년 4개월 이상 장기간 용접업무를 하면서 발가락 관절의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 작업의 동작으로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생기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원인 불명의 요인 등 개인적 질환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 강도, 적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이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78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15. 진단받은 ‘좌측 2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3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4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0. 2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2. 14.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MRI와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2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3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4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청구인은 약 19년 4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 강도·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 동작 등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은 크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원인 불명의 요인 등 개인적 질환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에서 조선소 용접업무를 약 19년 4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였고, 용접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가 장시간 유지, 앉기-서기 반복 자세가 수시로 발생 되며, 약 15kg 중량물인 용접 피더기와 에어호스를 수시로 운반하며 2km에서 4km 걷기 부담 요인이 있어 좌측 족부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무려 약 19년 4개월 업무 수행하면서 용접을 하는 경우 발가락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짝 끼는 신발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처분기관은 원인

불명 요인 등의 개인적 질환을 이유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보면 원인은 개인적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오랜 근무 기간과 작업내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발가락 관절의 지속적인 부담력이 확인되고, 신체 부담이 높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재해조사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청구인은 약 15년 동안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기 업무로 인하여 발가락 통증으로 2020. 6. 15.에 ○○병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영상의학 검사(X-Ray) 및 MRI 검사를 통해 좌측 2번째, 3번째, 4번째 발가락 골극 변형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건-인대피하 단열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사료 되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8.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0. 5. 31. 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주요 근로 내용과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의 근로 내용

- 근무 기간: 2001. 1. 1.~2020. 5. 31.
- 근무 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 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세부 근무이력(고용보험)

- 2001. 1. 1.~2006. 8. 2. ○○○○주식회사, 자동용접
- 2006. 8. 3.~2014. 3. 26. ○○○○주식회사, 자동용접
- 2014. 3. 28.~2015. 4. 29. ○○○○주식회사, 자동용접
- 2015. 5. 15.~2018. 2. 8. ○○○○주식회사, 자동용접
- 2018. 3. 2.~2020. 5. 31. ○○○○주식회사, 자동용접

다.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상 신체 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내용 | 신체 부담작업 |
|---------------------|--|
| 자재 운반작업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위치 간 이동 시 용접 피더기와 와이어를 들고 선박 내부 및 외부 등을 운반하는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밧줄에 피더기를 묶어서 지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도 함 - 부자연스러운 안전화를 신고 자재(용접기, 케이블 등)를 들고 쇠판 위를 걷거나 블록 위를 넘어 다니며 자재를 운반함. ○ 작업 자세: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운반하며 선체 위를 걷거나 블록을 넘어 다닐 때 ○ 작업 도구: 와이어 에어호스(15kg), 용접피더기(15kg), 공구통 등 ○ 작업량: 작업 중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수시로 피더기를 들고 운반함 |
| 용접 작업 (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조립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절단된 소 부재, 각종 부재 등 블록 형성에 맞게 용접으로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자동용접을 할 때는 자동용접기 2대로 동시에 작업을 함 ○ 작업 자세: 블록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낮은 자세로 용접을 진행하며, 선박 윗부분 용접 시 허리를 세우고 용접기를 들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허리의 굴곡과 좌우 회전/ 꺾임이 동반되는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되며, 좁은 공간작업 및 협소한 공간 이동 시 장시간 쏘그려 앉아 용접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천 번 반복함 ○ 작업 도구: 피더기(15kg), 용접 고대기(4kg), 안전복(3kg) 등 ○ 작업량: 1일 평균 75kg 이상 누적 취급 중량물 발생, 15kg 이상 / 1회, 5회 / 일 작업 수행함 |

라. 청구인의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래 초진 기록지, 2020. 6. 15. 〉

- C.C Lt 3, 4, 5th toe pain
- P.I 30분 이상 보행 힘들 정도의 통증, 타 병원 진료에도 계속
- P/E 4th claw toe
- 재해자 진술: '특별한 발가락 부위 외상은 없었다. 안전화 신고 오래 걸으며, 찌그러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며 좌측 2, 3, 4번 발가락 굽어진 상태 지속되고, 발가락 밑으로 통증 심했다.'

〈 Lt. foot MRI, 2020. 7. 22. 〉

- Hammer toe deformity at left 3rd and 4th phalanx
- no definite mass at left foot
- No abnormality at ligament, tendon, bone and soft tissue

〈 수술 기록지, 2020. 8. 6. 〉

- 수술 전 진단명: hammer toe 2nd, 3rd, 4th L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resection arthropathy of PIP at 2nd, 3rd, 4th toe. FDL tenotomy 4th toe

마.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직업력 등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 기간이 계속적이지 않은 것은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청구인은 재해일 이후에도 작업을 하였음
- 청구인의 직력 및 담당 업무는 청구인의 진술로 의해 작성하였고, 청구인 작업 영상은 사진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
- 청구인은 조선소 용접작업 전 식당 및 건설 현장 등에서 약 10년간 잡부로 일하였다고 함

바.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년경 관절의 구축, 발목 및 발
- 2017년 상세 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 2020. 8월 굴곡 변형, 발목 및 발

사.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몸무게 66kg, 왼손잡이며, 운동·취미활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를 신청하면서 2023. 3. 23. 자 ○○병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2022. 10. 19. 자 ○○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요양급여 소견서 〉

- 상병 명: 좌측 2번째, 3번째, 4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 본원에 최초 도착 일시: 2020. 6. 15.
- 재해 경위: 30분 이상 보행 힘든 정도 통증(좌측 3, 4, 5번째 발가락)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발 통증
- 소견: x-ray, MRI 상 2번째, 3번째, 4번째 hammer toe(발가락 굴곡 변형)
- 수술 이력: 있음
 - 2020. 8. 6. 건.인대피하단열 수술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관련성 평가: 높음

□ 판단 근거

- 다학 결과, 만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좌측 2, 3, 4번째 발가락의 굴곡 변형(hammer's toe) 확인됨
- 근거자료를 통하여 2001년경부터 2020년 5월까지(재해일은 2020. 6. 15.) 약 19년 4개월간 조선소 용접 업무(자동 및 수동 용접)를 수행한 이력 확인됨
- 청구인은 조선소 용접(수동 및 자동) 업무를 19년 이상 장기간 수행했으며, 용접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고, 앉기-서기 반복 자세가 수시로 발생 되며, 약 15kg 중량물(용접 피더기 및 에어호스)을 수시로 운반하며 2km에서 4km의 걷기 부담 요인이 있어 좌측 족부 신체 부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됨
- 건강보험 진료내용에서 2015년경부터 '관절의 구축, 발목 및 발', 2017년 '상세 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2020년 8월 '굴곡 변형, 발목 및 발'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 확인됨
- 망치 발가락(hammer toe)의 원인으로는 제대로 맞지 않은 신발(poorly fitting foot wear), 근육 불균형(neuromuscular imbalance), 관절 및 연부조직에 체중이 부하 되는 작업(weight bearing activity) 등이 보고됨
- 경도 비만으로 특별한 운동 및 취미생활 없다고 진술하였고, 60세 나이 고려

□ 종합소견

- 청구인은 약 19년 4개월간 조선소 용접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만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좌측 2, 3, 4번째 발가락의 굴곡 변형(hammer's toe) 확인됨
- 망치 발가락의 원인으로는 제대로 맞지 않은 신발, 관절 및 연부조직에 체중이 부하 되는 작업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조선소 용접(수동과 자동용접) 업무는 안전화를 신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며 체중 부하 가능한 직종이며, 19년 이상 장기간 근무 지속한 점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생각됨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MRI와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2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3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4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진단일 기준 약 19년 4개월 정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체 부담작업보다는 선천적 이상, 원인 불명의 요인에 의한 상병 발생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청구인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 동작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원인 불명의 요인 등 개인적 질환을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라고 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약 19년 4개월 이상 장기간 용접 업무수행으로 발가락 관절의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MRI와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2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3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 좌측 4번째 발가락 굴곡 변형”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약 19년 4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내용과 작업 강도·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이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원인 불명의 요인 등 개인적 질환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2023-2263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9. 4.)

사건의 쟁점

실업팀 유도선수로 5년 이상 훈련하는 과정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병할 정도로 목 부위 신체 부담 누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도 훈련을 통해 목 부위 충격이 누적되어 계속 손상과 회복을 반복한 점과 일반근로자와 다른 청구인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훈련 특성상 목 부위에 하중이 가해지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목에 힘을 주는 동작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훈련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신체 부담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게 지속해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유도선수로서의 수행 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직업 특성상 반복 훈련을 통한 작업 강도 및 작업 자세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높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26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3. 3.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3.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7. 27. 진단받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의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3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3. 24.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9.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MRI와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의 염좌”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청구인의 훈련 특성상 순회 훈련을 진행하면서 목 부위에 하중이 가해지는 훈련과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목에 힘을 준 상태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는 훈련내용 등이 일부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 강도·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체 부담작업이 관찰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는 직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게, 지속해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경우 다른 보통 평균인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대련 훈련을 통해 상병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어 계속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타 직종의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병의 악화 정도와 업무상 강도가 강하면 강했지 더 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른 일반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식과 함께 일률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했는지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인 청구인의 신체조건과 건강을 간과한 것으로 단순히 직업력이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서 주로 경추 부위를 판단하는 사례들과는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대련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강력한 힘으로 목이 꺾이거나 바닥에 메쳐지면 충격이 누적되는 정도가 상당한데, 그러한 점을 간과하여 일반 근로자와 함께 판단한 것은 업무 특성상 신체 부담 정도를 간과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통해 신청 상병 부위의 충격 누적으로, 치료받아야 했지만, 재계약을 위해서는 경기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봉삭감·계약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업무수행을 지속해야 했다.

마. 청구인은 대련 훈련 등을 통해 수없이 상병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회복할만한 기간이 매우 필요한데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재해조사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청구인은 훈련 대련 과정에서 지속적인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실업팀 유도선수들은 경기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봉

삭감, 계약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유도선수로서 생활하는 도중에도 항상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며 훈련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 부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으면서 훈련에 임하여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 신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20. 7. 27. 까지 유도선수로 활동 중이며, 청구인의 주요 근로 내용과 이 사건 사업장 이전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군청의 근로 내용

- 채용 일자: 2017. 1. 1.(재직기간: 진단일 기준 약 3년 7개월 정도)
- 담당 업무: 유도선수
- 담당 부서: ○○군청 실업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새벽 훈련: 06:00~07:30
 - 오전 훈련: 10:00~12:00
 - 오후 훈련: 15:00~17:00
 - 야간 훈련: 20:00~21: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 시간: 18:00~19:00
- 훈련 종류: 순회 훈련, 전지훈련, 대회출전

□ 이전 근무이력

- 2013년~2016년 ○○대학교 학생으로 유도 생활
- 2012. 1. 1.~2012. 12. 31. ○○시청 소속 유도선수
- 2011. 6. 1.~2011. 12. 31. △△시청 소속 유도선수

다.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상 신체 부담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훈련 종류별 훈련내용 및 특이사항

〈 순회 훈련 〉

- 장소: ○○군청 내 위치한 훈련장에서 합숙 훈련방식으로 진행
- 훈련 시간
 - 새벽 훈련: 06:00~07:30(체력훈련)
 - 오전 훈련: 10:00~12:00(웨이트 트레이닝)
 - 오후 훈련: 15:00~17:00(유도운동 - 본 운동)
 - 야간 훈련: 20:00~21:00(개인 운동), 주 1~2회

〈 전지훈련 〉

- 장소: 타 지역에 가서 타 지역 선수들과 합동훈련 방식으로 진행
- 훈련 횟수: 약 17회(○○선수촌, ○○대 등)
- 훈련 시간
 - 오전 훈련: 10:00~12:00(웨이트 트레이닝 및 유도 대련)
 - 오후 훈련: 15:00~17:00(유도 대련)

〈 대회출전 〉

- 대회 일정: 1년에 약 7회~10회(4일씩 소요)
- 대회 시간: 10:00~15:00
- 대회 방식: 체급별 개인전, 단체전
 - ※ 단체전의 경우 본인 시합이 종료되더라도 동료 선수를 보조해야 함

□ 근무시간별 훈련내용 및 특이사항

〈 새벽 훈련(06:30~07:30) 주요 훈련내용 〉

- 동료 선수를 목마하여 태우고 100m 전력 질주 훈련
- 동료 선수를 아기 안듯이 들고 100m 달리기
- 동료 선수를 업고 100m 달리기

- 동료 선수를 쌀 포대 메듯이 어깨로 메고 100m 달리기
- 동료 선수가 하체를 잡아주고 상체만으로 기어서 100m 가는 훈련
- 배 밀기 푸쉬업을 200개 정도 하면서 육상트랙을 완주하는 훈련

〈 오전 훈련(10:00~12:00) 주요 훈련내용 〉

- 유도 국가대표방식의 웨이트 훈련
 - ※ 데드리프트 100kg, 파워클린 100kg가량 수행
 - ※ 웨이트 트레이닝 시 청구인의 체중을 훨씬 상회하는 중량을 취급하며 무리하게 훈련해야 했기에, 어깨 및 경추 부위에 부담 가중

〈 오후 훈련(15:00~17:00) 주요 훈련내용 〉

- 유도 대련 방식
 - ※ 지속적인 유도 기술로 인해 지면에 넘어지는데 이때 낙법을 쳐서 충격을 분산 시킨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져 상병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 가중

〈 야간 훈련(20:00~21:00) 주요 훈련내용 〉

- 재활훈련 방식의 훈련
 - ※ 일주일에 1~2회 훈련

〈 훈련 특성상 경추부 신체 부담 여부 〉

- 순회 훈련을 진행하면서 동료 근로자를 목마에 태우고 달리면서 목부위 및 어깨 부위에 하중이 가해져 부담되었고, 동료 근로자를 안거나 업고 달리는 과정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목에 힘을 준 상태로 고개를 들고 전방을 보면서 달려야 하므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
- 또한 쌀 포대 메듯이 들고 뛸 때도 있는데 이때 목을 기울인 상태에서 뛰어야 하고, 엎드려서 트랙을 도는 훈련 또한 고개를 지속해서 들어야 하므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배 밀기 동작은 푸쉬업 자세에서 상하체를 모두 뒤로 당겼다가 머리 - 가슴 순서대로 역 포물선을 그리면서 마치 바이킹 내려가듯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동작인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속해서 고개를 들어야 하므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됨
- 웨이트 트레이닝은 청구인의 체중을 훨씬 웃도는 중량으로 훈련을 하고 바벨을 위로 당기는 동작으로 목 부위에 부담 가중

- 대련 과정에서 지속적인 유도 기술을 시도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든 상태로 상대 선수의 도복을 팔을 뻗어서 잡는 부적절한 자세, 메치기나 업어치기의 경우 순간적으로 목을 기울이고 상대 선수의 팔을 목과 어깨 사이에 걸친 후 앞으로 넘겨야 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됨

〈 청구인이 생각하는 상병의 발병 원인 〉

- 훈련 대련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
- 실업팀 유도선수들은 경기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봉삭감, 계약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 따라서 유도 선수로서 생활하는 도중에도 항상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며 훈련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 부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으면서 훈련에 임함

라. 청구인의 ○○병원 진료 기록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7. 27.

- C.C) Post. neck pain c both periscapular pain
- 최근 삐끗하면서 더 심해진다.

□ 2020. 8. 7.

- 뒷목 뻐근함 약간, 통증은 없었다.

마. 청구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 되는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9. 22. ○○마취통증의학과의원, 경추통, 경부, 1회
- 2018. 11.27.~11. 28. ○○한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 5. 26.~5. 27. ○○한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바. 청구인의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재해

- 재해일: 2022. 12. 10.
- 재해 발생 형태: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우측 어깨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 요양 기간: 2022. 12. 10.~2023. 1. 9.(통원 31일)

사. 청구인은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몸무게 53kg, 오른손잡이고, 스포츠 손상 이력 및 교통사고 이력 없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요양급여 소견서, 2023. 2. 3. 〉

- 상병 명: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경추의 염좌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0. 7. 27.
- 본원에 최초 도착 일시: 2020. 7. 27.
- 재해 경위: 최근 삐끗하면서 증상 심해짐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경추 통증 호소함
- 소견: 상기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과 MRI 검사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2020. 7. 28. 경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함
- 수술 여부: 있음
 - 2020. 7. 28.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MRI와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경추의 염좌’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진단일까지 약 5년 2개월 정도 실업팀 유도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의 훈련 특성상 순회 훈련을 진행하면서 목 부위에 하중이 가해지는 훈련과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목에 힘을 준 상태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는 훈련내용 등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노출 기간 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 강도·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행했던 업무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신체 부담작업이 관찰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는 직력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고 지속해서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다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련 훈련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실업팀 유도선수로서의 수행 기간은 약 5년 2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직업 특성상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반복되는 작업 동작 수행으로 목 부위 신체 부담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 강도·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 신체 부담작업은 높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2023-317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3.)

사건의 쟁점

약 11개월 동안 수행한 배관공 업무로 인하여 우측 극상근증후군 등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일용직의 특성상 4대 보험 신고 등이 누락 되는 일이 잦아 직업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객관적인 직업력은 건설 배관공 약 11개월, 택시 운전 5년 1개월, 현장관리 1년 5개월로 신체 부담 요인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병증’은 인지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부담이 높지 않고 이전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어깨 부위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 질환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17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5.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2. 10. 5. 진단받은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병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3. 5. 11.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8.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건설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배관 설치 등의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과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은 있으나, 배관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관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극상근)증후군과 충돌(격)증후군 소견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견쇄관절 병증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건설 배관공 약 11개월(2015년~2021. 12. 29.), 택시 운전 5년 1개월(2011년~2020년), 현장관리 1년 5개월(1999년~2000년)로 신체 부담 요인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우측 어깨 부위의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직장을 그만둔 후 2003년 ○○에서 ○○○라는 상호로 인력 파견 사업을 한

후 2004년도에 그만두었고, 그동안 익힌 기술로 2005년부터 2010까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당시 현장 일용직은 일당을 당일 현금으로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 4월부터 각종 설비 설치시공, 배관 보온, 내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및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계장치공사
- 입사일: 2021. 11. 7.
- 직종(담당업무): 배관공(배관 설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분)

2. 과거 근무이력

- 1999. 9. 1.~2001. 2. 28. / (주)○○ / 현장관리 / 4대보험
- 2011. 8. 22.~2012. 10. 23. / ○○운수(자) / 택시 운전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3. 12. 1.~2014. 3. 11. / ○○택시 / 택시 운전 / 4대보험
- 2015. 5. 11.~2015. 6. 30. / ○○신사옥 건립공사 / 배관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1. 1.~2016. 12. 6. / ○○택시주식회사/ 택시 운전 / 4대보험
- 2017. 9. 1.~2020. 6. 13. / ○○운수(자) / 택시 운전 / 4대보험
- 2020. 1. 1.~2020. 12. 31. / ○○○○ / 배관공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명세서
- 2021. 1. 1.~2021. 12. 31. / ○○○ 외 / 배관공 / 소득금액증명
- 2021. 11. 7.~2021. 12. 29.(13일) / ○○○○(주) / 배관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청구인 기타 직력(청구인 주장): 2003년도부터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택시 운전수로 일했을 때도 일이 없는 날에는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였음

- 2003~2005년: 철 구조물(h빔) 설치 업무수행
- 2004~2008년: 초등학교, 체육관, 대학교 신축 건설 현장에서 외벽 설치 업무수행
- 2009~2011년: 보온공 업무수행

다. 청구인의 업무 및 신체 부담작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재 운반 (1일 2시간)

- 작업내용: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공구를 작업구역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취급 자재를 1~4인이 함께 내려서 작업 위치로 운반
 - 배관, 각관 2인 1조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며, 앵글, 플렌지 양손으로 들고 1인 운반
 - 대부분의 취급 자재는 크레인, 지게차, 체인블록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인력 취급 가능한 자재만 인력으로 운반

- 취급 중량(1일 평균 배관 8개, 각관 10개, 앵글 10개, 플렌지 25개, T/L보 40개 작업)
 - 배관 (200~300mm*6m) 50~250kg
 - 각관 (50*50mm*6m) 10~30kg
 - 앵글 (30*30mm*6m) 10~30kg
 - 플렌지 5~10kg
 - T/L보 5kg
- 취급 횟수: 자재별 운반 1회
- 인력 운반 거리: 수평 1m 이상(중량물 인력 운반 가중비율 130% 대상)
- 총 취급 중량: 1,543.8kg(인력 운반 가중치)

2. 가공 (1일 3시간)

- 작업내용: 배관 설치를 위해 자재를 가공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선 자세 또는 바닥에 쏘그린 자세에서 핸드그라인더(배관), 컷팅기(각관)를 사용하여 규격에 맞게 절단
 - 작업대에 서서 허리 구부린 자세로 절단한 부위를 핸드그라인더로 절단면 사상
 - 용접공이 용접한 부위를 핸드그라인더로 용접면 사상
- 취급 중량 및 횟수
 - 1일 평균 작업량: 1일 평균 3시간 수행
 - 취급 중량(단위 중량): 핸드그라인더 2kg
 - 취급 횟수: 다빈도 작업으로 취급 횟수 산정 불가

3. 배관 설치 (1일 3시간)

- 작업내용: 배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배관, 각관 등의 자재를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작업 위치에 위치시키기
 - 체인블록으로 자재 운반 시 양손을 사용하여 강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기 수행

- 상단부 설치 시 선 자세에서 드릴로 천공 작업하여 구멍을 뚫은 후 볼트 체결
- 바닥, 벽면 설치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드릴로 천공 작업하여 구멍을 뚫은 후 볼트 체결
- 작업공간이 협소할 경우 엎드린 자세 또는 누운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수행
- 좌측 손으로 정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타격하여 앙가 볼트 체결

○ 취급 중량 및 횟수

- 1일 평균 작업량: 5~10곳 작업(1곳 작업 시 체인블록 3~5회 취급)
- 취급 중량(단위 중량): 체인블록 20~30kg
- 취급 횟수: 5~10회
- 인력 운반 거리: 수평 1m 이상(중량물 인력 운반 가중비율 130% 대상)
- 총 취급 중량: 487.5kg(인력 운반 가중치)
- 기타: 임팩 4kg, 핸드드릴 2kg, 파이프렌치 8kg

라. 청구인의 신청 상병 관련 의무기록 등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 주요 내용

○ 2022. 10. 5. 외래진료기록부(○○정형외과의원)

- C/C: Rt sh pain
- 움직이거나 돌릴 때 통증 악화
- vas: 3~4
- 저림 증상(+)
- 당분간 med는 stop 원함

2. 건강보험 진료기록: 특이사항 없음(어깨 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않음)

3. 과거 산재이력

○ 2007. 9. 16.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07. 9. 18.~2007. 12. 15.
- 2021. 12. 29.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우측 제4,5,6,7번 늑골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21. 12. 29.~2023. 2. 15.
- 4. 보험가입자 의견: 2022. 10. 5. 재해 불인정(2021. 12. 29. 재해는 인정)
- 5. 기타 신체조건 등: 171cm, 80kg, 우세손 오른손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정형외과의원, 2022. 10. 17.〉

- 신청 상병명: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병증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2. 10. 5. (본원)
- 종합소견
 1. Newly noted SSP tendon posterior portion intrasubstance or articular side partial thickness tear with no interval change of superimposed tendinosis
 2. Somewhat indistinct anterosuperior to posterosuperior glenoid labral tear → Probably interval healed state
 3. GH and AC joint arthrosis, no interval change
 4. Disappeared SASD bursitis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제출된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바,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 어깨의 총격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병증'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청구인의 신체 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건설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배관 설치 등의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과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은 있으나, 배관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자문의사 1: 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극상근)증후군과 총돌(격)증후군 소견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견쇄관절병증은 개인 질환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건설배관공 약 11개월(2015년~2021. 12. 29.), 택시 운전 5년 1개월(2011년~2020년), 현장관리 1년 5개월(1999년~2000년)로 상병 부위 신체 부담요인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우측 어깨 부위의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4대 보험 신고 등이 누락 되는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처분 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고,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병증’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신체 부담 요인과 관련하여 건설 배관공 업무 내용에서 어깨 부담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부담이 높지 않고, 택시 운전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어깨 부위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2023-3870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2. 13.)

사건의 쟁점

형틀 목공 업무 수행으로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관 부분 파열 등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틀목공 일을 30년 이상 하였으며 객관적인 직업력의 누락이 생긴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고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근로일수가 누락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지속해서 무릎 부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을 개인 질환이 아닌 업무상 질병이므로 인정하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객관적인 직업력은 약 6년 11개월로 최근 6년 중 근무 일수가 83일에 불과하며 업무 내용에서 반복적인 슬관절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의 신체 부담 요인이 있으나 내반슬 등의 개인적인 발병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업무수행 시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종사 기간의 연속성과 발병 시점, 진행 경과, 상병 상태, 신체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87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8.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1. 28.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부 대퇴 내과 관절면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부 대퇴 내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관절염 무릎관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23. 8. 30.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청구인은 1990년부터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 11개월이고, 그중 2016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대장암 투병으로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 5월 복귀하여 진단일인 2022년 2월까지 83일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의 업무 내용상 반복적인 슬관절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 부담 요인은 있으나, 최근 6년 중(2016~2022년) 근무한 일수가 83일에 불과하여, 체질량지수·내반슬 등의 개인적인 발병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과거 다년간 수행한 직업적 신체 부담 요인과 현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는 것이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소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업무부담 내역은 확인이 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짧은 점, 최근 6년간 업무수행을 거의 하지 않아 업무상 공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3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이전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소득금액증명의 누락은 청구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태만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가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 내역’을 참조하면 1987. 7. 27.부터 1988. 5. 2.까지 △△정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약 17년간 형틀 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대장암 투병 이후 복귀하여 83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에도 건설업 특성상 근로일수가 신고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장암 투병 이후 근무 기간도 83일보다는 길다고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 요양 기간인 1년 6개월과 대장암 요양 기간인 1년 7개월 동안 업무 단절이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해당 기간에 슬관절 부위의 개인 질환이 발병·악화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산재 요양과 대장암 요양으로 업무 단절이 있기 전에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6년과 2017년에 무릎 부위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7. 4. 25.과 같은 해 5. 2. 동천동강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진료한 이력이 존재하는바, 산재 요양 1년 6개월과 대장암 요양 기간 1년 7개월의 업무 단절 이전부터 있었던 상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

다.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형틀목공으로 경력 5년 이상이면 무릎 부위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특별진찰 기관에서 확인된 형틀목공 경력 ‘6년 11개월’로 추정의 원칙에 부합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업무 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한 원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정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재해조사서, 업무상 질병 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는 “약 30년 동안 형틀 목수로 근무하다가 2022. 11. 28.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53세, 키 175cm, 체중 9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와 직력 등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건설 일팔
- 사업 종류: 건축건설공사

2)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 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 기간 (재해일 기준): 2022. 11. 20.~11. 28.
- 담당 업무: 형틀 목공
- 근로 형태: 일용직으로 고정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 근무(07:00~16: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3) 직업력 (약 6년 11월)

- 1998. 10. 27.~1999. 4. 19. (약 7개월) ○○건설(주), 4대보험
- 1999. 9. 2.~1999. 9. 30. (약 1개월) △△건설(주), 4대보험,
- 2006. 1. 1.~2021. 12. 31. (110일, 약 6개월) 일용 다수, 소득금액증명
- 2004. 12. 7.~2022. 6. 30. (1,159일, 약 5년 9개월) 일용 다수, 4대보험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과거 2건의 산재 이력 있음
1) 2013-05-07(요양 : 2013-06-11~2013-10-31) - 허리/불승인

- 2) 2016-08-30(요양 : 2016-08-30~2016-11-30) - 사고성/손목, 손/승인
- 청구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1,159일로 1년 200일로 환산하여 계산 시 약 5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실제 근무한 근무 개월 수는 71개월로 5년 11개월이 확인됨
 - 청구인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는 직력 보다 소득금액증명서 상 확인되는 직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대한 중복을 제외하여 직력을 산정하였음 (중복을 제외한 소득금액증명서 상 확인되는 직력은 2006년부터 2021년도까지 약 110일(6개월 10일)로 추정됨)
 - 청구인은 직력 외 공백 기간(2016년 9월~2021년 4월)에는 대장암 투병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청구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투병 후 2021년 05월 복귀하여 재해일 전까지 83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1990년도부터 형틀목공 일을 시작하였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1999년~2004년에도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주로 주택, 상가, 사무실, 아파트 등의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다.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청구인의 작업내용과 신체 부담업무 내용 등으로 재해 조사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 부담업무 내용

〈 ① 자재 운반 작업 〉

- 작업 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팔을 굴곡하여 자재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3.5시간(50%)
- 취급 물품 및 중량
 - 취급 물품: 유로폼(600*1200, 약 19kg), 서포트(V2~V6, 약 12~19kg), 합판(약 8~12kg), 각재(약 3~8kg), 공구(망치, 신우 등) 등
 - 작업량: 1일 유로폼 약 35~40장, 서포트 15~20개, 합판 약 20~25장, 각재 약 10~15개 운반

- 총 취급 중량: 약 1,248kg

〈 ② 상부 자재 설치 및 해체 작업 〉

- 작업 방법: 서 있거나 우마 또는 족장을 오르내리는 자세를 반복하여 양손에 공구를 들고 양팔을 위나 앞으로 뻗어 유로폼, 서포트 등을 설치하고 해체한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21%)
- 취급 물품 및 중량
 - 취급 물품: 유로폼(600*1200, 약 19kg), 서포트(V2~V6, 약 12~19kg), 합판(약 8~12kg), 각재(약 3~8kg), 공구(망치, 신우 등) 등
 - 작업량: 1일 작업시간 동안 상부의 유로폼 약 14~16장, 서포트 6~8개, 합판 약 8~10장, 각재 약 4~6개 설치하거나 해체함
- 총 취급 중량: 약 505kg

〈 ③ 하부자재 설치 및 해체 작업 〉

- 작업 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거나 끄고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양손에 공구를 들고 유로폼, 서포트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한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29%)
- 취급 물품 및 중량
 - 취급 물품: 유로폼(600*1200, 약 19kg), 서포트(V2~V6, 약 12~19kg), 합판(약 8~12kg), 각재(약 3~8kg), 공구(망치, 신우 등) 등
 - 작업량: 1일 작업시간 동안 하부 또는 바닥 면에서 유로폼 약 21~24장, 서포트 9~12개, 합판 약 12~15장, 각재 약 6~9개 설치하거나 해체함
- 총 취급 중량: 약 733kg

2) 기타 참고내용

- 조사내용 중 '작업시간(1일 X 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라. 청구인의 신청 상병 관련한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RI 촬영 REPORT, ○○병원 〉

○ 2022. 11. 28. MRI knee (LT)

1. Chondral defect, medial femoral condyle.

: Combined with bone marrow edema.

2. R/O Meniscal tesr, posterior horn of the MM.

3. Synovial enhancement with joint effusion and surrouding soft tissue edema.

: Arthritis, such as inflammatory.

○ 2022. 12. 21. MRI knee (RT)

- Horizontal tear at posterior horn of MM

- Partial tear of lateral collateal ligament

- Focal chondral defects of medial femoral condyle and lateral tibial plateau

- Normal SI with preserved continuity of ACL and PCL

- joint effusion

〈 수술기록지, ○○병원 〉

○ 2022. 12. 9.

- Preoperative diagnosis: (좌측) 상세 불명의 관절염_무릎관절, 기타 명시된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 Name of Operation: A/S menisectomy, HTO: 좌 슬

- Findings: 좌 슬 대퇴 내과 연골 결손(HKA 5도 이상), 내측연골판 파열 -> 근위 경골 절골술, 관절경하 연골판 절제술

○ 2022. 12. 27.

- Preoperative diagnosis: (양측) 기타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 상세 불명의 관절염_무릎관절, 기타 명시된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구토를 동반한 구역

- Name of Operation: A/S menisectomy 우 슬
- Findings: 우 슬 내측 연골판 부분 파열, 대퇴 내과 관절면 연골 손상 -> 관절경 연골판 부분 절제술, 연골 연마술

〈 다학제 회의(영상의학과) 회신 내용, 근로복지공단 ○○병원 〉

- 본원 촬영 영상 판독 소견
- 검사일 : 2023. 7. 25.
- Both Knee AP and Lateral(standing) view:
- finding
Osteoarthritis, right knee joint.
Kellgren and Lawrence grade II.
Plate and screw fixation state for left highl tibial osteotomy(HTO).
rec:clinical correlation.

마. 청구인의 재해일 전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 7. 28. (1회)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상세 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 4. 25.~2022. 10. 14. (6회) △△병원 / 무릎뼈의 연골연화, 관절통, 아래 다리

바.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과거 산업재해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사고 - 불승인

- 재해 일자: 2013. 5. 7.
- 2013. 8. 9. 접수, 2013. 10. 4. 처리
- 상병 명: 요천추 관절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 재해경위: 직업이 건설 반장이었기에 작업을 하다 보면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자재 출입구에서 추락

2) 업무상 사고 - 승인

- 재해 일자: 2016. 8. 30.
- 2016. 9. 8. 접수, 2016. 9. 13. 처리
- 상병 명: ① 파열, 제2~5번째 표재 수지 굴근 및 심부 수지 굴근, 수근관절, 좌측, ② 파열, 척골신경, 수근관절, 좌측, ③ 파열 청중 신경 수근관절 좌측, ④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상지 좌측
- 재해 경위: 상기 환자는 2016. 8. 30. 일요일 오후 5시경 1층 바닥에서 각목(나무)을 절단하다가 사고 발생함
- 요양 기간: 2016. 8. 30.~2021. 1. 14. 입원 46일, 통원 505일, 총 551일
- 장애등급: 조정 5급
 - 팔(손): 준용 6급 -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손가락과 팔)
원팔(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원팔(손가락)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신경/정신: 9급 15호
좌측 상지 CRPS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병원, 2023. 1. 25. 》

- 재해 후 최초진료 개시: 2022. 11. 28. 본원
- 종합소견
 -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상기 진단, 2022. 12. 9. 좌측 슬관절부 근위 경골 절골술, 관절경하 연골판 절제술 시행, 2022. 12. 27. 우측 슬관절부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 연골 연마술 시행 후 보존적 가로 중입니다.

○ 상병 명과 상병코드

- M2331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부분파열
- M2331 우측 슬관절부 대퇴 내과 관절면 연골 손상
- M2331 좌측 슬관절부 대퇴 내과 연골 결손
- M2331 좌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
- M1396 좌측 관절염 무릎관절

○ 입원

예상 기간: 2022. 11. 28.~11. 30.

사유: 수상 부위 정밀검사 후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시행

○ 통원

예상 기간: 2022. 12. 1.~12. 7. / 2023. 1. 26.~2. 28.

사유: 수상 부위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등의 보존적 가료 시행 / 수상 부위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2023. 7.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업적 요인

- 청구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25년간 재직했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998년에 상용 7개월 11일 및 2004년부터 재해일인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용상 일용노동 일수 1,159일,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직력 등 '형틀목공' 직종의 합산 근무 기간은 6년 11개월이 확인됨 (실 근로 월수를 고려함)
- 청구인은 2016년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5년간 투병하여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의 기간에는 근무하지 못했다고 진술함(2021년 5월 복귀한 이후 직력은 일용 83일로 확인됨)
- (이하 '2. 신체 부담 요인조사 결과' 부분 생략)

○ 개인적 요인

- 청구인의 재해 일자 이전 요양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6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해당 신체 부위 관련된 여러 차례 요양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함

○ 기타 관련 요인

- 청구인의 키, 몸무게, 비만도는 각각 175cm, 95kg, 31kg/m²임

○ 종합소견

- 1)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2) 형틀 목수는 무릎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체 부담 요인조사 결과, 유로폼, 파이프 등이 자재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장에서 거푸집 제작 작업 시에는 바닥에서 작업 하여 슬관절 굴곡 자세가 있고, 거푸집 설치 작업 과정에서도 하단부 작업 시 슬관절 굴곡 등의 부담 자세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조사됨. 직업력 및 신체 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청구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그러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 6년 11개월임에 반해 대장암 투병으로 인하여 최근 6년 중(2016~2022년) 근무한 일수가 83일에 불과하여, 체질량지수, 내반슬 등의 개인적인 발병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과거 다년간 수행한 직업적 신체 부담 요인과 현 재해와의 인과 관계성은 낮다고 판단됨

○ 업무 관련성 평가: 낮음

다. 2023. 8.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 판정 제○○○호 업무상질병판정서 》

○ 제출된 영상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은 1990년부터 형틀목공 일을 시작하여 30년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 11개월이고, 그중 2016년 9월~2021년 4월에는 청구인의 대장암 투병으로 근무하지 못하였고, 2021년 5월 복귀하여 진단일인 2022년 2월까지 83일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 됬음 청구인의 업무 내용상 반복적인 슬관절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 부담 요인은 있으나, 최근 6년 중(2016~2022년) 근무한 일수가 83일에 불과하여, 체질량지수, 내반슬 등의 개인적인 발병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과거 다년간 수행한 직업적 신체 부담 요인과 현 재해와의 인과 관계성은 낮다는 것이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소견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업무부담 내역은 확인이 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짧은 점, 최근 6년간 업무수행을 거의 하지 않아 업무상 공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부 대퇴 내과 관절면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부 대퇴 내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관절염 무릎관절’은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써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문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30년간 형틀목공으로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에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한 원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은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업무수행 시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신체 부담작업 종사 기간의 연속성과 상병의 발병 시점·진행 경과·상병 상태·신체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임상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눈 또는 귀의 질병

1. [2022-3486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10.)

사건의 쟁점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소 90dB 내외의 소음 발생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120dB에서 130dB 이상의 불규칙적이고 순간적인 소음과 충격음에 노출된 점, 휴직 후 호전하던 상병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악화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수행업무와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장기간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90dB의 고도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었고 그러한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신청 상병은 원인 미상의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발병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 혈행 장애, 내림프수종, 자가면연질환 등으로 다양하고 미상의 원인으로도 발병하는 질환이지만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소음 노출 등으로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48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1. 12. 28.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재해근로자는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

로서 2021. 5. 24. 진단받은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20. 원처분 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재해근로자가 2022. 3. 18. 사망하자 배우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해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12. 28.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6. 2.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1)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재해근로자는 14년 2개월간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85dB 이상(최대 96dB 정도)인 고도의 소음 노출이 빈번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3) 그러나, 신청 상병은 그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병하는 질병에 해당한다.

4) 또한, 재해근로자에게 노출된 소음 수준 및 스트레스의 강도가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은 감염·혈관장애·내림프수종·외상성·선천성·자가면역질환·신경계 질환·종양·이독성·대사성 등 다양하고 원인 미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급작스러운 소음 노출에 의해서도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평소 소음에 계속하여 노출 되다가 순간적인 소음 강도의 증가나 소음 노출 하의 체위 변화에 의해서도 돌발적인 청력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나. 또한, 유사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신청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기각하지 않고, 소음 노출수준 및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 승인사례를 보더라도 순간적 소음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상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용접 작업은 98.6dB로 측정되었고,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 사상 작업의 소음 수준은 112dB이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라. 또한, 재해근로자가 근무했던 36 Bay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2022. 6. 7.부터 사흘간 다시 측정하였음에도 순간적인 최고 소음 수준은 137.5dB, 139.7dB, 142.4dB로 측정되었던바, 실제 작업 현장에서 불규칙적으로 노출된 순간 최고 소음은 측정치보다 훨씬 상회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재해근로자는 2021. 5. 24.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 휴직하여 치료 받으며 조금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신청 상병에 대해 심사청구 기각 결정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야 했던바, 복귀 후 다시 소음에 노출되어 증상이 악화하였다.

바.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장 업무를 수행한 이후, 작업인력의 상시적 부족·용접 결함에 대한 검수 책임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사. 결국 고도의 소음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평소 90dB 내외의 소음 발생 환경에서 근무한 재해근로자에게 노출된 120dB에서 130dB

이상의 불규칙적이고 순간적인 소음·충격음이 신청 상병 발병의 작업 환경적 요인으로 인정되며, 휴직 후 호전되던 신청 상병이 복귀 후 다시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의학 영상자료,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약 14년 2개월간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순간적인 불규칙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작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잦은 연장·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재해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재해근로자와 이 사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 및 재해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및 업무 내용

- 사업장명: 유한회사○○○
- 사업내용: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및 근로 형태: 선박 용접공, 고정 주간 근무
- 근무 기간: 2020. 7. 1.~2021. 5. 24. (약 11개월)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1주 6일
- ※ 2020. 7. 1.부터 항시 작업량의 미달로 연장근로 및 주휴일 근로 등 제공
-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3. 1. 1.~2020. 6. 1.(약 7년 4개월), ○○○○(주), 선박 용접
- 2007. 2. 22.~2013. 1. 1.(약 5년 11개월), ○○○○○○(주), 선박 용접

다. 재해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 및 신체 부담에 대해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업무 및 신체 부담내용

○ 재해근로자가 주장한 재해 발생 경위 등

- 재해근로자는 2007년경부터 2021년 5월까지 ○○○○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작업 현장의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하였고, 2021년 초경부터 작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음으로 기존의 소음성 난청에 스트레스성이 가중되어 돌발(특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기존 소음성 난청이 업무환경 여건의 스트레스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임
- 용접 조장 직책(약 7년)과 작업자의 직책을 겸직하였음
- 2021. 1. 1.부터 과중한 작업량으로 1일 작업량을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작업자들과 주휴일의 순번제를 시행하였으나 중간중간 예고 없이 불참하는 작업자의 발생으로 조장으로서 그 책임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예정에 없던 주휴일 근로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심신의 과로와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근로 종사한 것임.
- 재해근로자의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은 갑자기 외부에서 발생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이 아니고 비교적 짧은 기간(11개월)이지만 용접 조장으로서 정족 인원수에 미달하는 조원들과 함께 업무의 과중함을 극복하고자 하였음
- 그 과정에서 잦은 연장근로,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에도 근로를 수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항시 배정받은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그러므로 조장의 책임감에 노출되었음
- 또한, 관리자로부터 스트레스성 질책을 받는 과정에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쌓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평소 작업 시에 자주 접한 것임에도 작업장에서 재해근로자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강한 철판 소음 및 작업장 옆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소음 등에 노출되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게 되었으며 점차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임

- 작업 환경은 용접작업 중 바로 옆의 사상 작업의 높은 소음에 노출됨
 - 작업장은 스킵드위라는 롤러 돌아가는 소음, 머리 위로 철판이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크레인 굴러가는 소리, 철판 부딪히는 소리, 철 부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고소음 발생함
 - 재해근로자는 조장으로 작업인력의 상시적 부족, 용접 결함에 따른 검수 책임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됨
- 조사내용
- 재해근로자의 작업 현장은 선박 블록 건조 현장으로 주변 작업 현장의 작업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 소음 정도: 85db 이상, 연속음 비해당, 방음 장비 착용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사업장 소음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86.7~98.6 데시벨 소음도로 나타남
 - 건강보험 진료 이력 조회 결과, 신청 상병에 대한 기존의 진료내역 존재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 재해근로자가 당사에 근무한 이력은 4. 12. 기준 10개월 정도이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장 동료들과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왔으며 2021년 초반에 작업 환경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음. 업무장소, 직장 동료 변동이 없고 스트레스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었음

라.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소견은 재해근로자는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 소음성 난청에 더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 ○○병원 주치의 소견 〉

○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2021. 6. 30.)

- 2021. 6. 7. 시행한 청력 검사상 좌측 기도 청력 6분법 82db 소견 보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 고압산소 치료 진행하였고. 2021. 6. 30. 시행한 청력 검사상 좌측 6분법 68db 소견의 난청이었음. MR에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 진단서(2021. 6. 19.)

- 상기 환자 좌측 청력감소를 주 호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하 입원 후 고압산소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하였습니다. 17년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장시간 고음에 노출되어 있던 분으로 최근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음성 난청에 더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이비인후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노출된 소음 및 스트레스의 강도가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판정 제○○○○호) 일부 발췌 〉

- 제출된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재해근로자는 약 14년 2개월 동안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청력 노출이 85데시벨 이상(최대 96데시벨 정도)으로 고도의 소음 노출이 빈번히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 다수 위원은 돌발성 난청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자가면역질환, 청신경 종양, 스트레스, 고도 소음 등이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병하는 질병인 점, 재해근로자는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및 소음작업 등이 신청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에게 노출된 소음 및 스트레스의 강도가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심사기관 자문의 2명의 소견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

- 1일 전에 발생한 좌측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 내원하였으며, 2021. 6. 7.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1db · 좌측 82db로 스테로이드 경구 및 주사, 고압산소 치료받았고, 2021. 6. 30.일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68db의 청력저하 소견 보임
- 돌발성 난청은 감염 · 혈관장애 · 내림프수종 · 외상성 · 선천성 · 자가면역질환 · 신경계 질환 · 종양 · 이독성 · 대사성 등 다양하고 원인 미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생각됨

○ 자문의 2

- 재해근로자는 14년 2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종사한 자로 2021년 5월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로 진단받아 산재 요양 신청하였음
- 돌발성 청력손실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 혈행 장애 등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음 노출 등을 주장하나 이로 인한 돌발성 청력손실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원인 미상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결정서(2022 심사결정 제○○○○호) 요약 발췌 〉

-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재해근로자의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음 노출 등을 주장하나 돌발성 난청은 감염, 혈관장애, 내림프수종, 외상성, 선천성, 자가면역질환, 신경계질환, 종양, 이독성, 대사성 등 다양하고 원인 미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눈 또는 귀 질병 중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 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 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평소 90dB 내외의 소음 발생 환경에서 근무한 재해근로자에게 노출된 120dB에서 130dB 이상의 불규칙적이고 순간적인 소음·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신청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고, 휴직 후 호전되던 신청 상병이 복귀 후 다시 악화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 상병은 발병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 혈행 장애, 내림프수종, 외상성, 선천성, 자가면역질환, 신경계 질환, 종양, 이독성, 대사성 등 다양하고, 미상의 원인으로도 발병하는 질환으로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바,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2. [2023-1224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7. 11.)

사건의 쟁점

저주파 의료기기 납땜 작업등의 업무를 실내에서 수행한 것이 광시증, 색소망막염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실내에서 납땜 작업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고 눈 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통증과 눈의 통증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유전적 요인보다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증상에 해당하고 색소망막염은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작업 환경요인과 관련성이 매우 적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색소망막염은 유전성 망막질환이고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비특이적 증상이므로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임상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224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0.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2. 5. 20. 진단받은 ‘광시증, 색소망막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3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0. 20.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3. 1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1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1)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증상에 해당하고, 작업 환경 요인과 연관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며, 색소망막염은 유전적 망막질환이고,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도 신청 상병은 유전적 질환으로 업무 등 외부 요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업무수행 시 실내에서 좁은 곳을 계속 바라봐서 눈에 건조함이나 피로감은 있었을 수 있으나,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땀 작업 등의 업무 수행 시간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증상이고, ‘색소망막염’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은 납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납땀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납땀 등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 또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신청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지만, 광시증이 5년째 나아지지

않고, 시야에 수많은 점 같은 것들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고 번쩍거리며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AS 실에서 납땜 작업을 하었는데, 저주파 의료기 발판 선이 녹슨 것들이 많아 납땜 시에 연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작은 창고인 AS 실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눈이 매우 따가웠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으며, 발생하는 많은 연기를 청구인은 호흡기로 모두 흡입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시 노출된 유해인자와 신체 부담으로 목·허벅지·발바닥에 통증이 심하여 정형외과에서 진료도 많이 하였고, 퇴사 후에는 눈 부위를 잡아당기는 통증이 있었으며, ‘광시증’을 진단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해 유리체와 망막이 떨어져 상병이 발병한다고 하였는바, 신체적으로 부위는 다르지만, 목·허벅지·발바닥에 발생한 통증과 눈에 발생한 통증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신청 상병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2014년 3월 중순쯤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2016년 9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저주파 의료기기 납땜 작업과 AS 업무를 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고, 급여통장에는 ○○○○와 동○○○

이름으로 급여 입금이 되었습니다. 동○○○○는 사장 여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2월경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왔고, 다시 4월 1일에 재입사하여 2016년 9월 30일까지 4대 보험 적용되는 상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 장소 지하 1층 근무했던 AS 실공간은 사실상 AS를 할 만한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용도는 GMP 인증 시 작은 창고 공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하러 올 때는 창고 용도로 변경하고 다시 납땜 작업 및 AS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공간은 제대로 된 환기 시설도 없었고, 천장에 달린 작은 환풍기는 고장이 난 상태로 있었으며, 납땜 작업 및 AS를 하였습니다. 저주파 의료기기 본체, 복대, 발판, 경동맥 레이저 봉, 등의 AS 작업을 주로 하였고, 복대에 들어가는 열판 천결 땀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발판 AS 시 녹슨 선들이 많이 납땜하기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납땜 연기가 환기 시설들이 없어 제대로 빠져나가지도 않는 환경에서 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땜 연기가 제 눈에 노출되어 눈이 자주 따가운 상태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AS 시에는 레이저 빛 강도 확인 시 특별한 기준도 없고, 맨눈으로 확인하라고 해서 제 왼쪽 눈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굿다인의료기 근무 시 제 눈 안쪽에서 당기는 듯한 통증들이 느껴지고 눈물이 자주 흘러내려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 회사 퇴사 후에는 왼쪽 눈의 시력 저하가 많이 심해지고 어둡게 보입니다. 퇴사 후 1년 6개월 지나서 양쪽 눈에서 광시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광시증으로 사물 분별력이 떨어지고 멀리 있는 사물들은 제대로 보기 힘들고 가까운 곳 책 글씨들은 지워지는 현상으로 글 읽기 쉽지 않습니다.

나. 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43세 남성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와 직력 등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침,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소재지: 서울시 ○○구 ○○로 165 지하 (○○동)
- 고용 형태: 상용 (정규직)
- 근로 형태: 고정주간 근무

- 근무 기간
2016. 4. 1.~2016. 9. 30. (약 6개월)
2014년 3월~2016년 2월 (약 2년)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의료기기 AS 및 납땜 작업

2) 현재 및 과거 직력 (4대 보험 취득 이력 및 청구인 진술)

○ 이 사건 사업장 퇴사 전

- 1998. 7. 10.~2000. 6. 30. (약 1년 11개월)
○○산업(주) / 포장 작업 및 고급 칼자루 샌딩 작업(표면을 거칠게 하는 작업) / 고용보험
- 2003. 11. 20.~2004. 5. 19. (약 6개월)
(주)○○○ / 디지털 x-ray 관련 엔지니어로 부품구매 및 PCB에 납땜 작업 / 고용보험
- 2004. 6. 14.~8. 1. (약 1개월)
(주)○○○○○ / 카메라 모듈 FPCB 아트웍 컴퓨터 작업 / 고용보험
- 2004. 9. 1.~10. 31. (약 2개월)
○○○○코리아(주) / 반도체 검사장비 CS 엔지니어, 공정장비 이상 유무 확인 / 고용보험
- 2004. 11. 22.~2005. 2. 19. (약 3개월)
(주)○○○○ / 전자기기제품 인증 관련 전자파 측정 / 고용보험
- 2005. 10. 11.~2006. 5. 27. (약 7개월)
○○전자(주) / 학교 방송 장비 시스템 세팅 작업 및 현장 설치작업 / 고용보험
- 2005년 (3개월) ○○전자 / 셋톱박스 OEM 생산 관련 품질 업무 / 청구인 진술
- 2014년 3월~2016년 2월 (약 2년)
○○○○ / 저주파 의료기기 본체, 복대, 발판, 경동맥 레이저 봉 등 AS 작업 및 납땜 작업 / 청구인 진술
- 2016. 4. 1.~9. 30. (6개월)
○○○○ / 저주파 의료기기 본체, 복대, 발판, 경동맥 레이저 봉 등 AS 작업 및 납땜 작업 / 고용보험

○ 이 사건 사업장 퇴사 후

- 2017. 1. 2.~2. 1. (1개월)
주식회사○○○○○○ / 특수, 특장차량 경보기 AS 및 관련 제품 납땜 작업 / 고용보험

- 2017. 7. 1.~10. 1. (3개월)
(주)○○원 / 아파트 보안업무, 차량 입출 관리, 통제 / 고용보험
- 2020. 7. 2.~12. 31. (6개월)
자이○○○○(주) / 아파트 보안업무, 차량 입출 관리 / 고용보험
- 2021. 1. 1.~2022. 1. 4. (1년)
(주)○○○시스템 / 아파트 보안업무, 차량 입출 관리 / 고용보험

※ 청구인 주장 상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급여통장에 ○○○○와 동○○○○(대표자 여동생이 운영하였지만 사실상 동일 회사임) 명의로 급여 입금이 되었음. 2016년 2월 퇴사 후 4월에 재입사하여 201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다. 청구인의 업무 내용·부담 요인과 신청 상병의 발병 경위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내용 및 부담 요인
 - 저주파 의료기기 본체, 복대, 발판, 경동맥 레이저봉 등 AS 작업 및 납땜 작업
 - 복대에 들어가는 열판 연결 땜 작업
- 노출 유해 물질
 - 레이저, 납땜 연기, 신나 화학물질

라.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 보험가입자는 현재 실질적 폐업상태로 기록되어 있고, 2022. 10. 12. 원처분기관에 “자료 없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신청 상병 관련한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진기록, ○○병원, 2014. 6. 24. 〉

- 주증상:
양안 눈물 흘림 (R>L)
- 현 병력
7~8년 전 ○○대병원에서 RP 진단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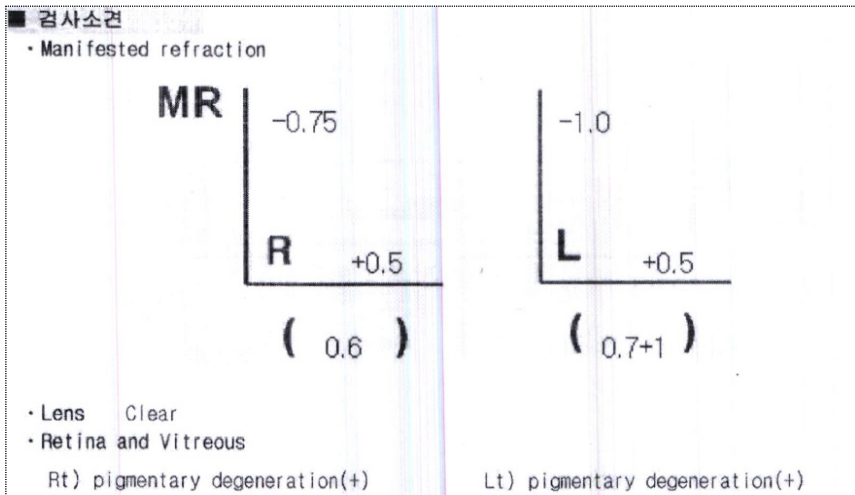
1년 반 전부터 양안 눈물 흘림 (R)L 발생함

○○안과 진료 시 R) lacrimal irrigation : no passage 소견 보여 본원 의뢰됨

〈 재진기록, ○○병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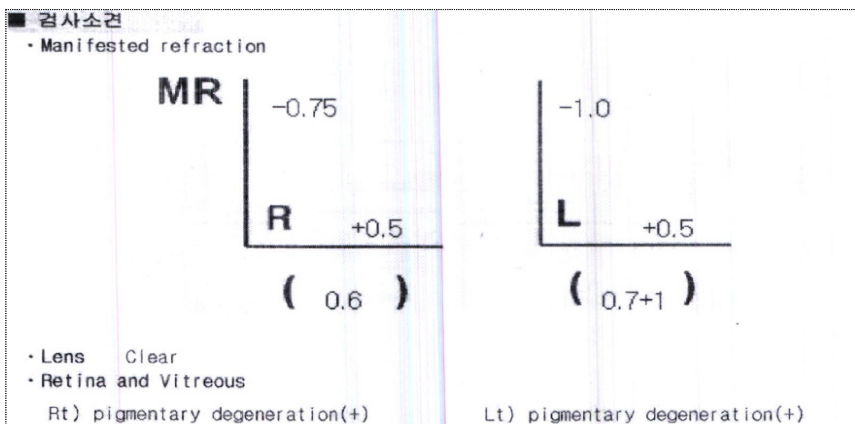
○ 2018. 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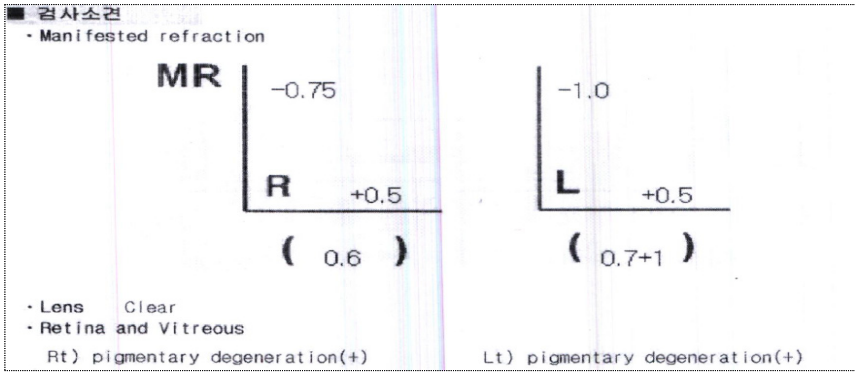
- 주증상: RP(+)



○ 2018. 4. 4.

- 주증상: 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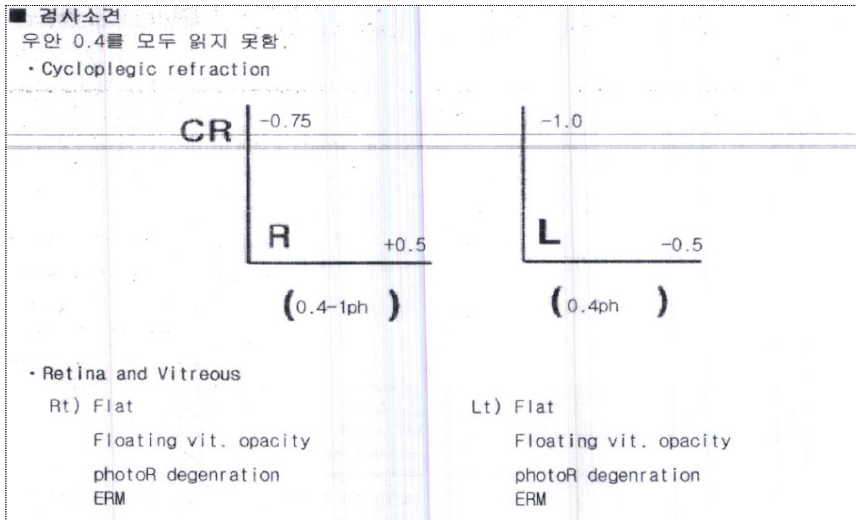
- 진단명: Eporetinal membrane
Retinitis pogmentsa

○ 2018. 5. 28.

- 주증상: 점하고 선 떠다닌다.
- 검사소견
Retina and Vitreous
Rt) Flat
Floating vit. opacity
photoR degeneration
ERM
Lt) Flat
Floating vit. opacity
photoR degeneration
ERM

○ 2022. 5. 20.

- 주증상
산재 원한다.
광시증 있다. 4년 전부터 계속 있다.
왼쪽 눈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
작업 환경에서 레이저/납땜 빛을 눈에 많이 쬔었다.
납땜하고 눈물 나오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인근 안과에서 이야기 들음



- 산재보험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설명해 드렸으나, 그래도 소견서 발급 원하셔서 있는 그대로 작성하여 드림

바. 청구인의 재해일 전 10년간 눈 부위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2018. 1. 27. ○○병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18. 4. 4. ○○병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18. 4. 4. ○○병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18. 4. 10. △△병원 H3551 색소성 망막디스트로피
- 2018. 5. 28. ○○병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19. 3. 11. ○○안과의원 H3500 망막혈관 형태의 변화
- 2019. 3. 12. ○○안과의원 H3500 망막혈관 형태의 변화
- 2021. 5. 21. ○○안과의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21. 7. 3. ○○안과의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21. 10. 18. ○○안과의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21. 12. 24. ○○안과의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 2022. 3. 15. ○○안과의원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병원 주치의는 2022. 5. 20. 자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와 같은 해 8. 23. 자 주치의 소견조회 의뢰서에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최초요양 신청 소견서, 2022. 5. 20. 〉

- 진료 개시일: 2022. 5. 20.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 작업 환경에서 레이저 빛 및 납땜 빛을 눈에 제한 없이 많이 쬔었다고 함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18. 4. 4.
증상의 내용: 양안 눈물 흘림, 광시증, 좌안 시력 저하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양안 눈물 흘림(2014년 6월 발생)
양안 광시증(2018년 4월 발생)
좌안은 시력 많이 저하되어 있으며, 어둡게 보임(2018년 2월 발생)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2022. 5. 20. 검사상 최대 교정시력 양안 0.4, 안저 검사상 색소망막염 소견 관찰됨
- 상병명과 상병코드
 - H53.8 광시증, H35.51 색소망막염

〈 주치의 소견조회 의뢰서, 2022. 8. 23. 〉

- 신청 상병과 관련한 요양 기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 입원: 미기재
 - 통원
 - 예상 기간: 2022. 5. 20. ~ 2023. 5. 19. (52주)
 - 사유: 경과 관찰 요망
 - 취업 치료 여부: ✓ 취업 치료 가능 - 향후 12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나.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을 자문한 결과는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월 광시증, 색소망막염 진단. 진단 당시 40세
-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의료기기 AS 업무를 수행함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금속제품 사상 작업 수행하였고, 이후 전자 부품회사에서 장비 보수,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함
- 재해자는 2014년 이후 의료기기 납땜 작업과 AS 업무 시 레이저에 많이 노출 되었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2014년 6월 ○○병원 안과 기록에 의하면 7~8년 전에 ○○대병원에서 색소망막염 진단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색소망막염은 유전성 망막질환임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증상임
업무요인과 관련이 없음
전문 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다. 2022. 8. 31. 원처분기관 안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확인됨. 진료계획 통원 4개월 인정되고 이후 재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2022. 10. 1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에서 신청 상병 ‘광시증’, ‘색소망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증상에 해당하며 작업 환경 요인과 연관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점, 색소망막염은 유전성 망막질환이며 청구인의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은 유전적 질환으로 업무 등 외부 요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실내에서 좁은 곳을 계속 바라봐 눈에 건조함이나 피로감이 있었을 수 있으나,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땜 작업 등의 업무 수행 시간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광시증’, ‘색소망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의 1 (안과)

- ‘광시증 및 색소망막염’은 확인됨
- 단, 광시증은 증상으로, 색소망막염 등의 상병에 대한 증상이며 색소망막염은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거의 없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임

2) 자문의 2 (직업환경의학과의)

- 청구인은 의료기기 AS 업무에 약 1년 1개월(청구인 주장 약 3년) 그 외 다수 컴퓨터 및 반도체 검사장비 엔지니어, 배송 관련 업무, 아파트 보안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 2022. 5. 20. ‘광시증, 색소망막염’을 진단받고 산재 요양 신청함
-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납땜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납땜 등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 또한 알려진 바 없음
-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증상이며, 색소망막염은 주로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바. 2023. 3. 13. 심사기관의 기각 결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증상이며, ‘색소망막염’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은 납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납땜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납땜 등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 또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희박한바,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사. 우리 위원회 안과 자문의들의 소견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자문의 1

○ 신청 상병이 인지되는지 여부

- 신청 상병(광시증, 색소망막염)은 주관적, 객관적 증상 및 징후와 검사로 인지됨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광시증은 망막에 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으며, 색소망막염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여겨질 수 있음. 광시증은 작업 환경 요인과 연관성이 없고, 색소망막염은 유전성 망막질환임. 청구인의 작업으로 광시증과 색소망막염이 올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2) 자문의 2

- 광범위한 망막의 변성이 관찰되며, 시야 위축이 약 10도 정도로 관찰됨. 유전성 망막 질환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진단이 망막색소상피인지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업무환경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의학적 근거도 없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자문의 3

- 청구인은 의무기록에서 광시증이 있고, Retinitis Pigmentosa(RP, 망막색소변성증, 색소망막염)으로 진단됨

- ‘광시증’은 ‘색소망막염’ 증상의 하나이고, ‘색소망막염’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병원 2014. 6. 24. 의무기록에 ‘7~8년 전 ○○대병원에서 RP 진단받음’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업무상 요인이 ‘색소망막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눈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 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AS실에서 납땀 작업 시 발생한 유해인자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색소망막염’은 유전성 망막질환이고, ‘광시증’은 ‘색소망막염’의 비특이적 증상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임상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 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 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제4절 신경·정신 질병

» 제1항. 신경 질병

1. [2023-185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19.)

사건의 쟁점

반도체 포토 공정 중 유해물질(감광액, 현상액, 유기용제 및 기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파킨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 부문 포토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다수의 유기용제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유해 요소가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일부 위원 중 청구인에게 특이 기저 질환이나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상 유해 물질의 노출 농도가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과 유해 물질 노출 간의 의학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상병의 발병 원인 및 잠복기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근무 당시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10년과 2011년의 측정 결과에서 발암물질 및 화학적 인자 노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근무 시에도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수행 작업 중 웨이퍼 로딩, 언로딩 작업 시 화학물질 노출이 많지 않아 업무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85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3.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0. 11. 12. 진단받은 ‘파킨슨병, 다계통 위축, 중추성 현훈증, 실조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9. 2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3. 7.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2.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 로딩, 언로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1994. 4. 7.부터 2004. 3. 31.까지 약 9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지상 특이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발병 원인 및 잠복기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장기간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특이 기저질환 및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라. 그러나 다수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출된 작업 환경 측정 결과상 유해 물질의 노출 농도가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유기용제 등 유해 물질 노출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사 후부터 발병일까지 약 16년 7개월이 경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 부문 포토 공정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종사하며 감광액(포토리지스트), 현상액을 취급하며 아세톤·시클로헥산·삼수소화 비소 등의

유기용제 및 기타 화학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되었다.

나. 2020년 심한 손 떨림 증상을 자각하고 ○○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여 44세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이다.

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40세부터 44세까지 여성 중 파킨슨병으로 진료받은 자는 237명에 불과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비추어 보면 유병률은 0.012%에 불과하다.

라. 발병 전까지 관련 질환이나 신경계통 질환의 가족력이 없었고,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없었으며, 체중·몸무게 또한 표준에 해당하였다.

마. 대법원은 94누2633 판결과 2015두3857 판결에서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 물질이나 유해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 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 2011년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서 다수의 유기용제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근무하던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유기용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반도체 포토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2020. 11. 12.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 등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 실제 근무지: ○○○○(주) 기흥공장
- 근무기간: 1994. 4. 7.~1999. 8. 15. + 2000. 5. 22.~2004. 3. 31.(총 9년 2개월)
 - * 2003. 4. 4.~5. 3. 휴직(임신 관련)
- 근무 형태: 4조 3교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 5일, 주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 60분
- 담당 업무: 오퍼레이터(웨이퍼 로딩/언로딩)
 - 포토 공정 오퍼레이터 직무로, 웨이퍼가 들어간 웨이퍼 박스를 들어서 설비에 올리고 내리는(로딩/언로딩) 작업을 수행함

□ 작업환경

- 먼지·가스·증기·흙 노출 여부: 미노출
- 마스크 착용 여부: 미착용
- 환기시설 여부: 국소배기장치 없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MSDS 결과: 없음(법적 보관기관 만료 및 확인되지 않음)
 - ※ 원처분기관은 '배기장치 없음,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조사하였으나 보험가입자는 '기계식으로 전체 환기됨. 보안경 착용'이라고 답함

□ 과거 직력

- 1993. 12. 1.~13. ○○○○(주) / 반도체 부품 제조
- 2005. 11. 7.~2006. 1. 19. (주)○○○ / 전자상거래소매업
- 2014. 3. 3.~2014. 12. 31. ○○시청 / 공공근로
 - * 삼○○○(주), (주)레○○, (주)시○○○ 등 일용근로 다수 있음

□ 기타

- 신체 조건: 152cm, 43kg
- 가족력: 없음
- 산재 이력: 없음

3) 원처분기관은 유해 물질 취급내용, 특수건강검진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확인서를 송부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확인 된다.

- 업무수행 장소, 취급 물질, 작업공정 확인 가능 자료는?
 - 근무 장소는 3라인 1층, U라인 3층으로 추정함
 - 재해자는 오퍼레이터 업무로 웨이퍼 로딩/언로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근무 당시 작업공정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과거 유해 물질 취급 내역은?
 - 현재 당사 오퍼레이터 근무자는 모두 웨이퍼 로딩/언로딩 작업을 하고 있으며 화학 물질 취급 대상자가 아님(재해자 근무 당시 유해 물질 취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공정 중 유기용제 또는 유해 물질을 사용하거나 이용되는 물질은?
 - 반도체 제조 특성상 공정에서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지만, 중앙 공급 처리장치를 통해 설비에 공급되며 오퍼레이터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 작업 시 재해자가 착용한 보호장구는?
 - 보안경
- 작업수행 시 환기는 적절하게 되는지?
 - 근무 장소는 모두 기계식 환기를 이용하여 전체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확인되지 않음
- 작업 환경 측정 결과?
 - 2004년까지 근무하여 해당 기간의 자료는 법적 보관기간 만료로 현재 없음
- 2011~2020 건강검진표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의거하여 당사도 보관할 수 없음

4) 원처분기관은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 여부를 심사기관에 자문 의뢰하였고,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전문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

- 2020년 11월 파킨슨증 진단받았음. 진단 당시 45세. 진단서 등에 기재된 질병명은 파킨슨증에 해당함
- 1994년 4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약 5년 4개월, 2000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약 4년 10개월 등 총 10년 2개월 정도 반도체 제조공장 중 포토 공정에서 근무했음
- 반도체 제조 관련 포토 공정의 작업 환경과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자료가 있으므로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 파킨슨증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일부 알려진 것이 있으나 대부분 명확하지 않음
- 전문 조사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함

5)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 ○○병원 〉

○ 2020. 11. 12.

- C.C: tremor, 왼손만, 5~6MA resting, 어깨 아프다, 당긴다 1YA
- P.I
 - PHx n-c no med, 보행 시 불편, 다리가 끌린다. 1YA
 - RBD(+), constipation(-), dizziness(+) 6MA, presyncope, 빈뇨(+) night에는 없다 2시간마다 잔뇨감

○ 2020. 12. 8. H&Y UPDRS

- stage 2 = 양측성 장애이나 균형장애는 전혀 없음
- UPDRS 52점(3+9+40+0)

○ 2020. 12. 11. 치매 선별 배터리

FINDINGS : K-MMSE: 30/30, 82.8%ile, normal
 GDS: 16/30, no depression
 Barthel ADL: 20/20
 K-IADL: 0
 CGA-NPI: 1/144
 CDR: 0 (Sum of boxes: 0)
 Global Deterioration Scale: 1점

- 2021. 1. 21.
 - 고개 숙이거나 허리 숙이거나 몸 돌릴 때 어지럽다.
 - 왼손 떨리는 것 조금 호전
- 2021. 2. 9.
 - 보행 호전
 - 손 떨리는 것 잔재
- 2021. 7. 27.
 - 그동안 괜찮았다. 1~2주 전부터 말이 어눌
 - 균형잡기 힘들다.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졸립지 않다.
- 2021. 8. 20.
 - APA vs IPD
 - 혹은 다른 뇌병변의 문제? other intracranial problem?
 - 추) Perkin
- 2022. 4. 12.
 - 3월 초 증세가 많이 악화, 직장 그만 둬
 - 말도 어눌, 잠꼬대 심해짐
 - 프라펙솔 처방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지해봤다.
 - 어지럼증, 어깨 통증, 발음도 좋아지심

6)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017 | 2019 | 2021 |
|-----------------|--------|-------|--------|
| 혈압(mmHg) | 103/67 | 96/66 | 100/65 |
| 공복혈당(mg/dl) | 75 | 89 | 70 |
| LDL콜레스테롤(mg/dl) | 63 | 67 | - |
| 결과 | 정상A | 정상A | 정상B |

7) 청구인이 발병 전 최근 10년간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 이력은 없으나 어깨 병변, 손 통증으로 다수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내원일 | 의료기관 | 횟수 | 진료내용 |
|--------------------------|------------|----|------------------|
| 2013. 7. 8.~2020. 5. 16. | ○○정형외과의원 등 | 16 | 어깨 윤활낭염, 어깨 병변 등 |
| 2020. 9. 7.~11. 6. | ○○한의원 | 9 | 사지의 통증(손) |

8) 보험가입자는 “산재 인정 여부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회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사건의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9)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과 2011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화학적 인자, 발암물질 모두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2010년도 상반기) 〉

5.측 정 주 기 (해당항목 0표 및 관련항목 기재)

| | | |
|----------------------------------|------------------|-------------|
|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또는 변경여부 | | 있음 |
| 최근 2년 전공정 측정결과 | | 2회연속미만 |
|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 없음 |
|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 없음 |
| 향후 측정주기 | | 6월 |
| 향후 측정예상 일자 | | 2010년 10월 일 |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 8. 18.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처분기관은 2010년, 2011년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무하던 1994~2004년은 이보다 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임
 -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은 유해 물질이 더 많았을 것임
 - 대법원은 유해 물질과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하였음

- 오늘 제출한 '반도체 공장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복합 노출된 후 발병한 파킨슨병 사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기를 바람
- 청구인은 오늘 심리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였고,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파킨슨병과 달리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름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2022. 7. 19. ○○대학교 ○○병원) 〉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0. 11. 12.
 - 본원 최초 도착일: 2020. 11. 20.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손 떨림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20년 5월 손 떨림
- 상병 명: 파킨슨증 혹은 파킨슨병, multiple system atrophy, vertigo of central origin, ataxia
- 소견: 파킨슨증후군으로 생각되어 약물치료, 경과관찰 필요
- 치료기간
 - 입원: 2020. 12. 8.~11.(파킨슨증 감별 검사)
 - 통원: 2020. 11. 12.~2022. 12. 31.(꾸준한 약물치료 요함)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인지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유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 로딩, 언로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1994. 4. 7.부터 2004. 3. 31.까지 약 9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상 특이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발병 원인 및 잠복기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기간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기저질환 및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 위원의 의견은, 청구인의 작업 과정에서 일부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작업 환경 측정 결과상 유해 물질 노출 농도가 노출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유기용제 등 유해 물질 노출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및 퇴사 이후 발병일까지 장기간(약 16년 7개월)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킨슨병, 다계통 위축, 중추성 현훈증, 실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직업성 암에 대하여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폼알데하이드·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신청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세톤·시클로헥사논 등 유해 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무기록과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4년 퇴사 후 16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근무 당시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10·2011년 측정 결과에서 발암물질 및 화학적 인자 노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근무 당시에도 노출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화 공정과 달리 웨이퍼 로딩·언로딩 작업 시에는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많지 않아 업무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2023-1876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18.)

사건의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측 벨마비가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혼자서 아파트 2개 동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동작으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동료 근로자,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신청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 동맥경화 등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상병이며 업무상 요인으로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한 미흡한 점을 근거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87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1.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7. 20. 진단받은 ‘우측 벨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11. 1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1. 30.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3.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5. 1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 인지되나, 업무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라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상 과로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관리소장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신청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 동맥경화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이며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령의 여성으로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혼자서 아파트 2개 동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넓은 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반복 동작으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와 갈등 과정에서 폭언·모욕을 당하였고, 이러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관리자의 차별적인 대우와 부적절한 조치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감당하여야 했으며 이는 청구인의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누구의 조력도 없이 계속된 부당함을 참고 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 내지 적어도 자신의 업무 능력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청구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며, 결과적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육체적 부담에 겹쳐 발생한 심리적인 고통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데도 원처분기관이 단순히 업무상 과로 기준과 동료 근로자의 주관적인 답변만을 근거로 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및 관리소장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2020. 7. 20. ‘우측 뱀마비’를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재해일 기준 71세, 키 156cm, 몸무게 68kg, 여성으로,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근로관계 내용 및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 근무 기간: 2013. 10. 1.~2020. 7. 20.(재해일) 약 6년 10개월
- 근무 형태: 상용직, 주5일, 고정주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6:00(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중식(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구체적 업무 내용: 아파트 미화, 계단 등 청소 업무수행

□ 근무이력

| 근무 일자 | 근무 기간 | 사업장명 | 업무 내용 |
|---------------------------|----------|------------|-------|
| 2012. 6. 8.~2013. 10. 1. | 약 1년 4개월 | (주)○○관리 | 미화 청소 |
| 2011. 4. 1.~2012. 4. 1. | 약 1년 | ○○○○대표회의 | 미화 청소 |
| 2009. 10. 8.~2010. 3. 8. | 약 5개월 | ○○중학교 | 미화 청소 |
| 2008. 12. 1.~2009. 4. 1. | 약 4개월 | (주)○○○ | 미화 청소 |
| 2007. 12. 1.~2008. 12. 1. | 약 1년 | (주)○○○○○○○ | 미화 청소 |
| 2004. 4. 1.~2004. 6. 29. | 약 3개월 | ○○구청(공공근로) | 미화 청소 |
| 2000. 2. 1.~2000. 9. 1. | 약 7개월 | ○○ | 주방보조 |

다. 이 사건 재해 관련 청구인, 보험가입자, 동료 근로자의 의견에 대한 원처분 기관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 주장(재해 원인 및 발생상황, 2021년 11월)

- 동료 근로자인 김○○(이하 “동료 근로자”라 한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본인의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근무 중에 계속 괴롭히는 사건 등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하던 관리소장 역시 청구인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음
- 2020년 5월 동료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였음.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은 청구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하지도 않은 말을 반대로 하여 당시 경리 주임에게 삼자대면을 하였고, 청구인은 욕설과 고함을 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동료 근로자의 태도, 관리소장의 고압적인 태도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음
- 2020년 6월, 계속되는 불화과정을 보게 된 아파트 소장은 따로따로 근무하라 명백히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이 출근부에 서명하기 위해 가니 동료 근로자는 출근부를 들고 가버리는 등 괴롭히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해 관리소장과 관리소는 어떠한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용역업체에 연락하여 자르게 하겠다는 등 차별적, 편파적 처우가 계속됨. 실제 청구인은 소장에게 왜 자꾸 차별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듣고 질책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관리소장은

“자기 마음이다”라고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였으며, 청구인이 혼자 이를 감내하고 참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음

- 2020. 7. 16. 근무 중 얼굴 등에서 이상증세가 발현하였고, 당시에도 동료 근로자의 욕설과 괴롭힌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 인격적 비하 발언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출근 시간을 달리하여 출근에 대한 시차를 부여할 정도로 해당 갈등의 관계는 오랜 기간에 자주 발생하였음
- 해당 상병의 발현 이후 사업장의 대기 발령 등 후속 조치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은 악화하였고, 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주변 근로자들의 병원 치료 권고 등으로 인하여 상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등에 내원 하였으며, 이와 겹쳐 사업장의 해고통지, 대기 발령 조치로 인하여 근무 장소가 아닌 용역업체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기를 하는 등의 인사 관련 처우가 계속되었음
- 청구인은 아파트 현장 업무와 무단 대기 발령 및 해고 존재 등의 사실 외 평소 열악한 환경에 겹쳐 해당 상병이 발현되었고, 상당한 육체적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당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음

□ 보험가입자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2021. 11. 24.)

- 청구인이 근무하던 현장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소장포함), 경비원 4명, 미화원 2명이 근무하는 아파트이며, 청구인은 근무 당시 동료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미화원 2명이 업무상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언 등 정도를 초과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특히 동료 근무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정도를 미화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여 근무 기간 주민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한 바고 현제도 근무를 잘 하고 있음. 또한 성격이 원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 적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들과는 아주 원만하게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음
- 관리소장의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 경비 4명, 미화원 2명을 관리하면서 특정 근무자를 옹호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경우 지병 치료가 필요하면 유급 휴가를 주고 다른 근무자들이 청구인의 업무를 도와주어 공백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음
- 관리소장을 포함 대부분 근무자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4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관리하는 동안 관리소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음

- 청구인의 상병은 발병 당시 며칠 치료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크게 문제없어 보였으며 해당 상병으로 인해 업무를 못 할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평소 지병(무릎 관절) 악화로 인해 청소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본사로 현장 이동하여 재직 중 청구인과 합의하여 8월 31일 자 퇴사하였음

□ 동료 근로자(출장복명서, 2022. 9. 20.)

○ 아파트 관리소장 면담내용

- 두 분이 싸우는 이유는 모름
-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했을 당시에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받았다고 하던데 결국은 부당해고가 아니고 화해로 마무리되어 퇴직 위로금으로 정리되었음
- 청구인은 소장인 나를 해임 시키려고 동 대표나 주민 찾아다니면서 소장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다고 주민들이 얘기해 줬으나 다했지 않고 내버려 두었음
- 퇴사를 하도록 내가 사업장 측에 얘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됨. 청구인은 얼굴에 마비가 오기 전에 이미 다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일을 했음. 아프면 병원 가도록 배려해 주고 신경을 써 주었음. 회사에서 아픈 걸 알고 본사로 출근하도록 했는데 내가 퇴사 하도록 만들었다고 함
- 청구인에게 업무 때문에 나무란 적은 없음. 각자 일에 대해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절대 직원들 일하는데 입을 대지 않음. 경비직들 일하는 경비실도 안 감. 청소하는 직원 쉬는 곳도 안 감. 그냥 두고 알아서 하도록 함. 매일 아침 티타임 하는 것이 다임
- 뭐라 한 적이 있다면, 청구인이 들고양이에게 밥을 자주 줘서 민원 때문에 밥을 주지 못하도록 티타임하면서 얘기했었고 직접적으로 나무라지 않았음
-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사업장에 얘기해서 딴 곳으로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하면 조정해주는데, 집이 ○○이면서도 7년 넘게 여기로 같이 근무했음

○ 경리와의 면담

- 청구인과 동료 근로자는 평소 자주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됨
- 청소 구역은 청구인이 101동, 102동 관리하고 동료 근로자가 103동, 104동을 관리하여 분리되어 있으나, 헬스장 청소는 주 1회 하는 것이고 1시간 소요되는 건이라 같이 하도록 했었으나, 헬스장 청소하면서 자주 싸워서 소장님이 격주로 청소를 하도록 지시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했음
- 청구인은 2013년부터 일 했고 동료 근로자는 더 오래전부터 일하였으며, 언제부터 두 분의 사이가 나빠졌는지 알지 못함

- 소장은 직원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님. 나도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 불편하거나 힘들다면 이렇게 오래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것임.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들 오래 다님. 강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건강상의 문제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함
- 소장은 알아서 하도록 두시는 편이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심. 오히려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 명절 전에는 아주머니들과 저는 여자라 할 일 많다고 일찍 보내 주셨으며,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가도록 배려해주셔서 다들 오래 근속하는 편임

○ 계장과의 면담

- 청소하는 분과 경비직 분들은 일찍 출근하시고 오전 티타임에는 본인(계장)이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서 청소하시는 두 분 관계가 어떨진지는 잘 모르겠음
- 소장님께서 일을 알아서 하도록 두시는 편이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분은 아님
- 현재 7년 이상 일을 하고 있음

라. 이 사건 재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0. 7. 16. 벨마비 증상 발현
- 2020. 7. 20. 최초 벨마비 진단
- 2020. 8. 1. 인사발령

※ 인사발령

- 수신: ○○○
- 제목: 근무지 이동 발령
- 내용: 아래와 같이 현장 근무자 근무지 이동 발령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직책 | 성명 | 근무지 | |
|-----|-----|------|--------|
| | | 발령 전 | 발령 후 |
| 미회원 | ○○○ | ○○○동 | 본사 사무실 |

- 발령 일자: 2020년 8월 1일부. 끝.

- 2020. 8. 31. 퇴사(노동부 화해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 노동부 화해 조서

-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9. 1. 자로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 9. 1. 퇴직 위로금 금 2,688,680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하기로 함 (후략)
-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linical Chart(2020. 7. 20. ○○신경과의원)

- 내원 일자: 2020. 7. 20.
- C.C: 안면마비
- P.I: 7월 16일에 발생한 안면마비 증상으로 내원, 우측 안면마비 말고는 다른 증상 없음, 불안 증상 간혹

바. 건강보험 진료명세서상 최근 10년 동안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자 의견: 청구인의 해당 상병은 재직 중 동료와의 갈등이나 관리소장과의 관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임
- 흡연력: 특이사항 없음
- 음주력: 특이사항 없음
- 기존 질환 여부: 고혈압으로 다수 진료받은 이력 있음
-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특이 사항 없음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화송 소견서(2022. 2. 16. ○○신경과의원) 〉

- 진료 기간: 2020. 7. 20.~2022. 2. 16.
- 상병 명: 벨마비(우측)
- 소견: 2020. 7. 16. 발생한 벨마비로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이신 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를 보아 지속적인 약물 치료는 필요합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2022. 11. 15. “2020. 7. 20. ○○신경과에서 우측 안면신경마비 진단 하에 치료한 사실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벨마비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의 괴롭힘, 관리소장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으며, 상병 발현 이후 사업장의 대기 발령 등 후속 조치로 인해 신청 상병이 악화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수행한 근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심사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신경과 자문의

- 의무기록 및 조사 기록상 ‘벨마비’는 인정됨
- 벨마비의 의학적 정의가 원인 불명의 안면마비로 대부분 잠재된 바이러스가 주원인으로 추정됨
- 명확한 과로로 보이지 않고 질환의 특성으로 비추어 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친 영향을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직업환경의학과의 자문의

-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6년 10개월간 아파트 미화(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년 7월 ‘벨마비 우측’을 진단받고 산재 요양 신청함
- 청구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관리소장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음
- 벨마비는 바이러스 감염, 동맥경화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이며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 발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 제13호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및 관리소장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대부분 특별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주로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상병이며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제2항. 정신 질병

1. [2023-2123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13.)

사건의 쟁점

적응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상사와의 불화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사와 동료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임을 인정받았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우울감, 불안 등을 호소하는 양상으로 적응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업무환경의 악화가 있었거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업무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의 내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12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3.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재단법인○○시정연구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3. 28. 진단받은 ‘적응장애’(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2.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3. 3. 31.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6. 9.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우울감, 불안 등을 호소하는 양상으로 적응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연구직과의 갈등, 기간제 연구직 관련 원장과의 이견, 위촉 연구원 채용 절차 관련 문제, 사내 게시판과 외부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비방 게시물, ○○시 감사 후 직원 고충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 병가 전 연장근무 및 병가기간 중 대외활동 결재 반려 등의 직장 내 갈등의 소지는 있으며 고충 처리에 대한 사측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고의나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지시를 하였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환경의 악화가 있었거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4. 26. 입사한 이래 행정직군 근로자로 근무해 왔고, 사업장 내 원장과 연구직군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됨에 따라 2022. 3.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2023. 6. 7. 고용노동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정○○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원장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원처분 기관의 판정과 달리, 청구인이 원장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우위적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고용노동청의 공식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

다. 또한, 원처분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결정적 증거(청구인이 기재출한 ‘○○시정 연구원 현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인정한 증거임)를 심리에서 누락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 행위자의 괴롭힘 고의나 의도는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및 연구직들의 행위에 고의나 의도성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도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신청 상병인 적응장애는 물론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상 특수성과 직장 내 괴롭힘에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반직(행정직)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스트레스 강도와 원장 및 연구직 직원들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른 직원도 모멸감을 느끼고(전임 ○○부장), 보직 사임(△△장) 내지 퇴사를 고려(○○ 주임)할 만큼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끼치거나 업무환경을 크게 악화시킬만한 행위였다.

바. 심지어 청구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연구직 중심의 집단적 비방 등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힘의 불균형 상태가 있고, 기관장인 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대외적인 비방 행위와 업무배제·평가등급 저하·징계 등 최상위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중 우위성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사. 또한, 근무성적평가에서 S, A등급을 받고 표창을 받을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던 청구인이 원장의 변경으로 한순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C등급

직원이자 강등이란 중징계를 받을만한 직원으로 평가절하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 인지 부조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

아. 청구인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재심사에서의 산업재해 인정은 청구인에게 너무나도 절박하다. 공인들도 견디기 힘든 근거 없는 사이버 집단 비방의 상처,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인사 권력의 집행, 극단적 업무배제 등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 속에서 청구인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했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불가능한 수준의 근무 환경 악화가 있고, 신청 상병을 유발하고도 남을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되는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만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본인은 ○○시 산하공공기관(○○시정연구원)의 규정, 인사(채용, 평가, 보수) 감사 등 행정 운영 전반의 중간 관리자임
- 기관 및 업무 특성상 연구 분야 직원(약 30명)이 대부분으로 본인과 갈등이 수년째 지속중임

- 특히, 작년 12월 △△연구원 출신 기관장(원장) 부임 후 연구 분야 직원의 우대 기조(처우개선, 기간제 연구 인력 2년 계약 철폐 등) 속에서 관련 법률 및 ○○시 방침 등에 따른 본인 업무에 대한 왜곡, 인사/감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짓과 악의적인 내용이 사내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명예훼손, 인신공격 내용의 잡○○○ 게시 등 집단적, 반복적인 괴롭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원장에게 본인의 그간 업무 경과와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A4 45장 분량)를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고충과 진상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 지적이 있었음에도 미조치 중임
- 이러한 스트레스로 각종 치료(치과, 외과, 정신과)를 지속해 왔고 최근 본인 출장만 원장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등 차별적 대우까지 더해져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병가를 신청하자 신규 임명 ○○부장(연구직)은 병가기간 중 보수 규정을 개정하여 보수 일부 미지급 및 병가 취소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음. 또한, 원장 주도의 일방적 업무배제, 출장뿐 아니라 초과근무까지 원장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했음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업무상 스트레스(회사/직장 내 갈등, 괴롭힘/차별 등)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에 따라 산재를 신청함

2) 업무상 질병 판정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재단법인 ○○시정연구원
- 사업 종류: 연구 및 개발사업
- 근무 형태: 정규직
- 입사 일자: 2018. 4. 26.
- 직책/담당업무: 경영기획조정부 경영지원팀장/행정업무
- ※ 팀장 보직은 공무원 6급 상당 자격으로 기관 규정, 인사(채용, 평가, 보수), 감사 등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 관리자임
- 업무 내용: 법인 이사회 및 위원회(규정, 인사, 채용 등) 운영, 정관 및 규정·규칙 제·개정, 정규직 인사 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이력

- 현 직력: 2018. 4. 26.~진단일(2022. 3. 28.) / 약 3년 11개월
- 이전 직력 : 2000년부터 여러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일상 업무

1) 직무요구도

- 갑작스러운 상위기관의 요구자료 작성
- 각종 위원회 관련 회의자료 작성
- 업무 진행에 따른 내부 구성원 또는 상급자 보고

2) 직무 자율성

- 고유 업무수행 중 일부 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존재하나 대부분 규정·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이며, 과정 중 원장 및 구성원에게 상위기관 지침 전달 과정 중 일부 스트레스 존재

3)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보험가입자 의견 등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청구인 주장)

- 연구원 관리/감독 기관인 ○○시에서 2명의 파견 공무원(행정 6급/ 직속상관-○○ 부장, 행정 7급-구매·계약 등)과 같이 근무하였음. 그 외 같은 직렬의 일반직 하급 직원(9~8급) 5명, 계약직 직원(3명)이 같은 사무실에서 정규 연구직(박사급 14명), 비정규 연구지원인력(석사급 16명)의 연구 수행과 기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1년 12월 전임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신임원장 부임 이후 연구직 및 연구 지원인력들이 보수, 처우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을 여러 건 제기하며 그에 대한 원인으로 청구인을 지목했음(신임원장은 전후 사정에 대해 구두, 결재 문서 등을 통해 해명했음에도 연구직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동조하였음)
- 신임원장은 석사급 연구원들이 모두 기간제(총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로 근무하는 현재 규정의 2년 제한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거부하는 상급 기관인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과 갈등이 발생함
- 비정규직 채용 관련, 공식 회의(2022. 2. 21.)에서 청구인의 징계 검토

- 이런 상황 속에 원장은 기관 소통 강화 취지로 그룹웨어 내 실명, 익명 게시판 신설을 지시(2022. 2월)하였고,
- 본인의 고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정규 연구직과의 갈등, 위 상황에 따른 비정규직과의 갈등으로 사내 게시판(실명, 익명)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결재 문서 등을 근거로 게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추가적 비난 글만 계속되었음
- 불만 사항은 잡○○○이라는 외부사이트에도 지속적 게시되었는데 익명이다 보니 훨씬 강도가 심해 명예훼손, 인신공격 내용까지 작성되고 있었음
- 또한, 업무 관련 메일로 퇴근 시간 이후 연구직의 항의성 전화를 통해 강압적인 발언, 다음날 출근 후 사무실까지 찾아와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부장과 함께 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바로 이어 회의를 소집하여 퇴근 시간 이후 전화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 후 다른 업무적인 내용을 트집 잡아 더욱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함. 이에 연구직과의 갈등 요인을 관련 증빙과 함께 원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허위 주장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며 사실 확인 등 진상 조사를 요청(2022. 3. 15.)
- 진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한 원장과 단순 면담조차 해보지 못했음. 심지어 인사/보수 등 규정 개정 관련하여 ○○시가 참여하는 공식 회의에서조차 본인이 시에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연구직의 발언(2022. 5. 27.) 등
- 이에 원장에게 진상 조사를 재차 요청(2022년 7월)하였으나 예정돼 있던 ○○시 감사를 통해 결과를 받아보자는 답변을 받음
- ○○시 감독부서의 감사(2022년 10월) 후 그룹웨어 게시물 등 직원 고충에 대해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이후 ○○시 지도점검 및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어 기관 차원의 조치가 진행 (2022년 11월 말)되는 중
-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2022년 11월)에서 잡○○○ 게시물 중 본인과 관련한 일부 내용만 발췌되어 거론되기까지 이르러 시 감독부서에서는 재차 조치할 것을 공문 발송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2023년 예산 편성과 관련 ○○시 협의 중 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이 일부 삭감되자 관련 연구직이 청구인의 귀책인 듯한 발언을 하였고, 그게 사실이 아님을 관련 문서 등을 제시하며 즉시 반박했지만, 원장은 이에 동조하듯 향후 예정된 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과 위임전결 규칙상 출장은 부서장 승인사항이나, 청구인만 원장 승인을 받도록 지시함

- 감독부서 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조치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원장은 비정규직들의 2년 계약기간 폐지 관련, 법령과 시 방침, 자문 노무법인 검토사항에 따라 여러 절차와 협의가 필요함을 설명했음에도 외부 변호사와의 메일에서 채용 비리라는 청구인이 하지 않은 말을 언급하고, 원장 지시 거부,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 지칭하였음
-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느껴 보직 사임서를 제출(2022. 11. 8.)하였고,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업무를 고려하여 12월 말까지 업무 수행하겠다는 것을 표명하였으나 원장은 보직 사임 메일을 수신하고 즉시 승인 처리
- 보직 사임(2022. 11. 9.) 이후 명확한 설명 없이 팀장 보직의 고유 업무뿐 아니라 업무분장 상 기본 업무(정규직 인사)마저 원장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이 청구인의 업무를 대행하였고, 병가 개시일(2022. 12. 1.)에 앞선 업무분장 회의(2022. 11. 18.) 및 결재 문서(2022. 11. 25.)에서 본인 업무가 공란으로 표시되었고,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음
- 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 메일(2022. 11. 14.)을 통해 국내 출장 및 초과근무는 원장 결재사항이라는 방침을 전달받았으나 일부 직원들은 원장의 결재가 아닌 기존과 동일하게 부장의 결재를 받고 있었음. 업무 인계를 위해 초과근무 신청을 하였으나 원장은 이를 반려함
- 팀장 보직 사임 승인으로 복무규정 및 진단서 내용에 따라 병가 6개월을 신청하자 신임부장은 병세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문의 없이 연도별 60일 병가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60일을 나눠서 신청할 것과 연간 60일 초과 병가의 경우 규정 개정을 통해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언하였음. 이에 본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기관 자문 노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연간 60일 초과 근거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원장 승인이 가능함에도 근로복지공단 판단 필요라는 답변을 받음
- 본인 업무에 연관된 외부기관 채용 심사 요청으로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노무사 자문에 따라 반려되었음. 또한 회신 내용에 병가 중단 명령 등이 기재되어 규정을 바뀐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전 메일과 연계되었고, 이 또한 규정 규칙을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다른 연구직의 휴직 중 승인사례들과 대비되어 규정을 본인에게만 불리하게 해석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1. 규정, 인사, 이사회 관리의 업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로 연구직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규정 개정에 대한 업무수행 지시는 '연구 분야 직원의 우대 기조'가 아니라 연구원의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원장의 정당한 지시
2. 청구인이 적시한 사내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으로 게시된 모든 내용에서 청구인이 특정하여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개설된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함
3. "원장에게 ... 객관적 자료(A4 45장 분량)를 제출하여 ... 고충과 진상 조사를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구원 내부 인원에게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원장은 청구인의 주장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음
4. ○○시의 지적은 의회와 지도·감독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음
 - 하나는 2022. 10. 12.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민간 기업정보 플랫폼(잡○○○)의 내용-퇴직자 리뷰-에서 원내 직원의 갑질 때문에 연구원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다른 하나는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서에서 의회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로 연구원 직원 간 갈등 및 고충 문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 요청이 있었음

⇒ 위의 지적사항에 따라 연구원은 내부 소통 T/F를 구성하고 청구인을 T/F의 일원으로 임명하고 소통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T/F 임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팀장 직책을 사임. 청구인의 의원면직 요청에 따라 즉각 수리되었으며, 이후 팀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업무 처리 절차임
5. 병가기간 및 보수 관련 경과 내용
 - 본원은 22. 9. 15.~21.까지 주무 부서의 지도점검이 있었으며, 그 결과 10월 31일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음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병가 사용기준 개선 필요' 제목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주요 내용은 병가 일수에 대한 해석 문제였음. 본원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철저한 업무 처리의 방침을 정하고,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산재 청구인의 업무상 질병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병가 일수 조정을 요청 하였으며, 만약 보수 규정이 개정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였음. 다만,

근로자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 개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이는 산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가 아님

6. 초과근무 등의 반력과 관련된 사항

- 청구인은 진단서를 첨부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병가신청 결재와 더불어 교육훈련(1주일간의 재택근무)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11월 28~30일은 3일 연속 반차를 사용하였음

=> 산재 청구인의 의원면직에 따라 기존 담당하였던 업무가 재분장되어 별다른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근무의 사유가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정당한나 복무 관리에 해당함. 또한 출장의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부장이 병가인 상태에서 업무를 대행하던 청구인은 상급자(부원장 또는 원장)의 결재가 없이 본인의 결재로 출장을 시행하고 있었기에 원장의 결재를 받으라고 한 것은 정당한 복무 관리에 해당함. 또한 병가 시작일 다음날 대외활동을 신청하였음

=> 본원은 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병가 중 대외활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음. 이에 따라 대외활동을 반려했으며, 이는 정당한 복무 관리에 해당함

○ 2022년 ○○시정연구원 정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 총평 〉

- ○○시정연구원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경기도,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년학회 등 여러 기관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음
- 다만 개원 이후 5년 이상 지났음에도 행정 처리가 상당히 미흡하여, 운영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음
- 금번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운영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및 제규정 등의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됨

〈 지적사항 목록 중 '시정' 〉

- 이사회 회의 운영 절차 미준수, 직원 고충 해소 의무 소홀, 직원 퇴직 시 사전 확인 절차 미준수, 직원 법정 의무교육 등 미이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미수립, 대외활동 운영 부적정 및 관리 소홀,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재택근무 결과 보고

지연, 유연근무제 신청 절차 미준수

〈 시정사항 중 '직원 고충 해소 의무 소홀' 관련 〉

(1) 주요 내용

- 「〇〇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제34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그 밖의 신분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직원으로부터 고충 처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난 2022년 3월 4일 실명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내부망(자유게시판)에 경영지원팀이 연구원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게시글은 〇〇시정연구원 직원 대부분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
- 해당 건의 사항은 직원 간 불신을 초래하고 〇〇시정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마땅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직원 고충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2) 〇〇시정연구원 의견

-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원 간 불신 및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3) 조치사항

- 건의된 직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람

○ 노동부 조사 진행 중

- 「정△△(신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관련

4) 〇〇병원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초진기록지(일부 발췌), 〇〇병원, 2022. 3. 28. 〉

- 〇〇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 담당 / 2018년 4월 근무시작 / 박사 15, 석사 15명, 이외 일반직원분들. 3년 주기로 기관장의 변경 /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상황, 불만 요인들이 쌓이면서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에 힘들게 되면서 / 12월에 기관장이 새로 오셨고, 2월부터 시작된 부담감, 압박 / 공공적으로 나의 잘못으로 지적 되기도 하고 / 공개적으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표현 / 업무량이 늘기도 하고 / 잘못되었다는 평가로...이해보다는 평가, 판단 / 코로나로 인한 부담감 / 몸이 안 좋아지고

/차별의 심화 / 손발에 땀이 많이 나고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림 / 같은 층 안에 다른 직원들 마주침에 대한... / 화장실을 가는 것도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다 / 체중 변화 3~4kg 감소 / 결국 3월 말에 정리하고 휴직하려고 이야기를 했다 /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불려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 일을 조금 줄이고 난 뒤 조금은 줄었지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 Diagnosis: Adjustment Disorders

※ 진료기간: 2022. 3. 28.~2022. 12. 7.

〈 심리평가보고서, ○○병원, 2022. 4. 6. 〉

- 심리검사 결과, 환자의 상태는 적응장애로 판단되며, 불안, 우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Adjustment Disorder, With mixed anxiety and depressed mood가 시사됨)

〈 외래재진기록(일부 발췌), ○○병원, 2022. 5. 4. 〉

○ 외과 치료 종결

- 검사 결과, 나에 대한 이해
- 나의 요인, 방법이나 문제도 알겠다.
- 하지만, 회사에서의 문제... 발현의 요인이 된 것 같다.
- 직장 내 괴롭힘. 법칙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 이제, 산재와 연관된다는 것도 있고,
- 명확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대중 앞에서
- 일반직, 연구직의 두 집단 사이에서 소수인 일반직, 공개 비판의 장
-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그룹웨어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납득이 어렵다. 성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방관적 입장
- 제도적 조치나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 내가 일반직의 대표적 상황, 앞으로 이후의 후배, 동료 등에 미칠 영향

5) 기타 원처분기관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키 178cm, 몸무게 66kg의 남성으로,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 결과, 연구직 직원, 파견공무원 등의 탄원서, 원장의 연구원 현안 협의 보고, 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서, 청구인의 근무평가등급 자료’ 등 입증 자료와 ‘○○병원 소견서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고, 소견서 내용은 ‘6. 의학적 소견’에서 후술한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처리 결과 회신, 2023. 6. 7. 〉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2) 이 사건 사업장의 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지서’와 청구인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판정서’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징계사유 중 ‘업무상 사비 지출 강요 행위’와 ‘의도적 초과근로시간 불인정 행위’, ‘성차별 언행’에 대하여는 불인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 신고사항 조사 결과 통지, 2023. 8. 24. 〉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다.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3. 10. 13.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과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시 제출한 소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단서, ○○병원, 2022. 11. 10. 〉

- 상병 명: 적응장애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조건: 상기 남환, 직장 내 스트레스 관련하여 우울, 불안, 감정 조절 어려움, 무기력감, 신체 증상 등의 증상을 주소로 2022. 3. 28. 본원 외래초진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중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증상 조절 위해, 약 6개월 가량의 안정가로 및 치료유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심사 청구, 소견서, ○○병원, 2023. 7. 6. 〉

- 병명: 적응장애(F43.2)
- 소견: 상기 남환, 직장 내 스트레스 관련하여 우울, 불안, 감정조절 어려움, 무기력감, 신체 증상 등의 증상을 주소로 2022. 3. 28. 본원 외래초진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중에 있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자극 감소로 부분적 호전 경과 보였으며, 복직 이후에도 스트레스 관련 환경의 조절 및 일상으로의 회복과 적응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스트레스 환경 지속 시에는 정신과적 증상의 지속 및 심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2023. 2. 14. 자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신청 상병 ‘적응장애’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징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재단법인 ○○시정연구원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 이력은 없으며, 이전에 산재 처리한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우울감, 불안 등을 호소하는 양상으로 적응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재해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계갈등과 업무분장 및 체계상의 마찰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인이 감사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였으나 그 처리가 늦어진 점 역시 시정연구원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해 청구인의 정신적인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신청 상병과 유사한 정신과적 질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연구직과의 갈등, 기간제 연구직 관련 원장과의 이견, 위촉연구원 채용 절차 관련 문제, 사내 게시판과 외부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비방 게시물, ○○시 감사 후 직원 고충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 병가 전 연장근무 및 병가기간 중 대외활동 결재 반려 등의 직장 내 갈등의 소지는 있으며 고충 처리에 대한 사측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지시를 하였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환경의 악화가 있었거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우리 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1

- 청구인은 2022년 6월 27일 진단받은 '적응장애'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 신청하여 의무기록 심리검사결과지 등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호소하는 정신과 증상에서 '적응장애' 상병이 확인되며, 근무 중 직장내 대인관계에서 갈등 상황은 보였으나 신청 상병의 증상의 발병과 악화에 연관되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재해요인은 관찰되지 않고, 심리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개인 내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 '적응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자문의2

- 실제로, 직장 내 사건은 심각하고 객관성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다면적인성검사 MMPI-2결과는 건강염려증 척도 빼고 모든 척도 정상범위입니다.

- 사건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발병이 되는 것보다는, 정의를 화내면서 대처하고 있으며 화, 분노, 억울함이 크게 있지만, 질병이라든지 부적응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외부사건 때문에, 외부 탓이라서 문제이지만, 내가 병이 있어 증상이 변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는 치료 개입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즉 분노, 화, 억울함은 사건에 대한 반응적인 정서라는 의견입니다.
- 직장환경이 화가 나는 스트레스 사건이 있음과 질병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즉 불편함은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불가능한 수준의 근무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호소하는 정신과 증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청구인 업무환경의 어려움도 인정되나, 신청

상병 발병 원인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 내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2023-2638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13.)

사건의 쟁점

적응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사와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청구인의 징계 전력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과 무관하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사와 동료들과 충돌한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적 관련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노사 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원회 결과보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백히 존재하고 청구인이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638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12.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2.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의료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2. 22. 진단받은 ‘적응장애’(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0. 1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각각 2022. 12. 27.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6.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7. 19.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임상 심리검사 결과지와 의무 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담당 업무 성격과 근태상황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징계 처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2. 12. 27.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장 내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볼 때, 청구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간호사 태움 행위, 업무 능력 조롱, 폭언 및 명예훼손, 모욕적 언사 등을 받았음이 일부 확인되나, 청구인은 환자방치, 투약오류, 명령 불이행, 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 등 다수의 사업장 내 문제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는 등 개인적 소인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일부 있었지만, 개인적 문제 또는 취약성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병이 적응장애인 점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은 명확히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는 업무 관련성

판단 요소가 아닌 점, 청구인에 대한 징계는 확정적으로 취소되기도 한 점, 청구인의 개인적 소인이 취약하더라도 적응장애 상병 원인은 확인되는 스트레스 사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 상병 발병 원인은 확인되는 스트레스 사건이므로 징계 및 개인적 소인을 이유로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바, 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과실 여부)는 심리대상 및 업무상 질병 판단 요소가 아니며,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을 징계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청구인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상병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선임에게 직장 내 괴롭힘(태움)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왕따 당한 데에 청구인 책임도 있었는지, 청구인이 징계를 당할 만큼 문제 있는 근로자였는지는 업무 관련성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 징계 유효성 인정은 원처분기관의 권한이 아닐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화해 조서에 반하는 사실인정으로 노동위원회 화해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가입자 본인의 의사로 징계를 취소하는 화해 조서를 작성했으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바, 확정적으로 취소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원처분기관의 사실인정은 부당하다.

마. 적응장애는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 이후 그에 반응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증상을 보이는 병”으로, 진단 자체로 발병 원인이 스트레스 사건임을 전제하며, 발병 당시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건은 다수 확인되는 반면 뚜렷한 업무 외 스트레스 사건은 없었다.

바. 설령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약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취약성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상병이 발생했다면 취약성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이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과 일상적 업무 스트레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 | 1) 선임간호사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은 2019. 10월부터 2021. 9월까지 약 2년간 선배 간호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음 ○ 보험가입자는 ① 근무스케줄 강요 ② 뒷담화, ③ 인수인계 거절, ④ 고함·모욕, ⑤ 업무 능력 조롱, ⑥ 폭언·명예훼손, ⑦ 업무 전가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음 |
| | 2) 후배·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과 험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배 간호사들은 청구인을 “미지(미친년 지랄하네! 의 줄임말)”라 부르며 험담하였음 |
| |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원치 않는 배치전환(중환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9. 2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3일만인 2021. 10. 1. 자로 중환자실로 발령됐음 ○ 중환자실은 업무시간이 길고 신체적 부담이 커 병동간호와 중에도 기피 부서이고 타 부서에서 이동 시 신입과 마찬가지로 일을 새로 배워야 해서 청구인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의사에 반해 전보되었음 ○ 2021. 11. 15. 직장 내 괴롭힘 인정(직무회복 ×) ○ 2021. 12. 10. 청구인에 대한 징계 조사 시작(가해자의 신고) |
| | 4) 생리현상 관련 혐의로 징계 조사 및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은 과민성대장증후군을 겪으면서 몇 차례 속옷에 배변을 묻힌 적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에 들른 적이 있는데,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식사조차 눈치껏 해야 하는 병동 간호사의 사정을 고려하면 기숙사에 다녀온 것을 근무지 이탈로만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청구인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이석'을 사유로 징계 회부 되었고, 수치스러운 사실을 반복해 설명해야 했음 ○ 조사받는 기간 처음으로 정신과 내원 |
| | 5)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휴직 불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당한 것은 2019년부터이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괴롭힘 신고(2021. 9. 28.) 후 중환자실로 전보(2021. 10. 1.)당하고 피징계자로 조사받기 시작(2022. 2. 10.)한 후인 2022. 2. 10. |

| 구분 | 내용 |
|---|--|
| | <p>부더로, 이 무렵 청구인은 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5. 6. 정신과 의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보험가입자는 “병원급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라”라며 휴직을 불승인했음 ○ 2022. 5. 25. ○○대학교○○병원 진료 후 임상 심리검사를 예약하고 2022. 5. 27. 이러한 사실을 소명해 다시 휴직을 신청했으나,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로 거절하였음 - 종합병원 예약 후 확인증 제출했으나 보험가입자는 임상심리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거절 ○ 정신의학과를 운영하는 보험가입자는 정신과 특성상 상병을 진단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알면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청구인을 계속 중환자실에 근무시켰고, 이 무렵 청구인은 임신하였는데 계속 근무 시 자신은 물론 태아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022. 6. 4. 스스로 사직하였음 |
| <p>“업무에 내재한” 일상적 업무 스트레스</p> | <p>1) 업무 특성에서 기인한 높은 정신적 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업무는 병동 간호사로, 코로나 병동(2020. 8월부터 2021. 9월 까지)과 중환자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의 업무는 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높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며, 선후배 간에 위계질서가 강하고 “태움” 문화가 만연한 것도 이러한 업무 특성에 기인함 ○ 코로나 감염자 중 위중증 환자가 병동으로 이송됐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병동의 업무 긴장도는 중환자실만큼 높았다 할 것임 <p>2) 휴게시간 부재로 인한 장시간 연속노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동 간호사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전혀 없음 ○ 병동 간호사는 24시간 운영되는 병동스케줄에 따라 교대근무함 ○ 외래간호사는 1시부터 2시 사이 휴게시간을 갖지만 24시간 운영되는 병동 간호사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함 <p>3) 코로나 병동 근무 시 업무 과중(○○교회, ○○요양병원 집단이송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위급상황 당시 코로나병동 간호사의 업무과중은 여러차례 공문화된 주지의 사실이며, 청구인은 2020. 8월부터 2021. 9월 말까지 1년 이상 코로나병동에서 근무했음 |

| 구분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병동이 4층까지 확대된 후에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는 늘었지만, 왕따 당하는 청구인은 3층에서 단독근무하고 나머지(3~4명) 간호사는 4층에서 근무했음 ○ 단독근무로 끼니도 챙기기 어려웠고, 화장실도 쉽게 갈 수 없어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음 |
| | <p>4) 중환자실 근무 시 업무 과중(조기출근, 업무 적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환자실 근무가 처음인 청구인은 신규 간호사로 처우 되어, 일과시간에 물품을 확인하게 되면 주사, 약물 투여 등 환자 처치 시간이 밀릴 수 있어 마약, 트레이, 소독약 등 사용 물품 확인을 위해 조기 출근해야 했음 ○ 중환자실 간호사는 타 병동보다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기도분비물을 흡입하고 대소변을 치우며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임 ○ 보험가입자 중환자실의 1인당 환자 수는 4명 정도로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임 |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재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되고, 병가 휴직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했습니다.”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 직종(담당 업무): 간호사
- 근무 형태: 3교대 근무(D 07:30~15:30, E 15:30~23:00, N 22:30~다음날 07:30)
- 휴게시간: 30분

2) 근무이력

- 현 직력
 - 2016. 3. 21.~2022. 6. 4. / 이 사건 사업장 / 간호사 / 고용보험
- 이전 직력
 - 2012. 1. 13.~2012. 1. 24.(10일) / ○○병원 / 간호사 / 일용근로
 - 2010. 11. 2.~2011. 11. 24. / ◇◇병원 / 간호사 / 고용보험
 - 2009. 10. 23.~2010. 10. 29. / □□의원 / 간호사 / 고용보험

3)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일상 업무: 입원환자 간호 업무(중환자실)
- 폭언·폭력: 상급 동료 간호사의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 청구인에 대한 보복성 2차 가해행위(직장 내 괴롭힘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
- 회사와의 갈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따른 징계로 중징계(1개월 정직) 처분을 당함
- 직장 내 갈등: 동료와의 갈등에 따른 태움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기타: 직장 내 동료 간호사의 근무스케줄 강요, 태움 행위, 업무 능력 조롱, 폭언 및 명예훼손, 인계거부, 업무 방치 후 수면에 대해 인정

다. 청구인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심각도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선배·동료 간호사가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능력 조롱, 모욕적인 발언 등을 청구인에게 하여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과적 진료를 받게 됨

2) 신청 상병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청구인의 신고내용)

○ 근무 스케줄에 대한 강요

- 오프 신청과 관련하여, 선배 간호사의 위치를 이용하여 후배 간호사와 청구인에게 단독방과 개인 카톡을 통해 해당 오프 신청으로 인한 수 선생님의 근무 투입 및 선배 간호사의 일정 피해를 운운하며, 후배 간호사와 청구인에게 질책성 발언과 압박을 함

○ 태움 행위

- 탄원서 내용 중 후배들에게 뒷담화, 인수인계 거절 및 고함 등은 청구인에게 모욕적인 피해를 준 행위

○ 업무 능력 조롱

- 청구인과 당시 상황을 같이 한 직원의 카톡 대화 내용으로 보아 복약지도 관련 조롱하는 발언에 대해 떠올리며 대화하는 내용으로서 업무 능력을 조롱하는 행위로 보이며, 환자 motor 평가 관련하여 인계 중 간호기록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 되었음을 주장한바, 간호기록 업무 능력 조롱은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며 카톡 내용으로 보아 그 당시 스테이션에서 환자들이 인지할 만큼의 고함 행위는 있던 것으로 보임

○ 폭언 및 명예훼손

- 청구인과 행위자의 증거물 관련 대화 중 정신병자라는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보아 '정신병자가 쓴 일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발언은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

○ 모욕적 발언

- 녹취록 확인 결과, 근무표 관련 대화 중 청구인에게 수준을 비하하는 발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모욕적 발언을 함

○ 인계거부행위

- 청구인이 주장한 인계거부행위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간호사의 본업인 인수인계 업무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행위자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자료로 보아 인계 거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됨

○ 업무 방치하고 근무 중 수면 행위

- 행위자는 갑상선 항진증에 의해 건강상 간호사실에서 수면을 취한적이 있다고 인정한바, 수면 행위로 인한 근무 환경 악화와 근무 태만 행위가 있었다고 보임

- 위 행위들로 행위자는 2022. 2. 7.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건책(구두 건책)'처분을 받음

3) 신청 상병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행위자의 신고내용)

- 청구인의 신고 이후, 행위자가 청구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지만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 청구인의 행동강령 위반
 - 근무 중 생리현상 및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상당 시간 비운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22. 2. 16.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을 '중징계'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22. 2. 28.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림
 - 이 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보험가입자와 청구인은 정직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화해함

4) 청구인의 병가 휴직 처리

- 청구인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병가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직하게 됨
 - 2022. 5. 6. / 휴직 신청(○○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단서 첨부) / 보험가입자는 '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의사의 진단서 첨부 요구' 사유로 휴직 거절
 - 2022. 5. 25. / ○○대학교○○병원 내원 및 2022. 6. 8. 진료 예약
 - 2022. 5. 27. / 휴직 재신청(병원 진료 예약자료 첨부) / 보험가입자 휴직 거절(예약자료는 진단서가 아니라서 거절)
 - 2022. 6. 4. / 사직서 제출(개인 사정 및 건강상의 문제)
 - 2022. 7. 11. / ○○병원 진단서 수령

라. 보험가입자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자 의견서, 2022. 11. 9. 》

- 중환자실 근무 당시 상황진술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였고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건책의 징계를 하였음

- 행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하여, 보험가입자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어 행위자의 견책 징계를 취소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그 뒤 청구인은 2022. 5. 6. 병가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병원 규정상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 발행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병가신청을 다시 하도록 하였으나 2022. 6. 4. 청구인이 임신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음
- 청구인은 자진 퇴사를 한 것이고, 행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알 수 없는바,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은 근태, 투약오류, 명령 불이행, 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 등 보험가입자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과 문제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 등을 같이 제출함

마. 청구인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2022. 2.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술 문제로 상담받은 적 있었다(2019~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선배의 괴롭힘 ○ (현 병력) ex) 휴무일 연락-업무지시, 주말 피해서 off 신청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허락하에 - 단체 카톡방,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나! - 양해 구하고 사과, 다른 날로 바꾸겠다고 했다. - 친했다. 결국 원하는 대로 근무 바꾸자 했다. - 선배이니깐 - 팀장에 이어 실세 - 일단 도와주고 자고.... - 환자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주었다(그것밖에 안 되지, 자격 있어요) - 그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다. - 1년 전부터 코로나 심해져 코로나 병동 open - 환자 수 증가 다른 곳에서 인력지원 나왔다. -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단다 - 환자를 CCTV로 관찰 - 시간마다 병동 들어가고 |

바. 청구인의 검사 등 기초 확인 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검사 항목: 정신상태, 심리학적 검사 등
- 건강보험 진료 내용(재해일 이전 10년간)
 - 해당 사항 없음
- 사고 이력(산업재해 등)
 - 해당 사항 없음

사.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3. 9. 22.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의 증거자료 및 업무에 내재하는 스트레스 요인 확인 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대리인 의견서”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2. 7. 13. 》

- 초진 소견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또는 진료 개시일): 2022. 5. 25.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불안, 우울, 감정조절이 어려움, 두근거림의 신체 증상, 불면, 분노
-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2021. 9월경 신고를 했다고 함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종합심리 검사 및 정신상태 검사에서 상기 증상 확인됨

《 진단서, ○○대학교○○병원, 2022. 7. 11. 》

- 질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적응장애 / (부상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환자는 현재 상기 진단으로 외래에서 치료 중에 있음
- 환자는 현재 불안 증상이 심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입원 치료 권유하였음
-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함

나. 심리검사 결과지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병원, 2022. 6. 8. 》

- 환자의 경우 현재 내면의 분노, 원망감, 슬픔과 함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곤경에 처한 느낌이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원망감 및 편집증적 사고가 증가된 양상을 보였겠음
- 특히 우울감 및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경조증적인 모습으로 방어하고자 하고 사소한 자극이나 갈등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유발되고 피해적인 사고가 나타날 수 있겠음
-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단절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크기 때문에 곁에 의지할만한 사람이나 소속된 느낌을 갖고자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가 더 많았겠음
-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부정적인 기분에 압도될 경우 충동적인 모습 보일 수 있겠고, 이러한 충동성 때문에 성급한 결정 후 그 경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초조해지는 등, 부정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도 종종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는 2022. 11. 9. “스트레스 사건 이후 불안, 우울, 감정조절 어려움, 자극 예민성 등의 증상이 발생한 상태로 신청 상병 진단 인정 타당함, 신청 요양 기간 타당함, 이 기간 취업 치료 불가능”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 및 결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질병 판정서 》

- 진료기록지, 임상 심리검사 결과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신청 상병 “적응장애”는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정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의 징계, 휴직 불승인 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이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음
- 다수 위원은 청구인의 담당 업무 성격과 근무상황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신청 상병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마.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자문의 1 (정신건강 의학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적응장애는 타당함 ○ 업무 관련성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됨 ○ 그러나, 청구인이 업무를 방치하고 근무 중 수면 행위를 했거나, 옷 갈아 입고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의료인으로서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근태에 문제가 있었고, 술 문제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등 개인의 취약성이 다수 발견됨 ○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태움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취약성이 현 증상에 상당 관여한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정신과적 문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자문의 2 (직업환경 의학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은 35세 여성으로 의료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년 6월 퇴사한 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상병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산재 요양 신청함 ○ 직장 내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볼 때 청구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간호사 태움 행위, 업무 능력 조롱, 폭언 및 명예훼손, 모욕적 언사 등을 받았음이 일부 인정되나, 행위자의 징계(건책)가 취소되고 서로 간에 화해한 점을 볼 때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구분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면, 청구인은 환자방치, 투약오류, 명령 불이행, 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 등 다수의 사업장 내 문제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는 등 개인적 소인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일부 있었지만, 개인적 문제 또는 취약성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바.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결정서 》

-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직장 내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볼 때 청구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간호사 태움 행위, 업무 능력 조롱, 폭언 및 명예훼손, 모욕적 언사 등을 받았음이 일부 확인되나, 청구인은 환자방치, 투약오류, 명령 불이행, 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 등 다수의 사업장 내 문제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는 등 개인적 소인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일부 있었지만, 개인적 문제 또는 취약성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자문위원 1 (2023. 8.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청구인의 정신과 증상을 보면 '적응장애'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됨 ○ 두 번째로 청구인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됨을 보이나, 청구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들을 보면 근무한 직장 특히 중환자실 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 행동을 다수 일으켰음을 보이고 있는 점과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증상과 상당인과관계를 보이는 |

| 구분 | 내용 |
|--------------------------|---|
| | <p>업무상 재해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개인적 취약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임</p> <p>○ 이에 신청 상병인 '적응장애'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p> |
| 자문위원 2 (2023. 8. 31.) | <p>○ 적응장애: 적응의 곤란함 부적응상태로 볼 수 있음</p> <p>○ 심리검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다면적 인성 검사 결과는 10개 척도 모든 정상범위 내를 나타내 보였음 - (2) 결과는 억제된 분노 이자극성, 편집성 특성, R/O 인격장애 소견임 <p>○ 부적응상태는 개인적인 취약성 성격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일부 있었지만, 개인적 문제 또는 취약성에 기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임 |
| 자문위원 3 (2023. 8. 31.) | <p>○ 청구인의 기록을 검토해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22. 2. 22.부터 2022. 5. 3.까지 흔재성 불안 우울장애(F41.2), 중등도 우울장애(F32.1)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음 - ○○병원에서 2022. 5. 25.부터 2022. 7. 11.까지 적응장애 (F43.2)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2022. 6. 8. 종합 심리 검사를 받고, 2022년 ○○병원에서 7. 13. 산재요양급여보상 보험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2023. 10. 1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청구인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음 <p>○ 청구인은 2016. 3. 21. ○○○○에 입사하였고, 2019. 10월부터 2021. 9월까지 약 2년간 선배 간호사로부터 괴롭힘과 동료 간호사 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청구인은 근무 스케줄에 대한 강요, 태움 행위, 업무 능력 조롱, 폭언 및 명예훼손, 모욕적 발언, 인계 거부 행위, 업무 방치하고 근무 중 수면 행위 등을 당하면서 상당히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여겨짐</p> <p>○ 청구인은 2020. 8월부터 2021. 9월 말까지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를</p> |

| 구분 | 내용 |
|----|--|
| | <p>하는 상황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코로나 병동 근무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상당한 많은 상태였고, 2021. 9. 2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상황이었어서 청구인이 기피 부서인 중환자실로의 전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였음</p> <p>○ 청구인이 중환자실에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괴롭힘이 이어진 상태였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선배 간호사는 2021. 11. 5.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취소되었고, 선배 간호사로부터 청구인이 행동 윤리강령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22. 2. 28.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22. 5. 2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2022. 7. 21. 화해 권고를 받으면서 정직은 취소가 되었지만, 정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미지급으로 결정되었고, 본인이 질병으로 휴직하려고 하였지만, 진단서 발급과 관련되어 불승인이 나서 2022. 6. 4. 사퇴를 하였음</p> <p>○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우울, 불안, 분노, 원망, 불면, 감정조절의 어려움, 편집증 사고, 집중력 저하, 신체적 불편감, 반복되는 알코올 섭취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도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었기에 우울한 상태가 더 심해진 것으로 여기자고, 이러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근무하는 중에 발생한 2021. 11. 5.부터 2022. 2. 8. 사이에 있었던 근태, 품위유지 위반, 투약 오류, 명령 불이행, 직원 간의 상호존중 위반 등 17차례의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짐</p> <p>○ 청구인이 신청한 “적응장애” 상병은 청구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발생하였기에 업무 관련성은 있다고 여겨지고, 이러한 상병에 대해 청구인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취약성에 기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됨</p> |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상병 “적응장애” 발병 원인은 확인되는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이므로 징계 및 개인적 소인을 이유로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된 의무 기록지 및 임상 심리검사 결과지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노사 위원이 공동 작성한 직장 내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상 청구인이 직장 내에서 상당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근무 스케줄에 대한 강요, 간호사 태움 행위, 업무 능력 조롱, 폭언 및 명예훼손, 인계거부 행위, 모욕적 언사 등 행위의 내용이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기질적으로 적응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약 7년간의 임상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업무에 대한 가르침보다 인격과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여러 집단의 따돌림과 폭언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이외 청구인에 대한 중환자실 발령, 징계처분, 휴직 불승인 등 일련의 이 사건 사업장과의 갈등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에게 과실 내지는 원인제공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과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배척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재해는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개인적 문제 또는 취약성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보다는 업무상 부담 요인이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5절 림프조혈계 질병

1. [2023-125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7. 12.)

사건의 쟁점

업무수행 중 유해 물질인 흙과 벤젠에 노출된 사실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선박 품질관리 및 건조공정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유해 물질과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작업 시 현장에서 제대로 된 보호구 착용 없이 근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품질관리 업무 중 용접 흙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림프종의 발병 원인으로 불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생산관리 업무 중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으나 청구인의 업무 동선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흙에 일부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용접 흙이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업무 과정에서 림프종 원인 물질인 벤젠에 대한 노출이 높지 않으며 림프조혈계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25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8.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사한 근로자로서 2020. 11. 26. 진단받은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5. 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8. 8.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2. 2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4. 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1984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직 시까지 약 32년 4개월 근무하였고,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조선소 품질관리 업무를,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건조2부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품질관리 업무 중 용접 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용접 흠이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부족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생산관리 업무 중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유기용제의 특성과 청구인의 업무 동선, 직책, 업무 활동 빈도를 고려하면 노출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접 흠, 유기용제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림프조혈기계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조선품질경영부 및 건조2부 근무 당시 모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원처분기관은 현장직이었던 조선품질경영부 근무 기간에 용접 흠 노출만을 인정하고 현장 관리직이었던 건조 2부 근무 기간 중 유해인자 노출을 인정하지 않은바 이는 부당하다.

나. 건조공정은 선박 건조 후반부에 이루어져 일정이 촉박하였고, 이로 인해 협소한 선박 내 공간에서 취부, 용접, 사상, 도장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현장 필수 점검 시간 및 추가 근무를 포함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작업 현장에서 근무한바 노출 시간이 현장직과 유사하다고 봐야 하고, 특히, 생산관리직의 경우 홀로 다수의 현장직에게 구두로 업무지시를 해야 하여 방독 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 마스크만 착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유해인자 노출 정도 또한 크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조선품질경영부 근무 당시인 1984년부터 1999년까지는 방독 및 방진 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일체를 착용하지 않은바, 이러한 작업환경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실제 작업 현장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청구인과의 1회 면담 결과만을 토대로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적다고 판단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바. 판례에 따르면 벤젠 노출 근로자의 경우 아주 낮은 노출수준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 경위는 “1984. 2. 2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 5. 31. 퇴직한 자료, 32년 3개월간 생산관리부에서 주로 선박품질 관리 및 건조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선박 건조를 위한 용접 및 도장공이 근무하는 작업 현장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업무시간 중 비산되는 용접 흄, 페인트 도료, 유기용제 등 벤젠과 유해물질에 노출에 의한 신청 상병 발병을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제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 판정서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 근무기간 1984. 2. 27.~2016. 6. 1.(총 32년 3개월 5일 근무)
 - 1984. 2. 27.~1999. 2. 2.(약 14년 11개월) / 품질관리부 / 조선선각생산관리
 - 1999. 2. 3.~2016. 6. 1.(약 17년 4개월) / 건조2부 / 조선선각생산관리
- 직종: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 인사기록부상 직무변경 내역(발령일자/발령구분/부서/직위/직무)
 - 1984. 2. 27. / 신규입사 / 품질관리부 / 7급기사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86. 1. 21. / 직무변경 / 품질관리부 / 6급기사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86. 3. 1. / 정기승진 / 품질관리부 / 6급기사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91. 1. 1. / 정기승진 / 품질관리부 / 5급기사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94. 10. 14. / 조직변경 / 조선품질경영부 / 5급기사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95. 1. 1. / 정기승진 / 조선품질경영부 / 1급기사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95. 1. 1. / 사원유형변경 / 조선품질경영부 / 4급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97. 9. 1. / 조직변경 / 품질경영부 / 4급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98. 12. 23. / 조직변경 / 조선품질경영부 / 4급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1999. 2. 3. / 부서이동 / 건조2부 / 4급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01. 1. 1. / 정기승진 / 건조2부 / 대리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06. 1. 1. / 정기승진 / 건조2부 / 과장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06. 1. 4. / 사내파견 / 조선업무혁신부 / 과장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06. 1. 25. / 파견복귀 / 건조2부 / 과장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06. 2. 6. / 사내파견 / 조선업무혁신부 / 과장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06. 5. 4. / 파견복귀 / 건조2부 / 과장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06. 5. 4. / 직책보임 / 건조2부 / 과장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11. 1. 1. / 정기승진 / 건조2부 / 차장 / 생산관리-조선선각 생산관리
- 2014. 8. 1. / 직무변경 / 건조2부 / 차장 / 생산관리-조선 생산관리-건조 공사관리
- 2015. 7. 1. / 직무변경 / 건조2부 / 차장 / 생산관리-조선 생산관리(건조)-건조 공사관리
- 2016. 4. 25. / 직무변경 / 건조2부 / 차장 / 조선건조 생산관리
- 2016. 6. 1. / 명예승진 / 건조2부 / 부장 / 조선건조 생산관리
- 2016. 6. 1. / 직책해임 / 건조2부 / 부장 / 생산관리-조선건조 생산관리
- 2016. 6. 1. / 퇴직 / 희망퇴직 / 건조2부 / 부장 / 생산관리- 조선건조 생산관리

□ 업무 내용

○ 품질관리부(1984. 2. 27.~1999. 2. 2.(약 14년 11개월))

- 용접검사와 절단 및 용접작업 자체를 검사
- 선급이나 선주 검사 전에 실시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 선급, 선주 검사 시 동행하는 업무 병행(비파괴검사 전(90%)과 후(10%)에 실시)

○ 건조 2부 (1999. 2. 3.~2016. 6. 1.(약 17년 4개월))

- 100% 옥외작업
- 약 80%는 도크장 내에서만, 10~20% 정도 사무실 또는 선행의장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짐
- 선행도장, 운반, 탑재, 용접/절단 등의 작업 현장을 다니면서 작업이 잘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선박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데, 대개 건조 중인 6척의 선박을 모두 점검함
- 청구인은 당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용접 흠과 페인트 도료 및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선주나 선급의 요구에 의해 변경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페인트를 태우는 일이 있을 때 분진과 가스를 많이 마셨다고 진술함

다. 2020년 상반기 이 사건 사업장 건조2부와 조선품질경영1부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조2부(용접 및 취부)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 조선품질경영1부(일반검사)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 조선품질경영1부(도장검사)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라. 청구인의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 8. 3. 비뇨의학과 진료기록, ○○대학교병원

- 5일 전 음낭 종물 발견

○ 2020. 8. 11. 초음파 검사 결과지, ○○대학교병원

- ABOUT 2.9-CM sized round heterogeneous lesion with hypervascularity, occupying most of the right testis; adjacent 2.0-cm sized lobulating contoured heterogenous lesion with hypervascularity in epididymis tail

○ 2020. 8. 25. 퇴원기록지, ○○대학교병원

- 상환 r/o Rt.epididymitis, Rt.scrotal abscess 소견으로 외부병원 진료 후 본원 f/u 하는 분이며 최근 size, pain 심해져 외래 통해 입원함 ceftriaxone 2g IV anti 사용하면서 size, pain subside 되어 sono f/u 안하고 퇴원함, 1주 후 외래 f/u 예정

○ 2020. 9. 4. 외래기록지, ○○대학교병원

- 음낭 통증 약간, 열감 약간, 가슴이 약간 따끔거린다
- us, scrotal doppler 판독 : no change of perenchymal heterogeneity of right testis and significant enlargement of epididymis, without significant hypervascularity, since 2020-8-11
- R/O lymphoma involvement
- R/O TB

○ 2020. 11. 25. 입원기록지, ○○대학교병원

- 음낭불편감으로 f/u중인 분으로 수술 후 상기 증상 지속되어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Rt testicular mass 확인되어 수술을 위해 입원

○ 2020. 11. 26. ○○대학교병원 우측고환절제술 및 조직검사 결과

-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GERMINAL CENTER CELL LIKE TYPE, 4.5 x 4.5 x 2.7cm, testis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용 및 건강검진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진료내용

- 2020년
 - D294 음낭의 양성 신생물 [8월, 1회][9월, 3회]
 - N4592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고환염 [8월, 1회]
 - D401 고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월, 1회]

○ 건강검진 내역: 해당 없음

○ 가족력: 해당 없음

○ 과거 산재 이력: 해당 없음

○ 개인력 및 사회력

- 신장 174cm, 체중 84kg
- 20세부터 1/5갑씩 약 6~7년 흡연(1~2년갑)
- 주 1~2회 음주, 회당 소주 1/3병

바. 청구인 및 대리인은 2023. 7. 12.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1. 1. 21.〉

- 상병 명: 주,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C83.3)
- 재해 후 최초진료 개시: 타 의료기관(○○비뇨기과)
- 본원 최초 도착일: 2020. 8. 3.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 경위: 음낭 종물로 검사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음낭 부종 및 통증
- 종합소견: 림프종 진단
- * 수술 여부: 있음

나. 청구인의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
 - 2020년 11월 림프종(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받았음.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에 근무하면서 품질 확인, 건조공정 진행 확인 등 관리업무를 하였음. 관리업무를 하면서 도료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사업주는 청구인이 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직접 생산직에 종사하지 않아 청구인의 상병과 근무환경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업무 중 다양한 유기용제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벤젠에도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신청 상병이 림프종임을 고려할 때 벤젠 노출수준을 조사하거나 추정하여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다. 2022. 6. 21.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6월 21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게 발생한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① 2020년 11월에 우측 고환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는데,
- ② 23세 때인 1984년 2월부터 초기 14년 11개월간 대형 조선소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용접 흠에 일부 노출될 수는 있지만, 용접 흠이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부족하고,
- ③ 1999년 2월부터 17년 4개월간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당시 유기용제 노출은 거의 없어 림프종의 원인 물질인 벤젠 노출량도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4대 보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은 1984년 2월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6월 퇴직 시까지 약 32년 4개월가량 근무하였고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조선소 품질관리 업무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건조2부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구인이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용접 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용접 흠이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부족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생산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유기용제의 특성과 청구인의 업무 동선, 청구인의 직책 및 업무 활동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노출된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사 1(혈액종양내과)

- 근로자 ○○○은 악성림프종으로 치료받은 분임. 악성림프종 발생과 관련된 유해 물질은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부타디엔 등이 있음
- 근로자는 조선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 업무가 관리업무이며 작업 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조사(측정)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의 노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악성림프종의 발병이나 근무환경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자문의사 2(직업환경의학과)

- 청구인은 약 32년간 선박품질관리 및 건조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산재요양 신청함
-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품질 관리업무(약 14년 11개월 종사), 건조공정 관리 업무(약 17년 4개월 종사)로 용접상태를 검사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도장, 운반, 탑재, 용접/절단이 잘 되었는지 검사하는 업무임
-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접 흠, 유기용제에 노출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림프조혈기계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요인에 의한 림프종 발병으로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발병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바.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약 17년 이상 벤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신청 상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확인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용접 흠, 유기용제에 노출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림프조혈기계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상 요인에 의한 림프종 발병으로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호흡기계 질병의 하나로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선소 현장에서 32년간 유해 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나 유해인자 노출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작업 환경상 제대로 된 보호구 착용도 없이 일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용접 흠에 일부 노출될 수는 있지만, 용접 흠이 림프종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소견이다.

또한, 청구인이 생산관리 업무수행 중 유기용제 노출은 거의 없고 림프종의 원인 물질인 벤젠 노출량도 미미하다고 보이며, 림프조혈기계 발암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거.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제6절 간 질병

1. [2022-4369 기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26.)

사건의 쟁점

업무수행 중 유해 물질인 시클로헥사논에 노출된 사실이 간장질환으로 인한 급속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혈액팩 제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클로헥사논을 취급하였고 이 유해 물질에 장기 노출되어 간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취급한 물질에 대한 과사용이 확인되지 않고 노출 물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가 제출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클로헥사논은 불검출 수준이고 다른 화학물질도 불검출이거나 노출이 있어도 그 수준이 상당히 미미하여 시클로헥사논의 노출로 인해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36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0.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1. 11. 1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22. 5. 2.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 10.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1. 2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가. 재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 위원들이 제출된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바, 사인은 "간질환 등과 같은 내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은 취급한 물질에 대한 노출이나 과사용이 확인되지 않고, 급성, 만성 독성 등 의학적 증상도 확인이 어려워 작업 중 노출되는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혈액팩 제조 업무로 근무하였고, 시클로헥사논의 장기 노출이 간장질환을 일으켜 간장질환으로 인한 급속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2021. 11. 12 두통, 어지러움으로 ○○의원 진료 후 뇌 관련 치료할 큰 병원을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고 나오는 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내원했으나 이후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와 재해조사서 등에 적시된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조건

- 입 사 일: 2014.8.11.
- 담당 업무: 혈액팩 제조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 1일 2회, 30분

나. 입사 전 근무이력

- 4대보험 취득 이력
 - 2010.9.13.~2013.12.31. (주)○○○○ / 혈액팩 제조

다. 업무내용 관련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 종류: 사업서비스업
 - 상시 인원: 90명
 - 주 생산품: 혈액팩 제조
 - 주 원재료: 시클로헥사논
- 담당 업무: 혈액팩 제조

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근로자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내용: 전문 조사 불필요

- 2021년 11월 12일 사망했음. 사망 당시 53세.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폐부종(추정)이고, 그 원인은 이물질(출혈) 기도흡입(추정)으로 되어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인은 “간질환 등과 같은 내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임
- 2010년 9월부터 의료용 주사기 및 혈액팩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시클로헥사논 등에 노출되었음. 시클로헥사논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검사 결과에서 B형간염 보유, 간기능검사 수치 이상이 확인됨
- 인쇄공정에서 시클로헥사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볼 때 시클로헥사논은 불검출 수준이고, 다른 화학물질도 불검출이거나 노출수준이 상당히 낮음. 시클로헥사논이 만성B형간염의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부족함. 추가적인 전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라.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내역

- 1) 2017년 상반기
 - 불검출: 시클로헥사논, 인산, 초산, 산화에틸렌, 금속가공유, 혼합유기화합물
 - 검출(최고측정치): 염화수소(0.002ppm), 질산(0.0028ppm), 황산(0.0062mg/m³)
- 2) 2017년 하반기
 - 불검출: 염화수소, 질산, 초산
 - 검출한계 미만: 황산
 - 검출(최고측정치): 기타분진(0.181mg/m³), 혼합유기화합물(0)
- 3) 2018년 상반기
 - 불검출: 메틸알코올, 시클로헥사논, 염화수소, 인산, 초산, 혼합유기화합물
 - 검출한계 미만: 질산
 - 검출(최고측정치): 황산(0.002mg/m³), 금속가공유(0.0548mg/m³)

4) 2018년 하반기

- 불검출: 염화수소, 질산, 초산, 혼합유기화합물
- 검출(최고측정치): 황산(0.0039mg/m³), 기타분진(0.3114mg/m³)

5) 2019년 상반기

- 불검출: 메틸알코올, 시클로헥사논, 아크릴아미드, 초산
- 검출한계 미만: 인산
- 검출(최고측정치): 수산화나트륨(0.5665mg/m³), 염화수소(0.0158ppm), 질산(0.0012ppm), 황산(0.0046mg/m³), 금속가공유(0.126mg/m³)

6) 2019년 하반기

- 불검출: 아크릴아미드, 초산
- 검출(최고측정치): 수산화나트륨(0.393mg/m³), 염화수소(0.0274ppm), 황산(0.0082mg/m³), 금속가공유(0.0831mg/m³)

7) 2020년 상반기

- 불검출: 시클로헥사논, 에탄올아민, 이소프로필 알콜, 인산, 초산
- 검출(최고측정치): 염화수소(0.0131ppm), 질산(0.0042ppm), 황산(0.0173mg/m³), 금속가공유(0.58271mg/m³)

8) 2020년 하반기

- 불검출: 시클로헥사논, 에탄올아민, 인산, 질산, 초산, 황산
- 검출(최고측정치): 수산화나트륨(1.6204mg/m³), 염화수소(0.0194ppm), 금속가공유(0.0977mg/m³)

9) 2021년 상반기

- 불검출: 에탄올아민, 수산화나트륨, 초산
- 검출한계 미만: 인산
- 검출(최고측정치): 염화수소(0.0304ppm), 질산(0.0059ppm), 황산(0.0486mg/m³), 금속가공유(0.0284mg/m³)

10) 2021년 하반기(2021.11.26.)

- 불검출: 에탄올아민, 수산화나트륨, 염화수소, 인산, 질산, 초산, 황산
- 검출(최고측정치): 시클로헥사논(0.8211ppm), 금속가공유(0.0314mg/m³)

마. 재해근로자가 내원하여 진료받은 ○○내과 및 △△내과의원 진료 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내과(2021.5.8.)

- [검사결과] 시행사유-복부통증 및 불편감. 담석, 거친 간 실질 에코상 담낭용종 7.7MM, 지방간grade1
- 간기능검사: AST 37, ALT 37, GTP-38, 알카리포스포타아제 H, 총빌리루빈 1.0

2) △△내과의원(2021.11.12.)

-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고혈압이 있다 목안도 아프다. 오늘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 30분 전부터. 신경과 한번 보세요. 아래턱이 아프다

바. 재해근로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2013. 9. 30. 이후 고혈압 관련 수진 내역 수차례 있음’이 확인된다.

사. 재해근로자의 과거 일반건강검진 결과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7.01.20. 간장질환 정상
- 2018.01.19. 간장질환의심, 과체중, 간기능이상 의심, 절주필요
- 2019.01.22. 과체중
- 2020.01.30. 과체중, 복부비만, 고콜레스테롤형증 의심, 간기능이상 의심
- 2021.03.31. B형감염보유, 만성B형 감염 의심

6. 의학적 소견

가. 2021. 11. 12. ○○병원의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병원)

- 사망일시: 2021.11.12. 18:05
- 사망장소: ○○병원

- 직접사인: 폐부종(추정)
- 사망의 종류: 병사
- 부검감정서
 - 사인: 간질환 등과 같은 내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 형태,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연령, 신체조건, 건강 상태 등 일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해자는 2021.11.12. 두통, 어지러움으로 △△내과의원 진료 후 뇌 관련 치료할 큰 병원을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고 나오는 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했으나 이후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재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 위원들이 제출된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바, 사인은 "간질환 등과 같은 내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은 취급한 물질에 대한 노출이나 과사용이 확인되지 않고, 급성, 만성 독성 등 의학적 증상도 확인이 어려워 작업 중 노출되는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 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간 질병은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혈액팩 제조 업무로 근무하였고, 시클로헥사논의 장기 노출이 간장질환을 일으켜 간장질환으로 인한 급속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부검감정서 등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인은 ‘간질환 등과 같은 내적인 질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재해근로자는 2010년 9월부터 사망 시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혈액팩 제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혈액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직간접적으로

시클로헥사논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2017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시클로헥사논은 불검출 수준이고, 다른 화학물질도 불검출이거나 노출수준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다면, 재해근로자의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재해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8. 간 질병

-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7절 직업성 암

1. [2022-3414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8.)

사건의 쟁점

다양한 소재의 보온재를 취급하며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실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약 26년 11개월간 배관보온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완치판정 후 기존 백혈병이 아닌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을 다시 진단받은바 이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과거 백혈병의 재발로 보이고 작업 특성상 발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유해 물질의 취급 빈도 역시 낮고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접착제 사용은 거의 없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배관보온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약 15년으로 확인되고 작업 특성상 유해 물질의 누적 노출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414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7.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0. 11. 26. 진단받은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2. 8. 원처분기관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 7. 21.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2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출된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나. 청구인은 2010년 백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 이번 2020년의 진단은 2010년의 재발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또한, 작업특성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유해 물질 취급 빈도 또한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작업 현장은 신축공사 현장이 70%에서 80%라고 하였는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접착제 사용이 없어 접착제 사용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3)작업내용(청구인 주장)’란에 기술된 담당 업무 및 작업내용은 청구인과 청구대리인이 진술한 적 없는 내용과 절차, 작업 소재들이고, 작업 현장과 보온재마다 작업절차가 달라 실제 작업절차는 보온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현장 작업속도에 따라 배관 용접부위 또는 배관 전체에 방청페인트를 바르고 보온작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나. 배관보온 현장은 신축 현장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보온재가 사용되고,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무발포보온재의 경우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며, 그 외 아티론, 폴리에틸렌도 제품이나 현장에 따라 본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 2010년 진단받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당시 세포유전학적 검사가 확실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신청 상병과 동일한 성격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2019년 완치판정을 받고 10년 동안 관해유지 후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재발보다는 새로이 발병한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질병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1992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6년 11월간 배관보온공으로 일하였으며, 2010. 7. 7.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경과 확인 결과, 2019. 3. 6.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2020. 11. 26. 혈구이상으로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기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재발이 아닌 새로운 급성골수모구성(C920)을 진단받음”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 11. 26. 재해일 기준으로 59세, 신장 150cm, 54kg 여성으로 근로관계와 근무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40004) / 공사명: ○○ ○○ 신도시 Cc-03BL 주상복합 신축공사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 기간: 2020. 10. 7.~2020. 11. 24.
- 담당 업무: 배관보온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업무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업무 내용 〉

- 자재준비-현장시공-보온카바 시공-보온카바 절단 시공-마감테이프 시공(1)-마감 테이프 시공(2)-마감테이프 보온못 고정-보온못 고정 완료(시공완료),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보온재 등
- 청구인은 배관보온공으로 주로 신축 건설 현장에서 온수, 냉수, 소방, 에어컨냉코일 등 배관이 설치된 이후에 열 손실을 막기 위한 단열재로 배관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 개·보수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기존 단열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로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
- 배관용접 작업자의 업무가 밀려 공정이 더딘 경우 보온공이 나서 용접이 완료된 배관에 직접 방청페인트를 바르고 단열재를 포장함

〈 이전 근무이력 〉

- 1992년~2003년 ○○아파트 등 신축공사/배관보온공/ 진술 (객관적 자료 부재)
- 2004년 2월~2010년 8월 ○○재활원 병동 증축공사 등/ 배관보온공/ 건설경력 증명서 등
- 2012년 4월~2020년 9월 ○○○ ○○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 건설경력 증명서 등

〈 기타사항 〉

- 기초 질환: 고혈압(약 복용)
- 가족력: 없음
- 흡연 및 음주: 비흡연, 비음주

다. 원처분기관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 의뢰한 이 사건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은 아래와 같다.

- 50세이던 2010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았으며 60세인 2020년에 다른 종류인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진단받았다고 함.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이전 진단 시 세포유전형 등을 확인한 것은 아니나 관해 이후 10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발보다는 독립적인 상병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임
-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90년부터 ○○전자 △△전자 등을 다니며 전자기판 납땜 하였고, 92년 1월까지 ○○산업에서 옷 재봉 미싱 일하다가 1992년부터 배관보온공으로 근무했다고 함.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상 주로 배관보온공으로 근무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확인됨. 고용보험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지속적으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제초제 등이 포함되는데, 배관보온공 업무를 통해 이들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배관보온공의 업무가 잘 파악되고 있고, 건설업의 특징상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문 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필요

라.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진료기록: 2012년~2020년 기타및상세불명의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 건강검진결과
 - 2020. 8. 28.: 의심질환(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빈혈증)/혈색소 6.6
 - 2018. 3. 29.: 의심질환(간질환), 유질환(고혈압), 혈색소 12(정상)
 - 2016. 8. 9.: 의심질환(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혈색소 12
 - 2016. 4. 10.: 정상 B, 혈색소 13.1

마. 보험가입자는 재해 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짧음
- 배관 보온작업 시공 방법과 청구인이 취급한 보온재는 친환경으로 무해한 소재를 사용 중에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에게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거나 유해 물질로 인한 직업성 질병을 유발했다는 인과성이 현저히 낮다고(없다고) 생각함

6. 의학적 소견

가. 2021. 2. 11. ◇◇병원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0년 7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 및 동종조혈 모세포이식(2010. 12. 2.)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음
-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시다가 2020. 11. 26.에 혈구 이상으로 시행한 골수검사서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소견을 보여서 현재 항암제 치료 중이며 추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예정임
- 금번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이전에 있던 질환의 재발보다는 새로 생긴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10년 진단이 외부병원에서 이루어졌고 세포유전학적 검사 결과는 확실하지 않고 당시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0년에 진단된 백혈병과 동일한 성격 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음. 다만 10년 관해 유지 후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재발 보다는 새로 발생한 백혈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나. 원처분기관 내과 자문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진료기록 확인한 결과 2010년 원자력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하에 골수이식 받은 후 완전 관해 상태로 추적검사하던 중 2020년(처음 진단된 지 10년 후) 검사상 이상 보여 골수모구 백혈병 진단되어 항암치료 및 골수이식 치료 중임을 확인하였음
- 기존 백혈병의 재발인지 새로 발병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년 정도 완전 관해 상태였고 이전에 골수이식 치료를 했던 점 등으로 보아 새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신청 상병은 의무기록 등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그리고,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약 15년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주로 배관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벤젠 등 관련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다.

-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 백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 이번 2020년의 진단은 2010년의 재발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 또한, 작업특성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유해 물질 취급 빈도 또한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의에서 대리인 진술로 청구인의 작업 현장은 신축공사 현장이 70%에서 80%라고 하였는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접착제 사용이 없어 접착제 사용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직업성 암에 대하여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포름알데히드·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약 26년 11월간 배관보온공 업무를 수행하며, 2010. 7. 7.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2019. 3. 6.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2020. 11. 26. 기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아닌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약 15년 근무경력 동안 주로 배관보온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11. 24. 퇴사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업 특성상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유해 물질 취급빈도 또한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유해 물질의 누적 노출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 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 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한다) 또는 간세포암
-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2. [2023-3673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30.)

사건의 쟁점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어 소세포폐암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 40년 동안 디젤 차량을 이용한 각종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디젤 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살수차 운전 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은 있지만, 그 종사 기간이 짧고 그 외의 각종 운송업무 이력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디젤엔진 배출물질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점과 청구인이 약 14년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한 점 그리고 시내버스 CNG(천연가스)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약 7~8년간은 청구인이 고농도의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살수차 운전 종사 기간 중 발암물질(결정형 유리 규산)의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근거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67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3. 6.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6.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9. 10. 14. 진단받은 ‘소세포폐암’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0. 2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6. 27.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2000년대 시내버스의 CNG(천연가스) 전환 이후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졌고 살수차 운전 시 유의한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종사 기간이 짧은 점, 1970년대부터 대형 차량 운전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 1970년도부터 대형 차량 면허를 취득하여 근무해 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추가제출 자료 등을 통해 추가 입증한 점, 2) 따라서 1995년 이전 근무이력을 판단 기준 기간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인정 사실 자체에 오류가 있는 점, 3) 청구인이 재직한 사업장에서는 일부 차량만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되어 청구인은 퇴직 시까지 구형 디젤 차량을 몰았던 점, 4) 청구인은 1970년대부터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어왔으므로 피청구인이 2000년대 이후 낮아진 노출수준을 결정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 5)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소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과거 근무이력을 인정하는 전제로 보면 2000년대 이전은 트럭, 버스 운전 시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이 상당하였던 점, 6) 청구인의 디젤엔진 배출물질 노출강도 및 기간 등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 실시함이 타당한데도 전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디젤엔진 배출물 노출과 폐암 발생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디젤엔진 배출물 가운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은 폐, 식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폐암과의 관련성 역학연구 결과 디젤엔진 배출물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폐암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노출 기간이 15년을 초과할수록 폐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은 약 40년 동안 디젤 차량을 이용한 각종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됐으며,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폐암)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결국 청구인에게 발병한 폐암의 원인은 장기간 수행해 온 디젤차량 운송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또한 안전조치 미흡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이 신장 상병 발병에 상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 경위는 “과거 근무한 각 운수 업체와 유류 업체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작업 중 노출되는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 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여러 위험물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왔고, 특히 과거에 노후화된 구식 차량을 사용하여 오랜 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의 석면 및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소세포폐암’이 발병하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으로 기재되었다.

2)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 등은 다음과 같다.

□ 근무 경력(4대보험)

○ 2017. 6. 12.~2017. 10. 31. / (주)○○산업 / 급수차 운전

○ 2015. 6. 1.~2016. 11. 30. / (주)○○산업개발 / 살수차 운전

○ 2012. 8. 1.~2013. 9. 30. / (주)○○건설중기 / 살수차 운전

○ 1995. 7. 1.~2009. 5. 31. / ○○운수(주) / 시내버스 운전

※ 업무별 총근무 기간: 시내버스 운전 14년, 살수차 운전 3년

※ 청구인 주장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외에도, 약 40여 년간 유조차, 시내버스, 덤프트럭, 살수차 등 운전 업무를 수행함
 - 1987~1995 / △△석유 / 유조차 운전
 - 1984~1986 / ○○운수 / 시내버스 운전
 - 1979~1984 / ○○석유 / 유조차 운전
 - 1974~1979 / ○○운송 / 덤프트럭 운전

□ 근로관계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 담당 업무
 - 매주 5일 이상 08시부터 17시까지 ○○ 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살수 차량으로 분진 발생지점에 물을 뿌리는 작업

□ 작업환경

- 덤프트럭 운전: 덤프트럭으로 석산의 석재를 싣고 건설 현장으로 이동, 모래 및 자갈 상하차
- 유조차 운전
 - 탱크로리 차량으로 저유소에서 주유, 거래처로 운송
 - 운전 외에도 차량 기본 정비
- 시내버스 운전: 매월 최소 20일 이상 근무, 근무시간 1일 11시간
- 건설 현장 살수차 운전
 - 매주 5일 이상 근무 ○○ 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분진 발생지점에 살수
 - 별도의 호흡기 보호장구 미제공

※ 청구인 주장

- 디젤엔진 배출물의 직종별 노출수준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노출수준(중)의 직종에서 약 5년간 종사, 노출수준 (하)의 직종에서 약 '29년'간 종사함
- 청구인은 약 40년간 구형 디젤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확실한 발암물질 (Group 1)에 장기간 노출됨
- 안전 보호조치(방진 마스크 등 개인장비 미지급, 기술 점검, 제도설계 등의 방지 행위 없음)가 미흡하고 다량의 검댕, 원소 탄소 등에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청구인은 단기 촉탁직 계약 직원으로서 단기간 근무하였기에 의견을 제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 개인적 요인: 신장 164.5cm, 체중 64.8kg
- 상병 관련 가족력: 무

3) 원처분기관은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자문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업무관련성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

- 2019년 11월 폐암 진단받았음. 진단 당시 70세. 1995년 7월부터 2009년 5월 까지 약 14년간 시내버스 운전,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1년 1개월), 2015년 6월~2016년 11월(1년 6개월), 2017년 6월~2017년 10월(5개월) 등 약 3년 정도 레미콘 제조 현장 살수차를 운전했다고 함. 시기별 디젤엔진 배출물질 노출 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있고, 살수차 운전 현장에서의 분진 등 노출수준은 추측해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 조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지, ○○대학교○○병원, 2019. 10. 14.~10. 25. 〉

- 가래 목 걸림 4개월, ENT 치료, 검진 상 이상 소견, 범주 4XS 폐암 의심
- 기저질환
 - HT, COPD, CAOD으로 타원에서 약물 복용 중인 자로 4개월 정도 지속되는 가래가 목에 걸리는 증상, 호흡곤란, CT 검사에서 폐암 의심 소견 보여 PCNB 검사 위해 입원함. ex-smoker: 1년 전(2018) 1갑/50년
- 세포병리진단보고서: presence of macrophages/ciliated columnar epithelial cells

5)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2021. 4. 5.)
 - 종합소견: 정상B, 의심질환 청력 저하, 유질한 없음, 기타 혈당관리, 지속적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 2017 건강검진 문진내역 흡연 관련 문항
 - 현재도 흡연을 하신다면 몇 년째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총 40년
 - 평균 하루 흡연량은 몇 개비였습니까? 20개비

6) 청구인이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원일 | 검진 기관 | 횟수 | 진료내용 |
|---------------------|------------|----|-----------------|
| 2012. 2. 6.~11. 23. | ○○내과의원 | 2 | 여러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
| 2019. 7. 25.~7. 29. | ○○○이비인후과의원 | 2 |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청구인의 실제 근로 이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 2인의 확인서와 표창장 및 1975년, 1984년 근무 당시 사진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1. 5. 18 〉

- 상병 명: 소세포폐암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가래 목 걸림 증상으로 내원
- 종합소견: 소세포폐암 진단 후 항암 방사선치료 시행함

〈 진단서, ○○대학교○○병원, 2020. 2. 7. 〉

- 질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소견: 상기 병명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 및 평가 시행 받고 퇴원하시는 분입니다. 퇴원 이후 정기적인 항암치료, 외래 검진 및 평가 반드시 필요한 분으로 사료됩니다.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약 14년간 시내버스 운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 레미콘 제조 현장 살수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1970년대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유조차, 시내버스, 덤프트럭, 살수차 등을 운전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2000년대 이전은 트럭, 버스 운전 시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이 상당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 의견이 있으나,
 - 청구인은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과 살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2000년대 시내버스의 CNG(천연가스) 전환 이후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고 살수차 운전 시 유의한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종사 기간이 짧은 점, 1970년대부터 대형 차량 운전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10. 직업성 암’에 대하여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콜타르 찌꺼기,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약 40년 동안 디젤 차량을 이용한 각종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디젤엔진 배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디젤엔진 배출물질은 연료나 윤활유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포름알데이드,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직업적으로 디젤 차량 등을 운전한 사람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근무 환경 등 디젤엔진 배출물질의 노출수준에 따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상 약 14년간 시내버스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정책에 따른 시내버스 CNG(천연가스) 전환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 점과 일반적인 버스의 사용 연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 기간 중 적어도 약 7~8년간은 고농도의 디젤엔진 배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시내버스 이외에 약 3년간 종사한 살수차 운전 업무에서도 디젤 엔진 배출물질은 물론 낮은 수준이지만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운송, ○○석유, ○○운수, △△석유에서 덤프트럭, 유조차, 버스 등을 운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통 일반인이 직업 선택 시에는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등과 유사한 업무를 찾는 등 직업적인 연속성이 있는데, 청구인이 1970년대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17년간 해당 면허가 필요한 시내버스, 살수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위 기간에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표창장 및 근무 사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시내버스 및 살수차 운전 외에도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덤프트럭, 유조차 등 디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청구인이 시내버스, 살수차, 화물차량 등을 운전하면서 장기간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결굴[부비동(副鼻洞)]암
-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결막암
-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제8절 피부 질병

1. [2023-2199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9. 1.)

사건의 쟁점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으로 다발 부위의 백반증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방향제 포장을 위해 물과 화학물질을 섞어 가열하거나 통에 나누어 담는 작업으로 화학물질을 코로 흡입하거나 직접 접촉하였고 업무 중 다리에 화상을 입었던 적도 있으므로 유해 물질 노출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인 폐놀 등의 유해 물질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작업 과정에서 백반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취급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백반증은 질환 특성상 입 주위나 팔다리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 역시 직업적 노출 때문에 발생하는 부위가 아닌 백반증 환자에게 관찰되는 통상적인 발병 부위에 상병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작업 과정이나 작업 환경이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19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3.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6. 3. 12. 진단받은 ‘다발 부위의 백반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7. 2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3. 17.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6. 1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판정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제출된 기록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성분 중 발병 원인인 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확인되지 않고, 피부 노출 가능성도 낮다.

다. 작업 내용 중 필터를 빼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피부 접촉을 주장하고 있지만, 손 부위 외에 얼굴, 팔, 다리, 겨드랑이 등에서 상병이 발병한 점이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

라. 청구인과 사업주의 작업 내용 관련된 주장이 다르지만, 청구인이 진술하는 생산 작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백반증을 일으키는 물질 취급이 없고 상병을 악화시킬만한 요인도 적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회사에서 물과 화학물질을 섞어 보일러로 배합물을 가열하고 통에 소분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하면서 향과 화학물질을 흡입하였고, 필터를 빼는 작업 등을 맨손으로 수행하면서 피부 접촉을 하여 유해 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보험가입자는 입사 당시 입술에 백반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입사 당시에는 백반증이 없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사진을 첨부하며, 보험가입자 주장과 달리 2019. 10. 1. 사업장 이전 전과 이후에도 제조 업무를 계속하였다.

다. 화학물질을 탱크에 부을 때도 냄새를 맡게 되고, 2014년 9월경 업무 중 화학물질 약품을 붓다가 통을 놓쳐 다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장하고 실장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못 들은 척하는 등 업무상 재해로 신청해 주지 않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1년부터 방향제 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물과 화학물질을 섞어 보일러로 배합물을 가열, 통에 나눠서 포장하는 작업 등을 하면서 향과 화학물질을 코로 흡입하였고, 필터를 뺀 때도 맨손으로 직접 만질 때도 있었으며, 2014년 9월에는 업무 중 화학약품을 붓다가 통을 놓치는 바람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는 등 유해 물질에의 노출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이전 근무 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

- 근로 기간: 2011. 8. 1.~2022. 3. 31.(약 10년 8개월)
 - 2011. 8. 11.~2016. 3. 12.(진단일) / 약 4년 7개월간 방향제 포장 업무수행
- 근무 형태: 상용,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5시간
 - 토요일은 격주로 09:00~15:00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 시간 1일 2회, 1회 20분
- 담당업무: 완제품(방향제) 박스 포장

2) 근무 이력

○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력

- 2019. 10. 1.~2022. 3. 31.(약 2년 6개월) / 방향제 포장
- 2011. 8. 1.~2019. 9. 30.(약 8년 2개월) / 방향제 포장
- * 2019년 10월 '○○○○'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 법인 전환

○ 타 사업장 근무 이력

- 2022. 5. 2.~2022. 8. 31. / ○○○○(주)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
- 2010. 1. 4.~2011. 5. 30. / ○○제책사/ 제본 및 인쇄물 가공업

다.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에 관한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내용

○ 작업 과정(청구인 주장)

- 물, 화학물질 배합→보일러로 배합물 가열→150g 통에 나누기→포장 작업
- 배합을 위해 보일러를 가열하고 열이 80℃로 올라가면 스위치를 끄고 기다리다가 76℃쯤 되어 통에 내리면서 소분할 때 연기를 코로 흡입함
- 방향제를 준비하는 준비 작업이나 포장 작업할 때도 향이나 화학물질을 코로 흡입하고, 필터를 뺄 때도 맨손으로 작업해 향이나 화학물질을 손으로 직접 만짐

○ 담당업무(사업장 확인서)

- 이 사건 사업장에는 크게 제조장과 생산라인이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생산라인에서 포장 담당으로 하루 평균 8.5시간씩 방향제 완제품을 박스에 담아내는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제조장에서의 업무는 95~98%의 물에 여러 가지 생활 화학물질(향료, 알코올, 글리세린, 유화제 등)을 탱크에 넣어 잘 섞어서 교반 후 각각의 용기에 담아내는 과정임
- 법인 이전한 2019년 10월 이후에는 제조장 업무는 일절 하지 않았고, 이전하기 전에도 제조장 담당이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도와주거나, 통을 잡아주거나, 간혹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 미리 준비해둔 원료를 탱크에 부어주거나 필터 빼는 작업을 함(5분 소요)

2) 작업 과정 중 유해 요인(청구인 주장)

- 취급 유해 요인: 글리세린, P.G, 311, 유화제(115S), 향(라벤더, 복숭아, 레몬, 녹차, 쉿, 오렌지, 스카이)
- 냉방기를 사무실만 가동했고 작업 현장에는 가동 안 함
- 보호장구 착용 여부: 면장갑만 착용함

3) 그 외 청구인 주장사항

- 2014. 9. 5. 상병 명 '양측 족부 및 하퇴부 화학적 화상(2도 화상)'에 대하여 대성 병원에서 진단받고 2014. 9. 7.~2014. 9. 10.까지 입원 치료하였고, 백반증이 악화하였다고 주장함
- ※ 심의외기관 조사내용: 사고발생일인 2014. 9. 5.은 금요일이었고 입원 기간은 추석 연휴였으며,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았음이 확인됨. (경과 기록지 상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기록 없음) 비록 사고내용을 회사에 보고한 바 없으나 근무일에 다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볼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과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라.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진 기록 (○○피부과의원, 2016. 3. 12.)

- 〈 C.C 〉 입 주변(Rt side, lower lip), Rt wrist, o) about 1 yr ago, tx hx (-), wood: enhanced, px) 엑시머 치료 설명
- 〈 Diagnosis 〉 백반증
- 〈 Examine〉 미생물 우드 등 검사

○ 재진 기록 (○○피부과의원, 2016. 3. 29.)

- 〈 C.C 〉 홍반 생김, 입 150, 손목 250

○ 외래초진 기록 (○○대학교 ○○병원, 2016. 9. 23.)

- 주 호소: multiple whitish lesion on Rt. hand, wrist lip, axillary
- 기간: 4년 전 처음 발생

- 가족력: 없음
- 과거력: 4년 전 발생한 백반증이 현재까지 stable, local 피부과에서 excimer를 2016년 3월~7월까지 치료하였으나 반응이 없음
- 현재 질병 상태: 현재 병변이 번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처음에는 오른쪽 손목 부근에 있었으나 다른 곳으로 번지는 양상, 추정진단 vitiligo (acrofacial)

○ 초진 기록 (△△병원, 2020. 5. 8.)

- 주 호소: 주 증상은 백반증으로 10년 전부터 입술 밑~턱, 겨드랑이, 손에 생김
- 방향제 공장 다님

○ 재진 기록 (△△병원, 2022. 4. 11.)

- 주관적 소견: 백반증 동네에서 광선치료 중, 2011년 방향제 회사(○○○○) 다님 후 발생한 것 같음

○ 초진 기록 (◇◇대병원, 2022. 4. 26.)

- Chief Complaint: skin lesions on whole body - 2014
- 통증 평가: 통증 없음
- Present Illness, Description location> 겨드랑이, 다리, 손, 얼굴
- Plan: Treatment Plan - photo and biopsy(다리, 1병변, 2 비병변)
- 정규 오더> (피부 미용 모발) 임상 사진 촬영, 얼굴-입 주위, 턱, 겨드랑이, 손등, 다리 백반증 영상 촬영

○ 재진 기록 (◇◇대병원, 2022. 5. 10.)

- 경과: Vitiligo
- D) 2014, location) 겨드랑이, 다리, 손, 얼굴
- 산재를 위한 조직검사 요청했던 분(직업상 관련된 질환 아님을 설명해 드림)
- lesion에 Inflammation 심한 자로 systemic Tx 추천되는 상황
- 특수 검사 및 처치 결과

@ bx

skin, leg, right, "lesion", punch biopsy (#1):

Superficial perivascular lymphohistiocytic infiltration with

1) mild exocytosis

2) absence of Melan-A positive basal melanocytes, suggestive of vitiligo skin, leg, right, "normal", punch biopsy (#2):

Superficial perivascular lymphohistiocytic infiltration, mild

- Melan A(MART-1) : Some positive cella ("#2")
- 정규오더> (병리) 면역조직 1종선시행[Formalin-fix] 선 시행 - 유선 안내된 분입니다, 타원에서 백반증 치료 중임

○ 재진 기록 (◇◇대병원, 2022, 7, 19.)

- 거주지역: ○○○구
- 경과: 변화 없음
- Others: 산재를 위한 조직검사 요청했던 자로 검사 후 open 했음(직업상 관련된 질환 아님을 설명해 드림)

○ 외래경과 기록 (◇◇대병원, 2022. 9. 13.)

- 병변위치: face 입 주변 턱, Axillar, Hand, Leg
- 가족력: 없음/ 동반 질환: 없음
- 발생 시작 시기: 2008년경/ 본원 내원 시작 시기: 2022. 4. 26.
- 현재 치료: (외부) 2~3주 간격으로 국소도포제와 경구 약물 치료 중
- 조직검사: 2022. 4. 26.
- Others: (증상 경과) 지난 내원 이후 꾸준히 광선치료 진행 중임, 임상적으로 개선 없음/ lesion에 Inflammation 심한 분으로 systemic Tx 추천되는 상황 / 백반증 직업상 관련된 질환 아님을 설명해 드림

마. 건강보험 진료명세서상 신청 상병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2016. 3. 12.) 이전

- 2012. 8. 1. ○○비뇨기과의원, 발백선
- 2014. 6. 18. □□병원, 상세 불명의 연조직염

- 2014. 6. 19. ○○비뇨기과의원, 상세 불명의 농가진

○ 재해일(2016. 3. 12.) 이후

- 2016. 3. 12.~2022. 4. 22. (190회) ○○피부과의원, 백반증, 상세 불명의 백반증, 상지의 백반증, 머리의 백반증
- 2016. 9. 23. ○○대학교 ○○병원, 백반증
- 2020. 5. 8.~2021. 9. 29. (5회) ○○서울병원, 백반증, 상세 불명의 백반증, 머리의 백반증
- 2022. 3. 22. ○○외과의원, 상세 불명의 백반증
- 2022. 4. 26. ○○○비뇨기과의원, 상지의 백반증

바. 보험가입자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 사실인정 여부: 불인정

- 2010년 10월 청구인의 입사 면접 당시 이미 입술 주위에 백반 증상이 보여 백반증에 관한 대화도 하였고, 얼굴 이외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의 백반증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포장 업무에는 문제 될 것이 없어 채용함
- 제조장과 생산라인이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생산라인에서 완제품을 박스에 담아내는 포장 업무를 함
- 제조장에서의 업무는 95~98%의 물에 여러 가지 생활 화학물질(향료, 알코올, 글리세린, 유화제 등)을 탱크에 넣어 잘 섞어서 교반 후 각각의 용기에 담아내는 과정임
- 당사가 이전한 2019. 10. 1. 이후에는 제조장 업무는 일절 하지 않았고, 사업장 이전 전에도 제조장 업무는 공장장, 사업장 대표, 부장이 하였음
 - 청구인은 제조장 담당이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도와주거나 통을 잡아주고, 담당자가 불가피하게 공적인 경우 미리 준비해 둔 원료를 탱크에 붓는 작업을 하였고, 5분 정도 소요되며 실장이 옆에서 관리 감독하며 작업하게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년 9월경 업무 중 화학약품을 붓다가 통을 놓쳐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에 대해서는 목격된 사실 및 목격자도 없음
- '필터를 뺄 때 맨손으로 직접 만질 때도 있었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98%의 물에 일부 생활 화학물질이 배합된 방향제에서 어떤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 필터를 빼는 작업이 필요한 제품 생산을 하는 날은 월평균 5~6일이며 작업 소요 시간은 5분 이내임
- 회사에서는 필터를 뺄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고무장갑도 준비가 준비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 업무인 박스 포장을 할 때도 장갑을 끼고 작업하라고 항상 지시함
- 환경부의 관리하에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에 대해 보고하고 신고 후 승인이 난 제품들로 제조, 판매하고 있음

-
- 사업장 제출 사용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목록(연번/물질명(성분명))
 - 1/레몬향 PERFUME COMPOUND SP-57254/DIPROPYLENE GLYCOL 등
 - 2/복숭아향 PERFUME COMPOUND SP-69483/DIPROPYLENE GLYCOL 등
 - 3/라벤더향 PERFUME COMPOUND SP-69484/DIPROPYLENE GLYCOL 등
 - 4/CTL-115S/Polyoxyethylene Tridecyl Ether 등
 - 5/GH-311/3-iodo-2-propynyl butyl carbamate
 - 6/글리세린(Glycerine)/글리세린(Glycerine)
 - 7/LACIDE DOT/식물추출물, WATER
 - 8/프로필렌 글리콜(P.G)/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
 - 9/녹차추출물/Camyllia Sinensis Leaf Extract 등
 - 10/목초액/Water, Bamboo Vinegar, Butylene glycol, 1,2-Hexanediol
 - 11/에틸 알코올/Anhydrous Ethyl Alcohol Water, Hydrous Ethyl Alcohol Water
 - 12/아카시아 SP-52354/디프로필렌 글리콜 등
 - 13/오렌지향 ORANGE B62423/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OIL 등
 - 14/피톤치드향 PERFUME COMPOUND SP-81715A /DIPROPYLENE GLYCOL 등
 - 15/장미향 A66498/PHENETHYL ALCOHOL 등
 - 16/후로랄향 FLORAL 67220/DIPROPYLENE GLYCOL 등

- 17/AIR FRESHNER A68779_스카이_민트향/디에칠헥실아디페이트(DIETHYLHEXYL ADIPATE) 등
- 18/젤라틴(GELATIN)
- 19/GHBM-150(1,2-벤즈아이소티아졸란-3-온)/MEG 등
- 20/카라기난501
- 21//LACIDE PS500/PHENOXYETHANOL 등
- 22/염화 칼슘(CALCIUM CHLORIDE)

사. 청구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2014년도 | ○ 일반건강검진(2014. 12. 31.) - 키 189cm, 몸무게 95kg - 혈압 123/72 mmHg, 총콜레스테롤 191, HDL-콜레스테롤 48, LDL-콜레스테롤 129 - 종합판정: 정상 B, 의심 질환: 없음 |
| 2017년도 | ○ 일반건강검진(2017. 10. 18.) - 키 188cm, 몸무게 95kg - 혈압: 117/74 mmHg, 총콜레스테롤 209, HDL-콜레스테롤 51, LDL-콜레스테롤 146 - 종합판정: 정상 B, 의심 질환: 없음 |
| 2019년도 | ○ 일반건강검진(2019. 7. 20.) - 키 188cm, 몸무게 103kg (과체중) - 혈압 133/94 mmHg,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고밀도 콜레스테롤 비해당, 저밀도 콜레스테롤 비해당 - 종합판정: 정상 B, 의심 질환: 고혈압, 복부비만 상태 |

| 구분 | 내용 |
|--------|--|
| 2021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2021.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188cm, 몸무게 96kg(과체중) - 혈압 141/88 mmHg 총콜레스테롤 199, 고밀도 콜레스테롤 50, 저밀도 콜레스테롤 129 - 종합판정: 정상 B 의심 질환: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

아.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손, 얼굴, 다리, 겨드랑이에 유해화학물질 피해를 보았으며 입사 전 사진과 구술심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2023. 9. 1.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2. 7. 21. 》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2. 4. 26.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피부에 반점이 생김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겨드랑이, 다리, 손 얼굴 등에 색소반이 관찰되며 백반증에 합당한 소견임
 - 업무와의 관련성은 판단 불가
- 통원 예상 기간: 2022. 4. 26.~2022. 10. 10.
 - 사유: 백반증 병변의 악화 억제 및 개선을 위한 통원 치료

《 진단서, ○○병원, 2014. 9. 15. 》

- 병명(최종): 양측 족부 및 하퇴부 화학적 화상(2도 화상)
- 발병일: 2014. 9. 5.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진단함. 수상 후 약 4주가 안정 치료 필요로 함

《 소견서, ○○서울병원, 2022. 4. 11. 》

○ 병명(최종진단): 백반증

○ 향후 치료의견

- 경구 스테로이드제, Tacrolimus 도포제 사용, 연고지에서 광선치료 하였음
- 추후 부정 기간 치료 요구함

《 진단서, ○○대학교병원, 2022. 5. 10. 》

○ 병명(최종진단): Vitiligo of multiple sites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전신의 탈색소성 피부병변에 대하여 본원 피부과 외래 내원하여 2022. 4. 26. 조직검사 후 상기 상병으로 진단됨

《 진단서, ○○피부과의원, 2022. 8. 19. 》

○ 병명: 머리의 백반증, 상지의 백반증, 하지의 백반증

○ 향후 치료의견

- 상병 진단하에 2016. 3. 12.~2022. 4. 28. 엑시머레이저 광선치료를 시행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의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의뢰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라고 회신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 상세 소견 내용

-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방향제 완제품을 박스에 담아내는 포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6년 3월(당시 45세) 백반증 진단을 받았음
- 2022년 5월 ○○대병원 조직검사 통해 백반증 확진되었고, 발병 부위는 얼굴, 팔, 손목, 다리, 겨드랑이 등임
-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최초 발병 시기는 2010~2012년경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사업장 근무 이후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는 청구인 입사 면접 당시 입술 주위에 백반증이 있었다고 주장함

- MSDS를 통해 확인되는 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성분에서는 백반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물질(하이드로퀴논, 페놀, 카테콜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 작업은 원료나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이 아닌 완제품 포장 작업임
- 청구인이 진술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또한 피부 접촉이 아닌 화학물질의 흡입 노출을 주장하며, 피부 접촉을 주장하는 맨손으로 필터를 빼는 작업은 간헐적인 작업(월 5~6일, 5분 이내)으로 확인됨

○ 현재의 자료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이 필요함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판정 제○○○호 업무상 질병 판정서 》

-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다발 부위의 백반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 과정 중 발생한 화상에 의한 피부 변화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음
- 다수의 위원은, 청구인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성분 중 발병 원인인 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확인되지 않고 피부 노출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는 점, 작업 내용 중 필터를 빼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피부 접촉을 주장하고 있지만, 손 부위 외에 얼굴, 팔, 다리, 겨드랑이 등에서 상병이 발병한 점이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과 사업주의 작업 내용 관련된 주장이 다르지만, 청구인이 진술하는 생산 작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백반증을 야기하는 물질 취급이 없고 상병을 악화시킬만한 요인도 적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부과, 2023. 8. 7. 〉

-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성분 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되지 않고, 피부 노출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되며, 작업 내용 중 필터를 빼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피부 접촉을 주장하고 있지만, 손 부위 외에 얼굴, 팔, 겨드랑이 등에서 상병이 발병한 점이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 처분에 동의함
-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의사의 소견이 산재 관련 피부질환이 아님을 설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점에서 진료의의 소견을 신뢰함
- 2014. 9월경 업무 중 화학물질 약품을 붓다가 통을 놓쳐 다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만, 그 부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았으며, 화상과 연관되어 백반증이 해당 부위에 넓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즉, 전신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백반증 상병으로는 산업재해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청구인은 화학물질 흡입 관련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입 주위 백반증 발생이나 전신 백반증 발생에 대해 유해인자 흡입이 연관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그러나, 백반증은 유해 물질 흡입에 의해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 하는 글리세린, 유화제, 향 등의 유해 물질은 화장품, 세정제 등을 통해 직접 접촉 하는 일이 더 많은 물질로서, 작업장에서 흡입을 통해 문제되는 물질이 아님
- 백반증은 질환의 특성상 물리적 자극이 많이 가해지는 입 주위, 팔다리에 발생하며, 청구인의 백반증 발병 양상도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부위가 아닌 백반증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흔하게 발생하는 발병 부위로 생각됨
- 백반증이 진행되는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이 있었을 경우 악화할 수 있으나 청구인 에게서 산업재해로 인한 접촉피부염이 발생한 기록이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방향제 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배합물 가열 과정과 포장 작업 과정에서 향과 화학물질 흡입 및 유해 물질의 피부 접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다발 부위의 백반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성분 증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병원 진료기록에서 직업상 관련된 질환 아님을 설명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백반증은 질환의 특성상 물리적 자극이 많이 가해지는 입 주위, 팔다리에 발생하며, 청구인의 백반증 발병 양상도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부위가 아닌 일반적인 백반증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통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발병 부위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작업 과정이나 작업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옷,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알레르겐·광독성·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염산·불화수소·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 카.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제9절 진폐

1. [2023-912 기각]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6. 29.)

사건의 쟁점

본진작업 이력으로 진단받은 진폐증이 진폐 보험급여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확인되므로 진폐 보험급여 지급 대상임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인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폐기종, 심폐 기능 정상(F0)”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단순 흉부 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진폐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진폐병형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는 규정과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최소 제1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912호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2. 2. 28. 진단받은 ‘진폐’(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24. 원처분기관에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1. 3.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과 2023. 2. 2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폐기종”이라는 소견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단순 흉부 사진상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 정도는 진폐 요양급여 또는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진단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 병형이 1형(1/1)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22. 2.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같은 해 3. 24. 원처분기관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분진 직력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 직종 | 입사 일자 | 퇴직 일자 | 기간 |
|-----------------|------------------|--------------|--------------|---------|
| (주)○○○○ ○○공장 |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1982. 10. 1. | 2001. 5. 25. | 18년 7개월 |

다. 청구인은 2022. 8. 24.부터 사흘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 정밀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외 청구인의 진폐 정밀진단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며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진단서, ○○내과, 2022. 2. 28. 〉

-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 불명의 진폐증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 임상 증상, 직업력, X선 결과 등 고려 시 상기 진단명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평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 건강진단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8. 26. 〉

- 증상
 - 기침, 객담, 호흡곤란(1, 2, 3, 4, 5)
- 흉부 영상 검사(촬영일: 2022. 8. 24.)
 - 소음영: 모양/크기 p/p, 밀도 1/1
- 폐환기능 검사

- FVC 85%, FEV1 101%, FEV1/FVC 70%
- 종합 소견(진폐 담당 의사가 작성)
 - Some fine parenchymal-subleural micronodules in Rt. upper(possible CWP, low profusion)
No evidence of PMF lesion
Rt. upper small calcified nodule(about 11mm)
 - Diffuse emphysema-bulla, pleural thickening and mediastinal nodes
Subpleural interstitial fibrosis in both lung

다.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는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은 폐기종(em)”이라는 소견이다.

라. 심사기관 자문의 2명의 공통 소견은 “단순 흉부 사진(2022. 8. 24.), 흉부 CT(2022. 8. 25.)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1
 - 상기 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 흉부 사진(2022. 8. 24.), 흉부 CT(2022. 8. 25.)의 병형은 정상(0/0), 합병증은 없음으로 판단됨
- 자문의2
 -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바, 단순 흉부 사진(2022. 8. 24.), 흉부 CT(2022. 8. 25.)의 병형은 정상(0/0), 합병증은 폐기종(em)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및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최소 제1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상황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91조의7 및 법 제91조의8은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 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과 관련한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와 판정 기준, 진폐 장애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정하였고, 진폐병형의 판정 기준에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진폐 정도에 대해 “진폐병형 정상(0/0)”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폐 정도는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 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병 형 |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 의증 | 0/1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4형 | A B C |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애(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애(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애(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애(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애등급 기준

| 진폐장애등급 | 구 분 |
|--------|--|
| 제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9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애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애(F3)로 확인된 경우
-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4) 분직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제10절 호흡기계 질병

1. [2023-2206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30.)

사건의 쟁점

분진 노출 시기와 진단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만한 개인적인 원인이 없으며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통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분진 노출 시기와 진단일 사이 약 20년의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고 근무 당시의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인 점, 현장 업무 비중의 감소 등을 고려하면 분진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수행에 따른 분진 노출 중단 기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20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3.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1. 12. 9.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3. 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23. 3. 24.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6. 2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확인이 되나, 분진 노출 시기와 진단일 사이 약 20년의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고, 근무 당시의 검진 기록이 정상 범위이며, 현장 업무 비중의 감소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진의 영향이 크지 않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약 32년간 근로복지공단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분진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1981년부터 현장 작업의 비율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속적인 분진 노출이 존재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시행되었다는 점만으로 해당 사업장 내 모든 출입구와 창문이 개방됐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사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 청구인은 1972년부터 분진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1998년에 이미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의 증후가 존재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비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과거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 공단의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만한 개인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장기간의 분진작업이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하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 경위는 “청구인은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약 31년 9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호흡성 분진(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여 퇴사 이후 만성기침·호흡장애·객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9. 의료기관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세 불명'을 진단받았다.”이다.

나. 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77세 남성으로,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근로관계 및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분진작업 관련 직업력]

- 총근무 기간: 1972. 8. 9.~2000. 12. 31.(약 28년 5개월)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 증명서
- 사업 종류: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유해인자: 산화철 분진
- 구체적인 직무내용
 - 청구인 주장: 현장 내 기계 제어 장치 정비, 센서 운영 및 정비, 보수 업무
 - 사업장 확인서: 제강공장 전체 설비 담당
- 근무 기간별 담당업무
 - 1973. 10. 1.~1976. 5. 31. 계장수리공 / 1제강, 2제강 계장제어설비 점검, 정비 및 관리, 제강전산설비 점검, 정비 및 관리
 - 1976. 6. 1.~1981. 3. 10. 반장 / 1제강 계장제어설비 점검, 정비업무 관리 감독

- 1981. 3. 11.~1998. 12. 30. 주임 / 1제강, 2제강 계장제어설비 업무 총괄, 제강 전산설비 업무 총괄, 정비업무 관련 결재 요청 건 검토, 승인, 노무관리, 직원 근태관리
- 1998. 12. 31.~1999. 6. 8. 기술주임 / 1제강, 2제강 전기제어설비 기술 업무 지원 업무
- 1999. 6. 9.~2000. 12. 31. 노무안전주임 / 1제강, 2제강 전기제어 노무 안전 관리 업무

[그 외 직업력]

- 2001. 2. 1.~2004. 6. 8. 주식회사○○ / 전기배선공사 / 분진 있음 주장
- 2008. 9. 17.~2009. 5. 16. 주식회사○○○ / 현장 안전, 작업관리 감독 / 분진 없음
- 2012. 10. 1.~2012. 12. 31. ○○시청 / 음식물쓰레기 기계 내 음식물 관리 / 분진 없음

다. 이 사건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등의 분진 작업장에서 총 31년 9개월간 기계 정비, 보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 물질을 장기간 흡입함
- 사업장 확인서: 방진 마스크·귀마개·귀덮개·보안경·안전모·안전화 등을 제공하고, 제강공장에는 총마다 환기창이 있으며 제강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을 처리하는 대형 전로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표(1999. 6. 14., 주식회사○○○○ 건강증진센터)
 - 산화철 분진과 흙: 1제강 전기정비 0.95 0.78 / 2제강 전기정비 0.52 0.23 / 제강 제어 0.46 0.43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견 구분: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
- 상세 소견 내용:
 - 1차(2022. 6. 15.) FEV1/FVC 54%, FEV1: 51%

- 2차(2022. 7. 15.) FEV1/FVC 55%, FEV1: 48%
→ 진단기준 충족함
- 직력은 1972년부터 ○○○○ 제강부 28년, 이후 전기공사 등 수행한 것이 확인됨. ○○○○에서는 기계 정비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중 산화철을 비롯한 금속분진 및 흙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직력 및 최종 퇴사 시기(200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마. 청구인의 정기 및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검사 일자 | 폐활량 예측치 (VCPR) | 폐활량 (VC) | 노력성 폐활량 (FVC) | 노력성 폐활량 1초 (FEV1) | 노력성 폐활량율 (%VC) | 노력성 폐활량 1초율 (FEV1%) |
|---------------|----------------------|-------------|---------------------|----------------------------|----------------------|------------------------------|
| 1991. 9. 3. | | | 2,080 | | 59.24 | 90 |
| 1992. 8. 18. | | | 2,400 | | 68.25 | 86 |
| 1993. 10. 5. | | | 2,820 | | 80.11 | 73 |
| 1994. 10. 4. | 3,149 | 2,550 | 2,550 | 1,980 | 80 | 77 |
| 1995. 11. 13. | 2,866 | 2,910 | 2,730 | 1,760 | 101 | 64 |
| 1996. 10. 18. | 2,836 | 3,000 | 2,940 | 2,330 | 105 | 79 |
| 1998. 10. 14. | 2,777 | 1,860 | 1,430 | 1,220 | 66.98 | 85.31 |

바. 재해일 이전 10년간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명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 1. 21.~2013. 5. 29. ○○병원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J448)(2회)
- 2013. 10. 15.~2015. 3. 10. ○○병원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J449)(7회)
- 2016. 1. 4. ○○병원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J4499)
- 2016. 12. 27.~2021. 9. 30. ○○병원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중증(J4492), 상세불명의폐렴(J189)(21회)

사. 최근 10년간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 1. 17. 정상B, 일반질환의심(비만,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 2014. 5. 26. 정상B, 일반질환의심(비만, 간기능, 이상지질혈증, 당뇨), 유질환(고혈압)
- 2016. 3. 15.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 2018. 4. 16. 정상B, 당뇨병 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 2020. 6. 30.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아.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한 보험가입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고, 요양급여 신청 동의하지 않음
 - 진폐증 없이 폐쇄성 폐 질환만 발생하는 경우는 분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흡연 등 업무 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 대상으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강공장에서서는 해당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노출하지 않았으며, 국소 배기장치 가동으로 산화철 분진 노출은 낮은 수준이다.
 - 청구인은 입사 후 3년 10개월부터는 반장, 주임, 기술주임, 노무 안전 주임의 직책 보임자로서 계장설비 총괄 및 안전관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 작업시간이 일반직원 대비 절대적으로 짧아 분진 노출 기회가 적었다.
 - 청구인이 퇴직하기 이전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만성폐쇄성 질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이 당사 재직 당시 근무하였던 작업 환경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과는 무관하므로 퇴직 이후 약 22년 동안의 직업력, 생활 습관 등의 요인이나 현재 고령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원처분기관의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흡연력: 없음(최근 10년간)
- 신체조건 및 기초 질환
 - 신체조건: 키 156cm, 몸무게 63kg(2020년 건강검진 참고)
 - 기초 질환: 고혈압

6. 의학적 소견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내과의원, 2021. 12. 9. 〉

- 재해 일자: 2021. 12. 9.
- 상병 명: (J44.99)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 불명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운동 시 호흡곤란, 가래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FEV1: 68%, FEV1/FVC: 71%

나. 2022. 7. 15.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활량 검사 결과

| 구분 | 1회차(2022. 6. 15.) | | 2회차(2022. 7. 15.) | |
|----------------------------|-------------------|----------------|-------------------|----------------|
|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 1초율 (FEV1 / FVC) | 49 | 54 | 49 | 55 |
|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 (FEV1, %) | 48 | 51 | 44 | 48 |

○ 검사항목

- 폐활량 검사, 폐 용적 검사, 일산화탄소 확산 능 검사

○ 의학적 소견

-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하였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 특진소견서 회신내용

- 상기인은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 호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중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함께 고려할 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현장에서 기계 제어 장치 및 센서 운영/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유해 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주장이다.
- 특별진찰 폐 기능 검사 결과로는 1회차(2022. 6. 15.) 1초율 54%, 1초량 51%, 2회차(2022. 7. 15.) 1초율 55%, 1초량 4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약 28년 5개월이나, 입사 후 변경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1973년도부터 1981년도까지는 현장 작업의 비율이 높고 1981년도부터는 안전관리,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현장 작업의 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시작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로 현장 근무한 시기에는 사업장 내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근무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진료기록 및 특별진찰 검토한 결과, 근무 기간 내 정기 및 특수 건강검진(1991.~1998.)에서의 결과는 변동이 심하고(정상 소견, C2 이상 소견 모두 나타남), 퇴사 직전 1998년도 마지막 건강검진에서의 결과는 FVC66.98%, FEV1% 85.31로 COPD 진단기준 충족하지 않으나, 현 상태에서는 COPD 진단기준 충족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 상병 확인되나, 분진 노출 시기와 진단일 사이 약 20년의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고, 근무 당시의 검진 기록이 정상 범위에 걸쳐있으며, 현장 업무 비중의 감소 및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진의 영향이 크지 않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 불명”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2년간 기계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유해 물질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이 확인 되고, 2022년 6월과 7월에 실시한 2회에 걸친 특별진찰 폐 기능 검사 결과상 1회차 1초율(FEV1/FVC) 54%, 1초량(FEV1) 51%, 2회차 1초율(FEV1/FVC) 55% 1초량(FEV1) 4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1972년도 입사하여 2001년도 퇴직 시까지 약 28년 5개월 동안 기계 정비·보수 및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1년도 부터는 안전관리·노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현장 작업의 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퇴사 직전 1998년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는 FEV1% 85.31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퇴직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업무수행에 따른 분진 노출 중단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수행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근로복지공단 2014-10호, 2014. 5. 1. 시행)

□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

- 노출수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흡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
- 석탄·암석 분진, 흙,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탄·암석 분진, 흙,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단기준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 요양 및 장애급여 기준

○ 요양기준: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 장애 기준

- 제3급 제4호: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 제7급 제5호: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 제11급 제11호: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 판정 절차

-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 검사를 의뢰
- 원처분기관은 건강진단기관에서 특별진찰 결과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에 문서로 송부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특별진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심폐기능 정도에 대한 소견을 제시

제11절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 [2023-3697 기각] 영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2. 1.)

사건의 쟁점

폐건전지 등 납 폐기물의 운반 업무가 납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폐건전지의 파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한 납 검사 결과, 혈중 납 농도는 $12.7\mu\text{g/L}$ 로 확인되며 이는 일반 인구집단 대비 일부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성인 중독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급성 또는 만성 중독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혈중 납 농도는 $12.7\mu\text{g/L}$ 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급성 또는 만성 중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납에 중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69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7.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0. 4. 1. 진단받은 ‘납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2.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7. 4.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0. 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판단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현 사업장에서 페이로더(굴착기)를 이용한 폐건전지 등 납 폐기물의 운반, 투입 및 상·하차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20. 4. 1. 시행한 청구인의 납(pb) 검사에 의하면 혈중 납 농도는 $12.7\mu\text{g/L}$ 로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 인구 집단 대비 일부 높은 수치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성인에게 중독증상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수치 및 청구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혈중 납 농도: 혈액 100ml 중 $40\mu\text{g}$ 이상) 또는 만성 중독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해 보면, 납중독에 의한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혈중 납 농도 ($12.7\mu\text{g/L}$)의 경우는 납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기에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혈중 납 농도 수치, 작업 내용, 작업기간,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폐건전지의 파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퇴사일 이전인 2020년

3월 초부터 식욕부진, 복통, 변비 및 불면증, 두통이 지속되었으나, 과도한 근무 시간(주 84시간 이상 교대 주 108시간)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성 육체적 피로라고 여기며 참아왔다.

나. 결국, 퇴사 후 ○○공단 소재 ○○병원에 방문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납중독 검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고, 이후 증상이 심각해져, ‘기억상실’, ‘망상’, ‘환청’, ‘정신착란’ 등으로 시달리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낙향하게 되어, 정신병원에 약 1달간 입원, 그 후 통원 치료를 약 3년간 받았다. 주치의의 “혈액검사 소견상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납중독 관련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재직 당시 개인안전보호구 지급과 관련하여 최초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후 관리면에서 지속적인 지급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았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당시 환경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오면, 작업장은 작업 중지되고 환기 및 환경을 정리한 후 대기하였기에 분진이 발생할 리 없고 대비를 다한 상황에서 검사를 받았던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용광로 작업 후 나오는 폐기물인 ‘강재’를 파쇄하고 운반 차량에 상차작업하는 순간에 측정한 결과가 아니기에 정상적인 결과표라 할 수 없고, 실제 해당 작업 시 엄청난 분진으로 인해 시야는 1미터 미만일 정도이기에 분진이 가라앉으면 운행 및 작업을 반복해 왔다.

마. 청구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납중독 관련된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 이외는 근무한 적이 없고, 정신적인 질환에 관하여도 본인은 물론 가족력이 일절 없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 발생 경위는 “상기 회사는 폐 bat데리를 파쇄 가공하여 납 주조 가공하는 회사로서 근무 중 납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질환이 발생됨.”이다.

나.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직력, 업무 내용 등과 관련하여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 질병판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관계 및 직력 등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제강압연)
- 입사 일자: 2019. 12. 11.
- 담당업무: 페이로더(굴착기) 운전
- 근무 형태: 규칙적 주/야 교대근무(2주 주간, 2주 야간)
- 근무시간: 1주 평균 40시간 /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식사 60분

(2) 근무 이력

- 1) 현 직력(4개월)
 - 2019. 12. 11.~2020. 3. 30. (퇴사일 기준, 4개월) / 페이로더 운전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 발병 일자: 2020. 4. 1.
- 2) 과거 직력
 - 2018. 10. 15.~2019. 3. 9. (5개월) / (주)○○○○○○○ / 방부제 생산 / 고용보험
 - 2006. 6. 20.~2018. 7. 19. / 다수의 사업장 / 고용보험

나)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 1) 청구인 주장

① 시간대별 수행업무

- 06:00~10:30 / 폐 배터리 운반 및 투입
- 10:30~11:00 / 배터리 파쇄물 상·하차
- 11:00~12:00 / 폐 배터리 운반 및 투입
- 12:30~16:00 / 폐 배터리 운반 및 투입
- 16:00~17:00 / 강재(납폐기물) 상·하차
- 17:00~18:00 / 폐 배터리 운반 및 투입

② 사업장의 환기장치

- 없었던 것으로 기억

③ 당시 착용 보호구

- 방독마스크

④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작업 환경

- 배터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와 증기, 분진이 발생하고,
- 강재(납을 녹이고 남은 폐기물)를 덤프트럭에 상·하차할 때 정도가 심할 때에는 1미터 전방이 안 보일 정도로 분진이 발생하여, 작업 시에 턴을 두고 분진이 가라앉아 시야가 회복되면 상·하차를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분진이 발생합니다.

⑤ 발병 경위

- 최초 증상 발생: 2020. 3. 1.
- 근무 중 또는 퇴근 후 수시로 두통이 발생하였고, 현기증이 날 때가 많았으며 인지력, 지각력 등 여러 감각이 저하되고 특히, 언어력이 떨어져 황설수설하거나, 대화 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남을 의심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점차 이상 증상이 심해졌고, 차후에는 환청과 망상, 환각이 생겨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처음에는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을 휴일 없는 근로시간으로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고, 망상과 환청으로 근무를 도저히 못하게 되어 퇴사 후 정신이 잠시 돌아왔을 때 병원에 방문하여 납중독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 결과가 1주일가량 걸린다고 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낙향하여 병마와 싸우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⑥ 흡연, 음주

- 흡연: 현재 흡연중, 1일 0.5갑
- 음주: 현재 음주중, 1회/한달, 1회 소주 0.5병

⑦ 기타사항

- 적용사업장을 제외하고 평생 납 관련 회사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① 청구인은 당사에서 단기간 근로 및 근로자의 적합한 보호구 지급으로 인한 사유로 불인정합니다.
- ② 청구인은 2019. 12. 11.~2020. 3. 25. 105일간 당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개인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확인한바, 근로환경에 적합한 보호구(방진(특급)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등)를 지급하여 근로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였습니다.
- ③ 재해발생일로부터 1,055일이 지난 시점에서 단기간 근로로 인해 납 성분 축적은 사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주)○○○○에서 절단반(페이로더 운전)에 근무하며, 폐밧데리 운반 및 투입, 파쇄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4월 1일 측정된 혈중 납은 근무 전 2~3개월간의 노출을 반영할 수 있는데, 12.7 $\mu\text{g/L}$ 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성인에게 중독증상은 유발하지 않는 수준이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노출 기준 미만이었음
- 따라서, 전문 조사가 없어도 이러한 근거만으로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만약,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사업장으로부터 최근 직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납)를 요청하여 확인해볼 것

라.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해 요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0년도 하반기

- 측정일: 2020. 11. 2.
- 측정 결과(납및그무기화합물) ·측정공정: 4회 / 최고치: 0.0064mg/m³
- 발암성물질 노출 기준 초과: 없음

② 2020년도 상반기

- 측정일: 2020. 4. 17.
- 측정 결과(납및그무기화합물) ·측정공정: 4회 / 최고치: 0.0041mg/m³
- 발암성물질 노출 기준 초과: 없음

③ 2019년도 하반기

- 측정일: 2019. 10. 30.
- 측정 결과(납및그무기화합물) ·측정공정: 4회 / 최고치: 0.0054mg/m³
- 발암성물질 노출 기준 초과: 없음

④ 2019년도 상반기

- 측정일: 2019. 3. 13.
- 측정 결과(납및그무기화합물) ·측정공정: 4회 / 최고치: 0.005mg/m³
- 발암성물질 노출 기준 초과: 없음
- ※ (공통)노출 기준: 0.05mg/m³

마. 청구인의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건강검진: 이력 없음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회신 문서에 의거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 확인 안됨

3) 기초 확인 사항

- 흡연: 현재 흡연중, 1일 0.5갑(본인 진술에 의거)
- 음주: 현재 음주중, 1회/한달, 1회 소주 0.5병(본인 진술에 의거)

4) 과거 산재 이력

- ① 재해 일자: 2018. 10. 26.

재해 경위: (사고성)규산호스 교체작업 중 호스가 터져 얼굴 및 눈에 들어감

신청 상병: (승인)양안의결막및결막낭화장(화학상) / 양안각막의이물

- ② 재해 일자: 2018. 12. 19.

재해 경위: (사고성)여러차례 넘어짐에 따른 무릎의 통증

신청 상병: (승인)우측 슬부 염좌 / 우측 슬부 활액막염

바. 청구인은 2023. 12. 1.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소견서에 기재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 후 최초진료 개시 : 2020. 4. 1. 13:55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 내원일 근래에 두통이 심하고 불면증, 복통, 변비 증상 있어 내원함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2020. 4. 1. / 두통, 불면증, 변비 등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환 상기 병명으로 2020. 4. 1. 시행한 본원 검사 결과 Pb(납) level 12.7로 toxic level에 있었음. 이후 정신적 불안 등 납중독 의심 증상은 있었으나, 납과 연관 짓지 못한 상태로 최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유지 중으로 당시 혈액검사 및 일부 증상 고려, 납중독에 의한 증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됨

나. ○○병원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을 다루는 회사에 3개월째 다니는데 최근 들어 두통 심하고 불면증, 복통, 변비가 생겨 납중독 여부 알고 싶어 내원함
- 검사 결과
 - 검체 명: Whole Blood
 - Lead(Pb): 12.7 μ g/L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지사 자문의 소견(2023. 3. 30. / 직업환경의학과)
 - 상병에 대한 검사결과 부족으로 상병 확인 불가

라. 2023. 6. 29.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2. 현 사업장에 입사, 상병 발병일까지 약 4개월간 페이로더(굴착기)를 이용한 폐건전지 등 납 폐기물의 운반, 투입 및 상·하차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20. 4. 1. 시행한 납(pb) 검사에 의하면 혈중 납 농도는 12.7 μ g/L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측정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2019년 상·하반기, 2020년 상·하반기)에 의하면 납및그무기화합물의 노출 정도는 그 기준 수치(0.05mg/m³) 대비 모두 10배 정도 낮은 수치로 확인되며, 화학물(발암성물질) 측정 결과 또한, 그 기준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상의학 자료와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 심의 시 제기된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중독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 사업장에서 페이로더(굴착기)를 이용한 폐건전지 등 납 폐기물의 운반, 투입 및 상·하차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20. 4. 1. 시행한 청구인의 납(pb) 검사에 의하면 혈중 납 농도는 12.7 μ g/L로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인구집단 대비 일부 높은 수치

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성인에게 중독증상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수치 및 청구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혈중 납농도: 혈액 100mL 중 40 μ g 이상) 또는 만성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해 보면, 납중독에 의한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혈중 납 농도(12.7 μ g/L)의 경우는 납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기에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혈중 납농도 수치, 작업내용, 작업기간,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납및그복합물의독성효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신경정신계 질병’ 중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말초신경병증 또는 평근 마비’가 발생한 경우, ‘급성 중독’ 중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mL) 중 40마이크로그램(μ g)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 -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폐건전지의 파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동 작업 수행 과정에서 납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심리에 참여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2020. 4. 1. 시행한 청구인의 납(pb) 검사 결과, 혈중 납 농도는 $12.7\mu\text{g/L}$ 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치로 보이는 하나, 이 정도 수치가 성인에게 중독증상을 유발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납중독에 의한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혈중 납농도: 혈액 100ml 중 $40\mu\text{g}$ 이상) 또는 만성 중독 기준으로 보아도 청구인에게서 확인된 혈중 납 농도($12.7\mu\text{g/L}$)의 경우는 납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혈중 납 농도 수치, 작업 내용, 작업기간,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말초신경병증 또는 껌근마비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ml) 중 40마이크로그램(μg)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 -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제12절 기타 질병

1. [2022-2552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 12.)

사건의 쟁점

항공사 승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청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고 기타 면역억제와 관련된 기왕증이 존재하지도 않아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총 비행시간의 약 46%가 우주방사선 피폭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노선을 비행하였으며 불규칙적 교대근무와 야간근무의 반복적 수행으로 면역계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역학조사에서 산출한 종 누적 피폭량은 12.87mSv로 많지 않으며 전리방사선 노출과 신청 상병 유발인자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 진단 시 연령이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전리방사선과 유해 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알려진 호지킨림프종의 발병 원인과 청구인의 근무 기간 대비 전리방사선 노출량, 발병 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2552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1. 9.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2. 17. 진단받은 ‘호지킨림프종’(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1. 2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9. 29.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3.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6. 2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근무 기간은 3년 8개월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역학조사에서 산출한 청구인의 총 누적 피폭량은 12.87mSv로 많지 않으며, 잠복기를 고려할 때 전리방사선 노출 이후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짧고,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 유발인자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진단 당시 연령이 호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와 신청 상병의 발병 간에는 명확히 밝혀진 근거가 없고, 역학조사 결과 청구인의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전리방사선의 노출량이 많지 않으며, 발병 당시 호지킨림프종의 호발 연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6.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객실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건조한 비행 객실 환경 및 각종 먼지 등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일이 잦았고, 주치의에 의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3개월 후에 신청 상병을 확정받았다.

나.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 자가면역질환 환자, 특정 약제(환경오염물질), 방사선 등이 지목되고 있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약 7배가 높은 발병 확률과 다른 직계가족에서는 약 3배 정도의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가족력이 없고, 기타 면역억제와 관련된 기왕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의 비행로그 기록을 분석해보면, 재직 간 총 비행시간 약 3,917시간 중 우주 전리방사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미주노선(북극항로 관련) 총 1,324시간, 북위 50도 이상을 올라가 비행하는 유럽노선 총 48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비행시간의 약 46%가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주방사선 측정 모델 CARI-6M 모델은 우주방사선의 주요 구성요소인 은하 우주방사선(GCR)과 태양과 흑점 활동에 기인하는 태양 우주방사선(SCR) 중 태양 우주방사선을 배제한 절름발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승무원들의 전리방사선 피폭량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다른 국제모델 및 국내 시험 운전 중인 Safe 모델을 포함하여 방사선 피폭량을 추정할 때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 관련 평가 소견서상 방사선 노출과 조혈기계 질환 사이에 선형 상관관계를 전제로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 의견이다.

마. 또한, 반복적인 불규칙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는 수면장애·생리주기의 변화·유방암 등 면역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청구인도 지속적인 역류성 식도염 및 비염 치료 경력이 상당하며, 청구인의 야간비행 시간은 총 비행시간의 약 33%인 1,309시간으로 신청 상병 발병의 직업 환경적인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항공기 탑승을 위해 임신부는 미시행할 정도로 해로운 엑스레이 보안 검사에 주기적으로 임해야 했고, 필연적으로 일반인보다 전리방사선 피폭에 노출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최근 기내 청소 시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 텔타메트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기내 청소 중에 식사하기도 하는 등 청구인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 더불어, 항공기 객실 기내환경은 지상과 달리 기압이 약 25% 정도 낮고 습도 또한 매우 낮은 편이며, 항공기 엔진 등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오존·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내 공기로 유입되며,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긍정적 언어 및 행동의 요구는 일종의 감정 노동으로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해당하기도 한다.

아.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전적으로 우주 전리방사선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의 작업 환경인 기내환경, 보안 검사, 시차 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업무상 질병 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주)○○○○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주방사선(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해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음”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6. 23.부터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상 근로관계 및 과거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지점

○ 사업 종류: 항공운수업

- 근무 기간: 2011. 6. 23.~2015. 2. 17.(약 3년 8개월) ←발병일까지
- 담당업무: 객실 승무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9. 8. 3.~2009. 12. 31. ○○○○○도 (담당업무 미상, 약 5개월)
- 2010. 6. 21.~2011. 3. 5. (주)○○은행(행원, 약 8개월)

다.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업무상 유해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주된 생산품: 항공운송사업
- 상시근로자: 18,000인
- 청구인의 담당업무: 객실 안전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
 - 운항 전 기내 점검: 객실 내 비상 장비/의료 장비 및 서비스 용품 탑재 점검
 - 안전 및 보안 점검: 기내 보안장비 점검 및 항공기 보안 검색, 기내수화물 탑재 상황 파악 및 승객 대상 안전 브리핑 실시
 - 고객 서비스: 좌석 안내, 기내 방송, 식음료 제공, 입국 관련 서류 점검, 기내면세품 판매 등
- 업무처리 흐름
 - (비행 전일) 18시 이후 객실 사무장이 비행간 임무 및 위치, 주의사항 등 내용 통보
 - (출발 1시간 45분 전) 객실 승무원 회의실시. 안전 업무, 항공기 정보, 승객 정보, 특별식 주문, 휠체어 이용 승객, 국적별 승객 분포 등 비행 정보 공유
 - (비행기 탑승 후) 서비스할 음식, 물품의 정상 탑재 확인, 비상 장비 점검, 보안 점검 실시. 탑승객의 탑승권 날짜 및 편명 확인, 좌석 안내, 짐 보관상태 점검, 편의용품

및 식음료 제공, 서류 작성 도움, 기내 판매, 조명조절 등

- (착륙 절차 및 착륙 후) 착륙 40분 전 방송에 따라 랜딩 준비, 착륙 20분 전 승객 안전상태 점검, 승객 하기 후 유실물 점검 및 비행 평가

○ 업무시간

- 청구인은 2011년~2015년 총 3,917시간을 비행하였는데 국제선 3,806시간 (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미주노선 1,595시간 및 유럽노선 486시간 (국제선 비행 중 55%)임

※ 미주노선 비행 1,595시간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한국 출·도착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임(청구인 주장 1,324시간)

- 총 비행시간 중 야간업무에 해당하는 야간 비행시간은 1,310시간임

○ 휴게시간

- 시차가 6시간 이상 발생하는 미주 및 유럽의 경우 비행 사이 24시간 또는 48시간 휴식, 국내 입국 후 2일 휴식
- 장거리 비행의 경우 운항 중 1회(사무장 재량에 따라 2회), 9시간 이상 비행 시 2시간 휴식 가능하나, 단·중거리 비행의 경우 휴식 불가능함

2) 업무상 유해 요인

(가) 북극항로 이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 북극항로

- 북위 78도 이북 지역에 설정, 북극해를 지나는 항로
- (주)○○○○의 미국 동부 노선의 귀국편에 주로 이용하며, 2018년 애틀랜타, 워싱턴, 뉴욕, 시카고, 토론토발 인천행 총 2,331회 운항 중 북극항로 운항은 1,621회임.
- 비행시간 단축으로 연료를 줄일 수 있고 그 무게만큼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 발생

○ 소속 사업장의 2018년 주요 피폭선량

- (주요 노선별) 뉴욕 → 인천의 북극항로 노선에서 평균 0.0871mSv, 최소 0.0653mSv로 타 노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최대 피폭선량)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뉴욕 → 인천(최대 0.1070mSv), 인천 → 뉴욕 (최대 0.1020mSv) 구간에서 더 높고, 전체적으로 미국 동부지역(뉴욕)을

오간 항로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높음

○ 소속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 (운항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22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5.51mSv
- (객실 승무원) 5년 평균 피폭방사선량은 2.92mSv, 최대 피폭방사선량은 4.88mSv
- 객실 승무원의 평균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것은 연간 비행시간의 차이(연간 최대 승무 시간 운항승무원 1,000시간, 객실 승무원 1,200시간) 때문임
- (관련 법령) 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함

※ 국토교통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개정(2021. 5. 24.), 관리 기준을 연간 50mSv(5년간 100mSv) → 연간 6mSv 하향

(나)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 노출

○ 보안 검색: 대인 검색 및 휴대품·수하물검색으로 분류

- (대인 검색) 사람이 문형 금속장비를 통과(20~30초)하고, 보안 검색 요원들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금속 물체를 탐지
- (휴대품·수하물 검색) 검색대상물이 X선 검색 장비를 통과(5~8초)할 때 X선을 조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함

○ 보안검색대: 문형금속탐지 장비와 X선 검색 장비를 통칭하며, 문형금속탐지기는 전자파 무해 인증을 받은 국제인 중 제품, X선 검색 장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기준치($5\mu\text{Sv/h}$) 이하로 관리 운영

(다) 기내 소독제 등 유해 물질 노출

○ 청구인(동료근로자) 주장

- 단거리 국제선(Quick Turn)시 승무원이 비행기 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청소실시, 소독제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볼펜 자국 등은 약제를 사용해 제거
- 국내선은 승무원 하기 전 방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비행기 탑승 후 소독/방역작업 냄새가 남아 방향제를 뿌리기도 했음

○ (주)○○○○의 기내 소독 현황

- (살균소독) 월 1회 MD -125 약제 사용

- (살충소독) 15일에 1회, 롱다운유제(물과 1:60 비율로 혼합) 사용, 약 20분 소요
- (기화소독) 42일에 1회, 롱다운플러스 약제(카놀라유와 1:3 비율로 혼합) 사용, 약 30분간 소독 후 출입구를 밀폐하여 90분간 정치, 이후 자연환기(60분) 또는 에어컨 환기(20분) 실시
- (스프레이 소독) 호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양주행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실시, 2% 페메트린 약제 사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살충제): 덱타메트린 각각 1.5%, 2.5% 함유. 2018년 이후 사용하지 않음
- MD-125(탈취제/세정제): 규제 대상 물질 없음
- 나투어킬파프유제(파리, 모기 등 구제용): 피레트럼(고용노동부 노출기준 5mg/m³) 4% 함유

라. 재해일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진료내용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대학교의과대학 ○○병원, 2015. 2. 17.)

- 현병력: 상기 28세 여환은 1달간 both supraclavicular palpable LN 주소로 내원함 Rt.는 있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Local 산부인과에서 breast SONO하면서 같이 목도 봤는데 LNs 있다고 했어요.

2달 전부터 피로감이 있고 몸살기가 있었어요. fatigue 1달 전부터 만져졌어요. 체중 변화는 없었습니다.

- 신체 검진: Lt. Lv IV mild hardly palpable LNs, non-tender, Rt. Lv III, IV Jugular chain multiple small palpable LNs.

○ 퇴원요약지(○○대학교의과대학 ○○병원, 2015. 6. 17.)

- 입퇴원정보: 2015. 5. 19.~2015. 6. 17.
- 주소: palpable both supraclavicular lymph node

- 과거력 및 현재병력: 상기 28세 여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1달간의 palpable both supraclavicular lymph node 주소로 local 내원 후 2015. 2. 17. further evaluation 위해 본원 감염내과 opd 경유 내원하여 r/o tuberculous lymphadenopathy 소견 하 2015. 4. 28.부터 HER anti-Tbc medication 시행하였고, 외래 경과관찰 하였으나 lesional expansion 되며 pain, cough, fever 악화 소견 보여 r/o paradoxical reaction, r/o resistant TB imp 하 2015. 5. 15. 시행한 neck CT 상 lesional aggravation 및 ant mediastinal mass like lesion 관찰되어 further w/u 및 proper management위해 입원함
- 검사소견: Hodgkin lymphoma(Nodular sclerosis) 2015-05-22 진단 CD30(+)
s/p supraclavicular fossa, left, US guided gun biopsy
anterior chest wall mass infiltrating cardiac border
s/p C25003 study(1-1 ABVD)(2015-06-02)
s/p C25003 study(1-2 ABVD)(2015-06-16~)
IPS in advanced Hodgkin disease(5)
Alb 2.7 / Hb 9.0 / stage IV disease / Leukocytosis / Lymphopenia
R/O TBc lymphadenitis
s/p Tubes 2015-04-07~05-06 → HER 05-07~05-26

마.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명세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5. 26.~2015. 2. 1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10회
- 2015. 1. 19. '급성 후두인두염'
- 2015. 2. 17.~2015. 2. 17. '국소림프절비대', 2회
- 2015. 3. 5.~2015. 5. 15. '결핵성 말초림프절병증', 13회
- 2015. 4. 9.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바. 청구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건강검진 결과

- (2014년) 혈압 104/63mmHg, 식전혈당 87g/dL, 혈색소 14.0g/dL, 콜레스테롤 관리
- (2013년) 혈압 101/67mmHg, 식전혈당 83g/dL, 혈색소 13.4g/dL, 저체중

○ 기타사항

- 흡연/음주: 없음
- 가족력: 없음

6. 의학적 소견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병원 주치의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나. 2018. 9. 28.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주치의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는 2011. 8월부터 2015. 1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약 3,900시간의 비행과 3,800여 시간의 국제선 비행을 수행하였음. 2015. 5. 22.경 시행한 조직검사 상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인 환자로 근로자 ○○○의 업무환경 및 노출수준과 근로자의 현재 질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①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은 ○○○는 약 3년 5개월의 시간 동안 3,800여 시간의 국제선 비행, 725시간의 북극항로 비행, 그리고 1,308시간의 야간비행을 통하여 다량의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었음. 또한 대륙 간 이동 비행 및 부족한 체류 시간으로 인해 시차 적응과 야근 근무에 높게 노출되었다.
- ② 1군 발암 인자인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 및 진행 촉진 인자인 시차, 야간/교대 근무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조혈기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조혈기계암의 일종인 호지킨림프종이 근로자 ○○○에서 발생하였다.

- ③ 호지킨림프종의 낮은 발생률로 역학연구의 의학적 근거는 적지만, 승무원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존재하며 생물학적 개연성도 존재한다.
- ④ 또한, 승무원 근무 외에 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킬 다른 의학적 원인은 없었다.
- 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근로자 ○○○에게서 발생한 호지킨림프종은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2019. 1. 8.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는 우주방사선 노출수준 평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라. 2021. 4. 16. 원처분기관에 회신 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 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가) 우주방사선 노출 평가

- (주)○○○○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 2011. 9. 17.~2015. 5. 17.(약 4년) 기간 총 누적 우주방사선 피폭량은 12.87mSv로 확인됨. 2012년~2014년 연평균 3.65mSv, 연간 최대 4.02mSv임
 - ※ 우주방사선 피폭량 산출을 위해 CARI-6M(미연방항공청 개발, 사용 권장) 예측 모델 사용.
- 인천 ↔ 뉴욕 구간의 우주방사선 실측
 - (인천 → 뉴욕, 북태평양항로) 평균 피폭량 Liulin 104.79 μ Sv(97.70~119.33 μ Sv), TEPC 77.96 μ Sv(76.26~79.66 μ Sv)
 - (뉴욕 → 인천, 북극항로) 평균 피폭량 Liulin 88.32 μ Sv(63.17~108.33 μ Sv), TEPC 74.14 μ Sv(63.53~86.11 μ Sv)
 - ※ 측정 장비 TEPC, Liulin 사용, 2019년 하반기 3회에 걸쳐 측정
- 청구인의 우주방사선 누적 피폭량
 - 우주방사선 실측치를 예측 프로그램 CARI-6M, KREAM, NAIRAS 산출 결과 북태평양항로 및 북극항로 모두에서 TEPC 실측치는 항공사 제출한 CARI-6M

피폭 수준과 유사하였고, LiuLin 실측치는 CARI-6M 산출값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총 6회 운항에 따른 실측 및 프로그램 결과 값으로 자료 수가 미미하고 NAIRAS 산출 값은 해당 기간 자료 미확보로 전체 경향성 파악에 한계가 있음

- 국토부(항공운항과)에서 수행한 우주방사선 실측 및 예측 프로그램 결과 자료 역시 충분한 자료 수 미확보로 인한 제한이 있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비행(약 4년) 중 우주방사선 노출된 총 누적 피폭량은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CARI-6M으로 산출한 12.87mSv로 확인함
- CARI-6M은 태양 흑점 활동에 기인한 태양 우주방사선을 배제한 모델로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극항로 이용 시 NAIRAS 산출 값이 CARI-6M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바 있으나, 미국 연방항공청(FAA) 권고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임
- 문헌 고찰에 따르면 적도지방의 경우 CARI-6M 산출 값이 NAIRAS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청구인의 비행로그기록 상 아시아 지역이 탑승이 약 32%로, 이들 지역에서 CARI-6M 산출 값은 극지방에서 관찰된 수준과 다른 양상일 것으로 추정됨

(나) 보안검색대의 전리방사선 평가

○ 방사선 노출 평가

- 평가대상: 국제선 승무원의 이용 횟수가 많은 ○○공항과 △△공항의 X선 검색 장비
- 평가 방법: 문형금속탐지기 기준 통과 전 대기 장소, 통과 후 보안요원의 신체검사 위치, X선 검사 후 수화물 찾는 곳 등 지점에서 검색 장비 모델별 측정지점 평균 방사선량률을 평가
- 평가 결과: 평균 방사선량률은 0.15 μ Sv/h로 공항 내에서 측정한 평균 자연방사선량률 0.16 μ Sv/h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안검색대 통과 시 전리방사선 피폭량은 자연방사선 피폭 수준으로 평가됨

(다) 기내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평가

○ 2018년 작업 환경 유해도 평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기화 소독 후 환기 방법에 따른 델타메트린(살충 성분) 농도 수준은 정치 시 평균 32~39 μ g/m³, 자연환기 실시 0~10분부터 1 μ g/m³ 미만으로 농도가 낮아졌고, 에어컨 환기 실시 15~20분부터 검출되지 않음
- 분무소독 시 델타메트린 평균 농도 수준은 개인 시료 0.29 μ g/m³, 지역 시료

0.11 $\mu\text{g}/\text{m}^3$, 롱다운유제에 함유(90%)된 시클로헥산은 검출되지 않았고, 1-브로모프로판이 검출되었으나 시트 교체작업 시 사용한 접착제에 기인한 것으로 90분 정치 시간 동안 평균 농도는 0.67 ppm, 15분 환기 후 평균 농도는 0.09 ppm 수준임

※ 평가대상: (주)○○○○ 여객기 보잉○○○기

○ 벌크시료 분석 결과

- 롱다운유제 및 롱다운플러스유제 시료 대상 분결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음

○ 청구인의 화학물질 노출 여부

- 상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에서 1-브로모프로판이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밖의 유기화합물은 노출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2)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호지킨림프종은 B림프구의 백혈구의 DNA 변화(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나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알려진 바 없으며, 직업적 유해인자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음

- 기존의 조종사나 승무원 혹은 항공 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도 호지킨림프종은 업무 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집단에 대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 청구인이 약 4년 미만의 비행 중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누적 방사선 피폭량은 12.87mSv로 이는 저선량 방사선(100mSv 이하의 낮은 선량의 방사선)에 해당함

- 암과 유전영향은 많이 피폭되면 더 높은 확률로, 적게 피폭되면 적은 확률로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암과 유전적 장애는 문턱값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음
-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나 호지킨병, 자궁경부암과 전립선암은 방사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전리방사선과 인체의 악영향은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나 저선량 방사선의 경우는 그 관계가 불분명함

○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최신 인과 확률 모형을 기본으로 한국인의 기저암 발생률 현황(2015년)을 반영한 인과 확률 산출 프로그램(KOSAH-PEPC Ver. 2.0)으로

전체 29개 암 범주에 대한 통계적 모형 및 불확실성 평가법을 확정함

- 제95백분위수는 인과 확률의 95% 신뢰 상한을 의미하며 대상자의 인과 확률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이고 이 값보다 클 가능성은 5%임
- CARI-6M으로 산출한 청구인의 누적 우주 방사선량의 KOSHA-PEPC Ver. 2.0 인과 확률 결과는 중앙값 0.0004%, 제90백분위수 0.0023%, 제95백분위수 0.0034%, 제99백분위수 0.0077% 임

3) 심의 결과

- 근로자 ○○○(여, 19○○년생)는 2015. 5월 호지킨림프종, 결정경화형(Hodgkin's lymphoma, nodular sclerosis)으로 진단받았음
- 근로자는 2011. 6. 23. (주)○○○○에 입사하여 객실훈련원을 거쳐 국제선 객실 승무원으로 2016. 8. 4.까지 근무하였음(2015. 8. 5.~2016. 8. 4. 휴직).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으로 3,917시간 비행하였고, 근로자가 가장 긴 시간 탑승한 항공기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노선으로 총 1,595시간 비행하였음
-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호지킨림프종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상 발암 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없음.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결과가 매우 부족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문헌 고찰과 실제 작업 환경 측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평균 누적 12.87mSv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을 이용하여 산출한 인과 확률의 중앙값은 0.0004%로 매우 낮았음.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 발생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고, 근로자의 진단 당시 연령이 상병의 호발 연령이며,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근무 중 미주노선 총 1,324시간(역학조사 상 1,595시간), 유럽노선 총 486시간을 비행하며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그 외 X-ray 보안 검색, 기내 청소 시 유해 물질 사용, 야간근무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호지킨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구인은 2011년 6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주)○○○○ 소속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재직 기간 중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노선 비행 등으로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무 기간은 3년 8개월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기간이 짧으며 역학조사에서 산출한 청구인의 총 누적 피폭량은 12.87mSv로 많지 않은 점, 잠복기를 고려할 때 전리방사선 노출 이후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 유발인자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단 당시 연령이 호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바. 심사기관의 자문의 2명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 상기 여환은 의무기록을 살펴볼 때,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이라고 판단됨. 환자가 진단받은 호지킨림프종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청구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리방사선의 경우 노출 기간, 피폭량으로 볼 때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림프종 유발인자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밝혀진 데이터가 없고, 환자의 호지킨림프종 발생 연령으로 판단해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2)** 청구인은 약 3년 8개월간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5년 2월 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아 산재 요양 신청함. 청구인은 객실 근무에 따른 전리방사선 노출, 야간작업, 일주기 변동에 의한 신청 상병의 발생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와 호지킨림프종의 발병 간에는 역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할 때 전리방사선의 노출량이 높지 않고 호지킨림프종의 호발 연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심사기관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 X-ray 등의 유해물질과 야간비행 및 시차 적응에 따른 일주기 리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은 항공사 객실 근무에 따른 전리방사선 노출, 야간비행, 일주기 변동 등에 의한 신청 상병의 발생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와 호지킨림프종의 발병 간에는 명확히 밝혀진 근거가 없고, 역학조사 결과 청구인의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전리방사선의 노출량이 높지 않으며, 발병 당시 호지킨림프종의 호발 연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원처분기관은 요양기관의 주치의가 진단한 상병 명과 재해 경위, 상해 부위, 시간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에 대하여 요양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주 전리방사선 피폭과 열악한 작업 환경 내 각종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전리방사선과 유해 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알려진 호지킨림프종의 발병 원인과 청구인의 근무 기간 대비 전리방사선 노출량, 발병 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종괴종
-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종괴종
-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결굴[부비동(副鼻洞)]암
-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사. 검맹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결막암
-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 버.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2. [2023-1681 일부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10.)

사건의 쟁점

약 36년간 기관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목소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성대용종(결절)과 목소리 장애가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약 11년간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하게 성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고 기관사 경력 이후 25년을 관제사 및 관제 부장 업무를 보면서 과도한 목사용을 반복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일부 위원의 경우 청구인이 사내 강의 등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새로운 사업 발표와 교대제 근무 등의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사유보다는 개별적 발성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목소리 장애는 증상이므로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성대용종의 경우 청구인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 누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처분을 일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6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 명 ‘성대용종(결절)’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사(철로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 28. 진단받은 ‘성대용종(결절), 목소리 장애’(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7. 1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 10. 18.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3. 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4. 2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1) 제출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상병 ‘성대용종(결절)’은 확인되나 ‘목소리 장애’는 증상에 해당하므로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2) 청구인이 사내 강의, 해외 출장 발표, 안전 교육 등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새로운 사업 발표와 교대제 근무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강의 등 업무 내용이나 목소리 사용 시간, 크기 등을 감안하면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사유보다는 개별적 발성 방법의 문제로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수행한 업무 내용상 일부 목에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나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고성으로 발성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약 11년간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며, 시끄러운 소리의 디젤기관차나 전기기관차의 운전실 내에서 기관사와 부기관사, 외부(다른 열차, 기차역 등과 무선 통화)와 소통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근무시간 내내 소음이 심한 차 안에서 생활하므로 무리하게 성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이었다. 기관사 경력 이후 25년을 관제사 및 관제 부장을 업무 시에도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제사 역량향상 및 사고 발생 대비 대응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과 신규 관제사 양성을 위한 ○○○개발원 출강업무도 수행하였다. 사내 교육은 교통 소음이 늘 발생하는 철도와 인접한 관제센터에서 진행하였고, 사외 교육도 마이크 보다는 육성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실습 위주의 강의를 많아 목소리 사용량과 강도(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강의 중 목이 아파 따뜻한 물을 마시며 버텨내곤 했다.

다. 진단 한 달여 전인 2021년 12월부터 청구인은 ○○ 관제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근무지인 ○○과 본사인 △△을 오가며 대외사업과 관련한 많은 회의와 발표 연습을 병행하였는데, 2022. 1. 25. 강의 중에 발생한 통증이 극심하여 2022. 1. 28. ○○대학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라. 2022. 1. 28. 좌측 성대 폴립 진단을 받고 2022. 3. 15. 성대 폴립 제거술 등을 하여, 목소리 사용을 자제하고 안정 치료하여야 했으나, 2022. 4. 10.부터 2022. 4. 17.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던 ○○ 관제센터 건립 등을 위한 착수보고 회의 프레젠테이션과 ○○ 관계부처 등과의 업무협의 등으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에 계속 참여하여야 했다. 발표 및 회의 도중 성대 통증으로 회의 주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으나, PM이라는 책임감으로 약을 먹으며 남은 일정을 소화하였다.

마. 귀국 후에도 그동안 밀린 고유 업무와 주 2회에서 3회 정도의 강의로 목 사용이 계속되었고,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병가를 반복하다 2022. 5. 24. 최초 진단 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우측 성대에서도 용종이 발견되었으며,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결국 입원 치료를 위해 휴직하게 되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조사서상 적시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사내 강의를 위해 2022. 1. 25. 09:00~16:00 강의 중 목 통증 발생, 2022. 1. 28. ○○대학교 ○○병원 방문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재방문 검사 결과 성대 폴립으로 인한 염증 유발 확인, 2022. 3. 15~2022. 3. 17. 수술 시행 일시 호전 되었으나 4. 10.~4. 17. 회사업무로 해외 출장 중 발표 회의 주재로 악화, 국내 복귀 후에도 안전 교육 시행, 신규자 교육 시행 등으로 극심한 통증 및 음성변조 계속됨. (최초 내원 일자를 재해 일자로 입력함)

2)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에 적시된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업력

- 2019. 7. 1~2022. 8. 15. / 일자리창출단 부장 및 사업소장
- 2005. 1. 1.~2019. 7. 1. / 철도교통 관제사, 선임관제사
- 1997. 11. 20.~2005. 1. 1. / 철도교통 관제사
- 1986. 9. 10.~1997. 11. 20. / 열차 운전

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 내용

- 근무시간: 09:00~18:00(야간근무, 월 10회, 19:00~다음날 0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 형태: 3조 2교대
- 담당업무: 관제 부장(약 110명의 관제사 근무 관리, 관제사 역량향상 및 사고 발생 대비 대응 강화를 위한 지시, 교육, 조언, 근무상황 점검, 사내 출강)
- 업무흐름도

| | |
|------|---|
| 주간근무 | 09:00 업무인수인계, 출근상황 점검→ 09:30 선임관제사 회의→ 10:00 ~12:00 관제사 면담, 교육 등→ 12:00~13:00 점심 식사→ 13:00~19:00 사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업무지시, 업무미숙 교육 등 |
| 야간근무 | 19:00 업무인수인계, 출근상황 점검→ 19:30 선임관제사 회의→ 20:00 ~24:00 각 관제사 차단 작업 점검, 열차 통제상황실 점검, 권역별 비상 대응 훈련 주제→ 24:00~04:00 수면→ 04:00~05:00 휴게시간→ 06:00~09:00 열차 출고 상황, 관제사 근태관리, 업무 보고 등 |

(2) 작업 환경

○ 발병 원인에 대한 청구인 의견

- 2008년~현재 / ○○○○개발원 강의(총 3,200시간)로 인한 성대 피로 누적
- 1997년~2019. 6. / 약 22년간 관제사 업무로 인한 성대과로
- 2022. 3. 15.~2022. 3. 17. / 성대 수술 이후, 해외 출장, 관제사 교육, 신규자 교육 등 성대 피로 누적

○ 2021. 1월~2022. 1월 근무 내역

- 2021. 1.~2021. 6. / ○○ 승무사업소 근무 중, 운전, 열차 매월 2회 안전 교육 시행, 사고 발생 시 수시 교육
- 2021. 7.~2022. 1. / 관제센터 관제 부장, 8권역, 초대응 훈련 주제, 직원 역량 교육, 안전 교육
- 2022. 1. 25. / 철도교통관제사 재직 신규자반 13명, 6시간, ○○○○개발원
- 2022. 4. 11~2022. 6. 30. / 철도 관제센터 3명, 신규자 전임교육, 이론 및 기능강의 주2~3회, 1일 2시간 진행
- 2022. 5. 16, 18, 20. / 철도교통관제사 290명 1시간, ○○관제센터 교육실
- 2022. 6. 13, 15, 17. / 철도교통관제사 285명, 1시간, ○○관제센터 교육실
- 2022. 5. 12. / ○○철도 관계자 안내 시행 15명, ○○관제센터

○ 교육 강의실적

- 강의실적: 2008년~2020년 12월 / 총 3,200.17시간 강의
- 철도 안전 교육 실적: 5월 철도 안전 교육 대상 290명, 6월 철도 안전 교육 대상 285명

○ 해외(○○) 사업 관련 발표 실적 자료

- 2021. 12. 3. / 비대면 화상회의
- 2022. 2. 18. / 비대면 화상회의
- 2022. 2. 24. / ○○ 철도교통관제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관리 보고회
- 2022. 4. 10.~4. 17. / ○○철도 교통관제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철도교통경쟁력 강화사업 착수보고회

3) 청구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 진료 일자 | 의료기관명 | 내원일수 | 상병명(내원일수) |
|-------------------------------|-----------|------|--|
| 2014. 2. 8.~ 2014. 4. 12. | ○○이비인후과의원 | 11 | 급성 후두기관염(11) |
| 2015. 1. 23.~ 2016. 9. 19. | ○○이비인후과의원 | 6 | 급성 후두기관염(2),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1), 급성 후두염(3) |
| 2017. 5. 16.~ 2017. 8. 29. | ○○이비인후과의원 | 6 | 급성 후두인두염(5),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1) |
| 2018. 7. 24.~ 2018. 12. 1. | ○○이비인후과의원 | 2 | 급성 후두염(2) |
| 2019. 2. 21.~ 2019. 5. 16. | ○○이비인후과의원 | 1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1), 후두의 이물, 성대의 소결절(1) |

4)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상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래경과, ○○대학교○○병원, 2022. 1. 28. 〉

- 2013년 laryngoscopy: secretion(+) PCH(+) leukoplakia(+)
- 3주 전 코감기 있는 후부터 hoarseness 발생하여 내원한 분으로 Lt VC nodular mass 소견 보여 의뢰
- 3주 전 whitish rhinorrhea 발생, 약 복용 후 호전됨

- voice abuse(+) ○○○○관제센터 관리, 강의, 소리를 지르거나 강의를 많이 했을 때 voice change 있었으나 바로 호전되었음
- Ex-smoker(+) 6~7년 전 quit

나.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3. 8. 10. 자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 신청서상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2. 7. 1.〉

- 재해 후 최초진료 개시: 2022. 1. 28.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평상시 음성 사용량 많은 환자로 좌측 성대폴립 제거술 시행. 이후 강의 후 음성 악화 지속되어 내원
- 주요소견: 후두경검사(수술 반대 측 성대의 작은 폴립)/ 음성 검사상(주파수 및 진폭 유지 안 됨)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2. 7. 12.〉

- 평상시 많은 음성을 사용하는 환자로 2022. 1. 28. 음성 사용 후 목소리 변화로 내원, 검사상 좌측 성대폴립 진단됨. 2022. 3. 15. 입원하여 2022. 3. 16. 전신 마취하 좌측 성대폴립 제거술 및 스테로이드 후두 주입술 시행하고, 2022. 3. 17. 퇴원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2022. 5. 24. 음성변화로 다시 내원하여 수술 반대편 측인 우측 성대폴립 진단됨. 이후 과도한 음성 사용 시 지속적인 음성변화 및 발성 시 피로함 호소하여 경과관찰 예정임. 금일(2022. 7. 1.) 시행한 음성 검사상 지속적인 음성 유지 시 일정한 음성 유지가 잘 안 되는 소견 관찰됨. 향후 12주간의 음성 휴식 필요하며, 주 1회 이상 음성 치료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이비인후과 자문의 소견은 “성대용종에 의한 목소리 변화로 성대 용종은 확인됨. 재해와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여 질판위 의뢰 바람”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상병 ‘성대용종(결절)’은 확인되나, ‘목소리 장애’는 증상에 해당하므로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은 사내 강의, 해외 출장 발표, 안전 교육 등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새로운 사업 발표와 교대제 근무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청구인의 강의 등 업무 내용이나 목소리 사용 시간, 크기 등을 감안하면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심사기관 진료과목별 자문의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이비인후과): 업무에 의한 강의를 원인으로 성대용종 및 결절을 신청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의한 시기는 2021. 6. 30.~2022. 2. 25.이었으며, 수술은 2022. 3. 16.에 하였으며 2022. 5. 24.에 재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강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원인이 된다면 2022. 5. 24.에 재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 발성 방법의 문제로 발생한 질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청구인은 ○○○○에서 열차 운전(1986. 9.~1997. 11.), 관제사(1997. 11.~2019. 6.)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 일자리창출단 부장, 사업소장 등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목소리 장애, 성대용종(결절)’을 진단받고 산재 요양 신청함.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상 강의 진행 시 일부 목에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나 강의 시간 및 빈도, 종사 기간을 고려할 때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고성으로 발성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마.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상 사유보다는 개별적 발생 방법의 문제로 발생한 질환으로 보이고 수행한 업무 내용상 일부 목에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나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고성으로 발생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13호에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과도하게 목을 사용하는 업무를 지속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 ‘성대용종(결절)’은 상병 인지되고, 청구인이 주된 업무인 관제사 외에도 사내·외 강의, 해외 발표 준비 등을 수행하며 목 부위 누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목소리 장애’는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성대용종(결절)’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상병은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2023-2880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20.)

사건의 쟁점

취부와 용접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며 전리방사선과 용접 흠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이하선(침샘) 악성종양 및 경부림프절 전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별도의 차폐시설 및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비파괴검사 중 발생하는 상당 수준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이것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작업 과정 중 용접 흠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용접 흠은 이하선(침샘)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바 없고 비파괴검사 공정에서 방사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파괴검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노출되었을 방사선의 양, 수준 및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많거나 높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의학적으로 용접 흠이 침샘암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아 높은 수준의 방사선량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88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9. 12. 30. 진단받은 ‘이하선 악성종양, 경부림프절 전이’ (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1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5. 9.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7. 2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이하선 악성종양' 및 '경부림프절 전이'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객관적인 자료상 1984. 11. 23.부터 2008. 12. 31.까지 약 24년 1개월 동안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교량용 철판 및 박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취부와 용접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용접 흠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접 흠은 이하선(침샘)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비파괴검사 공정에서 방사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파괴검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노출되었을 방사선량, 수준 및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많거나 높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파괴검사 대상물과 4~10m 정도 떨어진 근접한 거리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별도의 차폐시설 및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비파괴검사 중 발생하는 상당 수준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방사선 노출이 누적된 결과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1) 청구인이 근무했던 1984년~2008년 당시 작업장에는 수십 mSv의 방사선

피폭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누적된 방사선 선량의 노출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암 발생위험이 증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아무리 낮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발암 요인과 우연히 부딪혀 일어나는 유전적 손상에 의해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출 용량이 적다는 것은 그 확률이 줄어들 뿐이므로 발암물질에 있어서는 ‘가능한 노출을 낮게’하는 것이 그 관리의 원칙이다.

나. 과거 방사선투과검사 업체들의 안전규제 위반 현실과 비파괴검사 중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단순히 청구인이 비파괴 검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없었다거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노출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침샘암과 흡연·음주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다른 두경부 암종과 달리 유일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과거력이 침샘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려진 점을 보면, 장기간 전리방사선 노출 이력 이외 청구인의 침샘암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기록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주)○○○○, ○○조선 등의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인 교량박스 제작과 선박건조 작업에 필요한 취부 작업, 용접 작업(아크, CO₂, 산소), 사상 작업(용접수 슬래그를 제거), 절단 작업을 32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작업 수행 중 비파괴검사인 방사선투과검사에 의한 전리방사선 및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음. 2011년 확인되었던 이하선종양의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2019. 12. 30. ○○병원에서 조직검사 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과거 근무력에 대해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 종류: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 사업장 주소: ○○시 ○○구 ○○로 ○○○

○ 고용정보

- 담당업무: 취부, 용접, 사상 및 절단교량용 후판 교량박스 제작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기간: 1984. 11. 23.~2008. 12. 31.(약 24년 1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48시간(6일 근무)
- 휴식 시간: 점심 60분

□ 근무이력

○ 주식회사○○○○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 사업장 근무 이력

※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32년 4개월 동안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근무기간 | 사업장명 | 작업내용 | 근거 |
|------------------------------|-------------------|---------------------|------------------|
| 1981년~1984년 (약 4년) | (주)○○ (◇◇협력업체) | 사업장 청소 | 청구인 진술 소득금액증명 |
| 2009년~2011년 (약 3년) | (주)○○조선 외 | 취부, 용접, 사상, 절단 등 | 소득금액증명 |
| 2011년~2014년 (약 1년) | (주)○○디자인 외 | 취부 | 소득금액증명 |
| 2016년 9월 (약 18일) | (주)○○○○테크 외 | - | 소득금액증명 |
| 2021. 7.~2021. 8. (약 2개월) | ○○토건(주) | 취부 | 소득금액증명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11. 10.~2021. 8. 동안 일용근로일수 총 306일이 확인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 물질 노출 외 사업장 이력

- 2015년(약 10일), (주)○○세상/담당업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근거: 청구인 진술 및 소득금액증명)
- 2016. 2. 12.~2016. 5. 31. /○○관리(주), ○○관리사무소/경비(근거: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3) 청구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주)○○○○'에서 대교 건설 시 사용하는 교량박스 제작을 위해 원자재 절단 작업, 교량박스 제작을 위해 원자재 절단 작업, 교량박스 내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용접 슬래그 제거 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 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주)○○○○' 및 '○○조선'에서 수행한 업무는 거의 동일하며 취부, 용접, 사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서는 1주일에 4~5회(1회당 4~5시간)의 비파괴 검사(방사선투과검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비파괴검사 대상물로부터 반경 4~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별도의 분리장치 없이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음
- 생산현장은 취부, 용접, 사상, 비파괴검사 등 각종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동시에 수행되므로 다른 작업자의 작업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다 같이 노출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교량박스 또는 선박블럭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자가 방사선 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거의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하며 방사선투과검사 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음. 약 27년 이상 방사선투과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시 직·간접적으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됨
- 용접 작업 과정에서 교량박스 및 선박블럭 제작업무를 31년 4개월의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리방사선, 물리·화학적 유해인자, 금속분진, 가스 및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음
- 용접 작업 등이 끝나면 그라인더, 망치 등을 이용하여 용접 후 발생하는 용접슬래그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상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인자인 용접 흄의 주요 성분인 산화철, 크롬, 니켈, 망간 및 이산화규소 등의 분진에 노출되었음

〈 청구인 확인서 중 일부 발췌 〉

| |
|---|
| <p>질문 : 귀하의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p> <p>답변 :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밀폐 <input type="checkbox"/> 고열 <input type="checkbox"/> 한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소부족 <input type="checkbox"/> 습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냄새</p> |
| <p>질문 : 귀하의 업무내용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무엇이 있나요?</p> <p>답변 : <input type="checkbox"/> 식전에 노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몰타르피치, 라몬-222, 카드뮴,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리방사선에 노출</p> |
| <p>질문 : 귀하의 근무 당시 귀사의 작업공정 중 상기물질에 물질에 노출시 근무(1일)중 평균노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p> <p>답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거의없음 <input type="checkbox"/> 일일2시간 이내 <input type="checkbox"/> 일일2~4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일 4시간 이상</p> <p>가스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거의없음 <input type="checkbox"/> 일일2시간 이내 <input type="checkbox"/> 일일2~4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일 4시간 이상</p> <p>증기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거의없음 <input type="checkbox"/> 일일2시간 이내 <input type="checkbox"/> 일일2~4시간 <input type="checkbox"/> 일일 4시간 이상</p> <p>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거의없음 <input type="checkbox"/> 일일2시간 이내 <input type="checkbox"/> 일일2~4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일 4시간 이상</p> |
| <p>질문 : 귀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떤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나요?</p> <p>답변 : 면마스크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업무수행에 불편하여 착용하지 못했습니다.</p> |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 사업장 확인서(일부 발췌)

- 청구인은 판넬 조립공정에서 작업을 진행함. 해당 공정 관련하여 방진마스크(1급),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을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경우 해당 공정에 발생하는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비파괴검사의 경우 판넬 조립공정 다음 2가지 공정 이후에 진행되며, 공장 외부에서 검사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음
- 재직 중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며 실질적 작업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었음

〈 보험가입자 확인서 중 일부 발췌 〉

질문 : 신청인 근무 당시 귀사의 작업과정 중 상가물질에 노출 시 근무(1일)중 평균 노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먼지 : 없음
- 가스 : 없음
- 증기 : 없음
- 흙 : 일일 2~4시간

질문 :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공정으로 어떻게, 얼마나 노출되나요?

답변 : PANEL 조립 공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노출 기준 미만으로 노출

질문 : 신청인의 작업장소 중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이 있습니까?

답변 : 없음

질문 : 신청인이 작업하는 공간은 환기시설이 있습니까?

답변 : 있음 (사업장 내 환풍기 설치, 작업 시 배풍기 가동)

질문 : 귀사는 작업공정의 유해요인을 노출을 막기 위하여 작업 보호장구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나요?

답변 :

- 작업 보호장구 : 개인 보호구 지급 (안전모, 보안경, 청력보호구, 보안면,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등)
- 설비 : 환풍기, 배풍기

질문 :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떤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나요?

답변 : 안전모, 보안경, 청력보호구, 보안면,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4) 원처분기관이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관련 전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회신받았다.

○ 업무 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

- 2020년 1월 이하선(침샘) 악성종양 진단받았음. 진단 당시 만 67세. 의무기록상 “15년 전부터 좌측 이하부 종양, 2011년 수술 권유받았으나 임의로 취소, 당시 FNAC 상 Atypical cell”이라는 내용이 있음
- 침샘암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음주, x-선과 감마선이 있고, 동위원소(요오드-131)는 제한적인 근거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침샘암 위험인자로서의 방사선(x-선)은

두경부 항암방사선 치료 이력과 같이 높은 수준의 방사선량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하는 것임

-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 교량용 철판/박스 제작을 위해 취부/용접/사상/절단 작업을 수행함. 직접 비파괴검사를 한 것은 아니나, 수행하는 공간에서 4~10m 거리에서 비파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임
- 비파괴검사 작업자가 아니라면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노출수준이나 빈도, 조사 부위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관련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 추가적인 전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5)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비인후과 외래초진기록(진료일자: 2019. 12. 30.)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 신경과 외래초진기록(2020. 1. 2.)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6) 청구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이력과 2012년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수진 이력

- 2012. 11. 10.~2022. 9. 8. (수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4. 6. 14.~2020. 1. 2. (4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5. 1. 13.~2015. 3. 19. (수회) 중풍후유증, 뇌경색증의 후유증(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2015. 12. 9.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검진일자: 2012. 11. 14.)

- 종합판정: 유질환자
- 생활습관: 흡연, 음주 개선필요
- 폐결핵, 흉부질환 영상검사(흉부 방사선검사): 정상
- 소견 및 조치사항: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합니다.

7) 기타 사항 관련,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 2012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20개비, 30년
 - 음주력: 1주일에 3일, 6잔
- 청구인 확인서(2023. 2. 17. 작성)상 기록된 흡연력 및 음주력

질문 : 귀하의 음주 및 흡연 유무

| 답 변 | 흡 연 유 무 | | 음 주 유 무 | |
|--------|------------|-----------|---------|-----------|
| | 현재 흡연 여부 | 유 | 현재 음주여부 | 유 |
| | 흡연량 | 하루 기준 6개비 | 음주량 | 소주 반 병 |
| | 흡연기간 | 40년 이상 | 음주기간 | 40년 |
| | 과거흡연 : | 년도 이후 금연 | 1회 음주량 | 소주 기준 반 병 |
| | 과거 흡연시 흡연량 | 하루 기준 6개비 | | |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 10. 20.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 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2. 11. 9. 〉

- 재해 후 최초진료 개시: 2011. 8. 4. 타 의료기관(○○○병원)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9. 12. 30.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15년 전 좌측 이하부종양으로, 2011년 ○○○병원 내원 수술 권유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취소 후 (최근) 2개월간의 종물 크기 증가와 감각저하로 2019. 12. 30. 내원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2010년, 경부종물 증상
- 주요 검사: X-Ray, CT, MRI, PET, 초음파, 조직
- 상병 명: 주, C07 이하선 악성종양 / 부, C770 경부림프절 전이
- 종합소견
 - 2020. 1. 9. 좌측 이하선 아전절제술 및 좌측 림프절절제술 시행 후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 진행한 분으로 정기적 외래추적 관찰중에 있음
- 수술: 2020. 1. 9. 좌측 이하선 아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림프절 광청술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업무상 질병 판정서, ○○-2023 판정 제○○○호, 2023. 5. 3. 〉

- 청구인은 약 32년 4개월 동안 교량박스 및 선박블럭 제작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리방사선, 물리·화학적 유해인자, 금속분진, 가스 및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이하선 악성종양' 및 '경부림프절 전이' 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은 1984. 11. 23.부터 2008. 12. 31.까지 약 24년 1개월 동안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됨

-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교량용 철판 및 박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취부와 용접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용접 흠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접 흠은 이하선(침샘)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비파괴검사 공정에서 방사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파괴검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노출되었을 방사선량, 수준 및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많거나 높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 따르면 ‘직업성 암’은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병 백혈병’ 등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교량용 철판 및 박스 제작을 위해 자재 절단, 취부, 용접,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금속분진, 유해인자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청구인이 장기간 교량용 철판 및 박스 제작을 위한 자재 절단·취부·용접·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 흠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용접 흠이 침샘암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지도 않아 침샘암 위험인자로 작용할만한 높은 수준의 방사선량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기타요양

제1절. 재요양

제2절. 진료비 · 요양비

제3절. 진료계획

제1절 재요양

1. [2022-2688 취소]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 19.)

사건의 쟁점

치료 종결 후 족관절 탈구 등 관련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더욱 상태가 악화하여 족관절 유합술이 필요한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받아 좌측을 먼저 수술하였고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우측까지 수술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X-ray 상 관절 간격이 유지되고 있고 나이를 고려할 때 족관절 유합술 보다는 가능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요양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청구인의 의학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양측 족관절에 병변이 있음은 명백하고, 좌측에 비하여 우측이 현격히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젊은 나이에 양측 모두 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만큼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2688호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2. 23.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2. 16.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과 이후 추가로 진단받은 ‘우측 하퇴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하퇴부 비골신경 손상’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1. 3. 31.까지 1차

치료 종결한 이후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21. 12. 15. 까지 2차 치료 종결 후 승인 상병이 재발 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2. 2. 3. 원처분기관에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2. 23. 재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5. 1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X-ray 상 관절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 족관절 유합술보다는 가능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의학 영상자료 상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고, 나이를 고려할 때 우측 족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바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요양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3년 전부터 주치의와 관절 통증에 대해 상의하여 미루다 1년 전에 발목관절 통증이 너무 심하여 수술하기로 하였으나, 한꺼번에 두 다리를 하면 아무 생활이 되지 않으니 한쪽 씩 각각 하기로 하고 좌측 다리 수술을 하였고, 그 후 오른쪽 다리에 발목관절 통증이 더욱더 악화하여 잘 서 있지도 못하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특히, 밤에 잘 때는 쿵쿵 찌시는 느낌과 피가 안 통하는 느낌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 주치의는 당뇨가 심해 인공관절은 아예 녹아내릴 수 있어 안 되고 유합술뿐인데 아직 젊으니 조금만 참아보자는 소견을 3년 전부터 밝혔으며, 1년 전 좌측 수술 뒤 한쪽으로 힘을 주고 목발을 짚으니 오른쪽 다리가 더욱 악화하여 고통을 이길 수 없어 주치의와 상의하여 오른쪽에도 유합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심사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 2021년 7월 왼쪽 발목 유합술로 왼쪽의 통증은 사라졌으나 이후 오른쪽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주치의는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자고 하였으나 2022년 1월 발목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 2월에 오른쪽 발목 수술도 하게 된 후에는 아프지 않게 되었으나 현재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매일 앉아서 일하여도 승객의 짐이라도 조금 도와주면 그날 밤에는 발목의 통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한 시간 정도는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 주치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심한 스트레스와 온몸이 아프고 실의에 빠진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양쪽 발목 중 먼저 수술한 좌측은 승인하고 상병 상태가 더 심한 오른쪽은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젊은 나이에 재해를 입어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우측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와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에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 차량기지 맨 안쪽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내리다가 블록이 무너져 내리면서 양 하지가 깔려 119로 ○○ 병원으로 이송됨.”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상병 승인 이력은 다음 내용

으로 확인된다.

| 구분 | 상병 명 | 결과 | 처리일 |
|-------|---|----|--------------|
| 최초요양 |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 승인 | 2010. 1. 14. |
| 추가 1차 | 우측 하퇴부 비골신경 손상 | 승인 | 2010. 4. 8. |
| 추가 2차 | 좌측 하퇴부 비골신경 손상 | 승인 | 2010. 5. 6. |
| 재요양 |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 승인 | 2021. 7. 27. |

다.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및 장애등급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요양 관련 〉

- 승인 상병
 -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 (추가) 우측 하퇴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하퇴부 비골신경 손상
- 요양 승인 기간: 2009. 12. 16.~2011. 3. 31.
- 주요 수술내용(○○대학교부속 ○○병원)
 - 2009. 12. 17.
 - 우측 족관절 경비골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 및 외고정
 - 좌측 경골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
 - 2010. 1. 8. 양측 족관절의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 장애등급 결정
 - 치유일: 2011. 3. 31.
 - 장애등급: 조정 제8급

〈 추가 상병 및 재요양 관련 〉

- 승인 상병: (추가)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2021. 7. 20. 신청)
- 재요양 신청 사유: 좌측 족관절 유합술
- 승인 사유: 골절의 변형 유합과 골수염 등으로 인하여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좌측 족관절 유합술 시행함이 타당함(자문의 소견)
- 요양 승인 기간: 2021. 4. 7.~2021. 12. 15.

- 주요 수술내용(○○대학교부속 ○○병원)
 - 2021. 7. 8. 좌측 족관절의 관절유합술 및 골 이식술
- 장애등급 결정
 - 치유일: 2021. 12. 15.
 - 장애등급: 조정 제6급(좌측 발목관절 유합, 우측 발목 운동범위 75도)

라. 청구인은 심사기관에 2022. 4. 4. 자 동료 근로자인 강○○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1. 10. 1. 입사 당시 양쪽 다리의 불편함을 고지하였고 택시 운전 시 이상 없다고 판단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성실히 근무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배려도 깊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늘 걷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하러 애쓰는 날은 다리 통증으로 인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였음
- 노동조합에서 1년에 한 차례 조합원 수련대회를 실시하는 데 불편을 감수하고 참석 하나 걷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였으나 동료들에게 누가 될까 봐 내색하지 않고 혼자 숙소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10년 넘게 보았음
- 그래서 청구인에게 수술부터 하라고 강력히 권유하였고 본인도 받아들여 한쪽 다리를 수술받고 힘들게 견뎠고, 혼자 거동도 불편한 상태로 회복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힘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아파도 참는다고 수술을 미루려는 걸 설득하여 수술하였음
- 현재 혼자 집에서 힘들게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산재 불승인이 났다고 하여 동료로서 의견을 제출함
- 통증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불편해 왔고 개인적 어려움도 많아 미루던 치료를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술을 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은 청구인의 입장을 헤아려 청구인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재요양을 승인하여야 할 것임

마.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2022. 7. 4. 자 ○○병원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6. 의학적 소견에 후술한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병원의 주치의 소견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재요양 소견서, 2022. 2. 3. 〉

-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상병 명: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 호소하는 증상: 수술 안 한 다리가 많이 아프다. 수술하고 싶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Shoes modification: 굽 올리세요.
 - 수술적 치료를 하려면 당뇨 때문에 arthroplasty 할 수 없어 fusion 해야 합니다.
 - 양발을 fusion 하면 걷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 adm & op - fusion!! (2/8 adm & 2/10 op) (제일 plate), 집이 멀어서 입원 해서 Lab, 협진 시행, PCA는 같은 regimen으로 시행하세요.
 - 발목을 굳히면 무릎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 당 조절 잘하고 내원하세요.
- 예상 기간
 - 2021. 12. 27. 통원 1일, 2022. 1. 24. 통원 1일, 2022. 1. 27. 통원 1일
 - 2022. 2. 8.~2022. 2. 24. 입원 17일(수술 및 수술 후 안정 필요함)
- 수술(예정)일: 2022. 2. 10.

〈 소견서, 2022. 2. 28. 자, 심사기관 제출 〉

- 병명: ① 발목의 폐쇄성 골절, ② 골관절염, 발목 및 발, ③ 말초신경병증(원위 대칭적)(선택적 소섬유)(감각 운동) 동반한 상세 불명의 당뇨병, (양측 족관절의 후 외상성 관절염)
- 소견: 2009. 12. 16. 양측 하지의 개방성 분쇄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후 양측 족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에 대해 보존적 치료 및 추시 시행하다 약 3년 전부터 통증이 악화하여 좌측에 대해 2021. 7. 8. 관절유합술을 시행하였음
 - 우측에 대하여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였으나 개방성 골절 과거 병력, 외상 후 연부조직 유착 및 반흔 변성에 의한 위험성, 2022. 1. 24. 시행한 HbA1c가 8.5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말초신경병증 동반 등으로 인공관절 성형술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51세의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물 및 활동 제한 등 보존적 치료 지속을 권유하였음

- 그러나 체중부하 시 발목 통증 악화로 수술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었고, 양측 족관절 유합술 후 보행이나 활동의 불편에 대해 충분히 환자와 함께 숙고한 후 관절유합술을 선택하였기에 2022. 2. 10. 우측 족관절에 대해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 이번 수술은 임상 결과에 대한 예후가 썩 좋지 않더라도 인공관절 치환술 후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충분히 숙고를 반복하여 유합술 결정을 내린 것임을 고려하여 판단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단서, 2022. 2. 28. 자, 심사기관 제출 〉

○ 수술내용

- 2009. 12. 17. 우측 족관절 경비골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 및 외고정
- 2009. 12. 17. 좌측 경골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
- 2010. 1. 8. 양측 족관절의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 2021. 7. 8. 좌측 족관절의 관절 유합술 및 골 이식술
- 2022. 2. 10. 우측 족관절의 관절유합술

- 치료의견: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수술 시행 후 추시 중, 우측 족관절의 통증 악화와 보행 제한으로 2022. 2. 10. 우측 관절유합술을 시행하고 술 후 약 16주 이상 안정 및 보행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견서, 2022. 7. 4. 자, 재심사 청구 시 임의 제출 〉

- 소견: 좌측 족관절 유합술을 시행하기 전 시행한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이미 양측 족관절의 관절 간격은 유사한 정도로 소실되어 있는 상태였음(2021. 4. 7. 방사선 사진 참조)
- 뿐만 아니라 2009. 12. 16. 외상 후 촬영한 CT를 보면, 우측 족관절은 관절의 개방성 분쇄골절 탈구와 더불어 작은 골편들의 소실이 많고, 연부 조직 손상 정도도 오히려 좌측보다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음
- 양측 족관절의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에서 증상이 더 일찍 심해진 일측(좌)의 유합술 후 우측은 인공관절 치환술과 관절유합술의 두 치료 사이에서 debate가 있을 뿐 본 환자처럼 인공관절 치환술에 예상되는 위험과 단점(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젊은 나이, 이미 관절 외상성 강직으로 인해 관절 운동범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우측 관절에도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진행된 관절염 상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도 외상 후 13년이 경과하여 보존적 치료 관찰은 이미 충분한 기간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전 요양 기간(2021년 7월부터)은 우측 족관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좌측 족관절의 수술과 술 후 경과 추시를 위한 것으로 이 시점으로부터 악화 여부로 재요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이전의 소견서와 본 내용 및 환자를 장기 추시한 방사선 사진 등을 참조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소견서를 추가로 드림

나. 2022. 2. 22. 원처분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당초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 치유 당시보다 악화 여부: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적극적 치료 필요 여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X-ray 상 관절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 족관절 유합술보다 가능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함
 -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의 영상자료 상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고, 나이를 고려할 때 우측 족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의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재요양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대하여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받아 좌측을 먼저 수술하였고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우측까지 수술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체 상태와 나이를 고려하여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12. 16.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 상병으로 2011. 3. 31.까지 요양 종결된 바 있고, 이후 양측 족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좌측에 대하여 족관절 유합술을 받음으로 인하여 좌측의 통증은 호전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재요양 승인된 사실이 있다.

원처분기관은 우측 족관절에 대하여는 수술보다 관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청구인의 의학 영상 자료를 다시 검토한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양측 족관절에 병변이 있음은 명백하고, 좌측에 비하여 우측이 현격히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젊은 나이에 양측 모두 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만큼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치료 경과와 상병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은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진료비·요양비

1. [2023-1932 취소]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24.)

사건의 쟁점

수술 후 응급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한 수술료(N1614020)와 마취료(L121102B)가 응급가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응급실을 통해 내원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 수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걸어가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어 타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골절소견 보여 청구인 응급실 내원 후 관혈적정복술 시행을 받은 것으로 응급상황이나 중증응급환자로 볼 수 없어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분류코드 ‘L1211, N1614’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50% 응급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역시 응급가산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932호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기관명 ○○병원 (대표: 정○○)

재해근로자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3.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1. 16.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2022. 11. 9. 응급실을 통해 병실 입원한

재해근로자에게 2022. 11. 10. 13:35~16:55분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N1614020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1.0) 및 마취료(L121102B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관리기본×1.0, L1350020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총혜모글로빈감시×1.0/ L1340020 마취중 감시료-과형변이지수 감시×1.0, L123102B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전신마취×1.0)에 대해 응급수가로 산정하여, 2022. 12. 6.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3. 1. 16.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23. 5. 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023. 5. 2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청구인은 ○○○에게 ‘우측 경·비골 골절’ 상병에 대해 2022. 11. 9. 응급실 통해 병실 입원 후 2022. 11. 10. 13:35~16:55분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 수술을 시행하였다.

1) 그 후, 수술료(N1614020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1.0) 및 마취료(L121102B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관리기본×1.0, L1350020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총혜모글로빈감시×1.0/ L1340020 마취중 감시료-과형변이지수 감시×1.0, L123102B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1.0)에 대해 응급수가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 결과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응급수가 불인정” 소견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로 볼 수 없고, 응급의료행위 해당 분류 수술 항목에도 해당 되지 않아 수술료 및 마취료에 산정한 응급가산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179,1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재해자는 2022. 11. 9. 응급실 방문 전 걷다가 똑하는 느낌이 있어 타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골절소견 보여 응급실 내원하여 병실 입원 후

2022. 11. 10. 13시35분 관혈적정복술 시행 받은 것으로, 응급상황이나 중증응급 환자로 볼 수 없는바,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른 응급의료 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에게 응급의료수가를 일반수가로 변경하여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자는 2022. 11. 9. 입원 후 2022. 11. 11. 퇴원한 환자로 ankle 골절로 ER통해 내원 당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긴급하게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경골]-복잡 주간 응급 수술을 하였으나, 의학 자문 결과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응급수가 불인정이라는 소견에 따라 수술료 응급가산 조정되었다.

나. 또한 근로복지공단 담당 과장님의 착오로 기관 내 삼관 전신마취 관리료 전액 조정 유선으로 확인한 건에 대해 교수님 소견서 첨부하여 심사청구 하였다. 그러나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기관 내 삼관 전신마취 관리료 착오 착감 건에 대한 요양 기관의 주장을 임의로 삭제해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본 항목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기각되었음을 산재심사위원회에 확인하였다. 조속한 재심을 부탁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 11. 9. 응급실 방문 전 걷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어 타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골절소견 보여 응급실 통해 입원한 재해자에게 2022. 11. 10.

‘우측 경·비골 골절’ 상병에 대해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및 마취료에 대해 응급가산을 적용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주요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 (2022. 11. 9.) 응급실 기록지

- (일반정보) 응급실 내원일시: 2022. 11. 9. 19:01
내원 수단: 구급차, 의식상태: Alert
활력징후: 혈압 120/70mmhg, 맥박 86/분, 호흡 18/분,
체온 36.3도, 체중 113kg
- (주호소) leg pain
- (현병력) PTOM으로 본원 f/u중인 환자로 내원 전 걷다가 뚝 하는 느낌있어 타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골절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
- (진단명) Fracture of lower end of tibia with fracture of fibula(any part), closed. Chronic osteomyelitis of lower leg
- (진료계획) OS consult, 2022. 11. 9. 22:43 정형외과 진료 → 2022. 11. 10. 01:17 71W 병실로 입원

○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22. 11. 10.
- 마취방법: General
- 마취시간: 2022. 11. 10. 13:35~16:55
- 수술전 진단명: s/p Monteggia equivalent Fx & DL, Lt.
- 수술명: Closed reduction with IM nailing

다.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진료비 청구 및 원처분기관 부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코드 | 코드명 | 청구금액 | 부지급액 | 지급금액 | 비고 |
|----------|-------------------------------|---------|---------|---------|----|
| L121102B |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 관리기본*1.0 | 207,400 | 103,700 | 103,700 | 응급 |

| 코드 | 코드명 | 청구금액 | 부지급액 | 지급금액 | 비고 |
|----------|---------------------------------|---------|----------------|---------|----------|
| L123102B |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1.0 | 447,800 | 447,800 | 0 | 가산 적용 |
| L1340020 |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1.0 | 3,660 | 1,220 | 2,440 | |
| L1350020 |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총 헤모글로빈 감시*1.0 | 1,830 | 610 | 1,220 | |
| N1614020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1.0 | 779,510 | 259,840 | 519,670 | |

6.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관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응급수가 불인정’이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우측 경·비골 골절’ 상병에 대해 2022. 11. 1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N161402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1.0) 및 마취료(L121102B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관리기본×1.0, L1350020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총헤모글로빈감시×1.0/ L1340020 마취중 감시료-파형변이지수 감시×1.0, L123102B (상급종합병원)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1.0)에 대해 응급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로 청구하였으나,
- 재해자는 2022. 11. 9. 응급실 방문 전 걷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어 타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골절소견 보여 응급실 내원하여 병실 입원 후 2022. 11. 10. 13시 35분 관혈적정복술 시행받은 것으로, 응급 상황이나 중증 응급환자로 볼 수 없는바,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청구인에게 응급의료수가를 일반수가로 변경하여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되,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인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해자가 응급실을 통해 내원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 수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분류코드 ‘L1211, N1614’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50% 응급가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역시 응급가산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 외 청구인의 의료적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재해자의 상병 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진료비·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진찰·약제·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 2021. 1. 1. 시행)】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2. [2023-3479 취소]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16.)

사건의 쟁점

말초신경 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에 시행되는 전기자극치료(마비근)를 화상 상병에 시행한 경우에도 그 진료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EMG/NCV(근전도/신경전도) 검사상 재해근로자에게 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전기자극치료(E. S. T) 시행하였으므로 본 시술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의 경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등에서 말초신경 변성에 의한 근육마비가 확인되면 시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화상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신경 손상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소견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전기자극치료를 경피적전기신경자극 치료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시행된 근전도 검사에서 슬관절 부위 자극 시 우측 하지 경골신경의 운동신경 복합근 활동전위가 확인되지 않고, 우측 비복 신경의 감각신경 활동전위도 관찰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경우 운동신경 손상에 대한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479호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기관명 (학)○○학원○○병원(대표 윤○○)

재해근로자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12. 26.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2. 26.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재해근로자에게 2022. 11. 3.부터 2022. 11. 24. (통원 7일)까지 시행한 ‘MM060 전기자극치료(E.S.T) 6일×1회/일’ 등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5.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신청한 진료비 중 ‘MM060 전기자극치료(E.S.T)’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2. 26.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23. 6. 29.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9. 1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의 경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등에서 말초신경 변성에 의한 근육마비가 확인되면 시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재해 근로자의 화상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신경손상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소견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므로, MM060 전기자극치료(E.S.T)를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 치료[TENS]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청구한 진료비 중 금 15,260원을 제외하고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우측 경골신경에 운동신경 손상과 비복 신경에 감각 이상이 확인되나, 운동신경 손상이 경미하여 근력 약화를 일으킬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으로, 진료비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Scalds burn 45(0/10/35)% 수상 후 양측 하지의 흉터 구축, 관절 운동 장애로 지속적인 재활치료 중인 환자이고, 화상 후 신경손상 증상이 있어 EMG/NCV 검사상 신경손상 확인되어 전기자극치료 E.S.T를 시행하였으므로, 진료비를 MM060 전기자극치료(E.S.T)에서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 치료[TENS]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재해근로자의 주요 요양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 경위: 조리장 내 근무 중 넘어짐. 넘어지며 설거지 등을 위한 통에 받아진 뜨거운 물에 주저앉아 화상 발생
- 승인 상병: 열탕화상 45%(심재2도 10%, 3도 35%), 열탕화상 45%(심재2도 15%, 3도 30%)-등, 양쪽 팔, 양쪽 다리, 양쪽 엉덩이
- 요양 기간: 2021. 12. 11.~2023. 8. 17.(총 615일, 입원 134일, 통원 481일)

나. 청구인은 2022. 11. 3.부터 2022. 11. 24.까지 통원 7일간 재해근로자에게 물리치료 MM060 전기자극치료(E.S.T) 6일×1회/일 등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료비를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하였다.

(단위: 원)

| 청구 수가 | 단가 | 수량 | 일수 | 청구액 | 지급액 | 부지급액 | 비고 |
|-------------------|-------|-----|----|--------|--------|-------|------------|
| 적외선 치료 | 720 | 1.0 | 6 | 4,320 | 4,320 | 0 | |
| 전기자극치료(E.S.T) | 4,820 | 1.0 | 6 | 28,920 | 19,200 | 9,720 | MM070으로 인정 |
| 재활 저출력 레이저치료(1일당) | 4,780 | 1.0 | 6 | 28,680 | 28,680 | 0 | |
| 복합운동 치료(1일당) | 7,170 | 1.0 | 6 | 43,020 | 43,020 | 0 | |
| 행위가산료 | | | | | | 5,540 |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해근로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지(2022. 5. 3.)

| 검사일자 | 검사결과 |
|-------------|--|
| 2022. 5. 3. | <p>〈NC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측 peroneal, tibial nerve에서 CMAP 및 F-wave latency를 측정하였고, 양측 superficial peroneal, sural nerve에서 SNAP을 측정하였으며 양측 H-wave를 측정함 2. 우측 tibial nerve에서 CMAP은 Knee 구간에서 형성되지 않음 3. 우측 sural nerve에서 SNAP은 형성되지 않음 4. 우측 H-wave는 형성되지 않음 <p>〈EM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지는 양측 vastus medialis, tibialis anterior, peroneus longus, gastrocnemius, extensor digitorum brevis, tensor fasciae latae muscles에서 insertional activity, spontaneous activity 및 MUP를 평가하였고 paraspinal muscle은 lumbar area에서 insertional activity 및 spontaneous activity를 평가함 2.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y at r.E.S.T 3. Full interference pattern on maximal volition <p>〈Conclus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검사상 Right tibial nerve lesion at or around burn site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 2. 상기 검사상 Right sural nerve lesion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됨 |

○ 퇴원 기록지(2022. 7. 23. 재활의학과)

- 진단명: 1. Contracture of joint both hip, knee, ankle joint
2. Hypertrophic scar both hip, knee, ankle joint
3. Scalds burn 45(0/10/35)%
- 입원 사유: 일하던 중 설거지하려고 끓여놓은 물에 빠지며 수상하여 Scalds burn 45(0/10/35)% 입고 화상 외과 치료 후(site: abdomen, B.arms~B.thigh~lower leg, B.buttock)
- 포괄적 재활치료 위해 입원함

○ 일반소견서(날짜 미기재, 재활의학과)

- 상기 환자는 화상 이후 비롯된 신경 손상증상 있어 EMG/NCV 검사상 신경손상 확인 후 E.S.T 치료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대한 화상학회지 8권 1호 화상 환자의 다면적 접근-화상 재활

화상 후 말초 신경마비의 원인은 1) 전기화상, 2) 잘못된 침상 자세, 3) 너무 크게 감은 압박 붕대(bulky dressing) 등이다. 잘못된 자세에 의한 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는 비골두에 압박되는 비골신경 마비이다. 화상의 15~52%에서 말초신경 마비가 나타나는데, 20% 이상의 화상에서 의미 있게 더 많이 발생한다.

라.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전기자극치료(E.S.T)를 실시하고 진료비로 청구한 것으로,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는 말초신경 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재해자의 경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우측 경골신경 경미한 운동신경 손상과 비복 신경에 감각이상 소견으로, 운동신경 손상이 경미하여 근력 약화를 일으킬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전기자극치료(E.S.T)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진료비 중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를 경피적전기신경자극 치료로 변경 인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 심사청구 항목 | 심사결정 금액(원) | | 이 유 |
|------------------------------|------------|------|--------|
| | I 항 | II 항 | |
| 이학요법료-MM060 전기자극치료(E.S.T) | - | - | 인정기준미달 |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1항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되,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인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EMG/NCV 검사상 재해근로자에게 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전기자극치료(E. S. T) 시행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2022. 5. 3. 시행된 근전도 검사에서 슬관절 부위 자극 시 우측 하지 경골신경의 운동신경 복합 근 활동전위가 확인되지 않고, 우측 비복신경의 감각신경 활동전위도 관찰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경우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청구인의 의료적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상병 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진료비·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공단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진찰·약제·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6호, 2022. 1. 1. 시행)】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 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행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8. 5. 31. 시행)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사113 전기자극치료 | 말초신경변성에 의한 근육마비시 사113 전기자극 치료 인정여부 | 말초신경변성에 의하여 근육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사113가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로 인정함 |

3. [2022-4433 1각] 요양비(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28.)

사건의 쟁점

수술 후 골유합 진행 중인 상태가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주치의 또한 구급차 이용을 권하였으므로 구급차 이용료를 기준으로 요양비(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수술 후 골유합 진행 중인 상태로, 통증을 고려하더라도 2022. 5. 1. 이후 기간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가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급한 응급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2. 5. 1. 이후부터 4차례나 청구인에게 자가용 또는 택시비로 이송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상병 상태나 요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수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급한 응급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433호 요양비(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6.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 31.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거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좌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좌측 족부 침내반족, 좌측 갈퀴족지 변형, 좌측 거골 무혈성괴사·관절염, 좌측 1-5족지 갈퀴족 변형(체크레인 변형), 좌측 난치성 통증, 좌측 비복신경손상, 좌측 상세 불명의 골수염, 상세 불명 부분

좌측 골절 불유합(가관절증) 발목 및 발, 좌측 족부 스트레스성 비골 골절, 좌측 말초신경병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2022. 5. 31. 원처분기관에 같은 달 27일과 30일, 31일 등 3일분에 대한 요양비(이송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6. 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9.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2022. 5. 1.부터 택시 또는 자가용 이동 타당함”이라는 심의 소견에 따라 통원 3일에 대한 구급차 비용 450,000원을 자가용 이용기준으로 산정하여 29,400원을 요양비(이송료)로 지급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수술 후 골유합 진행 중인 상태로, 통증으로 인해 체중부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22. 5. 1. 이후 기간은 청구인의 상병 상태가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급한 응급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주치의 또한 구급차 이용을 권한 바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구급차 이용료를 기준으로 요양비(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10. 31. 10:00경 비계발판 및 파이프 해체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 경위로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3. 4. 6.까지 ○○대 ○○병원, ◇◇대 ◇◇병원 등에서 입원 1,325일, 통원 1,356일을 요양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 및 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요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 2015. 10. 31.

○ 재해 경위

- ○○교회 교육관 증축공사 현장에 비계공으로 출근하여 건물 외부 비계 및 안전 발판을 해체하던 중 발판 및 비계파이프를 상부부터 받아 내리던 작업 중 작업 장구류가 걸려 약 1.5m서 추락하여 비계 적재한 부분으로 착지하였으며 왼쪽 발이 적재된 자재에 제대로 착지가 안 되어서 발생한 사고임

○ 승인 상병

- 좌측 거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좌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좌측 족부 침내반족, 좌측 갈퀴족지 변형, 좌측 거골 무혈성괴사·관절염, 좌측 1-5족지 갈퀴족 변형(체크레인 변형), 좌측 난치성 통증, 좌측 비복신경 손상, 좌측 상세 불명의 골수염, 상세 불명 부분 좌측 골절 불유합(가관절증) 발목 및 발, 좌측 족부 스트레스성 비골 골절, 좌측 말초신경병증

○ 요양 기간: 2015. 10. 31.~2022. 10. 7. 입원 938일, 통원 1,167일

○ 수술 이력

- 2015. 11. 2. 좌측 거골 관혈적 정복술
- 2016. 6. 16. 좌측 거골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재수술), 자가골 이식술 등
- 2017. 5. 15. 좌측 제1중족골 뼈기 절골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거골 금속 제거술, 골극 제거술
- 2017. 10. 24. 금속제거술 및 거주상관절 고정술

- 2018. 7. 18. 좌측 족관절 삼중유합술, 아킬레스건 연장술, 자가골이식술
- 2019. 9. 26. 좌측 족관절(경골-거골-종골) 유합술
- 2020. 11. 16. 좌측 족관절 금속제거술 및 관절 유합술
- 2020. 12. 1./ 12. 3./ 12. 21./ 2021. 1. 5./ 2. 2./ 2. 8./ 3. 2./ 5. 4.)
: 창상봉합술
- 2021. 6. 16.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 2021. 7 / 8 / 9 / 10 / 11월 창상봉합술
- 2021. 11. 15.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골수염 수술
- 2021. 12. / 1 / 2월 창상봉합술

다.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구급차 이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 5. 27. ○○정형외과 → ○○대○○병원(편도) 75,000원
- 2022. 5. 27. ○○대○○병원 → ○○정형외과(편도) 75,000
- 2022. 5. 30. ○○정형외과 → ○○대○○병원(편도) 75,000원
- 2022. 5. 30. ○○대○○병원 → ○○정형외과(편도) 75,000원
- 2022. 5. 31. ○○정형외과 → ○○대○○병원(편도) 75,000원
- 2022. 5. 31. ○○대○○병원 → ○○정형외과(편도) 75,000원
- ※ 차량 주행거리(○○정형외과 → ○○대○○병원): 7km
- ※ 요금 산정: 기본요금 75,000원(10km 이내)

라. 원처분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비(이송료)에 대하여 자가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청구액: 2022. 5. 27. / 5. 30. / 5. 31. (통원 3일) 특수구급차 이용료 450,000원
- 지급액: 통원 3일 자가용 이용료 29,400원
 - ○○정형외과~○○대○○병원 일반택시 요금 편도 9,800원 × 6회 × 0.5

- 근거: 공단 자문의 소견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자가용 이용은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으로 지급함
(택시 이용료 청구 시 영수증 제출)

마. 한편,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이전에 요양비(이송료)를 지급하며 청구인에게 4차례 “2022년 5월부터는 병행 진료 시 이송비는 택시비 또는 자가용 이용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라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송 기간 | 처리 내용 |
|--------------|---|
| 2022. 4.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기관: 의료기관-의료기관 ○ 금액: 청구 150,000원 → 지급 150,000원 ○ 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결과 “기승인 상병, 재해 시점, 요양 정보, 수술 정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바, 병행 진료 시 이송료(특수구급차)는 2022. 4. 30.까지 지급 타당함. 이후 택시 또는 자가용 이용이 타당함” 소견으로 2022. 5. 1. 부터는 특수구급차 이송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병행 진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2. 4.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기관: 의료기관-의료기관 ○ 금액: 청구 150,000원 → 지급 150,000원 ○ 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5. 1.부터는 특수구급차 이송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병행 진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2. 4.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기관: 거주지-공단(청구인 자문의사회의 참석) ○ 금액: 청구 150,000원 → 지급 150,000원 ○ 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의 소견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2022. 5. 1.부터 병행 진료 시 이송비는 택시비 또는 자가용 이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 2022. 4.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기관: 의료기관-의료기관 ○ 금액: 청구 150,000원 → 지급 150,000원 ○ 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의 소견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2022. 5. 1.부터 병행 진료 시 이송비는 택시비 또는 자가용 이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비 청구 소견서(2022. 5. 31. ○○정형외과) 〉

- 병명: 미기재
- 이송비: 2022. 5. 27.~31. (3일간) 450,000원

〈 진료계획서 소견서(2022. 4. 14. ○○정형외과) 〉

- 소견
 - 현재 경비골 골유합 진행 중이며, 골수염 치료 중으로 좌측 족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 중이며 바닥에 다리 딛기 어려워하시어 거동에 제한이 있음
 - 추시 x-ray 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요함

〈 소견서(2022. 7. 5.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

- 병명: 좌측 경골의 만성 골수염
- 소견: 상기 병명으로 본과 외래 추시 중인 분으로 상기 진단에 대해 금일까지 체중 부하 어려운 상태로 휠체어 사용 필요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승인 상병, 재해 시점, 요양 정보, 수술 정보,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바, 병행 진료 시 이송료(특수구급차)는 2022. 4. 30.까지 지급함이 타당하고, 이후에는 택시 또는 자가용 이용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은 2022. 5. 1.부터 택시 또는 자가용 이용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심의위원 1
 - 2022. 5. 1.부터는 택시 또는 자가용 이용 타당
- 심의위원 2
 - 구급차 이송은 5월 이후 불인정하며 택시, 자가용 이용 타당
- 심의위원 3
 - 5월 이후부터는 택시 또는 자가용 이용 타당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이송’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이송의 범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5호) 제7조(이송료)에 따르면,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등은 별표 제11절(이송료)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제11절 산정지침에는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 근로자 등이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힘들고, 주치의 또한 체중 부하가 어려워 휠체어 사용을 위한 구급차 이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구급차 이용료를 기준으로 요양비(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이 4차례나 청구인에게 2022. 5. 1. 이후부터는 자가용 또는 택시비로 이송비가 지급됨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상병 상태나 요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수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급한 응급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 정도는 의학적으로 택시나 자가용의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이송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제16조(이송비)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0호)

제7조(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이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 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1절 이송료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 “이송처리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 구 분 | 이 용 기 준 |
|----------------|--|
|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 퇴원, 통원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자가용·택시 |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 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선박·항공기 |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 구 분 | | 등 급 기 준 | | 비 고 |
|-------------------|----------|---------------------|----------------------------------|---|
| | | 1등급 | 2등급 | |
|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 - | 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등급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 |
|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 고속 버스 | 우등고속 | 일반고속, 시외버스 |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버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
| | 철도 | 새마을호 특실, KTX 보통실 | 새마을호 보통실 | 새마을호, KTX 비통과 구간은 그 노선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
| 택시 | | - | 소형·중형택시 |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
| 선박 | | 1등실 | 2등실 | 특등실 배제 (2개 등급의 경우 아래 등급 인정) |
| 항공기 | | Business Class | Economy Class | First Class 배제 (2개 등급의 경우 아래 등급 인정) |

제3절 진료계획

1. [2022-3440 기각]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8.)

사건의 쟁점

사고로 인한 척골 골절 등으로 요양 후 증상이 고정되어 진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손목과 어깨 통증으로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요양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수상일로부터 요양한 지 약 7개월 정도 경과 하였고 승인 상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뚜렷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승인 상병과 관련한 증상 악화의 소견이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22. 5. 27. 까지 요양 후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뚜렷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440호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5.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0. 13.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수근관절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산재 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4. 26. 원처분기관에 2022. 5. 7.부터 같은 해 6. 3.까지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각각 2022. 5. 4.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8.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1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2022. 5. 27.까지 통원 진료계획이 타당하고, 이후 증세고정으로 종결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진료계획을 2022. 5. 7.부터 같은 달 27일(통원 21일)로 단축하여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수상일로부터 요양한 지 약 7개월 정도 경과하였고, 승인 상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뚜렷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 2022. 5. 27.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잠을 잘 때 그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다친 부위와 통증으로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고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 10. 13. ○○제과 ○○공장 판넬 철거 작업 중 바닥이 꺼지면서 6미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요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처분 일자: 2022. 1. 3.): 좌측 수근관절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 기간: 2021. 10. 13.~2022. 5. 27.(입원 28일, 통원 199일)
- 수술 이력: 없음

다. 청구인을 진료한 ○○병원의 주요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 2022. 4. 15. 진료기록 | 2022. 4. 26. 진료기록 |
|--|--|
| <p>▷ C.C(Progress) or PRESENT ILLNESS</p> <p>Lt. wrist : 불편하다. 아작 아프다. Lt. wrist Flex 20 ext 10 RD 10 UD 5 손목이 갈돌아가지 않고 통증이 있다.</p> <p>Rt. shoulder : 잘때 아프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Rt. shoulder ROM : Flex 170 Ext 30 Abd 170 Add 30 ER 30 IR 10 Impingement I/II/III -/-/- Speed/0'Brien/lift off -/-/+ Distal M/5 Grade V intact</p> <p>환자 통증이 지속되어 연장치료를 요하는 상태 (환자는 통증이 지속되어 불편하다고 호소함.)</p> <p>진료계획서 작성 기간 : 2022.04.28~2022.05.25(통원04주) 진단명 : S5260 좌측 수근관절 요골 및 척골 골절 S6200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S4618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근 파열 S460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S434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p> <p>상기 49세 남자 환자는 2021년 10월 13일 수상으로 2021년 11월 06일 본인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상병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의한 입원기간 후 2021년 12월 03일 퇴원하여 통원기간 중이 환자로서 수상보험의 통원 소견상 주상골의 골절 지속되며 부부 호전소견보여 이에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추가 04(사)추간의 연장치료를 요함.</p> <p>S5260.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S6200.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S4618.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p> <p>▷ ORDER LIST or TREATMENT</p> | <p>▷ C.C(Progress) or PRESENT ILLNESS</p> <p>4주 추가 승인여부- 의사자문회의 5월 6일 예정</p> <p>진료계획서 작성 기간 : 2022.04.28~2022.05.25(통원04주) 진단명 : S5260 좌측 수근관절 요골 및 척골 골절 S6200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S4618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근 파열 S460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S434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p> <p>상기 49세 남자 환자는 2021년 10월 13일 수상으로 2021년 11월 06일 본인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상병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의한 입원기간 후 2021년 12월 03일 퇴원하여 통원기간 중이 환자로서 수상보험의 통원 소견상 주상골의 골절 지속되며 부부 호전소견보여 이에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추가 04(사)추간의 통원치료를 요함.</p> <p>S5260.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S6200.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S4618.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p> <p>▷ ORDER LIST or TREATMENT</p> |

라. 청구인은 2022. 7. 26. 개최된 심사기관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우측 팔에 힘을 줄 수가 없음. 연장 망치질을 못함. 좌측 손으로 주전자도 못 들음. 병원에서 뼈만 붙었다고 하고, 인대는 호전이 없음.”이라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진료계획서의 2022. 4. 26. 자 ○○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 예상 기간: 2022. 5. 7.~2022. 6. 3.(통원 28일, 약물 및 재활치료)
- 주요 검사 결과: Lt. wrist xray Complete union state, distal wrist, Lt. Rt. shoulder xray No definite fracture line or malalignment.
- 향후 치료계획: 상기 49세 남자 환자는 2021. 10. 13. 수상으로 2021. 11. 6.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상병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의한 입원 가료 후 2021. 12. 3. 퇴원하여 통원 가료 중인 환자로 수상 부위의 통증 및 부분 강직 지속되어 이에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추가 4주간의 통원 가료를 요함

나. 2022. 5. 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회의는 “2022. 5. 27.까지 통원 진료계획 타당하고, 이후 증세 고정으로 종결”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심사기관은 증상 고정상태로 2022. 5. 27.까지 치료 종결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22. 7. 26. 심의회회의에 참석하여 우측 어깨, 좌측 손목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외의 치료는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수상일로부터 요양한 지 약 7개월 정도 경과 하였고, 승인 상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뚜렷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 2022. 5. 27.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처분기관은 해당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 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원처분기관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 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청구인은 손목과 어깨 통증으로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경우 승인 상병과 관련한 증상 악화 소견이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22. 5. 27. 까지 요양 후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뚜렷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승인 상병과 그 치료에 필요한 적정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轉院)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2. [2022-3816 취소]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18.)

사건의 쟁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입원 요양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연골판 부분절제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재검사한 MRI를 통해서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을 확인하였고 연골판 절제술을 통한 치료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진료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슬관절 부위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부분절제술 시행한 상태로 보이고, 남은 반월상 연골판이 거의 없으며 파열은 아닌 것으로 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은 의미가 없어 타당하지 않고, 통원요양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변경 승인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 무릎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상태로, 의무기록 상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의학영상 자료에서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정도가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 되어 제출된 진료계획 신청 기간인 2022. 3. 17.부터 2022. 4. 6.까지 입원 요양 기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제결 제3816호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3.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3.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8. 4. 24.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요양 중,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해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며, 2022. 2. 21. 원처분기관에 2022. 3. 1.부터 2022. 3. 16.까지 통원 16일, 2022. 3. 17.부터 2022. 4. 6.까지 입원 21일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2. 3. 1.부터 2022. 4. 6.까지 통원요양이 타당하다며 각각 2022. 3. 4.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과 2022. 8.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0. 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슬관절부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부분 절제술 시행한 상태로 보이고, 남은 반월상 연골판이 거의 없으며 파열은 아닌 것으로 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은 의미가 없어 타당하지 않고,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되므로, 2022. 3. 1.부터 2022. 4. 6.까지 통원요양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영상자료 에서 우측 무릎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한 입원 기간에 대한 진료 계획을 통원으로 변경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0. 14. 연골판 부분절제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1. 11. 29. 재검사한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 확인되어 2022. 3. 18. 연골판 절제술을 통한 치료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진료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진동 공구 및 중량물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팔꿈치·무릎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승인 상병을 진단 받았다.

나. 청구인의 승인 상병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 불승인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 경추부 제3-4번 추간판 팽윤, 양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 손상, 우측 무릎 관절염, 양측 무릎 활막염,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양측 발목 관절염, 좌측 발목 박리성 골연골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쇄관절염, 불안장애, 불면증
- 요양 기간: 2018. 4. 24.~2022. 6. 1.(입원 185일, 통원 1,275일)
- 수술 이력:
 - 2018. 11. 1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2
 - 2019. 7. 5. 우측 주관절 변연절제술 및 힘줄봉합술
 - 2019. 12. 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 2020. 10. 14. 우측 슬관절 활액막절제술 및 내·외측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연골 연마술 등
 - 2021. 10. 13. 우측 주관절 변연절제술

다.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우측 무릎 부위 검사 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수술기록지(2020. 10. 14.)

Rt knee
 tear MM LM
 AS MM & LM partial meniscectomy :
 debridement & synovectomy
 Suprapatella pouch : synovitis -> synovectomy
 Patella : intact
 Trochlea : intact
 med plica(+)
 ligamentum flavum (-)
 MM : PH tear -> partial meniscectomy
 MFC : intact
 MTP : intact
 ACL : intact
 PCL : intact
 LM : PH tear -> partial meniscectomy
 LFC : intact
 LTP : intact

2) Knee Joint MRI(RT) 결과 보고서(2021. 11. 29.)

[Conclusion]

1. Meniscus root tear of the medial meniscus.
2. Grade 2 lesion in the body and posterior horn of the lateral meniscus.
3. Subchondral cysts with bone marrow edema at the medial femoral & tibial condyles.
4. Effusion in the suprapatellar bursa and joint space.

6. 의학적 소견

가. 진료계획서상 2022. 2. 21. 자 ○○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치료 중인 상병 명: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 요양 예상기간 및 사유: 2022. 3. 1.~2022. 3. 16.(통원 16일), 2022. 3. 17.~2022. 4. 6.(입원 21일)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소견으로 2022. 3. 18. 우측 무릎 연골절제술 시행 예정임
- 주요검사: 2021. 11. 29. MRI
- 향후 치료계획 등: 청구인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로 인해 2020. 10. 14. 수술 이후 통증 지속되어, 2021. 11. 29. 재검사한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소견 확인되어 2022. 3. 18. 우측 무릎 연골절제술 시행 예정임. 술 후 수술 부위 경과 관찰 및 통증 조절, 안정 치료 요하며, 이후 약물치료·물리치료·재활치료 및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2명 모두는 수술은 의미가 없어 보여 통원요양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 1):** 제출된 영상자료(슬관절부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부분절제술 시행한 상태로 보이며, 남은 반월상 연골판이 거의 없고 파열은 아닌 것으로 보여 수술(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은 의미가 없어 보여 타당하지 않음
- **자문의 2(정형외과, 2022. 3. 3.):** 수술(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022. 3. 1.~2022. 4. 6. 통원요양이 타당함

다. 심사기관은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우측 무릎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상병 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을 승인받고 우측 무릎 연골 절제술을 사유로 2022. 3. 1.~2022. 3. 16.(통원), 2022. 3. 17.~2022. 4. 6.(입원) 기간에 대하여 진료계획을 신청함
-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우측 무릎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수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한 입원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을 통원으로 변경 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처분기관은 해당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 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원처분기관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자문 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청구인은 2020. 10. 14. 연골판 부분절제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연골판 절제술을 통한 치료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제출 하였으므로,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여 신청한 진료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원요양으로 변경하여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10. 14. 우측 무릎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상태로, 의무 기록상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의학영상 자료에서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정도가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제출된 진료계획 신청 기간인 2022. 3. 17.부터 2022. 4. 6.까지 입원 요양 기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와 치료에 필요한 적정 요양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 (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轉院)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부. 장애

제1장. 눈의 장애

제2장. 귀의 장애

제3장. 코의 장애

제4장. 입의 장애

제5장. 두부 장애

제6장. 신경계통의 장애

제7장. 흉복부 장애

제8장. 체간의 장애

제9장. 팔 · 손가락의 장애

제10장. 다리 · 발가락의 장애

제11장. 복합 장애

제12장. 흉터의 장애

제1장 눈의 장애

[2022-4563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5. 9.)

사건의 쟁점

우안 수정체 탈구 등의 신청 상병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 이후에 우안의 시야 장애를 추가로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청 상병 외에도 우안의 시야 장애를 추가로 인정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조정 제12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3'으로 확인되고 합병증 예방관리 '10105 (외상 후 녹내장)'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13급 제1호로 결정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의 우안 최대 교정시력이 '0.3' 상태로 확인되어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고, 우안의 시야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녹내장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그 외 시야 협착을 설명할 만한 시신경의 변화 및 신경 섬유층 결손 소견이 달리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상위의 장애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563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6.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1. 14. 사고로 진단 받은 ‘우안 수정체 탈구, 우안 유리체 탈출, 우안 이차성 녹내장, blow out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눈주위 열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3. 23.까지 요양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2022. 5. 18. 원처분기관에 장애급여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2. 6. 10. 장애등급 제13급 제1호 결정 처분과 2022. 10. 1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안은 최대 교정시력이 ‘20/70(0.3)’으로 확인되고, 합병증 예방관리 ‘10105(외상 후 녹내장)’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3’으로 확인되고, 시야 검사의 경우 4월 대비 5월 검사 결과의 차이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며, 원처분에서 결정한 장애등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안의 시야 장애(제13급 제2호)를 추가로 인정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조정 제12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4월과 5월간 시야 검사 결과의 차이가 커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5월의 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시야 검사의 경우 시표의 크기나 밝기, 배경조명의 밝기나 색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 신뢰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아울러, 시야 검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결과지의 신뢰도를 배척하려면, 적어도 산재 전문병원이나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원처분기관은 이러한 절차 없이 시야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리시설 증설 사업공사 현장에서 입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카고크레인으로 내리는 중 인양 로프가 끊어지면서 머리, 눈 주위를 가격한 재해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요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 명: 안 수정체 탈구, 우안 유리체 탈출, 우안 이차성 녹내장, blow out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눈주위 열상
- 요양 승인 기간: 2020. 11. 14.~2022. 3. 23./ 총 495일(입원 7일, 통원 488일)
- 주요 수술
 - 2020. 11. 14. (○○병원) 창상봉합술
 - 2021. 9. 13. (○○대학교○○기독병원) 망막주위막제거술, 유리체절제술-전절제

다.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사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해상태: 우측 시력 0.3
- 최종산정: 일반 제13급 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예방관리 대상: 외상 후 녹내장
 - 유효기간: 2022. 3. 24.~2024. 3. 23.

라. 청구인의 우안 시야 검사 관련하여, 진료 기관별 의무기록상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료기관 | 검사일시 | VFI(우) | False NEG Errors |
|--------|-----------------------|--------|------------------|
| ○○병원 | 2022. 3. 22. 11:10 AM | 30% | 37% |
| | 2022. 4. 27. 11:27 AM | 67% | 27% |
| ○○안과병원 | 2022. 6. 29. 3:32 PM | 25% | N/A |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대학교○○기독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해진단서, 날짜 미기재 〉

- 장해부위: 우안
- 장해상태: 현재 최대 교정시력 20/70인 상태임, 굴절 검사상 -sph 1.50인 상태임

나. 2022. 6. 9. 자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우안의 최대교정시력 20/70(0.3)으로 확인됨. 합병증 예방관리 10105(외상 후 녹내장)에 해당함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이다.

- 상병명 '우안 수정체 탈구, 우안 유리체 탈출, 우안 이차성 녹내장, blow out 폐쇄성 굴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눈 주위 열상'을 승인받아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은 상태로,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 0.3으로 확인되고, 시야 검사의 경우 4월 대비 5월 검사 결과의 차이가 커서 신뢰도 떨어져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라. 우리 위원회 안과 자문의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위원 1

- 2022. 3. 22.과 2022. 4. 27. 시행한 시야 검사에서 우안은 각각 27%와 37%의 false negative 검사율을 보임. 즉, 환자이든지 정상인이든지 반드시 볼 수 있는 검사에 안 보인다고 대답한 확률이 거의 30%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음(마지막 2022. 6. 29. 검사에서는 false negative 표기 안 됨)
- 환자의 안저 소견 및 OCT(2022. 3. 22.) 검사에서도 RNFL thinning 등 녹내장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 현재 시야 협착 소견을 설명할 만한 시신경의 변화 및 신경 섬유층 결손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시야 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짐
- 장애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3'에 대해서만 판단 가능함. 시야 검사로 판단하기 어려움

○ 위원 2

- 우안의 나안시력은 '0.3'으로 확인되고, 시야 검사의 경우 4월 검사는 환자가 집중하지 못하여 27% 이상을 검사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지나쳤고 6월 검사도 검사 실수가 있음이 보여 신뢰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원처분에서 결정한 장애등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3

- 우안 시야 검사의 경우 2022. 3. 22. VFI 30%(false negative error 37%), 2022. 4. 27. VFI 67%(false negative error 27%), 2022. 6. 29. VFI 25% (false negative error N/A)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 그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2022. 4. 27. VFI 67%(false negative error가 3번 검사 중 가장 낮음) 것으로 판단하여 우안 시야는 장애등급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봄
-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우안 시력 저하(우안 시력 0.3)에 의한 제13급 제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시력의 장해의 경우 실명, 안구의 조절 기능이나 운동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 등으로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우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이고, 시야 상태는 ‘VFI 25%’로 측정 되었으므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12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우안 최대 교정시력이 ‘0.3’ 상태로 확인되어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우안의 시야 검사에서 false negative가 27% 이상으로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RNFL thinning 등 녹내장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그 외 시야 협착을 설명할 만한 시신경의 변화 및 신경 섬유층 결손 소견이 달리 관찰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배척할 만한 특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제13급제2호: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장애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 장애의 등급

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애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상각도는 약 50°, 두 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라) 영 별표 6에서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퍼센트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

제2장 귀의 장애

[2023-3019 취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26.)

사건의 쟁점

시멘트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1년 8개월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로우밀 업무를 시작한 시기는 1977년으로 적어도 1일 4시간 이상 90dB 이상의 운전실 소음에 노출되었고 로우밀 운전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점검원 기간을 보낸 후 맡을 수 있는 직종이므로 이에 대한 소음 노출 기간을 반영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력은 로우밀 점검업무 1년 8개월이며, 그 외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 또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7dB로 확인되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노인성 난청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제반 자료와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과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019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공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2. 2. 22. 진단받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15.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2. 1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2023. 5.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은 시멘트제조업에서 수습 3개월, 원료밀 점검원 1년 8개월, 원료밀 운전원 18년 7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소음 노출 작업에 해당하는 원료밀 점검업무 수행 기간은 1년 8개월 인바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에서 청구인이 약 20년간 로우밀 점검 및 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력은 로우밀 점검업무 1년 8개월이며, 그 외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7dB로 확인되나, 반복 검사 간 검사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력도 상 중저음 영역부터 고음으로 갈수록 점차 청력이 떨어지는 고음점경형의 노인성 난청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신청 상병은 소음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로우밀 업무를 한 시기는 1977년으로 현재의 현대적인 통합 COP를 설치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기 시작한 것은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인 2003년부터로 청구인이 재직할 당시는 소음작업 환경이 전혀 달랐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원처분기관은 현대화 이후의 소음 측정값을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인정기준 미달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과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운전실은 메인 모터 바로 뒤에 설치된 판넬실 안에 있었고, 밀 분쇄 상태를 확인하려면 로우밀 밑에서 상태를 살펴봐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어도 1일 4시간 이상은 로우밀 설비 밑에 들어가 설비를 살펴보면서 운전하였다고 하며, 사업주도 추가의견서에서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운전원은 각 설비 Line에 위치해 로우밀과 가까운 위치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현재의 COP 작업 환경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운전실의 소음도 90dB 이상이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 사업주가 제출한 인사발령사항에는 청구인이 1977. 10. 16. 입사하여 1979. 4. 15.까지 로우밀 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8. 9. 16.부터 1980. 5. 31. 기간을 제외하고 로우밀 점검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신뢰할 수 없고, 현장 실태와도 맞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1977년 7월 입사하여 1984년 5월까지 약 7년간 점검공(휘다·조공) 생활 후 1984년 6월부터 운전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들도 사실확인서에서 로우밀 운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어서 최소한 5년 이상의 점검원(보조공) 기간을 거쳐야 말을 수 있는 직종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사업주 확인서는 추정이나 청구인과 동료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미루어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로우밀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 통하여 청구인의 소음 노출 직력 등을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업력 조사

| 회사명 | 근무 기간 | 부서 | 취급제품 | 소음 노출 | 작업내용 | 근거자료 |
|-----------------|--------------------------------|--------------------|------|---------|-----------|--------------------------|
| | | | | 소음 수준 | 근무시간 | |
| ○○○○(주) ○○공장 | 1977. 7. 18. ~1977. 10. 15. | 수습 (3월) | 시멘트 | 비노출 | 수습 교육 기간 | 경력증명서 소득·보험 청구인 진술 |
| | | | | 80dB 미만 | 1일 8시간 작업 | |
| | 1977. 10. 16. ~1979. 4. 15. | R/M 점검 (1년 6월) | | 노출 | 원료밀 점검 작업 | |
| | | | | 85dB 이상 | 1일 8시간 작업 | |
| | 1979. 4. 16. ~1997. 11. 30. | R/M 운전 (18년 7월) | | 비노출 | 원료밀 운전 작업 | |
| | | | | 80dB 미만 | 1일 8시간 작업 | |
| | 1997. 12. 1. ~1998. 1. 23. | R/M 점검 (2월) | | 노출 | 원료밀 점검 작업 | |
| | | | | 85dB 이상 | 1일 8시간 작업 | |

- 1) 1998년까지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약 20년간 원료 분쇄설비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직업력 조사를 시행함
- 2) 청구인은 1977년 10월부터 1984년 5월까지 약 7년간 점검공·취다공·조공 생활을 한 후 1984년 6월부터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3)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같이 제출된 전자적 인사기록부의 발령사항 및 추가로 제출된 수기 인사기록 카드의 인사발령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수습(3개월), 원료밀 점검원(1년 8개월), 원료밀 운전원(18년 7개월)으로 확인됨
- 4) 원료밀 운전원의 경우, 현재는 설비와 전혀 무관한 별도 건물에 있는 통합 COP 내에서 근무하지만, 청구인이 근무할 때는 설비가 위치한 건물 내 운전실에서 설비와

가까운 곳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 및 설비가동 중단 시에 부정기적으로 원료밀이 있는 현장에 위치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료밀 운전 작업을 소음 노출 작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가) 원료밀과 분리된 운전실 내부가 주 작업 위치임

나) 간헐적으로 원료밀실에 출입하나, 주 1~2시간 수준으로 확인됨. (주 근무시간 40시간 기준이며, 당시 현장에서 운전원으로 작업을 수행한 퇴직자의 진술에 따름)

다) 원료밀실 출입 시에 돌발 상황에서는 설비가 가동 중이나, 설비가동 중단 시에는 원료밀 가동 소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현재 COP 근무자(킬른 운전원)에 대한 측정 결과 46.5dB(A) 수준임

5) 1998. 1. 23. 소속사업장 퇴직 후 경비 및 잔디관리 등을 하였으나, 소음 노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음

○ 소음 노출수준 조사

| 소음 노출 인정작업 | 수행 기간 | 소음 정도 | 연속음 여부 | 방음 장비 착용 여부 | 작업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
|-----------------|---|-------------------|--------|-------------|----------------|
| 시멘트 제조 (R/M 점검) | 1977. 7. 18.~ 1998. 1. 23. (1년 8개월) | 86.1dB ~89.7dB | 연속음 | - | 소음 노출 작업 |
| 노출수준 종합평가 | 인정기준 충족 여부: 미충족 ▷ 시멘트 제조: 원료밀 점검 작업, 근무 기간 1년 8개월 ▷ 소음 노출 작업 근무 기간: 1년 8개월 ▷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 | | | |

○ 과거 병력

- 2019년 진료기록 H6630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 불명(11월, 2회)

※ 건강검진 이력 확인할 수 없음

다. 2022. 10. 6.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보험가입자 추가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2) 사업주 의견

가) 근무이력

| 소속 | 근무 기간 | 직무 | 근무 장소 |
|-----------|--------------------|---------|-------|
| 수습 | 1977. 7.~1977. 10. | - | |
| ○○공장 생산1부 | 1977. 10.~1979. 4. | RM 점검원 | |
| ○○공장 생산1부 | 1979. 4.~1997. 12. | R/M 운전원 | 실내 |
| ○○공장 생산1부 | 1997. 12.~1998. 1. | RM 점검원 | |

나) 업무기인성 판단

- (1) 청구인은 ○○공장 생산부 소속은 약 20년 6개월 동안 근무했으며, 수행 직무는 RM 운전원(20년), RM 점검원(1년 6개월) 2가지 직무를 수행함
- (2) RM 운전원은 운전실(COP)에서 각 계측기를 관찰하여 Raw Mill 가동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설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별도 건물의 통합대기실 내 COP (실내)는 외부 설비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사무실로 볼 수 있고, 또한, 운전원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COP 외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현장 점검 및 방문 업무 등과 전혀 관련 없는 실내근무자로서 청구인이 RM 운전원으로 근무한 기간 근무 강도는 일반 사무직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3) RM 점검원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일 2회(오전·오후 각 1회) 순회 점검을 수행하는 직무로 설비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음
- (4) 점검원과 운전원의 근무 형태 차이
 - (가) 점검원: 대기성 업무 형태, 순회 점검
 - (나) 운전원: COP(실내) 위치, CCTV 및 스위치 조작
- (5) 청구인이 일부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RM 점검원 근무 기간은 3년 미만이므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75세의 고령인 점과 퇴직한 지 약 24년이 지난 점, 50세의 나이로 퇴직 이후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3) 사업주 추가 의견

- 가) RM 운전원 근무환경: 현재 설비 운전원은 통합 COP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며, 설비와 전혀 무관한 별도 건물에 위치하지만, 청구인 근무할 당시 운전원은 각 설비 Line에 위치하여 현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설비가 위치한 건물 내의 운전실에서 설비와 비교적 가깝고, 돌발 및 설비가동 중단 시는 비정기적으로 현장 설비에 직접 위치하는 상황이 있었음
- 나) 통합 COP는 2003년부터 #1 Kiln을 시작으로 통합 COP로 이동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운전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설비 Line의 운전실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음
- 다) 당시 작업환경측정(소음)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음 노출의 정도를 알 수 없지만, 당시 현장에서 운전원 작업을 수행한 퇴직자 진술에 따르면 주 40시간 기준 1~2시간을 현장 설비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라) 하지만, 현재 COP 운전원의 소음 측정값은 40dB 미만인 점과 현장 설비에서 정기적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을 통해 청구인은 기준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임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진술서(2022. 10. 11.)

- 가) 청구인은 1977년 7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1977년 10월부터 1984년 5월까지 약 7년 점검공 · 휘다공 · 조공 생활을 하였고, 1984년 6월부터 운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나) 통념상 조공 생활 6~7년 이상이 되어야 운전공이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또한, 조공과 운전공은 확실히 다릅니다. 예전 판넬에는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전화도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 다) 1997년 운전공 생활을 13년 정도 마친 후로 약 2개월 점검하고 1998년 1월에 퇴직했습니다.

2) 사업주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 추가 의견서(2023. 3. 8.)

- 가) 청구인이 운전할 때는 운전실은 5호 로우밀 메인 모터 바로 뒤에 판넬 안에서 막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근무하였다. 특히, 밀 분쇄 상태를 알려면 밀 밑에서 상태를 감지하는 원시적 운전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 나) 밀 옆의 소음 정도는 110dB이 되고, 판넬 안에서조차 90dB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었다.
- 다) COP 내부·외부 모습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운전실이 아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청구인이 근무하던 곳(운전실)을 같이 가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5호밀 운전실은 메인 모터 바로 뒤에 있었다.

마. 청구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확인서(김○○ 2023. 3. 8.)

- 가) 김○○는 1973년 8월부터 1996. 11. 30.까지 근무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5호 로우밀의 운전공으로서 메인 모터 뒤에 운전실이 있어서 소음에 노출된 상태이며 점검원과 운전공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운전 중 회전하는 밀 하부에 가서 소리를 들어서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판넬 내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나) 그 당시 운전공의 근무상태와 지금의 COP 운전공은 현장에서 완전히 떨어진 공간에 있기에 같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운전공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어려움이 많았고, 김○○도 지금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사실확인서(박○○ 2차 확인서, 2023. 3. 8.)

- 가) 박○○는 1974년 2월부터 1996. 11. 30.까지 로우밀에서 근무한 소속사업장의 원로라고 자부합니다. 특히나 청구인은 같은 5호 로우밀 운전공으로서 박○○의 뒤 근무 교대로 근무한 막역한 사이입니다.
- 나) 청구인의 난청 요양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로우밀 점검공과 운전공은 따로 분리할 수 없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근무 때는 운전실이 로우밀 메인 모터 바로 뒤에 방음장치도 시원치 않아서 판넬 내에서는 (유선전화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음) 통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서로의 대화를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다) 근무 중의 운전공은 판넬을 나와 밀 하부에서 밀 소리를 듣고 밀의 운전 상태를 감지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운전공의 근무상태와 지금의 COP 운전공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한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 생각 합니다. 박○○도 지금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3) 사실확인서(권○○, 2023. 3. 8.)

가) 권○○은 1978년도 소속사업장 기계과에 입사하여 1997년 퇴사까지 생산부 원료 밀의 기계 보수를 담당했던바, 5호 원료밀은 소음이 제일 심했던 것임. 판넬 내부 에서 전화도 못 받을 정도의 소음이며 5호 원료밀 메인 모터 뒤 판넬실이 있는 관계로 판넬 내부 약 90dB, 원료밀 하단부 110dB 정도 되는 소음에 많이 노출된 장소입니다.

나) 판넬 내부와 원료밀 하단부에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원료분쇄 과정을 알 수 있었으니 판넬이나 바깥이나 항상 소음에 노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은 중앙 COP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는 형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전공은 바깥에 나갈 일이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예전 운전공과 지금의 운전공은 근무조건이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진술서(윤○○, 2023. 3. 6.)

가) 윤○○은 1966년 11월 소속사업장 경비실 입사하여 3년 근무 후 시멘트밀 분쇄과 파트에서 휘다공·조공·운전공 12년 근무 후 원료밀 반장급으로 전출하여 15년 근무 후 퇴사함

나) 윤○○이 입사한 1970년도 이후에는 시멘트밀이나 원료밀 운전공이 되려면 보통 4~5년 정도 조공 생활을 하면서 기술 익힌 뒤 운전공이 된다는 사실에 어떠한 이견도 없음을 확인한다.

5) 사실확인서(김○○, 2022. 10. 10.)

가) 김○○은 1973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청구인은 1977년도에 입사 후 점검·휘다공 으로 5~6년(정확한 연도는 기억에 없습니다만) 숙련 후 운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나) 근무한 통상 경력은 5~6년 정도 점검·휘다공을 거친 후 운전공으로 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생산1과 원료밀에서 청구인과 함께하였습니다.

6) 사실확인서(박○○ 1차 확인서, 2022. 10. 11.)

가) 박○○는 1974년 2월에 입사하여 1996. 11. 30.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근무할 때는 5년 이상의 휘다공·운전 조공을 거쳐 운전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지금은 운전공이라면 별도의 운전실에서 근무하지만, 그때는 판넬이 밀이 돌아가는 옆에서 있었기에 그 소음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청구인과 근무한 것이 틀림없기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바.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재직 당시의 로우밀 운전실(판넬실) 현장의 소음도 실측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조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소음 노출 정도를 2003년에 설치된 중앙제어실에서의 소음도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도에 해당 시설에 종사한 바 없기에 실제와 다른 작업환경을 적용하여 장애급여를 부지급한바 매우 억울하고 부당함
- 이에 실제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위치에서의 실측 소음도를 적용하여 다시 판단 하여 주기를 바람
- COP 설치 전후 로우밀 운전실 작업 환경 참고

| COP 설치 이전 | 2003년 COP 설치 이후 |
|--|--|
| 1. 판넬실(스위치시설)에서 로우밀 운전 2. 판넬실의 위치는 로우밀을 움직이는 대형모터 바로 뒤에 설치 3. 판넬실은 대형유리창 안에 설치(현재는 유리창을 없애고 석면으로 폐쇄함) 4. 운전공이 로우밀 아래에 들어가 로우밀의 소리로 가동 상태를 살펴보면서 로우밀 운전(1일 최소 4시간 이상) 현재 기준 110dB 이상 5. 판넬실 안에서 일상대화 불가능(90dB 이상) | 1. 중앙제어실(COP)에서 로우밀 운전 2. 로우밀에서 상당 거리에 위치 3. CCTV, 컴퓨터로 로우밀 제어 4. 로우밀에 갈 필요 없이 조정실에서만 운전 5. 소음 노출 적어 일상대화 문제없음 (85dB 미만) |

사.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2023. 10. 26. 우리 위원회의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현재는 운전실이 로우밀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나, 청구인이 재직할 당시에는 로우밀 뒤편에 바로 붙어 있었고, 3mm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기에 운전원은 로우밀의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작업 환경이었다.

2) 또한, 300T 밑에 고압 모터 2개와 쇠파이프 돌아가는 소음이 상당하여 판넬 문을 열면 130dB, 문을 닫아도 95dB 정도였기에 조공이나 운전원이나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장기간 종사한 운전업무 수행을 소음 비노출 작업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6. 의학적 소견

가. ○○이비인후과 주치의 소견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장해진단서, 2022. 3. 24. 〉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 유발 난청
- 장해 부위: 청각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순음청력검사(2022. 2. 11./ 2. 16./ 2. 22.) 우측 47.5dB, 좌측 53.3dB
- 장해 상태: 양측 고막 정상이며 청력 검사상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임

나. ◇◇병원의 2022. 4. 27. 자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

| 구 분 | 1회차(dB) | | | | 2회차(dB) | | | | 3회차(dB) | | | |
|---------|---------|----|----|----|---------|----|----|----|---------|----|----|----|
| | 우 | | 좌 | | 우 | | 좌 | | 우 | | 좌 | |
| | 기도 | 골도 | 기도 | 골도 | 기도 | 골도 | 기도 | 골도 | 기도 | 골도 | 기도 | 골도 |
| 500Hz | 20 | 20 | 30 | 30 | 30 | 30 | 40 | 40 | 35 | 35 | 45 | 45 |
| 1,000Hz | 35 | 35 | 45 | 45 | 40 | 40 | 50 | 50 | 45 | 45 | 55 | 55 |

| | | | | | | | | | | | | |
|---------|-----|----|----|----|-----|----|----|----|----|----|-----|----|
| 2,000Hz | 55 | 55 | 65 | 65 | 55 | 55 | 65 | 65 | 60 | 60 | 70 | 65 |
| 4,000Hz | 100 | 65 | 95 | 65 | 100 | 65 | 95 | 65 | 95 | 65 | 100 | 65 |
| 8,000Hz | SO | | SO | | SO | | SO | | SO | | SO | |
| 6분법 평균 | 50 | | 57 | | 53 | | 60 | | 56 | | 65 | |

○ 기타 검사 결과

| 어음 청력검사 | | 임피던스 청력검사 | | 뇌간유발반응검사 | |
|-------------|-------------|-----------|------|----------|------|
| 우 | 좌 | 우 | 좌 | 우 | 좌 |
| 64% 80dB | 64% 80dB | Pass | Pass | 70dB | 70dB |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이명 느낀 적 없음

○ 검사소견

- 난청 원인과 정확한 상병 명: 양측 고주파수에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과거 이력이나 나이를 고려한다면 주로 노화에 의한 변화로 판단됨
-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양측 뚜렷한 병변 없음
-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양측 뚜렷한 병변 없음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 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기도·골도 청력역치 뚜렷한 차이 없음
청력 장애는 고음역에서 더 큼
- 검사 결과가 난청의 측정 방법(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함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다. 2022. 10. 26. 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자문(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 순음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7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nHL, 좌측 70dB nHL
- 어음 청취 역치 검사: 우측 35dB, 좌측 45dB
- 어음명료도 검사: 우측 64%, 좌측 64%

○ 검사의 신뢰성

- 순음 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 청력 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 청취 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에 해당함
- 청력 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종합소견

- 소음 노출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청구인 양측 청력손실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 종합적으로 소음 노출 기준에는 합당하나,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2022. 12. 6. 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원인이 되는 상병 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 2) 장애 부위: 양측 귀
- 3) 청력 장애

| 구분 | 우 | 좌 |
|-------|------|------|
| 청력 | 50dB | 57dB |
| 어음명료도 | 64% | 64% |

4) 장애 상태

- 가)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없고,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50dB, 좌측 57dB의 순음 역치를 보임
- 나) 어음 청취 역치는 우측 35dB·좌측 45dB을 보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64%, 좌측 64%를 보이며,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측 A형, 좌측 A형을 보임. 뇌간 유발반응검사는 우측 70dB nHL, 좌측 70dB nHL을 보임
- 다) 제 청력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으나, 업무 관련성 평가에서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각 장애로 판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마.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에서 약 20년간 로우밀 점검 및 운전공으로 근무하였음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력은 로우밀 점검업무 1년 8개월이며, 그 외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 뿐만 아니라,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7dB로 확인되지만, 반복 검사 간 검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력도상 중저음 영역부터 고음으로 갈수록 점차 청력이 떨어지는 고음점경형의 노인성 난청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난청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눈 또는 귀 질병 중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진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본다면서, 단서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청력손실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그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소음작업 업무와의 연관성 인정 여부인바, 제출된 검사 자료에서 순음 청력검사 결과 저음역대 청력이 상당히 보존된 고음역대 손상이 현저한 형태의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 양상으로 보이고, 설령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는 직력은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제반 자료와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과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청구인이 과거 수행한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의학적 소견
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 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氣導聽力閾值)와 골도 청력역치(骨導聽力閾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 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애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9급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0급 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1급 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애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text{분법}\{(a+2b+2c+d)/6\}$ 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2) 장애등급 판정 기준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7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 제7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

제3장 코의 장애

[2023-2664 취소]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11.)

사건의 쟁점

두부 손상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지연성 무후각증의 후각 장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한쪽 코의 무후각 증상이 있는 상태로, 한쪽 코를 막고서 냄새를 맡으면 다른 한쪽보다 현저히 후각 기능이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고, 두 차례의 병원 검사를 통해 무후각 증상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한 장애등급의 판정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제출된 CT 영상에서 냄새 입자가 후각신경으로 전달되는 통로 부분이 좁아져 후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골절로 유발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의 해부학적 요인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사고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의식 소실이 있을 정도의 충격으로 안와와 인접한 두부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두부 손상으로 인한 후각 장애의 11%가 비골골절이나, 안면부 좌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지연성 무후각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664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3. 5.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결정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5.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22. 6. 10.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우측 안와 내역의 골절,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관골궁의 골, 수근골 인대 외상성파열(삼각인대)’(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같은 해 12. 24. 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3. 5. 2.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과 같은 해 7. 1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 하였다.

1) 안면부 감각 이상 및 동통 장해는 자문 결과 “우측 안와골절 및 안면 골절로 인해서 우측 안면부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이 확인된다”라는 의학적 소견 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2) 후각 기능장해는 통합심사회의의 “두 차례의 후각 검사에서 무후각증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청구인의 수상 부위는 후각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후각 장애와 이번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라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제출된 CT 영상에서 냄새 입자가 후각신경으로 전달되는 통로 부분이 좁아져 후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해 직후 영상과 혈종이 빠진 최근 2022. 9. 26. 자 안면부 CT 영상을 비교해 본 결과 냄새 입자 전달 통로의 문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골절로 유발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인 해부학적 요인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무후각 증상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하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한쪽 코의 무후각 증상이 있는 상태로, 한쪽 코를 막고서 냄새를 맡으면 다른 한쪽보다 현저히 후각 기능이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고, 두 차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무후각 증상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원처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장애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무후각 증상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 장애급여사정서 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2. 06. 10. 10:00경 C형강을 청구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 용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대표)가 C형강 수평을 맞추는 중 갑작스럽게 “아!” 하는 소리에 쳐다봄과 동시에 얼굴을 맞고 의식을 잃고 난 이후 목격자(대표)가 깨웠고 아픈 곳을 확인 후 병원으로 감”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 후 요양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 요양 기간: 2022. 6. 10.~2022. 12. 24.(입원 4일, 통원 194일)
- 요양 승인 내역
 - 최초 요양(승인, 2022. 8. 25.):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우측 안와 내역의 골절,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관골궁의 골절, 수근골 인대 외상성파열(삼각인대)
 - 추가 상병(불승인, 2022. 9. 26): 경추 신경근 손상
 - 추가 상병(승인, 2023. 2. 20.): 무후각증
- 수술내용
 - 2022. 6. 21. Rt. OR&IF(gingivobuccal app., transconjunctival app.)

3)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 9. 28. 이비인후과

#Trauma Face

- 2022-06-10

- s/p R) OR&IF [2022-06-21]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이후 지속되는 R) anosmia로 평가위해 의뢰드립니다.

(MR PNS 수술 전 촬영하였고, 특이소견 없으며 유발할만한 요인 발견되지 않으면 경과 관찰해야 함을 본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2022. 10. 12. 이비인후과

Subjective

[2022-06-10] ER 기록

환자 오전 10시경 일하다가 쇠파이프가 얼굴 위로 떨어져서 부딪힘

헬멧 착용상태였음. 넘어지지는 않았음

[2022-06-21] -s/p R) OR&IF

[2022-07-04] 수술 후 첫 방문

ephiphora 10 → 4.5

diplopia -

[2022-07-20] 2주 만의 내원

눈물은 아침 저녁으로 끈적한 액이 있기는 하다.

낮 동안에는 신경 안 쓰고 지낸다.

trismus + 3 finger 정도 →

예정된 Zmo f/u

산재처리 원하심 → 원무과 알아보고 필요한 서식 알려주세요.

[2022-08-29] 1달 만의 내원

trimus -

diplopia -

R) 눈물 →

1mo f/u after CT facial bone.

anosmia R) → steroid 실이익 없습니다. MR PNS reviewed.

numbness R) → 6-12개월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R) ephiphora → 6-12개월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pm) DCR
Objective
Threshold: 1 / Discrimination: 5 / Identification: 3
total: 9 / 48

4) 원처분기관이 ◇◇대학교병원에 의뢰한 2023. 3. 27. 자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KVSS II 검사〉 | | | 〈ammonia test〉 | | |
|--------------|-----------|-------|----------------|---------|-------------|
| | TDI SCORE | Total | | Ammonia | Acetic acid |
| 역치 | 1 | 9 | RT | + | |
| 식별 | 5 | | LT | + | |
| 인지 | 3 | | | | |

나. 청구인은 2023. 10. 11.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장해진단서, △△병원, 2022. 10. 14. 〉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Fracture of other and unspecified skull and facial bones(closed), Fracture of medial wall of orbit(closed), Fracture of orbital floor(closed)
- 장해 부위: 코, 안와, facial bones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22. 6. 10. ER 기록. 환자 오전

10시경 일하다가 쇠 파이프가 얼굴 위로 떨어져서 부딪힘. 헬멧 착용 상태였음. 넘어지지는 않았음. 응급실 CT상 Rt. Tripod Fx. 2022. 6. 20. 입원하여 2022. 6. 21. Rt. OR & IF(gingivobuccal app., transconjunctival app.) 시행 후 2022. 6. 23. 퇴원함. 이후 외래 f/u 중임

- 장애상태: 환자 현재 anosmia, Rt. facial numbness 있음. 2022. 10. 12. KVSS상 9/48

< 의학적 소견 조회, △△병원, 2023. 2. 8. >

- 환자의 승인상병 중 ‘수근골 인대 외상성 파열(삼각인대)’에 해당하는 손목 부위의 동통, 운동범위 제한 등의 장애 소견 여부: 없음

< 후유장애진단서, △△병원, 2023. 2. 24. >

- 장애상태: ○○병원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상 환자 현재 anosmia, Rt. facial numbness로 확인됨. 2022. 10. 12. KVSS상 9/48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우측 안와골절 및 안면 골절로 인해 우측 안면부 감각 신경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이 확인되어 장애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쟁점 상병인 ‘무후각증’은 2023. 1. 17. 장애급여 청구 후 같은 해 2. 20. 승인된 추가 상병으로, 추가 상병 승인 당시 원처분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

- 추가 상병 종류: 최초 당시 누락 상병
- 신청 추가 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있음
- 추가 상병 파생/누락 여부 및 타당 여부: 누락 상병임. 타당함

○ 자문의 2

- 추가 상병 종류: 최초 당시 누락 상병
- 신청 추가 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있음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있음 또는 없음의 구체적 사유: KVSS II 검사상 무후각증 인지되며 이는 안면부 골절로 인한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사료됨

라.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는 “후각 장애 불인정”이라는 소견으로, 심사위원별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 1 : 재해 당시 우측 비골 및 상악골 안와골에 한정된 골절 외상 동반되었음이 확인되며 좌측은 특이 이상 소견이 없이 뇌출혈 등의 동반 소견도 확인되지 않은 바 있음. 2차례의 후각 검사에서 무후각증에 해당하였지만 일측 안면에 해당하는 외상 병변으로 건축 부위에는 크게 이상 소견이 없어 무후각증이 발생할 만한 외상의 기전과 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심사위원 2 : 무후각 검사 결과상은 무후각에 해당되는 검사소견이나 두부 외상 검사 결과 후각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두부 손상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고에 의한 무후각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위원 3 : 청구인의 경우 후각 기능검사에서 무후각에 해당이 되나, 영상 검사에서 우측 안면골 골절이 확인되나, 후각 기능과 관련한 olfactory bulb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변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의뢰인의 후각 기능 저하와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심사위원 4 : 두 차례에 걸친 후각 기능검사서 무후각증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우측 안면골 골절로 외상 병변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심사위원 5 : 후각 기능검사 상 무후각증에 해당됨. 그러나 청구인의 수상 부위는 후각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외상과 증상 간에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꼭 외상이 아니어도 후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예. 상기도 감염 이후에도 무후각증이 발생할 수 있음)이 있음을 생각했을 때 본 청구인의 후각 장애가 이번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후각증은 인정이 어려움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14급보다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것이다.

- 이 사건 관련 제출된 CT 영상에서 냄새 입자가 후각신경으로 전달되는 통로 부분이 좁아져 후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해 직후 영상과 혈종이 빠진 최근 2022. 9. 26. 자 안면부 CT 영상을 비교해 본 결과 냄새 입자 전달 통로의 문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골절로 유발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인 해부학적 요인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무후각 증상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
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음

바. 우리 위원회의 이비인후과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자문위원 1

- 외상으로 인한 안와 및 안면골 골절에 의한 직접적인 후각 장애(소실)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 이는 CT 및 MRI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비강(코구멍)과 대뇌 말단부인 후각세포의 구역이 정상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추가 의견으로 상기도 감염(감기 등)이 후각 장애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인데 이 경우 양측으로 후각 장애가 발생함. 본 청구인의 경우 1) 외상 후 약 2개월 경과된 (비교적 빠른) 시점에 후각 장애를 인지하였고, 2) 외상 부위는 우측인 점, 3) 안면골의 외상이 후각신경 부위에 간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은 부분적으로 인과 관계 혹은 관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30% 이내)

○ 자문위원 2

- 재해로 진단된 병명은 우측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우측 안와내벽 골절, 우측 안와 바닥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이었고, 장해부위는 코, 안와, 안면골이라 의무기록에 있으며, 상기 진단 하에 2022. 6. 21.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골절 부위 정복술과 미세철판고정술을 시행 받고, 외래 추적관찰 중 2022. 8. 29. 후각이상을 호소하여 약물 요법과 관찰을 하였으나, 호전 없어 2022. 10. 12. 후각 검사상 무후각증 결과가 나와 추적 관찰함
- 제출된 모든 의무기록과 위의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의 추가 승인 상병 ‘무후각증’이 이 사건 재해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청구인의 현재 호소하는 무후각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 그 판단의 의학적 근거는 안면골 골절을 포함한 두안부손상 시 골절선이 후각수용기의 세포체가 위치해 후점막이 이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 사상판(cribriform plate) 근처에 필히 위치하여야 무후각증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위에 기술하였듯 후각신경이 전두엽으로 들어가는 사상판 위에 위치하는 후구(olfactory bulb)의

좌상만으로도 무후각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재해로 우측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우측 안와내벽 골절, 우측 안와바닥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을 당해 장해부위가 코, 안와, 안면골에 발생하였고, 수상 후 청구인이 의식을 잃었을 정도의 충격이라면 안와와 인접한 두부에도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비인후 과학 비과 2018」에도 두부손상으로 인한 후각장애의 11%는 비골골절이나, 안면부 좌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참고로 할 때, 위에 기술한 후구 좌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지연성 무후각증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재해 직후와 혈종이 흡수된 재해 3개월 후 CT 비교로 냄새 입자가 후각신경으로 전달되는 통로 부분이 좁아져 이상 소견이 있으나, 냄새 전달 통로의 문제는 재해로 인한 골절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인 해부학적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은, 2023. 3. 27. 특진 병원 진료기록 비내시경검사 상 양측 후분열계(olfactory cleft) 부위에 부분 폐색이 있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 상기 의견으로 추가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후구 부위의 해부학적 변이로 후각 저하 특히 무후각증을 일으킨다고 단정 하기에는 방사선학적 소견을 너무 과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미 수상 전 후각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청구인은 수상 전 후각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수상전 후각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참고할 때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됨
- 또한, 최근 근로복지공단 산하 타 지역통합심사 결과를 참고하면, 청구인과 같은 40세에서 안면골 복합 골절 후 발생한 무후각증을 호소하는 경우, 수상 이전에 부비동염, 비중격만곡증 등 비강 질환이나 후각저하 병력이 없다면 나이 등을 고려하여 외상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을 참고할 때 후각장애 판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추가 승인 상병 ‘무후각증’은 이 사건 재해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중추신경계(뇌)의 장애의 경우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고, 후각 인지검사, 후각 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제12급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무후각증’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음에도 원처분은 장애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여 무후각 증상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쟁점 상병인 ‘무후각증’은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누락된 상병으로 장애급여 청구 후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의식을 잃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이는 안와와 인접한 두부에도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두부 손상으로 인한 후각 장애의 11%가 비골골절이나, 안면부 좌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할 때 이로 인한 지연성 무후각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청구인의 추가 승인 상병 ‘무후각증’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은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12급제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3. 코의 장애

나. 코의 기능장애

- 2) 영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제4장 입의 장애

[2022-3854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29.)

사건의 쟁점

사고로 인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으로 안면부 통증 및 저작장애가 있는 경우, 교합상태와 치아 배열상태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치의들의 소견상 다친 쪽으로는 통증이 심하여 저작이 어려운 상태이고 이러한 저작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동통만으로 장애를 인정한 심사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개구량 52mm, 교합상태 양호, 치아 배열 정상 소견으로 씹는 기능 장애 기준에 미달하므로 우측 관골궁의 골절과 불유합으로 인한 영구적 일반 동통만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교합상태가 양호하고 치아의 배열도 정상 소견으로 개구 정도가 씹는 기능의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우측 관골궁 골절에 따른 불유합으로 영구적인 일반 동통만 남을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라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심사기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854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4.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심사기관의 취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1. 5. 8.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관골궁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제7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폐쇄성)’(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같은 해 12. 10.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7일 원처분기관에 장애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2. 4. 18.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 23. 원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 결과 개구량 52mm, 교합상태가 양호하고, 치아 배열 정상 소견으로 씹는 기능장애 기준에 미달하며, 신경 손상에 의한 안면부 통증은 한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교합상태 양호하고 치아 배열도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어 씹는 기능장애의 정도는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우측 관골궁의 골절로 인한 불유합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반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청구인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사기관 결정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상향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21. 12. 14. ○○병원 주치의는 “안면부 통증 및 저작장애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물 이외의 섭취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이고, 2022. 9. 28. △△병원 주치의는 “신경성 통증 및 저작 시 통증이 지속되어 환측의 저작이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이다.

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환측으로는 통증이 심하여 고기류, 사과 등 과일, 무 등

반찬류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전혀 씹지 못하고, 다치지 않은 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상태이다.

다. 따라서 입의 씹는 기능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동통 장애만 인정하여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제6급 제2호 또는 제10급 제4호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에 의하여 오토바이 뒤쪽을 추돌당하여 몸이 튕겨 나간 재해 경위로 승인 상병을 진단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요양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명: 우측 관절공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제7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폐쇄성)
- 요양 승인 기간: 2021. 5. 8.~2021. 12. 10.(입원 47일, 통원 645일, 총 217일)
- 주요 수술 이력: 2021. 5. 18. 안면 골절의 개방 환원술 및 내부 고정술

다. 이 사건 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장애급여 청구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1. 12. 10.을 치유일로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입의 씹는 장애는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안면부 통증은 한시적 이라고 보아 2022. 4. 18. 청구인에게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기관은 씹는 기능장애 정도는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우측 관골궁 골절로 인한 불유합으로 영구적 일반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2. 8. 23.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심사기관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이르렀다.

라. 청구인의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 12. 10. ○○병원 경과기록 〉

- 씹는 게 전혀 되지 않아요. 죽이나 라면 정도만 먹을 수 있어요.
- 저작기능 장애로 산재 장애인단서 작성 - 물리치료

〈 2022. 3. 8. △△병원 의무기록 〉

- NRS: 2, 양상: 수심
- 근로복지공단 문의 사항
 -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및 섭취 방법: 일반식 저작
 - 개구 정도: 52mm
 - 교합상태: 양측 양호(교합지 검사 시행함)
 - 치아 배열: 정상
 - 씹는 기능의 장애: 치아 소실 없음
 - 치아 동요도 없음
 - 환자 진술: 휴지기 통증 0 / 저작 시 통증 5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해진단서, 2021. 12. 14. 〉

-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 명: 우측 관골공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폐쇄성)
- 장해 부위: 입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2021. 5. 8. 교통사고로 수상 후 검사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타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 후 재활치료를 통한 경과 관찰 중임
- 장해 상태: 지속적이고 호전되지 않는 안면부의 통증 및 저작장애로 마음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물 이외의 섭취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임

〈 소견조회 회신, 2022. 1. 12. 〉

- 섭취 가능한 음식물 내용 및 섭취 방법: 죽이나 라면 정도만 먹을 수 있음(청구인 진술)
- 개구 정도, 교합상태, 치아 배열상태: 수술적 치료 시행한 삼성서울병원 검진이 필요함
- 골절에 따른 동통
 - ☒ 복합(분쇄) 골절, 2021. 12. 23. 안면 CT상 관골공의 불유합 소견 나타남

나. 청구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병원 진단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 5. 20. 자 소견: 수술 후 약 3주간 유동식 필요
 - 수술 후 약 3개월간 수상 부위의 외상에 각별한 주의 및 정기적 외래 추적 필요함
- 2021. 5. 31. 자 소견: 수술 후 약 1달간 유동식 섭취 및 추가적 외상에 주의 필요

다. 2022. 4. 8. 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하였을 때 개구량 52mm, 교합 양호하고, 치아 배열 정상 소견으로 씹는 기능장해 기준에 미흡함
- 신경 손상에 의한 안면부 통증은 한시적으로 추후 회복 가능성 있음

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영상자료와 수술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교합상태가 양호하고 치아 배열도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어 씹는 기능장애의 정도는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 그러나 우측 관골공의 골절로 인한 불유합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반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는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로 인정된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향할만한 특이점은 없다는 소견이다.

□ 위원 1

-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경외과에서 치과로 진료 의뢰한 건에 대하여 삼○○병원 치과의 검진 결과(2022. 3. 3. 시행)는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및 섭취 방법: 일반식 저작, 개구 정도 - 52mm, 교합상태 - 양측 양호(교합지 검사 시행함), 치아 배열 - 정상, 저작기능의 장애 - 치아 소실 없음, 치아 동요도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음
- 청구인의 검사 당시의 교합 및 저작은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제출된 CT 영상에서 관골공과 광대뼈 골절 확인됨
- 해당 골절 및 수술로 인해서 개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개구 시 통증에 의한 씹는 기능의 저하를 의심할 수 있으나, 구강 및 악안면부의 해부학적 및 기능상에 의한 씹는 기능장애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심사기관의 판단인 “장애 상태는 교합상태 양호하고 치아 배열도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어 씹는 기능장애 정도는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우측 관골공 골절로 인한 불유합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일반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청구인은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타당함

□ 위원 2

- 청구인의 주치의가 △△병원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병원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개구 정도, 교합상태, 치아 배열,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입의 씹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입의 씹는 기능장해 인정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입의 씹는 기능 장애는 상하 교합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 결정한다면서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된 사람’은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교합상태가 양호하고 치아의 배열도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며,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개구 정도도 씹는 기능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우측 관골궁 골절에 따른 불유합으로 영구적인 일반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한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6급 제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제10급 제4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 관련)

4. 입의 장애

나. 씹는 기능의 장애

- 1) 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 교합(咬合)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 결정한다.

- 2)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유동식(流動食)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미음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
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된 사람을
말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 마. 동통 등 감각 이상
-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제5장 두부 장애

[2022-3044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2. 10.)

사건의 쟁점

외상성 뇌출혈로 사지부전마비와 고도의 인지 저하, 인격변화가 확인된 경우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좌측 전두엽과 우측 두정엽에 뇌연화증과 뇌 위축이 전반적으로 있고, 사지부전 마비·균형장애·실인증·실어증·인격 변화 등으로 배변 및 배뇨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므로 장애등급의 상향 조정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삼킴 장애·체위 변경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장애등급 제2급 제5호 결정 처분을 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 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044호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자녀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1. 11.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9. 4. 8. 발생한 사고로 진단 받은 ‘외상성 뇌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두피의 열상, 외상성 뇌내출혈, 고실내 출혈, 뇌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상해 불명의 정신 장애(뇌 손상)’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같은 해

9. 27.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원처분기관에 장애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11. 18. 장애등급 제2급 제5호 결정 처분과 2022. 5. 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 후 상태이고, 좌측 전두 및 우측 두정엽에 뇌연화증 있으며, 전반적인 뇌 위축·수두증 소견 있는 상태로 사지 부전 마비 Gr4, 보행장애, 균형장애, 인격 변화, 실인증, 실어증, 고도의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승인 상병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 받고, 사지 부전 마비 Grade 4로 인지 저하 및 행동 문제 지속되고 있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긴 하나, 감정의 황폐 등 정신 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 하거나, 삼킴 장애·체위 변경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장애 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좌측 전두엽과 우측 두정엽에 뇌연화증과 뇌 위축이 전반적으로 있고, 사지 부전 마비·균형장애·실인증·실어증·인격 변화 등으로 배변 및 배뇨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

나. 임상 심리검사 및 MMSE 검사 등에서 모든 값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하위에 해당하고, 환청과 환시 증상도 있어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다.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간단한 일상생활 동작도 전혀 할 수 없고, 특히 수두증에 의한 배변, 배뇨 조절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착용해야만 하는 상태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장해진단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4. 8. 12:10경 점심 식사 전에 청소를 하다 발을 헛디터 1m 70c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9. 27. 까지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904일을 요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혈중제거를 위한 경막하, 경막외 개두술과 안면·경부 이외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사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해 상태: 신규장해 2급 5호.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 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기초 산정: 신규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최종 산정: 일반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 후 상태, 좌측 전두엽 및 우측 두정엽의 뇌연화증 및 전반적 뇌 위축 확인됨. 사지 부전 마비 Gr 4. 균형장애, 고도의 인지 저하, 실인증, 실어증, 인격 변화 확인됨)

라.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치료 경과 및 검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의무 기록 | 응급센터 기록지 (○○병원) | 2019.4.8. | ✓현 병력: 내원 전 1m정도 높이에서 뒤로 떨어진 뒤 injury, epistaxis, ear bleeding 발생하여 내원, LOC+ |
| | Consultation Note(To ENT) (○○병원) | 2019.4.9. | ✓의뢰 사유: Rt ear bleeding소견 보여 의뢰 Ear hemotympanum. Rt. EAC stenosis 없음 |
| | 간호기록 (○○병원) | 2019.4.17. ~ 2019.6.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17. 전신, Eye contact은 잘 하나 obey 측정 안됨 mental: stupor, Motor Lt Gr 4- / Rt Gr 4- ✓4. 18. mental: drowsy ✓4. 25.~26. 기억력손상 있음. 헛소리함. 혼돈 있음 Br CT 출혈 거의 흡수 되었다고 함 ✓4. 28. mental: confused ✓4. 30. motor: Gr 5, Foley training후 요의 느낌 ✓5. 2. 오전 내 욕하고 침상 발로 차는 모습 보임 ✓5. 4. 유치도뇨관 교환 ✓6. 11. △△병원 차량 이용하여 퇴원함 |
| | 간호기록지 (△△병원) | 2019.6.11. ~ 2019.6.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11. (PI) 수술 후 섬망 증상 심해 보호자도 못 알아 보고 혼잣말하며 침대에서 내려오고 배회하는 등의 증상 보여 억제하였다고 함 / motor: 상지 G5/ 하지 G4~5, 기저귀 착용중 ✓6. 12. Foley training시 환자 voiding sence있다 표현.. Foley 제거 후 기저귀에 소변 나오고 있다고 환자 말함 ✓6. 14. 입으로 억제대 끊고 일어나려고 하여 억제대 재시행. 환자 자주 self talking함. irritable하여 prn) |

| | | | |
|--|---------------------------|-------------------------------|--|
| | | | <p>페리돌 1@ im</p> <p>✓6. 16. 이름 ○○○, 장소 △△병원, 왜 입원했는지는 모름</p> <p>✓6. 18. 환자 없어졌다고 정확히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112신고, 경찰 출두함</p> <p>✓6. 19. 골프장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112로 신고해서 환자 찾았다고 함. 뜯어온 풀들을 보여주며 메모지라고 말함. 전혀 대화되지 않으며 횡설수설함. 24시간 사지 억제대 유지하기로.. 낮동안 간병인 한 명, 저녁 간병인 2명 상주해서 환자 돌보기로 함</p> <p>✓6. 24. ◇◇병원(폐쇄병동)으로 전원 감</p> |
| | 외래기록 (○○대학교 병원, RM) | 2019.9.23. | <p>✓9. 23. 초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호소: Difficulty, swallowing. TBI이후 연하곤란 발생 · 전반적인 삼킴 과정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bolus formation의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삼킴 시 UES opening의 감소 나타나고 있음. 연하 재활치료 필요 |
| | 외래기록 (○○대학교 병원, NS) | 2019.12.26. ~ 2020.3.5. | <p>✓12. 26. 초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병력: ○○ 산재병원 폐쇄병동 입원 치료 중 brain MRI상 뇌실 크기가 커져 내원 · 6월부터 인지 및 보행장애와 폭력성이 늘어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함 · 보행 시 부축 없이 혼자서는 힘들 · 이름은 잘 말하나 지남력이 떨어짐. 4월 초 수술 후 2주 후 의식회복하면서 신경학적 개선되었다가 5월달 이후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인지기능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됨. 소·대변 마려우면 말은 하지만 실수는 한다. 1-2층 걸어 다녀... Gait instance는 짧아져.. 좌측 neglect(+) · 신체검사: Drowsy, Motor: U/Ex Rt IV Lt IV, L/Ex Rt IV Lt IV · Sensory: Intact, GCS14(E4M6V4) · Br MRI: enlarged whole ventricle size; |

| | | | |
|--|-----------------------------------|-------------------------------|---|
| | | | <p>Lt frontal encephalomalacia</p> <p>✓2020. 1. 9. Lumbar tap-noneffective, 더 나빠졌다. 잠 못 잔다. 걸음도 잘 못 걸어..</p> <p>✓2020. 3. 5. Spinal tap 후에도 증상 개선되지 않아</p> |
| | 입원경과 기록지 (◇◇병원, NP) | 2021.6.1. ~ 2021.9.24. | <p>✓6. 1. 의사소통 어려움. 멍한 표정임. 간헐적 공격성 보임</p> <p>✓6. 4.~5. 인지 저하 지속, 휠체어로 이동 중임</p> <p>✓6. 10. 공격성 더 심해지는 양상, 적절한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p> <p>✓6. 11. 재활치료는 협조가 되지 않음</p> <p>✓6. 24. 간병인 바뀐 후 공격성 더 심해지는 양상임</p> <p>✓7. 6. 인지 저하 및 신체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 생활 불가능</p> <p>✓7. 19. 행동 문제 간간히 관찰됨. 약을 잘 먹지 않기도 함</p> <p>✓8. 13. 무난하게 지냄. 협조적인 모습이나 예민함 관찰되기도 함</p> <p>✓8. 27. 심리검사 시 공격성을 보여 제대로 시행이 어려운 상태</p> <p>✓9. 24. 약물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원(보호자 희망)</p> |
| | 입원경과 기록지 및 퇴원요약 (◇◇병원, NS, NP) | 2019.6.24. ~ 2021.9.27. | <p>※ 입원 사유: 행동 조절의 어려움</p> <p>✓6. 24. Mental: alert, cooperation: good, Motor: Rt/Lt GrV/GrV</p> <p>✓6. 25.~26. 입원 후 병동을 서성이며 정상적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 간병인도 알아보지 못하며 담당의도 알아보지 못함. 질문에 황성수설함. 식사도 간병인이 직접 줘야 먹는 모습임. 인지 저하 매우 심각한 상태. 수면은 잘 이루었으나 오전까지 까라지고 있는 양상임.</p> <p>✓7. 3. 멍한 표정, 의사소통 어려움. 자꾸 일어나서 나가려고 함. 행동 통제되지 않는 상태임. 신경외과에서 수술적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자꾸만 나가려고 하고 대화되지 않는 모습 반복됨. 며칠 전에는 병원을 나가서 배회하여 119에 의해서 돌아옴. 인지 저하, 행동 문제, 공격적 행동 관찰됨. 증상 조절 위하여 항정신병 약제 등 투약하였음, 공격성은 다소 호전되는 양상, 인지 저하는 지속. 보호자 산재 종결 및 퇴원 희망하여 퇴원함</p> |

| | | | | | | | | | |
|----|--------------|-------------|--|-------------|------------|------------|---------------------------|------------|------------|
| 검사 | MBI | 날짜 | 2019.12.13. | | 2020.1.15. | | 2020.2.14.~ 2021.8.26. | | |
| | | 결과 | 61 | | 45 | | 27 | | |
| | MFT(32점) | 날짜 | 2019.12.13. | | 2020.7.30. | | 2021.8.26. | | |
| | | 부위 | 우측 | 좌측 | 우측 | 좌측 | 우측 | 좌측 | |
| | | 점수 | 22 | 22 | 21 | 22 | 23 | 23 | |
| | 젼슨수부 기능검사 | 점수 | 25 | 14 | 31 | 23 | 18 | 14 | |
| | MMT | 검사 결과 | 날짜 | 2019.12.13. | | 2020.7.29. | | 2021.9.14. | |
| | | | 부위 | Rt | Lt | Rt | Lt | Rt | Lt |
| | | | shoul der | 2 | 2 | - | - | - | - |
| | | | elbow | 2~3 | 2~3 | - | - | - | - |
| | | | wrist | 2 | 2 | - | - | - | - |
| | | | finger | 2~3 | 2~3 | - | - | - | - |
| | | | hip | - | - | 2~3 | 2~3 | 2~3 | 2~3 |
| | | | knee | - | - | 2~3 | 2~3 | 2~3 | 2~3 |
| | | | ankle | - | - | 2 | 2 | 2 | 2 |
| | BBS(56점) | 날짜 | 2019.12.31. | | 2020.1.15. | | 2020.7.16. | | 2021.8.26. |
| | | 점수 | 14 | | 14 | | 6 | | 5 |
| | MMSE/CDR | 날짜 | 2019.7.4. | | | 2021.8.31. | | | |
| | | 점수 | 4/3 | | | 7/3 | | | |
| | Br CT | 2020.3.5. | ✔2019년 12월 사진과 비교하여 뇌실의 크기의 변화는 없으며 periventricular lucency도 없는 상태임 ✔Compensatory ventricular enlargement | | | | | | |
| | | 2019.12.26. | ✔both temporal, Lt frontal encephalomalacia ✔compensatory ventricular enlargement ✔Rt temporal craniectomy state | | | | | | |

| | | | |
|----|--------------------------|------------|--|
| | | 2019.4.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acture of both temporal bone and sphenoid ✓Fracture of right parietal bone. ✓Pneumocephalus ✓More increased EDH/SDH over both temporal lobes ✓Hemorrhagic contusion and SAH in right temporal and left frontotemporal lobes – more increased parenchymal hemorrhages ✓Midline shift to the left. |
|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2019.7.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측 두개골 함몰, 횡설수설, 산만, 보행 불안정, 행동 통제 불가하여 입원 병동 침대에서 검사 실시. 신뢰로운 정보 얻기 어려움 ✓FSIQ 47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 모든 지표가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 사회적응능력(SA) 2세 11개월, SQ(16세 기준) 19, 기억지수(MQ) 41 및 전두엽 관리기능지수(EFQ) 41 '매우 낮은 수준', 언어 기억지수(47), 그림기억지수(55), 즉시회상지수(53), 지연 회상지수(47), 지연재인지수(44) '매우 낮은 수준' ✓MMSE: 4 / CDR: 3 |
| | | 2021.8.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SIQ 41 '매우 낮은 수준' ✓사회연령 3세 1개월, SQ 19(16세 기준) ✓기억지수(MQ): 40, 전두엽 관리기능지수(EFQ): 40 ✓MMSE: 7 / CDR: 3 ✓현재 손상 수준이 심하고 타인의 보호와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 |
| | 몬트리올 인지평가 (MOCA-K) | 날짜 | 2019.10.2. |
| | | 결과 | 7/30 |
| 기타 | 최종 투약 내역 | 2021.7.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신경용제: 에이프렉사정, 인베가서방정,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글리아티린, 영프로마정 ✓항전간제: 오르필서방정, 리보트릴정 ✓각성제·흥분제: 페니드정 ✓최면진정제: 라제팜정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시럽, 스파탐캡슐 |

마. 청구인은 국가 장애로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공개 정보 포함에 따른 그림 생략)

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3. 2. 10.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는 뇌 손상 후 인지 저하 및 행동 문제 등 지속되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 장해진단서(2021. 9. 27. 근로복지공단 ○○병원) 〉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기질성 인격장애
- 장해 부위: -
- 치유일(증상 고정상태): 2021. 9. 27.
-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임상 심리검사
- 장해 상태
 - 상기 환자 뇌 손상 이후 인지 저하, 공격성, 조절되지 않는 행동 문제 등으로 폐쇄병동 입원 치료함
 - 인지 저하 및 행동 문제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퇴원 전 시행한 심리 검사상 전체 지능 41, 사회연령 3세 1개월, 기억지수 40, 전정상적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임
 - 현 상태로 판단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됨

나. 원처분기관의 2021. 11. 16. 자 통합심사회의 결과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 1(정신건강의학과)

- 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 후 상태. 좌측 전두엽 및 우측 두정엽의 뇌연화증 및 전반적 뇌 위축 확인됨. 사지 부전마비 Gr4, 균형장애, 고도의 인지저하, 실인증, 실어증, 인격변화 확인됨.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 2(재활의학과)

- 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 후 상태. 좌측 전두엽 및 우측 두정엽의 뇌연화증 및 전반적 뇌위축 소견. 사지 부전 마비 G4. 고도의 인지 저하, 실인증, 실어증, 인격 변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수시 간병 대상

○ 심사위원 3(신경외과)

- 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 후 상태. 좌측 전두엽 및 우측 두정엽의 뇌연화증 및 전반적 뇌위축 소견. 사지 부전 마비 G4. 고도의 인지 저하, 실인증, 실어증, 인격 변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수시 간병 대상

○ 심사위원 4(정신건강의학과)

- 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 후 상태로 좌측 전두엽 및 우측 두정엽에 뇌연화증 및 전반적 뇌위축 확인되며, 사지부전 마비로 Gr4 정도로 확인되고, 고도의 인지저하, 실인증, 실어증, 인격변화 확인되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 5(신경외과)

- 외상성 뇌출혈로 개두술후 상태임. 좌측 전두엽 및 우측 두정엽에 뇌연화증 및 전반적 뇌위축 있음. 사지부전마비(Gr4) 확인됨. 고도의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 실인증 있으며 인격변화 확인됨.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됨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소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 받고, 사지 부전 마비 Grade 4로 인지 저하 및 행동 문제 지속되고 있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긴 하나, 감정의 황폐 등 정신 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삼킴 장애·체위 변경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애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애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중추신경계(뇌)의 장애의 경우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애, 환각 망상, 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이는 장애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좌측 전두엽과 우측 두정엽에 뇌연화증과 뇌 위축이 전반적으로 있고, 사지 부전 마비·균형장애·실인증·실어증·인격 변화 등으로 배변 및 배뇨장해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 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제2급 제5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상위의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 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애, 환각 망상, 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대뇌소증상, 인격 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 나)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제6장 신경계통의 장애

제1절 신경장애

[2023-2720 취소]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12.)

사건의 쟁점

좌측 편마비 상태인 경우 근경직도평가 등을 통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실제 장애 상태가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부터 특별진찰 결과와 같이 좌 수부, 좌 완관절, 좌 족관절, 좌 발가락의 운동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우측 시상부위 뇌출혈로 인한 추체외로의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가 확인되나, 인지장애는 없고 지팡이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애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의학 영상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뇌출혈 부위가 시상을 넘어 속섬유막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축진을 통해 확인한 좌수부가 기능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며 좌하지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인 노동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720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3.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10. 진단받은 ‘자연성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2. 9. 23.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 19. 원처분기관에 장애등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3. 1. 12. 장애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과 같은 해 6.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의 “우측 시상부위 뇌출혈로 인해 현재 좌측 편마비 상태이며 근력은 좌상지 G2, 좌하지 G4로 확인되고, 기록지 상 수정바렐지수는 73점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팡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의식은 청명함.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정확한 장애 상태 확인을 위해 특별진찰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주치의의 장애진단서상 소견보다 장애 상태가 좋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 우측 시상부위 뇌출혈로 인해 추체외로의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 확인되나 인지장애는 확인되지 않고, 보행에 불편함은 있으나 지팡이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애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심사기관에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 확인을 위해 특별진찰 후 그 결과가 주치의 소견보다 좋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하였으나, 신뢰하지 않을 특별진찰을 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주치의는 처음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고, 특별진찰 결과가 주치의 장애진단서상 소견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

다. 청구인의 실제 장애 상태가 주치의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부터 특별진찰 결과와 같이 좌 수부, 좌 완관절, 좌 족관절, 좌 발가락의 운동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심사기관의 주장처럼 특별진찰 결과에서 더 나빠진 것이 아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5. 10. ○○○○사업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계속되는 업무 과다로 쓰러져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2. 9. 23. 까지 요양하였고, 주요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 자연성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
- 요양 기간: 2018. 5. 10.~2022. 9. 23.(입원 1,425일, 통원 173일)
- 수술: 2018. 5. 10. other operations to establish drainage of ventricle

나.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사정하였다.

- [장애 상태] 신규장애 제9급 제15호 현재 좌측 편마비 상태(상지 G2, 하지 G4)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임(수정바텔지수 73점).

지팡이 자가보행이 가능하며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 [최종 산정] 일반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다. 청구인의 장애와 관련하여 2022. 7. 1. ○○권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수근력 검사(MMT)

| 부위 | 우측 | 좌측 | 비고 |
|----------|----|-------|----|
| SHOULDER | N | F | |
| ELBOW | N | F - T | |
| WRIST | N | P | |
| HIP | N | F - P | |
| KNEE | N | F | |
| ANKLE | N | P | |

2. 균형능력 평가도구(BBS): 42 / 56점

| | | |
|-------------------------------|--|---|
|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 손을 사용하여 스스로 설 수 있다. | 3 |
| 2. 잡지 않고 서 있기 | 안전하게 혼자서 2분동안 서 있을 수 있다. | 4 |
| 3. 기대지 않고 스스로 앉기 | 2분 동안 안전하고 확실하게 앉을 수 있다. | 4 |
| 4. 선 자세에서 앉기 |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앉는다. | 4 |
| 5.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 확실히 손을 사용해야 안전하게 옮겨 앉을 수 있다. | 3 |
| 6. 눈감고 서 있기 | 옆에서 지켜보면 10초 동안 서 있다. | 3 |
| 7. 양발 모으고 서 있기 | 혼자서 두발을 붙이고 옆에서 지켜봐 주면 1분 동안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 3 |
| 8. 서 있는 자세에서 팔 앞으로 뻗기 | 앞으로 뻗을 수는 있으나,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 1 |
| 9. 서 있는 자세에서 바닥에 있는 물체 집어 올리기 | 물건을 집어 들 수 있으나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 3 |
| 10. 왼쪽과 오른쪽 돌아보기 | 옆 방향으로만 비스듬히 돌릴 수 있으나 균형은 유지된다. | 2 |

| | | |
|----------------------|--|---|
| 11. 360도 회전하기 | 한 방향으로만 4초 이내에 안전하게 360도 돌 수 있다. | 3 |
| 12. 발판 위에 교대로 발 올려놓기 | 혼자서 안전하게 서서, 20초 이상 걸려 안전하게 발을 교대로 8회 올려놓을 수 있다. | 3 |
| 13. 한발 앞으로 내밀어 지지하기 | 혼자 큰 걸 발걸음으로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다. | 3 |
| 14. 한발로 서 있기 | 혼자서 한 발을 들고 5~10초 정도 서 있을 수 있다. | 3 |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73 / 100점

| 항목 | 점수 | 항목 | 점수 |
|----------|----|------------|----|
| 개인위생 | 4 | 옷입기 | 8 |
| 목욕하기 | 4 | 배변조절 | 8 |
| 식사하기 | 8 | 배뇨조절 | 8 |
| 화장실 가기 | 8 | 보행 | 8 |
| 계단 오르내리기 | 5 | 의자/침대 이동하기 | 12 |

4. 손 기능검사

| 항목 | | Lt | | Rt | |
|----------------------------------|-----------------|-------------------|----|---------------|----|
| Nine-hole pegboard Test | | N/A | | 23.16 | |
| Grip Strength Test | Grip strength | 2kg | | 30kg | |
| | Three Jaw pinch | N/A | | 8kg | |
| | Lateral pinch | 2kg | | 12kg | |
| | Tin pinch | N/A | | 7kg | |
| Jebson-taylor hand function test | 항목 | Lt (Non-dominant) | | Rt (Dominant) | |
| | | 시간 | 점수 | 시간 | 점수 |
| | 짧은 문장쓰기 | N/T | 0 | 10.4 | 14 |
| | 카드 뒤집기 | N/T | 0 | 7.2 | 7 |
| | 작은 물건 옮기기 | N/T | 0 | 7.7 | 12 |
| | 먹는 흉내내기 | N/T | 0 | 8.6 | 13 |
| | 장기말 쌓기 | N/T | 0 | 4.1 | 13 |
| |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 N/T | 0 | 5.9 | 10 |
| |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 N/T | 0 | 5.6 | 10 |

- 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애와 관련하여 특별진찰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3. 4. 28.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수근력 검사(MMT)

| 부위 | 좌측 | 비고 |
|----------|-------|--|
| SHOULDER | F | ▶ Normal: 강한 저항을 이겨내고, 항중력 방향으로써의 완전한 범위 ▶ Good: 보통의 저항을 이겨내고, 항중력 방향으로써의 완전한 범위 ▶ Fair: 항중력 방향으로써의 완전한 범위 ▶ Poor: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완전한 범위 ▶ Trace: 관절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약간의 근수축만 보임 ▶ Zero: 어떤 수축도 보이지 않음 |
| ELBOW | F - T | |
| WRIST | P | |
| HIP | F - P | |
| KNEE | F | |
| ANKLE | P | |

2.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66 / 100점

| 항목 | 점수 | 항목 | 점수 |
|----------|----|------------|----|
| 개인위생 | 3 | 옷입기 | 5 |
| 목욕하기 | 3 | 배변조절 | 8 |
| 식사하기 | 8 | 배뇨조절 | 8 |
| 화장실 가기 | 5 | 보행 | 12 |
| 계단 오르내리기 | 2 | 의자/침대 이동하기 | 12 |

3. 손 기능검사

| 항목 | Lt (Non-dominat) | | Rt (Dominant) | |
|---------------|------------------|----|---------------|----|
| | 시간 | 점수 | 시간 | 점수 |
| 짧은 문장쓰기 | N/T | 0 | 21.19 | 9 |
| 카드 뒤집기 | N/T | 0 | 10.18 | 1 |
| 작은 물건 옮기기 | N/T | 0 | 14.31 | 6 |
| 먹는 흉내내기 | N/T | 0 | 12.34 | 10 |
| 장기말 쌓기 | N/T | 0 | 6.56 | 10 |
|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 N/T | 0 | 8.35 | 6 |
|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 | N/T | 0 | 8.79 | 5 |

4. 균형능력 평가도구(BBS): 6 / 56점

| | | |
|-------------------------------|---------------------------------------|---|
| 1.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 많은 도움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다. | 0 |
| 2. 잡지 않고 서 있기 | 도움 없이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 0 |
| 3. 기대지 않고 스스로 앉기 | 안전하게 2분 동안 앉을 수 있다. | 4 |
| 4. 선 자세에서 앉기 | 앉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 0 |
| 5.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 도움을 줄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 | 1 |
| 6. 눈감고 서 있기 |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 0 |
| 7. 양발 모으고 서 있기 | 발을 모으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15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 0 |
| 8. 서 있는 자세에서 팔 앞으로 뺨기 | 앞으로 뺨을 수 있지만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 1 |
| 9. 서 있는 자세에서 바닥에 있는 물체 집어 올리기 | 시도할 수 없다/균형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 0 |
| 10. 왼쪽과 오른쪽 돌아보기 |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 0 |
| 11. 360도 회전하기 | 돌 때 도움이 필요하다. | 0 |
| 12. 발판 위에 교대로 발 올려놓기 |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시도할 수 없다. | 0 |
| 13. 한발 앞으로 내밀어 지지하기 | 발을 옮기거나 서 있을 때 균형을 잃는다. | 0 |
| 14. 한발로 서 있기 | 시도할 수 없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 0 |

마. 2021. 3. 4. ○○시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정도결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정합니다.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 뇌출혈 발생이 확인되며,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MBI) 결과 73점인 점, 손기능검사(HFT) 결과, 치료 경과, 뇌영상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뇌병변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바. 청구인은 2023. 10. 12.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장애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애진단서(2022. 10. 19. ○○권역재활병원) 〉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장애 부위: 좌측 편측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8. 5. 10. 발병 이후 2018. 5. 24. 부터 2022. 9. 23.까지 본원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지속하였음. MMSE=27/30, GDS=2/7, MBI=73/100, Moderate assist level, MMT=상지(N/P), 하지(N/F) 좌측 손목, 손가락, 발목, 발의 기능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임. 균형 능력 저하로 수 차례 낙상사고 발생하였고 강직으로 인해 합병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임
- 장애 상태: 장애 상태: 본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인한 인지저하, 좌측 편마비, 균형 능력 저하, 강직,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나타나 약물치료 지속 중이며 지속적인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

〈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2022. 12. 7.) 〉

- ※ 원처분기관은 주치의 장애진단서상 장애등급 제2급과 제5급 소견이 혼합 기재되어 있어 주치에게 정확한 장애등급 기재를 요청하여 회신받음
 - 회신 내용: 본 환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환자임

- 장애 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애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 장애) 소견서

| | | | | | | | | |
|--------------|--|----|------------|------------|-----------|-----------|------------|------------|
| 마비 | ○ 원인 부위: 뇌성 | | | | | | | |
| | ○ 종류: 지각마비, 운동마비 | | | | | | | |
| | 반사 | 좌 | | | | 우 | | |
| 상지 | | 하지 | 바빈스키 검사 | 기타 병적반사 | 상지 | 하지 | 바빈스키 검사 | 기타 병적반사 |
| | √ | √ | √ | √ | - | - | - | - |
| | ○ 배변, 배뇨장애: 유 | | | | | | | |
| 일상동작 장애정도 | ○ 보조기 사용상황: 항상 / 사용보조기종류: 좌측 발목 관절 보조기 | | | | | | | |
| | 잡기 | | | | 좌 × / 우 ○ | 상지의 입고 벗기 | | △ |
| | 쥐기 | | | | 좌 × / 우 ○ | 작은 단추 끼우기 | | × |
| | 수건을 짜기 | | | | × | 일어서기 | | △ |
| | 끈을 매기 | | | | × | 건기 | | △ |
|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 | | | 좌 × / 우 △ | 계단오르기 | | × |
|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 | | 좌 × / 우 ○ | 계단내려가기 | | × |
| | 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 | | | 좌 × / 우 △ | 한쪽발로 서기 | | 좌 × / 우 △ |
|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 | | | 좌 × / 우 ○ | | | |
| | ※ 보조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는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 | | | | | | |

○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 | | | | | | | |
|------------------|--|----|-------|----------------|-----|----|----|
| ※ 일상동작 자력가능정도 평가 | | | | | | | |
| 착·탈의 | 옷을 입거나 벗을 때 | 3 | 휠체어 | 휠체어를 타고 이동시 | 2 | | |
| 세면 | 세수나 양치질 및 머리를 감을 때 | 3 | 계단 | 계단으로 이동시 | 4 | | |
| 목욕 | 목욕 전반적인 과정 | 3 | 이동(1) | 침실에서 일어나 이동시 | 2 | | |
| 식사 | 차려진 음식을 먹는 과정 | 2 | 이동(2) | 휠체어에서 침대간 이동시 | 2 | | |
| 화장실 | 대소변을 보기 위해 출입시 | 2 | 이해력 |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 | 2 | | |
| 용변 | 용변기에 앉은 후 대소변 과정 | 2 | 표현력 |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 2 | | |
| 보행상태 | 지팡이 보행 | | | | | | |
| | 휠체어 사용: 유(수동) 사유: 짧은 거리는 자가 사용하나 장거리 이동시 보조가 필요함 | | | | | | |
| 마비상태 | 부전 마비 | 부위 | 견관절 | 주관절 | 완관절 | 수부 | 하지 |
| | | 좌측 | G3 | G2 | G2 | G1 | G3 |
| 종합조건 |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인지 저하, 배뇨배변장애, 균형능력 저하가 동반되어 일상생활 동작 및 이동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 | | | | |

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2023. 1. 10.) 〉

- 통합심사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9급)
- 심의 소견: 우측 시상부위 뇌출혈로 인해 현재 좌측 편마비 상태이며 근력은 좌상지 G2, 좌하지 G4로 확인되고, 기록지상 수정바델지수는 73점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팡이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 이고 의식은 청명함.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다.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장애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특별진찰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주치의의 장애진단서상 소견보다 장애 상태가 좋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우측 시상부위 뇌출혈로 인해 추체외로의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 확인되나 인지장애는 확인되지 않고, 보행에 불편함은 있으나 지팡이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애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애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애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애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명시하고 있는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심사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와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원처분 기관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의 의학 영상에서 확인되는 뇌출혈 부위가 시상을 넘어 속섬유막 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축진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좌수부는 기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좌하지도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하고 있으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일반적인 노동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근경직도평가기준 1~2등급 동반되어 일반인과 비교해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장애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 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 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애부위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⑤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이하 “장애등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애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애,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대뇌소증상, 인격 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제2절 정신장애

[2023-1124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7. 21.)

사건의 쟁점

불안, 불면, 우울, 무망감 등의 증상을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고로 인해 7개월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트라우마로 집에서 홀로 술과 약으로 버티며 생활하고 있으며,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 극심한 우울증으로 타인을 만날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있고, 심한 우울증과 저혈당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은 없는 반면, 우울, 불안, 불면, 무망감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여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등에서 청구인의 상태가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이라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을 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124호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로서, 2020. 11. 27. 재해로 진단받은 ‘적응장애’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2. 12. 2.까지 요양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원처분 기관에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2. 12. 16.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과 2023. 3.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2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의무기록지 참조한바, 불안, 무망감,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은 없는 반면, 우울, 불안, 불면, 무망감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로 인해 7개월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집에서 홀로 술과 약으로 버티며 생활하고 있으며,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 극심한 우울증으로 타인을 만날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있고, 심한 우울증과 인슐린을 맞고 식사를 하지 못해 저혈당 증상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재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11. 27.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약 3시간 갇혔다가 구조된 이후 불안, 답답함 등의 증상을 느껴 ‘우울증 NOS, 밀폐공포증’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 ‘우울증 NOS, 밀폐공포증’을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결과(◇◇2021 판정 제○○○○호)

- 제출된 의무기록,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이후 우울감, 불안, 불면, 가슴 답답함,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적응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조경 자재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화물용 엘리베이터 기계오류로 인해 2시간가량 갇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증상이 발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4~5년 전부터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치료 이력 확인되나,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증상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상에 부합되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나.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및 장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 적응장애 (2022. 2. 10. 승인)

※ 불승인 상병: 우울증 NOS, 밀폐공포증(2022. 2. 10. 불승인)

○ 요양 기간: 2020. 11. 27.~2022. 12. 2.(입원 315일, 통원 297일, 재가 124일)

○ 장애등급 결정: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사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경/정신]

- 장애 상태: 신규장애: 제14급 제10호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
 - 기초 산정: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산정: 일반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
- 장애등급: 일반 제14급 제10호

라. 청구인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WAIS-IV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기독병원, 2022. 6. 23.)

- 객관적 인지 인지기능 검사: 74.4%, GAI 80.9%
 - 언어이해 90.24%, 지각추론 76.6%, 작업기억 81.10%, 처리속도 78.7%
 -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으로 인한 기능저하에 더해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었던 수검태도가 수행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잠재적 인지기능은 '평균' 하 수준
- 간이정신상태 검사
 -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언어, 그리기 능력 적절함 (K MMSE 2=25/30 기억 등록 3/3, 주의집중 및 계산 5/5, 언어 8/8, 그리기 3/3)
 - 시간 및 장소 지남력도 대체로 양호 (시간 지남력 3/5, 장소 지남력 4/5)
 - 신체 및 좌우 지남력 적절하였음. 수지 지남력 확인하는 과제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려하는 태도
 - 시각적 주사력과 태세전환능력 확인 과제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음
- 환자는 현재 주관적으로 우울, 불안, 공포를 경험하며 위축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러한 정신적 불편감을 신체증상으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음

〈요약〉

Summary

요약하면, 객관적 인지기능 검사에서 환자는 '경계선' (74.4%ile; GAI 80.9%ile) 수준에 해당하였다. 한편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으로 인한 기능저하에 더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은 '평균' 하 수준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환자는 언어적 능력에 부족함이 없겠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예민성이 부족해 주변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지 못하며 관습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겠다. 또한, 일상에서 모호하게 지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화 후론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더불어, 정서적 불편감과 비 협조적인 수검 태도에 기인한 듯, 주의력 발휘의 효율성과 정신 운동 속도도 저하되어 있었나, 이러한 환자는 공통 적체와 어려움과 관련하여 전두엽 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된 모습이었다. 한편, 환자는 현재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하며 심리적 위축된 상태인 것 같은데, 객관적인 평가에서보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자살에 대한 내성이 낮고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환자는 욕구가 좌절될 때 타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지 못해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적응적인 방식으로 좌절감과 분노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되겠다. 한편, 환자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정서적 불편감에 더해 슬픔 조절의 어려움, 자살 시도의 과거력을 고려할 때, 자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요청되는 바이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장애 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해급여 청구서상 장해진단서, ○○병원, 2022. 12. 6. 〉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적응장애
- 장해 부위: 정신신경계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20. 11. 27. 사고 이후 발생한 두근거림, 불안, 불면 등 증상으로 상기 진단하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약물치료 및 정신 치료받아 왔으며 증상이 지속되고 기능 제한이 지속됨
- 장해 상태: 사고 이후 자극과민, 과각성, 불면, 불안, 긴장, 우울, 집중곤란 등 지속되어 치료 중이며 불면, 자살사고, 무망감, 충동조절곤란, 이자극성 등 지속되고 조절되지 않아 일상 생활 및 사회적인 기능에 제한이 있음
- 합병증 예방관리 필요성에 관한 소견: 추후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합병증 가능성 있어 주의 요함

〈 심사청구 시 제출, 진단서, ○○병원, 2023. 2. 21. 〉

- 병명: 적응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불안신경증
- 소견: 2020. 11. 27. 사고 이후 발생한 두근거림, 불안, 불면 등 증상으로 상기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분입니다. 현재 자극과민, 과각성, 불안, 긴장, 입면 곤란, 수면 유지곤란, 우울감, 집중 곤란, 의욕 저하, 흥미 상실, 피로감, 무망감, 충동 조절의 곤란, 이자극성, 죽음에 대한 생각, 두통, 식욕의 저하 등 증상이 악화·지속되고 있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가 곤란하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추후 정신의학적 치료 지속 요합니다.

〈 심사청구 시 제출, 진단서, ○○내과의원, 2023. 2. 22. 〉

- 병명: 당뇨
- 소견: 상기 환자는 2021. 7. 23.부터 상기 진단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지 참조 한 바, 불안, 무망감,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됨.(장해등급 제14급) 60109 합병증관리 필요함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정신장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뿐,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판단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상병 상태 등을 확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은 없는 반면, 우울, 불안, 불면, 무망감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우리 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는 청구인의 신경·정신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문의 1 〉

- 의무기록 검사결과지 등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기질적 뇌손상이 없고, 호소하는 정신과 증상은 정신적 외상에 기인한 심인성 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가 안되는 경우인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할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타당합니다.

〈 자문의 2 〉

- 의학적 자료 검토
 - ○○병원 기록에 따르면 2022. 3. 23. 불안, 우울, 의욕 저하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후 2022. 11. 11. 약을 많이 먹고 소진되었다고 하여 약물 과량 투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받음. 2022. 11. 28. 산재 신청에 대한 설명, 2022. 12. 30. 잠을 잘 잔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다, 2023. 1. 19. 잠을 깊이 못 잔다, 낮에 쳐지지는 않는다, 2023. 1. 27. 식욕이 없다, 2023. 1. 31. 머리가 조이듯 아프다 등의 증상 호소한 내용이 확인됨. 상기 내용은 2023. 2. 28.까지 확인됨

- 2022. 12. 23. ○○기독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우울증약 10알을 먹고 일어나지 않아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하고 검사 결과 치료 농도로 확인되고 기타 검사상 특이 소견 없어 퇴원 조치하였음

○ 의학적 자료에 대한 판단

- 제출된 기록은 국소적 신경증적 증상에 대한 내용이며 비기질성 정신 증상으로 판단됨

○ 결론

- 해부학적 두부 손상에 기인하는 기질적 질병 이외의 정신 증상은 제14급 제10호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며 충분한 기간(통상 수상 후 18~24개월) 치료 이후에도 지속 되는 정신증상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 건은 제14급 제10호 보다 상향할 소견이 없으며, 기존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애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애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동통 등 감각 이상 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아울러, 외상성 신경증의 경우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을 때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하고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으로 약에 의존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장애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불안, 불면, 우울, 무망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출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지 등에서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제7장 **흉복부 장애**

[2022-3669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22.)

사건의 쟁점

간질성 폐질환으로 수술 후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심폐기능의 저하로 심한 호흡곤란과 잦은 마른기침으로 일상생활 및 육체적 부담작업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므로 폐기능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간질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은 상태로, 숨이 찬 정도나 폐 손상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하여 장애등급 제9급 제16호 결정 처분을 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최종 시행한 청구인의 흉부 CT 검사 결과는 이전 1년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고 폐 기능 검사에서 FVC(노력성폐활량) 55%,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56%로 2018년 이후 악화소견이 없어 장애등급 제9급 제16호를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669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2.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8. 31. 진단받은 ‘간질성 폐질환’(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1. 1. 까지요양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 6.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2. 2. 3.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결정·처분과 2022. 6. 2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9. 2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의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는 심사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상병 명 ‘간질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은 상태로, 숨이 찬 정도나 폐 손상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고 보아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심한 호흡곤란과 잦은 마른기침으로 일상생활 및 육체적 부담작업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흉복부 기능 장해에 대하여 폐기능검사 결과를 통해 결정되는 진폐 장해등급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기준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9급보다는 상위의 장해등급 제5급 또는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청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6. 4. 24.~2017. 8. 30. 발병 당시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현장에서 방청 작업 중에 생긴 기름에 호흡기가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승인 상병에 대하여 재해일인 2017. 8. 31.부터 2022. 1. 1.까지 총 1,585일 동안 요양하였고, 수술을 시행한 이력이 있다.

- 승인 상병: 간질성 폐질환
- 요양 승인 기간: 2017. 8. 31.~2022. 1. 1. 통원 1,026일, 재가 559일
- 주요 수술 내역(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 2019. 7. 31. 폐쇄기절제술(2+3개)

다.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 시 승인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질병 판정서 발체(○○-2020 판정 제○○○호)
 -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나이,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방청 작업 중에 생긴 기름에 호흡기가 노출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전문(역학)조사 결과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상의 사실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 1년 4개월간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방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은 유해 물질의 노출수준이 낮더라도 면역학적 과민반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2023. 3. 22.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리회의 결과 자문 의뢰 등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류 결정되었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 4. 1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장애 상태에 대한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애진단서, ○○대학교병원, 2022. 1. 3. 〉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과민성폐질환(간질성폐질환의 일종)
- 장애 부위: 호흡기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 진료 및 치료 기간: 2017. 8. 31.~2021. 12. 28.
 - 폐 조직 검사: △△대학교병원(2019. 7.) 결과, 만성염증
 - 폐기능검사(2021. 12. 10.): FVC 55%, FEV1 56%(58%), DLCO 61%, 2018년 이후 악화소견 없음
- 장애 상태
 - 영상소견: 과민성 폐질환은 장기적으로 계속 악화할 수 있는 질환임. 최종 CT 검사는 2021. 8. 20.에 있었으며 1년 전 영상과 비교 시 차이 없음
 - 폐기능검사: 호흡 기능 장애평가는 주로 폐 기능 검사로 평가됨

| 구분 | FVC(%) | FEV1(기관지확장제 후) | DLCO(%) |
|-----------|--------|----------------|---------|
| 2018. 11. | 67 | 68 (67) | 54 |
| 2020. 5. | 51 | 50 (59) | 49 |
| 2020. 10. | 57 | 57 (62) | 43 |
| 2021. 5. | 54 | 57 (57) | 41 |
| 2021. 12. | 55 | 58 (58) | 61 |

나. 2022. 1. 28.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는 폐기능 검사상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심사 결과: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9급제16호)
- 심사 결과 의견: 2021년 8월 흉부 CT 영상에서 간질성 폐질환의 범위가 2017년 보다는 진행된 소견이며 2020년과는 비슷한 정도입니다. 폐기능은 2021년 12월 10일 폐기능 검사에서 FVC 55%, FEV1 56%로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 심사기관은 숨이 찬 정도나 폐 손상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진폐 혹은 COPD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등급을 보다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청구인의 승인 상병, 치료 경과,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및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상병 명 ‘간질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은 상태로, 숨이 찬 정도나 폐 손상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9급 제16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2023. 4. 3. 우리 위원회에서 내과 자문 의뢰한 결과는 청구인의 최근 검사에서 장해등급 상향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는 없다는 소견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기 청구인은 2017년 8월 31일 간질성 폐질환 진단받았고 병원 치료 중으로 질병 추적 검사를 위해 2021년 8월 흉부 CT 검사 시행하였으며 이전 흉부 CT 검사와 비교하여 진행된 소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폐 기능 검사 결과 악화 소견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진폐 또는 COPD 기준으로 장해등급 상향 조정 요청하나, 진료기록에서 흡연력이 있고 2019년 7월 폐 조직 검사받았으며 조직검사 결과 만성염증 소견 보여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 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청구인은 간질성 폐질환에 해당하고 흉부 CT 검사와 폐 기능 검사에서 악화소견 보이지 않아, 최근 검사에서 장해등급 상향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는 없다고 판단되어 장해등급은 지금과 같이 제9급 16호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심폐기능의 저하로 심한 호흡곤란과 잦은 마른기침으로 일상생활 및 육체적 부담작업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므로 폐기능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5급 또는 제7급으로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2021. 8. 최종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는 이전 1년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소견이고, 2021. 12. 10. 시행한 폐 기능 검사에서 FVC 55%, FEV1 56%로 2018년 이후 악화소견이 없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의 최근 검사에서 장애등급 상향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는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있지만 흉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16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9급 16호에 해당할 뿐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7. 흉복부 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흉부장기의 장애

-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애

복부장기의 장애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제8장 체간의 장애

1. [2022-2523 기각] 장애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 11.)

사건의 쟁점

척추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애를 서로 다른 부위 장애로 보아 장애 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기존 장애 흉추 제8번-요추 제1번 고정술 상태의 장애부위는 ‘척추와 그 밖의 체간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애부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으로 두 장애 부위는 서로 다른 부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장애급여 산정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재해 이전 청구인이 업무 외 사유로 척추고정술을 받아 장애등급 준용 제8급 결정을 받았던 점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재해로 흉수 손상에 따른 반신 마비 상태로 장애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장애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는 척수손상 장애는 신경계통장애와 다른 부위에 남게 된 기능장애 등 2개 관점(계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부위 장애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서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애와 척추 기능장애는 비록 장애계열은 다르나 동일부위 장애로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음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전, 척추 기능장애로 준용 제8급의 기존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흉추부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에 따른 신경계통기능장애 제3급 제3호 인정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척추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애는 동일부위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애등급을 가중 제3급으로 결정하여 기존 장애급여를 공제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2523호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1.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9. 9. 10. 사고로 진단받은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좌측 T1-2 가시돌기, 좌측 T3 횡행돌기), 흉추부 압박골절 NOS(T2, 3, 4, 6, 10), 흉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경추의 상세 불명의 골절-폐쇄성 NOS(C7 가시돌기), 신장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우측),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위의 손상-열상,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우측 6-10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우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타박상(양측), 견갑골의 골절 NOS-폐쇄성(좌측), 천골의 골절-폐쇄성, 절구의 골절-폐쇄성(우측), 장골의 골절-폐쇄성(우측), 천장관절의 골절 및 천미관절의 탈구(우측),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외상성 쇼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급성 신우신염, 방광결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2021. 9. 10.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12. 3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최종 제3급 제3호로 평가한 후 제3급의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하고 산정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22. 4.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3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라는 진단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평가한 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흉추8번-요추1번 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 257일에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 109.89일을 공제하고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 상태는 경추 하부 흉추 쪽 심한 골절

신전손상 및 흉추 제2-3번 탈골로 인한 흉수 손상으로 반신 마비 상태이고, 척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업무 외 사유로 흉추 8번-요추 1번 고정술 상태로서 기존 장애등급은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

3) 척수손상에 따른 장애는 노무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신경계통장애와 다른 부위에 남게 된 기능장애 등 2개 관점(계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부위 장애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척추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애는 비록 장애계열은 다르나 동일부위 장애로 평가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신경계통장애 제3급에는 척추 기능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가중 제3급으로 결정한 후 신경계통의 장애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수에서 척추의 기능장애 제8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수를 공제하여 장애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재해로 상부 흉수 손상으로 체간 및 양하지 마비, 방광 및 장의 기능장애, 골반환과 천장관절 기능의 소실, 장애 부위에서 발생하는 동통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기존 장애인 흉추 제8번-요추 제1번 고정술 상태는 장애부위 ‘척추와 그 밖의 체간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애부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으로 두 장애 부위는 서로 다른 부위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9. 10.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패널이 고정철물과 이탈되면서 약 9.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의 승인 상병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좌측 T1-2 가시돌기, 좌측 T3 횡행돌기), 흉추부 압박골절 NOS(T2, 3, 4, 6, 10), 흉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경추의 상세 불명의 골절-폐쇄성 NOS(C7 가시돌기), 신장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우측),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위의 손상-열상,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우측 6-10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우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타박상(양측), 견갑골의 골절 NOS-폐쇄성(좌측), 천골의 골절-폐쇄성, 절구의 골절-폐쇄성(우측), 장골의 골절-폐쇄성(우측), 천장관절의 골절 및 천미 관절의 탈구(우측),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외상성 쇼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급성 신우신염, 방광결석
- 요양 기간: 2019. 9. 10.~2021. 9. 10.(입원 453일, 통원 281일)
- 수술 이력:
 - 2019. 9. 10. 장 및 장간막 손상 수술, 위 또는 십이지장 천공 단순 봉합술, 혈관 색전술-기타 혈관, 골이식술, 척추후궁절제술-흉추, 척추고정술-후방고정-흉추, 골편절제술
 - 2019. 9. 11.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 2019. 12. 27., 2020. 2. 11. 요도 확장술

다. 원처분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장해 상태

- 이 사건 재해 이전 장해 상태: 흉추 8번-요추 1번간 고정술 상태(업무 외 사유)

→ 준용 제8급

-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애 상태: 척수손상으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 제3급 제3호

2) 장애급여 지급 내용

- 이 사건 재해로 청구인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애와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로, 동일 부위 장애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신경계통장애는 노무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임
- 따라서, 척주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애는 동일 부위 장애로 평가되어야 하고, 신경계통의 장애 제3급에는 척주 기능장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장애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수(257일)에서 척주의 기능장애 제8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수(109.89일)를 공제하고 산정한 장애급여를 지급함

6. 의학적 소견

가. 장애진단서상 2021. 9. 27. ○○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장애 원인이 되는 상병 명: 흉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 장애 부위: 상부 흉수 손상으로 인한 체간 및 양하지 마비, 방광 및 장의 기능장애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 2019. 9. 10.~2019. 10. 25. ○○대학교병원에서 급성기 치료(수술 포함)
 - 2019. 10. 26.~2020. 12. 10. ○○병원에서 입원치료
 - 2020. 12. 11.~2021. 9. 10. ○○병원에서 주 2회 정도 외래치료
- 장애 상태
 - 체간의 근력 약화로 인해 앉는 자세 유지 불안정 및 하반신 마비로 인해 자력으로 서 있는 자세 유지 불가 및 보행 불가 상태로 단거리 이동도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 조절 기능 저하로 인해 요실금 잦으며 간헐적으로 도뇨 요하는 상태
 - 신경인성 장으로 인해 좌약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배변 가능한 상태

○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애) 소견서

| | | | | | | | | | |
|-----------------------|---|------------------------------|----|------------|--|----|----|------------|------------|
| 척추의 장애 | 기능 | - 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관핵절 수술 [V] | | | | | | | |
| 마 비 | 원인부위 | 뇌성, 척수성(●), 말초신경성, 근(육)성, 기타 | | | | | | | |
| | 종 류 | 지각마비(●), 운동마비(●) | | | | | | | |
| | 반 사 | 좌 | | | | 우 | | | |
| | | 상지 | 하지 | 바빈스키 반사 | 기타병적 반사 | 상지 | 하지 | 바빈스키 반사 | 기타병적 반사 |
| | | 정상 | | | | 정상 | | | |
| 기 타 | 배변, 배뇨장애: 유(수의적 · 불수의적(●) 조절), 무 | | | | | | | | |
| 일상동작의 장애정도 | 보조기 사용상황: 항상, 필요시, 필요 없음, 사용 보조기 종류: | | | | | | | | |
| | 잡기 (신문지를 뽐아 낼 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쥐기 (동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수건을 짜기 : (○) 끈을 매기 : (○) 손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 (○) 우 : (○) 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 우 : (○)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좌 : (○) 우 : (○) | |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 일어서기 : (△) 걷 기 : (×) 계단오르기 : (×) 계단내려가기 : (×) 한쪽발로 서기 좌 : (×) 우: (×) ※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는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 | | | |
| 기타 정신, 신체의 장애상태 | 1. 일상생활을 누가 들어도 이해함 ○ | | | | | | | | |

나. 장애인단 전문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21. 12. 21. 장애인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술 · 처치 검사명

- 2021. 12. 17. 경흉추 CT상 7경추-1-2-3-4흉추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
- 2021. 12. 17. 근전도 검사상 흉추 척수 손상 소견

2) 상병 상태 · 기존 장애: 2013. 1. 16. 8흉추-1요추 고정술 상태

3) 장애 상태

- 척수손상에 따른 장애: 일상생활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4) 신경계통의 장애소견서

| | | |
|-----|------|--|
| 마 비 | 원인부위 | 뇌성, 척수성(●), 말초신경성, 근(육)성, 기타 |
| | 종 류 | 지각마비, 운동마비(●) |
| | 기 타 | 배변, 배뇨장애(●) 유 (수의적·불수의적 조절), ()무불수의적 배뇨장행인 경우: () 완전 도뇨, () 간헐적 도뇨, (회/일), () 기타형태() |

| | | |
|---------------|--|--|
| 일상동작의 장애정도 | 잡기 (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쥐기 (동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수건을 짜기 : (○) 끈을 매기 :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 (○) 우 : (○) 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 우 : (○)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좌 : (○) 우: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 일어서기 : (△) 걷 기 : (×) 계단오르기 : (×) 계단내려가기 : (×) 한쪽발로 서기 좌 : (×) 우: (△) ※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는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
| | | |

| 상하지 근력등급 | 상지 | | | 하지 | | |
|--------------|--|---|---|------|---|---|
| | 구분 | 좌 | 우 | 구분 | 좌 | 우 |
| MMT (6등급) | 어깨관절 | N | N | 고관절 | P | G |
| | 팔꿈치관절 | N | N | 무릎관절 | T | F |
| | 손목관절 | N | N | 발목관절 | T | P |
| | *표시요령 nomal: N, good: G, fair: F, poor: P, trace: T, zero: Z | | | | | |
| 노동능력 상실정도 |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 | | | | |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신경계통장애 제3급에는 척주 기능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9. 9. 10.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 명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좌측 T1-2 가시돌기, 좌측 T3 횡행돌기), 흉추부 압박골절 NOS(T2, 3, 4, 6, 10), 흉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경추의 상세 불명의 골절-폐쇄성 NOS(C7 가시돌기) 등'을 승인받고 2021. 9. 10.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 청구한 것임
- 금 번 재해로 인한 장해 상태는 경추 하부 흉추 쪽 심한 골절 신전손상 및 흉추 2-3번 탈골로 인한 흉수 손상으로 반신 마비 상태이며, 척수손상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제3급 제3호)에 해당하나, 금 번 재해 이전 업무 외 사유로 흉추8번~요추1번 고정술 상태로서 기존 장해등급은 준용 제8급에 해당함
-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는 노무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신경계통장해와 다른 부위에 남게 된 기능장해 등 2개 관점(계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부위 장해를 복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척추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는 비록 장해계열은 다르나 동일부위 장해로 평가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신경계통장해 제3급에는 척추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3급으로 결정한 후 신경계통의 장해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척추의 기능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는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애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장애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애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애에 대하여 장애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애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애급여를 지급한 장애등급을 기존의 장애등급으로 본다.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척수장애의 경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기존 장애인 척주의 기능장애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는 다른 부위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전 개인적인 사유로 흉추 8번-요추 1번 고정술 상태로 척주의 기능장애 준용 제8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가 있었던 상태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흉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상태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 인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척수의 장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애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흉추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제3급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재해 이전 업무 외 사유로 척추 부위 기능장애로 가중 제8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가 확인되고, 척주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

계통의 장애는 동일부위의 관점에서 평가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애등급은 가중 제3급에 해당하고,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수에서 기존 장애 제8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장애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인바, 원처분 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최종 장애등급 가중 제3급이나,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수에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기존 장애 제8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장애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뿐 추가로 장애급여를 지급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애등급별 장애보상일시금 또는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애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애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애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8급제1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애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 부위”라 한다) 및 장애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애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 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은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이하 “장애등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애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애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8. 척추 등의 장해

나. 척추의 기능장해

- 1) 척추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추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 2)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 3) 영 별표 6에서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2023-3209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3.)

사건의 쟁점

도수 근력검사 결과에 따라 요추 신경근장애의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요추부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았고, 부수적으로 발목관절에도 기능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장애등급을 제6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고 근력의 정도가 G3 정도로 판단되어 좌측 발목 상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애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 처분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요추 3번-천추 1번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아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70%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족관절의 경우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아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최종적인 장애등급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인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209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재단법인○○도○○진흥원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22. 진단받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3-4, 척추협착증 요추4-5,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2. 8. 28.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 2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2. 12. 16. 장애등급 제8급 제2호 결정 처분과 2023. 6. 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2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장애 진단 전문의료기관의 ‘3요추-1천추 간 후방기기고정술에 의한 기능장애 및 중등도 신경근장해’ 진단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구술참석한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제출된 의무기록과 이학적 검사상 근 위축이 뚜렷하지 않고 근력의 정도가 G3 정도로 판단되어 좌측 발목 상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여 ‘제8급 제2호’로 봄이 타당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할 소견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요추부 신경근장해의 경우 ‘근전도검사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고, 도수근력검사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 가능한 상태(Grade 2), 좌측 발목 족하수로 인하여 능동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극도의 신경근장해”에 해당한다.

나.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제3요추-제1천추 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상태이고, 좌측 발목 족하수로 인하여 능동적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쪽 다리의 발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도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애 상태는 요추부 고도의 기능장애 9급 및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9급으로서 ‘제6급 제4호’에 해당하고, 또한 요추부의 고도 기능장애 9급 및 발목관절 기능장애 8급으로 ‘조정 제7급’에도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상위 등급인 ‘제6급 제5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장애인단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0. 6. 22. 10:00경 건물 창고로 이동 중 좌측 발목이 축 쳐져 땅에 끌리면서 감각이 없는 재해 경위로 같은 날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8. 28.까지 ○○병원 등에서 입원 49일, 통원 682일을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2020. 6. 22. ○○병원에서 ‘요추3번-천추1번 간 후방기기고정술’을 받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원 〉

○ 2022. 10. 13. Nerve Conduction Studies

Motor Summary Table

| Site | Onset (ms) | O-P Amp (mV) | NR | Dist (cm) | Vel (m/s) |
|--|------------|--------------|----|-----------|-----------|
| Left 3. Peroneal Motor (Ext Dig Brev) | | | | | |
| Ankle | | | NR | 8.0 | |
| B Fib | | | NR | 0.0 | |
| Right 3. Peroneal Motor (Ext Dig Brev) | | | | | |
| Ankle | 2.9 | 4.5 | | 8.0 | |
| B Fib | 10.3 | 3.5 | | 35.0 | 47 |
| Left 4. Tibial Motor (Abd Hall Brev) | | | | | |
| Ankle | 4.8 | 4.1 | | 8.0 | |
| Knee | 13.3 | 3.8 | | 40.0 | 47 |
| Right 4. Tibial Motor (Abd Hall Brev) | | | | | |
| Ankle | 3.9 | 4.3 | | 8.0 | |
| Knee | 12.6 | 2.9 | | 40.0 | 46 |
| Left Peroneal TA Motor (Tib Ant) | | | | | |
| Fib Head | 4.2 | 1.9 | | 8.0 | 67 |
| Poplit | 5.4 | 1.7 | | | |

Sensory Summary Table

| Site | Onset (ms) | Peak (ms) | O-P Amp (μV) | NR | Dist (cm) | Vel (m/s) |
|--|------------|-----------|--------------|----|-----------|-----------|
| Left 3. Sup Peron Sensory (Ant Lat Mall) | | | | | | |
| SUP | | | | NR | 14.0 | |
| Right 3. Sup Peron Sensory (Ant Lat Mall) | | | | | | |
| SUP | 1.8 | 2.4 | 5.9 | | 14.0 | 58 |
| Left 4. Sural Sensory (Lat Mall) | | | | | | |
| Calf | 1.7 | 2.3 | 12.4 | | 14.0 | 61 |
| Right 4. Sural Sensory (Lat Mall) | | | | | | |

- 2020. 6. 24. Operation record
 - Preoperative Diagnosis: Foraminal stenosis L5-S1 Lt. Spinal stenosis L4-5 Lt.
 - Postoperative Diagnosis: S/A
 - Name of OP
 - Laminectomy L5 with Facetomy, L5-S1 Lt.
 - Posterior interbody fusion with GS cage, L5-S1 Lt.
 - PLF c pedicle screw fixation, L5-S1
 - Medial fenestration, L4-5 Lt.
- 2020. 11. 20. Operation record
 - Preoperative Diagnosis: Compression fracture L1, L4
 - Postoperative Diagnosis: S/A
 - Name of OP: PVA. L1 & L4 (right extrapedicular approach)
- 2021. 8. 4. Operation record
 - Preoperative Diagnosis: Compression fracture T12
 - Postoperative Diagnosis: S/A
 - Name of OP: PVA. T12 (right extrapedicular approach)
- 2021. 12. 27. Operation record
 - Preoperative Diagnosis
 - Spondylolisthesis c Foraminal L3-4, L4-5 s/p L5-S1 fusion
 - Degenerative lumbar scoliosis
 - Postoperative Diagnosis: S/A

- Name of OP: ALIF, L3-4, L4-5 c PLF extension, L1-S1 c cement auhmentation, T11
- 2020. 12. 31.
 - 허리는 괜찮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요.
- 2021. 7. 5.
 - C.C.: 계속 아파요.
 - L-spine AP / Lat: L2 height loss
 - 상기 환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하지 운동 장애로 2020. 6. 24. 수술적 치료 시행 하였으나 운동 장애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방사통 및 운동 장애 감각 이상 후 유증이 잔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요통으로 시행한 X-ray에서 요추 2번 압박 골절 소견 확인되어 현 진료일로부터 약 3달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함
 - 2021. 2. 20. 이후에도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재검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 근로복지공단 ○○병원 〉

- 2022. 12. 12. L Spine CT
 - Posterior fixation state at L1-S1, and VP state at T11-L4.
 - Bulging disc at L4-5.
 - Edgenerative spondylosis of T-L-spine.
- 2022. 12. 12. Nerve Conduction & EMG report

Summary of Findings

1. Nerve conduction studies:
 - Normal latency and amplitude of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s were noted on right deep peroneal and both tibial nerves.
 - Low amplitude of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was noted in left deep peroneal nerve.
 - Normal latency and amplitude of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s were noted on right superficial peroneal and both sural nerves.
 - Not evoked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was noted on left superficial peroneal nerve.
2. F-wave and H reflex studies:
 - Right peroneal and both tibial nerve F wave latencies were within normal limits.
 - Not evoked F wave was noted in left peroneal nerve.
 - All evaluated bilateral H reflex latencies were within normal limits
3. EMG
 -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were noted in left tibialis anterior, peroneus longus and both para spinal muscles.
 - Single motor unit action potential recruitment was noted in left tibialis anterior muscle.
 - Reduced motor unit action potential recruitment was noted in left peroneus longus and tensor fascia lata muscles.

4)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사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 상태
 - 신규장애 [경추] [흉추] [요추] 기능장애 58.00%, 신경근장애(중등도)
- 기초 산정
 - 신규 일반 8급 2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요추 기능장애 58%, 중등도 신경근장애)
- 최종 산정
 - 일반 8급 2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요추 기능장애 58%, 중등도 신경근장애)

5) 원처분기관은 2022. 12. 19. 평균임금 79,230원 37전을 적용하여 495일분에 해당하는 장애일시금 39,219,03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1. 3.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 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애진단서 및 지체장애용 소견서(2022. 10. 18. ○○병원) 〉

- 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명: 제3-4, 4-5, 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4-5, 5-1천추간 협착증
- 장애 부위: 요추부
- 장애 상태 : 척추 유합술 및 고정술 후 현재 좌측 발목 운동 장애가 있는 상태로 근력 평가에서 gradeⅡ 정도로 중력을 이길 수 없는 근력 상태임(좌측 발목 족하수로 인하여 능동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상기 환자는 요추1번부터 천추1번까지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 시행 후 상태 관찰 및 약물치료 위해 외래 통원치료 받은 환자임

○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 | | | | | | | | |
|-------|----------------------------|--|----|--|----|----|---------|----------|
| 척추의장해 | 기능 | -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부위 : [요추1번~천추1번] - 하나의 분절에 2회이상 관혈적 수술 : [] -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 [v] -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삽입술, 고정술 : [v] - 척추불안정증 여부 및 부위: [v]요추1번~천추1번 | 변형 | - 압박골절의 부위 및 정도 [부위: , 정도: %] - 방출성골절, 전스체골절, 척추관 침범 골절 등 후 보존적 치료여부 : [] - 천추골의 변형 전존여부 [] - 추체의 골절의 부위 : [] | | | | |
| | 척추신경근 | - 척추신경근 장해의 운동단위 및 번호 : [좌측 요추 5번, 천추1번 신경근] - 뚜렷한 근위축 유무 : [있음] - 근전도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유무 : [있음] -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세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기능 여부 : [v] - 중력저항하에서 능동적 운동기능 여부 : [] | | | | | | |
| 미비 | 원인부위 | 뇌성, 척수성[v], 말초신경성, 근(육)성, 기타 | | | | | | |
| | 종류 | 지각마비[v], 운동마비[v] | | | | | | |
| | 반사 | 좌 | | 우 | | | | |
| | | 심지 | 하지 | 바빈스기 반사 | 심지 | 하지 | 바빈스기 반사 | 기타 병적 반사 |
| | | 감소됨 | | | | | | |
| 기타 | 배변, 배뇨장해 : 유(수외적불수외적 조절) 무 | | | | | | | |

나. 원처분기관은 장해 진단 전문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2. 12. 13. 근로복지공단 ○○병원 〉

- 진단 기간: 2022. 12. 12.~13. (통원 2일)
- 장해 부위: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 증상 고정 치유일: 2022. 8. 28.
- 검사
 - 흉요추부 CT: 11-12 흉추 척추성형술, 1요추-1천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
 - 근전도검사: 중등도 신경근 병증 소견

○ 장애 발생원인: 요추 부위 기기고정술

○ 장애 상태

- 척추부위 장애: 3요추-1천추간 후방기기고정술에 의한 기능장애 및 중등도 신경근장애

○ 장애소견서

| 기 본 장애 | 경추부 | | 흉추부 | | 요추부 | |
|--------------------------|---|--------------------------|---|--------------------------|--|-------------------------------------|
| | 측정범위 | 관·유합술 시술·부위 | 측정범위 | 관·유합술 시술·부위 | 측정범위 | 관·유합술 시술·부위 |
| 기 본 장애 | 추두부- C1 | <input type="checkbox"/> | T1- T2 | <input type="checkbox"/> | T12- L1 | <input type="checkbox"/> |
| | G1- G2 | <input type="checkbox"/> | T2- T3 | <input type="checkbox"/> | L1- L2 | <input type="checkbox"/> |
| | C2- C3 | <input type="checkbox"/> | T3- T4 | <input type="checkbox"/> | L2- L3 | <input type="checkbox"/> |
| | C3- C4 | <input type="checkbox"/> | T4- T5 | <input type="checkbox"/> | L3- L4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C4- C5 | <input type="checkbox"/> | T5- T6 | <input type="checkbox"/> | L4- L5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C5- C6 | <input type="checkbox"/> | T6- T7 | <input type="checkbox"/> | L5- S1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C6- C7 | <input type="checkbox"/> | T7- T8 | <input type="checkbox"/> | | |
| | C7- T1 | <input type="checkbox"/> | T8- T9 | <input type="checkbox"/> | | |
| | | | T9- T10 | <input type="checkbox"/> | | |
| | | | T10- T11 | <input type="checkbox"/> | | |
| | | | T11- T12 | <input type="checkbox"/> | | |
| | 척추부위에 불안정성 | <input type="checkbox"/> | 척추부위에 불안정성 | <input type="checkbox"/> | 척추부위에 불안정성 | <input type="checkbox"/> |
| 척추부위에 관절적수술 | <input type="checkbox"/> 2회또는2개이상 <input type="checkbox"/> 1회 | 척추부위에 관절적수술 | <input type="checkbox"/> 2회또는2개이상 <input type="checkbox"/> 1회 | 척추부위에 관절적수술 | <input type="checkbox"/> 2회또는2개이상 <input type="checkbox"/> 1회 | |
| 척추부위에 비관절적수술 | <input type="checkbox"/> | 척추부위에 비관절적수술 | <input type="checkbox"/> | 척추부위에 비관절적수술 | <input type="checkbox"/> | |
|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조골형성시술 | <input type="checkbox"/> |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조골형성시술 | <input type="checkbox"/> |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조골형성시술 | <input type="checkbox"/> | |
| 신체 부위별 장애 | <input type="radio"/> 극도 <input type="radio"/> 고도 <input type="radio"/> 중등도 <input type="radio"/> 경도 <input type="radio"/> 없음 | | <input type="radio"/> 극도 <input type="radio"/> 고도 <input type="radio"/> 중등도 <input type="radio"/> 경도 <input type="radio"/> 없음 | | <input type="radio"/> 극도 <input type="radio"/> 고도 <input checked="" type="radio"/> 중등도 <input type="radio"/> 경도 <input type="radio"/> 없음 | |
| | 미술의신경증상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 | | | |

다. 한편, 이 사건 이전 진료계획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는 L3-4-5-S1 구간 기기 고정술만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애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애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6]에서는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은 제8급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애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애를 조정한 장애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요추부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았고, 부수적으로 발목관절에도 기능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제6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및 장애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2020. 6. 24. ‘요추 3번-천추 1번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아 운동 가능영역이 50% 이상 70%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족관절의 운동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근 위축이 뚜렷하지 않아 근력은 G3 내지 G4 정도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에도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인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8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애급여) ①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애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애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애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애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6급 제5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7급 제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8급 제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②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애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부위”라 한다) 및 장애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애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⑤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이하 “장애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애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추 등의 장애

나. 척추의 기능장애

- 1) 척추의 기능장애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추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애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애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애 등급을 인정한다.

- 8) 영 별표 6에서 "척추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애

- 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부는 목뼈 제5번부터 목뼈 제8번까지,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및 허리뼈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애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애를 조정한 장애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제9장 팔·손가락의 장애

[2023-2599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19.)

사건의 쟁점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상 골절이 있는 경우, 팔 관절 운동가능영역 각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마비, 경직 정도가 심하여 재상병을 해야 하는 사상으로 장애등급의 강직도 측정과 관련하여 주치의와 원처분기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당한 검사가 필요하며 통증이 심하고 실제 손으로 무언가를 쥐거나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좌측 완관절 능동 운동 범위 155도(기준미달), 좌측 완관절 복합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14급)이라는 진단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로 결정 처분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가 측정한 청구인의 좌측 완관절 능동 운동범위는 70도이며 주치의(90도)와 원처분기관(155도)의 결과가 전부 다를 경우, 능동 측정 시 가장 큰 각도를 청구인의 능동 각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청구인의 좌측 완관절 운동범위는 155도로 결정되어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청구인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만이 남아있어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599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2.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 5. 진단받은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상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3. 1.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2. 7. 원처분기관에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3. 2. 28.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과 2023. 7. 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7. 1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장애전문 진단 의료기관의 “좌측 완관절 능동 운동 범위 155도(기준미달), 좌측 완관절 복합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14급)”이라는 진단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로 결정·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소견 외에 이견이 있는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에 산재보험 장애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사기관에서 청구인이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심사 결정을 하였고, 현재 마비, 경직 정도가 심하여 재상병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에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 주었다면 이런 낭비적인 행정은 없었을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경직 및 신경마비 등에 대한 부분을 출석하여 검사 받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2. 1. 5. A자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낙상하는 사고로 2022. 1. 5.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청구인의 주요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 명: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상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 요양 승인 기간: 2022. 1. 5.~2023. 1. 31. 입원 31일, 통원 362일
- 요양 의료기관명: (의)○○재단 ○○병원
- 수술내용
 - 2022. 1. 6. 도수정복술 및 외고정술
 - 2022. 3. 18. 체외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2023. 10. 19.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하였다.

1) 장해등급의 강직도 측정과 관련하여 처음 본인을 진료한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과 차이가 크게 낮기에 그에 대해 정당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통증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일하지 않았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으나, 일하다 보니 일을 안 했을 때와 비교하여 통증이 심하고 불편하여 이 부분도 재심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3) 청구인의 상태는 손목 쪽 분쇄골절이나 실제로는 손으로 무언가를 쥐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한다. 또한, 그 밖에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주었으면 한다.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 부위: 좌측 완관절
- 2)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상 골절
- 3)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2022. 1. 6. 도수정복 외고정술, 2022. 3. 18. 외고정물 제거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재활치료 시행함
- 4) 장애 상태: 좌측 수근관절 관절내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운동장애, 국소동통(일반) 잔존함
- 5) 관절 운동범위: 능동(사유-좌측 수근관절 관절내 골절)

| 부 위 | 측정영역 | 정상범위 | 청구인 | | 장애등급 |
|------|------|------|-----|---|--------------|
| | | | 좌 | 우 | |
| 손목관절 | 배굴 | 60 | 20 | | 제10급 제13호 |
| | 장굴 | 70 | 40 | | |
| | 요사위 | 20 | 10 | | |
| | 척사위 | 30 | 20 | | |
| | 계 | 180 | 90 | | |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장애전문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검사내용: 2023. 2. 21. CT - 골유합
- 2) 장애 부위: 좌측 완관절
- 3) 장애 발생원인: 골절
- 4) 장애 상태: 기능장애 및 좌측 완관절, 복합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
- 5) 관절 운동범위: 능동(사유 - 골절로 인해 원인이 명확한 경우)

| 부 위 | 측정영역 | 정상범위 | 청구인 | | 장애등급 |
|------|------|------|-----|---|------|
| | | | 좌 | 우 | |
| 손목관절 | 배굴 | 60 | 55 | | 기준미달 |
| | 장굴 | 70 | 55 | | |
| | 요사위 | 20 | 20 | | |
| | 척사위 | 30 | 25 | | |
| | 계 | 180 | 155 | | |

다. 심사기관은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은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상병 명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상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을 승인받아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은 상태로,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소견 외에 이견이 있는 좌측 손목 관절 운동기능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팔의 장애의 경우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 기능장애의 경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구술 내용과 장애 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의 좌측 완관절 능동 운동 범위는 ‘배굴 1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등 70도로 측정되었고, 주치의의 능동측정(90도)과 원처분기관의 능동측정(155도), 우리 위원회의 능동측정(70도)이 전부 다르며, 이 경우 능동측정은 가장 큰 각도를 청구인의 능동 각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청구인의 좌측 완관절 운동 범위는 155도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 잔존하므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인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가 타당하다는 소견인바, 그 밖에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10급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 관절명 \ 구분 | 측정 부위 | 평균 운동 가능 영역(각도) |
|----------|--------------------------|--------------------|
| 손목관절 | 손등쪽 굽히기 | 60 |
| | 손바닥쪽 굽히기 | 70 |
| | 손목의 요골(橈骨: 노뼈)쪽 굽히기(요사위) | 20 |
| | 손목의 척골(尺骨: 자뼈)쪽 굽히기(척사위) | 30 |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마. 동통 등 감각 이상

-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팔의 장애

-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제10장 다리·발가락의 장애

[2023-3487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1. 22.)

사건의 쟁점

사고로 인한 발목 및 발가락 골절의 기능 장애와 동통 장애가 있는 경우, 능동적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함에 있어 발가락 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 측정을 하여야 하나 원처분기관은 수동 측정을 하여 장애기준 미달로 결정하였고, 추가상병 신경증상에 대한 장애평가도 누락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장애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으나 최초요양 장애등급이 제13급 이어서 추가 지급될 장애급여가 없으므로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심사기관은 상병 상태로 보아 수동적 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고,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100도로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지만, 좌측 제2족지 중족지절은 총 0도로 장애등급 제13급 제11호, 이외 나머지 발가락은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할 운동 범위 제한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상병과 관련하여서는 심한 통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 처분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좌측 발목관절은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발가락 동통 장애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며, 제출된 자료상 좌측 발가락의 경우, 신경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수의적 운동장애 소견이 없으며 운동기능 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마땅하여 제13급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애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심사기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3487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2023. 9. 12. 취소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1. 10. 17.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제2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 제3, 4, 5 원위지골 골절, 좌측 족부 개방성창상 및 연부조직 결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2. 4. 23.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수령 하였고, 이후 ‘좌측 족부 내재근 위축 및 변성, 좌측 족저 신경병증’을 추가로 승인받아 2023. 4. 10.까지

재요양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4. 11. 원처분기관에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3. 6. 2.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3. 9. 12.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9.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재요양 후 청구인의 장애 상태가 ‘좌측 발목관절 및 제1, 2, 3, 4, 5족지 운동범위 장애 인정기준 미달, 제2, 3, 4, 5족지 일반동통’이라는 통합 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으나, 최초요양 종결 시 장애등급 제13급에 비하여 장애등급의 상향이 없어 추가 지급될 장애급여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상병 상태로 보아 수동적 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고,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10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10도)로 정상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미만 제한상태로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좌측 제2족지 중족지절 총 0도(굴곡 0도, 신전 0도)로 장애등급 제13급 제11호 이외 나머지 발가락은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될 운동범위 제한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좌측 발가락의 운동기능 제한과 파생되는 원인으로 인한 좌측 족저 신경병증과 비복신경 손상으로 심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의 등급인 심한 동통 제12급 제15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애등급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고 재요양 전 지급받은 장애등급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함에 있어 발가락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능동으로 측정하여야 하나, 수동 평가하여 장해기준 미달로 결정하였고, 추가 상병으로 ‘좌측 족부 내재근 위축 및 변성, 좌측 족저 신경병증’에 대한 신경증상에 대한 장해평가도 누락하고 결정하였다.

나. 2023. 6. 12. 시행한 ○○대학교병원과 ◇◇병원 발가락 관절과 발목관절 능동 평가 결과를 근거하면 장해등급 준용 7급이 타당하며, 국소 부위 동통에 대한 장해도 주관적 항목(2022. 4. 22. VAS 통증기록 얼굴표정 4, 숫자척도 8)과 객관적 항목인 ‘좌측 비복신경의 심한 축삭 손상’ 상태가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심한 동통 결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장해등급 제6급 결정을 구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학 영상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이 사건 재해 경위는 “2021. 10. 17. 송천동 종점에서 시내버스 전광판 유지보수를 끝내고 장애헌리사진을 찍는 중 후진하는 시내버스(호남고속) 앞바퀴에 다리가 깔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구의 주요 요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승인상병

○ 최초요양: 좌측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4,5 원위지골 골절, 좌측 족부

개방성 창상 및 연부조직 결손

- 추가 상병(재요양): 좌측 족부 내재근 위축 및 변성, 좌측 족저 신경병증

□ 최초요양

- 요양 기간: 2021. 10. 17.~2022. 4. 23.(장해등급 제13급)

○ 수술 이력

- 2021. 10. 18.(◇◇병원): 금속핀 고정술 및 연부조직 복원술
- 2021. 11. 19.(◇◇병원): 금속핀 제거술

○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

-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3급 제11호)
- 좌측 제2,3,4,5족지 일반통증(제14급 제10호)

□ 재요양

- 재요양 사유: '좌측 족부 내재근 위축 및 변성, 좌측 족저 신경병증' 추가 진단 및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

- 요양기간: 2022. 12. 1. / 12. 5. / 2022. 12. 22.~2023. 4. 10.

다.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생리검사 판독보고서, ○○신경외과, 2023. 6. 7. 〉

Summary of Nerve Conduction study

1. Lt. Tibial motor study에서 terminal latency 및 전 구간의 NCV는 정상 범위이며 CMAP amplitude도 정상 범위임
2. Lt.Peroneal motor study에서 terminal latency 및 전 구간의 NCV는 정상 범위이며 CMAP amplitude도 정상 범위임
3. Lt.Superficial peroneal sensory study에서 NCV와 SNAP amplitude는 정상 범위임.
4. Lt.Sural sensory study에서 NCV는 정상 범위이나 SNAP amplitude는 현저히 감소되어 있음. 건측과의 비교에서 SNAP amplitude는 23.# 수준의 반응임

Electrodiagnostic conclusion

1. Lt. sural nerve injury, severe axonal

〈 초음파실 결과보고서, ◇◇병원, 2023. 6. 19. 〉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발목관절(편측)

1. Mild thickening of Lt.EHL tendon at insertion site(distal phalanx of 1st toe)
 - no visible fiber discontinuity
 - > mild enthesopathy
2. Diffuse thickening of Lt. ATFL without fiber discontinuity
 - R/O chronic injury
3. No evidence of achilles tendinitis or tencon injury
4. No evidence of tenosynovitis at 3,4,5th toe flexor tendons(tenderness site)

라.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우리 위원회에 추가의견서 및 발 상태 사진, 동영상, 2022. 12. 21.자 체간전도검사, 근로복지공단 장애 진단메뉴얼, 심사청구서의견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가의견서, 청구인 〉

- 원처분기관이 장애를 입은 청구인의 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고, 장애 심사 후 청구인의 다리가 변화되고 추가 상병이 발생함
- 2022. 12. 21. ○○대학교병원 체간 근전도 검사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이상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결과지가 누락되어 있음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1. Left medial and lateral plantar sensorimotor neuropathy
 - Compatible with tarsal tunnel syndrome. (발목터널증후군)
- ※ 2022.12.21. 전북대학병원 체간 근전도검사 (첨부자료 참조)

Peripheral nerves conduct normally in motor and sensory fibers in bilateral lower extremities.

Electromyographic study showed absent abnormal spontaneous activity in all examined muscles.

Foot conduction study showed slowing of conduction velocity in left medial plantar, lateral plantar motor nerves and acceptable values in other motor nerve conduction studies.

Near-nerve needle conduction study of foot showed absent SNAP in left medial plantar, lateral plantar sensory nerves and acceptable values in other sensory nerve conduction studies.

- 2023. 5. 25.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잘못된 수동평가 후 추가상병 단일 신경병증이 발생하였음
- 잘못된 장애평가로 치료받은 내역 및 추가상병 내용 근거(2023. 7~10월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 수동평가 후 통증 및 다리변형 발생
 - 2023. 10. 30.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진료기록
 - 잘못된 장애 심사로 추후 필요시 수술 가능성 있음(2023. 9. 4.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 참조)
 - ○○대학교병원 통증의학과 추가 진단명 및 치료
- 2023. 7~9월 추가상병: 발바닥근막염, 발목터널증후군, 아킬레스힘줄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및 발목 발
- 현재 청구인 다리 상태(사진 및 동영상 제출)
 - 재활의학과 통증주사 2번(2023. 7. 28., 9. 8.), 통증의학과 2주에 한 번씩 통증주사
- 결론
 - 위 내용을 종합하면, 원처분기관에서는 발가락 기능 장애의 원인이 명확함에도 수동 평가하여 장애기준 미달로 결정하였고, 추가 상병으로 '좌측 족부 내재근 위축 및 좌측 족저 신경병증'에 대한 신경증상에 대한 장애평가도 누락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수동평가를 2번이나 해서 청구인은 생활이 엄청 힘이 들고, 솔직히 통증이 너무 심해 절단하고 싶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 체간 근전도검사 결과, ○○대학교병원, 2023. 8. 2. 〉

Summary of Results:

Peripheral nerves conduct normally in motor and sensory fibers in bilateral lower extremities.
Electromyographic study showed absent abnormal spontaneous activity in all examined muscles.
Foot conduction study showed acceptable values in bilateral lower extremities.
Near-nerve needle conduction study of foot showed slowing of conduction velocity in left lateral plantar nerve and acceptable values in other sensory nerve conduction studies.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1. Left medial and lateral plantar sensorimotor neuropathy.
--- Compatible with tarsal tunnel syndrome.
- More improved state compared with previous study(2022-12-05).
2. Clinical correlation is recommended.
3. Follow up study is recommended in 3-6 months.

〈 진단서, ○○대학교병원, 2023. 9. 18. 〉

- 병명: 발바닥근막염, 발목터널증후군, 아킬레스힘줄염, 상세 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본원 외래 추시 중인 분으로 2021년 10월 18일 버스에 다리가 깔려서 ◇◇병원에서 좌측 2-3번째 광범위 개방상 창상, 내재근 파열, 피부 연부조직 결손, 제 2중족골 개방성 골절, 3, 4, 5 원위지골 골절으로 2-5 원위지골 ORIF 시행하였고, 검사 및 재활치료 받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재활 치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 비고: 재활의학과적 소견에 한함

〈 치료검사기록, ○○대학교병원, 2023. 9. 8. 〉

- 진단명: 1. Left achilles tendinopathy, Plantar fascitis, R/O Left TTS, 1st MTP arthritis
- 시술명: US guided peri-tendinous injection
 - 부위: Left achilles tendon
- 시술명: US guided TTS injection
 - 부위: Left posterior tibial nerve
- 시술명: US guided IA injection
 - 부위: Left 1st MTP joint

〈 외래재진기록, ○○대학교병원, 2023. 9. 6. 〉

- ☐ 현병력
 - 발목 발 부분으로 통증이 이동하는 양상이 있음
 - 발목 신전시 발목 전외측 통증이 가장 힘들다
- ☐ 신체검진
 - NRS(심할시) (6)
 - NRS(평상시) (3)
- ☐ 진료계획
 - 치료계획

- 처치: common peroneal nerve block, lt
- : 2-3
- [기타] Sciatic nerve block(knee~ankle)50%
- 통증치료실 US Examination

〈 외래재진기록, ○○대학교병원, 2023. 10. 25. 〉

- ☐ 현병력
 - 좌 엄지발가락 따라 적색 변조와 이질통 뚜렷
 - 발등과 외과 하부 따라 통증 지속
- ☐ 신체검진
 - NRS(심할시) (6)
 - NRS(평상시) (3)
- ☐ 진료계획
 - 치료계획
 - 처치: 전경골근, 장무지 신전근, 단비골근
 - COMMON PERONEAL NERVE BLOCK, LT
 - : 2
 - [기타] 척수 좌골신경차단술

〈 외래재진기록, ○○대학교병원, 2023. 10. 30. 〉

- ☐ 객관적 소견
 - Physical examination
 - dark red lt LL.
 - cold Lt foot then Rt

〈 외래재진기록, ○○대학교병원, 2023. 11. 8. 〉

- ☐ 현병력
 - 부기는 일부 호전
 - 5지 쪽 변연을 따라 유독 아픔
- ☐ 신체검진

- NRS(심할시) (8)
- NRS(평상시) (3)

□ 진료계획

- 치료계획
- 처치: 신전근, 단비골근

COMMON PERONEAL NERVE BLOCK, LT at above knee

: 2

[기타] 척수 좌골신경차단술, lt

마. 청구인은 2023. 11. 14. 우리 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잘못된 수동평가로 추가 상병이 발생되었고 통증이 있고 삶이 엉망이네요”라는 취지 및 이유로 증거 조사신청을 하였고, 첨부자료로 청구인 발목 및 발가락 상태를 볼 수 있는 동영상 CD와 치료 때문에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2023. 11. 22. ○○병원 진료 예약증, 2023. 11. 13. 외래재진기록지를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애진단서, ○○대학교병원, 2023. 4. 10. 〉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1,2,3,4,5 족지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 좌측 족저신경병증
- 장애 부위: 좌측 1,2,3,4,5 족지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좌측 2-3족지 물갈퀴 공간의 광범위 개방성 창상, 내재근 파열, 피부 연부조직 결손,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3,4,5 원위지골 골절로 2021. 10. 18. 타원(◇◇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족저 신경병증)으로 외래 경과 관찰 중인 환자임

○ 장해 상태: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 기준, 사지 및 척추 분야 제2판 60페이지 표13의 AMA(5판)에 의거하여 좌측 발목관절 굴곡 55(오십오), 신전 10(십), 외반 10(십), 내반 30(삼십)도로 총 105(백오)도 운동범위 측정됨

- 좌측 제1족지 중족지 관절 굴곡 50(오십), 신전 20(이십)

시간관절 굴곡 30(삼십), 신전 20(이십)

- 좌측 제2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40(사십), 신전 20(이십)

근시간관절 굴곡 40(사십), 신전 10(십)

원시간관절 굴곡 15(십오), 신전 10(십)

- 좌측 제3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40(사십), 신전 20(이십)

근시간관절 굴곡 20(이십), 신전 10(십)

원시간관절 굴곡 0(영), 신전 0(영)

- 좌측 제4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40(사십), 신전 20(이십)

근시간관절 굴곡 20(이십), 신전 10(십)

원시간관절 굴곡 30(삼십), 신전 10(십)

- 좌측 제5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30(삼십), 신전 30(삼십)

근시간관절 굴곡 0(영), 신전 0(영)

원시간관절 굴곡 0(영), 신전 0(영) 로 측정됨

○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 좌측 족지관절의 수동운동 범위 | 부 위 | | 제1지 | | 제2지 | | 제3지 | | 제4지 | | 제5지 | | 장해등급 |
|---------------------------|---------------------|--------------------|-----|----|-----|----|-----|----|-----|----|-----|----|------|
| | |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
| | 족지관절의 수동운동 범위 | 중족지절관절 (M. P) | 정상 | 30 | 50 | 30 | 40 | 20 | 30 | 10 | 20 | 10 | 10 |
| 청구인 | | | 50 | 20 | 40 | 20 | 40 | 20 | 40 | 20 | 30 | 30 | |
| 근위지절관절 (P. I. P) | | 정상 | 30 | 0 | 40 | 0 | 40 | | 40 | | 40 | | |
| | | 청구인 | 30 | 20 | 40 | 10 | 20 | 10 | 20 | 10 | 0 | 0 | |
| 원위지절관절 (D.I.P) | | 정상 | | | | | | | | | | | |
| | | 청구인 | | | 15 | 10 | 0 | 0 | 30 | 10 | 0 | 0 | |

〈 심사 청구시 제출한 진료소견서, ○○대학교병원, 2023. 6. 12. 〉

- 병명(임상적 추정): 좌측 1,2,3,4,5 족지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 좌측 족저 신경병증

| | 부위 | 측정방법 | 정상범위 | 청구인 | 장해등급 |
|-------------------------|----------------------|-------------|------|------|------|
| 다리 관절의 수동운동 범위 | 좌측 발목관절 (110도) | 발등쪽굽히기(배굴) | 20도 | 10 | 기준미달 |
| | | 발바닥쪽굽히기(척굴) | 40도 | 55 | |
| | | 안쪽뒤집기(내반) | 30도 | 30 | |
| | | 바깥쪽뒤집기(외반) | 20도 | 10 | |
| | | 계 | 110도 | 105도 | |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상기병증으로 본원 외래 내원하신 분으로 검사 능동에서
- 좌측 발목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외반 5(오), 내반 5(오)도로 총 15(일십오)도의 운동범위 측정됨
- 좌측 제1족지 중족지 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지간관절 굴곡 10(일십), 신전 0(영)
- 좌측 제2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근지간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원지간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 좌측 제3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10(일십), 신전 0(영)
근지간관절 굴곡 10(일십), 신전 0(영)
원지간관절 굴곡 0(영), 신전 0(영)
- 좌측 제4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10(일십), 신전 0(영)
근지간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원지간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 좌측 제5족지 중족지관절 굴곡 5(오), 신전 0(영)
근지간관절 굴곡 0(영), 신전 0(영)
원지간관절 굴곡 0(영), 신전 0(영) 로 측정됨

〈 심사 청구시 제출한 소견서, ◇◇병원, 2023. 6. 23. 〉

○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 좌측 | 부 위 | | 제1지 | | 제2지 | | 제3지 | | 제4지 | | 제5지 | | 장해등급 |
|---------------------|-----------------------|-----|-----|----|-----|----|-----|----|-----|----|-----|----|------|
| | |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
| 족지관절의 수동운동 범위 | 중족지절관절 (M. P) | 정상 | 30 | 50 | 30 | 40 | 20 | 30 | 10 | 20 | 10 | 10 | 9급 |
| | | 청구인 | 3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근위지절관절 (P. I. P) | 정상 | 30 | 0 | 40 | 0 | 40 | | 40 | | 40 | | |
| | | 청구인 | 0 | 0 | 0 | 0 | | | | | | | |

| 다리 관절의 수동운동 범위 | 부위 | 측정방법 | 정상범위 | 청구인 | 장해등급 |
|-------------------------|----------------------|-------------|------|-----|------|
| | 좌측 발목관절 (110도) | 발등쪽굽히기(배굴) | 20도 | 30 | 8급 |
| | | 발바닥쪽굽히기(척굴) | 40도 | -20 | |
| | | 안쪽뒤집기(내번) | 30도 | 0 | |
| | | 바깥쪽뒤집기(외번) | 20도 | 10 | |
| | | 계 | 110도 | 20도 | |

〈 심사 청구시 제출한 소견서, ○○신경과, 2023. 6. 7. 〉

- 병명(최종 판단):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 향후 치료 의견: 21년 10월 외상 이후 좌측 발 외측의 저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금일 본원에서 실시한 신경전도검사에서 좌측 비복신경의 심한 축삭 손상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나. 2023. 5. 25.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

○ 통합심사 결과

- 발가락관절

좌측 제2,3,4,5족지 일반동통

좌측 제1족지 중족지절 70도, 근위지절 30도(기능장애미달)

좌측 제2족지 중족지절 50도, 근위지절 40도(기능장해미달)

좌측 제3족지 중족지절 45도, 근위지절 30도(기능장해미달)

좌측 제4족지 중족지절 30도, 근위지절 40도(기능장해미달)

좌측 제5족지 중족지절 20도, 근위지절 40도(기능장해미달)

- 좌측 발목관절 90도(기능장해미달)

○ 심사결과 의견

- 운동장해 측정 방법: 발목관절-능동(강직), 발가락관절-수동(굴유합)

-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 좌측 | 부 위 | | 제1지 | | 제2지 | | 제3지 | | 제4지 | | 제5지 | | 장해등급 |
|---------------------|-----------------------|-----|-----|----|-----|----|-----|----|-----|----|-----|----|------|
| | |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
| 족지관절의 수동운동 범위 | 중족지절관절 (M. P) | 정상 | 30 | 50 | 30 | 40 | 20 | 30 | 10 | 20 | 10 | 10 | 기준미달 |
| | | 청구인 | 30 | 40 | 10 | 40 | 15 | 30 | 10 | 20 | 10 | 10 | |
| | 근위지절관절 (P. I. P) | 정상 | 30 | 0 | 40 | 0 | 40 | | 40 | | 40 | | |
| | | 청구인 | 30 | 0 | 40 | 0 | 30 | | 40 | | 40 | | |

| 다리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 | 부위 | 측정방법 | 정상범위 | 청구인 | 장해등급 |
|-------------------------|----------------------|-------------|------|-----|------|
| | 좌측 발목관절 (110도) | 발등쪽굽히기(배굴) | 20도 | 10 | 기준미달 |
| | | 발바닥쪽굽히기(척굴) | 40도 | 40 | |
| | | 안쪽뒤집기(내번) | 30도 | 30 | |
| | | 바깥쪽뒤집기(외번) | 20도 | 10 | |
| | | 계 | 110도 | 90도 | |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 청구인은 2021. 10. 17. 발생한 사고로 상병 명 '좌측 제2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 제3,4,5 원위지골 골절, 좌측 족부 개방성 창상 및 연부조직 결손, 좌측 족부 내재근 위축 및 변성, 좌측 족저 신경병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최초요양 및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상병 상태로 보아 수동적 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며,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10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10도)로 정상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미만 제한상태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좌측 제2족지 중족지절 총 0도(굴곡 0도, 신전 0도)로 장해등급 제13급제11호 이외 나머지 발가락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할 운동범위 제한은 없으며, 좌측 발가락의 운동기능 제한과 파생되는 원인으로 인한 좌측 족저 신경 병증과 비복신경 손상으로 심한 동통이 잔존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의 등급인 심한 동통 제12급제15호로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로 결정하고 재요양 전 지급받은 장해 등급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임

-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 하고 있는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3급 제11호에 해당하며,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다리의 장애의 경우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제2발가락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 또는 제1발가락 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하며, 동통 등 감각 이상 장애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발가락 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측정하고 신경증상에 대한 장애평가를 포함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 제6급으로 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잘못된 수동평가로 추가 상병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증거조사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로 판단 가능하여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범위는 정상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미만 제한상태로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발가락의 동통 장애의 경우 좌측 족저 신경병증과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한 심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한, 이견이 있는 청구인의 좌측 발가락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신경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강직, 오그라들 등 수의적 운동장애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운동기능 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심사기관이 수동으로 측정한 좌측 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제2족지 중족지절 총 0도, 나머지 발가락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3급 제11호에 해당하며, 이에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애와 해당 부위에 파생된 심한 동통 장애 중 상위의 등급인 제12급 제15호로 판단한 심사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그 외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애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8급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9급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제12급 제14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3급 제11호: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 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 관절명 \ 구분 | 측정부위 | |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
|-------------------------|----------|----------|-------------------|
| 발목관절 | 발등쪽 굽히기 | | 20 |
| | 발바닥쪽 굽히기 | | 40 |
| | 바깥쪽 뒤집기 | | 20 |
| | 안쪽 뒤집기 | | 30 |
| 발허리발가락관절 (중족지관절) | 엄지발가락 | 발등쪽 굽히기 | 50 |
| | | 발바닥쪽 굽히기 | 30 |
| | 둘째 발가락 | 발등쪽 굽히기 | 40 |
| | | 발바닥쪽 굽히기 | 30 |
| | 가운데발가락 | 발등쪽 굽히기 | 30 |
| | | 발바닥쪽 굽히기 | 20 |
| | 넷째 발가락 | 발등쪽 굽히기 | 20 |
| | | 발바닥쪽 굽히기 | 10 |
| | 새끼발가락 | 발등쪽 굽히기 | 10 |
| | | 발바닥쪽 굽히기 | 10 |
| 발가락관절 | 엄지발가락 | 펴기 | 0 |
| | | 굽히기 | 30 |
| 제1발가락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 둘째 발가락 | 펴기 | 0 |
| | | 굽히기 | 40 |
| | 가운데발가락 | 펴기 | 0 |
| | | 굽히기 | 40 |
| | 넷째 발가락 | 펴기 | 0 |
| | | 굽히기 | 40 |
| | 새끼발가락 | 펴기 | 0 |
| | | 굽히기 | 40 |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마. 동통 등 감각이상

-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다리의 장애

-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애

-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장 복합 장애

[2022-4419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27.)

사건의 쟁점

사고로 우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복합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등급 조정 제8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m 높이 크레인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이후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므로 재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는 전농 제9급, 신경정신 장애는 경증의 뇌 손상으로 미미한 마비 증상은 있으나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정상적 수행이 가능하며 정신과적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에 해당 하고, 경추부는 일반 동통 제14급,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7로 시력 장애등급에 기준미달, 시야 장애와 흉터 장애 역시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으로 최종적 장애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 처분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우측 귀는 전농, 어음명료도 0%로 확인되어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으로서 장애등급 제9급 제9호, 경추부 일반동통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 신경정신 장애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장애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보아 제9급 제15호를 인정하고 나머지 흉터와 시야 장애의 경우는 각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조정 제8급을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419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5.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4. 4.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얼굴 열상, 우측 폐쇄성 삼각골절, 우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좌측 요골원단의 골절 폐쇄성, 폐쇄성 경추체 골절(경추1번, 경추2번, 경추6번), 폐쇄성 뇌 타박상, 폐쇄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우측 측두부), 두개저의 기타 골절 폐쇄성, 우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후두, 외상성 기도증, 신경성 난청, 이명, 우안 주변부 시야결손’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11. 2. 까지 치유하고,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3일 원처분기관에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2. 5. 16. 장애등급 조정 제8급 결정 처분 및 같은 해 11.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재심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 제8급 결정 처분하였다.

1) 자문의사는 “우측 귀의 청력 장애는 전농, 어음명료도 0%로 확인되어 제9급”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2)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9급이고, 경추부 일반 동통으로 제14급이며,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7이고 우안 정상 시야의 각도 합계의 6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미달이며, 우측 두피 5.5×7.5cm 크기 면상 반흔 관찰되며 머리털로 가려지는 부위이므로 기준미달”이라는 심사 소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장애등급 조정 제8급 결정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1) 우측 귀는 전농 제9급 상태이고, 신경, 정신장애와 관련하여서는 경증의 뇌 손상이 관찰되고 마비 증상은 미미하며,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서 정신과적으로도 인지기능 저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을 상회하는 장애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부는 일반 동통 제14급 소견이다.

2)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7로 시력 장애등급에 기준미달하고, 시야 장애의 경우 우안 정상 시야의 각도 합계의 60% 이하에 해당하여 시야 장애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흉터 장해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고 이후 아직도 일을 못 나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넋을 놓고 종일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수시로 와서 청구인을 체크하고 있다.

나. 가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못 나가 삶이 막막하며, 연금이라도 받아서 가족들이 그나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의무기록 및 장해진단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 전산 정보에 기록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4. 4. 17:00경 2m 높이 크레인에서 간판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 간판과 같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청구인 작성 재해 경위 및 진료기록부 내용)”이다.

나.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요 요양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 상병 명

○ 최초요양

- 얼굴 열상, 우측 폐쇄성 삼각 골절, 우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좌측 요골원단의

골절 폐쇄성, 폐쇄성 경추체 골절(경추1번, 경추2번, 경추6번), 폐쇄성 뇌타박상, 폐쇄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우측 측두부), 두개저의 기타 골절 폐쇄성, 우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후두, 외상성 기두증

○ 추가상병

- 신경성 난청, 이명, 우안 주변부 시야결손

2) **요양 기간:** 2020. 4. 4.~2022. 1. 31.(입원 171일, 통원 446일)

3) **장애등급:** 조정 제8급

4) **장애등급 세부 내용**

○ 흉터 / 기준미달

- 우측 두피 면상반흔(5.5*7.5센티미터)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는 부위

○ 귀 / 제9급 제9호

-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우측 전농)

○ 신경정신 / 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1)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2)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3)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좌측 측두부의 뇌연화증 관찰되며 두통,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 전간발작 확인됨)

○ 척추 /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경추부)

○ 눈 / 기준미달

- 우측 시력 0.7 및 시야각도 합계 60% 초과

다. 청구인은 2023. 4. 2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장해진단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장해진단서 》 | |
|--|---|
| 구분 | 내용 |
| 정형외과 (○○ 정형외과의원, 2021. 11.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경추골절, 두피 손상으로 인한 흉터 ○ 장해 부위: 경추부, 두피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에서 수술적 치료 후 2020년 8월 11일 본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 시행 ○ 장해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추부 통증과 두피(우측)에 5×8cm 크기의 심부 흉터 존재함 ○ 장해 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 영구 |
| 이비인후과 (△△대학교 □□병원, 2021. 11.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난청 및 이명(전농 상태), 좌측 난청 및 이명 ○ 장해 부위: 우측 측두골, 좌측 내이 ○ 장해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 후 우측 귀 난청, 양측 이명을 호소했으며, 측두골 CT 검사상 우측 측두골 골절 상태임 -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무반응 및 좌측은 27dB의 청력역치 소견이며 양측 귀에서 4KHz 45dB의 이명을 호소함 ○ 장해 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 영구 |
| 안과 (△△대학교 □□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우안 시신경 부종 ○ 장해 부위: 우안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

| | |
|---|--|
| 2021. 11.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4. 부상으로 본원 진료 보았으며, 2020. 9. 15. 시행한 시야 검사상 주변부 시야 손상 관찰되었으며, 2020. 11. 10. 안저 검사상 우안의 시신경 부종 소견 보여 경과 관찰 하였음 ○ 장애 상태 - 2021. 11. 19. 검사상 최대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1.0 관찰되며, 안저 검사상 우안의 경미한 시신경 부종 소견 관찰됨 - 우안의 시신경 부종은 이전의 외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애 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애 여부: 비영구 |
| 신경외과 (△△대학교 □□병원, 2021. 11.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 - 두개골 골절, 두부 좌상, 외상성 경막외출혈, 경추 2번 골절, 흉추 압박골절 ○ 장애 부위: 두부, 경추, 흉추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 CT, MRI, 임상 심리기능 검사, X-ray 상에서 전두엽 증상 및 지각력에 대한 저하 등으로 약물치료. 경추 골절에 대한 할로 견인술(2020. 5. 8.) 시행 등의 보존적인 치료 중임 ○ 장애 상태 - 전두엽 기능 저하, 인지 지각 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 목 경추부의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 및 운동장애가 남은 상태임 ○ 장애 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애 여부: 영구 |

《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화신, □□병원 신경외과, 2021. 12. 30. 》

- 척추의 변형장애: 해당 없음
- 척추의 기능장애: 골유합술에 비해당

나. 우안 장애에 대한 특별진찰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원, 2022. 1. 19. 》

1) 질병 또는 부상 명

- 상세 불명의 시각장애, 규칙 난시

2) 현 증상

- 우안 교정시력 저하 및 시야 이상

3) 향후 소견

가) 우안 장애 정도(시야 및 시력)

- 시력

- 본원에서 측정된 우안의 주관적 원거리 최대교정 시력은 0.6~0.7로 Malingering 시력 검사상에서도 동일한 범위(원거리 0.6, 근거리 0.8)로 확인되며 정상 동공 반사 소견 보임

- 시야

- 우안 상부 시야에 국소적 결손 보이거나 비특이적인 형태임

- 안위 및 눈 운동

- 정상 범위임

나) 장애의 원인

- 우안 교정시력 저하의 원인

-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두경부 외상에 속발된 시각 경로의 손상보다는 기타의 원인(장기간 교정되지 않은 난시의 굴절부등 상태 혹은 발생 시기 미상의 중심과 부위 외측 망막 이상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우안 시야 이상의 원인

- 비특이적인 형태로 두경부 외상에 속발된 시각 경로 손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우측 안와의 폐쇄성 굴절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안위 및 눈 운동 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자문의 1 (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진 결과 우안 최대 교정시력 0.7로 확인됨 ○ 시야결손은 비특이적 국소적 결손으로 시야 장애 기준이 미달됨 ○ 시신경 부종은 현재 호전된 상태임 |
| 자문의 2 (이비인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 난청 소견 뚜렷하고 뇌간 유발반응 검사와 신뢰도 있게 일치하여 측두골 골절에 따른 내이 손상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 우측 귀의 청력 장애는 전농, 어음명료도 0%로 확인되며 상시 이명 호소하나 타각적 검사로 입증 가능한 경우는 아님 |

라.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개최일: 2022. 4. 6. / 2022. 5. 12. 》

-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7(기준미달), 우안 정상 시야의 각도 합계의 60% 이하에 해당하지 않음(기준미달)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9급)
- 우측 두피 5.5×7.5cm 크기 면상반흔 관찰되며, 머리털로 가려지는 부위임(기준미달)
- 경추부 일반 동통(14급)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소견은 없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심사결정 제○○○○호, 심사결정서 》

- 흉터 장애는 기준미달함
- 우측 귀는 전농(제9급) 상태
- 경추부 일반 동통(제14급)

- 이외에 이견이 있는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7로 시력 장애등급에 기준 미달하며, 시야 장애의 경우 우안 정상 시야의 각도 합계의 60% 이하에 해당하여 시야 장애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신경정신장애와 관련하여서는 경증의 뇌 손상이 관찰되고 마비 증상은 미미하며,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서, 정신과적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을 상회하는 장애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청구인의 장애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애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더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애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심사로 올바른 판단을 하여 장애등급을 상향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인의 우측 귀는 전농, 어음명료도 0%로 확인되어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인 장애등급 제9급 제9호이고, 경추부에 일반 동통이 남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신경정신 장애와 관련하여 경증의 뇌 손상이 관찰되고, 마비 증상은

미미하며, 일상생활 동작 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흉터 장애, 시야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에, 심리 회의를 참석한 청구인의 구술 내용과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인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제9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 또는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소견이나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조정 제8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이를 상향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제6급 제5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제7급 제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 제8급 제2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 제9급 제3호: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제9급 제9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0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제10급 제6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 90dB 미만인 사람
- 제11급 제4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 미만인 사람 또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제11급 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2급 제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제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3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제13급 제2호: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4급 제1호: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
-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②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장애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 장애의 등급

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애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애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text{분법}\{(a+2b+2c+d) / 6\}$ 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 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癍痕), 면상반흔(面像癍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 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흉터를,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를, "조직함몰"이란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 7) 외모 중 머리·얼굴 및 목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머리·얼굴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얼굴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머리 또는 목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모의 흉터

- 1) 영 별표 6에서 "외모"란 머리·얼굴(눈꺼풀·귓바퀴·코를 포함한다) 및 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머리와 얼굴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 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 2)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 3)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 검사 등을 말한다.
- 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부는 목뼈 제5번부터 목뼈 제8번까지,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및 허리뼈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 1) 척추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추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 3) 척추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5) 척추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추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국소 부위 동통 장애등급 인정기준, 2016. 1. 14.】

[첨부1] 국소 부위 동통 장애등급 제14급, 제12급 판단기준

| 장애등급 | 기준 |
|------|--|
| 제14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 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 - 5도 이상 - 10도 이내 각 형성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 관절 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 -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3단계 이상인 경우 |
| 제12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 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도 이상 각 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 - 운동신경 손상 및 감각신경 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 -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 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 -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 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 통증 조절 목적으로 약물 복용(소염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 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4단계이거나 손가락 절단 없이 손가락 괴저 혹은 괴저 후 반흔이 있는 경우 |

제12장 흉터의 장애

[2023-2394 기각] 장애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9. 13.)

사건의 쟁점

사고로 코뼈 골절 등의 안면부 흉터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총 11cm 반흔이 확인되어 장애등급 제13급 제13호로 결정된 경우, 신경 손상 및 변형장애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추 제1·4·5번 골절과 관련하여 단순 동통만 인정되어 신경 손상 및 변형 장애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안면부 흉터 길이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야 하고, 안면부 골절 수술 후에 코 밑 감각이 없어 신경 손상이 의심되며 음식을 흘리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장애등급을 다시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이마 부위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총 11cm 반흔이 확인되고, 경추 1번은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로 관절 간격 50% 미만에 해당하고, 영구적인 일반 동통이 남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종 장애등급을 조정 제13급으로 결정 처분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얼굴의 흉터는 제13급 제13호, 안면부 신경 계통의 기능장애는 제14급 제10호, 경추 골절 후 변형장애는 골 유합 상태가 확인되므로 인정기준 미달로 보아 최종적으로 조정 제13급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394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1. 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신축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1. 7. 3.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경추 4,5번), 제1경추의 골절, 폐쇄성(환추),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후두), Fracture of LeFort 2, closed, 르포르 골절(상악골을 포함한 중안면부 양측성 골절), 코뼈 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2. 8. 20.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0. 2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2. 11. 7. 장해등급 조정 제13급 결정 처분과 2023. 4.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6. 3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이마 부위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총 11cm 반흔이 확인 되고, 경추 1번은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로 관절 간격 50% 미만에 해당하며, 영구적인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제13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3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고 판단하였다.

1) 안면부 흉터 관련, 이마 부위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기준으로 장해 등급이 산정되었고, 청구인은 실제 흉터의 길이가 2cm에서 3cm 더 길다고 주장 하지만 이를 반영하여도 인접하여 하나의 선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장 긴 반흔이 10cm 미만으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이다.

2) 안면부 골절 수술 후 발생한 감각 이상에 대하여는 일반 동통이 인정된다.

3) 경추 제1·4·5번 골절 이후 골 유합 상태가 확인되는바, 변형장애는 인정 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추 제1·4·5번 골절과 관련하여 단순 동통만 인정되고 신경 손상 및

변형장해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안면부 흉터와 관련하여, 흉터의 길이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안면부 골절 수술 후, 코 밑 감각이 없어 신경 손상이 의심되고 음식을 흘리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장해등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1. 7. 3. 07:00경 아침에 사업장에서 일을 하려고 1.7m 높이의 PT 단도리 발판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추락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로 요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경추 4, 5번), 제1경추의 골절, 폐쇄성(환추),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후두), Fracture of LeFort 2, closed, 르포르골절(상악골을 포함한 중간면부 양측성 골절), 코뼈 골절
- **요양 기간:** 2021. 7. 3. ~ 2022. 8. 20.(입원 15일, 통원 399일, 총일수 414일)
- **수술 이력**(노동보험시스템)
 - 2021. 7. 3.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단순봉합, 제1범위, 길이 3.0cm 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응급]
 - 2021. 7. 14. 상악골골절 관혈적 정복술(Le Fort II)/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 2021. 8. 5 피판작성술-피부-국소(안면부)

다. 청구인의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 1. 19. ○○대학교병원, C-Spine 3D CT 〉

- [Conclusion]

C-spine

Fx. of the occipital condyle, Rt.

=> Union state

Fx of the Rt. transverse process of C1

=> Well consolidation state

Fx. of the spinous process of C4 and C5

; esp. interspinous Fx., C5

; associated strain of the back musculx, esp, in the spinalis cervicis

=> Well consolidation state

R/o HIVD, C4-5, Lt. central

; Rt. C3-4, mild

Diffuse deg. spondylosis, mild

; prominent uncinat and articular process

; subchondral sclerosis

; multiple osteophytes at endplate and articular margin of the facet joint

; multifocal narrowing of the disc space

Diffuse osteoporosis

Straightening of C-spinal lordosis

Partial calcifications along the vertebral artery at the level of the clivus and C1

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사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흉터

[장애 상태] 신규장애: 안면부선상흔(5cm이상)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이마 6cm, 좌측 볼 4cm

[최종 산정] 일반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이마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총 11cm 확인

○ 척주/체간

[장해 상태] 신규장해: [경추][흉추][요추] 동통장해 일반 경추1골절 후 치유 관절 간격 50% 미만으로 일반 동통 영구 잔존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경추1골절 후 치유 관절 간격 50% 미만으로 일반 동통 영구 잔존)

[최종 산정]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경추1골절 후 치유 관절 간격 50%미만으로 일반 동통 영구 잔존)

○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13급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장해진단서, ○○정형외과, 2022. 10. 21. 〉

○ 장해 원인 상병 명: 상악골을 포함한 중안면부 양측성 골절, 코뼈 골절, 경추의 골절

○ 장해 부위: 얼굴(안면), 목

○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2021. 7. 15. 타 병원 open reduction with internal fixation for fracture in the anterior wall of both maxillary sinuses.

○ 장해 상태: 안면부 추형장해, 목 통증 장해

○ 국소부위 동통 장해소견서

골절에 따른 동통(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50%미만))

〈 신체 감정서, ○○대학교병원, 2022. 3. 18. 〉

○ 감정 사항: 피 감정인은 2021. 7. 3. 벽돌 시공 작업 중 1.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안면부 손상 발생하여 치료받은 상태에서 성형외과 영역에서 관찰할 때 사고 당시의 손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신체 변형을 보이고 있음

* 이마부위 6cm, 좌측 볼 부위 4cm, 인중 부위 1cm 총 11cm 비대성 반흔

- 감정 내용: 상기 신체 변형은 미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성형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남아 영구 추형 장애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의 안면부 반흔은 국가배상법상 추상 자해의 분류 제12급 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 그러나 반흔은 처음 수상 당시와 비교해 상당 부분 흐려져서 있음.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동력 상실 15%로 준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2022. 11. 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이마 부위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에 총 11cm 반흔이 확인됨
- 경추 1번의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관절 간격 50%미만), 일반 동통 영구 잔존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조정 제13급에 해당하고,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관련 자료 및 영상통화 상 청구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안면부 흉터 장애에 대하여 ‘이마부위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산정되었고 실제로는 2-3cm 더 길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영하여도 인접하여 하나의 선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가장 긴 반흔이 10cm 미만으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이고, 르포르골절 수술 이후 발생한 감각 이상에 대하여는 일반 동통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며, 경추 제1·4·5번 골절 후 골 유합 상태 확인되어 변형장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임
-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애등급은 외모의 흉터장애(제13급), 안면부 및 척주부 일반 동통(제14급)을 종합하여 제13급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할 만한 소견은 없다”라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조정 제13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애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 장애등급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제13급 제13호에 해당하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또한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흉터의 장애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장애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청구인은 경추 골절과 관련하여 단순 동통만 인정되고 신경 손상 및 변형장애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얼굴 흉터의 길이도 다시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얼굴 흉터와 관련하여 이마 부위 6cm, 좌측 볼 4cm, 인중 1cm 총 11cm 반흔이 확인되어, 제13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또한, 안면부 골절 수술 후 발생한 신경계통의 기능 장애에 대하여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추 골절 후 변형장애는 골절 이후 골 유합 상태가 확인되므로 장애등급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 상태는 장애등급 조정 제13급에 해당할 뿐 더 이상 상위의 장애등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제9급 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0급 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 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 제13급제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 제13급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②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마. 동통 등 감각이상

-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 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癍痕), 면상반흔(面像癍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 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흉터를,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를, "조직함몰"이란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 7) 외모 중 머리·얼굴 및 목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머리·얼굴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얼굴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머리 또는 목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모의 흉터

- 1) 영 별표 6에서 "외모"란 머리·얼굴(눈꺼풀·귓바퀴·코를 포함한다) 및 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머리와 얼굴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 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척주 등의 장애

다. 척주의 변형장애

- 1) 척주의 변형장애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애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의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영치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의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의 골절은 횡돌기(橫突起: 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 가로돌기)나 극돌기(棘突起: 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뺀 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 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물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제3부. 기타

제1장. 근로자성

제2장. 휴업급여

제3장. 해외출장자

제4장. 자해

제5장. 소멸시효

제6장. 수급권자

제7장. 청구인적격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제1장 근로자성

[2022-3273 취소]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15.)

사건의 쟁점

낙상사고를 당한 화물트럭 운전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화물트럭 운전업무를 하는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시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을 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고 업무에 따른 손익의 위험과 차량 운행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경우 통상적인 지입차량 계약 형태와 달리, 차량의 소유권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임대형식으로 차량 및 운영 관리권을 위탁 받아서 운행한 점, 모집 공고 역시 지입차주가 아닌 배송 기사를 모집한 점, 회사 배차팀에서 정해주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송업무만을 수행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 외에는 다른 차량을 운행하거나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차량 운행이 없는 경우는 대기하면서 다음 배차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을 스스로 정하거나 대기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327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변호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2. 2.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2.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운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사고로 진단받은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 3, 4, 5, 6)’(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2022. 1. 1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2. 15.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5. 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 1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화물차량 임대차 계약 이후 4대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주어진 수행 업무 단위(도급)로 금액이 책정되어 대가를 수령하고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 및 차량 운행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화물차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주)○○○○운수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주)○○○○운수 소유 차량에 대한 차량 및 운영 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 또한, 주어진 수행 업무 단위(도급)로 금액이 책정되어 대가를 수령하고,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 및 차량 운행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출퇴근 장소나 출퇴근 시간(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등이 정해진 바는 없고,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차량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계약일인 2021. 10. 12.부터 재해일 전날인 2021. 12. 8.까지 총 51일을 해당 사업장 운송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한 용역비는 한 달 단위로 계산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매달 입금된다.

나. 사업장에서는 계약 당시 지급한 무전기로 배차 및 모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출발지 및 도착지를 지정하거나 운송업무가 없을 경우 다음 대기 장소 지정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24시간 사업장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사업장에서는 임대차량에 설치된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사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동 경로를 통제하였기에 청구인이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다. 또한 임대차량에는 해당 사업장의 운송 물품만 신도록 통제하여 실질적으로 위 임대차량으로 다른 운송업체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계약상 사업장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정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부터 독립하여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지급받은 보수가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모든 운송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장의 지시 및 통제를 받았다. 또한 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세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이는 간접적 지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 차고지에서 세차를 하다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 12. 9. 20:00경 사업장 내에서 11t 윈바디트럭 물청소 작업 중 1.5m 높이 사다리에 올라가 후방 카메라를 청소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안면부부터 낙상함. 다음 날 05:00경 출근하던 회사 정비사에게 발견되어 숙소로 옮겨졌으며,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다 11:00경 응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주와 체결한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계약 차량의 표시) “갑(차량소유운송사업자)”은 “을(차량임대운행인)”에게 아래 일반, 특수화물 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차량 및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다.

| 차량번호 | 차명 | 년식 | 적재정량 | 차대번호 |
|---------|-------------|------|------|------|
| ○○바○○○○ | 뉴파워트럭11톤초장축 | 2013 | 8800 | ○○○○ |

- 제3조(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4조(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정비 등을 성실히 하여 항상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한다. 관리 소홀과 과실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 제6조(운송) “을”은 운송약관을 준수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의 운송에 대해 제반 책임을 진다.
- 제7조(검사, 점검, 벌과금 등)
 1. “을”은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정기검사, 계속검사,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위 1호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나 불이익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이로 인해 “갑”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을”이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권의 양도)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용역료 등의 정산)
 1. “갑”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을”의 임대차량운행으로 발생한 용역수익에 대해서는 익월 말일 현금으로 “을”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2.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유대 등은 상기 용역료 정산시 우선 차감한다.
- 제12조(사고 보상)
 1.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차량은 ○○바○○○○ 뉴파워트럭11톤 특초장축 화물 차량으로 소유자는 (주)○○○○운수이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른 보험가입자 의견은 ‘재해 사실 불인정’이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당사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량 차주제는 차량 기사와 당사 간에 임대차량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부터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점은 청구인 본인 또한 잘 인지하고 있는 점이다.

마. 청구인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답변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질의답변서 일부 발췌(주)○○○○운수 담당자, 2022. 1. 20.)

- 재해자의 수행 업무 및 대내외적 직책: 임대차량 지입차주
- 재해자의 업무 내용은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당사의 배차팀에서 실시간으로 배차를 받음
- 재해자 업무수행 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방법: 임대차량 차주들은 개인 차주 이므로 지휘·감독은 받지 않으며 그때그때 해당 오더에 맞춰서 본인들이 운행을 함
- 운송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하는지: 다른 업무는 하지 않음

- 재해자의 근로 장소, 출·퇴근 등 1일 소정 근로시간 및 제재 여부: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운행하기에 근로 장소에 대한 해당 사항 없으며, 정해진 운행 시간도 없고 운행 오더가 있을 때에만 운행함. 또한 출/퇴근은 별도로 하지 않음. 제재는 해당 사항 없음
- 재해자의 임금 산정 방법: 재해자는 월간 운행한 총매출액에서 차량 임대료와 사용 유류대금을 제외한 모든 차액을 운송료로 매월 지급 받으며, 보수는 운송 건당 지급 되고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청구인이 스스로 부담함
- 차량 보험료, 차량 운행경비 부담 주체: 차량이 임대차량이기때 차량 보험료는 회사에서 내며, 나머지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
- 타 운송회사의 운송업무 수행 가능 여부: 재해자가 여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회사 내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재해자는 회사 내의 어떠한 규칙/규정도 적용 받지 않음

○ 청구인 문답서 일부 발췌(청구인, 2022. 1. 24.)

- 사업장과 청구인의 관계: 운수업체와 배송 기사
-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여부 및 내용: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로 계약
-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업주가 운송건에 대한 분담을 하고 지역별 배차 주임이 배송 기사들에게 무전으로 업무 지시
- 재해자 업무수행 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방법: 회사에서 지급한 무전을 통해 배차 주임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 운송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하는지: 차량의 관리(세차, 간단한 정비), 계약 및 지시
- 근로 장소, 출·퇴근 등 1일 소정 근로시간 및 제재 여부: 정해진 근무 장소 없이 차량으로 전국 이동함. 근로시간은 토요일 오후 마지막 운송 수행 후 집으로 귀가,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운송업무 수행하며 24시간 운송업무 수행 및 대기. 지각·결근의 개념이 없으며 24시간 차량 운송 또는 대기.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못할 경우 4일 전 보고 필요
-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 위험 부담 주체: X
- 타 운송회사의 운송업무 수행 가능 여부: X, (주)○○○○운수 계약 건만 수행함

바. 청구인의 사고 관련 ○○대○○병원 응급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기록(○○대○○병원), 2021. 12. 10. 〉

- 내원일시: 2021. 12. 10. 11:47
- 주 호소: 어제 사다리차에서 떨어지고 의식 잃었고 팔 다리 힘 없어요.
- 현 병력: 어제 저녁 8시경 사다리차에서 균형 잃고 앞으로 쓰러져 머리 concussion, LOC +, 사지위약 있으며, 쓰러져 있는 것이 금일 오전 119 신고되어 응급실 내원함

사.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근로자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주)○○○○운수’의 지시를 받아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청구인은 화물차량 임대차 계약 이후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③주어진 수행 업무 단위(도급)로 금액이 책정되어 대가를 수령하고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 및 차량 운행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화물차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운송 이외에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차량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6. 의학적 소견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의 2022. 1. 6. 자 ○○대○○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명: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추 3,4,5,6)
-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약 1.5m 높이 사다리차에서 균형 잃고 안면부부터 땅바닥에 떨어짐
- 종합소견: 본원 내원 후 시행한 경추 자기공명영상에서 경부 척수 좌상 소견 확인됨
양측 주관절 신전, 손목 굴곡 및 신전, 수지관절 굴곡 및 신전 근력 저하, 양측 상지

감각 이상, 통증 있음. 기립성저혈압 및 균형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해 보행 장애 있음
자연 배뇨 기능 아직 회복 확인되지 않음

- 예상기간: 2021. 12. 10.~2022. 3. 3. 입원 12주

- 수술 여부: 있음, 2021. 12. 10. 경추 후궁성형술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2022. 2. 3. “경추 MRI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건의 경우 통상적인 지입차량 계약 형태와 달리, 차량의 소유권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형식으로 차량 및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모집 공고 역시 지입차주가 아닌 배송 기사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회사 배차팀에서 정해주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송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 외에는 다른 차량을 운행하거나,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차량 운행이 없을 때 대기하면서 다음 배차를 기다렸고, 청구인이 그 대기시간을 스스로 정하거나 대기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본사건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상당 부분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본사건 사업장의 차량 정비 및 관리 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이는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서 청구인이 해야 할 업무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2장 휴업급여

[2022-4326 기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21.)

사건의 쟁점

수술 이후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년부터 기관수리후세척작업, PCB수리납땜작업, 신나류로 장비세척, 락카 도장작업 유압류, 미션오일류 FRP 가공작업과 잦은 해외출장 및 전화통화업무, 흡입 등을 이유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청구한 전체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진단받은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에 대해 청구인은 결막종괴 절제 및 생검술 시행한 상태이고, 해당 상병은 결막에 생긴 국소 림프종으로, 수술 이후 3~6개월 간격으로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이 필요한데,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수술 이후 4개월 이상 경과 한 시기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 경과 및 상병 상태를 종합하면 상병 상태상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관련 시술을 시행한 후 4개월 이상 경과 하여 안정된 상태이고, 승인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 상병의 통상적인 회복기 및 안정기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아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326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5. 23.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4. 9. 진단받은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22. 4. 18. 원처분기관에 2019. 9. 21.부터 2020. 3.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9. 9. 21. 이후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2. 5. 2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1.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2019. 9. 21. 이후 요양기간 취업치료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 기간 중 실통원일 2019. 10. 23.과 2020. 1. 29. (총 2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이 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은 2019. 4. 9. 진단받은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에 대해 2019. 4. 26. 결막종괴 절제 및 생검술 시행한 상태이고, 해당 상병은 결막에 생긴 국소 림프종으로, 수술 이후 3~6개월 간격으로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휴업급여 청구한 기간은 수술 이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기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 경과 및 상병 상태를 종합할 때 2019. 9. 21. 이후 부터는 상병 상태상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수상병 환자의 통원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투약 및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여 치유(증상 고정) 상태로 볼 수 없는 특수 상병(눈, 코, 귀, 입, 얼굴, 비뇨기 등)의 경우

“최초로 제출된 진료계획서상의 승인기간(통원요양기간 포함)까지는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최초 진료계획 기간(2019. 9. 21. ~2020. 9. 21.)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침에 따르면 2회차 진료계획서의 경우 사업장이 운영 중이고 재직 중인 경우, 재해 당시 수행 업무에 대해 취업치료 가능하고 사업주도 취업치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통원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장차량’ 제조업체에서 정비직(AS업무)으로 근무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재해 당시 업무에 복귀한다면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사무직 등 비현장직으로의 전환도 곤란한 상황이며, 재해사업장이 청구인에게 병가휴직을 승인한 것은 취업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의 안과, 방사선종양학과 주치의들은 2020. 4월부터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라. 재해사업장은 산기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하고 통근 버스도 운영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해서 통근해야 하나, 청구인은 상병 및 방사선 치료에 따른 다양한 증상(복시, 시력감퇴, 시야결손 등 안과적 이상 증상 및 두통, 피로감, 체력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가용 운전이 위험하고, 특히 경로상 위험 구간이 있어 통근 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마. ‘휴업급여지급기준에 대한 지침(2012. 11. 5.)’에 따르면 휴업급여 지급 제한 통지를 뒤늦게 하게 되어 청구인이 늦게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 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최초 요양 신청(2019. 6월) 이후 역학조사 등의 이유로 뒤늦게 2021. 12월에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휴업급여 또한 청구기간(2019. 9. 21. ~2020. 3. 31.)으로부터 한참 경과한 2022. 5. 23.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만일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최초요양을 승인한 뒤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회사에 복직을 신청하여 어떤 식으로든 출근을 시도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급여 지연 처분의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원처분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만년 이상 무급 상태로 생계 곤란에 처하게 한 것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이며, 청구인에게 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조사서에 기록된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1994년부터 기관수리후세척작업, PCB수리납땜작업, 신나류로 장비세척, 락카 도장작업 유압류, 미션오일류 FRP 가공작업, 잣은 해외출장 및 전화통화업무, 흡 흡입 등 일의 특성상 잣은 접촉 및 흡입으로 병이 생김”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9. 4. 9.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2019. 6. 2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승인 상병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주)○○○○에서 25년 2개월간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TCE, 시너 등 화학물질과 용접 흠,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함
-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청구인은 (주)○○○○에 1994. 4. 18. 입사하여 약 25년 2개월간 고소작업차와 유압크레인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림프종의 원인물질인 벤젠 및 림프조혈기계 암과 관련하여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노출되었지만,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 비율과 시너의 벤젠 함유량이 시간이 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진 점, 시너의 벤젠 함유 빈도도 낮은 점, 도장작업의 비율(5%)과 시너를 이용한 차량 세정작업의 비율(5%) 역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다.
- 그러나, 청구인이 약 25년 2개월간 파손된 고소작업차와 유압크레인 수리 작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던 점,

환기시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림프종의 원인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점, 2003년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보다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취급 시 심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2021. 10. 19.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대학교병원에서 2019. 4. 9.부터 2022. 9. 23.까지 통원 1,264일에 대해 요양 승인 받았다.

라. 최초요양 승인 이후 2021. 11. 12. 제출된 진료계획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의학자문 결과, 신청 요양기간(2019. 9. 21.~2022. 9. 23. 통원) 인정하고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9. 9. 21. 이후부터는 취업치료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원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임”을 2021. 12. 8. 청구인에게 문서(재활보상2부-5101)로 통보한 바 있다.

마. 청구기간(2019. 9. 21.~2020. 3. 31.) 중 청구인은 총 2일(2019. 10. 23., 2020. 1. 29.)간 통원요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 | 진료과목 | 의무기록 내용 |
|--------------|-------------|--|
| 2019. 6. 10. | 방사선 종양학과 | 통증 평가: 통증 없음 ECOG Performance status: Grade 1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만 제한이 있음 경과 기록: Radiotherapy to Rt. orbit(13/17 fx) 2340 cGy S) Skin rea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Xerostomia (-) *2018년도에 위, 대시경상 특이소견 없었다고 하심(△△병원) A) # Rt. conjunctive MALToma (Ann Arbor stage 1E) s/p (2019/5/15~2019/6/10) definitive RTx. to Rt. eye (30.6Gy/17fx) P) 1. RTx. finished 2. 인공눈물 및 연고 처방 3. 2019-7-2 OPD f/u OPH | | | | | | | | | | | | | | | |
| 2019. 7. 25. | 안과 | 진단명: OD conjunctival MALToma no sign of recurrence 10/24 | | | | | | | | | | | | | | | |
| 2019. 10. 23. | 안과 | 눈이 계속 시리고. 자고 일어나면 침침하다 <div><div>Rt. Lt. Rt. Lt.</div><div>1.0 교정 0.9 11 11</div><div><div>V</div><div>T_p</div></div><div>현성굴절검사 - Manifest Refraction</div><table><tr><td></td><td>Corrected vision</td><td>Spherical</td><td>Cylinder</td><td>Axis</td></tr><tr><td>Right</td><td>20/20</td><td>plano</td><td></td><td></td></tr><tr><td>Left</td><td></td><td></td><td></td><td></td></tr></table> no sign of recurrence 3개월 후</div> | | Corrected vision | Spherical | Cylinder | Axis | Right | 20/20 | plano | | | Left | | | | |
| | | Corrected vision | Spherical | Cylinder | Axis | | | | | | | | | | | | |
| Right | 20/20 | plano | | | | | | | | | | | | | | | |
| Left | | | | | | | | | | | | | | | | | |
| | 방사선 종양학과 | 통증 평가: 통증 없음 ECOG Performance status: Grade 1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만 제한이 있음 S) Skin reaction (+): improved Rt. eye swelling (-) Xerostomia (-) O) Ophthalmic exam no sign of recurrence P) 2020-1-29 OPD f/u | | | | | | | | | | | | | | | |
| 2020. 4. 29. | 안과 | 잘 지냈어요. 찬바람 불 때 약간 시린 것 외에는 괜찮아요. <div><div>Rt. Lt. Rt. Lt.</div><div>1.0 교정 0.9 13 14</div><div><div>V</div><div>T_p</div></div> no sign of recurrence Observation and regular follow up 4개월 후 일반의 f/u</div> | | | | | | | | | | | | | | | |

| | | |
|--|-------------|--|
| | 방사선 종양학과 | 통증 평가: 통증 없음 ECOG Performance status: Grade 1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만 제한이 있음 S) Rt. eye swelling (-) Xerostomia (+): improved O) Ophthalmic exam no sign of recurrence P) 2020-8-17 OPD f/u |
|--|-------------|--|

사.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일자 (지급일자) | 청구기간 (지급기간) | 청구일수 (지급일수) | 지급액 |
|--------------------------------|--|----------------|-------------|
| 2022. 4. 18. (2022. 5. 23.) | 2019. 4. 9. ~ 2019. 9. 20. (2019. 4. 9. ~ 2019. 9. 20.) | 135일 (135일) | 17,990,620원 |
| | 2019. 9. 21. ~ 2020. 3. 31. (2019. 10. 23., 2020. 1. 29.) | 193일 (2일) | 266,520원 |

아. 청구인은 2019. 5. 13.~2020. 3. 31. 기간 병가휴직(무급)하였다가 2020. 4. 1. 이후 재해 발생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
|--|
| <p>〈 최초요양 소견서, ○○대학교병원 안과, 2019. 6. 27. 〉</p> <p>가. 상병 명: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p> <p>나. 요양 기간: 2019. 4. 9. ~ 2019. 9. 20.</p> <p>다. 취업치료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업치료 불가능</p> <p>〈 진료계획서, ○○대학교병원 안과, 2021. 11. 12. 〉</p> <p>가. 기간: -</p> <p>나. 주요 검사 결과 요약: 2021. 10. 27. 진료시 최대교정시력 우안)20/20, 좌안)20/20</p> |
|--|

측정되며 세극동현미경검사상 우안의 결막점막연관 림프종 재발 없이 안정적인 결막 상태 관찰됨

다. 수술: 2019. 4. 26. 우안 결막종괴 생검수술

라. 현재 취업여부: ☒ 취업중

마. 취업치료 가능 여부: ☒ 취업치료 가능

바. 소견: 우안) 결막종괴에 대해 2019. 5. 7. 우안) 결막종괴 생검수술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 소견 관찰되어 2019. 5. 15.부터 2019. 6. 10.까지 우안) 방사선 치료 시행하였으며, 2021. 10. 27. 마지막 진료 시까지 재발 없이 안정적인 소견 관찰됨. 향후 정기적인 외래경과관찰 통해 재발 여부 등 확인 예정임

〈 진료계획서, ○○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2021. 11. 12. 〉

가. 기간: 2019. 9. 21.~2020. 9. 21., 2020. 9. 22.~2021. 9. 22., 2021. 9. 23.~2022. 9. 23. 방사선 치료, 추적 관찰

나. 주요 검사 결과 요약: 없음

다. 현재 취업여부: ☒ 취업중

라. 취업치료 가능 여부: ☒ 취업치료 가능(2020년 4월 이후), ☒ 취업치료 불가능(2019년 4월 ~ 2020년 4월)

〈 진단서(휴업급여 지급제한 공문이후), ○○대학교병원 안과, 2022. 1. 6. 〉

가. 병명: 우안) 점막 관련 림프모양 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

나. 소견: 상병 진단으로 2019. 4. 26 우안) 결막종괴 절제 및 생검술 시행 받았으며 조직검사 상 우안) 결막연관 림프종 진단받음. 치료예상기간은 2024. 4. 26. 까지이며 6개월 정기검진이 필요함. 2019. 4월~2020. 4월까지 취업치료 불가능하며 2020. 4월 이후 취업치료 가능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자문 의뢰사항: 진료계획(2019. 9. 21.~2020. 9. 21., 2020. 9. 22.~2021. 9. 22., 2021. 9. 23.~2022. 9. 23. 통원) 타당 여부 및 취업치료 가능 여부

나. 소견: 신청 요양 기간 인정하고 요양 기간 중 취업치료 가능함

라. 심사기관은 휴업급여 청구 기간에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구체적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4. 9. 진단받은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에 대해 2019. 4. 26. 결막종괴 절제 및 생검술 시행한 상태로, 해당 상병은 결막에 생긴 국소 림프종으로, 수술 이후 3~6개월 간격으로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휴업급여 청구한 기간은 수술 이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기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 경과 및 상병 상태를 종합할 때 2019. 9. 21. 이후부터는 상병 상태상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우리 위원회 안과 자문의들은 청구인은 2019. 9. 21. 이후부터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원 1

-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의 생검술 후 1달 이내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9. 9. 21. 이후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은 적절함

○ 위원 2

- 2019. 4. 9. 진단받은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에 대해 2019. 4. 26. 결막종괴 절제 및 생검술 시행한 상태임. 휴업급여 청구한 기간은 수술 이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기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임. 치료 경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2019. 9. 21. 이후부터는 상병 상태상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3

- 청구인은 2019. 4. 9. '우안,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으로 진단받음
- 2019. 4. 26. 결막종괴 절제 및 생검술 시행한 후 2019. 6. 10.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외래 추적관찰을 하고 있음
- 결막점막연관 림프종은 결막에 생긴 국소 림프종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질환임
- 청구인은 수술 이후 4개월 이상 경과하고 방사선 치료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2019. 9. 21.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질환의 상태로 보아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근로자가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 기간 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기관수리후세척작업, PCB수리납땜작업, 신나류로 장비세척, 락카 도장작업 유압류, 미션오일류 FRP 가공작업, 잣은 해외출장 및 전화통화 업무, 흙 흡입 등을 이유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한 전체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한 2019. 9. 21.부터 2020. 3. 31.까지 기간은 2019. 4. 9. 승인 상병을 진단받고, 2019. 4. 26. 결막종괴 절제 및 생검술을 시행한 지 4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로, 치료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안정된 상태이고, 승인 상병의 급격한 변화나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 상병의 통상적인 회복기 및 안정기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에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 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기간,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해외출장자

[2023-1346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3. 15.)

사건의 쟁점

해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재해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출장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근로 명령 주체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국내 본사이고, 이 사건 해외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것은 ◇◇ 정부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재해근로자의 해외 근무 기간 중 소속 사업장(임금의 지급 주체)은 국내 본사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임금의 일부가 이 사건 국내 본사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지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국내 본사와의 관계는 해외 파견으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위 법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가입신청 및 승인내역 또한 없으므로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22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해외파견자는 위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법 적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업무지시와 감독의 권한이 해외법인에 있고 근로의 대가 전액을 지급 받은 점을 근거로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346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1. 1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국내 본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국내 본사의 해외법인인 △△△△(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 중 2021. 4. 19.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 2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1. 10.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과 2023. 3. 3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1) 재해근로자의 상병 ‘코로나19,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급성 호흡부전’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2)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해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전액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임금의 일부가 이 사건 국내 본사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 지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국내 본사와의 관계는 해외파견으로 판단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가입신청 및 승인 내역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의 해외 근무 기간 중 지휘·명령의 주체가 국내 본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재해근로자의 임금을 해외법인이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내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근무자에 대하여 모두 “해외파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외 출장”으로 판단하였으나, 2018년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변경하여,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지휘·명령의 주체 판단 기준에 따라 해외파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급’도 포함된다.

나.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의원실의 변경 행정해석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해외 근무자가 어느 사업장 소속(임금지급의 주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휘·감독 체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재해근로자는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국내 본사의 인사명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 현지법인에서 근무를 마치고 국내 복귀가 예정된 상태였고, 해외주재원으로서 연봉 확인서상 준거법을 ‘근로기준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의 해외근무 기간동안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내 본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재해근로자의 해외근무 기간동안 임금에 해당하는 2021년 4월분 급여, 연가보상비,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퇴직금 또한 국내 본사에서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마.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에 따르면,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근로자 지위를 국내 본사와 해외법인에서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업무보고·지시체계 또한 사안에 따라 국내 본사와 해외법인에 한 것으로 보이며, 재해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결정 및 시행 주체는 국내 본사이고, 인사관리 또한 국내 본사가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나아가 국내 본사가 매년 재해근로자에게 연봉확인서를 교부한 바 있고, 해당 연봉확인서에는 ◇◇◇ 노동법 및 해외법인의 취업규칙이 아닌 국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4대 보험 관련 자료에서는 국내 본사가 해외근무 기간 중 재해근로자의 국내 사회보험 자격을 국내 본사 소속으로 유지한

것이 확인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지침 및 질의회신에서 말하는 재해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주체” 및 “지휘·명령 주체”는 국내 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근로자의 해외 근무의 법적 성격은 “해외파견”이 아닌 “해외 출장”으로 보아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심사결정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고인은 △△△△에서 연구 개발직으로 근무 중 2021. 4. 1.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후 증세가 악화하여 2021. 4. 19.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로 기록되어 있다.

2)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로관계

- 입사 일자: 2011. 7. 1. ((주)○○○○화학 배터리·전지 사업 분야)
 - 2020. 12. 1. (주)○○○○으로 분사
- 담당업무: 전지 개발 연구원
- 해외파견 내역
 - 파견지: ◇◇◇ (주)○○○○ 유럽 거점 생산법인)

- 파견 기간: 2018. 5. 1.~2022. 6. 30. (출국일 2018. 5. 6.)

□ 현지사업장 개요(보험가입자 제출 자료)

- 사업장명: △△△△
- 상시 근로자 수: 4,264명 (2021년 4월 말 기준)
 - 주재원 274명, 현지 채용 3,990명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특례 가입 이력 없음

□ 재해근로자의 ◇◇◇ 해외법인 담당 업무 등

- ◇◇◇ 해외법인 부임 경위
 - ◇◇◇ 현지법인의 배터리 연구개발, 생산 안정화 및 현지인 육성 등을 위해 해외 주재원 신분으로 파견
- 근무 형태: 주5일(총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휴무일: ◇◇◇ 법정 공휴일 적용

3)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이 사건 사업장과 재해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로계약 등

- 국내 본사에 2011. 7. 1. 고용되어 본사 직원으로 근무 중,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정해진 기간동안 현지에서 현지법상 적절한 형태로 근무 후, 한국 본사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음
- ◇◇◇ 해외법인인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음

□ 재해근로자의 해외근무 기간 임금지급 내역 등

- ◇◇◇ 해외법인 근무 시 재해근로자의 급여 지급내용 및 지급 주체
 - 파견기간 동안 현지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 근무를 수행, 급여/복리후생 또한 현지법인에서 지급됨

- 단, 파견 후 현지 Work Permit 취득(2018. 12월) 전(前) 기간(2018. 5월~2018. 11월)은 본사에서 급여 지급하였음

○ ◇◇◇◇ 현지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이유

- ◇◇◇◇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발생한 인건비는 현지 법규/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현지법인 손익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임
- 주재원의 급여 산정은 한국 본사의 기준을 따르되, 현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주재원은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음

○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달인 2021년 4월 급여는 재해근로자의 ◇◇◇◇ 현지 예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유족이 출금하기 곤란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유족의 동의를 거쳐 부득이 국내에 있는 유족의 예금계좌로 대신 지급

○ 재해근로자 해외법인 근무 기간(2018. 5. 1.~2021. 4. 18.) 임금 지급 현황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및 사업장 확인)

| 기간 | 급여지급 주체 | 비고 |
|--------------------------|---------|--|
| 2018. 5.~2018. 11. | 국내 본사 | ◇◇◇◇ Work Permit 취득(2018.12월) 전(前) 기간 |
| 2018. 12.~2021. 3. | 해외 법인 | ◇◇◇◇ 장기거주와 근로를 위한 현지 법규 준수 등 |
| 2021. 4. 1.~2021. 4. 18. | 국내 본사 | 재해근로자 사망으로 현지계좌 입금시 유족 출금 곤란 등의 상황 고려 국내법인에서 대신 지급 |
| 퇴직금 | 국내 본사 | 해외근무기간 포함 |

○ 퇴직금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기준 지침 전파』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다고 해도 그 성질상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점, 해외근무자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이런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시에도 퇴직 이후 발생 되는 퇴직금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아울러 국내 본사가 연봉 책정기준을 설정하고 해외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해외근무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당시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국내 본사의 정책 일환으로 보이고(사업주 의견서 참조), 이러한 국내 본사의 행위가 해외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내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업무보고(지시) 체계

- 해외주재원의 업무 지휘감독/업무 평가권은 현지법인 상사가 보유함
- 업무 점검 및 조율은 1차 상사(직책: 팀장)와 같이 진행하며 업무관련 정기 또는 수시보고를 받는 사용자는 1차 상사임
- 해외법인 고용계약서 제7조는 고용인(근로자)은 고용주(사업주, 해외법인장)에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마다 고용주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질병에 걸린 경우 고용주에게 병가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음
- 배터리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 현안 사항 또는 이슈들에 대한 보고 체계: 재해 근로자→팀장→담당→법인장→ 한국본사 자동차전지사업부

□ 취업규칙 결정 및 시행

- 재해근로자의 출장, 휴가 등 근태 승인은 ◇◇◇ 법인에서 진행하며, 승인은 현지 팀장의 승인을 받음. 공휴일도 현지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하며, 출장 규정도 현지 법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함
- ○○○○(국내본사)은 '해외주재원 복리후생 지원기준'을 정하여 이를 ◇◇◇를 비롯한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에 근무하는 모든 해외주재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음
- '해외주재원 복리후생 지원기준'에서는 주택지원, 자녀교육지원, 차량지원, 전임여비, 의료지원, 휴가(본국휴가, 경조휴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인사관리

- ◇◇◇ 현지 사업장에서 근무지, 부서 이동은 현지법인에서 의사결정·시행함
- 해외법인 내 팀 단위 조직개편은 해외법인장의 의사결정으로 진행되며, 해외법인의 담당 이상(법인장 포함)은 해외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본사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함
- 해외주재원의 국내 복귀 여부는 국내 본사가 해외법인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본사가 결정
- 해외주재원 불법행위 시 해외법인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진술서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실시하고 징계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 필요시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내림

- 해외주재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그 주재원이 속한 사업부(한국 본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되, 중한 사안이 아닌 경우 그 주재원이 속한 해외법인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해외주재원의 국내 복귀 여부는 해외법인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본사에서 결정

4)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국내 본사는 주식회사○○○○화학의 배터리·전지사업 분야에서 분사되어 2020. 12. 1. 신설법인으로 출범하였고, 6개의 국내 사업장과 이 사건 해외법인을 포함한 8개의 해외사업장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국내 본사는 2021. 1. 4. “○○○○계열” 기업 집단에 편입되었고, 2020년 제1기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국내 본사는 모회사인 주식회사○○○○화학을 통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이 사건 해외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5)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018. 8. 14. 〉

□ 검토 배경

-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 명확화

□ 관련 법령

-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해외파견자를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로 규정

□ 판단 기준

- ❖ (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숙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 지휘·명령 주체 판단기준에 따라, “지휘·명령 주체 해외 사용자 ⇒ 파견”, “지휘·명령 주체 국내 사용자 ⇒ 출장”으로 판단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 *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
(문서 보고, 구두 보고 등 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

-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 판례 입장 >

- ❖ 국내본사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던 중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공장장에서 생산 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국내에서 파견된 총경리를 통하거나 전 화로 직접 국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파견된 근로자들이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국내근무를 명하는 등의 인사관리를 한 점 등 근무의 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 사업장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대법 98두18503)
- ❖ 국내본사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대법 2010두23705)

6) 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기준 지침, 2018. 8. 29. 〉

주요 내용

-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자로서,
 -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일 경우 해외 파견, 국내 사용자일 경우 해외 출장으로 판단
 - 지휘·명령 주체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지시」 주체로 먼저 판단하되, 결정이 어려울 경우 「② 취업 규칙」 및 「③ 인사 관리」 주체를 순차 검토하여 결정
- ※ 결정 예시
 - ▶ 「① 업무지시」기준으로 판단 가능할 경우 즉시 결정
 - ▶ 「① 업무지시」기준으로 판단 불가능할 경우 「② 취업규칙」기준으로 결정
 - ▶ 「① 업무지시 및 ② 취업규칙」기준 모두 판단 불가능할 경우 「③ 인사관리」기준으로 최종 결정

7)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산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13724(대법원 2017다204087 파기환송심)

○ 인정 사실(일부 발췌)

가. I 기업집단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G 및 피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출자에 의하여 중국 대련지역에 중국 현지법인인 Q유한공사, O 유한공사, H 유한공사 등(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I 기업집단 소속 위 국내 회사들은 중국 또는 홍콩 소재 지주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중국 현지법인을 지배하였다. 중국 현지법인은 위 국내 회사들이 영위하던 상선, 특수선 등 선박 건조 및 선박기자재 제조 등과 같은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 등은 매년 말에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하였다. (중략)

마.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중국 현지법인에 입사신청,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중인 2012년 또는 2013년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한국 원소속사’가 피고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 전산망에 원고들의 국내 소속 표시를 유지하였다. (중략)

사. 피고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 등 국내 소속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원고 B, D도 2013. 6.경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마치고 피고로 복귀하였다.(중략)

○ 준거법의 결정(일부발췌)

가. (중략)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2항은, 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근로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원고들과 중국 현지법인 사이의 연봉계약 등에서 준거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등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들의 중국 현지법인 진출 무렵까지 계속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진출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의 노무제공지가 중국이긴 하나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중국 현지법인에 업무 방법을

전수하는 등 중국 현지법인들을 관리, 감독하여 중국 현지법인들이 피고 등의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사실상 피고 등의 업무와 연속성이 있는 점, ④ 원고들은 피고 등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출되었고, 일정 기간 후에는 피고 등의 다른 근로자들과 교체되어 국내로 복귀될 것을 예정하고 중국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종전과 같이 우리나라 법률로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임금지급의무 발생(일부발체)

가. 관련 법리

(중략) 한편, 우리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근로의 구체적인 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사전적·포괄적인 지시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중략) ⑤ 원고들은 피고 등의 필요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었고,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설립단계에 있던 중국 현지법인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업무방법을 전수하는 등 중국 현지법인들을 관리, 감독하여 중국 현지법인들이 피고 등의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이 원고들에게 중국 현지법인에의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는 위 파견기간 동안 중국 현지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피고 등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에 의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략)

※ 관련 청구인 주장

재해근로자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국내 본사가 발급한 ‘연봉확인서’에는 국내 근로기준법 및 본사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해근로자와 이 사건 국내 본사가 준거법을 국내 근로기준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국내본사는 재해근로자의 해외근무기간동안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즉 사용자에 해당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일부발취)

Ⅲ.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적용법 판단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 「국제사법」에 따라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준거법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다만, 묵시적 준거법 선택여부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을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판례에서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묵시적 준거법 선택 여부’ 및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에 대한 판단 시
 - 전제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
 - 근무장소 및 국내복귀예정 여부(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경우인지 등),
 - 근로계약 체결 장소,
 - 근로시간 등 노무지휘 및 임금 지급의 주체,
 - 노무 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
 - 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인식 정도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우리나라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 등에 파견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선택하였거나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우리나라로 볼 소지가 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사무소 등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해외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임 (중략)

8) 이 사건 국내 본사의 분사 전 모회사인 주식회사○○○○화학이 재해근로자에게 발령을 명한 사령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령장, 2018. 1. 24., 주식회사○○○○화학〉

- 성명: ○○○
- 발령부서: △△△△
- 발령기간: 2018. 5. 1.~2022. 6. 30.
- 내용
 - 상기 인원을 상기일로부터 신임 근무지 발령을 명함

9)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국내 본사와 해외근무기간 중 체결한 연봉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연봉확인서, 일자미상, (주)○○○○ 〉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님의 연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음-

| 2020년 기본연봉 | 월기본급 | 월상여금 | 명절상여 |
|------------|-----------|-----------|-----------|
| 65,060,000 | 3,253,000 | 1,626,500 | 3,253,000 |

- 기본연봉은 사무직 근로형태의 특성을 감안, 월 고정 O/T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임
- 법률에 규정된 무급휴가 청구시, 「월기본급」의 「일할분(월기본급/근태일수)」를 공제함
- 기타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름
- 상기 연봉은 2019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연봉이며, 해당 연봉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연봉 확인 기간(2020. 3. 23.~2020. 3. 31.) 내 사업본부/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재해근로자의 사망 경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3. 22.: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무실 근무자 코로나 확진
- 2021. 3. 26.: 확진자 발생(3. 22.)인지 및 코로나 검사 실시

- 2021. 3. 27.: 오전 의심 증상(기침, 설사) 발현
20:22 음성 판정
- 2021. 3. 29. 의심증상(기침, 설사) 지속, 정상 근무
- 2021. 3. 30. 의심증상(기침, 설사) 지속, 정상 근무
첫째 자녀 의심 증상 발현
- 2021. 3. 31. 의심증상(기침, 설사) 지속, 휴가
첫째 자녀(만 3세) 의심 증상 지속
- 2021. 4. 1. 의심증상(기침, 설사) 지속, 정상 근무
19:00 청구인 코로나 확진 판정, 첫째 자녀 기침, 둘째 자녀 발열
- 2021. 4. 2. 의심증상 악화(기침, 설사, 근육통, 발열), 휴가
재해근로자 및 자녀 코로나 검사
- 2021. 4. 3. 의심증상 지속(기침, 설사, 근육통, 발열),
07:00 재해근로자, 첫째 자녀 확진 판정, 둘째 자녀 음성
- 2021. 4. 4. 자가격리 1일차, 재해근로자 증상 지속
청구인, 첫째 자녀 회복
- 2021. 4. 5.~4. 9. 자가격리, 증상 악화(발열 39.5℃) 지속
- 2021. 4. 10. 산소포화도 86%→병원 입원 산소투입 착용
- 2021. 4. 11.~4. 17. 증상 악화 지속, 혈장 치료, 폐 CT 촬영
- 2021. 4. 18. 위급상황, 중환자실 있는 병원으로 전원
- 2021. 4. 19. 08:00 사망

11)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지(○○병원-◇◇◇ 소재, 법무법인 ○○ 번역공증 일부 발췌)

○ 치료 장소

- 2021. 4. 10. 15:09~2021. 4. 10. 16:12 입원
- 2021. 4. 10.~2021. 4. 18. 폐질환클리닉

○ 질병 진단 코드: COVID-19, 식별된 바이러스

○ 추가 질병: 급성 호흡부전/ COVID-19로 인한 양측 폐렴/ 발작성 심실상 빈맥

○ 증상(질병 경과 현황, 합병증)

- 폐 질환 이력은 없으나 담낭 절제 이력이 있는 37세의 남성이 SARS-COV-19 감염 과정에서 전신 상태 악화 및 호흡 곤란의 응급 상황으로 COVID 병동에 입원. 결과는 2021. 4. 2. 확인되었음. 진찰 과정 중 환자는 지속적인 기침, 섭씨 38.5℃의 발열, 근육통, 신경쇠약, 식욕감소, 생리색으로 묽은 대변의 증상이 발현됨. (중략) 흉부 촬영에서 양쪽 폐에서 두꺼운 층으로 광범위한 음영이 나타났고 COVID 감염 중 심한 염증 변화가 증가되었음. 폐색전증의 증조는 없었음. 림프절 확대도 시각적으로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음. CT 검사에서 종격동 기관은 정상이었음

□ 의무기록지(○○병원-◇◇◇◇ 소재, 법무법인 ○○ 변역공증 일부 발췌)

○ 입원일자: 2021. 4. 18.

○ 입원유형: 급작스러운 입원-기타사항

○ 퇴원일자: 2021. 4. 19.

○ 퇴원유형: 사망

○ 증상

- 환자는 COVID-19 감염 과정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해 브로추아프에 있는 폐질환 센터에 입원. 입원 당시 환자는 중증, 삼관, 인공호흡기, 순환 보조 카테콜아민 주입 중인 상태였음. 항생제 요법, 글루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항응고제 예방 및 비경구영양법 치료를 진행하였음. 치료 결과 생체 기능이 안정화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호전된 편이었음. 2021. 4. 19.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여 집중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에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로 인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였고, 이후 사망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후 심사청구 시 제출한 보충서면과 동일한 취지의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대리인은 2023. 7. 20.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의견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이 번역공증 후 제출한 ◇◇◇ 소재 ○○병원의 사망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사망확인서(2021. 4. 9. ○○병원) 〉

- 사망일시: 2021. 4. 19.
- 사망 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다) (나)의 원인: COVID19

나. 2022. 8. 19.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은 인정되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원처분기관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서 작성되어 번역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급성 호흡부전 진행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객관적 자료상 재해근로자는 2011. 7.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지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5. 1. 해외 근무 발령을 받고 ◇◇◇에 설립된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재해근로자는 진단 당시 37세의 남성으로서 2021. 3. 22. 같은 사무공간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가 확진된 사실이 있으며, 2021. 3. 26.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021. 3. 27.부터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된 점, 이후 동거가족이 증상 발현(2021. 3. 30.)되었고 동거가족 양성 판정(2021. 4. 1.)을 받아 실시한 재검(2021. 4. 2.)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최초 검사는 무증상·잠복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음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 현지는 1일 약 3만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3차 대유행 시기로 사업장 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점, 그 외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

등 업무 외적인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해외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상병 “코로나19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급성 호흡부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심의의뢰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다.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지휘 관계와 현실적 임금지급주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 법인으로 숙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의 일부가 국내 법인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 지휘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법인과 관계는 해외 파견으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 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가입신청 및 승인 내역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됨.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7. 판단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산재보상 정책과-3071, 2018. 8. 14.)」에 따라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외파견자에 대한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 사용자이면 해외 파견, 국내 사용자이면 해외 출장으로 판단하되, ① 업무지시를 누구로부터 받는지, ② 해외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누가 결정 시행하는지, ③ 해외 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①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①에서 ③까지 차례대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지휘·명령 주체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주체는 국내 본사이고, 이 사건 해외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것은 ◇◇◇ 정부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재해근로자의 해외근무 기간 중 소속 사업장(임금의 지급 주체)은 국내 본사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를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보험법 제121조는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 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비로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 국제법 질서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여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현지 이 사건 해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지 국가의 취업허가증을 받고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전액 지급 받았으며, 업무 지휘·감독 권한이 이 사건 해외법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봉계약서의 준거 기준 제시, 국내 법인에서 퇴직금 지급,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등은 재해근로자의 편의도모 및 파견이 끝나고 국내에 귀국했을 때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재해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보고 및 지시체계, 임금지급 주체, 취업 규칙 결정 및 시행, 인사관리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그 지배 아래 근로를 제공한 ‘해외파견자’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는 국내 사용자와 보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파견자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가입 및 승인 내역이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물·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제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자해**

1. [2022-4219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4. 19.)

사건의 쟁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하였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에서, 식탁 조명 설치에 하자가 발생하여 준공 일정 차질에 대한 불안감 등이 더해져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사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업무용 수첩의 상당 부분이 주식 등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고 재해 20일 전 유서를 대신한 기록에는 업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업무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재해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정신적인 문제로 업무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업무상 일부 스트레스는 오랜 기간 공사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던 재해근로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를 정도의 사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4219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근로자의 배우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1968. 6. 15.)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9.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상선주식회사 건설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0. 6. 15. 부검감정서상 ‘다발성 손상(머리, 가슴, 배 및 골반)’으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1. 4. 21.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 9. 13.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1. 7.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가.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상황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하도급업체 관리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사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과 자재비에 대해 직불 등의 조치를 통해 일부 지원이 있었던 점이 나타나 있고, 녹취록 내용상으로도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특별한 사안은 없었으며, 오히려 업무용 수첩의 상당 부분이 주식 등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재해 20일 전 유서를 대신한 기록에는 업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업무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해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전기통신공사를 담당하는 전기부장으로 임금체불 및 현장소장 교체 등의 문제로 공사에 불성실했던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데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고, 공사 사전점검과 준공을 앞두고 좀처럼 자신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청 업체를 통제하고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공사종료를 앞당기며 공사를 독려했던 본사의 요구에 말 못 하는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위·아래로 끼어서 압박 된 심적 상태였음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일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용 수첩의 상당 부분이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투자의 실패가 사망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나, ○○경찰서의 내사 결과 재해근로자는 하청 업체와의 문제, 회사업무 수행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변 비관하여 투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무적 원인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다. 경찰 조사 시 재해근로자가 투신을 할 만큼 채무가 많지 않았고, 주식투자로 인한 사망으로 불만한 어떠한 여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인 명의로 거래가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나 좌절로 자살을 결행했다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라. 사망 전 재해근로자가 담당했던 공사 현장은 준공을 앞둔 상황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 중 여러 하자가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반복하였고, 특히 종합시스템은 자재비 및 노무비의 지급을 지연하면서 인력, 자재 등이 원활하게 투입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2020. 4. 27.부터 다음날까지 ◇◇ 본사 점검을 앞두고 본사 담당자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았음에도 하도급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재해근로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 2020. 8. 31. 준공을 앞두고 6월에 점검이 있었으나, 난방, 엘리베이터, 조명 공사 등에서 여러 하자가 발견되면서 재해근로자의 스트레스는 최고치에 도달하였는데, 설계와 실제 설치가 잘못되어 재시공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고, 6월 13일 휴일에 쉬던 중 △△ 통신업체 시공 담당자와 언성을 높여 심하게 다투었으며, 다음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황이 다급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에 출근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15일 업체와 미팅을 앞둔 상황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머무르던 숙소에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5월 25일 업무용 수첩 한편에 유서를 대신하여 짧은 메모로 자살을 결행하기 전 심정을 적고 자살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일같이 작성하는 업무일지에 자살과 관련한 메모를 남긴 것은 재해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업무 외적인 사적 사유로 자살을 결행하려 했다면 다른 노트에 자신을 심적 상황을 기술하였을 것이다.

사. 사망 전날이 일요일인데도 변경공사의 진행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설비 인입 공사를 위하여 출근하였으나,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공사에 협조가 지지부진한 하청 업체를 설득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심각한 좌절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것으로, 이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을 무너뜨리고 다음 날 출근할 시간에 현장 회사 숙소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가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마땅히 취소됨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2020. 6. 15. 06:50경 숙소인 ○○○○○ 앞 화단에서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 확인된다.

나.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5. 7. 1. 입사하여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근로 내용과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내용

- 근무일 및 근무형태: 상용직, 고정주간
- 근무시간: 07:00~17:00
- 근무 장소: ◇◇ 신축공사 현장
- 담당업무: 건설 현장 전기공사 관리 감독(전기통신설비 하도급업체 등 시공관리)

2) 근무이력

- 2015. 7. 1.~2020. 6. 15. ○○○중공업(주) 건설부문, 건설 현장 전기공사 관리 감독
- 2013. 5. 20.~2015. 7. 1. (주)○○○중공업 건설부문
- 2012. 7. 2.~2013. 5. 1. (주)○○○중공업 건설부문

다.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2020. 8. 21. ○○경찰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변사자가 거주하던 방에 입장하여 확인한바, 동 소 내부는 비교적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다통의 흔적 등 특이정황은 관찰되지 않았다.
- 변사자의 사체를 확인한바, 추락으로 인하여 두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확인되나 그 외 격투흔, 방어흔 등 타살과 관련된 상흔은 관찰되지 않았다.
- 변사자의 업무일지와 일기장을 확인한바, 평소 회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본 건 기록에 첨부하였다.
- 변사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바,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확인되며, 해당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본 건 기록에 첨부하였다.
- 유족과 회사 동료들을 조사한바, 변사자가 업무상 하청 업체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변사자의 사체를 부검한바, 변사자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되고,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 확인되지 않았고, 약독물 검사에서도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변사자는 회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변 비관하여 투신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 변사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 건 내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라.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1차 주장

-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주요 업무가 하도급사 시공관리였는데, 전기공사 하수급 업체인 (주)○○시스템의 경우 2018년도 공사 시작부터 노임을 미지급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인력과 자재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음. 이에 재해근로자는 (주)○○시스템의 김○○ 현장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현장소장 교체를 요구하여 2020년 초에 이○○ 소장으로 변경되었으나 공사 진행 중 현장소장이 바뀐 것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주)○○시스템이 2020년 4월 ○○○○이엔씨에 거래대금 2억원 지급 지연으로 현장에 자재가 납품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 아울러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는 2020. 8. 31. 준공 전 2020. 4. 27.~28. ◇◇ 본사 점검과 2020. 6. 6.~7. 입주자 사전점검, 2020. 6. 9. ○○○도 품질 점검을 앞두고 난방, 엘리베이터, 조명 등의 시공에서 여러 하자가 확인되어 본사 (정○○ 차장 등)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하게 되나 하도급업체들의 공정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극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식탁 조명이 모델하우스의 배치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실상 멘붕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고, 최종 근무일인 2020. 6. 13.(토)에 통신업체 △△ 시공 담당자와 업무상으로 전화로 다투었고 급기야 △△ 담당자가 '삼자대면하자' 라고 하여 이에 재해근로자도 '삼자대면하자'라고 맞대응하며 전화 통화는 마무리되었으나 그 다음주 첫 출근일인 2020. 6. 15.(월) 아침에 숙소인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됨
- 결론적으로, 재해근로자는 현장 시공관리 업무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재해근로자가 2020. 5. 26.자 업무용 수첩에 '모든 것을 내 탓이다. 장례는 필요 없다. 화장해서 따뜻한 곳에, 여보 미안해. 모든 것은 나의 업보이다. 누구를 원망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적어놓은 것은 201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 본사 점검과 입주자 사전점검을 대비하면서 재해근로자는 극도의 심적 압박감에 시달렸고 사실상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2020. 5월 말경에는 사실상 삶에 대한 의지마저 체념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을

앞두고 준공 일정 차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중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 2차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

-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추락(자살) 전 3주 전인 2020. 5. 23.경 현장에서 근무 중 우측 발 접질림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바쁜 현장 공사로 인해 마음 편히 적절한 치료(집스)를 받지 못하였음
- 재해근로자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 문자, 업무용 수첩(2018. 11. 16.~2020. 6. 13.)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보험가입자가 정해놓은 공사 일정에 따라 하도급업체 시공 독촉 등 본사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관리상 어려움이었음.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불승인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함
- (주)○○시스템의 김○○ 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재해근로자가 (주)○○시스템에 현장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주)○○시스템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무리하게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 교체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었음.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주)○○시스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우수하게 시공을 하였다고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
- 청구인의 주장은 공사 개시부터 재해근로자의 사망 시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시스템 등 하도급업체의 시공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 사망 이후에 결과를 기준으로 '아주 우수한 품질로 준공을 마무리'하였다고 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가입자가 공정 확인서를 근거로 계획 대비 실적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 없었던 현장, 매월 월간 공사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 현장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재해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보험가입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 당시 (주)○○시스템 등의 하도급업체 시공 지연과 불량 등의 문제가 이어졌으나 보험가입자가 현장 공사 진행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본사 점검 등을 이유로 준공일 보다 준공 시점을 약 4개월이나 앞서서 공사시공을 완료하라고 한 것은 각종 점검

일정 자체가 다분히 보험가입자의 편의적이었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재해근로자는 샌드위치 신세로 하도급업체들의 시공을 무리하게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라 할 것임

-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어려움이 일상적인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① (주)○○시스템 소속 현장 작업자들이 노임체불 때문에 보험가입자(◇◇ 사무실)까지 항의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인 공사 진행으로 볼 수 있는지?, ② 공사 진행 중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이 교체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인지?, ③ 하도급업체에서 거래처인 ○○○○이엔씨에 자재 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 현장에 자재납품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인지?, ④ 공사 진행 중 하도급업체의 거래처에서 자재납품을 거부하여 부득이 원청업체 관리자인 재해근로자가 직접 해당 거래업체에 전화하여 부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인지?, ⑤ 준공예정일은 2020. 8. 31. 인데 입주자 사전 점검, ○○○도 품질점검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준공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빨리 공사시공 완료를 전제로 “시운전” 점검 일자를 잡은 것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일정이 아니라는 것인지?, ⑥ 준공예정일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정산을 빨리해버리자며 현장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것인지?, ⑦ 도면대로 식탁 위 조명이 설치되었으나 모델하우스 안내도 위치와 다르게 시공되었다 하여 전체 세대의 식탁 등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상황이 별일이 아니라는 것인지?, ⑧ 재해근로자 사망 며칠 전인 2020. 6. 13. △△ 직원과 통화 시 시공 문제로 서로 간에 “삼자대면”이라는 말까지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임

-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로 인해 기인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이고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현장 공사업무 수행 중 수개월 간의 통화 녹취록, 업무수첩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재해근로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 준공 전 거듭된 본사 점검 등 보험가입자가 무리하게 정해놓은 일정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본사 관리자 등으로부터 현장 공사 시공관리 업무담당자로서 독촉을 받아야 했고, 재해근로자는 이에 현장 시공업체들을 독려하는 상황이 수개월 간 반복되면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임

-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은 재해근로자의 회사인 보험가입자가 공사 준공일보다 4개월 전에 본사 점검(시운전) 일정을 잡는 등 무리한 일정을 잡은 것이고 이에 더하여 하도급 시공업체들도 이 보험가입자가 정해놓은 공사 일정에 따라가지 못하며 시공 지연, 부실시공이 반복된 것으로 하도급 시공업체 관리자인 재해근로자가 중간에 끼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임

마.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의견

- 재해근로자는 계열사인 ○○○○중공업 소속으로 ○○○○상선(주) 건설부문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재해근로자는 하도급을 준 전기공사를 총괄하고 협력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공정별로 약 4개 사 정도의 하도급업체를 관리하였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오해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으로 재해근로자가 근무한 공사 현장은 준공이 임박한 돌관공사 현장이 아닌 점, 적절한 휴무가 주어진 점, 해당 현장 소속 직원 중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한 직원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자살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해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하도급업체 간의 적절한 인원과 자재 투입을 통해 공동의 목적물인 공동주택의 전기설비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재해근로자가 관리하는 하도급업체 중 경영난으로 인해 급여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주)○○시스템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 당사에서 대금지불 등으로 적절히 대처하여 (주)○○시스템에서 아주 우수한 품질로 전기설비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였음
-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 많은 수가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동 현장의 일부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들은 잠시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되어 현재도 당사 외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계속 시공하고 있음

- 공정 확인서는 감리원 등 외부의 확인을 받는 가장 객관적인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한 근거자료인데, 재해근로자가 근무하던 ○○공도현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된 ‘공정확인서’와 같이 계획 대비 실적이 훨씬 앞서는, 공사의 지연이 전혀 없었던 현장이었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고 빠를 수는 있으나 동 현장의 경우 매월 월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현장이었다는 점은 재해근로자나 본사, 외부 감리원, 금융기관 등이 모두 인정할 부분이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과장된 것임
- 재해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우수한 전기기술자로서 인정받는 좋은 동료였음. ○○공도현장은 대형건설사인 삼성, 현대, GS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현장은 아니지만 ○○○○상선(주) 건설부문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현장 중 하나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결정하였음
- 일반적으로 원수급 업체에서 하수급업체 현장소장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며 쉽지 않은 결정이나 재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자 원수급 업체의 현장소장은 재해근로자를 신뢰하였기에 즉각적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하관계도 매우 좋았음
- 특히 재해근로자는 기계설비 관련 관리감독자인 정○○ 차장, 공무 관리감독자인 전○○ 차장, 건축 관리감독자인 홍○○ 차장 등과 같은 숙소를 쓰며 조·중·석식을 같이 하는 등 가깝게 지냈으며 월 1회 이상의 회식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며, 숙소를 같이 쓰는 동료들과는 저녁 식사 시 막걸리 한 병이나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등 직원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보면 상황에 따라 본사 기전팀장이나 하도급업체 소장 등과 일부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대화들이 있으나 다툼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업무협조 과정으로 판단됨
- 녹취록의 내용들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업무협의 등이 주된 내용이며 간간이 볼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욕설 등도 가까운 사이에 오가는 일상적인 대화였음을 알 수 있음. 동료들과 협력업체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건강도 챙기는 등 직원 간 유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내부 직원 간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재해근로자의 원소속 업체인 ○○○○중공업(주) 건설부문과 재해근로자가 파견 근무한 ○○○○상선(주) 건설부문은 회사 측에서 확인 가능한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통화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과 달리 업무로 인한 특이한 스트레스 요인을 찾기는 어려웠음. 다만,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

2) 2차 의견(청구인의 추가 주장 관련)

-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준공 전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이 제기된 건은 전혀 없었음. 건설업 특성상 협력업체의 시공문제점에 대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본인의 엄청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재해근로자의 특별한 과실도 없었기에 그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기공사 관련 전문 협력업체들과 하도급 계약 시 작업의 상당량을 분리하여 현장을 관리하였으며 하수급업체에서 미지불하는 금액은 근로자나 자재업체에 직불하는 등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 구성원 모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음
- 하청업체와 갈등 관계가 형성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하청 업체의 부도이지만 당 현장은 하청 업체의 부도가 없었으며 그와 유사한 심각한 상황까지는 진행되지도 않았기에 비교적 관리가 수월했던 현장이었다고 판단됨
- 재해근로자는 ○○공도현장 이전에는 ○○○2차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맡은 업무도 ○○공도현장과 동일한 업무였으므로 업무변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었으며, ○○○2차현장의 현장소장도 ○○공도현장과 동일한 최○○ 소장이었고 숙소를 함께 사용한 공무 전○○ 차장, 관리 권○○ 차장 등도 함께 근무하였었기에 새로운 인원으로 인한 현장 적응의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2차현장과 ○○공도현장 간 업무 강도에도 큰 차이가 없었음. 굳이 비교한다면 ○○공도현장이 ○○○2차현장 보다 공사 진행이 조금 더 빨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의 업무 강도는 비교적 낮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2차현장의 경우 김○○ 차장이 퇴사하면서 재해근로자가 뒤늦게 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공도현장 보다 ○○○2차현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재해근로자의 사망 직전 1주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근무 하였고 금요일 18시경 퇴근하여 ○○주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토요일에는 휴무였고 일요일에는 휴무일이었으나 10:30경에 현장 사무실에 출근

하였다가 15시경에 퇴근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동료들의 기억도 명확치 않아 경찰 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재해근로자의 성격은 다소 내성적인 편이라 할 수 있음. 말수는 많지 않았으나 술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회식 외에 특별한 모임을 갖지는 않았음.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는 외향적인 성향도 엿볼 수 있는데, 본사 정○○ 팀장과 수시로 연락하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설명하고 정○○팀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정○○팀장으로 하여금 직접 협력업체에 연락을 취하게 한 점은 그런 적극적인 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임
- 하도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씨엠에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부탁한다거나 오해는 있었지만, 외부 협력사인 △△ 담당자에게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맺고 끊음은 확실했다고 판단됨. 후배와의 통화에서도 편하게 육두문자도 사용하고 본인이 느끼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털어놓기도 하였으며 현장 소장에게도 각종 보고와 업무협의 등도 매주 1~2회 이상 수시로 하는 등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 외적 요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진술 내용

- 청구인과 문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해근로자가 가정의 경제적인 실권을 쥐고 가정의 중요한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재해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모두 재해근로자가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관리하는 현금 수천만원 정도로 주식투자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함. 다만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밝은 셋째 시아주버님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함.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계좌 잔고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날인 2020. 6. 15.을 기준으로 ○○○○증권에는 ○○비 등 국내 주식 5종과 해외주식 1종의 평가액이 각각 473,082,070원과 645,772원인 1개의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증권에는 국내 주식 1종의 평가액이 3,828,000원인 1개 계좌, ○○○○○○증권에도 국내 주식 2종의 평가액이 2,955,915원인 계좌 1개, 국내 주식 2종의 평가액이

5,695,500원인 계좌 2개를 보유하고 있었음. 또한 ○○○증권에도 국내 주식 1종의 평가액 4,990,000원인 계좌가 있어 사망 당일 기준으로 재해근로자가 보유한 증권계좌의 잔고 총액은 491,035,572원(예수금 제외)이었음

-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등 다른 자산에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함
- 청구인은 사망 당시 재해근로자와 함께 살던 주택(아파트)은 본인(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주택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시 재해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는 ○○은행에서 2015. 8. 28. 재해근로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인 2020. 7. 22.로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함
- 재해근로자는 평소 조기 퇴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으나 건설 현장에서 재해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너무 힘들고 특히 사망 직전 현장에서 근무 중 다리를 다치고도 병가를 내고 편히 요양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 딱하여 청구인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에게 ○○공도현장 일이 잘 마무리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함
- 재해근로자가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오면 청구인과 대화하면서 근무하던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였는데, 주로 하청업체에서 당초 납품받기로 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현장 작업자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하도급업체 인건비 등 약 11,857,400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서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다고 함. 또한 현장 사무실에서 나이나 서열로 보면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9~10번째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직장 생활이 생지옥 같다는 말도 하였다고 함
-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성격이 호탕하지 않고 꼼꼼하고 예민하며 책임감도 강한 편이나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 하고 사람을 잘 믿고 배려하거나 존중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고 함
- 재해근로자는 사망 약 4~5개월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하여 청구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보자고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함
-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재해근로자의 유품을 확인해보았으나 ○○공도현장 이전에 근무하던 현장에서 사용한 업무일지는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함

2) 업무용 수첩 발췌

- 재해근로자는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2020. 5. 25.자 업무용 수첩의 한켠에 유서를 대신하여 ‘1) 모든 것은 내 탓이다 2) 장례는 필요 없다 3) 화장해서 따뜻한 곳에 4) 여보 미안해 5) 모든 것은 나의 업보이다. 6) 누구를 원망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적고 있어 자살을 결행하기 전 심정을 적고 있으나 자살의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용 수첩 4권에는 재해근로자의 근무하던 ○○공단현장에서의 업무추진 일정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업무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평소 재해근로자의 성격이나 주식투자, 가족, 정년, 음주 습관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 가감 없이 기재되어 있어 재해근로자가 자살을 결행하게 된 심리 상태를 상당한 정도로 엿볼 수 있음
- (2019. 12. 24.)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사는 게 아슬합니다. 쓸어라(?) 살다보니 얻는 것 잃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살아 살아’ (2020. 3. 6.)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묵묵히 이 인생길을 걸어간다. 매일같이 나의 나이를 53, 54 세아 린다. 너무 인생의 고민이 많다. 근심을 없애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적고 있으며, (2020. 3. 18.) ‘가자가자 저 언덕 넘어 세계로 가자 / 가자가자 저 언덕 넘어 피안의 세계로 가자’라고 적고 있어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주식투자 손실, 우울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수개월 전부터 퇴직과 자살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짐작케 함

사. 재해 당일 구급활동일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일시: 2020. 6. 15. 06:50
- 구급대원 평가소견: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로 유연 시도한바 연결되지 않음. 보호복 착용. 현장 선착하여 확인한바 환자 의식(-), 맥박(-), 호흡(-), 환자 몸이 진흙에 반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EKG 확인한바, 무수축 확인됨. 비전 2급차 후착하여 LBB 고정 후 구급차로 이송. 주변 열려있는 창문 없으며, 옥상(18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환자 오른쪽 가슴 부분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상처 확인되며, 다수의 갈비뼈 골절, 후부두 출혈, 턱관절 강직 확인됨. 의사 김○○에게 CPR과 l-gel 삽입 후 실패 시 BVM으로 O2 투여하며 이송하라는 의료 지도받아 수행함. 경방요원 비전 2급차 동승하여 CPR 하며 병원 이송함

자. 청구인과 그 대리인은 2023. 4. 19.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재해근로자는 추락 사고 3주 전 공사 현장에서 중 우측 발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바쁜 공사 일정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해 업무부담이 상당하였고, 건설 현장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토로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종료되면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2) 재해근로자는 공사 준공을 앞두고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였고, 업무 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0. 6. 15.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시: 2020. 6. 15. 07:11
- 사망 장소
 - 주소:
 - 장소: 도로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 의도성 여부: 미상

나. 2020. 7.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사자는 주거지(아파트 16층) 화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자로,
- 얼굴, 몸통 일부분 및 양쪽 팔다리 일부에서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 등의 표재성 손상을 보며, 내부적으로 머리뼈, 다수의 갈비뼈, 빗장뼈 및 복장뼈(흉골), 팔다리뼈

- 및 골반뼈의 골절을 보고 여러 내부 장기(양쪽 폐, 간, 비장, 왼쪽 신장, 췌장 등)들의 파열을 보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여러 손상을 보는 점,
-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약독물 검사결과 특이소견을 보지 못하며, 말초혈액을 이용한 검사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인 점,
 - 사건 개요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신체 여러 부위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을 받고, 이들 중 머리, 가슴, 배 및 골반 부위의 손상은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머리, 가슴, 배 및 골반)으로 판단됨

다. 2022. 9. 8.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는 2015. 7. 1. ○○○○중공업(주) 건설부문에 입사하여 건설 현장 전기 공사 관리감독으로 전기통신설비 하도급업체 등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내사결과 보고서상 변사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상황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하도급업체 관리과정에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사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재하청 업체에 대한 임금과 자재비에 대해 직불 등의 조치를 통해 일부 지원이 있었던 점이 나타나 있으며, 녹취록 내용상으로도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특별한 사안은 없었고, 오히려 업무용 수첩의 상당 부분이 주식 등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며, 재해 20일 전 유서를 대신한 기록에는 업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업무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재해근로자의 '자살에 의한 다발성 손상(머리, 가슴 배 및 골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에서, 식탁 조명 설치에 하자가 발생하여 준공 일정 차질에 대한 불안감 등이 더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로 업무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재해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관리에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준공을 앞두고 하자가 발생한 사건은 재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의 사건이기는 하나, 오랜 기간 공사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 온 재해근로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업무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를 정도의 사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으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판단할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2023-2776 기각]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10. 13.)

사건의 쟁점

경영악화 등 업무 관련 문제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투신 자살하였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업무부담과 책임, 납기 지연으로 인한 독촉 과정에서 비롯된 정신적 충격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업무부담 이유가 외부적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사업주의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경영악화 등을 문제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살 전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재해자에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심적 부담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거래처로부터 납품 지연 등과 관련한 폭언이나 인격모독, 압박 등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일반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것과 다르게 재해자는 사업주로서 업무량 등을 미리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재해자가 느꼈을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대다수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776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재해자의 배우자)

재 해 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5. 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 대상 사업주인 재해자의 배우자로서 재해자가 2022. 4. 2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

023. 1. 2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5. 3.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3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가. 재해자의 업무부담의 이유가 타인이나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위치로 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본인에게 있어 업무량의 조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납기 지연과 이로 인한 독촉과정에서 폭언, 경영악화 등을 문제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다. 재해가 자살 전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자는 초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 장기간 가족 외에 직원 없이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수행하면서 과로하였고, 최근 많아진 업무량 및 2022. 4월 까지 ○○와 △△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동시다발적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재해 이전 중개업체의 인력지원에 대한 약속 불이행과 재해 1개월 전 재해자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폭언, 인격모독 등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고,

회사의 경영상황은 납품이 지연되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증가하였다.

다. 2022. 4. 25. 연장된 납품 기일을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이 심해져 죽고 싶다거나 자살 생각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표현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업무수행 중 회사 차고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에 이르렀다.

라. 업무로 인한 우울 증상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업무 외에 개인적 시간이 없을 정도로 회사와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간 70시간 이상 과로 해서 일했고, 지속적 납품 기일 독촉에 대한 압박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재해자의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재해자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재해자의 재해 경위는 “재해자는 (주)○○○○ 대표로 납품업체의 약속 불이행, 폭언, 인격모독 등 정신적 충격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악화하였고, 2022. 4. 25. 연장된 납품 기일이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하였으며, 재해 당일 쉬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중 회사 차고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자살함”으로 확인된다.

2) 재해자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로 재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현황 및 담당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성립일: 2018. 7. 17.
- 소멸일: 2022. 8. 23.
- 근로자: 별도의 근로자 채용 없이 배우자, 여동생과 사업 운영

○ 담당업무 등

- 담당업무: 연구소 실험장비 제조업체의 대표 / 상담, 계약, 자재구매, 제작, 납품 및 설치 등 경영 전반 관리
-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60분

○ 직업력

- 2002년 8월~2003년 7월 / ○○○○건설 / 건설사무
- 2003년 8월~2015년 2월 / (주)○○○ / 기계기구제조

3) 재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사건 개요: 2022. 4. 23. ○○ ○○구 ○○로 ○○○번길 13, (주)○○○○ 회사창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차량 내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
| 불입건결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 당시 재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창고 내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시트 위에 반쯤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일부 재로 변한 번개탄이 들어 있는 화로, A4용지 7매 분량의 유서, 빈 소주병 3개 등도 함께 발견됨 ○ 현장 및 시체 상황, 차량 블랙박스 자료, 검시관의 검시 결과, 검안의사의 소견, 유족(처, 여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는 최근 많아진 업무량 및 거래처 독촉 전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자신의 회사창고 내 차량에서 준비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 인정되지 않음 |

| 구분 | 내용 |
|----------|---|
| 내사 결과 보고 | <p>○ 부인 진술</p> <p>- “최근에 회사에서 발주받아 납품해야 하는데 일이 진행이 늦어져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일용직 사람들을 불러서 열심히 일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맨날 독촉 전화에 시달리곤 했는데 매일 같은 일상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게 쌓이고 쌓여 많이 힘들었나 봐요. 회사 재정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세 명이 일하다 보니 납품일보다 일정이 미뤄져 독촉 전화를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남편과는 잘 다투지 않았고 이전에 자살 시도한 전력은 전혀 없어요.”</p> <p>○ 여동생 진술</p> <p>- “최근 들어 회사 일이 많아지면서 오빠가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오빠가 책임감이 많은 사람인데 주문이 많이 밀리기도 하고, 생산 독촉도 많이 받았습시다. 그러면서 저와 새언니도 오빠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습시다. 그 외에는 이상한 부분은 없었습시다. 오빠가 회사 일 말고 다른 문제로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 거의 1년 동안 집을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재작년에는 회사가 많이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었습시다. 오빠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에 말을 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가족들과 특별히 안 좋은 점은 없었고 새언니랑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빠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거래처 사람들 외에는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저와 새언니는 회사에서 조립만 하고 전반적인 회사 일은 오빠가 혼자 책임을 지거든요. 그 부분이 부담이 컸던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p> |

4) 청구인이 작성하여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재해경위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p>○ 재해 발생 경위</p> <p>- 재해자는 (주)○○○○의 유일한 개발자이자 사업주로 근무하던 자로, 불규칙한 매출 등으로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업무를 거의 혼자 수행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와 휴식 없이 과로하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 업체의 납기일이 물리고, 발주처와 딜러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호소하던 중 납품업체 사장의</p> |
|---|

폭언, 인격모독, 압박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스스로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 되자 자살하였습니다.

○ 업무 관련성

- 재해자는 (주)○○○○에서 개발자이자 사업주로 장기간 직원 없이 설계, 주문접수, 구매와 생산, A/S 등 개발부터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수행하면서 과로하였고, 최근 많아진 업무량 및 거래처의 독촉으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우울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진료받을 기회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 재해 이전 납품업체의 약속 불이행, 폭언, 인격모독 등 정신적 충격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악화하였고, 4월 25일 연장된 납품 기일이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져서 죽고 싶다거나 자살에 관한 생각을 표현 하였으며, 재해 당일에도 쉬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차고에서 연탄가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업무로 인한 우울 증상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업무 외에 개인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없을 정도로 회사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간 70시간 이상 과로해서 일했고, 지속적인 납품 기일 독촉에 대한 압박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인이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재해자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 난 이제 간다. 저멀리.. 왜 가냐고? 더 이상 여보랑 애들한테 미안해서 못살겠어. 내가 사라지면 다 좋아질 것 같아. 항상 문제의 원인은 나였으니까! (중략) 여보. 잘 지내!

○ 아들

- (중략) 겐 넘 많이 하지 말고, ○○이가 미래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빨리 찾기를 바래. 아빠가 하지 못한 그거. 사랑해 아들

○ 딸

- (중략) 우리 딸 열심히 공부해서 평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수학 어려우면 포기 해도 돼. 수학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딸은 이쁘니까 괜찮아. 사랑해

○ 부모

- (중략) 불효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여동생

- (중략) 고맙다. △△아. 다음 생엔 니 오빠가 절대 되지 않을게

6) 원처분기관의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에 대한 공단본부의 자문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 회신서 〉

경찰 조사자료에서 언급된 유족의 진술 자료 확보하여 진술 내용 중 업무량과 거래처 독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개인적 요인 여부 확인한 후 판정위에 의뢰 바람

7) 재해자의 업무부담과 관련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여부

- 재해자의 업무시간(출퇴근시간)에 대하여 cctv, 무인경비장치가 없어 시간산정 불가
- 청구인은 재해경위서에 계약(납품)업체로부터 독촉, 폭언, 인격모독,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나, 조사자의 조사과정에서 재해자의 핸드폰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동영상, 사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런 자료는 없다는 의견임

○ 스트레스 관련

-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심각도: 재해자는 (주)○○○○에서 개발자이자 사업주로 장기간 직원 없이 설계, 주문접수, 구매와 생산, A/S 등 개발부터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수행하면서 과로하였고, 최근 많아진 업무량 및 거래처의 독촉으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음
-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시간(출·퇴근시간)에 대하여 cctv, 무인경비장치가 없어 시간 산정 불가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2020년까지 적자였으나, 2021년부터 주문량이 많아 흑자로 전환되었고 납품 물량이 많아짐
- 민원·고객과의 갈등: 청구인은 재해경위서에 계약(납품)업체로부터 독촉, 폭언, 인격 모독,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재해자의 핸드폰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동영상, 사진 자료 없음

8) 재해자의 채무 현황 등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원 파산 결정문 (2022. 7. 22.)

[인정사실]

- 재해자(이하 '채무자'로 칭함)는 2015. 9. 4.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산업용 시험기기 제조업을 영위해왔다.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사내이사 △△△(여동생)이 5,000주, 고인 및 ◇◇◇(부인)가 각 27,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상태가 좋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어 왔었고, 2021년에 흑자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회사를 경영하던 대표이사인 고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추가로 회사 운영자금도 마련할 수 없어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 채무자의 2021. 12. 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1,062,385,399원, 부채총액은 992,602,73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산 중 재고자산(715,325,000원)은 대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이미 사용되어 존재하지 않아 현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 채무자는 2022. 6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다.

[판단 및 결론]

-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와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상 당기순이익 분석

(2015년) - 33,784,567원
 (2016년) + 14,910,239원
 (2017년) + 15,604,982원
 (2018년) - 155,857,372원
 (2019년) - 75,181,198원
 (2020년) - 94,881,341원
 (2021년) + 338,971,926원

다) 사망 직전 은행 거래내역 (2022. 4. 21.)

- 법인 명의로 A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B은행에 3억원 대출금 상환

라) 사망 전 발주처와의 주된 계약 및 납품 현황

[(주)△△]

- 계약일: 2021. 7. 14.
- 계약금액: 382,500,000원
- 계약 물품: 온도제어 장비 12대
- 납품일: 2021. 12월 --> 납품하지 못함

[(주)○○엔지니어링]

- 계약일: (1차) 2021. 9. 10. / (2차) 2021. 10. 26.
- 계약금액: (1차) 14,916,000원 / (2차) 110,000,000원
- 납품일: (1차) 2021. 10. 28. 납품완료 / (2차) 2021. 12. 15.--> 납품하지 못함

[(주)○○]

- 계약일: 2022. 2. 3.
- 계약금액: 1,709,600,000원
- 계약물품: ○○○솔루션 장비 82대
- 납품일: 10대는 2022. 4. 25.까지 나머지 72대는 2022. 6. 30.

마) 재해자(개인) 상속재산 내역

- 부동산: 거주 아파트 (전용면적 64.428㎡)
- 자동차: 2020년식 자가용
- 예금 : 6,024,683원
- 보험 해지환급금: 14,617,071원
- 카드사 및 은행 채무금: 89,071,616원
- 법인의 부채는 약 6~7억원

바) 은행 및 카드 사용내역서 상 특이 거래 내역: 개인적인 채권 채무, 도박, 주식거래 등 특이사항 없음

- 사)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성격: 부인이 고인에게 “일이 많은데 또 주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등 잔소리는 하였으나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큰 문제는 없었고, 내성적이며 조용한 성격
- 아) 음주 및 흡연: 음주는 매일 소주 1-1.5병, 흡연은 하루 2갑
- 자) 2019년~2021년 건강강검진 결과: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간기능 이상 의심
- 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특이 질병 및 정신과 진료 이력: 없음

나. 청구인은 2023. 1. 10. 법원행정처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재해자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재해자의 정신적인 부담과 과로 사실에 대한 동료 및 거래처 대표 등 5인의 진술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6. 의학적 소견’에서 후술한다.

라. 청구인과 재해자의 부모는 2023. 10. 13.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2022. 4. 23.자 ○○의원 시체검안서에 기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시: 2022. 4. 23. 16:20경 추정
- 사망 장소: 기타(차 안)
- 사망의 종류: 외인사
- 사망 원인: (가) 직접사인: 일산화 탄소가스 중독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됨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업무부담과 책임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판단력 저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어 업무 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재해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① 재해자의 업무 부담의 이유가 타인이나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위치로 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본인에게 있어 업무량의 조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② 납기 지연과 이로 인한 독촉과정에서 폭언, 경영악화 등을 문제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불만만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③ 재해자가 자살 전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아,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상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3. 8. 1.자 ○○병원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자는 재해 발생 전 정신 질병으로 진단받지는 못하였으나, 재해 발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재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업무부담 및 경영상의 압박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그러던 중 재해 발생 약 1개월 전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게 되어, 업무 관련 충격(외상)을 경험하였다.
- 문헌 고찰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부담 및 직장 내 폭언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정신과적 질환(우울장애, 불안장애)과 자살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 결론적으로, 본 재해는 장기간 과로와 경영상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해자의 사망 재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소견서는 청구인이 제공한 업무 내용기록, 의무기록 사본과 진술 및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4조에서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면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해자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업무부담과 책임, 납품 지연과 이로 인한 독촉과정에서 납품업체 사장의 독촉·폭언·인격모독·압박 등의 정신적 충격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재해자 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품 지연 등의 심적 부담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재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납품 지연 등과 관련한 폭언이나 인격모독, 압박 등을 받아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일반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재해자는 사업주로서

업무량 등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재해자가 느꼈을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재해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를 만큼 그 강도가 높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재해자가 재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위 및 사망 당시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재해자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그 외에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5장 소멸시효

[2023-167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6. 14.)

사건의 쟁점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후 행사한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출한 요양신청서가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불승인되었으나 애초부터 원처분 기관이 정확한 조사를 하였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해 원인이 폐냉장고를 옮기던 중 발생하였든 동료와의 다툼으로 발생하였든 간에 업무상 재해이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에 따른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접수된 요양신청은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동료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툼의 상황과 경위 등이 1심 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되고, 그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과 동료와의 다툼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 사건은 동일 재해로 최초요양 신청이 다시 접수된 사건으로,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16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5.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7. 8. 28.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4.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5. 6.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10. 4.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1) 신청 상병은 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료와의 싸움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판단된다.

2) 신청 상병이 2018. 2. 28. 증상고정으로 치료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 급여를 받을 권리가 2018. 2. 2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1)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도발하여 다툼이 유발된 것으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따른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이미 소송을 통해 기각으로 확정된 상태로 동 소송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재해로 최초요양 신청이 다시 접수된 이 사건은 신청 상병에 대하여 2018. 2. 28. 치료 종결하였고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 최초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 경위를 폐냉장고를 옮기는 중 발생하였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착오이며,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요양 신청에 대해서 사실 진부(眞否)를 조사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처분기관의 사실조사 행위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7. 9. 12. 최초요양 조사 시 원처분기관의 문답에 남○○과 업무상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다툼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였음에도 원처분기관은 조사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청구인의 잘못으로 전가하였다.

다. 원처분기관은 자신의 조사가 미숙했음을 반성하고 재해의 원인을 변경하는 처분을 스스로 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그 처분을 변경하는 권한도 갖고 있음이 행정쟁송법의 근본정신이다.

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도발하여 다툼이 유발된 것으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따른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을 과도하게 자극했다, 직무의 범위, 통상의 위험, 위험의 현실화 등 비법률적이고 기상천외한 이유를 붙였고, 다툼은 항상 쌍방의 상대적 반응으로 발생함에도 남○○의 행위를 두둔하고 청구인을 더 비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사원 간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다툼도 산재 사건이 된다”라는 법리를 뒤늦게 알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처분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불승인하였는데, 애초부터 원처분기관이 정확한 조사를 하였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해 원인이 폐냉장고를 옮기던 중 발생하였던 동료와의 다툼으로 발생했든 간에 업무상 재해이므로 청구인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가. 심사결정서,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22. 4. 22.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2017. 8. 28. 18:20 슈퍼 폐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이 폐냉장고를 같이 옮기자고 했더니, 농산물 담당이 공산품 담당(본인)에게 자기는 농산물 담당이니까 안 할 것 같은 뜻으로 얘기해서(공산품 담당이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폐냉장고를 모두 옮기고 나서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동료에게 따지러 갔다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신청 이전 2017. 9. 12. 사업장에 폐냉장고를 동료 직원들과 옮기던 중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이 되었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9. 12.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 재해 경위: 2017. 8. 28. 16:20 슈퍼마켓에 냉장고 8대가 배달되어서 새 냉장고를 슈퍼 안으로 들여놓기 위하여 슈퍼 직원들과 손으로 들어 옮기던 중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이 전기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비를 맞으며 계속해서 폐냉장고를 뒤쪽 주차장으로 옮기던 중 두 번째 전기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다음날 의사 진단 후 골절 확인
- 2017. 9. 26. 업무상 재해로 승인
 - 승인 상병 명: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 승인 요양기간: 2017. 8. 29.~2018. 2. 28.(입원 2일)
 -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치유일 2018. 2. 28.)
 -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내역

| 총계 |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요양종결진료비 |
|-------------|------------|------------|------------|---------|
| 14,835,300원 | 8,352,530원 | 2,033,300원 | 4,435,480원 | 13,990원 |

3)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2. 31.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수급 조사결과 주요 내용 》

- 조사 결과: 기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원처분 자료, 재해자와 보험가입자, 동료 등의 확인 사실, 재해 당일 CCTV 영상, 진료기록 등의 자료와 재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수동적으로 손가락이 펴질 때 돌발되는 장수지 굴근건 부착부의 견연 골절로, 싸우다가 옷을 잡을 때 뿌리침을 당하면서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16:20경 골절이 있는 후 3시간 지난 시점에서 먹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 및 법률 자문 결과(다툼이 업무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번 재해는 당초 2017. 8. 28. 16:20경 동료들과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당일 19시경에 있었던 동료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됨
- 조치할 사항: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취소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원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4)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청구(일부취소), 2020. 6. 12. 》

- 사건명: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2020 심사결정 제○○○호)
- 심사결정: 청구인은 2017. 8. 28. 사업장에서 냉장고를 옮기던 중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을 당하였다는 사고 경위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2018. 2. 28.까지 요양 후 보험급여 14,835,3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제보에 따라 최초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재해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이후 청구인이 동료 직원과 상당한 수위의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되고,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형태를 볼 때, 골절 발생 후 수상 부위의 사용에 분명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동료와 격렬한 다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의학적인 상당인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료와의 다툼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판단되어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이 타당하나, 원처분에서 징수한 금액 중 요양종결 진료비인 13,990원은 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회수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재심사청구(가각), 2020. 11. 24. 》

- 사건명: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2020재결 제○○○○호)
- 재결내용: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7. 8. 28. 15:00~16:00경 냉장고를 옮기다가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인 19:00경에 동료와 좌측 손을 사용하여 싸우는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초진기록(◇◇ 병원, 2017. 9. 12.)상에 청구인이 '넘어져서 좌측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진술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 ○○지방법원 판결, 2021. 10. 15. 》

- 사건명: 2021구단○○○○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판결선고: 2021. 10. 15.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결내용(주요 내용 발췌)
 - 원고의 주장 요지: 최초요양급여 신청한 대로, 냉장고를 옮기다가 이 사건 골절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원고가 2017. 8. 28. 16:20경 냉장고를 옮기다가 이 사건 골절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같은 날 19:00경 동료와의 다툼으로 이 사건 골절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등법원 판결, 2022. 4. 8. 》

- 사건명: 2021누○○○○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판결선고: 2022. 4. 8.
-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결내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2017. 8. 29.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친 경위에 대하여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산재처리하거나 이 사건 골절과 관련하여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되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사에게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산재처리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말한다고 하여 그에 관한 소문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청구인의 재해 경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진술

(1) 청구인 사실확인서(2019. 1. 22.)

- (최초진료기록지상 ‘2017. 8. 28. 넘어지면서 수상’으로 기재 관련) 산재처리 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함. 의사가 넘어진 게 아니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골절인데 라며 머리를 흔들었음
- (재해이후 다음날 병원 내원시까지 특별한 사건·상황 발생 유무) 일체 없었음. 이후 통증이 심했지만 참고 계속 일하다 식사 후 테이핑 작업을 하다보니 손가락이 심하게 아픈 차에 낮에 일할 때 농산물 담당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찾김에 그 직원을 나오라고 했더니, 왜 나가야 되냐고 하길래 몇 번 얘기하다가 멍살을 잡고 데리고 나오다가 계속해서 ××, 왜그러냐고 해서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젊은 애가 나의 왼쪽 얼굴을 가격했고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말려서 끝났음.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특별히 다치거나 무리한 행동은 없었음

(2) 부정수급 조사 시 청구인 유선통화복명서(2019. 10. 1.)

- (재해경위) 공산팀장(공산팀은 3명)과 본인하고 둘이 작업하다 그 때 손이 나간 것 같다. 원지 모르지만 전기가 오듯이 손가락에 찌릿찌릿하게 올림. 냉장고를 들다가 그렇게 밀다가 더 나간 듯. 매장용 냉장고의 양쪽 손잡이가 없어 당기고 밀고 해서 억지로 옮김. L카에 냉장고를 반만 걸쳐서 미는데 엄청 힘들었음
- (다투기 전 낮에 일할 때 농산물 담당이 했던 말) 폐냉장고를 같이 옮기자고 했더니 농산물담당이 “(못 나르겠다고 안하고)공산품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농산품팀인데...”라고 함(따짐)

(3) 부당이득 결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시 청구인 의견서(2019. 11. 26.)

- (재해경위) 손가락 다친 경위는 냉장고를 옮기다가 다쳤고, 차후에 동료와 다툼은 손가락 다친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담당 주치의 소견 첨부

나) 부정수급 조사 시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주, 동료근로자 진술**(1) 보험가입자 사실확인서(이○○, 2019. 3. 20.)**

-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보험가입자란 날인 여부) 요양신청서를 본 사실도 없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 도장은 거래처용 명판으로 상시 사무실 책상 위에 비치함
- (목격자란에 이○○(점장)으로 기재 사실) 처음 보는 내용임
- (재해 당일 작업내용) 16:00부터 1시간가량 남자 직원 5명(본인 포함)이 냉장고 이동작업 수행함. 옛날 쓰던 냉장고 8대를 정문으로 빼내고 새로 배달 온 냉장고 8대를 매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함. 냉장고는 모두 1800×1000 크기, 약 50kg 정도로 하단부에 바퀴 4개가 달려 있어 입구 턱을 넘을 때 살짝 드는 정도의 작업을 수행함
- (CCTV상 다툼)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상대방 직원 남○○은 6개월 정도 근무 하다 퇴사함
- (확인서상 재해 경위 기재 내용 관련) 재해자가 언급한 사실을 적은 것일 뿐임
- (사고 인지 경위 등) 다음 날은 휴무일이었고, 그 날인지 아니면 다음날 출근일 인지 몰라도 청구인 전화로 다쳤다고 경리직원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해 들음. 산재 신청하는지 전혀 몰랐다가 공단에서 실태확인서 써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신청 사실을 알게 됨

- (기타) 요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없고 2018. 12.에 납부고지서가 와서 공단 수원지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재 승인 사실을 알게 됨. 공단에 제출한 CCTV 영상(싸움이 있었다고 하여 혹시 몰라 저장)도 있고 해서 당연히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납부고지서를 보고서야 알게 됨

(2) 보험가입자 추가 확인내용(이○○, 2019. 4. 24.)

- 기존에 있던 냉장고(아이스크림, 생선, 냉동식품 용도: 하단에 바퀴 부착되어 있어 이동 용이) 8대를 정문을 통하여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3인 1조로 수행
- 본인도 이동작업을 같이 하고 마무리한 후 퇴근. 신규로 입고된 냉장고들을 배치하고 나서 기존 냉장고를 다시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음(당시 신○○팀장, 남○○등이 같이 작업)



※ 정문 나갈 때 약간의 경사와 5cm 정도 높이의 턱이 있는 정도

(3) 동료근로자(신○○) 유선 확인 내용(2019. 4. 26.)

- 기존 사용 냉장고 8대를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옮기는 작업 당시 투입 인원은 기억 나지 않고, 본인은 최종 마무리 작업까지 하였으며 재해자도 계속 같이 작업하였음

- 냉장고는 물건을 비운 상태로 50kg 정도, 4대는 옮기는 작업 시 바퀴가 있고 그렇게 무겁지 않아 냉장고당 2~3명이 밀고 나갔으며, 바퀴 없는 나머지 4대는 3명에서 L카를 이용해서 옮기는 작업을 수행
- ※ 재해자와 본인 모두 L카 작업: 냉장고는 턱을 넘을 때 들지 않았고, L카에 들어 올리고 내릴 때만 3명이 작업, 놓치거나 쓸림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음
- 당일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냉장고를 옮기고, 새로 온 냉장고(기존 동일 모델)를 집어넣는 작업까지 수행하였는데, 당시에 재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는 없었음
- 재해자가 다룰 당시 본인은 다른 곳에 있어 보지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으며, 다음날 CCTV를 보고 확인했음

(4) 남○○(다툼 당시 상대방)

- 사고 당일 있었던 오전·오후 근무상황과 19:40경 다툼 정황 등에 대하여 확인
코자 2019. 8. 5. 「업무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수 차례 유선연락(19. 4. 16.~)
및 문자메시지, 마트 점장을 통한 연락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음

6)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요양신청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단본부 질의답변

- 2017. 9. 12. 최초요양신청으로 인해 시효중단이 되었으나 2017. 9. 26. 최초 요양 승인되었고, 이후 2019. 12. 31.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결정처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최종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동일 재해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이 다시 접수된 경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재접수 시점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원처분기관의 판단

- 2018. 1. 30. 자문의사회의 결과 2018. 2. 28. 이후 증세고정으로 치료종결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 장애등급 산정내역 상 치유일이 2018. 2. 28.로 확인되므로 위 답변 내용에 의거 재접수일(2022. 4. 22.)을 기점으로 3년을 역산한 날짜 이전에 치료종결이 되어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됨

7) 심사기관은 이 건 재해와 관련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CTV 주요 내용(1심 판결문)

- 원고가 동료와 싸우는 CCTV 영상을 보면, 원고가 먼저 일하던 동료에게 다가가 싸움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동료의 옷깃을 잡았다가 뿌리침을 당하자 왼손으로 동료의 옷을 잡고 이후 주먹을 휘두르며 격렬히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와 왼손 사용 모습을 보면, 왼손 사용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골절을 입은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상대방의 옷깃을 왼손으로 잡았다가 뿌리침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8. 29. 10:45 ○○정형외과의원

- CC: 어제 수상 - 좌4지 원위지골 전위골절 6주

○ 2017. 8. 29. 15:29 ○○병원(현 ◇◇병원)

- Lt. 4th finnger pain.
T: 2017. 8. 28.
P/V: 넘어지면서 수상
X-ray: distal phalanx base Fx
Imp > Fx. base of distal phalanx. 4th finger. Lt.

○ 2017. 8. 30. ○○병원

- 진단명: S6264 Fx. base of distal phalanx, 4th finger, Lt.
- 수술명: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2 mini-screws

○ 종결 전 치료내역(○○병원)

- 2018. 2. 15.~2018. 2. 28. 파라핀욕

나. 청구인 대리인은 2023. 6. 14.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병원, 2022. 4. 22.) 》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넘어지며 수상함. 좌측 4번째 손가락이 아프다.
- 종합소견: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입원 및 수술(2017. 8. 30.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나사 고정술) 시행하였음.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3개월 이상의 추시 관찰을 요함
- 상병명: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굴곡건 견열 골절)
- 진료계획
 - 입원: 2017. 8. 30.~2017. 8. 31.
 - ※ 수술: 2017. 8. 30.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나사 고정술
 - 통원: 2017. 8. 29. / 2017. 9. 1.~2018. 2. 8.

《 부당이득 징수결정 의견제출 당시 제출한 소견서 (◇◇병원, 2019. 11. 19.) 》

- 상병명: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 향후치료 의견: 상기 환자 2017. 8. 28. 수상 후 좌측 손가락 골절로 수술 시행하였음. 당시 환자 냉장고 들다가 수상하였다고 얘기함. 기저부 견열 골절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과신전 되면서 발생하는 골절이기 때문에 냉장고 들다가 놓치면 이러한 형태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

《 진료계획서상 소견서 (◇◇병원, 2018. 1. 25.) 》

- 진료계획: 2018. 2. 15.~2018. 2. 28. 통원, 물리치료
- 소견: 현재 골절부 유합 호전되고 있으나, 수술 부위 통증 및 운동 범위 감소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청구인의 이전 신청 건의 진료계획서에 대한 2018. 1. 30.자 원처분기관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쟁점사항: 진료계획(2018. 2. 15.~2018. 2. 28. 통원)
- 심의결과: 2018. 2. 28. 이후 증세 고정으로 종결

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부정수급조사 시 자문의 소견 및 법률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 자문 〉

- 자문의사 1: 방사선 소견상 Jersey's fracture임. 장수지 굴근건 부착부의 견연 골절(원위지골 기저부)이 확인됨. 일반적으로 골절 유발 기전이 강한 파악시 수동적(외력)으로 손가락이 펴질 때 돌발되는 골절이므로, CCTV, 병력(의무기록)을 확인하면, 싸우다가 옷을 잡을 때 뿌리침을 당하면서 유발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주로 경쟁적 운동선수, 상대 유니폼을 당기다가 발생하는 드문 골절임)
- 자문의사 2: 2017. 8. 28. 16:20 골절이 있었다면 3시간 지난 시점에서 먹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진기록상 넘어진 것으로 진술되어 있어 병력에 일관성이 없음. 보통 Bony Jersey finger는 손가락 굴곡 중 외력에 의하여 신전 시 발생하는 골절임
- 자문의사 3: 방사선 소견상 Lt. 4th finger Jersey fracture 관찰되며, 이는 신수지 굴곡건의 견열성 골절 양상으로 사료되며, 발생 원인은 강력한 파악이나 수동적 신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때 생길 수 있음. 병력, 환자 진술, CCTV 소견을 보았을 때 골절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통증으로 좌측 수지의 사용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CCTV 상 다툼의 과정 전에 수부 사용 제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다툼의 과정 중 강력한 파악이나 수동적 신전에 의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법률 자문 〉

- 자문 1: 다툼이 업무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자문 2: 재해 부위의 의학적 진단을 살펴보면 작업 중에 물건을 옮기다가 골절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CCTV 화면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해자가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골절을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업무상재해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임

라.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참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17. 8. 28. 18:20경 슈퍼 폐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같이 옮기자고 하였으나 동료 근로자는 농산물 담당이니까 안 할 것 같은 뜻으로 얘기해서 폐냉장고를 모두 옮기고 난 후 그 말이 생각나서 동료 근로자에게 따지러 갔다가 싸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신청 상병명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굴곡건 건열 골절)’ 진단 받고 2022. 4. 22. 최초요양급여신청 하였으나, 제출된 CCTV에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동료 근로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동료 근로자의 옷깃을 잡았다가 뿌리침을 당하자 왼손으로 동료 근로자의 옷을 잡고 이후 주먹을 휘두르며 격렬한 몸싸움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도발하여 다툼이 유발된 것으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따른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이미 소송을 통해 기각으로 확정된 상태로 동 소송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재해로 최초요양 신청이 다시 접수된 이 사건은 신청 상병에 대하여 2018. 2. 28. 치료 종결하였고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업무상 사고의 예로,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법36조제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한 동료와 다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동료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툼의 상황과 경위 등이 1심 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이 되고, 다툼 상황과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과 동료와의 다툼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아울러 이 사건은 동일 재해로 최초 요양 신청이 다시 접수된 사건으로, 신청 상병에 대하여 2018. 2. 28. 치료 종결하였고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 또는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

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6장 수급권자

[2023-2082 기각]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30.)

사건의 쟁점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재해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도 ○○시로 전입하여 △△에 사는 청구인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청구인 중 일부는 귀금속과 컴퓨터 주변기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소득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근로자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 및 용도는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2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재해근로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재결 제2082호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A, B(재해근로자의 부모)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해근로자

성 명 고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3. 1.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부모로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2023. 1. 26. 유족보상일시

금을 받은 후,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이 아닌 유족보상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2. 2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사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3. 5.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은 재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으로 볼 수 없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7. 31. 입사하여, 2019. 9월 ○○도 ○○시로 전입하여 △△에 사는 청구인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다.

2) 청구인 A는 귀금속 및 컴퓨터 주변기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 운영 소득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재해근로자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 여부 및 용도는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재해근로자의 부모이고, 19○○년생으로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모두 60세 이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다.

1) 재해근로자와 청구인들은 2012. 7. 31.부터 △△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 재해근로자가 2018. 7. 31. ○○○○공사 수도권 광역본부 ○○역 역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취업을 이유로 ○○시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게 되었다.

2) 청구인 A는 귀금속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나 소득금액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경영이 악화하여 소득이 전혀 없어 아들인 재해근로자의 금전적인 지원 없이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 B 또한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역시 재해근로자의 금전적 지원 없이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청구인들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한 달 생활비를 약 10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하였고, 이러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은 재해근로자가 보내오는 용돈으로 충당하였으며, 신발, 의료, 생수 및 기타 생필품도 재해근로자가 보내주는 물품으로 소비하였다.

4) 재해근로자는 2019. 2. 8.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계좌를 통해 입금해주었고, 2019. 12. 15.부터는 거의 매달 △△에 내려와 청구인들에게 생활비를 직접 전달하고 갔다. 생수도 매번 정기배송으로 청구인들에게 전달 하였고, 청구인들이 평소 외식을 잘 안 하다 보니 재해근로자는 △△에 내려올 때마다 외식하였다. 청구인들의 휴대폰 요금도 재해근로자가 매번 보내주는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절약할 수 있었고,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도 재해근로자가 대표로 구독하여 청구인이 같이 이용하였다. 2022. 8월에는 재해근로자가 에어컨을 새로 구매하여 설치해주었고, 청구인들이 기존에 타고 다니던 오래된 경유차는 타고 다닐 수 없다는 △△시 정책으로 인해 폐차하고 재해근로자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K3 차를 넘겨받았다.

5) 청구인들은 재해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재해근로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충족하였고, 소득요건에 있어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업 소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소득도 없어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재산요건에 있어서도 소유 중인 아파트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재해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6) 이렇게 재해근로자는 취업을 이유로 직장근거지로 이사를 오면서 청구인들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해근로자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생활용품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 해당한다.

다. 심사기관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심사기관은 청구인 자신의 사업 운영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경영이 악화하여 청구인 A는 전혀 소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 B는 전업주부여서 소득이 전혀 없는데, 심사기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 자신의 사업 운영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였다.

2)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실제 지급 여부 및 용도는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 금액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19. 2. 8.부터 같은 해 7. 30. 까지 재해근로자가 청구인들에게 생활비를 계좌를 통해 입금해 준 사실이 있고, 어른들에게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에 내려와서 청구인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현금 봉투 사진도 증거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해근로자에게 의존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3) 청구인들은 사업소득이 전혀 없고, 기타 다른 소득도 없어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고 있고, 재산요건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심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은 모두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신청서 및 시체검안서 등에서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사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최초요양신청서 상 재해경위
 - 상병명: 다발성 골절 및 좌상
 - 재해경위: 재해자는 ○○○○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소속 수송역무원이며 2022. 11. 5.(토) 20:21경 시멘트기지 선로에서 고인이 ○○선에 위치한 벌크화차를 ◇◇선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입환 작업 중 벌크화차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 시체검안서(○○전문병원, 2022. 11. 6.)
 - 사망일자: 2020. 11. 5. 20시 30분 이전
 - 사망 장소: 경기 ○○시 ○○로 ○○○(남부화물기지선) ○○역 역내 선로상
 - 사망의 종류: 교통사고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증, 외상성
(다) 선행사인: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나. 이 사건 유족급여 청구 관련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8. 7. 31.

※ 입사와 동시에 ○○역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사고 시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 직종: 외근수송직

2) 재해발생 경위: 2022. 11. 5.(토) 20:21경 경기도 ○○시 소재 ○○역 내 시멘트기지 선로에서 ○○○○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역 소속 수송역무원인 재해자가 ○○선에 위치한 벌크화차 12량(공차)을 ◇◇선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입환 작업 중 ◇◇선으로 이동해야할 벌크화차가 기존에 정차해 있던 ○○선으로 재 진입되면서 ○○선으로 따라 이동하던 재해자와 충돌하여 재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3) 유족급여 수급권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부모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사망당시연령 |
|----|----|-------------|---------------|--------|
| 부 | A | 19○○. ○. ○. | ○○시 ○○구 ○○아파트 | 60세 |
| 모 | B | 19○○. ○. ○. | | 61세 |

○ 주민등록 및 동일세대(동거) 여부: 비동거

※ 재해근로자의 주민등록표 확인

| 연번 | 주소 | 전입일 |
|----|------------|--------------|
| 1 | ○○ ○○시 ○○구 | 2019. 9. 25. |
| 2 | ○○ ○○시 △△구 | 2020. 6. 26. |

○ 생활비 전달내역

- 계좌이체: 2019. 2. 8.~2019. 7. 30. 4차례 고인이 청구인에게 이체
- 현금: 2019. 12. 25.~2022. 9. 30. 월 30~150만 원 사이의 금액 현금 전달 주장함

○ 재해근로자 부친의 사업자등록

- 상호: ○○○○○○
- 사업주명: A
- 개업년월일: 1999. 12. 17.
- 소재지: ○○광역시 ○○구
- 사업의 종류: 도·소매/ 귀금속, 컴퓨터 주변기기

○ 소득금액증명

| 연도 | 종합과세 | |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2018년도 | 27,742,905원 | -4,761,265원 |
| 2019년도 | 28,303,749원 | -2,081,145원 |
| 2020년도 | 12,070,038원 | -4,936,575원 |
| 2021년도 | 12,453,532원 | -4,311,923원 |

4) 원처분기관 조사자 의견

동 사건의 경우 ① 고인이 2018년 7월 ○○도 □□시에 소재한 ○○○○공사(○○역)에 취업하면서 청구인과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고, 2019년 9월 ○○도 ○○시로 전입하여 △△에서 살고 있는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던 점, ② 청구인은 고인의 부모로서 결혼 이후 생활·경제상의 공동체를 이루어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도 금 매입 및 컴퓨터 주변기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청구인의 주장은 고인이 청구인에게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설령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고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고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인 2인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함

다. 심사기관의 담당 심사장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에게 이체한 내역(재해근로자 계좌)

| 일자 | 적요 | 출금액 | 입금액 |
|------------|----|-----|-----------|
| 2019-03-14 | A | 0 | 1,000,000 |
| 2020-11-25 | A | 0 | 5,000,000 |
| 2020-12-26 | A | 0 | 5,000,000 |

2) 청구인 유선 확인

-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에게 이체한 내역에 대해 확인한바, 2019년 내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2020년에는 재해근로자가 차를 구매하며 목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여 이체해준 것임
- 재해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계좌로 이체하다가 현금으로 전달하게 된 이유는 어른에게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재해근로자가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직접 부산에 내려와서 청구인에게 전달했다고 함

라. 심사기관은 청구인들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근로자는 ○○○○에 2018. 7. 31. 입사하여, 2019년 9월 ○○도 ○○시로 전입하여 △△에 살고 있는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청구인은 귀금속 및 컴퓨터 주변기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소득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근로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여부 및 용도는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 2인에게 유족보상 일시금을 균등분할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재해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7. 31. 입사하고, 2019. 9월 ○○도 ○○시로 전입하여 △△에 사는 청구인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청구인들은 귀금속 및 컴퓨터 주변기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근로자가 청구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金的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
| 유족보상연금 | <p>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1. 기본금액</p> <p>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p> <p>2. 가산금액</p> <p>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제7장 청구인적격

[2022-2940 기각] 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2. 9.)

사건의 쟁점

근로자가 아닌 법인에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에게 근무 과정에서 외부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초 대학 병원에서 MRI 진단 결과 산업재해 승인 결과 수준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요양 기간도 타당한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소속 사업주로서 관련 규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법인으로서 관련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제심사 청구는 당사 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청구이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2재결 제2940호 최초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주식회사

대리인 ○○○

재해근로자

성 명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2. 21.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최초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으로서, 원처분기관이 2022. 2. 21.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요양 승인하자,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 과정에서 외부적 사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 12.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사기관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2. 5. 23. 심사 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6.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2. 2. 21. 재해근로자에게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1) 요양 급여신청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바 재해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영상을 포함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2022. 2. 28.까지 요양 기간도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로서 관련 규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근무 과정에서 외부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초 대학병원에서 MRI 진단 결과 산업재해 승인 결과 수준의 소견이 없었다.

나. 재해근로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해서 다리와 무릎의 진료를 받았고, 1차 진단과 2차 진단 사이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증상과 진단 결과가 악화하였다.

다. 청구인은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도 ○○군에 소재한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체이고, 재해근로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2. 20.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슬부 염좌, 좌측 외측 측부인대파열’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요양급여 신청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바, 재해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2. 2. 21. 재해근로자에게 최초 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2. 7. 원처분기관에 재해근로자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 2. 7. 보험가입자 의견서 〉

○ 청구인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 | | |
|------------------------|---------------|-----------------|
| 채용 일자: 2000년 8월 21일 | 국적: 대한민국 | 직종: 서비스업(카지노) |
| 출근 시간: 16:00 | 퇴근 시간: 00:00 | 작업 개시 시간: 16:00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 형태: 정규직 | |
|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 사업주 여부: 해당 없음 | |
| | 친인척 여부: 해당 없음 | |
| 담당업무: 카지노 영업지원(카지노회계팀) | 임금: 별도 제출 | |
| 재해 발생 이후 근무 이력: 별도 제출 | | |

- 귀사는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오**
- 위 질문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 ※ 별도 제출

[첨부]

사유

- 청구인은 요양급여 신청서의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에 알린 사실이 없으며, 해당 내용의 사실적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목격자나 영상이 없습니다.
- **청구인이 최초 소속 부서로 알린 재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의 재해 경위와 상이하며**, 최초 청구인이 알린 재해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 확인 및 관리감독자 진술 확인 결과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으로 근로 중 부상 사고로 판단 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당사는 귀 기관이 사고조사와 동영상 확인 등 사고 발생 가능성과 청구인의 병력 등 객관적 자료 확인을 통한 명확한 요양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라.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22. 2. 21.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최초요양 승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해 4.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심사기관은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2021. 12. 20. 재해근로자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97조는 심사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는 근무 과정에서 외부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초 대학병원에서 MRI 진단 결과 산업재해 승인 결과 수준의 소견이 없었으므로, 재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인으로서 관련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사기관이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각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 (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2022. 1. 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① 공단은 심사 청구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 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2023-1815 기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결일: 2023. 8. 17.)

사건의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가족 경영 사업장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업주의 부, 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들을 포함하면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양돈) 사업장으로 사업주의 부모와 배우자를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재결의 요지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될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이었고, 농업(양돈)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가족 경영으로서 사업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사업주의 부모가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23제결 제181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성 명 ○○○

대리인 공인노무사 ○○○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2. 11.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25.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수부 압궐 손상, 우측 수부 탈 장갑 손상, 우측 제1수지 완전절단(개방성 골절 포함), 우측 제2, 3, 4, 5수지 근위지 개방성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개방성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2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2. 11. 8.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3. 4. 21.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2.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농업으로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1. 8.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의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양돈) 사업장으로, 사업주 부모의 경우 2020년 12월까지 농장에서 상주하며 농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농장 내 건물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부친 소유로 확인되며,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고 업무 내용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업주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 이외에 대출금과 이자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사업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부모와 배우자를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가. 사업자등록을 사업주가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사업주로 등록한 이유는 사업주의 신용 상태가 향후 불량해져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이고, 사업주만 바뀌었을 뿐 농장 일은 이전과 달라짐 없이 똑같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주는 처자식과 함께 ○○의 아파트에 살았고, 부모는 농장에서 기거하여 부모와 생활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모친에게는 생계비로 월 150만 원, 부친에게는 100만 원 외의 대출금의 이자조로 기십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같은 지붕 아래 살거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었더라도 부양 관계없이 별개의 생활 기반으로 각기 살고 있다면 동거의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1) 사업주의 부모는 다년간 축산을 경영한 숙련공이고, 사업주가 자신의 경영 미숙을 보완하고자 초빙한 것이고 사업주가 전문가를 곁에 두고 그의 지도하에 경영 수업을 받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2) 또한 사업주는 부모의 노동력을 받는 대가로 매월 고정된 월급을 송금하였고, 그 돈으로 부모가 생계를 이어갔으며, 부모는 농장에 기거하며 필요할 때 즉시 농장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농장 일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휴게와 휴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모친은 분만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부친은 농장의 경영을 총괄하며 양돈업에 따른 행정업무를 하였다.

3) 또한 부모는 돼지 농장인 주거시설에서 살았고 사업주는 3명의 가족과 아파트에 살았으므로 생활근거지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원처분기관이 농장 인원을 3명이라 인정한 최초의 날 2016. 4.부터 그렇지 않으면 4명이라 인정한 2019. 4.부터 농장은 산재보험 강제 적용사업이 되었고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강제가입 사업이 강제가입이 아닌 사업이 되었을 때부터 의제 가입 사업으로 본다고 하므로 농장은 의제 가입 사업 중인 때인 2022. 8. 25.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것이다.

4) 행정해석에 따르면 동거의 친족 외의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때의 동거 친족은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사업주의 부모가 동거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총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아니면 동 해석에 의하면 총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니 노동부에서 이 실수를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2. 8. 25.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퇴비사 분노 고액 분리 작업에서 2차 드럼 이물질 제거 작업 중 기계에 우측 수부 수상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내용

- 청구인은 2021. 12.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비육 사육관리, 백신 접종, 전반적인 사양관리 업무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옥○○, 서○○
- 소재지: ○○도 ○○군 ○○면 ○○4길 ○-○○
- 업종 및 업태: 축산업, 양돈업
- 개업 일자: 2011. 7. 5.

다. 원처분기관이 산재보험 적용 여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 축산업(양돈업)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옥○○와 배우자인 서○○으로 확인되며, 옥○○는 부친인 옥△△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2011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함

□ 건물 소유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사업장 내 대다수 건물의 소유자는 옥○○의 부친 옥△△으로 확인됨. 일부 건물의 소유자는 현 사업주인 옥○○로 되어 있음(제A동호는 옥△△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제B동호는 옥○○로 보존등기 되어 있음)

□ 근로자현황

-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다이어리, 달력 등에 따르면 사업 개시 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계좌이체 내역, 달력에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는 아래 '사업 개시 이후 상시근로자 근무 현황'과 같으며, 일부 달력에서만 확인되는 월급 내역이 있으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음

※ 사업 개시 이후 상시근로자 근무 현황

| 이름 | 입사일 | 퇴사일 | 급여 | 근무시간 | 업무 내용 | 자료 |
|-----------------------|-----------|------------------|-----------|------|-------------------|-----------|
| 정○희 외 1명(부부) | 2010. | 2016. 12.. | 2,900,000 | 8시간 | 임신, 비육 관리, 청소 | 계좌이체 |
| 최씨 | 2016. 5. | 2016. 7. | 1,700,000 | - | - | 달 력 |
| 이○희 | 2016. 9. | 2017. 2. | 1,500,000 | 8시간 | 비육사 관리 | 계좌이체, 현 금 |
| 왕○해, 중○흥(부부) | 2017. 7. | 2019. 7. | 4,000,000 | 8시간 | 사양관리(임신, 분만, 비육사) | 계좌이체 |
| 손○영 | 2017. 8. | 2020. 11. | 1,900,000 | 8시간 | 임신사 관리, 청소 | 계좌이체 |
| XU ○○○○○○ | 2019. 4. | 2019. 12. | 1,700,000 | 8시간 | 임신사 관리 | 계좌이체 |
| 황○충, ZHAN ○○○○○○ (부부) | 2019. 9. | 2021. 9. | 5,900,000 | 8시간 | 일괄 전체 관리, 분만사 | 달 력 |
| 황○○ | 2021. 10. | | 2,500,000 | - | - | 달 력 |
| 장○○ | 2021. 7. | | 2,500,000 | 8시간 | 비육사 관리 | 계좌이체 |
| ○○○(재해자) | 2021. 12. | 2022. 8. 25. 재해일 | 3,000,000 | 8시간 | 임신, 비육, 백신 관리 | 계좌이체 |
| 오○○ | 2022. 10. | | 2,800,000 | - | | 달 력 |

- 사업주의 부친(옥△△), 모친(문○○)가 농장 일을 수행하며 각 월 100만원, 150만원 가량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타 근로자들과 달리 농장에 상주하면서 36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 별도 정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농장 건물의 대부분이 부친(옥△△)의 명의로 되어 있고, 정해진 금액 외 부모님 명의의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바, 사업주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보수 신고 현황

- 국세청 신고 기준(매출액 20억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신고 내역 없음

□ 조사 결과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

라. 원처분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옥○○의 부·모·배우자는 제외

| 구분 | 2016년 | | | | | | | | | | | | 2017년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상시 근로자 수 | - | - | - | 2 | 3 | 3 | 3 | 2 | 3 | 3 | 3 | 3 | 1 | 1 | 0 | 0 | 0 | 0 | 2 | 3 | 3 | 3 | 3 | 3 |
| 구분 | 2018년 | | | | | | | | | | | | 2019년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상시 근로자수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4 | 4 | 4 | 4 | 2 | 4 | 4 | 4 | 4 |
| 구분 | 2020년 | | | | | | | | | | | | 2021년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상시 근로자수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2 | 2 | 2 | 2 | 2 | 2 | 2 | 3 | 3 | 3 | 2 | 2 | 3 |
| 구분 | 202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상시 근로자수 | 3 | 3 | 3 | 3 | 3 | 3 | 3 | 3 | 2 | 3 | - | - | | | | | | | | | | | | |

마.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와 출장 복명서에서 확인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옥○○ 부모의 근무 형태

- 동거 여부: 동거(21년부터 비동거)
- 채용일·채용 경위
 - 2011년, 농장 사업승계로 인해 인원 부족과 가족 경영으로 채용함
 - 사업을 사업주에게 물려 준 후 2020. 12월까지 농장 일을 수행, 2021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근로일 및 근로시간: 상주하여 365일 근로, 정해진 근로시간 없음
 - 일반 근로자들은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부모님은 농장에 상주하면서 36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 별도 정한 바 없음
- 임금수준 및 담당업무
 - 부: 월급 100만원, 은행 업무, 농장 외부 관리, 사육 사양관리
 - 모: 월급 150만원, 분만실 업무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작성하지 않음
- 근로소득 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음(매출액 기준 이하라 신고 대상 아님)
- 업무수행 시 필요한 물품 소유권: 사료빈, 냉장고 등 사업주 소유
- 급여 외 금전을 주고받은 이유:
 - 부: 사업 대출금 및 이자
 - 모: 어머니 금융기관의 개인 대출금 이자 상환 및 원금상환

바.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도착: 2022. 8. 25. 11:40
- 병원 도착: 2022. 8. 25. 13:37
- 환자 발생유형: 사고부상
- 구급대원 평가소견: 손이 기계에 끼었다고 119 신고건, 현장 도착한바, 환자 기계에 끼어있고 의식 명료한 상태, 10:50쯤에 손이 끼었다고 함. 기계는 롤러로 압착하는 기계임. 약 40분가량 구조작업 후 환자 구조 완료함. 환자 우측 손 경중상으로 손가락뼈와 근육, 인대 등 다 보이는 상태 환부가 매우 더러워 세척 후 상처 드레싱 실시함. 우측 손 고정 조치 후 환자 병원 이송 실시함

사. 청구인의 2022. 8. 25. 자 ○○병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p>< Patient's Chart ></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 rt hand degloving inj - thumb amp, 3f crushing, 기계 압착 손상○ P/I: adm op○ ROS: adm op |
|----------------------------------|---|

| | |
|-------------------------|--|
| < Operation Record > | ○ Date of Operation: 2022. 8. 25. ○ Preoperative Diagnosis: right thumb crushing avulsion amputated hand degloving & multiple fracture ○ Name of Operation: replantation debridment & suture ○ Anesth Method: BPB < Op. Findings and Procedures > ○ thumb replantation: A1 & V2 anastomosis, bone if ○ hand & 2, 3, 4, 5th finger: debridment & suture |
|-------------------------|--|

6. 의학적 소견

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2022. 9. 20. 자 ○○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병 명: 우측 수부 압괴 손상, 우측 수부 탈장갑 손상, 우측 제1수지 완전절단 (개방성 골절 포함), 우측 제2, 3, 4, 5 수지 근위지 개방성 골절, 우측 제5 중수골 개방성 골절
- 본원에 최초 도착 일시: 2022. 8. 25.
- 재해 경위: 기계에 손상, 업무 중 기계에 우측 수부 수상 당하여 119타고 본원 내원함
- 호소하는 증상: 우측 수부통증 호소함
- 소견: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119타고, 2022. 8. 25. 본원 내원하여 초진 및 검사 시행 후 입원. 2022. 8. 25. 재접합술, 창상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2022. 8. 30. 창상 변연절제술, 괴사조직 제거술. 2022. 9. 16. 단단 성형술, 창상 변연절제술 시행. 경과 관찰 이후 피 판술 및 추가 수술 요하여 골유합 도모. 창상 감염예방 및 혈류 개선을 위한 대중 치료 중이나, 염증 병발 가능성 높으므로 감염 및 골수염 병발 시 치료 기간 장기화가 예견되며, 혈액순환 호전되지 못하고 연부 조직 괴사 시 추가 수술(절단술 또는 피판술) 요할 수 있음. 골절부 불유합 또는 골유합 지연할 경우 추가 수술 요할 수 있으며, 골유합 완료되어도 수지관절 및 수 근관절의 기능회복이 우려되고 외상성 관절염 병발 및 동통 잔존할 수 있음. 미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함

나. 심사기관은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양돈) 사업장으로, 사업주 부모의 경우 2020. 12.까지 농장에서 상주하며 농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 농장 내 건물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부친 소유로 확인되고,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고 업무 내용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업주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 이외에 대출금과 이자로 금전을 지급한 점,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사업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의 부모와 배우자를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옥○○의 부, 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소속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사업장 개요를 살펴보면, 사업장 명칭은 ‘○○○○’이고, 대표자는 옥○○, 서○○이며, 2011. 7. 5.을 개업일로 업종 및 업태는 축산업, 양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농장 내 건물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부친 소유로 확인되고, 사업주의 부모와 배우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처분기관의 사고조사에서 청구인과 사업주는 청구인이 2021. 12. 11.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될 당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었었고, 농업(양돈)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가족 경영으로 사업주와 그 배우자 및 사업주의 부모님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부모님과 배우자를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불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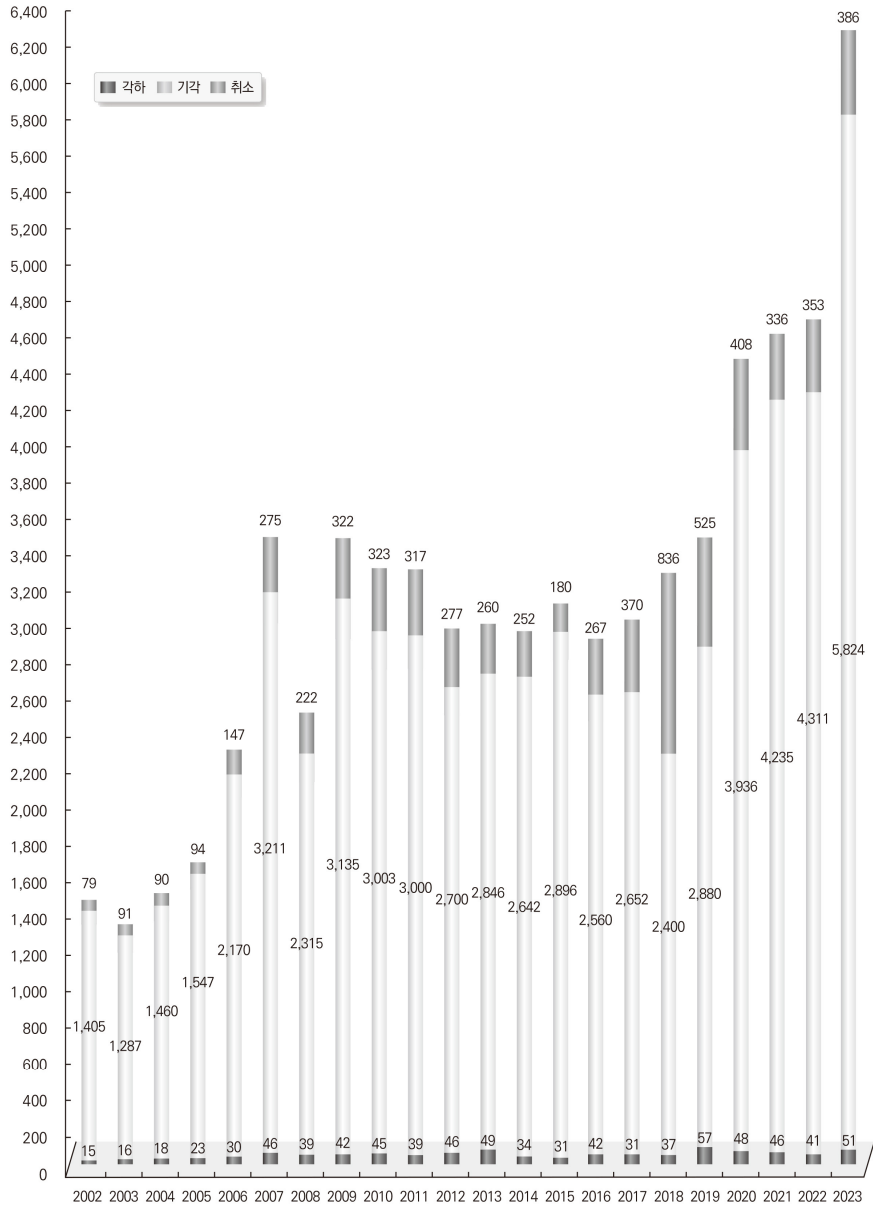
-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재심사청구사건 처리현황 총괄】

| 연도 | 계 | | | | | 요양급여 | | | | | 휴업급여 | | | | |
|------|-------|-------|-----|----|----|-------|-------|-----|----|----|------|----|----|----|----|
| | 총계 | 기각 | 취소 | 각하 | 취하 | 소계 | 기각 | 취소 | 각하 | 취하 | 소계 | 기각 | 취소 | 각하 | 취하 |
| 1974 | 74 | 29 | 42 | 3 | 0 | 15 | 5 | 9 | 1 | | 3 | | 2 | 1 | |
| 1975 | 75 | 37 | 32 | 6 | 0 | 18 | 9 | 9 | | | 1 | | 1 | | |
| 1976 | 114 | 62 | 50 | 2 | 0 | 20 | 8 | 11 | 1 | | 2 | 1 | 1 | | |
| 1977 | 84 | 44 | 39 | 1 | 0 | 7 | 5 | 2 | | | | | | | |
| 1978 | 107 | 76 | 28 | 3 | 0 | 12 | 8 | 4 | | | 1 | 1 | | | |
| 1979 | 143 | 102 | 37 | 4 | 0 | 17 | 12 | 5 | | | 2 | 1 | 1 | | |
| 1980 | 126 | 98 | 20 | 7 | 1 | 18 | 13 | 3 | 1 | 1 | 1 | | | | 1 |
| 1981 | 144 | 100 | 34 | 9 | 1 | 25 | 15 | 8 | 1 | 1 | 4 | 3 | | | 1 |
| 1982 | 217 | 133 | 77 | 7 | 0 | 32 | 19 | 12 | 1 | | 5 | 1 | 4 | | |
| 1983 | 233 | 142 | 83 | 8 | 0 | 54 | 24 | 25 | 5 | | 1 | | 1 | | |
| 1984 | 186 | 142 | 41 | 3 | 0 | 29 | 24 | 5 | | | 3 | 1 | 2 | | |
| 1985 | 212 | 151 | 56 | 5 | 0 | 31 | 15 | 15 | 1 | | 1 | 1 | | | |
| 1986 | 320 | 230 | 83 | 7 | 0 | 77 | 52 | 20 | 5 | | 3 | 2 | 1 | | |
| 1987 | 369 | 255 | 102 | 12 | 0 | 73 | 39 | 28 | 6 | | 8 | 6 | 2 | | |
| 1988 | 406 | 302 | 88 | 15 | 1 | 72 | 47 | 19 | 5 | 1 | 10 | 6 | 2 | | 2 |
| 1989 | 493 | 351 | 113 | 29 | 0 | 96 | 60 | 22 | 14 | | 20 | 13 | 4 | | 3 |
| 1990 | 544 | 439 | 70 | 34 | 1 | 172 | 130 | 17 | 25 | | 8 | 6 | | | 2 |
| 1991 | 712 | 579 | 111 | 22 | 0 | 242 | 195 | 34 | 13 | | 13 | 12 | | | 1 |
| 1992 | 1,191 | 908 | 241 | 42 | 0 | 372 | 290 | 57 | 25 | | 37 | 28 | 6 | | 3 |
| 1993 | 1,547 | 1,287 | 220 | 35 | 5 | 418 | 345 | 50 | 22 | 1 | 31 | 25 | 5 | | 1 |
| 1994 | 1,230 | 927 | 225 | 73 | 5 | 343 | 240 | 71 | 32 | | 30 | 14 | 10 | | 5 |
| 1995 | 1,613 | 1,368 | 194 | 46 | 5 | 448 | 375 | 45 | 27 | 1 | 43 | 30 | 7 | | 6 |
| 1996 | 1,817 | 1,518 | 230 | 68 | 1 | 589 | 477 | 87 | 24 | 1 | 47 | 37 | 5 | | 5 |
| 1997 | 2,338 | 1,952 | 291 | 92 | 3 | 1,004 | 828 | 123 | 51 | 2 | 84 | 64 | 17 | | 3 |
| 1998 | 1,983 | 1,734 | 185 | 58 | 6 | 906 | 785 | 85 | 31 | 5 | 55 | 49 | 4 | | 2 |
| 1999 | 1,724 | 1,428 | 247 | 47 | 2 | 786 | 652 | 105 | 28 | 1 | 44 | 35 | 6 | | 3 |
| 2000 | 1,244 | 1,058 | 137 | 45 | 4 | 674 | 561 | 85 | 27 | 1 | 39 | 25 | 7 | | 6 |
| 2001 | 1,114 | 1,011 | 79 | 24 | 0 | 652 | 585 | 55 | 12 | | 9 | 7 | 1 | | 1 |
| 2002 | 1,501 | 1,405 | 79 | 15 | 2 | 901 | 847 | 46 | 8 | | 15 | 14 | | | 1 |
| 2003 | 1,396 | 1,287 | 91 | 16 | 2 | 895 | 822 | 61 | 11 | 1 | 9 | 7 | 2 | | |
| 2004 | 1,569 | 1,460 | 90 | 18 | 1 | 1,021 | 956 | 53 | 11 | 1 | 17 | 9 | 8 | | |
| 2005 | 1,669 | 1,547 | 94 | 23 | 5 | 1,056 | 987 | 51 | 13 | 5 | 42 | 36 | 6 | | |
| 2006 | 2,369 | 2,170 | 147 | 30 | 22 | 1,517 | 1,384 | 90 | 24 | 19 | 39 | 27 | 10 | | 1 |
| 2007 | 3,532 | 3,211 | 275 | 46 | 0 | 2,333 | 2,110 | 192 | 31 | 0 | 65 | 46 | 19 | | 0 |
| 2008 | 2,587 | 2,315 | 222 | 39 | 11 | 1,722 | 1,541 | 147 | 29 | 5 | 43 | 34 | 9 | | 0 |
| 2009 | 3,503 | 3,135 | 322 | 42 | 4 | 2,470 | 2,214 | 226 | 26 | 4 | 40 | 35 | 5 | | 0 |
| 2010 | 3,379 | 3,003 | 323 | 45 | 8 | 2,335 | 2,063 | 244 | 26 | 2 | 25 | 18 | 7 | | 0 |
| 2011 | 3,365 | 3,000 | 317 | 39 | 9 | 2,320 | 2,074 | 220 | 20 | 6 | 26 | 23 | 3 | | |
| 2012 | 3,037 | 2,700 | 277 | 46 | 14 | 2,013 | 1,791 | 187 | 28 | 7 | 45 | 39 | 5 | | 0 |
| 2013 | 3,164 | 2,846 | 260 | 49 | 9 | 2,200 | 1,970 | 182 | 41 | 7 | 50 | 45 | 5 | | 0 |
| 2014 | 2,940 | 2,642 | 252 | 34 | 12 | 1,950 | 1,752 | 158 | 29 | 11 | 47 | 41 | 6 | | 0 |
| 2015 | 3,118 | 2,896 | 180 | 31 | 11 | 1,990 | 1,856 | 105 | 20 | 9 | 56 | 48 | 8 | | 0 |
| 2016 | 2,877 | 2,560 | 267 | 42 | 8 | 1,728 | 1,553 | 140 | 29 | 6 | 54 | 36 | 15 | | 2 |
| 2017 | 3,053 | 2,652 | 370 | 31 | 0 | 1,622 | 1,443 | 158 | 21 | 0 | 65 | 54 | 10 | | 1 |
| 2018 | 3,305 | 2,400 | 836 | 37 | 32 | 1,650 | 1,455 | 171 | 19 | 5 | 75 | 60 | 14 | | 1 |
| 2019 | 3,490 | 2,880 | 525 | 57 | 28 | 2,020 | 1,803 | 171 | 36 | 10 | 96 | 82 | 11 | | 2 |
| 2020 | 4,419 | 3,936 | 408 | 48 | 27 | 2,795 | 2,520 | 228 | 36 | 11 | 91 | 80 | 9 | | 2 |
| 2021 | 4,617 | 4,235 | 336 | 46 | 20 | 2,804 | 2,553 | 221 | 30 | 14 | 76 | 13 | 62 | | 1 |
| 2022 | 4,705 | 4,311 | 353 | 41 | 16 | 2,709 | 2,470 | 217 | 22 | 11 | 81 | 74 | 7 | | 0 |
| 2023 | 6,261 | 5,824 | 386 | 51 | 0 | 3,675 | 3,402 | 243 | 30 | 0 | 90 | 81 | 8 | | 1 |

| 장애급여 | | | | | 유족급여 | | | | | 상병보상연금 | | | | | 기 타 | | | | |
|-------|-------|-----|----|----|------|-----|-----|----|----|--------|----|----|----|----|-----|-----|-----|----|----|
| 소계 | 기각 | 취소 | 각하 | 취하 | 소계 | 기각 | 취소 | 각하 | 취하 | 소계 | 기각 | 취소 | 각하 | 취하 | 소계 | 기각 | 취소 | 각하 | 취하 |
| 30 | 18 | 11 | 1 | | 26 | 6 | 20 | | | | | | | | | | | | |
| 29 | 17 | 9 | 3 | | 27 | 11 | 13 | 3 | | | | | | | | | | | |
| 63 | 43 | 19 | 1 | | 29 | 10 | 19 | | | | | | | | | | | | |
| 43 | 28 | 14 | 1 | | 34 | 11 | 23 | | | | | | | | | | | | |
| 52 | 44 | 6 | 2 | | 42 | 23 | 18 | 1 | | | | | | | | | | | |
| 87 | 66 | 18 | 3 | | 37 | 23 | 13 | 1 | | | | | | | | | | | |
| 75 | 64 | 7 | 4 | | 32 | 21 | 10 | 1 | | | | | | | | | | | |
| 69 | 55 | 10 | 4 | | 46 | 27 | 16 | 3 | | | | | | | | | | | |
| 122 | 86 | 32 | 4 | | 58 | 27 | 29 | 2 | | | | | | | | | | | |
| 133 | 96 | 34 | 3 | | 45 | 22 | 23 | | | | | | | | | | | | |
| 124 | 98 | 24 | 2 | | 30 | 19 | 10 | 1 | | | | | | | | | | | |
| 141 | 111 | 27 | 3 | | 39 | 24 | 14 | 1 | | | | | | | | | | | |
| 198 | 151 | 45 | 2 | | 42 | 25 | 17 | | | | | | | | | | | | |
| 227 | 174 | 49 | 4 | | 61 | 36 | 23 | 2 | | | | | | | | | | | |
| 254 | 213 | 36 | 5 | | 70 | 36 | 31 | 3 | | | | | | | | | | | |
| 290 | 229 | 55 | 6 | | 87 | 49 | 32 | 6 | | | | | | | | | | | |
| 255 | 229 | 24 | 1 | 1 | 109 | 74 | 29 | 6 | | | | | | | | | | | |
| 331 | 258 | 68 | 5 | | 126 | 114 | 9 | 3 | | | | | | | | | | | |
| 598 | 440 | 152 | 6 | | 178 | 145 | 25 | 8 | | 6 | 5 | 1 | | | | | | | |
| 846 | 696 | 139 | 7 | 4 | 249 | 218 | 26 | 5 | | 3 | 3 | | | | | | | | |
| 618 | 490 | 110 | 16 | 2 | 227 | 180 | 26 | 19 | 2 | 12 | 3 | 8 | 1 | | | | | | |
| 800 | 686 | 102 | 8 | 4 | 315 | 272 | 38 | 5 | | 7 | 5 | 2 | | | | | | | |
| 669 | 585 | 65 | 19 | | 502 | 411 | 71 | 20 | | 10 | 8 | 2 | | | | | | | |
| 706 | 606 | 78 | 22 | | 540 | 450 | 73 | 16 | 1 | 4 | 4 | | | | | | | | |
| 608 | 533 | 60 | 14 | 1 | 413 | 366 | 36 | 11 | | 1 | 1 | | | | | | | | |
| 521 | 437 | 76 | 8 | | 364 | 296 | 60 | 7 | 1 | 9 | 8 | | 1 | | | | | | |
| 252 | 220 | 28 | 3 | 1 | 255 | 235 | 17 | 2 | 1 | 24 | 17 | | 7 | | | | | | |
| 195 | 186 | 7 | 2 | | 217 | 199 | 13 | 5 | | 41 | 34 | 3 | 4 | | | | | | |
| 249 | 231 | 13 | 4 | 1 | 287 | 270 | 16 | 1 | | | | | | | 49 | 43 | 4 | 2 | |
| 233 | 224 | 5 | 3 | 1 | 226 | 213 | 12 | 1 | | | | | | | 33 | 21 | 11 | 1 | |
| 237 | 226 | 6 | 5 | | 237 | 221 | 16 | | | | | | | | 57 | 48 | 7 | 2 | |
| 261 | 250 | 9 | 2 | | 197 | 187 | 10 | | | | | | | | 113 | 87 | 18 | 8 | |
| 443 | 413 | 26 | 2 | 2 | 285 | 274 | 9 | 2 | | | | | | | 85 | 72 | 12 | 1 | |
| 668 | 620 | 38 | 10 | 0 | 349 | 335 | 11 | 3 | 0 | | | | | | 117 | 100 | 15 | 2 | 0 |
| 429 | 399 | 23 | 6 | 1 | 280 | 258 | 20 | 2 | 0 | | | | | | 113 | 83 | 23 | 2 | 5 |
| 436 | 397 | 29 | 10 | 0 | 418 | 387 | 28 | 3 | 0 | | | | | | 139 | 102 | 34 | 3 | 0 |
| 395 | 350 | 33 | 10 | 2 | 397 | 364 | 23 | 6 | 4 | | | | | | 227 | 208 | 16 | 3 | 0 |
| 455 | 406 | 39 | 9 | 1 | 424 | 390 | 26 | 6 | 2 | | | | | | 140 | 107 | 29 | 4 | |
| 450 | 399 | 36 | 10 | 5 | 366 | 333 | 32 | 0 | 1 | | | | | | 163 | 138 | 17 | 8 | 0 |
| 443 | 397 | 37 | 7 | 2 | 367 | 342 | 25 | | | | | | | | 104 | 92 | 11 | 1 | 0 |
| 482 | 429 | 50 | 2 | 1 | 356 | 330 | 24 | 2 | | | | | | | 105 | 90 | 14 | 1 | |
| 564 | 512 | 43 | 7 | 2 | 362 | 348 | 11 | 3 | | | | | | | 146 | 132 | 13 | 1 | |
| 699 | 623 | 71 | 4 | 1 | 295 | 267 | 26 | 2 | | | | | | | 101 | 81 | 15 | 5 | |
| 931 | 844 | 84 | 3 | 0 | 288 | 257 | 28 | 3 | 0 | | | | | | 147 | 54 | 90 | 3 | 0 |
| 701 | 585 | 81 | 12 | 23 | 256 | 220 | 33 | 2 | 1 | | | | | | 623 | 80 | 537 | 3 | 3 |
| 681 | 596 | 67 | 7 | 11 | 280 | 255 | 20 | 4 | 1 | | | | | | 413 | 144 | 256 | 9 | 4 |
| 715 | 620 | 78 | 6 | 11 | 288 | 252 | 32 | 3 | 1 | | | | | | 530 | 464 | 61 | 1 | 4 |
| 902 | 67 | 824 | 11 | - | 315 | 28 | 287 | 0 | 2 | | | | | | 520 | 7 | 509 | 4 | 4 |
| 1,039 | 947 | 82 | 10 | 2 | 379 | 348 | 26 | 5 | 2 | | | | | | 497 | 472 | 21 | 4 | 0 |
| 1,364 | 1,275 | 73 | 16 | 0 | 443 | 424 | 18 | 1 | 0 | | | | | | 689 | 642 | 44 | 3 | 0 |

【연도별 재결 내용 및 증가 추이】



이 재결사례집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 | | | | |
|-------|-------|-------|-------|-------|-------|
| 위 원 장 | 조 홍 남 | | | | |
| 사무국장 | 공 영 철 | | | | |
| 과 장 | 김 주 실 | 과 장 | 박 재 성 | 과 장 | 김 철 수 |
| 심 사 관 | 장 윤 석 | 심 사 관 | 박 은 실 | 심 사 관 | 정 진 희 |
| 심 사 관 | 전 원 주 | 심 사 관 | 김 성 현 | 심 사 관 | 김 희 경 |
| 심 사 관 | 권 유 정 | 심 사 관 | 서 재 민 | 심 사 관 | 황 수 환 |
| 심 사 관 | 김 옥 경 | 심 사 관 | 박 선 미 | 심 사 관 | 이 탁 현 |
| 심 사 관 | 이 윤 영 | 심 사 관 | 장 희 정 | 심 사 관 | 오 진 아 |
| 심 사 관 | 이 혜 경 | 심 사 관 | 박 상 호 | 심 사 관 | 김 종 인 |
| 심 사 관 | 송 혜 진 | 심 사 관 | 이 지 은 | 심 사 관 | 유 재 숙 |
| 심 사 관 | 이 재 영 | 심 사 관 | 주 형 근 | 심 사 관 | 정 세 환 |
| 심 사 관 | 윤 인 아 | 심 사 관 | 김 정 민 | 심 사 관 | 전 지 현 |
| 심 사 관 | 이 채 림 | 심 사 관 | 권 동 현 | 심 사 관 | 장 지 용 |
| 심 사 관 | 허 찬 희 | 심 사 관 | 표 윤 정 | 심 사 관 | 여 선 경 |
| 심 사 관 | 이 서 우 | 직 원 | 김 유 선 | 직 원 | 김 영 애 |

'23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집

2024 년 9월 인쇄
2024 년 9월 발행

발행처 : 고 용 노 동 부
편 집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TEL: 044-202-8473
인 쇄 : 열 림 기 획(주)
TEL: 044-868-5055

《비매품》